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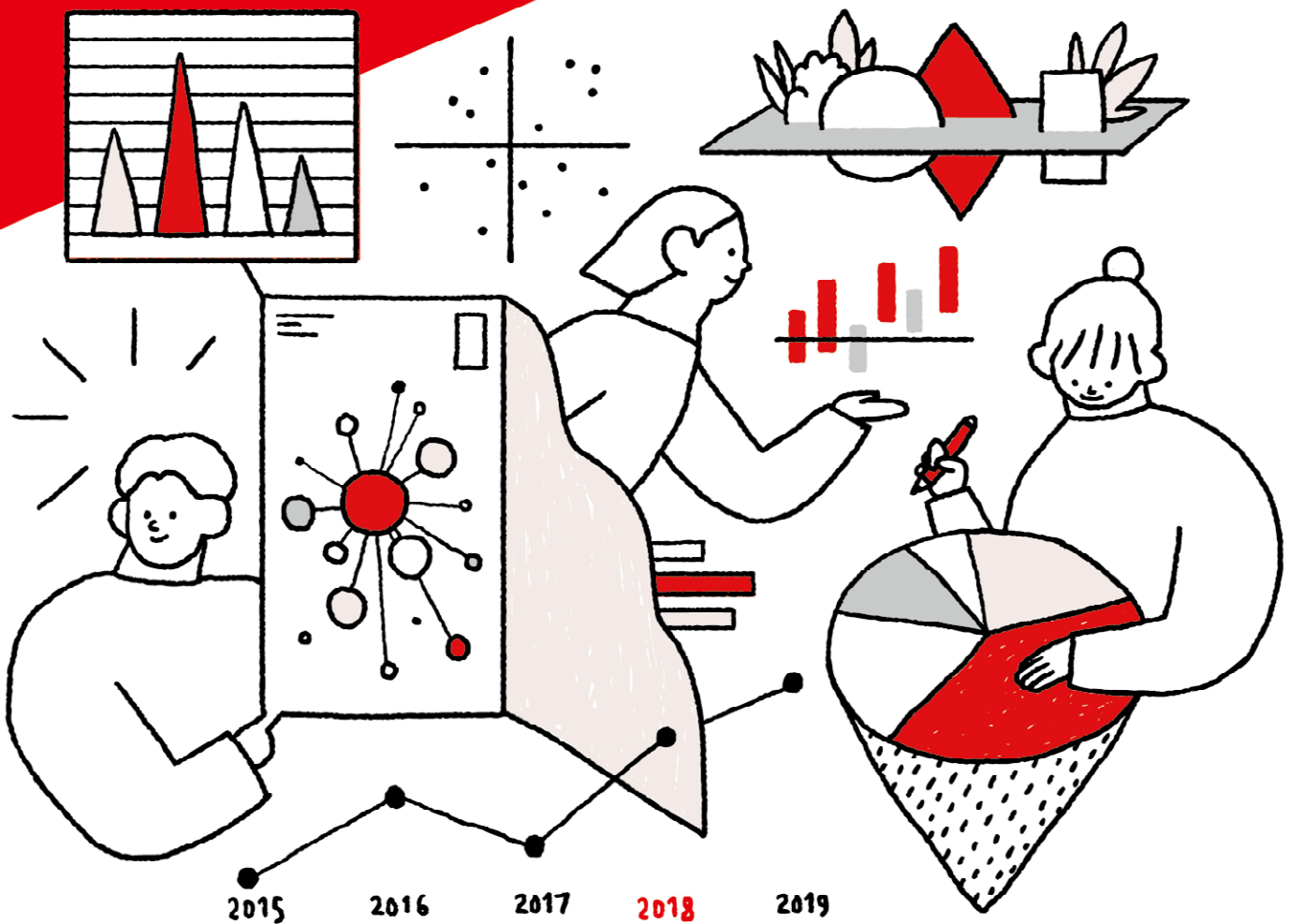
##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018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 총괄보고서



승인번호  
제 115026 호





## 이용자를 위하여

- 본 조사의 기준시점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임.
- 표본추출틀은 통계청의 2016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 중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조사임.
- 본 조사에서 제시된 산업 규모는 모수 추정한 결과임.
- 통계표상의 모든 수치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부항목을 더한 수치와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보고서에 수록된 통계표 중 중복응답 문항은 비율의 합계가 100.0%를 초과함.
-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음.  
[0], [0.0] : 단위 미만
- 본 보고서의 내용을 전재(轉載) 또는 역재(譯載)할 경우에는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보고서 ○쪽에서 전재 또는 역재」 라고 기재하여야 함.



# CONTENTS

## part 1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1
2. 응답자 특성 .....	11

### **제2장 주요 통계**

1. 디자인산업 규모 .....	19
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29
3. 디자인 활용률 .....	30
4.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32

### **제3장 조사결과**

#### **디자인 활용업체**

1. 디자인 활용 현황 .....	37
2. 디자인 투자 관련 .....	42
3. 디자인 역량 .....	48
4. 인력현황 .....	58
5. 기타 .....	60

#### **전문디자인업체**

1. 일반현황 .....	66
2. 재무 및 투자 현황 .....	68
3.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여부 .....	72
4. 인력 현황 .....	74
5. 디자인 재교육 관련 .....	77
6. 고용 인력 관련 .....	81
7. 기타 .....	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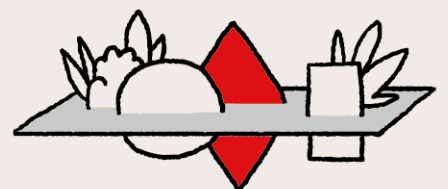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	88
2.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및 인력 현황 .....	89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90
4.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중 .....	90
5.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중복응답 기준) .....	91
5-1.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중복응답 기준) .....	91
6. 공공정책 과정 중 디자인 활용 단계 .....	92
7.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	92
8. 직원 디자인 교육 관련 .....	93

## 디자인관련 고등교육기관

1.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및 학교 현황 .....	97
2. 2018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	99
3. 2018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100



# CONTENTS

## part 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제1장 요약본

1. 디자인산업 규모 .....	109
2. 디자인 인력 .....	113
3. 디자인 역량 .....	114
4. 디자인 활용률 .....	116
5. 디자인 인증 .....	118

### 제2장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

1. 디자인산업 규모 .....	123
2. 디자인 인력 .....	131
3. 디자인 역량 .....	134
4. 디자인 인증 .....	136
5. 디자인 활용률 .....	139
6. 디자인 교육 .....	142

**part 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제1장 일반업체**

1.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	149
2. 디자인 활용 현황 .....	152
3. 디자인 인력 .....	198
4. 디자인 교육 .....	212
5. 디자인 역량 .....	232
6. 기타 .....	251

**제2장 전문디자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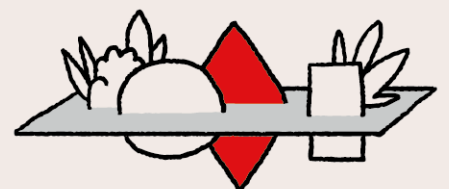
**전문디자인업체**

1. 디자인 활용 현황 .....	281
2. 디자인 인력 .....	329
3. 디자인 교육 .....	346
4. 디자인 역량 .....	370
5. 기타 .....	382

**제3장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1. 디자인 활용 현황 .....	431
2. 디자인 인력 .....	458
3. 디자인 교육 .....	462
4. 기타 .....	481



**제4장 교육통계(문헌조사)**

**교육통계(문헌조사)**

1.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및 학과 현황 ..... 511

2.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 513

**제5장 부록**

1. 표본 설계 ..... 525

2. 조사표 ..... 542



### 1. 한국 디자인산업의 성장성 동향

#### » 개괄

- 2017년 디자인산업 규모는 17조 5,450억 원으로 2016년 16조 9,137억 원 대비 3.7%로 성장하였다. 이는 2017년 우리나라 GDP 성장률 3.1%를 살짝 웃도는 수준이며, 총 GDP 1,730조원의 약 1%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디자인산업 규모가 10.0%, 8.9%, 8.1%의 큰 폭으로 성장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 부문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과 공공부문의 산업 규모는 감소하거나 답보하였고, 일반업체와 전문디자인업체 부문은 완만한 성장을 보인 반면, 프리랜서 부문은 큰 폭으로 성장하여, 전체 디자인산업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2016년도에도 26.0%의 성장률을 보인 프리랜서 부문은 이번 조사에서도 15.0%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전체 산업 규모에서 차지하는 프리랜서 부문의 비중은 6.8%에 불과해 급격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 규모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 » 일반업체

- 일반업체의 산업 규모는 12조 3,490억 원으로 전체 디자인산업 규모의 7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12조 411억 원 대비 2.6% 증가하였다. 디자인 활용업체 수는 125,278개로 2016년 117,934개 대비 6.2% 증가하였으며,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은 9,857만원으로 2016년 1억 210만원보다 3.5% 감소하였다. 2014년 이래 4년간의 추세를 보면 산업 규모와 디자인 활용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즉, 디자인하려는 기업 수는 늘었지만, 디자인 개발비 또는 용역비는 줄어들어온 것이다.
- 일반업체의 산업 규모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소규모 기업일수록 디자인을 많이 활용(자체개발 및 용역 의뢰)하고 그 결과 산업 규모가 커졌다. 대기업은 수가 적어, 디자인을 개발하거나 용역 의뢰하는 경우가 적지만, 디자인 개발 단위당 투자 금액은 큰 반면(소기업 대비 약 14배), 소기업은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이 적은 대신 수많은 업체들이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그리고 중기업과 소기업이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다. 중기업과 소기업에 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디자인 활용업체 수가 적고, 산업 규모와 인력규모도 작으나,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과 재직 디자이너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중기업과 소기업은 그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대기업의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과 산업 규모가 줄어들어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으로서, 이러한 경향은 2016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 디자인 업종별로 비교해보면, 제품 디자인은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과 산업 규모가 크고, 디자인 인프라와 서비스/경험 디자인은 산업 규모와 인력규모가 큰 특성을 보인다. 산업공예 디자인은 거의 모든 기준에서 영세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산업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이어서, 쉽게 바뀌기 어렵다.

- 일반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2016년 2.16명에서 2017년 2.04명으로 감소하였다. 평균 디자이너 수를 디자이너 고용 기업에 한정하여(디자인 활용업체 전체기업 중 약 72%) 산출하더라도 2016년 3.62명에서 2017년 3.09명으로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디자인 활용업체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인력은 255,047명에 달해, 2016년의 254,489명에 비해 미세하게나마 증가하였다. 이를 종합해보면 개별 기업에서의 디자인 부서 직원 수와 디자인 투자 금액은 동반하여 감소하고 있지만, 디자인을 활용하는 기업이 산업계 전반에 걸쳐 늘어남으로써 산업 규모가 완만하게나마 성장하고 있다.

## » 전문디자인업체

- 우리나라의 전문디자인업체 수는 총 5,502개로서 작년 대비 1.4% 늘었다. 분야별로는 시각 디자인이 37.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제품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이 각각 23.6%, 23.2%를 차지했고,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분야가 15.6%로 가장 적었는데, 이러한 업체 수 비율은 2016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업체 수가 미세하게 증가한 반면, 평균 종사자 수와 평균 디자이너 수는 각각 5.36명, 3.39명으로, 2016년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문디자인업체 수의 증가를 상쇄하였다. 그 결과, 전문디자인업체 인력 규모는 종사자 수 기준 29,480명, 디자이너 수 기준 18,645명으로 전년 대비 미세하게 감소하였다. 업체 수는 늘어나고 기업 당 재직자는 줄어드는 현상은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나아가 일반업체의 총 종사자 수도 2016년 34.4명에서 29.0명으로 줄어들어, 디자인산업은 물론 산업계 전반의 경향으로 읽혀진다. 평균 종사자 수와 평균 디자이너 수를 감안하면 전문디자인업체 1개사 당 약 2명 가량의 디자이너 외의 인력이 있다. 특히 인테리어 디자인 업종은 종사자 수(6.16명)와 디자이너 수(3.27명)의 차이가 다른 업종에 비해 커, 디자이너 외의 인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문디자인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6억 4,062만원으로, 직원 1인당 1억 2,000만원 가까운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 규모는 3조 5,247억 원으로, 전체 디자인산업 규모의 20.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 대비 5% 성장하여 디자인산업 전체 성장을 상회하였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인테리어 디자인(9억 6,624만원), 패션/텍스타일 디자인(6억 4,854만원), 제품 디자인(6억 1,302만원), 시각 디자인(4억 5,376만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종사자 수로 나눠 비교해보면, 인테리어 디자인의 1인당 평균 매출액(1.54억 원)은 시각 디자인의 1인당 평균 매출액(0.84억 원)의 2배에 달해 업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시각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는 평균 매출액은 작고, 업체 수와 인력규모는 큰 반면, 인테리어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는 평균 매출액과 산업 규모가 컸다.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는 평균 종사자 수/디자이너 수, 산업 규모, 업체 수 등 여러 기준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였는데, 이러한 양상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 한국 디자인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 공공 부문

- 중앙부처와 지자체 예산 총액은 2,343억 원으로, 2016년의 2,321억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디자인 산업 규모 전체에서 공공부문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지만, 디자인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중, 중앙부처 예산은 739억 원으로 지자체 예산 1,603억 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 인력규모는 총 823명으로 2016년 대비 16.2% 증가하였다. 중앙부처 인원은 71명에서 3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자체 인원이 708명에서 823명으로 크게 늘어, 공공부문 전체 인력규모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인력 규모는 중앙부처에서 줄고 지자체에서 증가한 반면,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늘어나고 지자체에서는 줄어들었다. 중앙부처 디자인전담부서의 직원은 1인당 19억 9,8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다루는 반면 지자체 소속 직원은 그 1/10 수준인 약 2억 원 가량의 예산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프리랜서

- 우리나라 디자인 인력 전체의 16.8%를 담당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2017년 56,004명으로 추산되어, 2016년 47,655명에 비해 17.5% 증가하였다. 산업 규모는 1조 1,895억원으로 2016년 1조 342억원보다 15.0% 증가하였다. 이 수치는 2016년의 성장률 26.0%보다는 둔화된 것이지만, 여전히 프리랜서 산업 규모의 성장이 전체 디자인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프리랜서 산업의 지난 5년간의 성장률 평균은 약 15%에 달했다. 2012년 프리랜서 산업 규모가 약 5,933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 만에 2배로 성장한 것이다. 프리랜서의 지속적인 증가는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 프리랜서는 산업과 경제동향의 변화에 디자인업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다양한 방식의 근로 조건을 포괄할 수 있으며, 회사경영이라는 부담스러운 전공 외 업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프리랜서 디자이너 1인당 임금이 전문디자인업체나 일반업체 디자이너 임금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1 : 1.4 : 1.8로 추산), 대부분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디자인 활용업체-전문디자인업체-프리랜서로 이어지는 재하청 구조의 말단 디자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업무의 전문성이 축적되기 어려운 조건에 놓여있다. 또한, 낮은 고용안정성을 감안하면 프리랜서 인력의 증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만은 없다. 프리랜서가 증가하는 원인은 밀레니엄 세대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근로조건에 대한 선망,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기 쉬운 조직 문화에 대한 거부감, 사무실 및 직원 관리와 회사 운영에 대한 회피 심리, 온라인 툴 및 컴퓨팅 도구, 3D 프린팅 등으로 디지털 노마드 방식의 디자인 진행이 쉬워진 점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직업 안정성이 저하되는 고용 동향, 신규채용을 꺼리는 기업의 고용 정책,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의 결과로 1인 창작자 및 개인 창업자가 늘어나는 현상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프리랜서 디자이너 및 산업 규모의 확대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최소한 규모가 유지될 것



으로 보여, 이들을 위한 디자인지원 정책이나 산업 정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화되고 수평화되는 디자인산업 내 직업문화에서 전문성의 축적을 꾀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 » 고등 교육

- 디자인학과의 교원 임금 추정치와 디자인학과 연구비 추정치의 합으로 산출되는 고등 교육산업의 규모는 2017년 2,476억 원 규모로서, 2016년 2,485억 원 대비 0.4%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6년 2,623명에서 2017년 2,524명으로 교원 수가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교원 수와 함께 학생 수도 줄어, 2018년 학부 및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자수는 22,769명으로 2017년의 24,203명 대비 5.9%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예상된 결과이다. 디자인산업 전체에서 교육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불과해 산업적 의미는 크지 않다.

## 2. 디자인산업의 활용성 동향

### » 디자인 활용률

- 일반업체의 2017년의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은 16.4%로서, 2016년 16.0%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디자인 활용률은 2012년 13.9% 이래 연 평균 14.3%의 활용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점진 상승하는 고무적인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디자인 활용률을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에 한정해 산출한 결과도, 2017년 34.4%로 2016년의 33.6% 대비 상승하였으며, 지난 수년간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산업 중 디자인 활용 비율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52.9%의 활용률을 보였고, 이어서 ‘교육서비스업(대학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제외)’, ‘건설업’ 등이 20%대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다. 활용률이 0%인 분야 중에는 ‘광업’이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과 같은 분야도 있지만, 디자인적 접근이 기대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같은 산업분야도 있어 디자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채로운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일반업체 중 전문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은 42.0%로 2016년 53.0% 대비 크게 하락했다. 2012년 이래 6년간의 통계치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외주 용역 비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반면, 자체 개발은 증가해왔다. 자체 개발 대비 외주 개발 비율은 약 6:4인데, 서비스/경험 디자인 업종은 외주 비율이 73.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반면, 산업공예 디자인 업종은 자체 개발 비율이 89.9%에 달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외주 개발의 경우 해외 업체에 발주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0.1%), 그룹 내 디자인전문 계열사나 프리랜서에게 직접 발주하는 경우 또한 극히 미미하였고(합 1.1%), 절대 다수가 국내 전문디자인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이다(98.9%).

## 한국 디자인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 디자인 활용 분야를 살펴보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항상적으로 1위를 차지하는 시각 디자인(32.5%)의 뒤를 이어, 공간 디자인(17.3%), 제품 디자인(13.9%), 서비스/경험 디자인(12.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2.5%) 순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각 디자인 관련 일거리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이며, 시각 디자인 분야 전문디자인업체 수가 많다는 점과도 관련되어 있다. 기업규모와 분야를 교차해서 살펴보면 대기업이 공간 디자인을 많이 개발/의뢰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 » 투자 및 생산성

- 일반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16억 5,050만원이었으며, 평균 인건비는 18억 9,431만원, 평균 연구개발비 8억 1,953만원, 평균 영업이익 25억 1,081만원,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은 9,857만 원이었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3.8%, 연구개발비 대비 디자인 투자 금액은 12.0%를 차지했다. 일반업체의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 8,547만원, 디자인 용역비 1,280만원, 그 외 디자인 용역비 1,075만원이었으며,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토지/건물, 교육비, 지재산 구입/관리비 등은 100만원 남짓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디자인투자액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용역비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업체당 평균 인건비를 평균 디자이너 수로 나눠 추산한 일반업체 디자이너 1인당 평균 연봉은 2017년 4,190만원으로 2016년의 4,085만원 대비, 2.6%정도 상승하였다.
- 전문디자인업체의 평균 투자 금액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 1억 961만원, 디자인 용역비 1,219만원, 그 외 디자인 용역비(프리랜서, 목업, 인쇄) 1,874만원, 기타 경상비 1,336만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업체와 다르게 토지/건물,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지재산 구입/관리비 항목에서도 각각 499만원, 412만원, 168만원이 투자되어, 컨설팅업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일반업체 보다 많이 투입된다. 또한 디자인 용역비 및 그 외 디자인 용역비가 합계, 3,000만원을 초과하여, 목업제작업체 및 전문디자인업체, 프리랜서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하는 재하청 방식의 디자인 업무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17년 중앙부처의 디자인전담부서 예산은 739억원, 지자체의 해당 예산은 1,603억원으로 총 2,343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었다. 이 예산 중, 용역비를 제외한 예산은 429억 원, 디자인 용역비는 전체 예산의 약 82%에 해당하는 1,913억원에 달한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발주하는 디자인 용역비는 전문디자인업체 총 매출액의 5.4%에 달하여, 전문디자인업체의 성장 기반으로 작용한다.

## 3. 디자인산업 경제성 동향

###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2017년 디자인산업의 경제적 가치는 117조 3,899억 원으로 2016년의 103조 8,436억 원 보다 13.0% 성장하였다.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가운데 디자인 인프라와 서비스/경험 디자인이 전체 경제적 가치 중 33.6%,

29.9%를 차지해 경제적 가치 총액을 견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들 산업의 부가가치율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산업 규모도 크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서비스/경험 디자인은 20.5%, 공간 디자인은 15.6%가 증가한 반면, 시각 디자인은 3.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은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디자인의 가치

-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비교한 결과, 디자인 26.2%, 마케팅 23.5%, 고객 서비스 22.8%, 성능 15.6%, 브랜드 7.1%, 유통 3.2%, 기업 아이덴티티 1.6%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래 3년째 ‘디자인 > 마케팅 > 고객서비스 > 성능’ 순서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디자인 요소의 영향력은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디자인 가치가 다른 요소보다 높이 평가되고 있다. 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은 모든 업종에 걸쳐 고르게 고평가된 가운데, 제품 디자인 업종은 ‘성능’을, 서비스/경험 디자인 업종은 ‘고객서비스’를,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업종은 ‘유통’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었다.
-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만족도 향상’, ‘매출증대’, ‘기업이미지 향상’, ‘제품/브랜드 충성도 상승’이 높게 나타난 반면,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5점 척도 기준 평균값은 3.5로, 2016년 3.3에 비해 상승하였다. 이를 통해 디자인 투자 효과에 대한 일반업체의 기대를 살펴볼 수 있다.

## 4. 국제 교류 부문

### » 수출/수입

- 2017년 디자인 수출액은 약 807억 원으로 추정되어, 수입액 135억 원 대비 6배에 달해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수출액은 2016년 882억 원 보다 8.5% 감소하였고, 수입액은 2016년 103억 원 보다 31.1% 증가하여 다소 둔화되었으나, 디자인산업의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되고 있다. 그 요인으로는 언어를 포함한 국내 디자인컨설팅 시장의 진입장벽과 함께 국내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경쟁력, 중국 등을 비롯한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주변 국가의 경제성장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전문디자인업체의 매출에서 해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며, 이 비율도 2016년 2.7% 대비 소폭 하락한 수준 이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전문디자인업체 중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 중 이거나(8.2%), 계획을 갖고 있는(14.3%) 경우를 합산하면 22.5%에 달해, 매출 성과 대비 해외시장 개척 의지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외 진출에 대한 정책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업종별로는 제품 디자인이, 규모별로는 15인 이상의 전문디자인업체의 해외진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해외 비즈니스 방법

- 전문디자인업체의 해외 비즈니스 방법으로는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55.6%), ‘국내에서 추진’(34.2%),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10.1%), ‘해외 대학과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4.8%), ‘해외 현지의 전문가 활용’(3.5%), ‘해외에 연락사무소 운영’(3.4%)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규모별로 특화된 방법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아, 아직 해외 비즈니스 개척이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향후 일회적 해외진출을 벗어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해외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5. 디자인 인력

### » 인력현황 및 구조

-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업체의 디자인 인원은 평균 3.05명(고용업체 기준)인데, 이를 직급별로 살펴보면 대리 1.3명, 사원 0.9명, 차/과장 0.57명, 부장 0.17명, 상무/이사 0.03명, 사장/부사장은 0.0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가 가장 많고, 상위직급자보다 하위직급자가 점진적으로 많은 구조를 보인다. 반면,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인원은 평균 3.39명(디자이너 수 기준)으로, 사원 0.88명, 차/과장 0.72명, 사장/부사장 0.61명, 대리 0.62명, 부장 0.38명, 상무/이사 0.18명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하위 직급자가 많지만, 사장 비율이 높고, 임원급이나 부장급은 적은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이유는 전문디자인업체의 평균 인원 수가 적어, 대표, 실장, 말단 디자이너로 구성된 단출한 조직일 경우가 많기 때문인 동시에, 일반업체의 용역을 수주하는 소위 ‘을’의 직급체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학력별 구성에 있어서는 일반업체와 전문디자인업체 구분 없이 대졸자가 가장 많고 그 전후로 전문대학-고졸, 석사-박사로 갈수록 인원이 적어지는 전형적인 종형 분포를 보인다. 연령에 있어서는 30대가 가장 많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학력별, 연령별 분포는 우리나라 인구구조 및 학력구조에 따른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양상이며, 단기적으로는 변화하지 않을 구조이다.

### » 인력 채용 및 고용

- 일반업체의 경우 인력채용 경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77.5%), 인력채용 정보회사(49.0%), 지인 소개 및 추천(18.8%), 학교(11.3%), 정부 채용박람회(10.3%), 공공기관(9.5%), 학연 및 지연(5.6%), 동종업계 스카우트(1.9%) 순으로 나타나, 일반업체에 비해 소개 및 연고를 통한 방법보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방법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경력직 스카우트 비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87.3%로 나타나, 구직자에 비해 일반업체가 고용시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인력채용 어려움에 있어서 신규 채용 보다 경력 채용에서 1.6배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는데, 전문디자인업체만큼은 아니지만 경력직 선호 성향과 우수 경력직 디자이너 구인난에서 기인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일반업체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시간 기대 불일치 등으로 나타났다.

- 전문디자인업체 업체의 경우 인력채용 경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62.7%), 지인 소개 및 추천(39.4%), 학  
연 및 지연(20.6%), 인력채용 정보회사(11.5%), 공공기관(8.2%), 학교(7.0%), 동종업계 스카우트(5.2%),  
정부 채용박람회(0.5%)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 인력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40.1%로 2016년 47.4% 대비 감소하여, 기업 입장에서의 구인난은 완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답변 중, 신규 채용 보다 경력 채용의 어려움이 2.5배 더 많아, 기업의 경력  
직 채용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임금/근로시간 기대 불일치 > 경력지원자  
없음 > 학력/자격 갖춘 지원자 없음 순으로 나타나, 채용시장에서 기업의 입장과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구직  
자가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part 1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part1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2. 응답자 특성



## 01.    조사 개요

### 1.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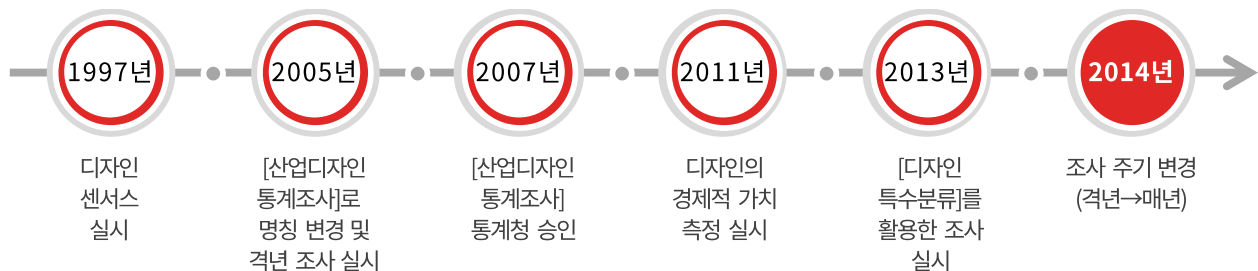
#### 1) 조사 목적

- 디자인산업 현황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여 통계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 산업계, 학계 등의 디자인 정책 및 전략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조사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의 3항 (산업디자인통계의 작성 및 관리)
-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 (제115026호)

#### 3) 조사 연혁






#### 4) 조사 기간

- 조사 기준 시점: 2017. 01. 01 ~ 2017. 12. 31
- 조사 실시 기간: 2018. 08. 20 ~ 2018. 11. 02

#### 5) 조사 범위 및 대상

구분	상세내용
실태조사 영역	<div>• 일반업체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div> <div>• 일반업체 중 디자인 활용업체 조사</div> <div>• 전문디자인업체</div> <div>• 중앙부처 (18부 4처 17청)</div> <div>• 지자체(행정시/자치구)</div>
문헌조사 영역	<div>• 프리랜서 현황</div> <div>•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div>

## 6) 실태조사 영역 조사 개요

구분	 일반업체	 전문디자인업체	 중앙부처 및 지자체
<b>표본추출법</b>	이중추출법(two-phase sampling) 1차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 총화추출/변형제곱근비례배분 2차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 총화추출/변형비례배분	총화추출/ 변형비례배분	전수조사
<b>목표표본수</b>	1차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 10,000개 업체 2차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 1,000개 업체	600개 업체	중앙부처(18부 4처 17청) - 39개 기관 전수 지자체(행정시/자치구) - 243개 기관 전수 지역디자인지원센터
<b>조사표본수</b>	1차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 10,314개 업체 2차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 1,145개 업체	638개 업체	중앙부처(13부 4처 15청) - 32개 기관 지자체(행정시/자치구) - 240개 기관 지역디자인지원센터
<b>응답대상</b>	업체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 디자인 업무 담당자	업체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 실무자	디자인 업무담당 공무원
<b>조사방법</b>	방문조사 및 이메일/팩스/전화조사		

## 7) 조사 항목

구분	조사 항목	
<b>일반업체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12월 기준 디자이너 종사 여부</li> <li>• 최근 2년 이내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인개발 의뢰 경험 여부</li> </ul>	
<b>디자인 활용업체 (일반업체) 실태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 일반 현황</li> <li>• 디자인 투자 실적</li> <li>• 디자인 위상 및 기여도</li> <li>• 정부 정책 및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활용 현황</li> <li>• 디자인 활용 수준</li> <li>• 디자인 인력 현황</li> <li>• 디자인 교육 현황</li> </ul>
<b>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체 일반 현황</li> <li>• 디자인 사업 실적</li> <li>• 디자인 교육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력 디자인 분야 및 인력 현황</li> <li>• 디자인 해외 교류</li> <li>• 정부 정책 및 지원</li> </ul>
<b>중앙부처 및 지자체 실태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활용 현황</li> <li>• 디자인 교육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사업 발주 현황</li> </ul>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리랜서 산업 규모</li> <li>•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 현황</li> <li>•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li> </ul>

## 8) 주요 용어 및 개념

### 일반기업체 및 전문디자인업체

#### (1) 디자인 활용 여부 확인 단계

##### 1단계



2017년 12월 기준 귀 사에는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까?  
시점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면 현재 귀 사에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습니까?

☒ 예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컨택      ☒ 아니오 ▶ 2단계 질문

※ 디자이너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 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이거나,  
디자인 관련 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2단계



최근 2년 이내 귀 사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문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디자인활용업체, 실태조사 컨택      ☒ 아니오 ▶ 3단계 질문

##### 3단계



귀 사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 예 ▶ 4단계 질문      ☒ 아니오 ▶ 조사종료, 디자인비활용업체      **활용여부 조사 종료**

##### 4단계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신제품 디자인 혹은 디자인 변경은  
어떤 방법 (자체, 외주 등)으로 하셨습니까?

☒ 주관식 응답, 응답자의 응답을 듣고 아래 디자인 활용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디자인 활용업체 여부를 판단

####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구분 기준

- 생산물 및 제공서비스에 관련된 디자인 용역(상품 자체 및 포장)
- 생산물의 홍보와 관련된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광고, 팸플릿 제작, 현수막 등
- 회사 CI(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회사 소개와 관련된 광고, 팸플릿 제작, 홈페이지, 인테리어 등 유니폼 제작

### 특이사항

- 건설업: 디자인과 설계를 구분하기 어려움.  
(설계만 하는 경우는 디자인 외주로 보지 않음)설계란 건물의 높이, 형태, 크기와 관련됨.
- 연구소: 보고서 작성 직원 중 제작업무 담당자가 있으나 이들을 디자이너로 호칭하지 않음.  
제작업무 담당자 중 디자인 전공 출신자는 디자이너로 인정
- 디자인은 디자이너에 의해 개발된 디자인만 해당, 경력이 짧은 디자인 비전공자가 기존 디자인을 수정하여 만든 것은 디자인으로 보지 않음.
- 외부 업체에 의뢰한 것은 최근 2년 이내에 의뢰한 것만 해당. 2년 이전에 의뢰한 디자인으로 계속 생산물을 만드는 경우 디자인 외주용역으로 인정 안함.
- 외부 업체는 디자인을 전공한 디자이너가 있는 업체만 해당 가령, 디자이너가 있는 인쇄업체, 출판업체에 의뢰한 경우 디자인 외주로 인정

## » 전문디자인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내 전문디자인업체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체, 제품 디자인업체, 시각 디자인업체,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업체가 해당됨.

## » 기업 형태

### ① 개인사업체

- 법인 없이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개인이 공동 경영하는 사업체도 여기에 포함됨.
- 회사와 제품·상품 등의 판매 계약을 맺고 개인경영주의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대리점, 특약점, 가맹점 등의 개인사업체

### ②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병회사 및 외국회사를 말함.
- 외국회사란 외국(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 설립한 회사를 말하며 주로 국내에 설치된 외국의 지사(점), 영업소 등으로 이루어짐.

### ③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으로서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각종 공사 등을 말함.

### ④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각종 협회, 조합,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등

## » 사업체 구분

### ① 단독사업체(1기업 1사업체)

- 다른 장소에 본사(점) 또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없이 한 장소에 단 하나의 사업체만 있는 경우

### ② 본사(점), 본부, 중앙회(1기업 다사업체)

- 동일한 경영 하에 있는 지사(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1개 이상 거느리며 사업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업체
- 실제로 기획, 회계, 재무, 구매, 광고, 법무 등 총괄적인 관리업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체

### ③ 지사(점), 출장소, 영업장(1기업 다사업체)

- 동일 경영을 총괄하는 본사 등이 별도로 있으면서 그 본사 등으로부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있는 지사(점), 영업장, 출장소 등

## » 종사자

### ① 상용근로자

-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는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 없이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자

###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 업체 규모 구분 방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기업과 소기업을 구분하였고, 그 외 기업은 대기업으로 구분함. 중견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hpe.or.kr/>)에서 제공하는 중견기업 명부를 통해 구분함.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기존 방식으로 종사자 수를 기준으로 구분함.

업종		 중기업	 소기업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조업제외)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조업제외)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차금속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가구 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전기장비 제조업	120~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0~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음료 제조업	120~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0~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담배 제조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제조업제외)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조업제외)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80~1,5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제조업 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건설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광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농/임/어업	80~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운수업	80~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0~8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금융/보험업	80~4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50~1,0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0~8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부동산업/임대업	30~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0~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0~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30~6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10~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0~6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교육서비스업	10~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	10~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0~299인 이하	49인 이하



## » 사업 실적

### ① 매출액

- 2017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 총액

### ② 인건비

- 2017년 1년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총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비용으로 기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 ③ 연구개발비

-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 ④ 영업이익

- 총 매출액에 영업비용을 제외한 이익을 뜻함.

## » 디자인 관련 투자금액 및 사업비

### ① 디자인 인건비

- 2017년 1년간 고용된 디자이너 인건비

### ② 디자인 용역비

- 2017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포함

※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와 그 외 용역비를 구분해 조사함.

### ③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 2017년 구매 디자인 연구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구매 및 관리 비용

### ④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 2017년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 ⑤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 2017년 디자인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유인물비, 비품구입비, 교육비, 출장비 등 기타 경비

## » 디자이너 기준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 디자인 분야

<b>제품 디자인</b>	전기 전자 제품 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 디자인, 생활/환경용품 디자인, 운송기기 디자인, 가구 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b>시각 디자인</b>	편집 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 디자인, 광고 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 디자인	
<b>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b>	영상 디자인, 웹 디자인, 게임 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b>공간 디자인</b>	건축 디자인, 인테리어장식 디자인, 전시 및 무대 디자인, 인테리어 자재 디자인, 익스테리어 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 디자인, 리모델링 디자인, 건설환경 디자인, 토목환경 디자인, 기타 인테리어 디자인	
<b>패션/텍스타일 디자인</b>	패션 디자인, 기능성패션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잡화 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 디자인	
<b>서비스/경험 디자인</b>	서비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기타 서비스/경험 디자인 <div><b>서비스 디자인</b>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사용자 중심의 리서치가 강화된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디자인 분야</div>	
<b>산업공예 디자인</b>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b>디자인 인프라(디자인 기반 기술)</b>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 디자인 서비스	

## » 출원/등록 구분

### ① 출원

- 산업재산권의 등록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해 법률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말함.

### ② 등록

- 출원된 서류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법률에서 요구하는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심사하여 이를 만족한 경우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함.

## » GD(Good Design)마크

- 우수산업디자인(GD)상품 선정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현재 국내외에서 판매중이거나 판매 예정인 상품을 대상으로 조형성, 경제성, 편리성 등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평가해 선정된 제품에 대해 정부에서 우수디자인상품임을 인증하여 GD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임.

## » 디자인표준계약서

- 디자인표준계약서는 디자인 개발 영역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6월에 고시한 계약서 양식임. 종류로는 시각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가 있음.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 디자인 구분

#### 공간

##### 도시 기반시설

-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투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발전소 등

##### 건축 및 실내환경

-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의료시설, 보육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실,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 시설물

### 보행 및 운송시설물

- 보행신호등, 횡단, 방음벽, 볼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 편의시설물

- 벤치, 의자, 쉼터,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 관리시설물

-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 정보시설물

-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습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 행정시설물

-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 이미지

### 정보매체

-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 상징매체

- 국가 및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 환경연출

-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 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 도시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

-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 2. 응답자 특성

### 1) 일반업체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활용 여부 조사 완료	
		사례수	%
전체		10,314	100.0
권역별	서울	2,975	28.8
	경기	2,681	26.0
	부산/울산/경남	1,306	12.7
	대전/세종/충청	993	9.6
	대구/경북	887	8.6
	광주/전라	682	6.6
	인천	504	4.9
	강원/제주	286	2.8
업종별	제품 디자인	2,197	21.3
	시각 디자인	915	8.9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20	5.0
	공간 디자인	2,383	23.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16	6.9
	서비스/경험 디자인	1,225	11.9
	산업공예 디자인	795	7.7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563	15.2
규모별	소기업	6,580	63.8
	중기업	2,452	23.8
	중견기업	649	6.3
	대기업	633	6.1

## 2) 일반업체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 »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실태조사 조사 완료	
		사례수	%
전체		1,145	100.0
권역별	서울	372	32.5
	경기	287	25.1
	부산/울산/경남	121	10.6
	대전/세종/충청	107	9.3
	대구/경북	104	9.1
	광주/전라	70	6.1
	인천	50	4.4
	강원/제주	34	3.0
업종별	제품 디자인	229	20.0
	시각 디자인	137	12.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85	7.4
	공간 디자인	209	18.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6	7.5
	서비스/경험 디자인	157	13.7
	산업공예 디자인	92	8.0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50	13.1
종사자수	소기업	702	61.3
	중기업	272	23.8
	중견기업	73	6.4
	대기업	98	8.6
고용	디자이너 고용	824	72.0
	디자이너 비고용	321	28.0
외주	디자인 외주 있음	481	42.0
	디자인 외주 없음	664	58.0

### 3) 전문디자인업체

#### »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실태조사 조사 완료	
		사례수	%
전체		638	100.0
권역별	서울	369	57.8
	경기	66	10.3
	부산/울산/경남	53	8.3
	대구/경북	53	8.3
	광주/전라	52	8.2
	대전/충청	23	3.6
	강원/제주	16	2.5
	인천	6	0.9
업종별	제품 디자인	179	28.1
	시각 디자인	199	31.2
	인테리어 디자인	142	22.3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18	18.5
규모별	1인	68	10.7
	2-4인	235	36.8
	5~9인	198	31.0
	10~19인	60	9.4
	20인 이상	77	12.1
유형	개인사업체	335	52.5
	회사법인	301	47.2
	회사이외 법인	2	0.3
	비법인단체	0	0.0

#### 4) 중앙부처

#### » 총 39개 기관 중 32개 기관 조사<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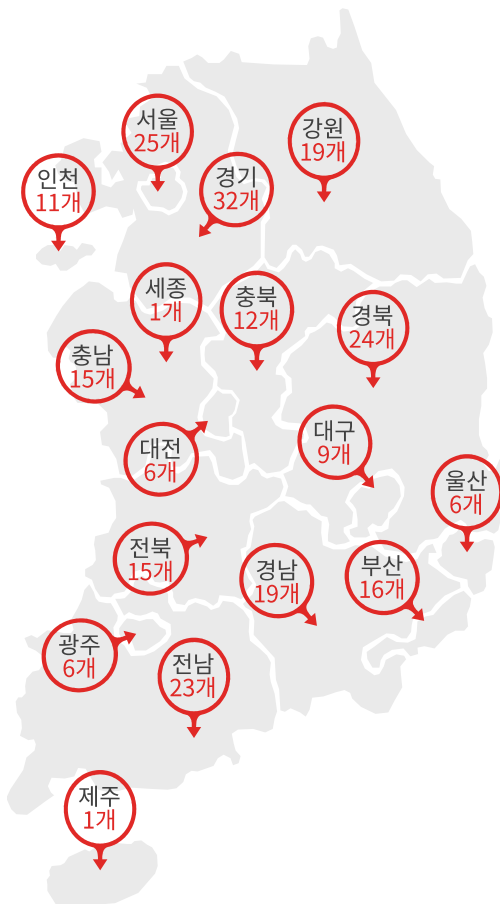
구분	중앙부처
<b>18부</b> (13부 완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b>4처</b> (4처 완료)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b>17청</b> (15청 완료)	경찰청,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5) 지방자치단체

#### »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0개 조사<sup>2)</sup>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조사완료 (2017년) ]

조사완료 수 / 전체 지자체 수



시/도		시군구(행정구/자치구)			계
		시	군	구	
서울	1/1			24/25	25/26
부산	1/1		1/1	14/15	16/17
대구	1/1		1/1	7/7	9/9
인천	1/1		2/2	8/8	11/11
광주	1/1			5/5	6/6
대전	1/1			5/5	6/6
울산	1/1		1/1	4/4	6/6
경기	1/1	28/28	3/3		32/32
강원	1/1	7/7	11/11		19/19
충북	1/1	3/3	8/8		12/12
충남	1/1	8/8	6/7		15/16
세종	1/1				1/1
전북	1/1	6/6	8/8		15/15
전남	1/1	5/5	17/17		23/23
경북	1/1	10/10	13/13		24/24
경남	1/1	8/8	9/9		19/19
제주	1/1				1/1
<b>계</b>	<b>17/17</b>	<b>75/75</b>	<b>81/82</b>	<b>67/69</b>	<b>240/243</b>

1) 검찰청, 국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미응답

2) 서울 구로구, 부산 서구, 충남 서천군 미응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응답이 반영되어 총 분석에는 지방자치단체 241개(시도단위에 포함)로 분석됨.





part1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제 2 장    주요 통계

1. 디자인산업 규모
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3. 디자인 활용률
4.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02. 주요 통계

### 1. 디자인산업 규모

- 2017년 디자인산업 규모는 17조 5,451억 원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투자금액 12조 3,490억 원<sup>3)</sup>, 전문디자인업체의 매출액 3조 5,247억 원<sup>4)</sup>, 공공부문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2,343억 원, 프리랜서 산업 규모 1조 1,895억 원 및 고등 교육 부문 2,476억 원의 합으로 디자인산업 규모를 추정함.

- 2017년 디자인 인력 규모는 333,042명

디자인 인력 규모는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255,047명),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이너 수(18,645명), 공공부문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823명), 프리랜서 수(56,004명), 디자인학과계열 대학교원 수(2,524명)의 합으로 추정함.

#### » 2017년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구분		2016년		2017년	
		디자인산업 규모 (백만 원)	디자인 인력 (명)	디자인산업 규모 (백만 원)	디자인 인력 (명)
실 태 조 사	일반업체	12,041,094	254,489	12,348,980	255,047
	전문디자인업체	3,357,819	18,803 *(29,536)	3,524,707	18,645 *(29,480)
	공공부문 (지자체, 정부부처)	232,050 **(43,120)	708	234,287 **(42,944)	823
소계		15,630,964 **(15,442,034)	273,999 *(284,732)	16,107,975 **(15,916,632)	274,515 *(285,350)
문 헌	프리랜서	1,034,235	47,655	1,189,519	56,004
	고등교육	248,517	2,623	247,577	2,524
총계		16,913,716 **(16,724,786)	324,277 *(335,010)	17,545,071 **(17,353,728)	333,042 *(343,878)

\* 비디자이너 포함 전문디자인업체 총 종사자 수

\*\* 공공부문 디자인 용역비를 제외한 산업 규모

3) 일반업체 산업 규모 : 디자인 활용업체 수(추정치) × 디자인 투자금액 평균(표본조사결과,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제외)

4) 전문디자인업체 산업 규모 : 전문디자인업체 매출액 평균(표본조사결과) × 모집단 수(2016 전국사업체조사 전문디자인업인 업체)

### 1-1) 일반업체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 디자인 활용업체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9,857만원, 산업 규모는 12조 3,490억 원으로 추정됨.

업종별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은 제품 디자인(2억 1,581만원)이 가장 높고, 이어 시각 디자인(1억 6,717만원),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억 3,540만원),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억 686만원), 서비스/경험 디자인(9,429원), 공간 디자인(7,974만원), 디자인 인프라(5,991만원), 산업공예 디자인(5,271만원) 순임.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9억 2,699만원, 중견기업 8억 1,527만원, 중기업 1억 5,082만원, 소기업 6,629만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이 높음.

- 업종별로 산업 규모를 분석해 보면, 제품 디자인(2조 7,909억 원)의 산업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디자인 인프라(2조 4,793억 원), 서비스/경험 디자인(2조 3,245억 원), 공간 디자인(1조 7,826억 원), 시각 디자인(1조 5,006억 원)등의 순으로 높음.

### » 2017년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산업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디자인 활용 업체 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산업 규모	디자인 활용 업체 수	평균 디자인 투자금액	산업 규모	
업종별	제품 디자인	13,535	203.19	2,750,145	12,932	215.81	2,790,891 ▲ 1.5%
	시각 디자인	8,496	164.12	1,394,409	8,976	167.17	1,500,565 ▲ 7.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849	130.34	631,983	4,878	135.40	660,494 ▲ 4.5%
	공간 디자인	18,778	93.69	1,759,323	22,355	79.74	1,782,625 ▲ 1.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019	114.08	572,578	5,137	106.86	548,923 ▼ 4.1%
	서비스/경험 디자인	24,907	93.75	2,335,000	24,652	94.29	2,324,543 ▼ 0.4%
	산업공예 디자인	4,758	52.64	250,438	4,964	52.71	261,664 ▲ 4.5%
	디자인 인프라	37,592	62.44	2,347,218	41,384	59.91	2,479,275 ▲ 5.6%
규모별	소기업	87,729	72.66	6,374,615	97,157	66.29	6,440,795 ▲ 1.0%
	중기업	27,758	135.86	3,771,136	25,797	150.82	3,890,773 ▲ 3.2%
	중견기업	1,373	711.01	976,485	1,221	815.27	995,404 ▲ 1.9%
	대기업	1,073	856.01	918,859	1,103	926.99	1,022,008 ▲ 11.2%
계		117,934	102.10	12,041,094	125,278	98.57	12,348,980 ▲ 2.6%

- 디자인 활용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2.04명으로 2016년(2.16명) 대비 다소 낮음. 디자이너 고용 업체의 평균 디자이너 수는 3.09명(2016년 3.62명)임.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은 255,047명으로 추정됨.
- 업종별 디자인산업 인력은 공간 디자인이 54,227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디자인 인프라(53,598명)가 뒤를 이음.

## » 2017년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고용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	활용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	인력 규모	고용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	활용업체 평균 디자이너 수	인력 규모	
업종별	제품 디자인	5.07	3.22	43,641	5.26	3.19	41,317 ▼ 5.3%
	시각 디자인	3.43	2.32	19,725	2.58	2.35	21,058 ▲ 6.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61	2.32	11,262	2.57	2.51	12,228 ▲ 8.6%
	공간 디자인	2.83	2.81	52,785	3.03	2.43	54,227 ▲ 2.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64	2.74	13,735	3.22	2.56	13,174 ▼ 4.1%
	서비스/경험 디자인	4.01	2.06	51,295	7.31	2.07	50,937 ▼ 0.7%
	산업공예 디자인	4.06	1.79	8,507	1.81	1.71	8,508 ▲ 0.0%
	디자인 인프라	3.45	1.42	53,539	1.84	1.30	53,598 ▲ 0.1%
규모별	소기업	2.76	1.65	144,404	2.26	1.46	141,806 ▼ 1.8%
	중기업	7.06	3.10	86,021	4.62	3.41	87,995 ▲ 2.3%
	중견기업	12.95	8.72	11,976	16.19	10.42	12,727 ▲ 6.3%
	대기업	41.34	11.26	12,087	14.09	11.36	12,519 ▲ 3.6%
계		3.62	2.16	254,489	3.09	2.04	255,047 ▲ 0.2%

## 1-2) 전문디자인업체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 전문디자인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6억 4,062만원(2016년 6억 1,895만원)이며, 전문디자인업체의 산업 규모는 3조 5,247억 원으로 추정됨.  
한편, 전문디자인업체 사업체 수는 5,502개로 2016년(5,425개)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전문디자인업체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살펴보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9억 6,624만원으로 가장 높고, 산업 규모 역시 1조 2,329억 원으로 가장 높음. 다음은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6억 4,854만원), 제품 디자인(6억 1,302만원), 시각 디자인(4억 5,376만원) 순임.
- 전년 대비 산업 규모 증감율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8.2%로 가장 높으며, 이어 시각 디자인(4.7%), 제품 디자인(2.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0%) 순임.

## » 2017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산업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조사모집단 (업체 수)	평균 매출액	산업 규모 (비중)	조사모집단 (업체 수)	평균 매출액	산업 규모 (비중)	
제품 디자인	1,324	586.14	776,049 (23.1%)	1,299	613.02	796,319 (22.6%)	▲ 2.6%
시각 디자인	2,045	438.17	896,058 (26.7%)	2,068	453.76	938,368 (26.6%)	▲ 4.7%
인테리어 디자인	1,188	959.00	1,139,286 (33.9%)	1,276	966.24	1,232,926 (35.0%)	▲ 8.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68	629.52	546,426 (16.3%)	859	648.54	557,093 (15.8%)	▲ 2.0%
<b>계</b>	<b>5,425</b>	<b>618.95</b>	<b>3,357,819 (100.0%)</b>	<b>5,502</b>	<b>640.62</b>	<b>3,524,707 (100.0%)</b>	<b>▲ 5.0%</b>



- 전문디자인업체의 종사자 수(디자이너 수 및 타 업무 종사자)는 평균 5.36명이고, 산업 인력은 29,480명으로 추정됨.  
디자이너 수 기준으로 보면, 평균 디자이너 수는 3.39명, 전체 디자이너 수는 18,645명임.
- 종사자가 가장 많은 업종은 시각 디자인(10,345명)으로 전체의 35.1%의 비중을 보임.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7,856명, 26.6%), 제품 디자인(7,251명, 24.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4,028명, 13.7%) 순으로 나타남.

## » 2017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종사자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조사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조사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제품 디자인	1,324	5.58	7,392 (25.0%)	1,299	5.58	7,251 (24.6%)	▼ 1.9%
시각 디자인	2,045	5.20	10,635 (36.0%)	2,068	5.00	10,345 (35.1%)	▼ 2.7%
인테리어 디자인	1,188	6.21	7,374 (25.0%)	1,276	6.16	7,856 (26.6%)	▲ 6.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68	4.76	4,135 (14.0%)	859	4.69	4,028 (13.7%)	▼ 2.6%
계	5,425	5.44	29,536 (100.0%)	5,502	5.36	29,480 (100.0%)	▼ 0.2%

※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전문디자인업 종사자 수: 22,315명

## » 2017년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인력 규모(디자이너 기준)

(단위: 명)

구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조사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조사모집단 (업체 수)	평균 종사자 수	인력규모 (비중)	
제품 디자인	1,324	3.93	5,199 (27.7%)	1,299	3.73	4,849 (26.0%)	▼ 1.9%
시각 디자인	2,045	3.56	7,283 (38.7%)	2,068	3.52	7,288 (39.1%)	▼ 2.7%
인테리어 디자인	1,188	3.21	3,809 (20.3%)	1,276	3.27	4,174 (22.4%)	▲ 6.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68	2.89	2,511 (13.4%)	859	2.72	2,333 (12.5%)	▼ 2.6%
계	5,425	3.47	18,803 (100.0%)	5,502	3.39	18,645 (100.0%)	▼ 0.2%

### 1-3) 공공부문(중앙부처/지자체)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 공공부분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디자인 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739억 원, 지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는 1,603억 원으로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 규모는 2,343억 원으로 추정됨.
- 중앙부처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는 37명, 지자체의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는 786명으로 공공부분 디자인 관련 인력 규모는 823명으로 추정됨.

### » 공공부문 디자인 투자 규모 및 인력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총 합 (백만 원)	전담부서 직원 수 총 합 (명)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총 합 (백만 원)	전담부서 직원 수 총 합 (명)
중앙부처	69,969 *(40)	71	73,943 *(5,370)	37
지자체	162,081 *(43,080)	637	160,344 *(37,574)	786
<b>계</b>	<b>232,050 *(43,120)</b>	<b>708</b>	<b>234,287 *(42,944)</b>	<b>823</b>

※ 괄호는 디자인 관련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 제외 금액

#### 1-4) 프리랜서 디자이너 산업 규모 및 인력

- 프리랜서 디자이너 산업 규모 및 인력은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sup>5)</sup> 결과를 활용하여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를 추정하고, 추정된 프리랜서 디자이너 수에 디자이너 임금을 곱하여 산업 규모를 산출함.

- 2017년 프리랜서 수는 56,004명(2016년 47,655명)으로 추정됨.

- 프리랜서 수 56,004명 = {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29,480명) + 일반업체 디자이너 수(255,047명)} × 19.7%

※ 디자이너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전체 디자이너=46,654/237,026=19.7%

프리랜서 수는 2017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규모로 추정함.

<b>프리랜서 수 추정산식</b>	전문디자인업 종사자 수 & 일반업체 디자이너 수 추정치	×	$\frac{\text{디자이너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text{전체 디자이너}}$
------------------------	-----------------------------------	---	---

#### » 2017년 지역별고용조사 디자이너 직업 고용현황

2017년		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6,65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외	상용근로자	190,372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전체		237,026

※ 지역별 고용조사의 직업별 고용현황 중 디자이너(코드 : 285)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 통계임.

- 11,895억 원 = 프리랜서 수 56,004명 × 프리랜서 월평균 임금 177만원(2017년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 12개월

<b>프리랜서 산업규모 추정산식</b>	프리랜서 수 추정치 × 프리랜서 월 평균 임금 × 12개월
---------------------------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프리랜서 산업 규모	10,342억 원	11,895억 원	▲15.0%
프리랜서 수	47,655명	56,004명	▲17.5%

5)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는 2017년 10월에 전국 약 19만 9천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1주간(실업자는 4주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9개도의 시군별 주요고용지표를 집계한 결과임.

### 1-5) 교육 부문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 교육 부문 디자인 투자금액 규모는 대학 디자인학과와 교수 임금 추정치와 디자인과 연구비 추정치의 합으로 산출됨. 교육 부문 인력 규모는 디자인 관련과의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대학원의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sup>6)</sup> 수의 합으로 산출됨.
- 교육 부문 디자인산업 규모는 2,476억 원으로 추정됨.

교육 부문  
**247,577백만원**

221,657백만원(디자인과 교수 연봉) + 25,920백만원(디자인학과 연구비)

- 교육 부문 인력 규모는 2,524명으로 나타남(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결과).

### » 2017년 디자인학과 교수 연봉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교수 연봉 평균 (백만 원)	디자인과 교원 수 (명)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백만 원)	교수 연봉 평균 (백만 원)	디자인과 교원 수 (명)	디자인과 교수 연봉 추정 (백만 원)
4년제 대학	정교수	105.2	767	80,701	108.7	756	82,156
	부교수	87.9	350	30,752	90.8	313	28,421
	조교수	73.8	494	36,438	76.2	480	36,593
	전임강사	55.3	121	6,680	57.1	115	6,558
소계		89.2	1,732	154,571	92.38	1,664	153,728
전문 대학	정교수	99.8	232	23,152	103.1	222	22,887
	부교수	81.4	261	21,233	84.1	271	22,787
	조교수	66.2	264	17,468	68.4	240	16,412
	전임강사	44.5	134	5,971	46.0	127	5,844
소계		76.1	891	67,824	79.0	860	67,930
계		77.0	2,623	222,395	79.5	2,524	221,657

※ 교수 연봉 및 디자인과 교원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DB

6) 전임강사 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아 2016년 대비 2017년 재적학생 수 증감비율로 추정한 값임

## » 디자인학과 연구비

(단위: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률
4년제 대학	중앙정부 지원	12,384	13,336	▲ 7.7%
	지자체 지원	1,260	1,233	▼ 2.1%
	민간 지원	5,761	5,062	▼12.1%
	외국 지원	1,259	6	▼99.5%
	교내 지원	3,907	3,936	▲ 0.7%
소계		23,476	23,574	▲ 0.4%
전문 대학	교수	2,646	2,346	▼11.3%
계		26,122	25,920	▼ 0.8%

※ 2017년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결과, 교과부, 한국연구재단

## 2) 디자인산업 규모 및 인력 추이

### » 12~17년 디자인산업 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업체	10,056,779	9,152,954	10,292,018	11,252,597	12,041,094	12,348,980
전문디자인업	2,499,239	2,745,643	2,990,423	3,059,925	3,357,819	3,524,707
공공부문	363,045	247,758	138,281 *(17,782)	271,727 *(36,709)	232,050 *(43,120)	234,287 *(42,944)
소계	12,919,063	13,067,240	13,420,722 *(13,300,223)	14,584,249 *(14,349,231)	15,630,964 *(15,442,034)	16,107,975 *(15,916,632)
프리랜서	593,268	691,968	715,641	820,990	1,034,235	1,189,519
고등 교육	222,970	228,917	233,758	246,359	248,517	247,577
계	13,735,301	13,067,240	14,370,121 *(14,249,622)	15,651,598 *(15,416,580)	16,913,716 *(16,724,786)	17,545,071 *(17,353,728)

- 2012년부터 8개 대분류로 구분된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중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함.
- 2013년 산업 규모 추정치부터는 일반업체의 디자인산업 규모(디자인 투자 금액) 중 전문 디자인업체 용역비를 제외하고 추정함.
- 2014년 이후 공공부문(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괄호는 디자인산업 규모(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관련 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임.

### 3) 디자인 수출/수입 규모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입 금액 규모는 135억 원으로 추정됨.

<b>활용업체 수입 금액</b>	$\text{활용업체 수} \times \text{수입업체 비율} \times (\text{디자인투자비평균} \times \text{해외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	--

#### » 디자인 수입 금액 추정

구분	추정 활용업체 수	수입업체 비율 <sup>7)</sup>	디자인 투자비 평균 (백만 원)	디자인 개발시 해외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추정 수입 규모 (백만 원)
디자인 수입	125,278	0.17%	98.57	65.05%	13,466

- 전문디자인업체의 수출 금액 규모는 807억 원으로 추정됨.

<b>전문디자인업체 수출 금액</b>	$\text{전문디자인업체 수} \times \text{수출업체 비율} \times (\text{매출액평균} \times \text{매출 중 해외 고객 비중})$
--------------------------	--

#### » 디자인 수출 금액 추정

구분	디자인전문 업체 수	수출업체 비율 <sup>8)</sup>	매출액 평균 (백만 원)	매출 중 해외고객 비중	추정 수출 규모 (백만 원)
디자인 수출	5,502	5.27%	640.62	43.43%	80,710

#### » 12-17년 디자인 수입/수출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수입액	260억 원	262억 원	192억 원	70억 원	103억 원	135억 원
수출액	568억 원	440억 원	456억 원	741억 원	882억 원	807억 원

7) 수입업체 비율: 디자인 활용업체 설문 중 외주디자인 개발-해외 업체 의뢰 비중이 1% 이상인 업체

8) 수출업체 비율: 디자인전문회사 설문 중 매출구성-해외 고객 비중이 1% 이상인 업체

## 2.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는 117.4조원으로 추정됨.

- 업종별로는 디자인 인프라의 경제적 가치가 39.5조원으로 가장 높음.

디자인 인프라(39.5조원) > 서비스/경험 디자인(35.1조원) > 공간 디자인(15.8조원)

> 제품 디자인(15.4조원)

###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산출 현황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매출액 (단위: 백만원)	디자인기여도 (단위: %)	부가가치율 (단위: %)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단위: 백만원)
제품 디자인	230,346,839	24.9%	26.9%	15,426,148
시각 디자인	69,093,972	28.6%	27.4%	5,429,73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23,291,634	27.4%	42.2%	2,689,349
공간 디자인	120,433,854	30.9%	42.4%	15,764,63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1,734,803	30.9%	26.7%	1,797,124
서비스/경험 디자인	245,976,840	24.6%	58.1%	35,137,850
산업공예 디자인	22,156,969	23.4%	32.2%	1,672,852
디자인 인프라	288,708,852	24.2%	56.6%	39,472,250
<b>전체</b>	<b>1,021,743,764</b>	<b>-</b>	<b>-</b>	<b>117,389,947</b>

※ 매출액: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해당 업종 매출액 × 디자인 활용 비율 × 2014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율<sup>9)</sup>

※ 디자인기여도: 디자인실태조사 결과

※ 부가가치율: 한국은행 자료로 추정

- 업종별로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과,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서비스/경험 디자인이 큰 폭으로 증가(+20.5%)함.

### » 2017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단위: 백만원)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제품 디자인	14,783,446	15,426,148	▲ 4.3%
시각 디자인	5,614,624	5,429,735	▼ 3.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2,361,357	2,689,349	▲ 13.9%
공간 디자인	13,638,161	15,764,639	▲ 15.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861,923	1,797,124	▼ 3.5%
서비스/경험 디자인	29,153,092	35,137,850	▲ 20.5%
산업공예 디자인	1,547,611	1,672,852	▲ 8.1%
디자인 인프라	34,883,362	39,472,250	▲ 13.2%
<b>전체</b>	<b>103,843,576</b>	<b>117,389,947</b>	<b>▲ 13.0%</b>

9)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경영분석지표의 전산업 매출액 증가율 자료와 2015년 경제총조사의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해당 업체 매출액 총합에 디자인 활용 비율을 적용한 결과를 활용함. 2015년 경제총조사의 기준연도가 2014년이므로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매출액 총합에 2015년, 2016년, 2017년 매출액 증가율을 적용하여 2017년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해당 업종 매출액 총합을 산출함.

### 3. 디자인 활용률

- (전체산업 기준) 5인 이상 업종 766,161개 중 디자인 활용업체 수는 125,783개로 일반업체의 디자인 활용 비율은 16.4%로 나타남.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에 해당되는 일반업체 364,139개의 디자인 활용 비율은 34.4%로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추이

구분	2016년		2017년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16.0%	33.6%	16.4%	34.4%

#### »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 활용 비율

(단위: 개)

사업체 수		구분		2017년 활용률
		5인 이상 사업체	디자인 활용업체	
표준 산업 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2,050	161	7.9%
	광업	613	-	0.0%
	제조업	153,811	32,255	2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2	-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208	-	0.0%
	건설업	61,171	14,712	24.1%
	도매 및 소매업	123,399	21,383	17.3%
	운수업	23,338	1,500	6.4%
	숙박 및 음식점업	96,165	24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222	9,644	52.9%
	금융 및 보험업	30,797	3,384	1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301	6,219	2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제외)	35,738	8,681	24.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146	4,246	2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중앙부처 및 지자체 제외)	5,809	81	1.4%
	교육서비스업(대학제외)	39,555	10,198	2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790	4,995	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991	1,697	1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855	6,099	18.6%
규모별	소기업	637,159	101,836	16.0%
	중기업	124,917	22,008	17.6%
	대기업	4,083	1,434	35.1%
계		766,161	125,278	16.4%



#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 활용 비율

(단위: 개)

구분		사업체 수			디자인 활용 비율
		디자인 특수분류 모집단	디자인 활용업체(추정)	디자인 비활용업체(추정)	
업종별	제품 디자인	52,913	12,932	39,981	24.4%
	시각 디자인	19,683	8,976	10,707	45.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7,986	4,878	3,108	61.1%
	공간 디자인	80,534	22,355	58,179	27.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608	5,137	8,471	37.7%
	서비스/경험 디자인	70,266	24,652	45,614	35.1%
	산업공예 디자인	18,712	4,964	13,748	26.5%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00,437	41,384	59,053	41.2%
규모별	소기업	299,113	99,743	199,370	33.3%
	중기업	54,036	20,999	33,037	38.9%
	중견기업	8,339	3,368	4,971	40.4%
	대기업	2,652	1,168	1,483	44.1%
계		364,139	125,278	239,356	34.4%

#### 4.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는 22,709명(2017년 대비 1,434명 감소)으로 나타났고, 취업자는 13,427명(2016년 대비 1,261명 감소)으로 나타남. 취업률(64.9%)은 2016년 대비 1.4%p 감소함.

##### »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2018년	22,709	13,427	64.9
2017년	24,203	14,688	66.3
차이	▼1,434	▼1,261	▼1.4%p

##### » 분류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학교 구분	계열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소계	22,093	483	133	22,709	13,121	217	89	13,427	64.9	66.6	73.6	64.9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9,889	-	-	9,889	5,837	-	-	5,837	66.3	-	-	66.3
	대학교	11,120	-	-	11,120	6,542	-	-	6,542	62.8	-	-	62.8
	산업대학	279	-	-	279	163	-	-	163	59.7	-	-	59.7
	각종대학(대학)	28	-	-	28	20	-	-	20	71.4	-	-	71.4
	일반대학원	-	483	133	616	-	217	89	306	-	66.6	73.6	68.5
	기능대학	777	-	-	777	559	-	-	559	79.9	-	-	79.9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493	182	41	1,716	829	67	25	921	61.4	57.8	75.8	61.4
	제품 디자인	3,475	53	13	3,541	2,053	27	11	2,091	64.5	81.8	91.7	64.8
	시각 디자인	3,962	27	1	3,990	2,294	14	1	2,309	62.6	73.7	100.0	62.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093	25	8	3,126	1,771	12	7	1,790	62.8	80.0	87.5	62.9
	공간 디자인	3,444	24	6	3,474	2,076	12	4	2,092	67.1	85.7	66.7	67.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748	37	6	4,791	2,940	14	3	2,957	66.7	63.6	50.0	66.6
	서비스/경험 디자인	312	40	1	353	190	22	1	213	67.6	73.3	100.0	68.3
	산업공예 디자인	1,027	17	57	1101	582	10	37	629	63.0	66.7	68.5	63.3
	디자인 인프라	539	78	-	617	386	39	-	425	77.8	62.9	-	76.2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인용

※ 조사기준일 : 2017년 12월 12일

※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100

※ 취업자: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part1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제 3 장    조사 결과**

1. 디자인 활용업체
2. 전문디자인업체
3.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
4. 디자인관련 고등교육기관



### 03. 조사 결과

#### 디자인 활용업체

#### 1. 디자인 활용 현황

##### 1) 디자인 활용 여부

- (전체산업 기준) 일반업체의 디자인 활용률은 16.4%로 나타남.
- 전년도 대비 디자인 활용 비율은 전체 업종에서 +0.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인천이 19.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18.8%), 경기(16.4%) 등의 순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조사 대상 8개 대분류 업종의 일반업체 중 디자인 활용업체는 34.4%로 나타남.

#### » 권역별 디자인 활용 비율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2017년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전체산업 기준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전체		16.0	33.6	16.4	34.4
권역별	서울	21.9	41.6	18.8	39.3
	부산/울산/경남	14.6	31.9	14.2	31.2
	대구/경북	15.6	29.9	14.9	32.0
	인천	11.1	26.6	19.2	37.9
	경기	15.1	32.1	16.4	34.1
	광주/전라	12.6	27.1	14.4	34.6
	대전/충청	13.7	30.7	14.7	29.9
	강원/제주	14.6	37.9	13.4	32.2

## » 표준산업분류 기준 디자인 활용 비율

(단위: %)

구분		사업체 수		디자인 활용 비율
		5인 이상 사업체	디자인 활용업체	
표준 산업 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2,050	161	7.9%
	광업	613	-	0.0%
	제조업	153,811	32,255	2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2	-	0.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208	-	0.0%
	건설업	61,171	14,712	24.1%
	도매 및 소매업	123,399	21,383	17.3%
	운수업	23,338	1,500	6.4%
	숙박 및 음식점업	96,165	24	0.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8,222	9,644	52.9%
	금융 및 보험업	30,797	3,384	1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26,301	6,219	2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제외)	35,738	8,681	24.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9,146	4,246	22.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중앙부처 및 지자체 제외)	5,809	81	1.4%
	교육서비스업(대학 제외)	39,555	10,198	2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8,790	4,995	6.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991	1,697	13.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2,855	6,099	18.6%
	계	766,161	125,278	16.4%

##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규모별 디자인 활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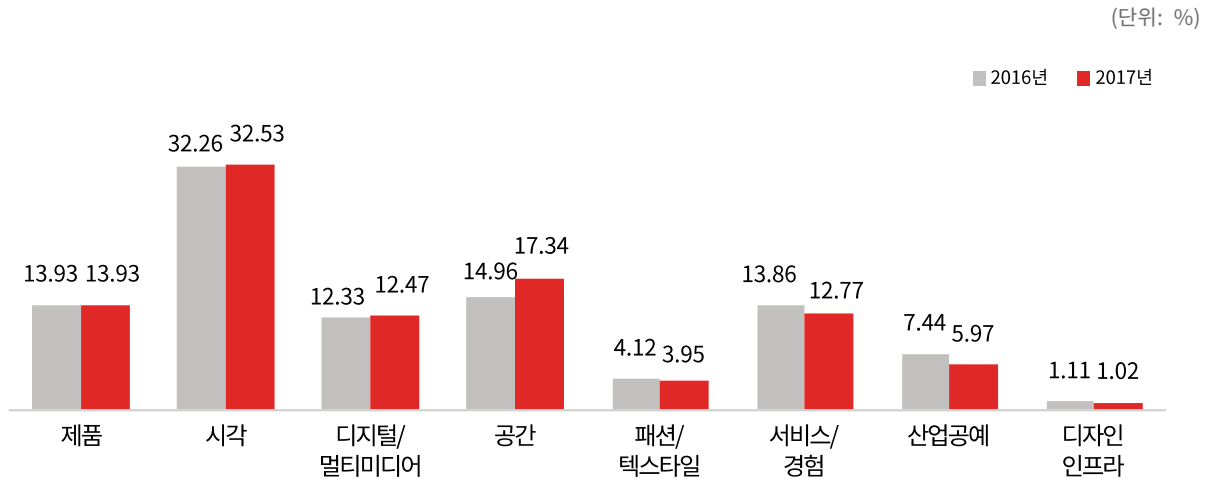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체수		디자인 활용 비율	사업체수		디자인 활용 비율
		디자인 특수분류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인 특수분류	디자인 활용업체	
업종별	제품 디자인	52,457	13,535	25.8%	52,913	12,932	24.4%
	시각 디자인	19,222	8,496	44.2%	19,683	8,976	45.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7,945	4,849	61.0%	7,986	4,878	61.1%
	공간 디자인	73,197	18,778	25.7%	80,534	22,355	27.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004	5,019	38.6%	13,608	5,137	37.7%
	서비스/경험 디자인	67,423	24,907	36.9%	70,266	24,652	35.1%
	산업공예 디자인	18,431	4,758	25.8%	18,712	4,964	26.5%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99,036	37,592	38.0%	100,437	41,384	41.2%
규모별	소기업	286,650	94,509	33.0%	299,113	99,743	33.3%
	중기업	51,835	18,837	36.3%	54,036	20,999	38.9%
	중견기업	9,258	3,388	36.6%	8,339	3,368	40.4%
	대기업	2,972	1,199	40.3%	2,652	1,168	44.1%
계		350,715	117,934	33.6%	364,139	125,278	34.4%



## 2) 디자인 활용 분야

- 디자인 활용업체의 주요 디자인 활용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시각 디자인’이 32.5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간 디자인’(17.34%), ‘제품 디자인’(13.93%), ‘서비스/경험 디자인’(12.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활용 분야



-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 활용은 중견기업(49.70%)에서 가장 높고, ‘공간 디자인’ 활용은 대기업(40.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규모별 디자인 활용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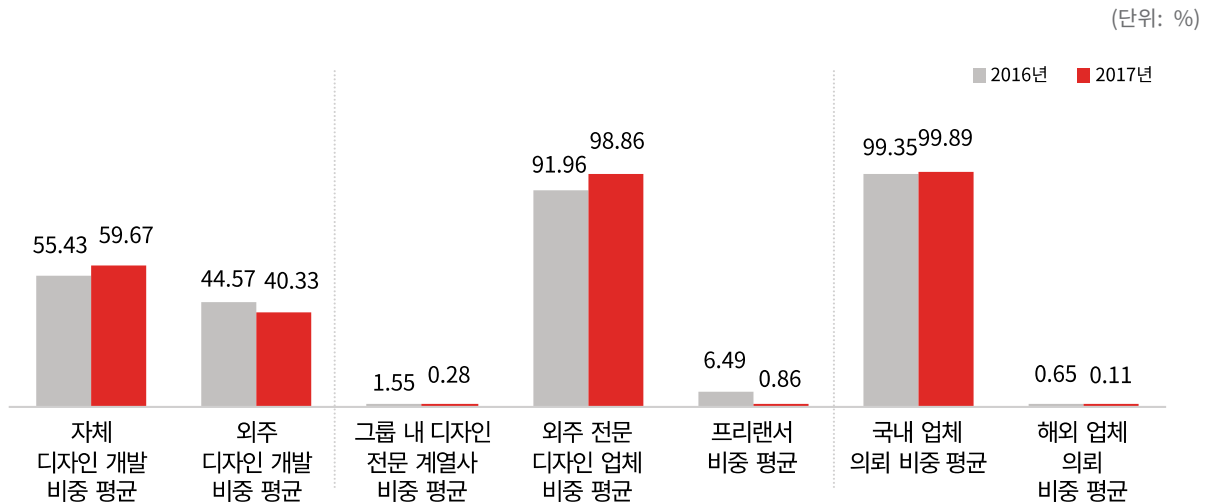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소계		13.93	32.53	12.47	17.34	3.95	12.77	5.97	1.02
규모별	대기업	11.35	29.26	6.95	40.66	2.46	7.97	1.35	0.00
	중견기업	22.84	49.70	16.99	4.63	1.46	2.88	1.49	0.00
	중기업	16.01	35.04	14.11	14.97	1.59	15.22	3.05	0.01
	소기업	13.30	31.69	12.04	17.87	4.63	12.30	6.86	1.31

### 3)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건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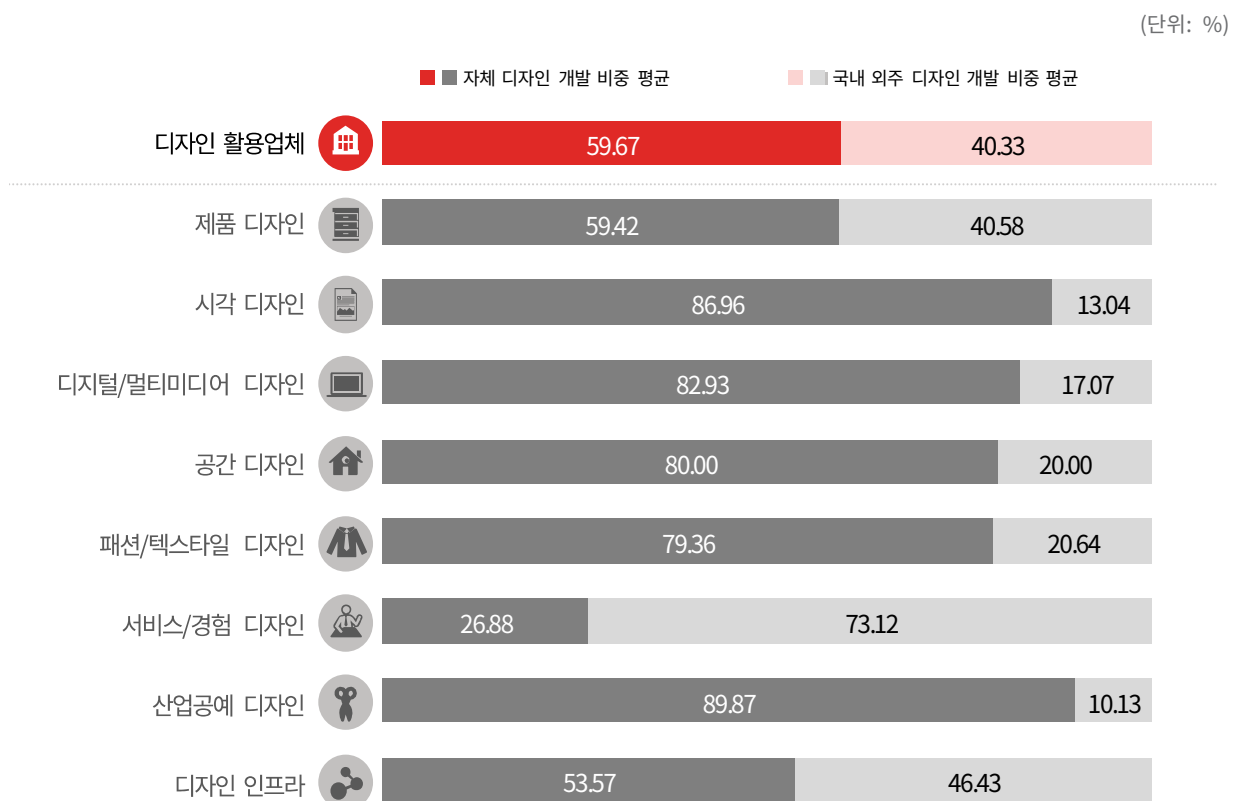
- 디자인 개발 비중을 건 수 기준으로 살펴보면, 디자인 활용업체 평균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59.67%,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40.33%임. ‘외주 디자인 개발’의 경우 ‘국내 업체 의뢰’(99.89%)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건 수 기준)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산업공예 디자인(89.87%), 시각 디자인(86.9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82.93%), 공간 디자인(80.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79.36%)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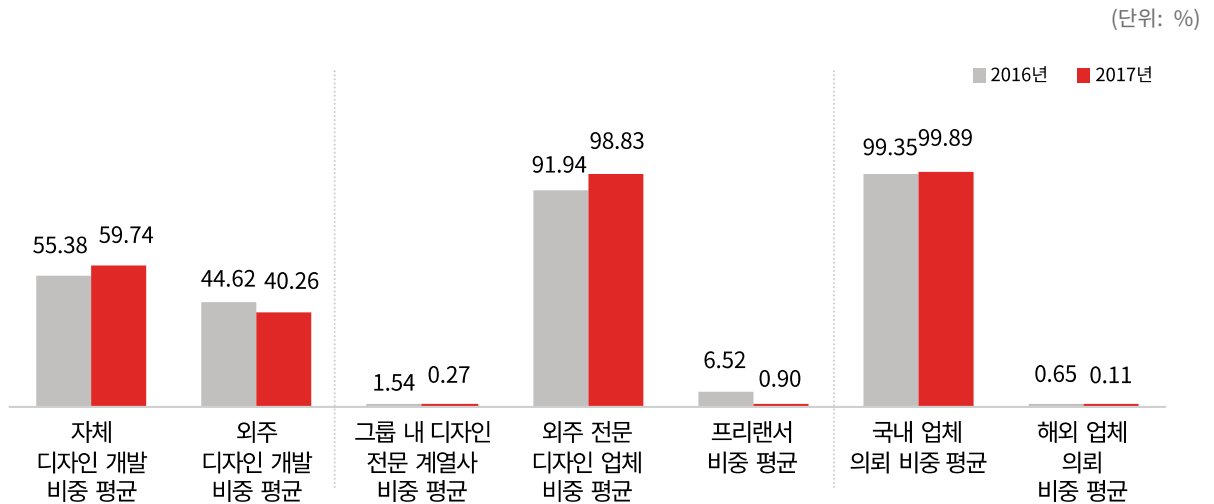
#### »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건 수 기준)



#### 4)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비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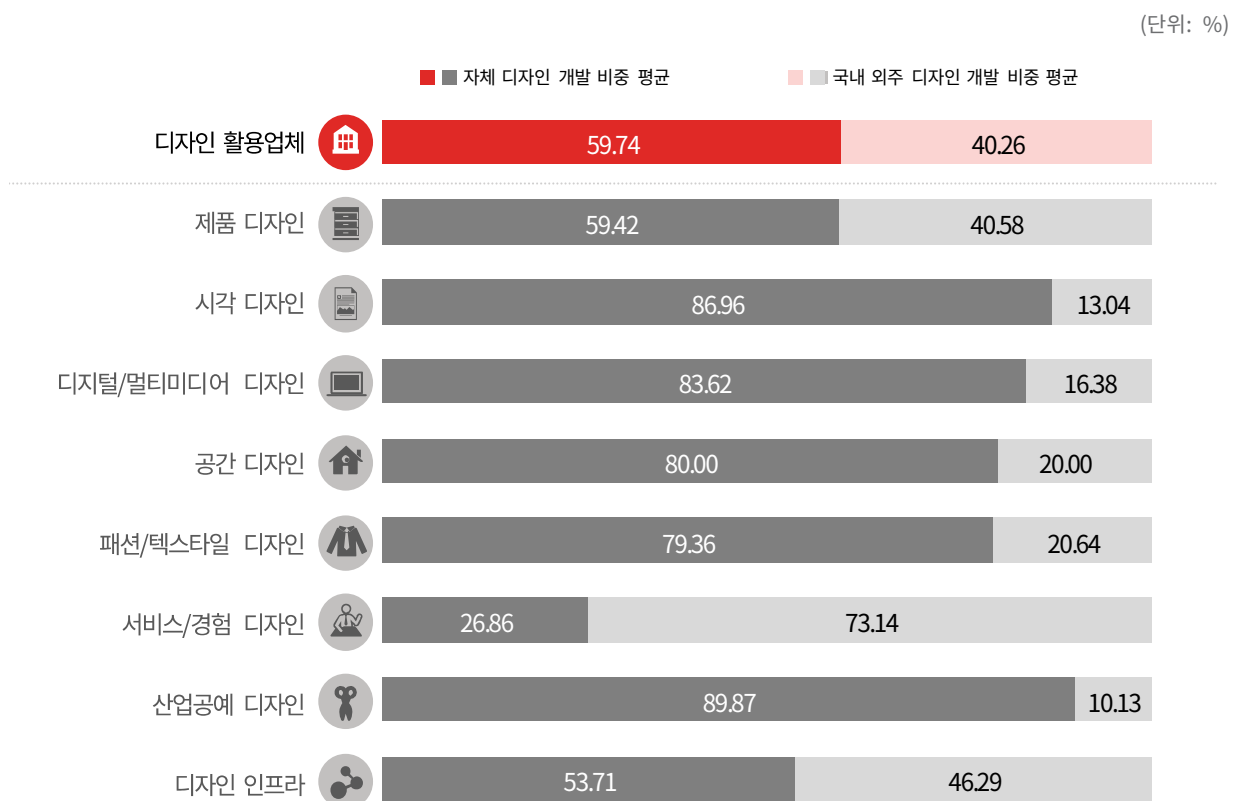
- 디자인 개발 비중을 비용 기준으로 살펴보면, 디자인 활용업체 평균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59.74%,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40.26%임. ‘외주 디자인 개발’의 경우 ‘국내 업체 의뢰’(99.89%)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비용 기준)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산업공예 디자인(89.87%), 시각 디자인(86.9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83.62%), 공간 디자인(80.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79.36%) 등의 순임.

#### » 업종별 디자인 개발 시 사내/외부 인력 활용 비중(비용 기준)



## 2. 디자인 투자 관련

### 1) 2017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 디자인 활용업체의 2017년 매출액은 평균 216억 5,050만원(2016년 215억 7,401만원), 인건비는 평균 18억 9,431만원(2016년 10억 9,661만원), 연구개발비는 8억 1,953만원(2016년 12억 1,278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25억 1,081만원(2016년 17억 4,700만원), 디자인 투자비는 평균 9,857만원(2016년 1억 1,584만원)으로 나타남.

### » 연도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차이
매출액 평균	35,254	22,183	21,574	21,651	▲ 77
인건비 평균	3,949	1,461	1,097	1,894	▲797
연구개발비 평균	2,977	2,049	1,213	820	▼393
영업이익 평균	3,688	1,384	1,747	2,511	▲764
디자인투자비 평균	134	131	116	99	▼ 17

### » 업종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2017년)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디자인 투자비
디자인 활용업체		21,651	1,894	820	2,511	99
업종별	제품 디자인	103,555	6,348	6,044	16,359	216
	시각 디자인	8,527	1,313	202	436	167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493	884	223	805	135
	공간 디자인	14,945	1,582	115	1,056	8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427	683	224	454	107
	서비스/경험 디자인	17,922	2,006	320	1,560	94
	산업공예 디자인	6,653	675	79	351	53
	디자인 인프라	10,340	1,146	232	701	60

## » 규모별 재무 및 디자인 투자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평균			인건비 평균			연구개발비 평균		
		2016년	2017년	차이	2016년	2017년	차이	2016년	2017년	차이
규모별	대기업	1,078,791	1,268,726	▲189,935	31,983	75,584	▲ 43,601	81,308	67,614	▼ 13,694
	중견기업	191,758	214,555	▲ 22,797	9,365	17,025	▲ 7,660	6,755	2,532	▼ 4,223
	중기업	27,992	26,971	▼ 1,021	1,735	3,193	▲ 1,458	1,126	469	▼ 657
	소기업	3,943	3,662	▼ 281	387	523	▲ 136	174	133	▼ 41

구분		영업이익 평균			디자인 투자비 평균		
		2016년	2017년	차이	2016년	2017년	차이
규모별	대기업	87,268	206,015	▲118,747	898	927	▲29
	중견기업	9,531	15,113	▲ 5,582	786	815	▲29
	중기업	3,278	1,575	▼ 1,703	167	151	▼16
	소기업	76	292	▲ 216	80	66	▼14

### 2) 세부 항목별 디자인 투자금액

- 세부항목별 디자인 투자금액을 살펴본 결과, 디자이너 인건비가 평균 8,54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디자인 용역비가 평균 2,355만원으로 뒤를 이음.

## » 업종별, 규모별 세부 항목별 디자인 투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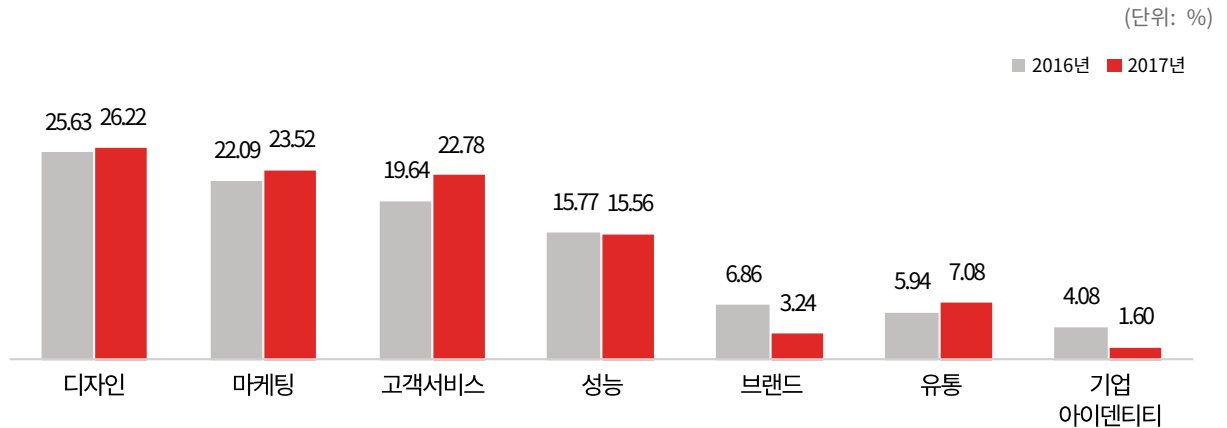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계	전문업체	그 외					
디자인 활용업체		85.47	23.55	12.80	10.75	0.33	0.01	0.14	0.00	1.87
업종별	제품 디자인	194.43	32.03	13.63	18.41	0.74	0.00	0.10	0.00	2.14
	시각 디자인	148.67	38.93	28.37	10.56	2.04	0.01	0.28	0.00	5.6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21.89	27.90	19.79	8.11	0.00	0.00	0.20	0.01	5.19
	공간 디자인	73.82	9.26	3.72	5.54	0.00	0.00	0.13	0.00	0.2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6.06	9.38	4.46	4.92	0.26	0.00	0.32	0.00	5.30
	서비스/경험 디자인	85.15	16.89	8.74	8.15	0.42	0.00	0.06	0.00	0.51
	산업공예 디자인	48.21	9.22	5.04	4.19	0.06	0.00	0.11	0.00	0.14
	디자인 인프라	43.07	32.23	17.63	14.60	0.04	0.01	0.16	0.00	2.03
규모별	대기업	822.63	172.68	87.00	85.68	1.16	0.07	2.43	0.00	15.02
	중견기업	697.34	212.96	106.20	106.75	1.17	0.01	0.97	0.01	9.02
	중기업	135.09	29.73	17.47	12.26	0.71	0.02	0.13	0.01	2.59
	소기업	56.24	17.84	9.54	8.30	0.21	0.00	0.11	0.00	1.43

### 3)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비중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26.22%로 가장 높고, 다음은 ‘마케팅’(23.52%), ‘고객서비스’(22.78%), ‘성능’(15.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 업종별 ‘디자인’ 비중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0.94%), 공간 디자인(30.90%), 시각 디자인(28.64%) 등의 순으로 높고, 규모별 ‘디자인’ 비중은 소기업(27.15%)이 가장 높은 반면, 중기업은 22.77%로 상대적으로 낮음.

#### » 업종별, 규모별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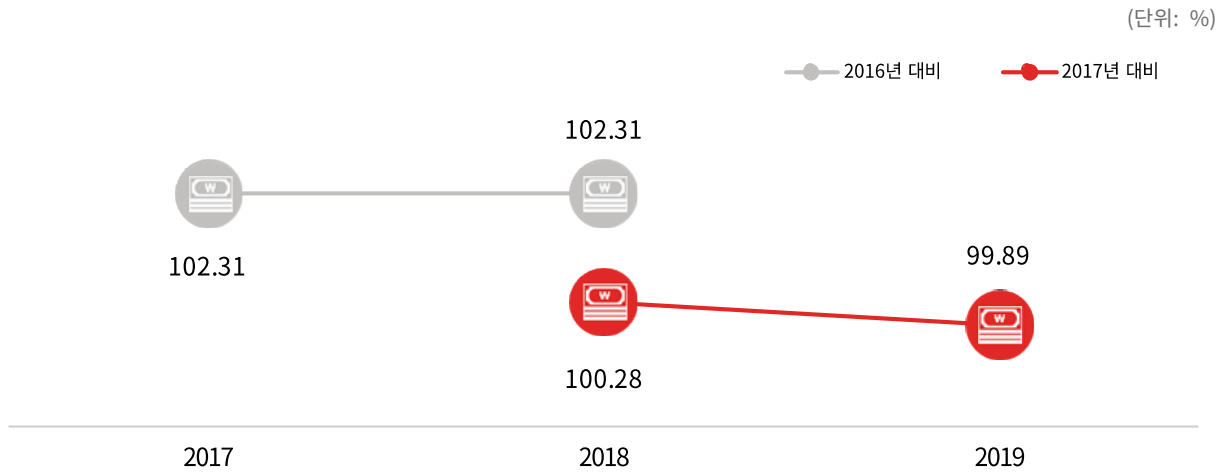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마케팅	고객서비스	성능	브랜드	유통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 활용업체		26.22	23.52	22.78	15.56	7.08	3.24	1.60
업종별	제품 디자인	24.88	11.05	4.74	45.35	10.23	3.30	0.46
	시각 디자인	28.64	22.85	12.77	11.75	14.17	9.14	0.67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27.37	19.74	15.20	31.41	2.73	1.82	1.73
	공간 디자인	30.90	18.94	19.83	18.07	10.58	1.26	0.4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0.94	8.96	11.36	24.47	7.57	16.70	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24.60	30.42	39.88	2.10	1.76	0.48	0.77
	산업공예 디자인	23.45	6.11	31.20	30.29	7.39	0.85	0.71
	디자인 인프라	24.16	30.26	23.31	9.00	6.26	3.44	3.56
규모별	대기업	26.84	22.70	14.01	17.64	12.51	5.74	0.56
	중견기업	24.36	20.65	16.51	19.59	10.06	8.00	0.82
	중기업	22.77	24.68	26.41	12.75	7.60	3.47	2.31
	소기업	27.15	23.25	22.00	16.23	6.85	3.09	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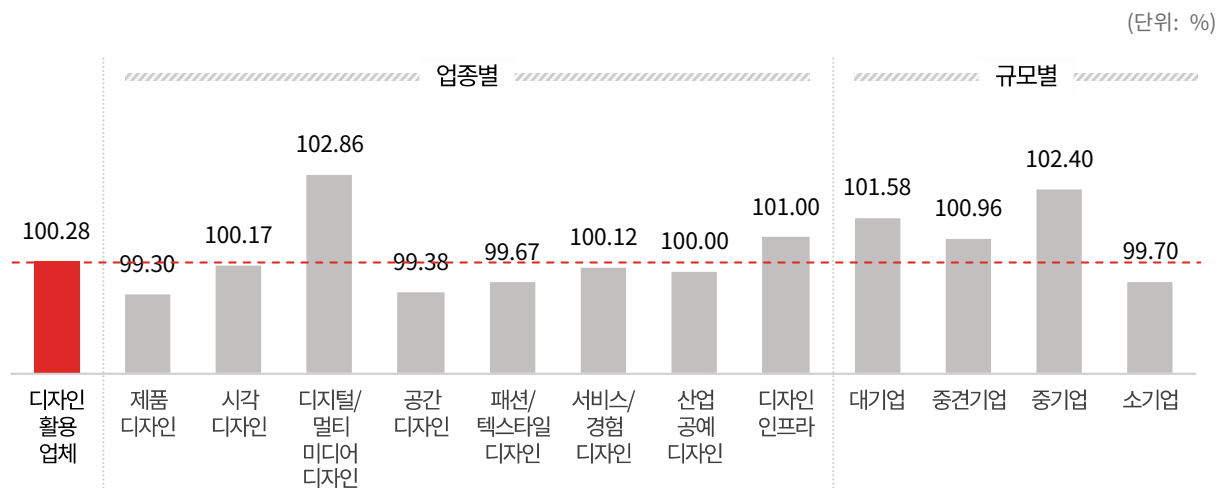
#### 4-1)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수준<sup>10)</sup>은 평균 100.28%,  
2017년 대비 2019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수준은 99.89%로 나타남.

#### » 2018년/2019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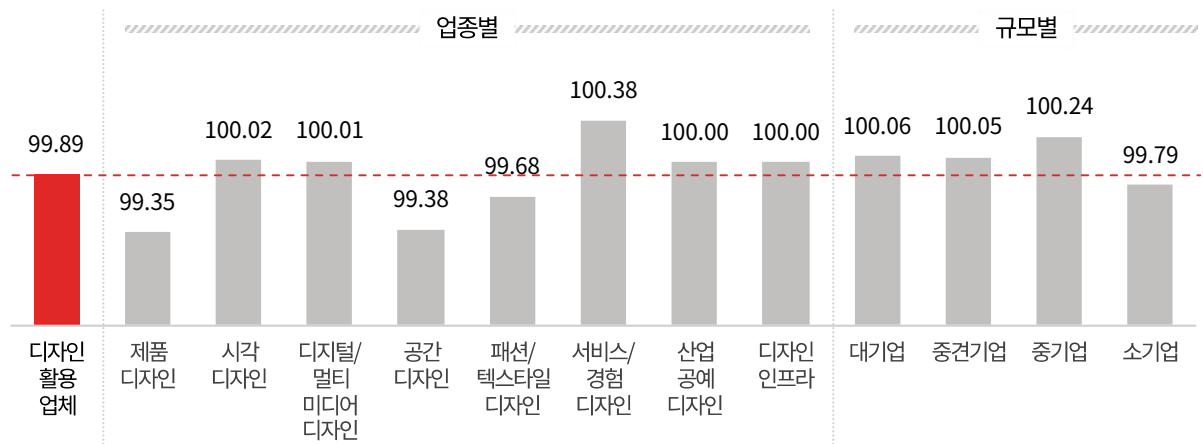
#### » 2018년 업종별/규모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10) 2018년/2019년 전망 :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 2019년 업종별/규모별 디자인 투자금액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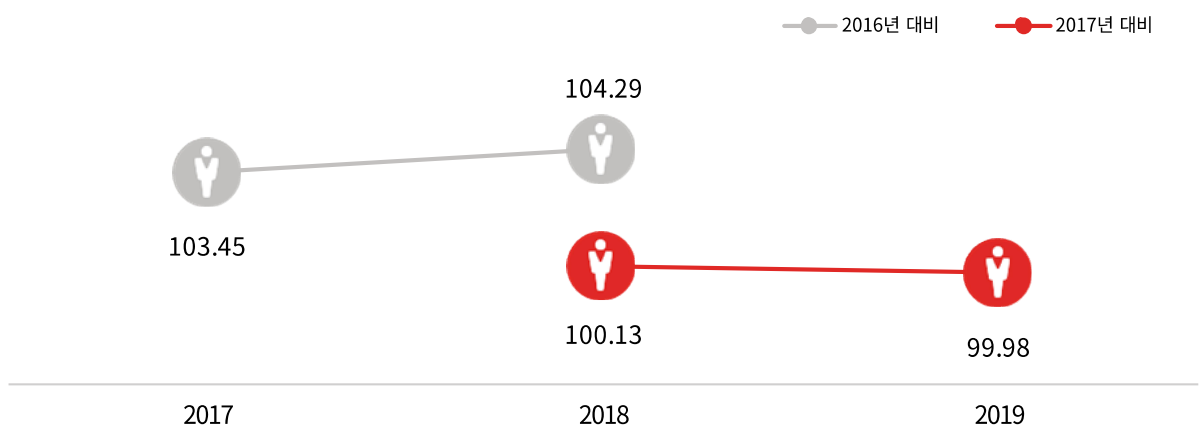


### 4-2)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100.13%,  
2017년 대비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99.98% 수준으로 나타남.

## » 2018년/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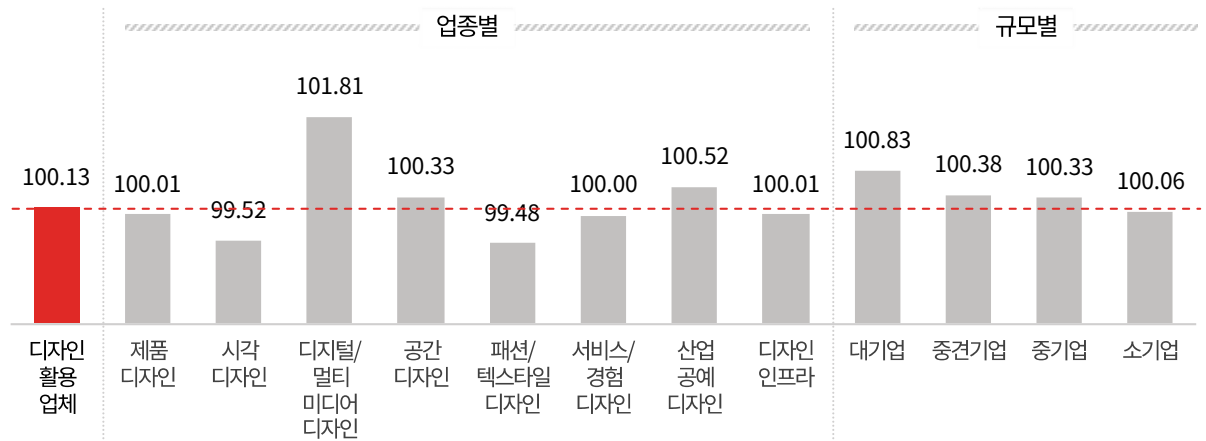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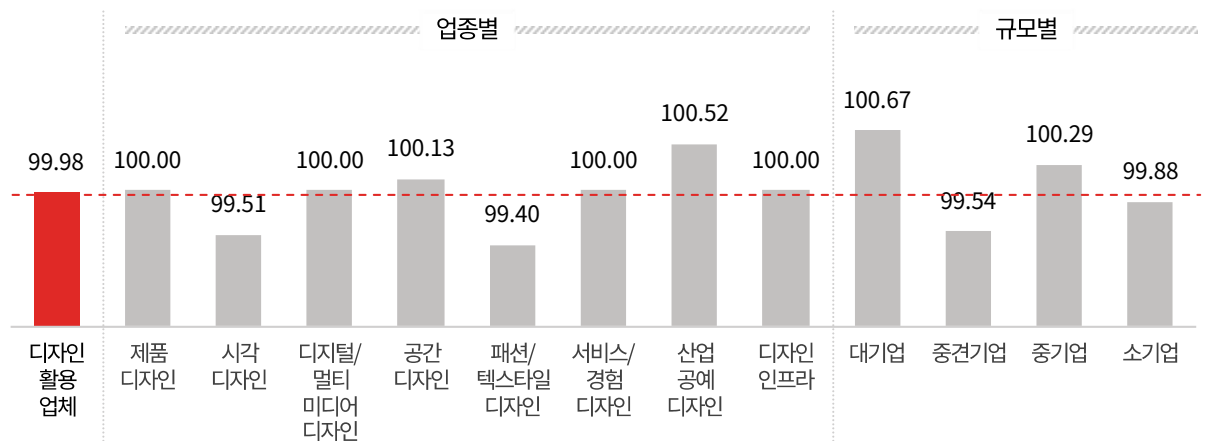
## » 2018년 업종별/규모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 2019년 업종별/규모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3. 디자인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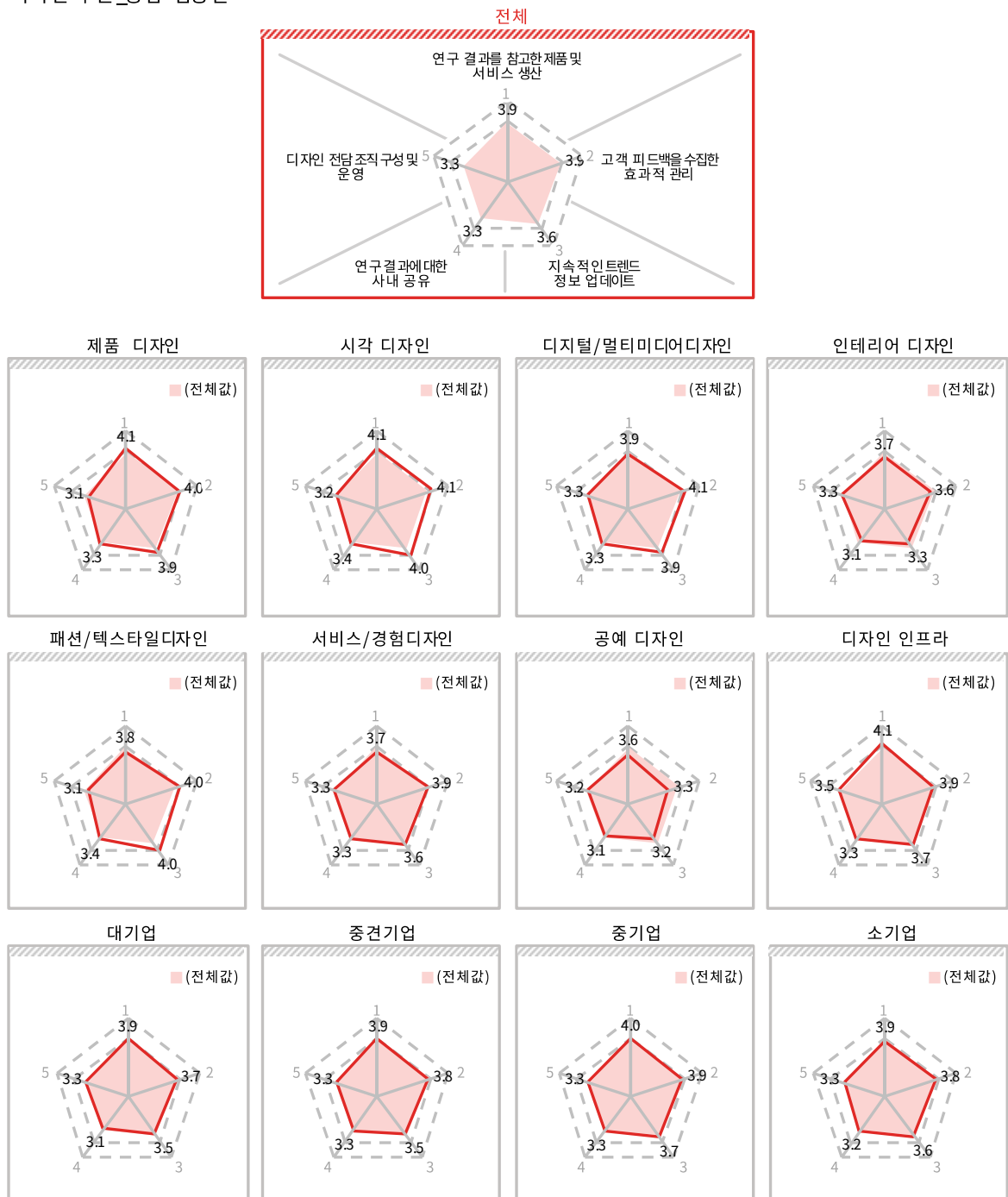
#### 1-1) 디자인 수준 - 공감

- 디자인 공감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3.9점),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3.9점)가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역량 : 디자인 수준 - 공감

(단위: 점)

디자인 수준\_공감-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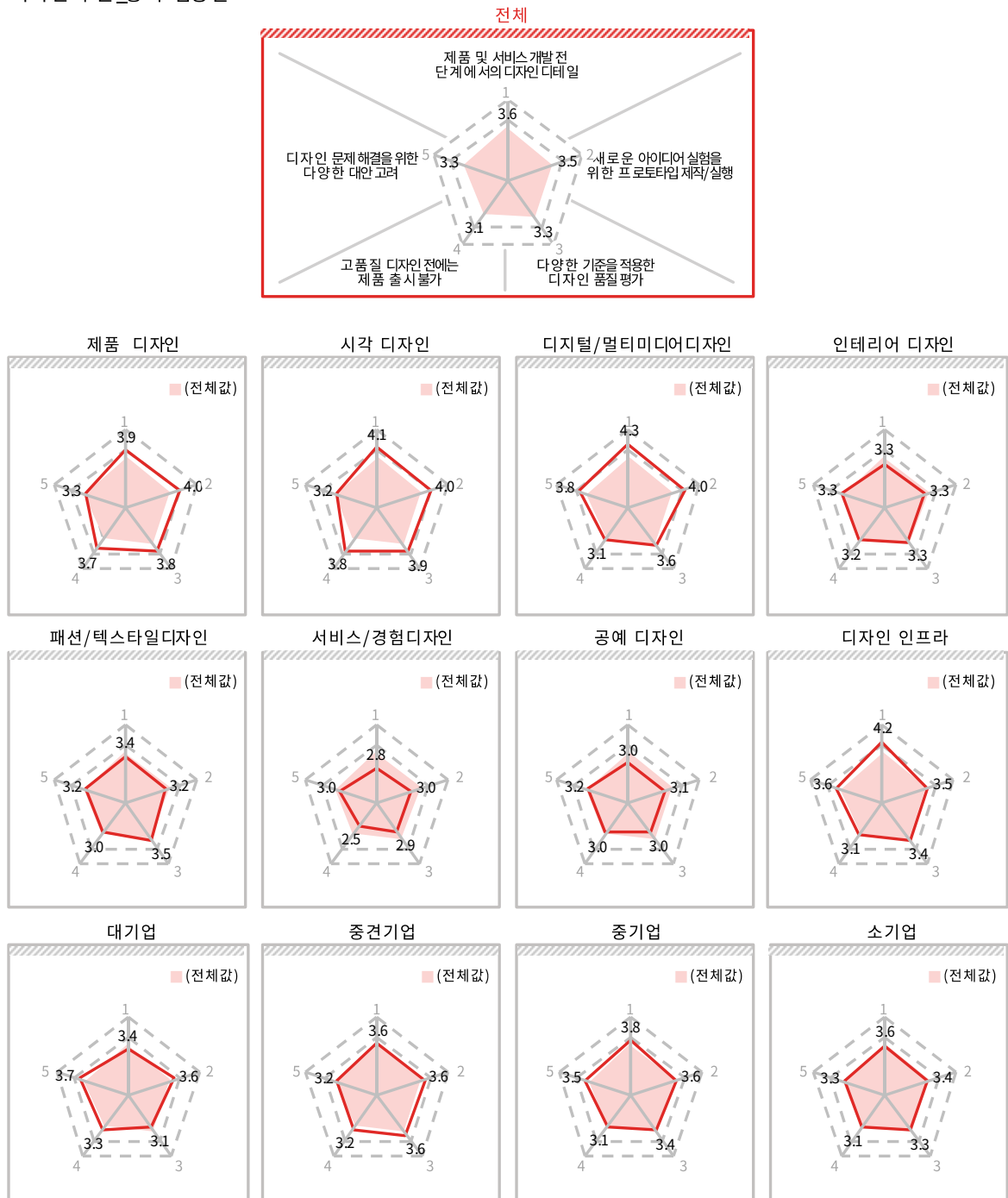
## 1-2) 디자인 수준 - 능력

- 디자인 능력에 있어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준(5점 만점)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3.6점)이 높고, 그 다음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3.5점)이 뒤를 이음.

### » 디자인 역량 : 디자인 수준 - 능력

(단위: 점)

디자인 수준\_능력-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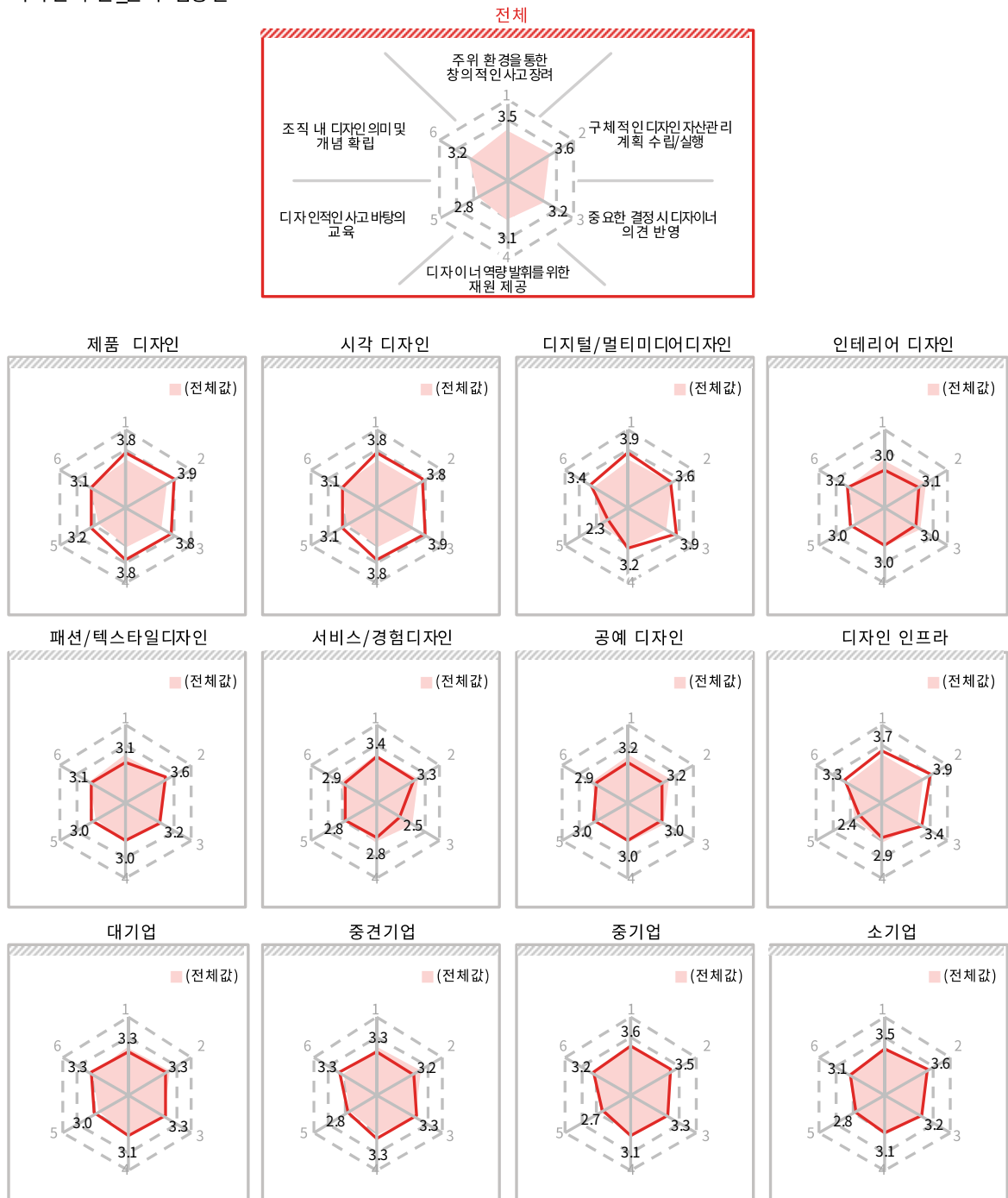
### 1-3) 디자인 수준 - 문화

- 디자인 문화에 대한 수준(5점 만점)은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3.6점)이 가장 높고, 다음은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3.5점),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3.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역량 : 디자인 수준 - 문화

(단위: 점)

디자인 수준\_문화-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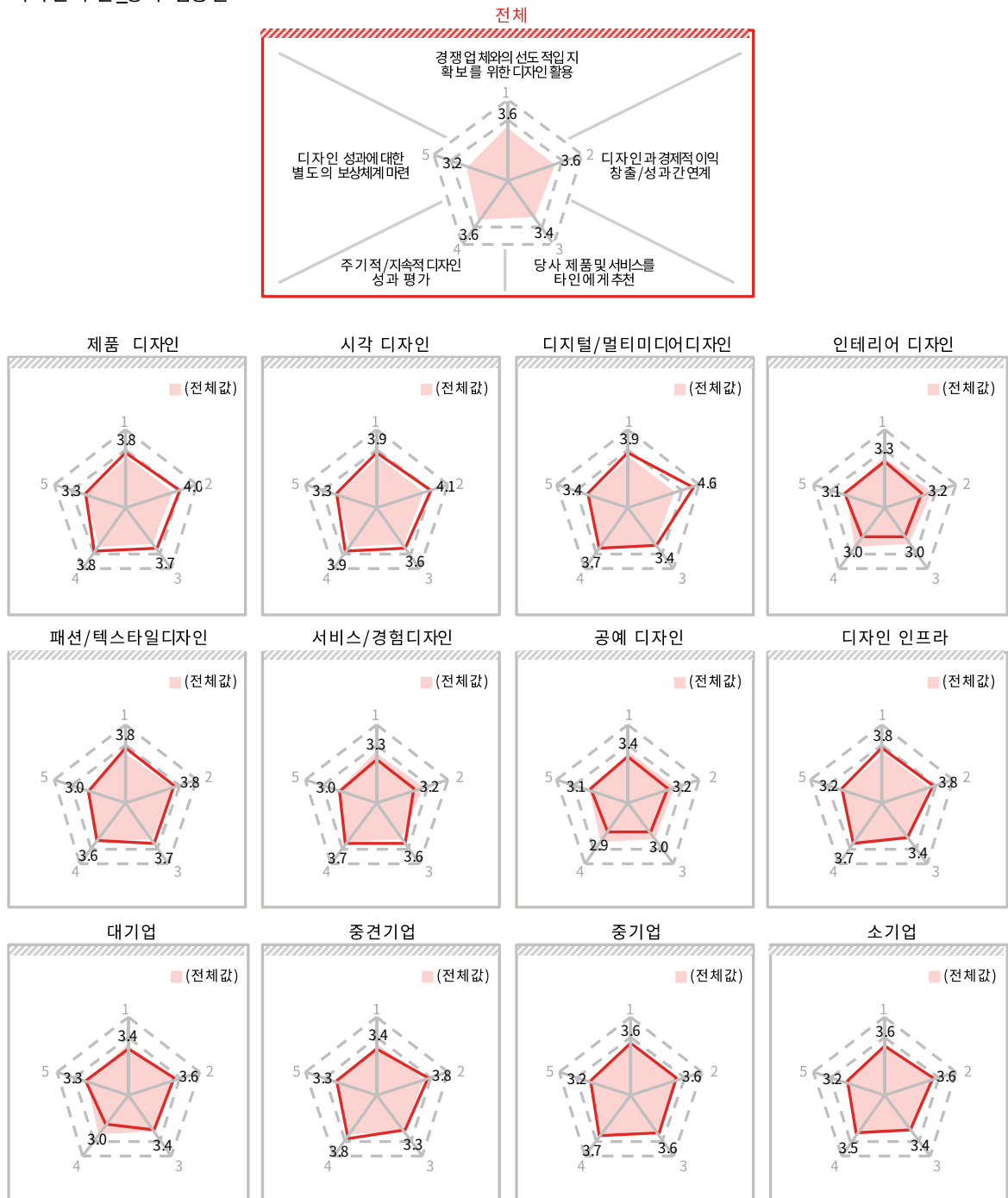
## 1-4) 디자인 수준 - 성과

- 디자인 성과 항목에 대한 디자인 활용업체의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3.6점),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3.6점)에서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역량 : 디자인 수준 - 성과

(단위: 점)

디자인 수준\_성과-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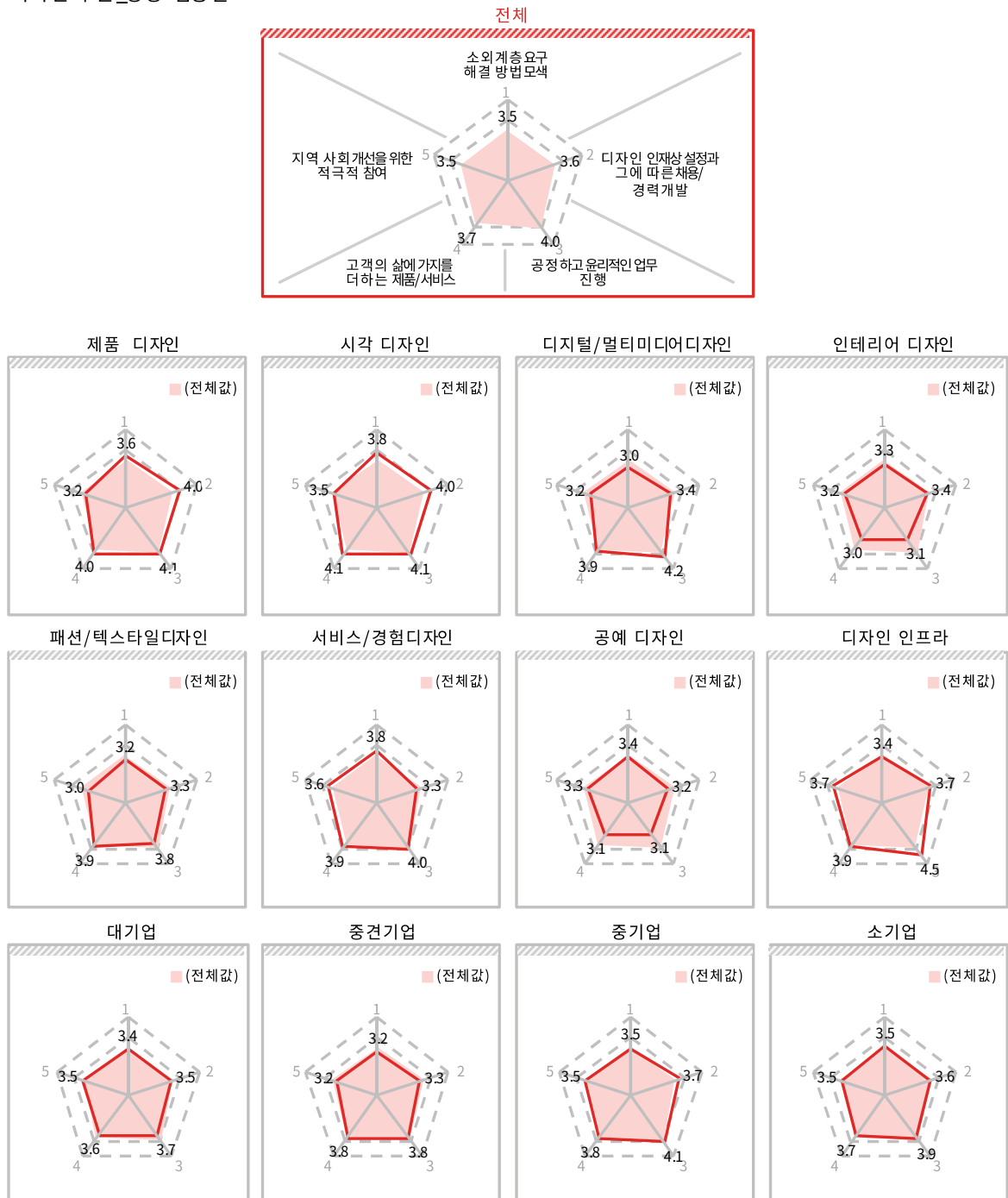
## 1-5) 디자인 수준 - 영향

- 디자인 영향에 대한 디자인 활용업체의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4.0점),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3.7점),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3.5점), ‘소외계층 요구 해결 방법 모색’(3.5점) 등의 순으로 높음.

## » 디자인 역량 : 디자인 수준 - 영향

(단위: 점)

디자인 수준\_영향-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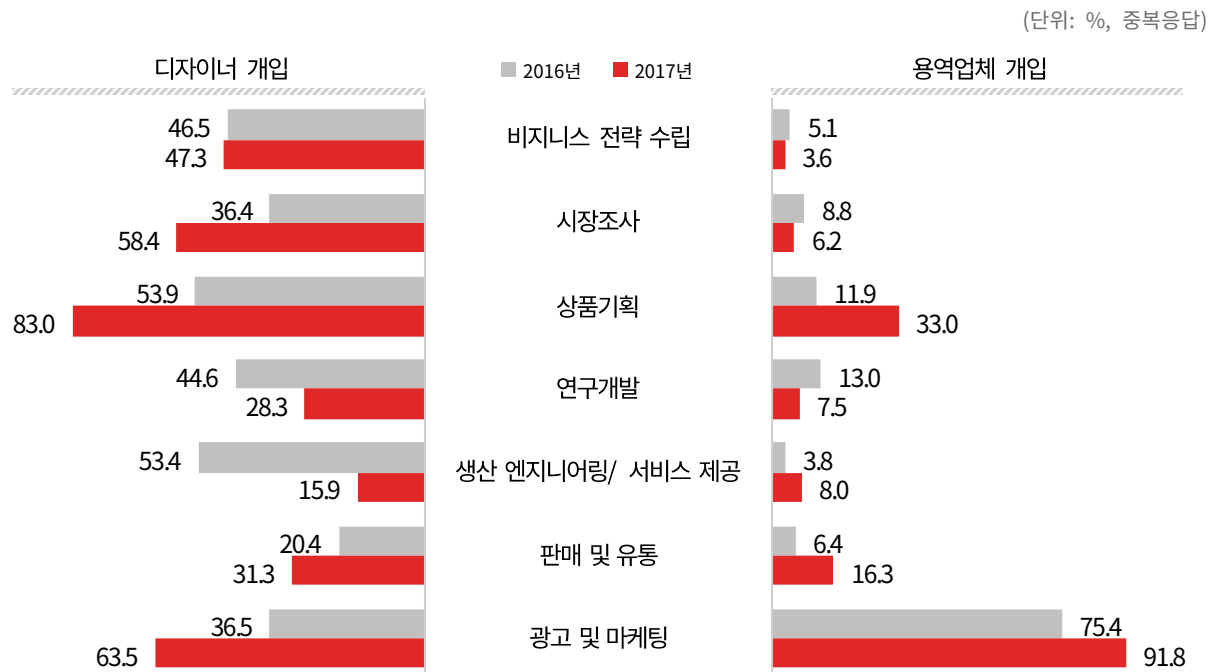


## 2)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 디자인 활용업체의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가 개입하는 단계(중복응답 기준)는 ‘상품기획’(83.0%)이 가장 높고, 이어 ‘광고 및 마케팅’(63.5%) ‘시장조사’(58.4%), ‘비즈니스 전략 수립’(47.3%) 등의 순으로 높음.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가 개입하는 단계(중복응답 기준)는 ‘광고 및 마케팅’(91.8%)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상품기획’(33.0%)이 뒤를 이음.

### »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 » 업종별, 규모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개입 단계

(단위: %)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 활용업체		47.3	58.4	83.0	28.3	15.9	31.3	63.5
업종별	제품 디자인	84.2	62.6	77.0	38.7	20.5	82.1	75.2
	시각 디자인	70.3	50.3	80.5	10.1	6.6	81.3	98.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3.8	39.2	97.9	2.6	3.0	5.3	96.7
	공간 디자인	37.5	78.2	77.2	64.7	35.9	15.5	18.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6	58.3	95.6	65.6	0.1	8.3	14.8
	서비스/경험 디자인	28.8	57.7	54.3	2.4	11.9	8.2	93.6
	산업공예 디자인	13.2	60.8	77.1	75.8	66.2	24.8	15.9
	디자인 인프라	52.0	50.2	92.5	5.7	2.3	27.3	80.2
규모별	대기업	43.7	61.4	90.2	70.1	23.8	14.4	32.7
	중견기업	70.7	52.1	89.9	25.0	21.2	35.6	77.8
	중기업	53.2	59.5	79.0	19.4	14.8	25.2	75.7
	소기업	45.2	58.0	84.0	30.4	16.1	33.3	60.1

## » 업종별, 규모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개발	생산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디자인 활용업체		3.6	6.2	33.0	7.5	8.0	16.3	91.8
업종별	제품 디자인	14.6	5.4	30.0	8.3	5.1	66.7	93.1
	시각 디자인	0.0	1.7	57.4	2.1	0.0	45.7	95.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17.5	0.0	31.5	0.0	83.7
	공간 디자인	3.7	13.7	30.6	32.5	31.2	22.5	77.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1	11.2	33.7	22.3	0.0	16.3	58.3
	서비스/경험 디자인	0.2	4.1	0.0	0.0	1.3	1.7	99.6
	산업공예 디자인	0.0	21.9	12.4	31.0	44.3	21.0	70.5
	디자인 인프라	4.3	4.9	58.5	2.5	2.5	10.9	93.8
규모별	대기업	14.1	15.9	38.4	6.0	42.6	2.9	92.2
	중견기업	13.6	17.4	52.2	4.0	20.3	9.1	87.7
	중기업	4.2	10.0	23.6	3.5	4.2	10.1	91.7
	소기업	3.2	5.0	35.0	8.5	8.4	18.1	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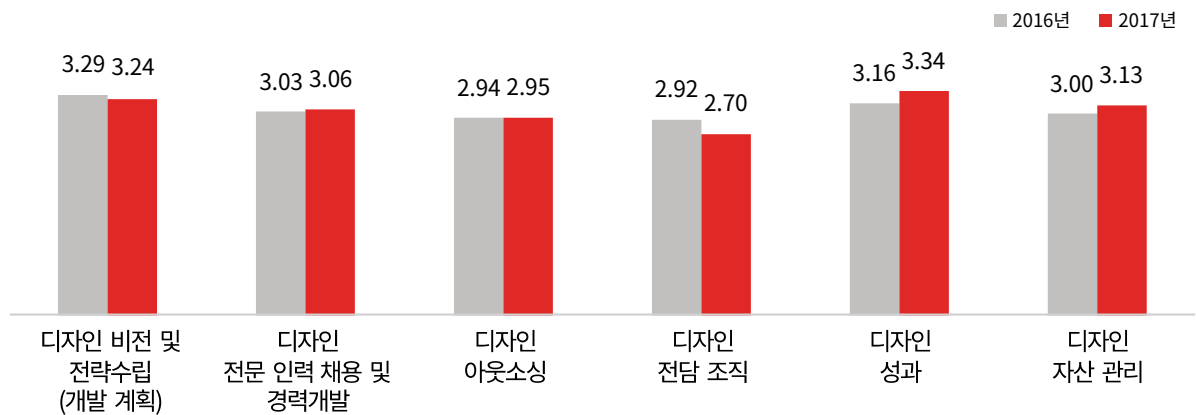
### 3)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 디자인 활용업체 내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성과’(3.34점)가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3.24점), ‘디자인 자산 관리’(3.13점) 등으로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 » 업종별, 규모별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구분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 성과	디자인 자산 관리
디자인 활용업체		3.24	3.06	2.95	2.70	3.34	3.13
업종별	제품 디자인	2.97	2.99	3.26	3.03	3.53	2.96
	시각 디자인	3.23	3.07	3.16	2.97	3.79	3.1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95	3.31	3.01	2.47	3.49	3.78
	공간 디자인	2.85	2.88	2.79	3.00	3.08	3.1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30	2.93	2.98	3.11	3.69	3.01
	서비스/경험 디자인	2.81	2.85	2.92	2.84	3.46	2.91
	산업공예 디자인	2.74	2.82	3.21	3.03	3.01	2.98
	디자인 인프라	3.76	3.31	2.86	2.24	3.23	3.26
규모별	대기업	3.17	2.83	2.98	2.83	3.33	3.42
	중견기업	3.57	3.54	2.99	2.94	3.36	3.33
	중기업	3.46	3.11	2.98	2.73	3.42	3.25
	소기업	3.18	3.04	2.94	2.69	3.32	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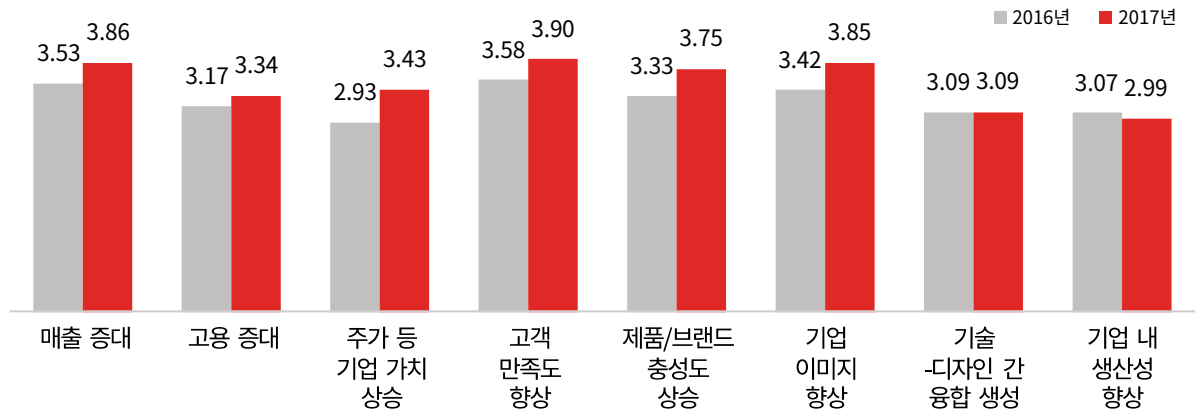
#### 4)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 디자인 활용업체 내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5점 만점)를 살펴본 결과,

‘고객 만족도 향상’(3.90점), ‘매출 증대’(3.86점), ‘기업 이미지 향상’(3.85점)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 » 업종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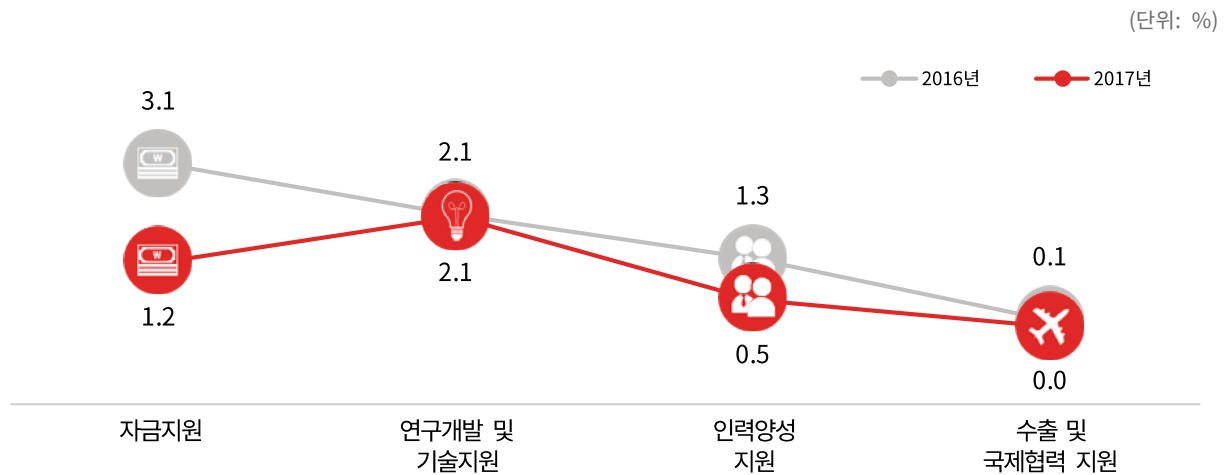
구분		매출 증대	고용 증대	주가 등 기업 가치 상승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브랜드 충성도 향상	기업 이미지 향상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
디자인 활용업체		3.86	3.34	3.43	3.90	3.75	3.85	3.09	2.99
업종별	제품 디자인	3.81	3.10	3.29	3.75	3.72	3.90	3.11	2.92
	시각 디자인	4.26	3.27	3.45	3.99	3.94	4.12	3.31	3.0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40	3.09	3.66	4.33	4.33	4.13	3.40	3.04
	공간 디자인	3.44	3.60	3.19	3.19	3.36	3.34	3.20	3.1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80	2.97	2.95	3.56	3.34	3.67	3.06	3.06
	서비스/경험 디자인	3.64	2.96	2.94	3.69	3.22	3.81	2.93	2.92
	산업공예 디자인	3.44	3.12	2.85	3.19	3.36	3.26	3.02	3.15
	디자인 인프라	4.13	3.61	4.00	4.51	4.28	4.14	3.05	2.91
규모별	대기업	3.60	3.50	3.40	3.57	3.30	3.48	3.28	2.97
	중견기업	3.75	3.64	3.18	3.81	3.85	3.54	3.26	3.05
	중기업	4.00	3.44	3.51	4.04	3.84	3.87	3.09	2.95
	소기업	3.82	3.30	3.42	3.87	3.73	3.85	3.09	3.00

## 5)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 디자인 연구, 개발 등 디자인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은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1%), ‘자금지원’(1.2%), ‘인력양성 지원’(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 » 업종별, 규모별 디자인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

(단위: %)

구분		자금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b>디자인 활용업체</b>		<b>1.2</b>	<b>2.1</b>	<b>0.5</b>	<b>0.0</b>
<b>업종별</b>	제품 디자인	0.0	0.0	0.0	0.0
	시각 디자인	0.0	0.0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0.0	0.0
	공간 디자인	0.0	0.0	0.6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0.7	0.0
	산업공예 디자인	0.0	0.0	0.6	0.0
	디자인 인프라	3.7	6.3	0.7	0.0
<b>규모별</b>	대기업	0.0	0.0	0.4	0.0
	중견기업	0.0	0.0	10.3	0.0
	중기업	2.5	6.2	1.8	0.0
	소기업	0.9	1.0	0.0	0.0

## 4. 인력현황

### 1)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 디자인 활용업체의 총 종사자수는 평균 28.96명으로 2016년(34.43명) 대비 5.4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디자이너 수는 평균 2.04명(2016년 2.16명)으로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은 255,047명으로 추정됨.

### 연도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차이
총 종사자수 평균 (대상: 디자인 활용업체)	52.08	37.78	34.43	28.96	▼5.47
디자이너수 평균 (대상: 디자인 활용업체)	2.64	2.47	2.16	2.04	▼0.12
디자이너수 평균 (대상: 디자이너 고용업체)	3.74	3.93	3.62	3.05	▼0.57

### 업종별, 규모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종사자수 평균 (대상: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이너수 평균 (대상: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이너수 평균 (대상: 디자이너 고용업체)
디자인 활용업체		28.96	2.04	3.05
업종별	제품 디자인	85.54	3.19	5.26
	시각 디자인	23.38	2.35	2.5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21.33	2.51	2.57
	공간 디자인	24.28	2.43	3.0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5.93	2.56	3.22
	서비스/경험 디자인	26.81	2.07	7.31
	산업공예 디자인	18.78	1.71	1.81
	디자인 인프라	20.03	1.30	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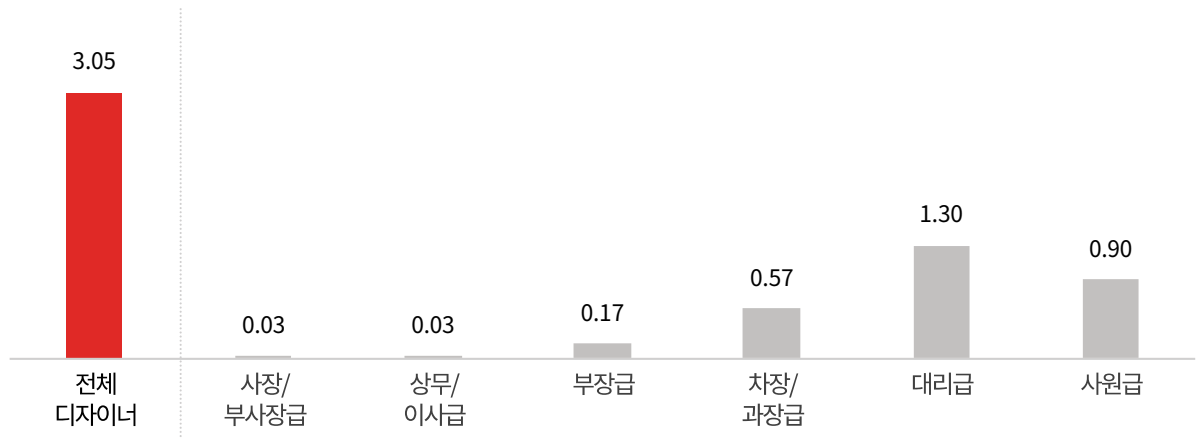
구분		총 종사자수 평균 (대상: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이너수 평균 (대상: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이너수 평균 (대상: 디자이너 고용업체)		
		2016년	2017년	차이	2016년	2017년	차이	2016년	2017년	차이
규모별	대기업	782.00	932.25	▲150.25	11.26	11.36	▲ 0.10	17.55	14.09	▼ 3.46
	중견기업	259.38	264.97	▲ 5.59	8.72	10.42	▲ 1.70	12.95	16.19	▲ 3.24
	중기업	56.14	42.93	▼ 13.21	3.10	3.41	▲ 0.31	4.77	4.62	▼ 0.15
	소기업	14.89	12.03	▼ 2.86	1.65	1.46	▼ 0.19	2.85	2.26	▼ 0.59

## 2) 직급별/학력별/연령별 디자이너 수

- 직급별로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대리급’(1.30명), ‘사원급’(0.90명), ‘차장/과장급’(0.5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직급별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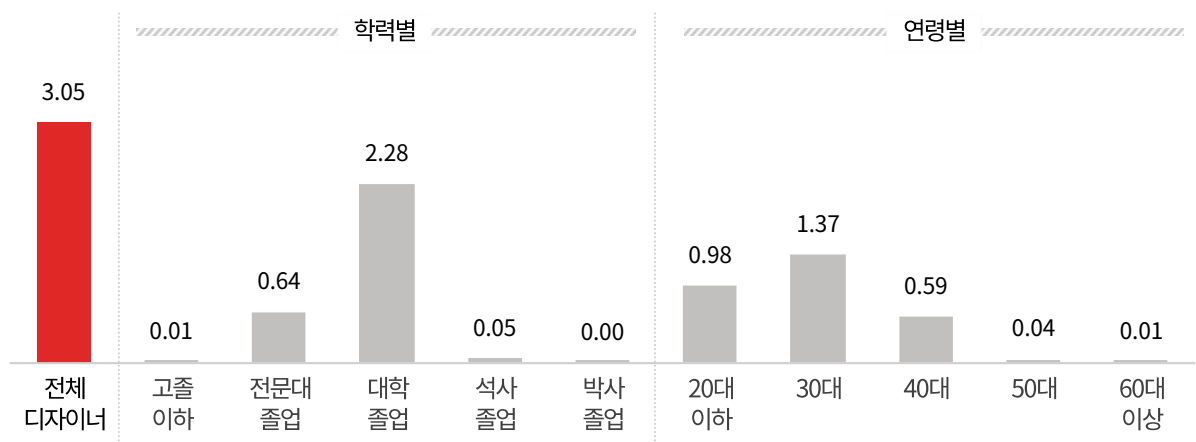
(단위: 명)



- 학력별로는 ‘대학졸업’(2.28명)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전문대졸업’(0.64명)이 뒤를 이음.
-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디자이너 연령대는 20~40대가 높음.

### » 학력별/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평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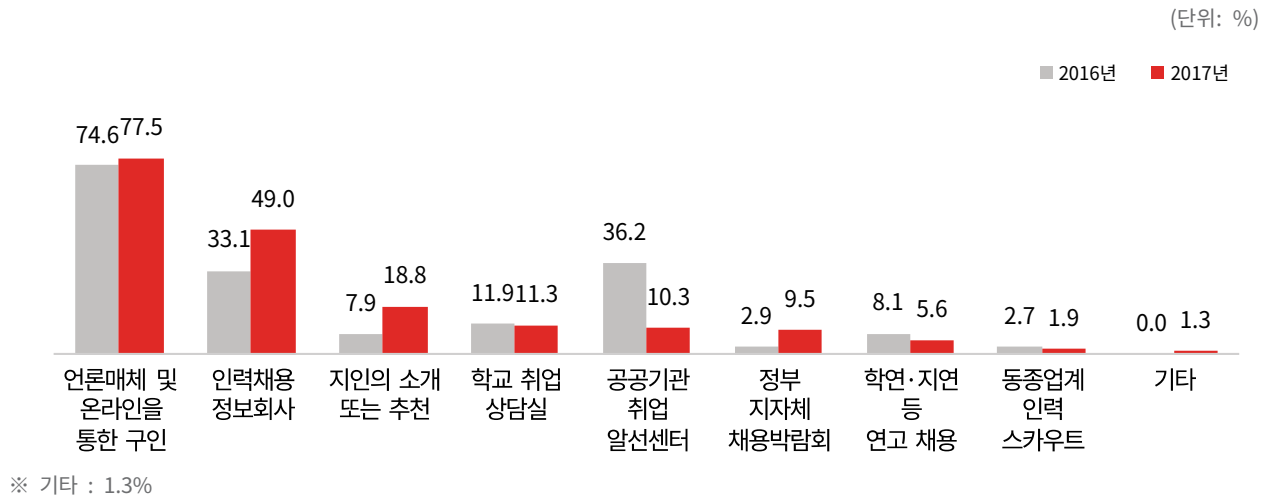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디자인 활용업체		0.40	0.44	0.28	0.71	0.19	0.49	0.47	0.00	0.01
규모별	대기업	1.16	0.74	0.48	2.56	1.58	0.19	0.84	0.00	0.11
	중견기업	1.17	1.54	3.57	5.15	1.97	0.00	2.69	0.00	0.10
	중기업	0.46	0.37	0.55	1.44	0.15	0.64	0.98	0.00	0.01
	소기업	0.36	0.44	0.15	0.40	0.16	0.45	0.28	0.00	0.00

## 5. 기타

### 1) 디자인 인력채용 경로(중복응답 기준)

- 디자인 연구, 개발 등 디자인 인력을 채용한 경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77.5%), ‘인력채용 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49.0%),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18.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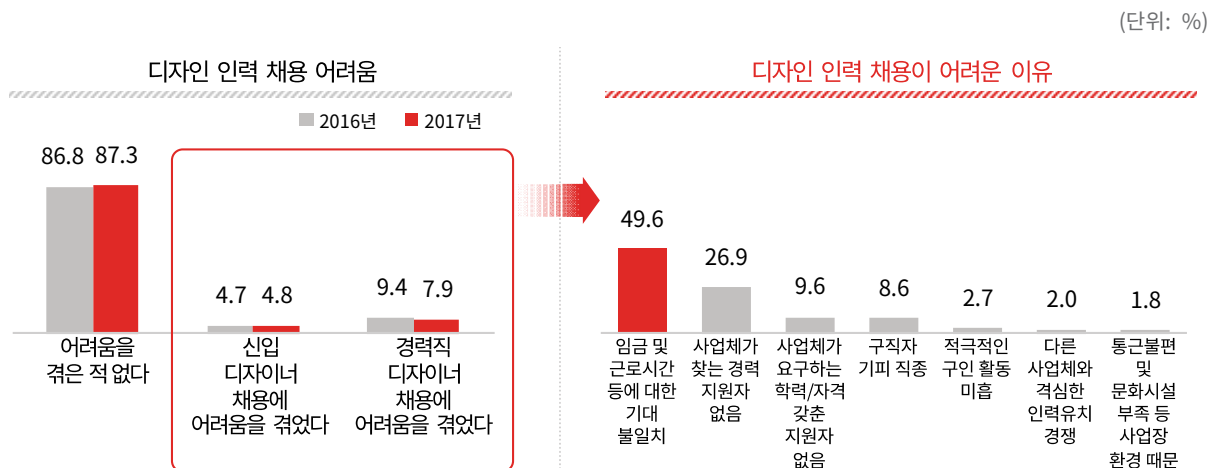
#### » 디자인 인력채용 경로(중복응답 기준)



### 2) 디자인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 디자인 인력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신입 채용 어려움’ 4.8%, ‘경력직 채용 어려움’ 7.9%로 나타났으며, 어려운 이유로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49.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업체가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26.9%)이 그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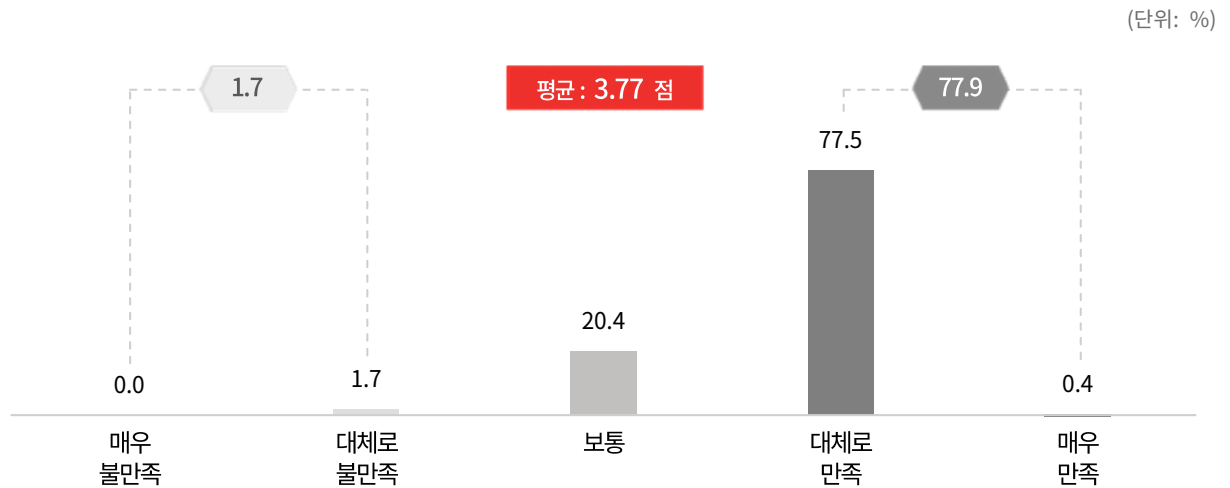
#### » 디자인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 3) 최근 3년간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 디자인 연구, 개발 등 디자인과 관련해 최근 3년간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5점 평균)는 평균 3.77점(전년도 3.74점)으로 나타남. 긍정 평가는 77.9%, 부정 평가는 1.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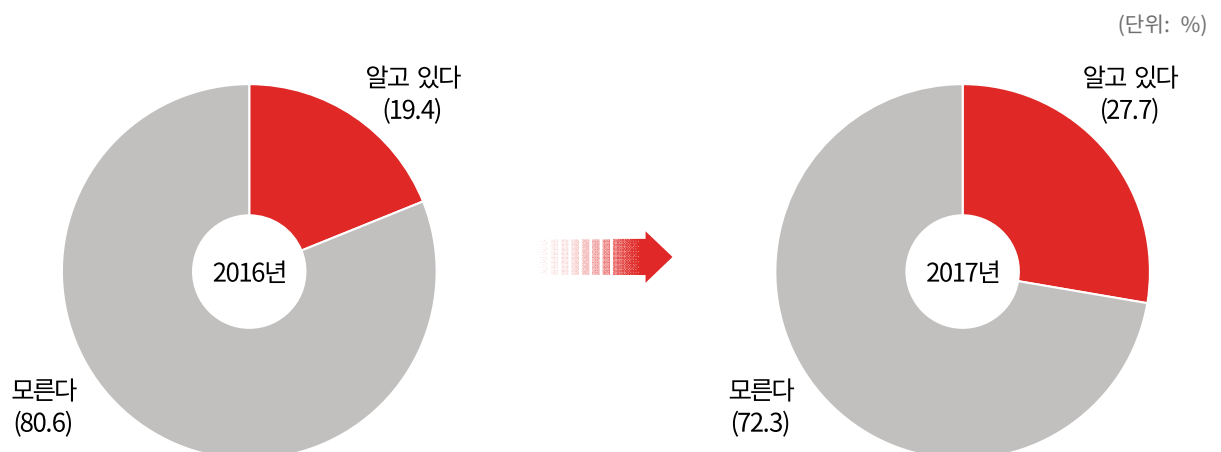
#### » 최근 3년간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 만족도



###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 여부

- 디자인 활용업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는 ‘알고 있다’가 27.7%, ‘모른다’는 72.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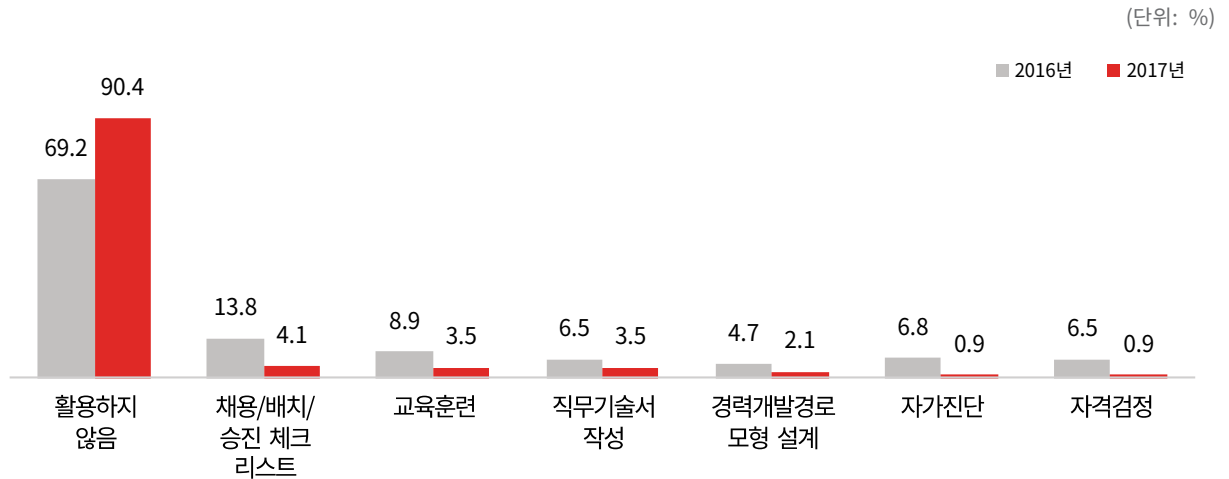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 여부



## 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중복응답 기준)

- 디자인 활용업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 방안은 ‘채용/배치/승진 체크 리스트’(4.1%), ‘교육훈련’(3.5%), ‘직무기술서 작성’(3.5%),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2.1%)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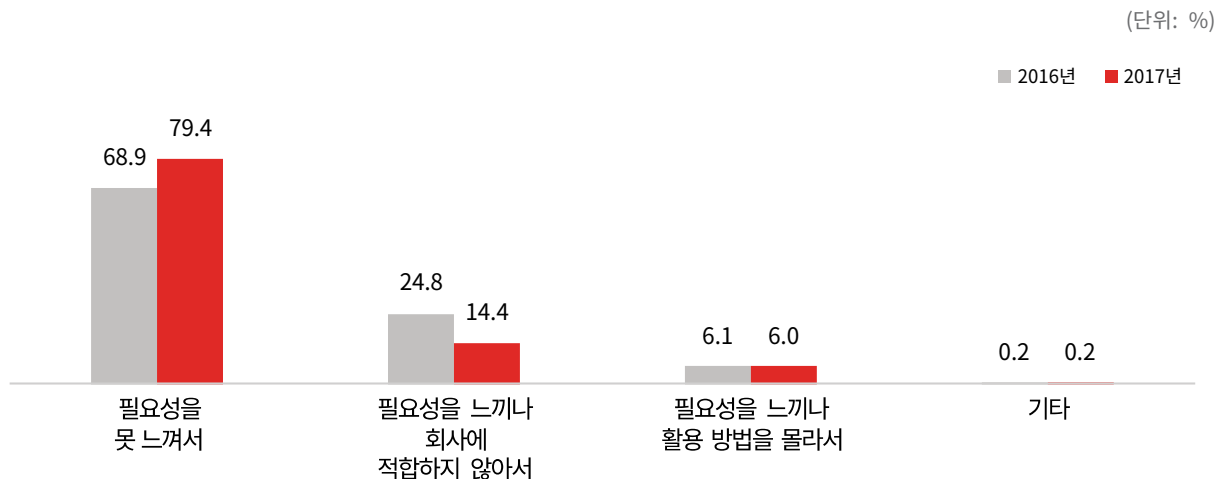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중복응답 기준)



##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디자인 활용업체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79.4%)가 가장 높고, 다음은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14.4%),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6.0%) 등의 순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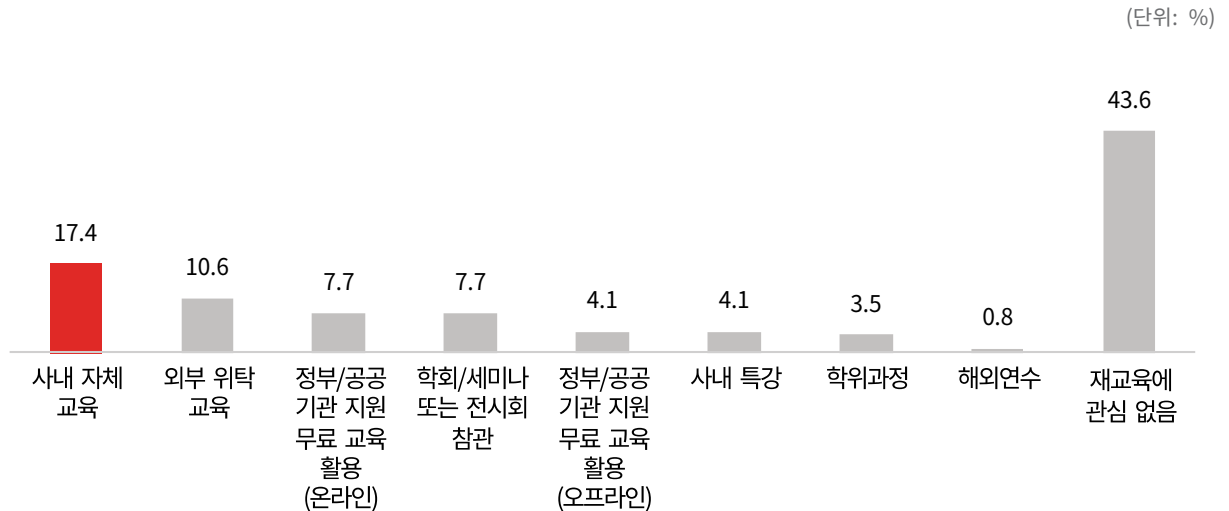




### 7-1)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디자인 활용업체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사내 자체 교육’(17.4%)이 높고, 그 다음은 ‘외부 위탁 교육’(10.6%)이 뒤를 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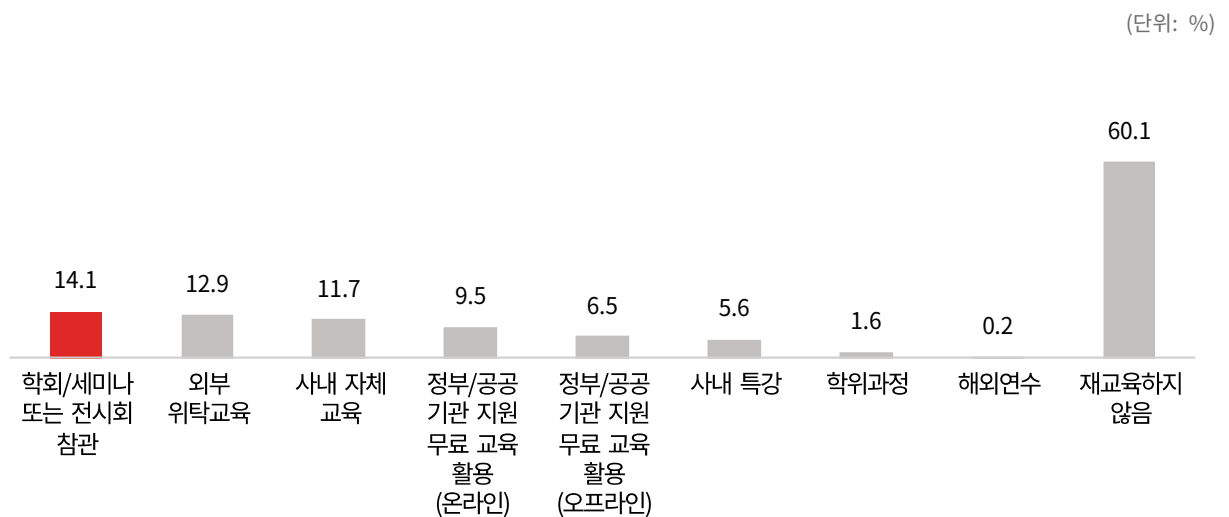
####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7-2)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디자인 활용업체에서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4.1%)이 가장 높고, 다음은 ‘외부 위탁교육’(12.9%), ‘사내 자체 교육’(11.7%),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9.5%) 등의 순임.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60.1%로 나타남.

#### » 최근 1년 이내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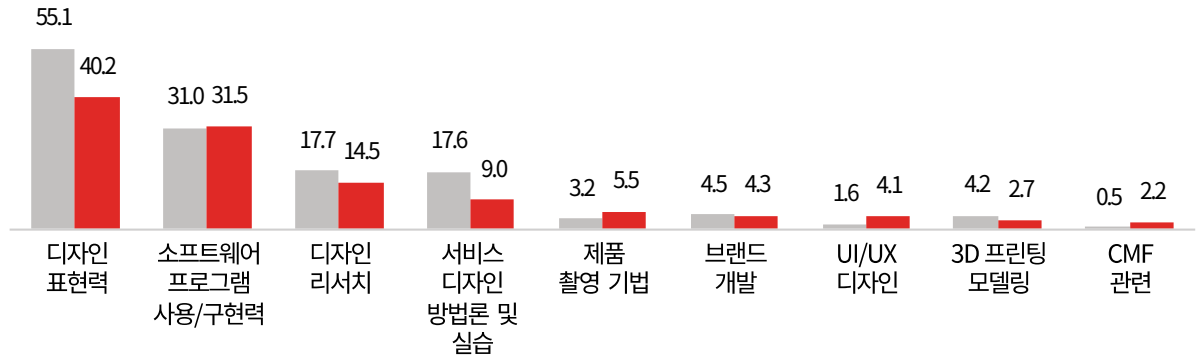
## 8) 필요 교육 프로그램

- 디자인 활용업체가 필요로 하는 디자인 스킬·툴 교육으로 ‘디자인 표현력’(40.2%)이 가장 높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1.5%), ‘디자인 리서치’(1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필요 교육 프로그램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상위 10위)

■ 2016년 ■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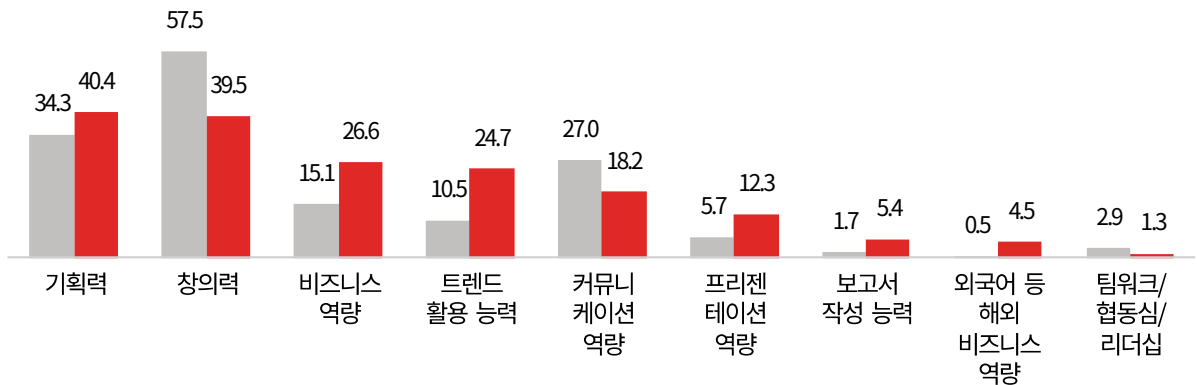


- 필요한 역량 향상 교육으로는 ‘기획력’(40.4%), ‘창의력’(39.5%)이 높고, 다음은 ‘비즈니스 역량’(26.6%), ‘트렌드 활용 능력’(24.7%), ‘커뮤니케이션 역량’(18.2%) 등의 순임.

### » 필요 교육 프로그램 : 역량 향상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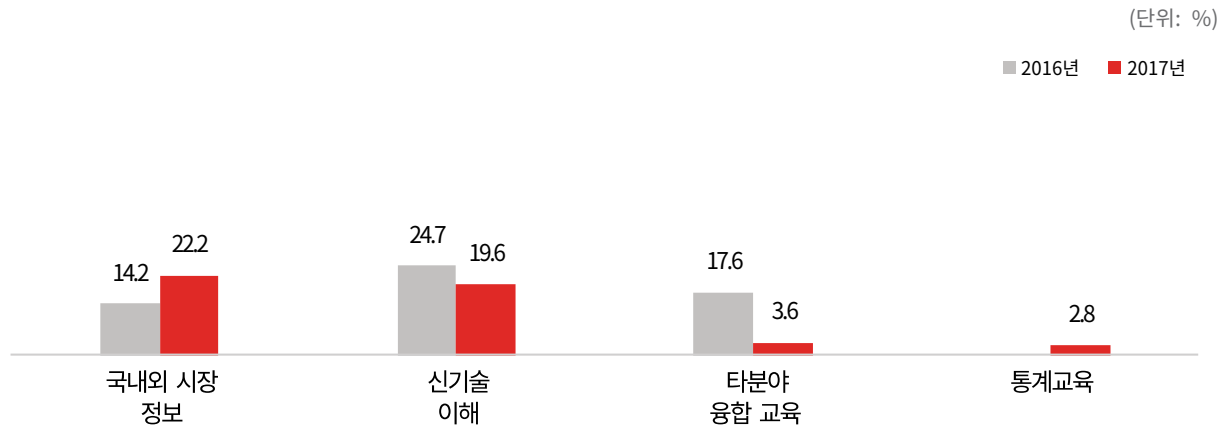
(단위: %)

■ 2016년 ■ 2017년



- 기타 필요한 교육은 ‘국내외 시장 정보’(22.2%), ‘신기술 이해’(19.6%), ‘타분야 융합 교육’(3.6%), ‘통계교육’(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필요 교육 프로그램 : 기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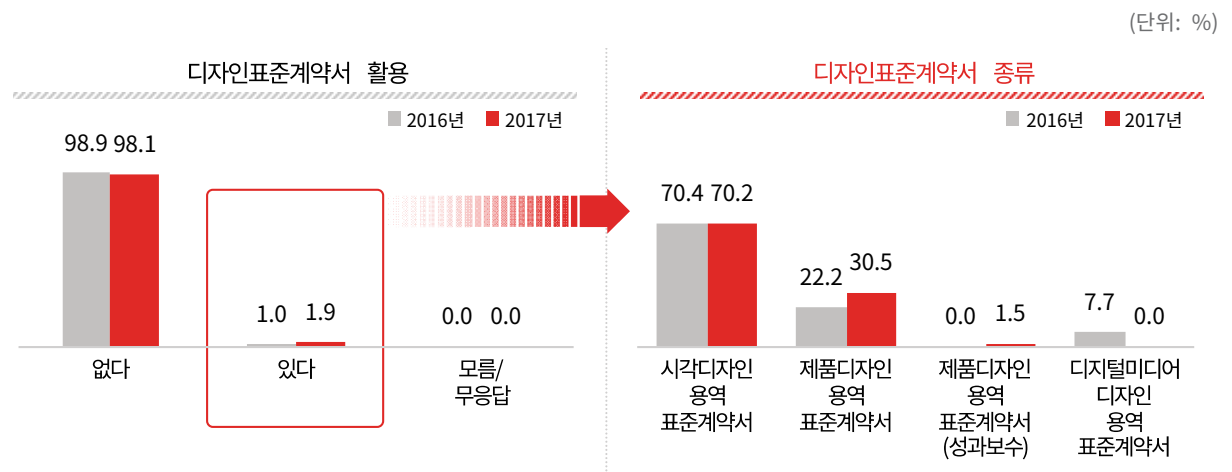


※ ‘통계교육’은 당해 연도부터 추가가 항목임.

## 9)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및 종류

-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해본 디자인 활용업체는 1.9%로 2016년(1.0%)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활용한 디자인표준계약서 종류로는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70.2%)가 가장 많고, 다음은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30.5%)가 뒤를 이음.

##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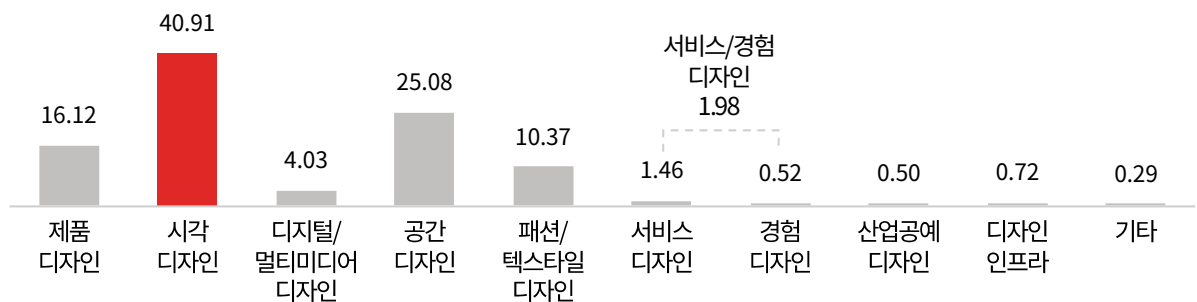
## 1. 일반현황

### 1) 전문디자인업체 주요 디자인 제공 분야

-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주로 제공하는 디자인 분야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 디자인’(40.91%)이 가장 많고, 다음은 ‘공간 디자인’(25.08%), ‘제품 디자인’(16.1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0.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문디자인업체 주요 디자인 제공 분야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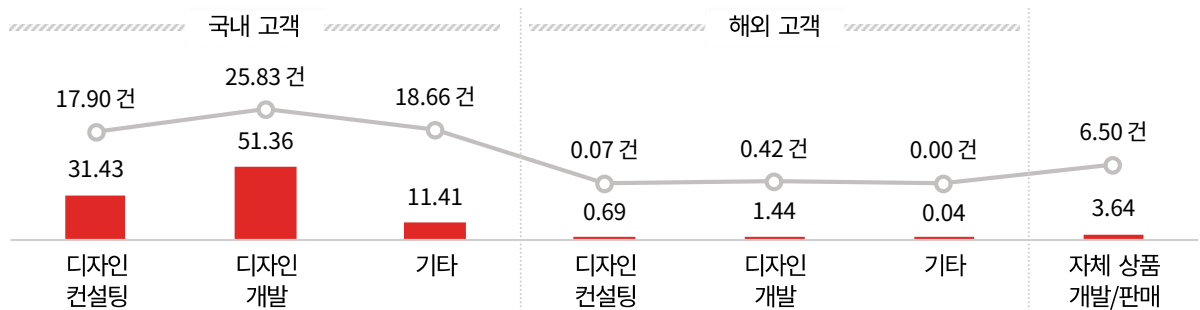


### 2)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중

- 용역 형태별 매출액 비중은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 비중(51.36%, 25.83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국내 디자인 컨설팅’(31.43%, 17.90건)이 뒤를 이음.
- 한편, 해외 고객의 ‘디자인 개발’ 및 ‘디자인 컨설팅’은 매출 구성에서 낮은 비중을 보임.

### »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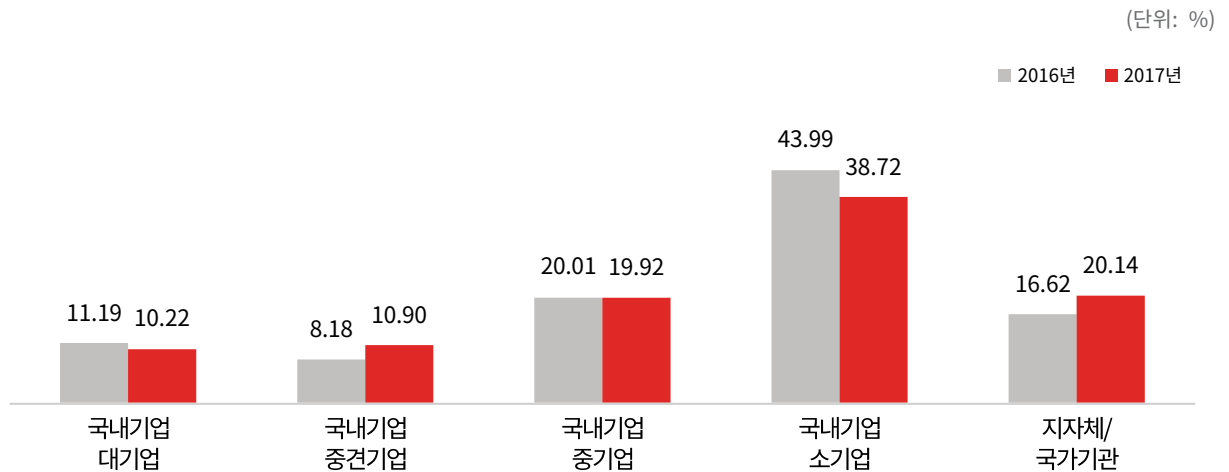


연도	국내 디자인 컨설팅	국내 디자인 개발	국내 기타	해외 디자인 컨설팅	해외 디자인 개발	해외 기타	자체 상품 개발/판매
2017년	31.43%	51.36%	11.41%	0.69%	1.44%	0.04%	3.64%
	17.90건	25.83건	18.66건	0.07건	0.42건	0.00건	6.50건
2016년	26.79%	56.98%	11.26%	0.84%	1.74%	0.13%	2.25%
	8.15건	24.39건	3.88건	0.14건	0.78건	0.06건	0.49건

### 3) 디자인 개발 영역의 국내 고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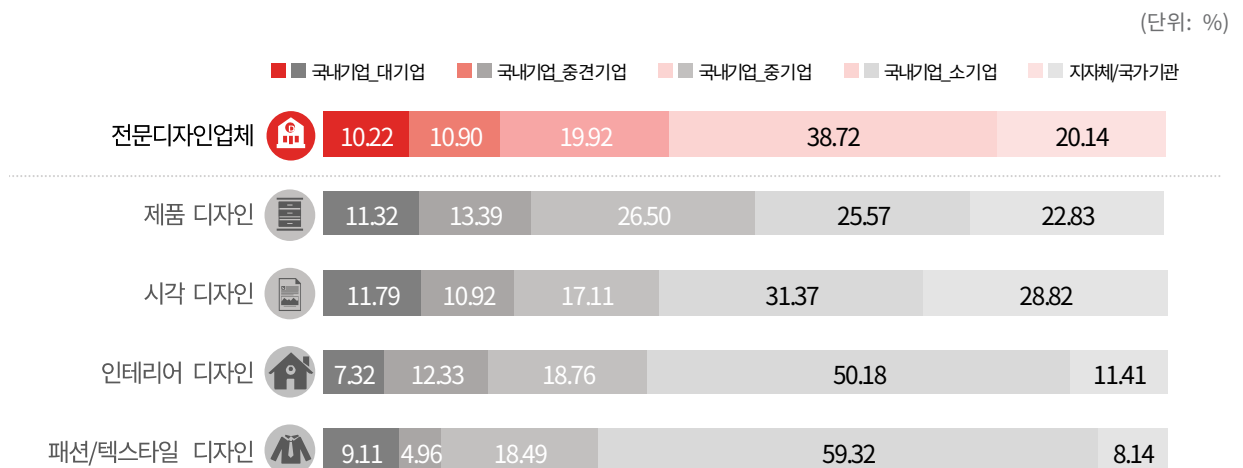
- 디자인 개발 영역(매출액 기준)의 국내 고객 구성은 ‘소기업’이 38.7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지자체/국가기관’(20.14%), ‘중기업’(19.92%), ‘중견기업’(10.90%), ‘대기업’(10.22%) 등의 순임.

#### » 디자인 개발 영역의 국내 고객 구성



- 전문디자인업종별로 살펴보면, ‘소기업’ 비중은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59.32%), 인테리어 디자인(50.18%)에서 높고, 한편, ‘중기업’은 제품 디자인(26.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디자인 개발 영역의 국내 고객 구성



## 2. 재무 및 투자 현황

### 1) 2017 재무 및 사업비 현황

- 전문디자인업체의 2017년 매출액은 평균 6억 4,062만원으로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함.

인건비는 평균 1억 7,828만원(2016년 1억 6,699만원), 연구개발비는 평균 2,473만원(2016년 2,400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6,870만원(2016년 6,501만원)으로 나타남.

2017년 디자인 사업비는 평균 1억 6,560만원(2016년 1억 6,961만원)임.

### » 연도별 재무 및 디자인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6년 대비 차이
매출액	659.35	614.94	618.95	640.62	▲21.67
인건비	123.25	171.26	166.99	178.28	▲11.29
연구개발비	13.46	30.27	24.00	24.73	▲ 0.73
영업이익	78.33	89.66	65.01	68.70	▲ 3.69
디자인 사업비	131.6	193.09*	169.61*	165.60*	▼ 4.01

주: 2015년부터 디자인 사업비에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가 추가됨

### » 업종별, 규모별 2017년 재무 및 디자인 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디자인 사업비
전문디자인업체		640.62	178.28	24.73	68.70	165.50
업종별	제품 디자인	613.02	174.92	44.95	78.13	182.54
	시각 디자인	453.76	170.83	22.75	60.23	170.62
	인테리어 디자인	966.24	207.06	13.23	82.60	164.6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48.54	158.57	15.98	54.15	129.58
규모별	1인	121.81	44.58	1.32	14.50	59.98
	2~4인	401.36	103.11	10.33	57.26	117.22
	5~9인	809.90	220.88	23.48	84.28	207.79
	10~14인	1456.70	365.38	84.63	103.57	313.84
	15인 이상	2655.02	849.05	170.58	215.05	551.03

## 2) 세부 항목별 디자인 사업비

- 전문디자인업체의 세부항목별 디자인 사업비는 ‘디자이너 인건비’가 평균 1억 961만원으로 전체 디자인 사업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이어 용역비(디자인업체 용역 : 1,219만원, 그 외 디자인 용역 : 1,874만원)가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규모별 세부 항목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 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 장치 및 소프트 웨어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	디자인/ 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 산권 구입/ 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전문디자인업체		109.61	12.19	18.74	4.12	4.99	0.92	1.68	13.36
업종별	제품 디자인	113.79	14.59	17.92	5.99	6.01	0.96	4.31	18.96
	시각 디자인	112.88	14.60	19.24	3.70	6.68	0.86	1.14	11.52
	인테리어 디자인	112.26	9.03	25.40	3.94	2.18	1.29	0.52	10.0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1.49	7.46	8.85	2.55	3.54	0.44	0.74	14.51
규모별	1인	40.22	7.39	5.01	0.65	1.75	0.11	0.03	4.83
	2~4인	73.68	6.02	17.78	3.56	3.30	0.43	0.95	11.50
	5~9인	140.70	16.92	19.43	4.48	6.54	1.44	2.10	16.17
	10~14인	199.41	33.97	37.64	3.64	9.94	1.47	9.51	18.27
	15인 이상	391.47	37.20	44.49	17.66	16.98	4.53	3.33	35.38

### 3) 매출액, 디자인 투자, 디자이너 고용 전망<sup>11)</sup>

- 매출액, 디자인 투자, 디자이너 고용 전망을 살펴본 결과, 2018년 디자이너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고, 2019년은 매출액과 디자이너 고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남.

#### » 연도별 매출액, 디자인 사업비, 디자이너 고용 전망 추이

(단위: %)

구분	2016년 대비		2017년 대비	
	2017년 전망	2018년 전망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매출액 전망	97.54	106.99	95.62	101.45
디자인 사업비 전망	98.33	103.39	94.07	98.10
디자이너 고용 전망	112.49	114.53	108.92	110.74
연구개발비 전망	64.82	67.97	76.16	78.04

-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을 제외한 ‘매출액’, ‘디자인 사업비’, ‘연구개발비’ 전망이 부정적으로 나타남.  
‘매출액’ 전망의 경우 5~9인(102.92%), 15인 이상(103.19%)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모든 업종 및 규모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

#### » 업종별, 규모별 2018년 매출액, 디자인 사업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2018년 매출액 전망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전문디자인업체		95.62	94.07	108.92	76.16
업종별	제품 디자인	96.20	95.93	109.27	89.28
	시각 디자인	99.44	93.80	109.76	68.74
	인테리어 디자인	93.08	93.18	109.54	78.7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9.26	93.23	105.39	70.27
규모별	1인	89.92	87.48	110.56	63.62
	2~4인	92.26	92.79	107.40	71.37
	5~9인	102.92	99.74	108.86	87.06
	10~14인	98.24	92.32	114.75	87.83
	15인 이상	103.19	97.75	112.71	89.78

11) 2018년 전망 :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2019년 전망 :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업종별로 분석해보면, 2019년 ‘매출액’은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 분석해보면, ‘매출액’ 전망은 규모가 클수록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디자인 사업비’는 시각 디자인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 고용’ 전망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시각 디자인(114.33%)에서 더욱 높음.

» 업종별, 규모별 2019년 매출액, 디자인 사업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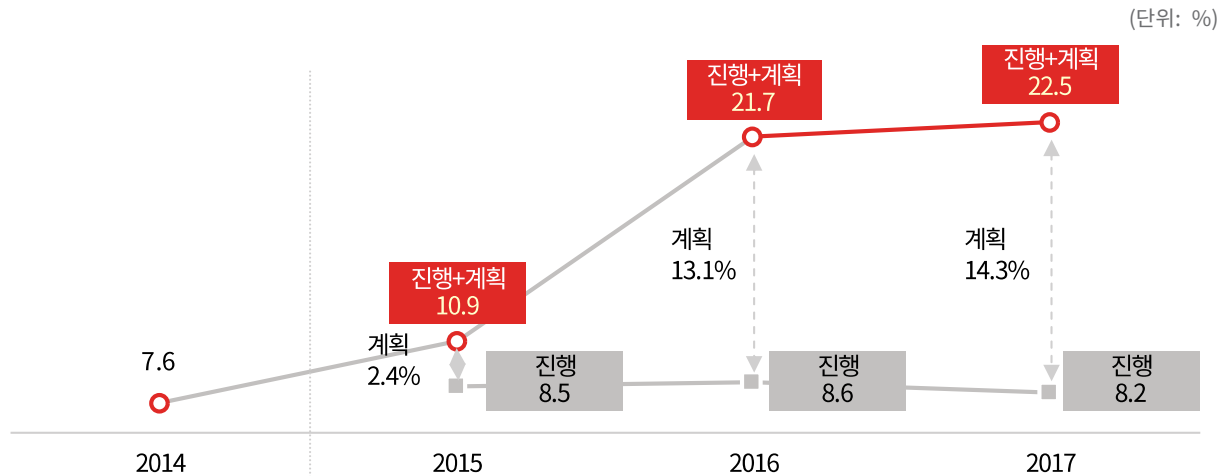
구분		2019년 매출액 전망	2019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2019년 연구개발비 전망
전문디자인업체		101.45	98.10	110.74	78.04
업종별	제품 디자인	100.10	97.96	108.98	92.52
	시각 디자인	108.86	101.21	114.33	71.16
	인테리어 디자인	96.99	96.01	107.75	78.8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1.96	93.85	109.19	71.72
규모별	1인	94.69	91.98	123.68	64.95
	2~4인	98.07	97.07	106.75	72.79
	5~9인	110.11	102.82	111.34	90.67
	10~14인	102.56	96.57	106.27	87.95
	15인 이상	106.65	102.56	111.55	90.26

### 3.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여부

#### 1)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 전문디자인업체 중 현재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 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는 22.5%로 2016년(21.7%)과 비슷한 비율을 보임.

#### »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은 제품 디자인(30.4%)에서 다른 업종 대비 높음.  
규모별로는 15인 이상에서 36.0%로 가장 높았으며, 비즈니스 진행(13.6%) 및 계획(22.4%) 모두 15인 이상 규모에서 높음.

#### » 업종별, 규모별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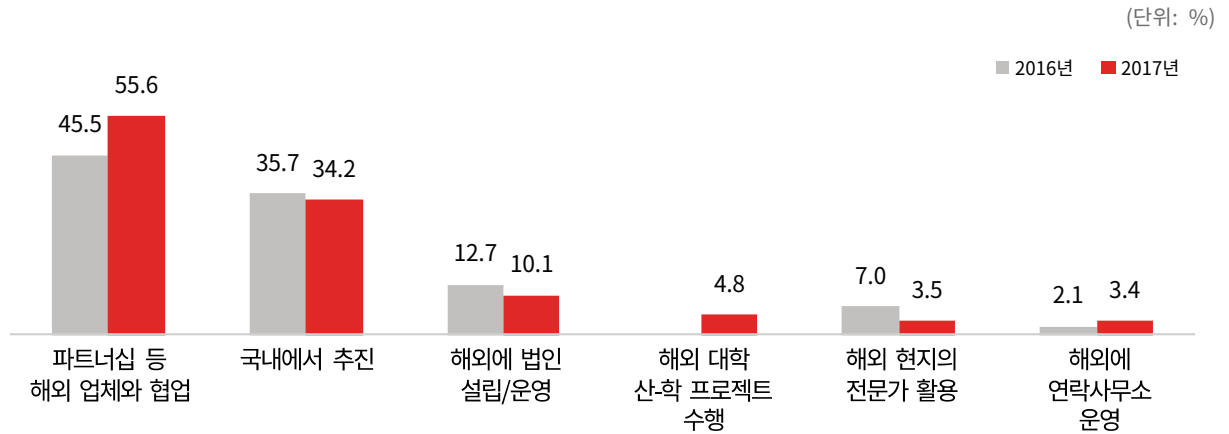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향후 계획 있음	비즈니스 진행 + 계획 있음
전문디자인업체		8.2	14.3	22.5
업종별	제품 디자인	12.3	18.0	30.4
	시각 디자인	4.7	14.6	19.2
	인테리어 디자인	6.1	14.8	20.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6	7.4	21.0
규모별	1인	7.9	15.6	23.5
	2~4인	6.9	13.0	20.0
	5~9인	9.6	14.9	24.6
	10~14인	7.9	11.9	19.8
	15인 이상	13.6	22.4	36.0

## 2) 해외 비즈니스 방법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은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55.6%)이 가장 높고, 다음은 ‘국내에서 추진’(34.2%),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1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해외 비즈니스 방법



- 업종별로 살펴보면,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이 인테리어 디자인(62.3%)에서 높고, ‘국내에서 추진’은 제품 디자인(4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은 10~14인(78.2%), 1인(71.4%)에서 높음.

### » 업종별, 규모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구분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	국내에서 추진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해외 대학과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	해외 현지의 전문가 활용	해외에 연락사무소 운영
전문디자인업체		55.6	34.2	10.1	4.8	3.5	3.4
업종별	제품 디자인	49.3	47.7	3.1	0.0	7.6	2.7
	시각 디자인	56.6	13.2	26.6	0.0	3.6	1.8
	인테리어 디자인	62.3	37.7	15.6	15.6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9.0	30.5	2.5	8.0	0.0	8.0
규모별	1인	71.4	14.3	0.0	32.9	0.0	0.0
	2~4인	43.7	56.3	0.0	0.0	0.0	5.1
	5~9인	64.4	24.0	11.6	0.0	8.7	3.1
	10~14인	78.2	12.1	63.6	0.0	0.0	0.0
	15인 이상	40.8	12.2	38.1	0.0	8.9	4.4

## 4. 인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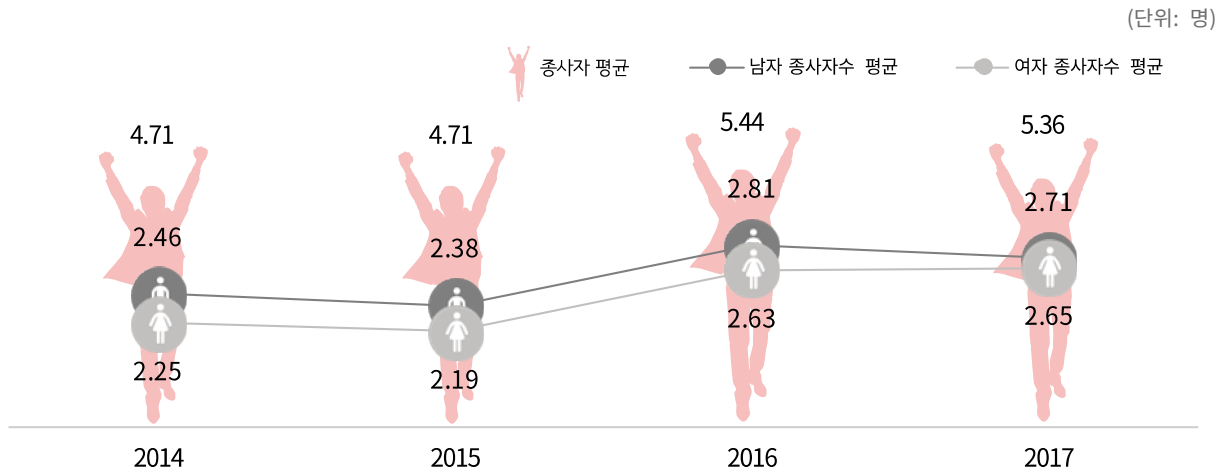
### 1) 종사자 현황

- 전문디자인업체의 총 종사자수 평균은 5.36명으로 2016년(5.44명) 대비 다소 감소함.

전문디자인업체의 전체 총 종사자 수는 29,480명(2016년 29,536명)으로 추정됨.

남자 종사자는 평균 2.71명, 여자 종사자 수는 평균 2.65명임.

### » 종사자 현황



### » 업종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종사자 수 평균	남자 평균	여자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5.36	2.71	2.65
업종별	제품 디자인	5.58	3.19	2.39
	시각 디자인	5.00	2.16	2.84
	인테리어 디자인	6.16	3.53	2.6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69	2.11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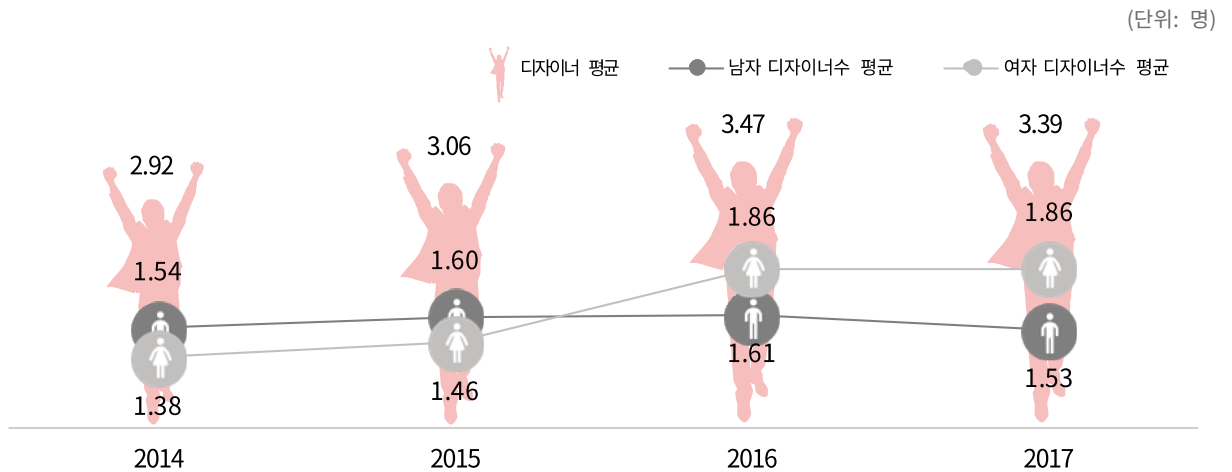
## 2) 디자이너 현황

-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3.39명으로 2016년(3.47명) 대비 다소 감소함.

전체 디자이너 수는 18,645명으로 추정됨(2016년 18,803명).

여자 디자이너 수는 1.86명, 남자 디자이너 수는 1.53명으로 여자가 더 많음.

### » 디자이너 현황



### » 업종별 디자이너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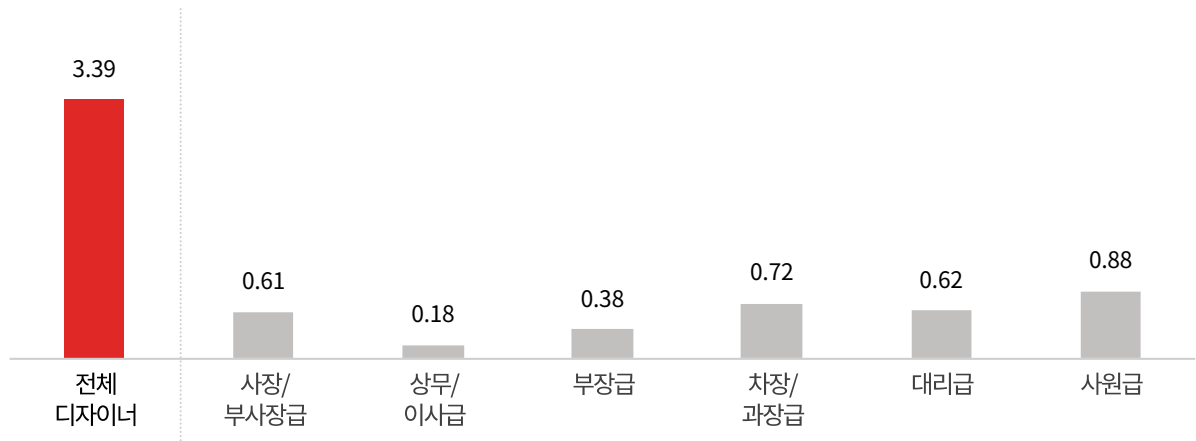
구분		디자이너 수 평균	남자 디자이너 수 평균	여자 디자이너 수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39	1.53	1.86
업종별	제품 디자인	3.73	1.96	1.78
	시각 디자인	3.52	1.46	2.06
	인테리어 디자인	3.27	1.45	1.8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72	1.15	1.57

### 3) 직급별/학력별/연령별 디자이너 수

- 직급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사원급’(0.88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차장/과장급’(0.72명), ‘대리급’(0.62명), ‘사장/부사장급’(0.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직급별 디자이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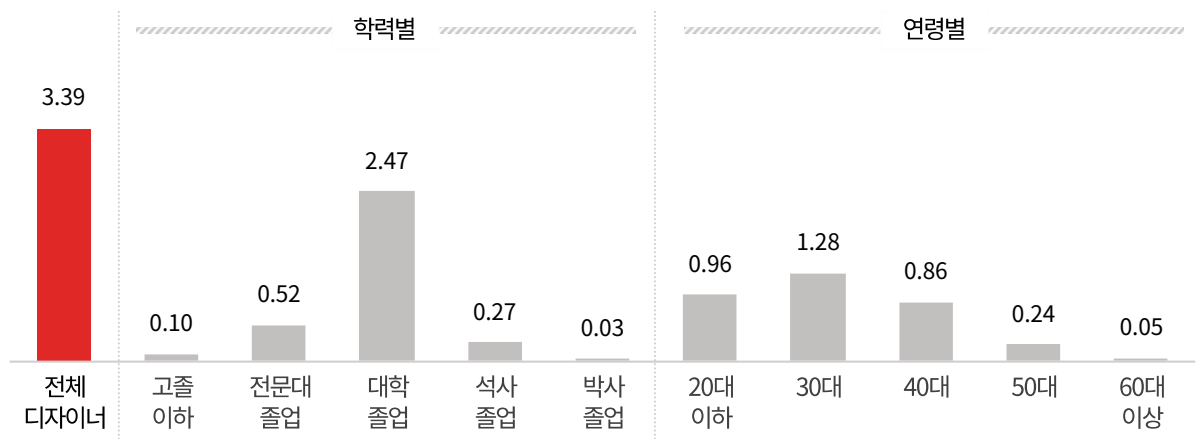
(단위: 명)



- 학력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대학을 졸업한 디자이너 수가 평균 2.47명으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30대(1.28명), 20대 이하(0.96명), 40대(0.86명) 등의 순임.

#### » 학력별/연령별 디자이너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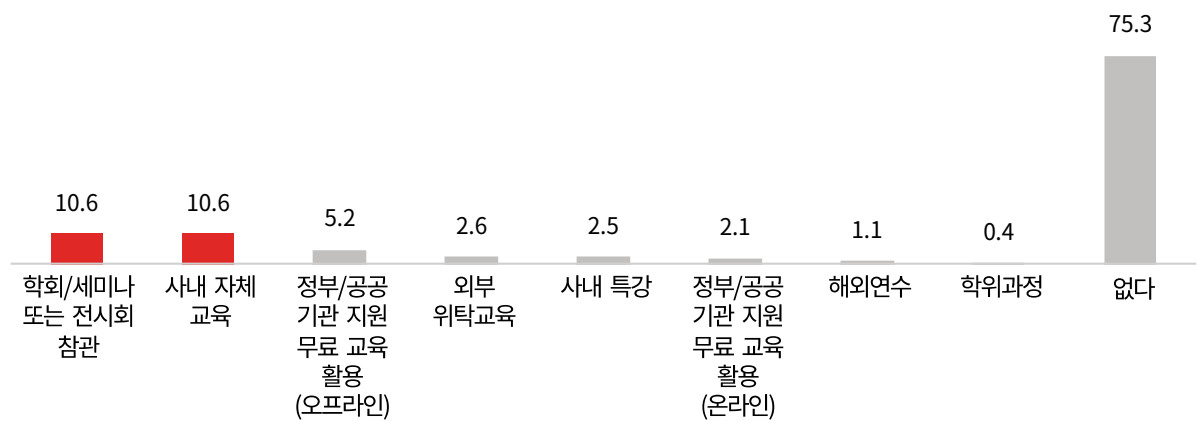
## 5. 디자인 재교육 관련

### 1) 디자이너 재교육 현황

-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실시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0.6%), ‘사내 자체 교육(내부강사)’(10.6%)이 다른 교육 대비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 업종별, 규모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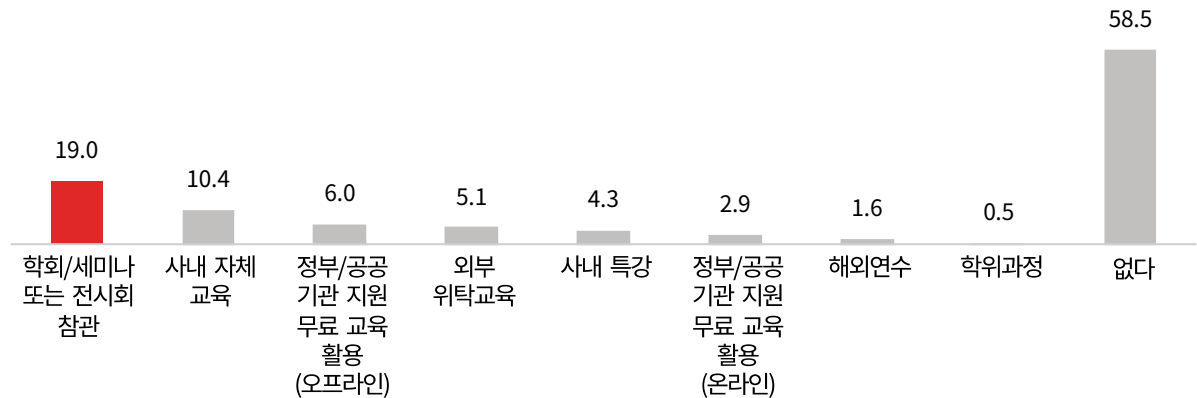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 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육	사내 특강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연수	학위과정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0.6	10.6	5.2	2.6	2.5	2.1	1.1	0.4	75.3
업종별	제품 디자인	14.4	12.9	4.5	3.9	3.8	3.0	0.2	0.5	67.4
	시각 디자인	11.0	11.2	8.3	2.2	2.8	2.2	1.1	0.2	73.1
	인테리어 디자인	11.1	11.2	3.1	3.5	2.0	2.6	2.8	0.0	77.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5	4.7	1.8	0.0	0.5	0.0	0.0	1.1	88.7
규모별	1인	1.5	2.6	1.1	0.0	0.0	0.0	0.0	0.0	96.3
	2~4인	8.7	9.8	5.9	1.8	1.5	2.1	0.6	0.4	77.8
	5~9인	15.1	13.2	5.5	3.1	4.0	1.6	2.1	0.2	68.1
	10~14인	28.0	18.0	4.7	10.1	7.5	9.5	5.2	0.0	43.2
	15인 이상	15.0	20.5	9.0	7.2	5.6	3.7	0.0	2.4	60.7

## 2)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는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9.0%)이 가장 높고, 다음은 ‘사내 자체 교육(내부강사)’(10.4%),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6.0%), ‘외부 위탁교육(유료)’(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 업종별, 규모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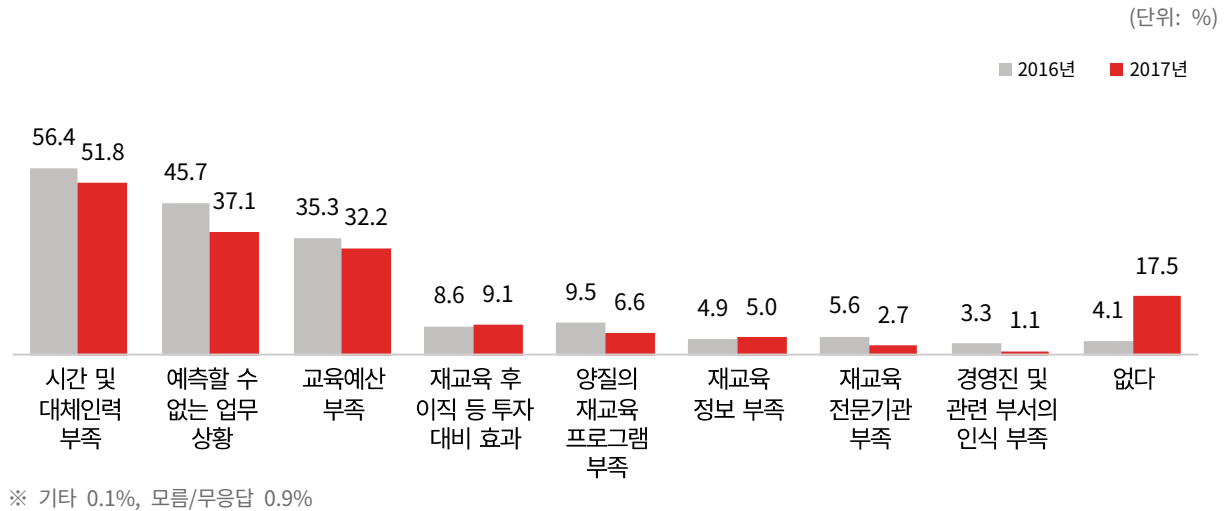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 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육	사내 특강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 연수	학위 과정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9.0	10.4	6.0	5.1	4.3	2.9	1.6	0.5	58.5
업종별	제품 디자인	34.8	16.6	6.8	8.9	6.0	3.9	3.0	0.5	31.2
	시각 디자인	14.9	8.7	10.7	2.8	5.1	2.7	1.1	0.0	64.4
	인테리어 디자인	12.6	10.8	1.2	5.8	0.7	3.5	1.3	0.9	70.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4.8	4.2	0.8	4.2	5.2	1.1	1.1	1.1	68.2
규모별	1인	8.7	1.1	0.0	1.5	0.0	0.0	2.6	0.0	87.6
	2~4인	19.5	10.4	7.6	5.3	3.4	3.4	1.5	0.4	57.6
	5~9인	19.5	12.8	6.6	5.5	5.9	2.8	0.4	0.8	53.8
	10~14인	35.2	19.2	3.4	9.0	5.8	6.0	5.2	0.0	28.8
	15인 이상	26.6	15.1	8.8	8.2	14.3	3.9	1.7	2.4	37.3



### 3) 재교육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

- 재교육 애로사항으로 전문디자인업체 대부분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51.8%),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37.1%), ‘교육예산 부족’(32.2%) 등의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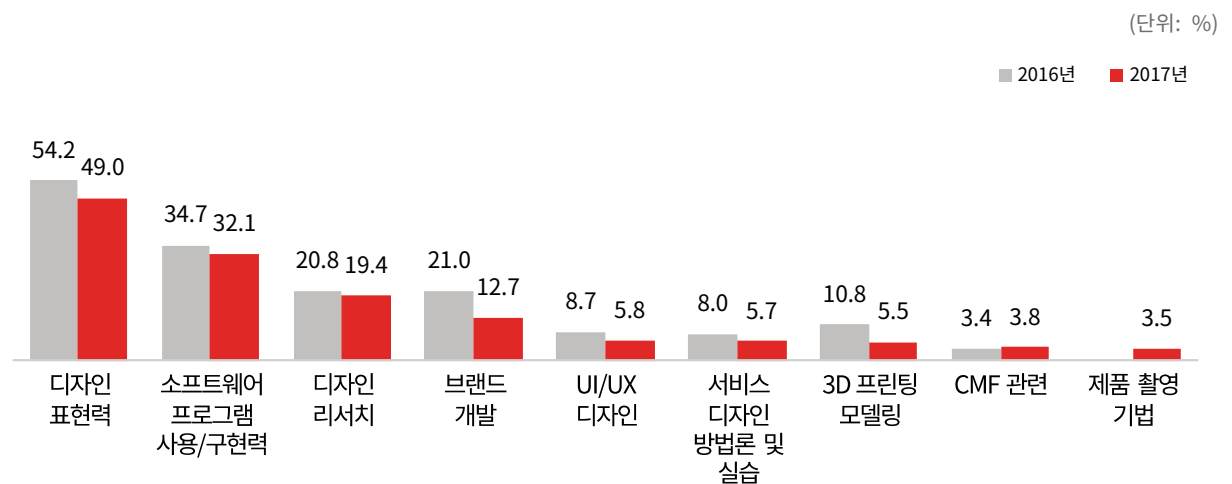
#### » 재교육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



### 4) 필요 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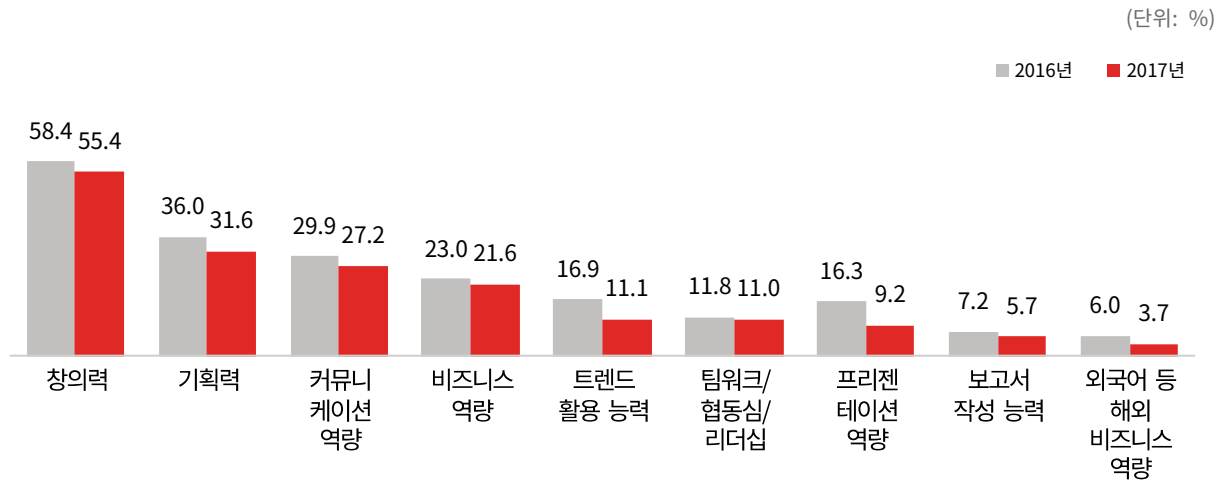
- 디자이너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스킬·툴 교육 중 ‘디자인 표현력’이 49.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2.1%), ‘디자인 리서치’(19.4%), ‘브랜드 개발’(1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필요 교육 프로그램 : 디자인 스킬·툴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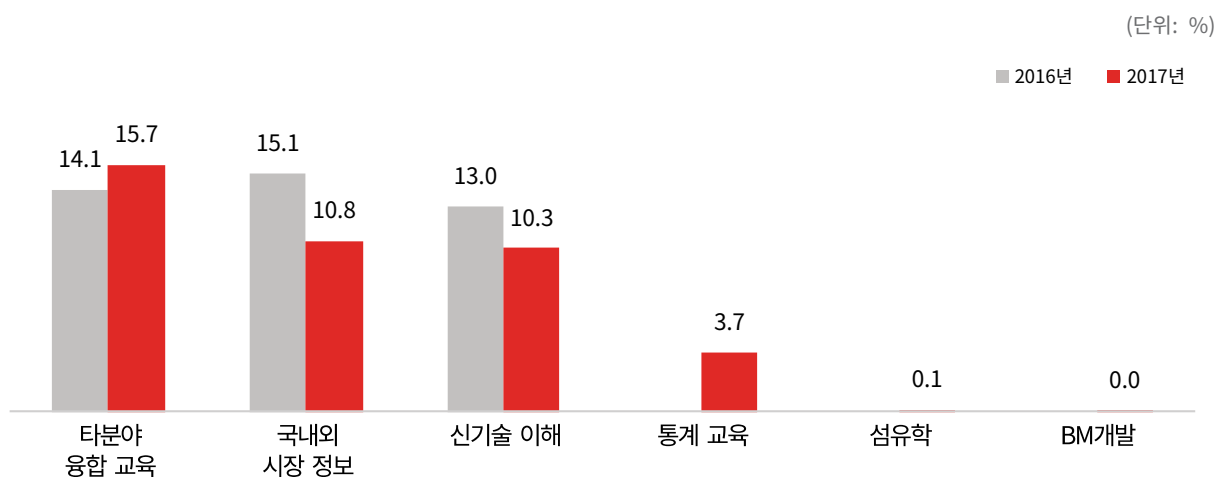
- 필요한 재교육 프로그램(중복응답 기준)으로 역량 향상 교육 중 ‘창의력’(55.4%)이 가장 높고, 다음은 ‘기획력’(31.6%), ‘커뮤니케이션 역량’(27.2%), ‘비즈니스 역량’(21.6%) 등의 순임.

## » 필요 교육 프로그램 : 역량 향상 교육



- 필요한 재교육 프로그램(중복응답 기준)으로 기타 교육 중 ‘타분야 융합 교육’(15.7%), ‘국내외 시장 정보’(10.8%), ‘신기술 이해’(10.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필요 교육 프로그램 : 기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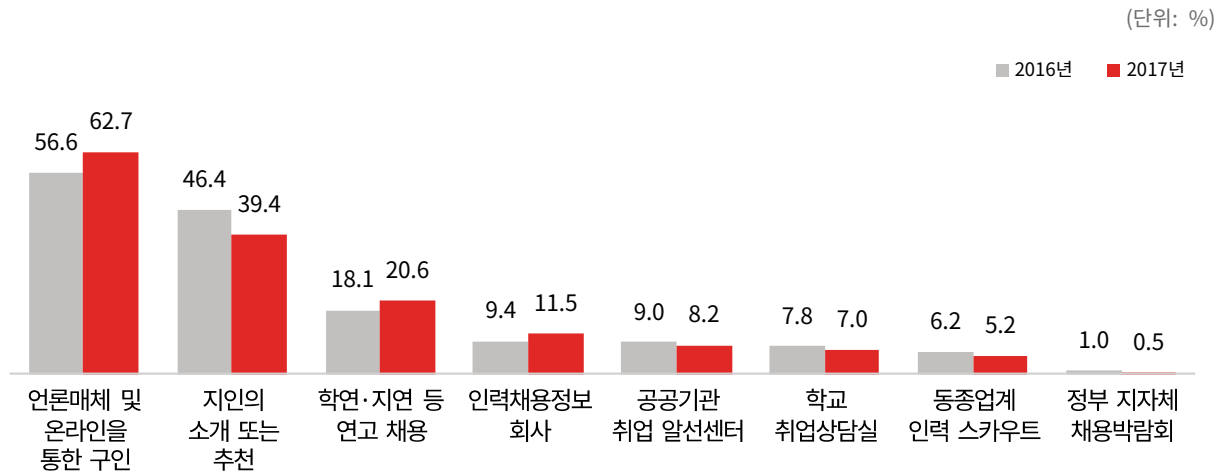


## 6. 고용 인력 관련

### 1) 디자인 인력채용 경로

- 디자인 인력을 채용한 경로(중복응답 기준)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62.7%)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39.4%),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20.6%) 등의 순으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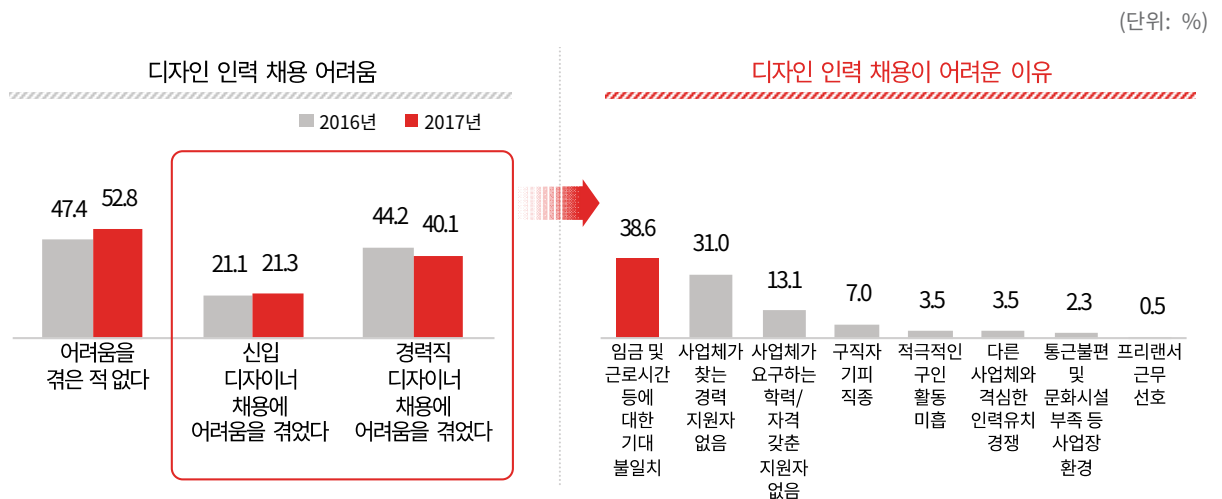
#### » 디자인 인력채용 경로



### 2) 디자인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 디자인 인력채용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신입 채용에 21.3%, 경력직 채용에 40.1%로 나타남.
-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38.6%)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사업체가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31.0%)이 뒤를 이음.

#### » 디자인 인력채용이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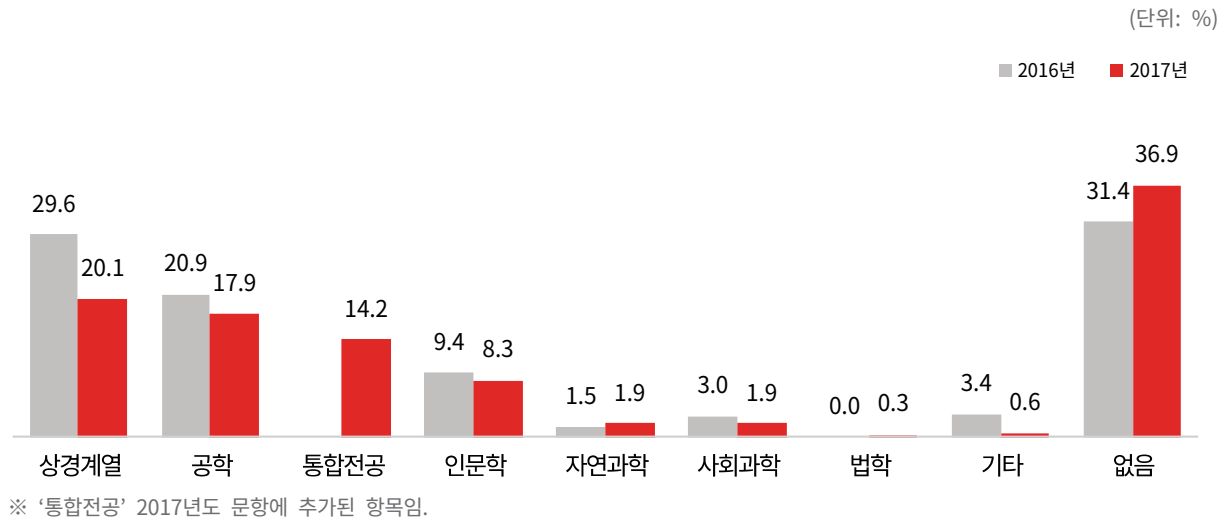


### 3) 디자인 외 필요인력의 전공 분야

- 디자인 외 필요인력의 전공 분야로는 ‘상경계열’이 20.1%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학’(17.9%), ‘통합전공’(14.2%), ‘인문학’(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없음’은 36.9%로 나타남.

#### » 디자인 외 필요인력의 전공 분야



- 업종별로 분석해 보면, ‘상경계열’은 시각 디자인(26.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학’은 제품 디자인(28.9%), 인테리어 디자인(2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외 필요인력의 전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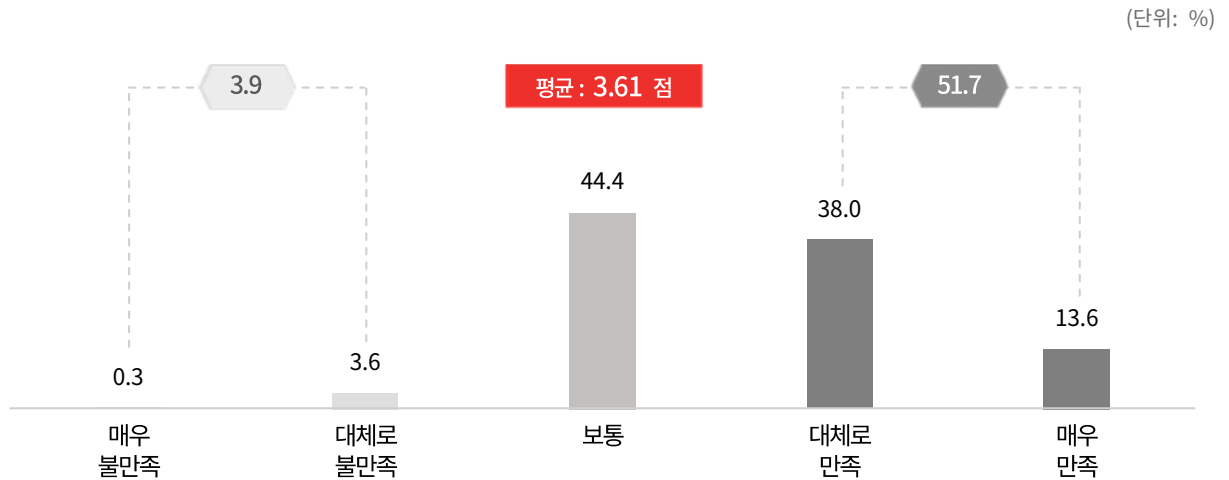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상경계열	공학	통합전공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학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0.1	17.9	14.2	8.3	1.9	1.9	0.3	0.6	36.9
업종별	제품 디자인	19.4	28.9	12.0	7.8	2.8	2.2	0.0	0.0	29.0
	시각 디자인	26.7	7.7	13.7	9.9	0.8	2.5	0.9	1.4	41.9
	인테리어 디자인	17.3	28.3	11.8	9.5	1.6	0.4	0.0	0.0	31.1
	기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3	10.6	22.2	3.8	3.7	2.2	0.0	0.6	45.4

#### 4) 최근 3년 고용 인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61점(보통 3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51.7%, ‘보통’은 44.4%, ‘불만족한다’는 3.9%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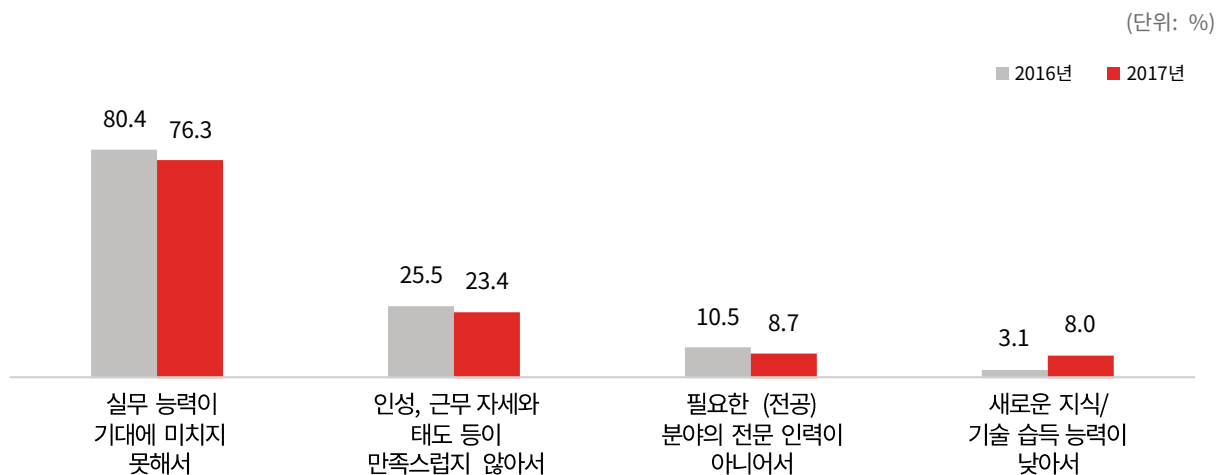
#### » 최근 3년 고용 인력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5) 고용 디자인 인력 불만족 이유

- 고용 인력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로는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가 76.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23.4%),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능력이 낮아서’(8.0%), ‘필요한 (전공)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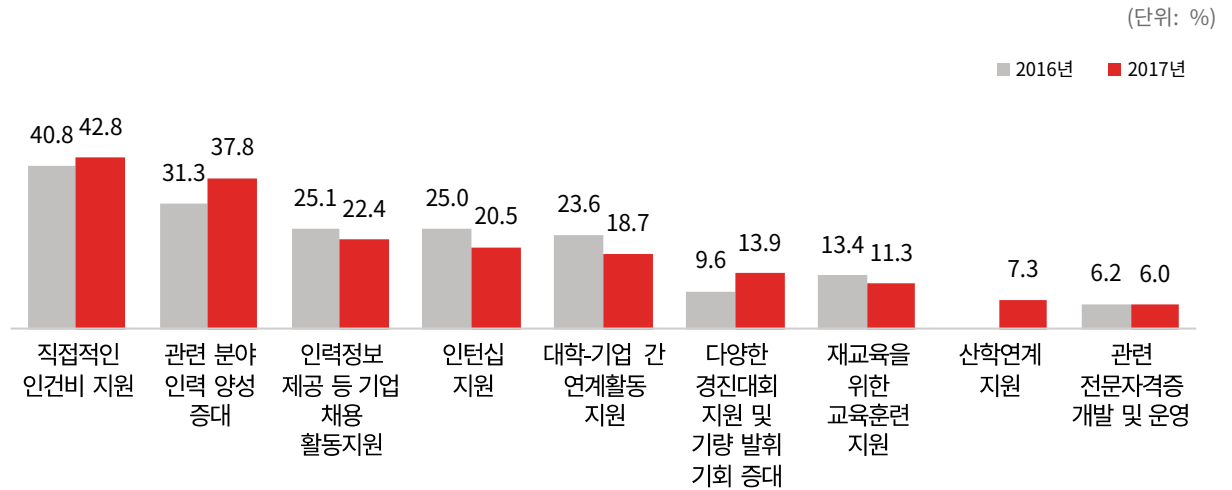
#### » 고용 디자인 인력 불만족 이유



#### 6)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중복응답 기준)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지원으로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42.8%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37.8%),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22.4%), ‘인턴십 지원’(20.5%), ‘대학-기업 간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1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중복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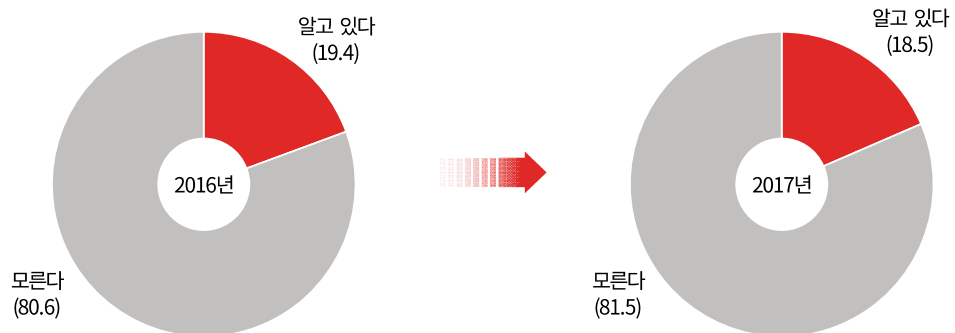
## 7. 기타

###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 여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는 대답은 업체 중 18.5%로 전년도(19.4%)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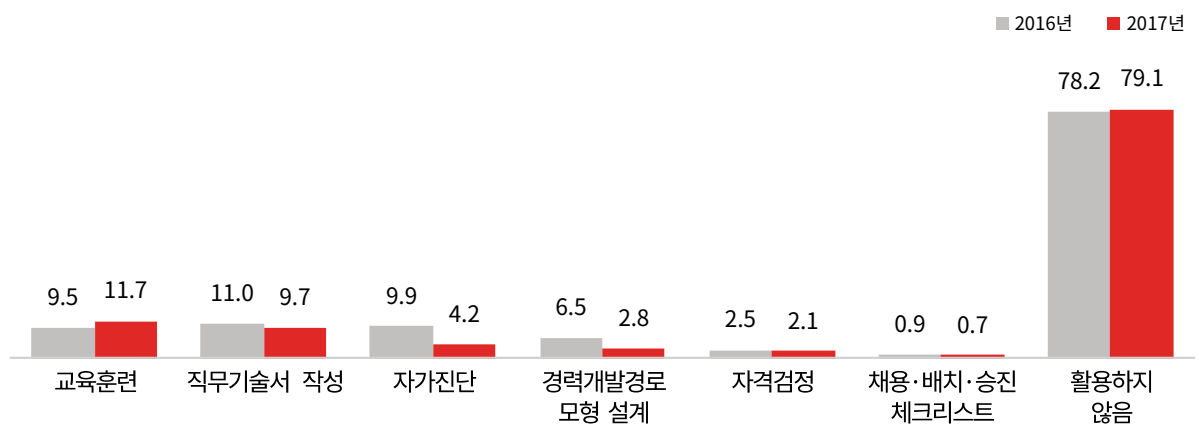


### 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업무 활용도는 ‘교육훈련’(11.7%), ‘직무기술서 작성’(9.7%), ‘자가진단’(4.2%), ‘경력개발경로모형 설계’(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활용하지 않음’의 응답은 79.1%로 높은 비율을 보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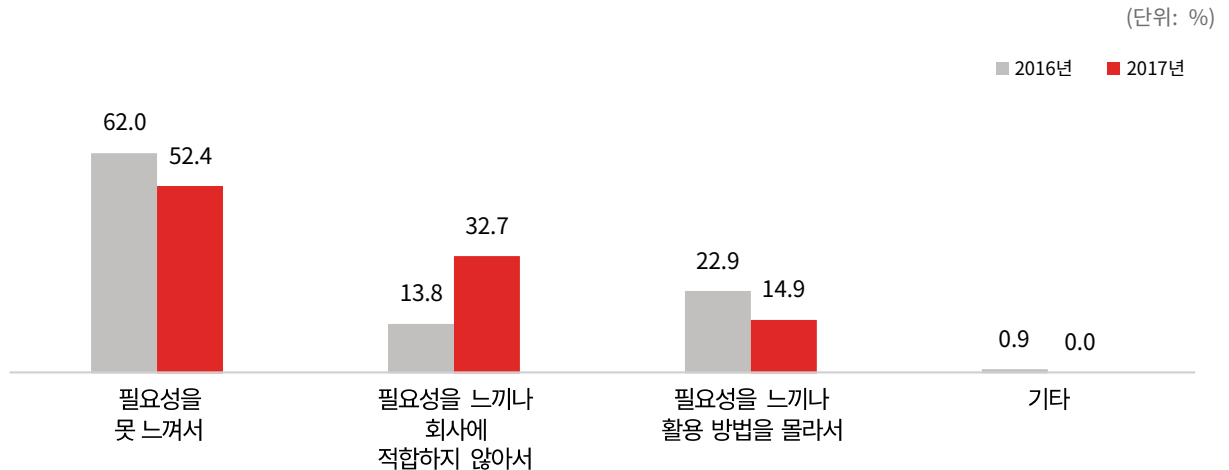
(단위: %)



### 3)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전문디자인업체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52.4%),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32.7%),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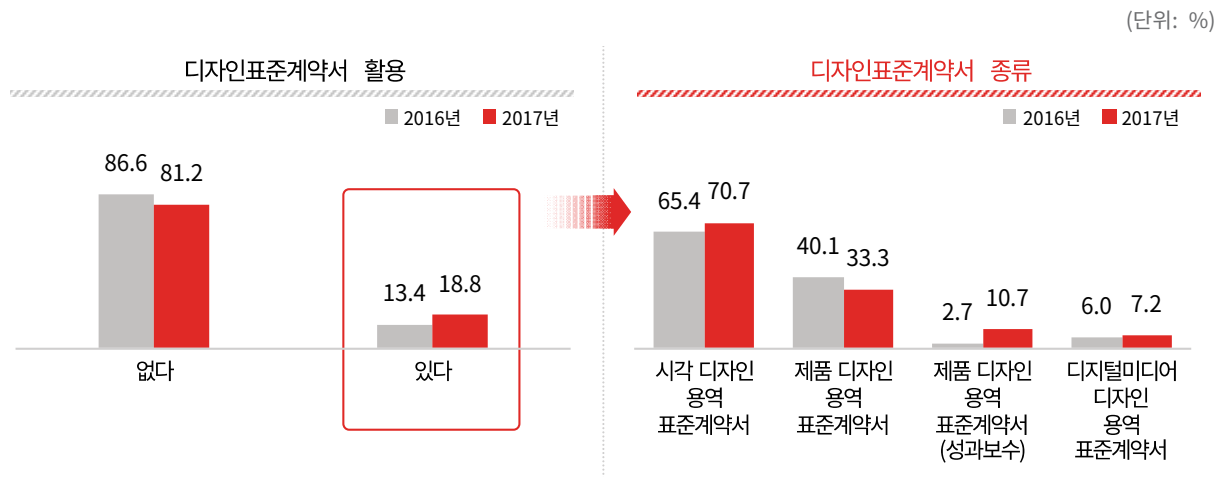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4)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및 종류

-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활용 비율은 18.8%로 나타나 2016년(13.4%) 대비 5.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활용 디자인표준계약서 종류는 ‘시각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70.7%), ‘제품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33.3%), ‘제품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10.7%),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7.2%)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및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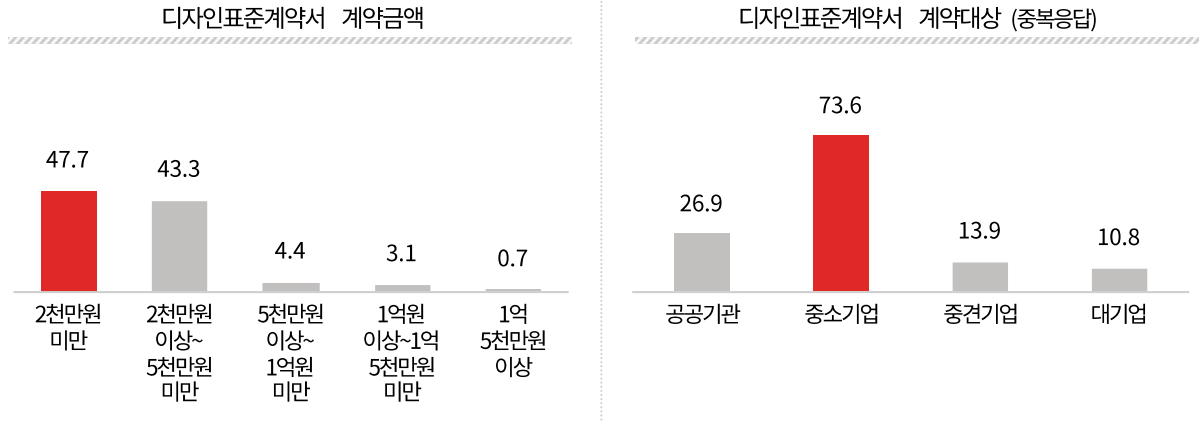


## 5) 디자인표준계약서 계약금액 및 계약대상

-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계약금액은 ‘2천만원 미만’이 47.7%,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이 43.3%로 높고,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경우 계약 대상의 73.6%가 ‘중소기업’으로 나타남.  
그 외 ‘공공기관’ 26.9%, ‘중견기업’ 13.9%, ‘대기업’ 10.8% 순임.

### » 디자인표준계약서 계약금액 및 계약대상

(단위: %)



## 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기관은 38.8%로 전년도 대비 +6.0%p(32.8% → 38.8%) 증가함.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는 기관은 17.2%(2016년 : 17.3%)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는 44.0%(2016년 대비 -5.8%p)로 감소함.

### 연도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차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47.7	36.6	32.8	38.8	▲6.0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9.3	15.9	17.3	17.2	▼0.1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43.0	47.5	49.8	44.0	▼5.8

- ‘디자인 전담부서’ 비율은 중앙부처 12.5%, 지자체 42.3%로 지자체가 더욱 높게 나타남.  
특히, 시/도 단위의 지자체에서 72.2%로 시/군/군(39.9%) 단위 대비 큰 폭의 차이를 보임.

###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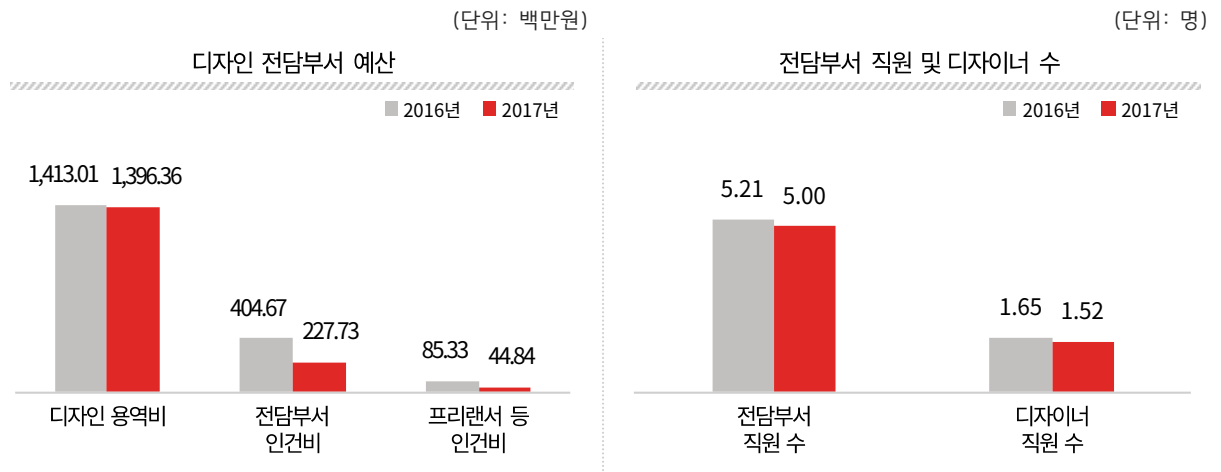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38.8	17.2	44.0
구분	중앙부처	12.5	28.1	59.4
	지자체	42.3	15.8	41.9
	- 시/도	72.2	11.1	16.7
	- 시/군/구	39.9	16.1	43.9

## 2.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및 인력 현황

-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을 살펴보면,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13억 9,636만원, 디자인 인건비는 평균 2억 2,773만원, 프리랜서 등 인건비는 평균 4,484만원으로 나타남
-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는 평균 5.00명(2016년 5.2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디자이너 수 또한 1.52명(2016년 1.65명)으로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함.

### »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및 인력현황



- 디자인 용역비를 제외한 ‘인건비’, ‘프리랜서 인건비’, ‘전담부서 직원 수’, ‘디자이너 수’에 있어 지자체의 평균 예산이 더욱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단위의 지자체 예산이 시/군/구 대비 높은 특징을 보임.

###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및 인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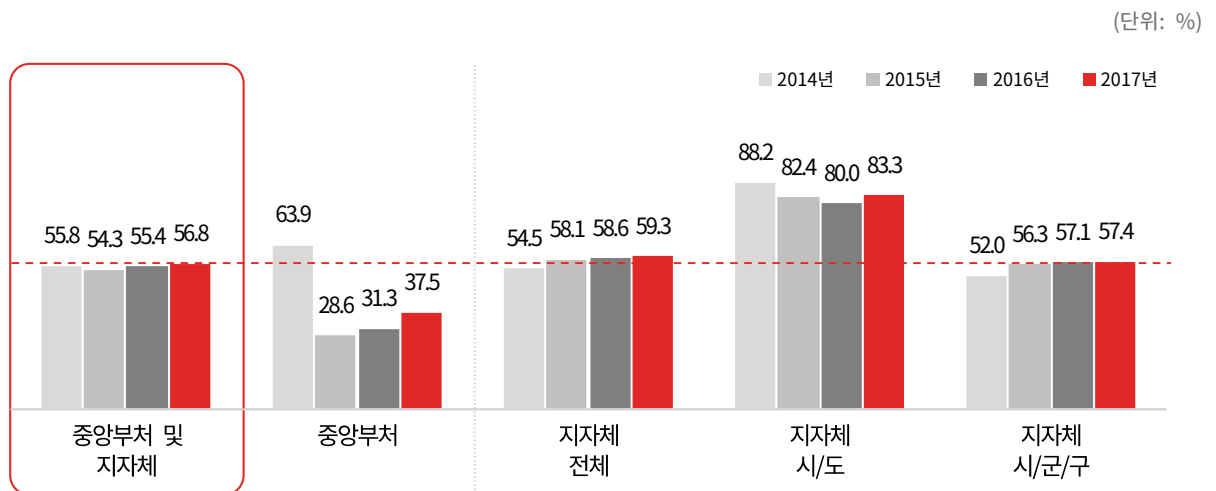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명)

구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평균(백만원)			인력현황(명)	
		디자인 용역비	인건비	프리랜서 인건비 등	전담부서 직원 수 평균	디자이너 수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1,396.36	227.73	44.48	5.00	1.52
구분	중앙부처	15,620.75	210.00	0.00	2.85	1.38
	지자체	838.54	228.44	46.62	5.20	1.54
	- 시/도	4,060.54	730.75	276.75	15.33	3.73
	- 시/군/구	367.91	160.71	15.59	3.98	1.27

### 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을 보유한 기관은 전체 56.8%(2016년 55.4%)로 나타남. 지자체(59.3%)가 중앙부처(37.5%) 대비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시/도(83.3%) 단위 지자체에서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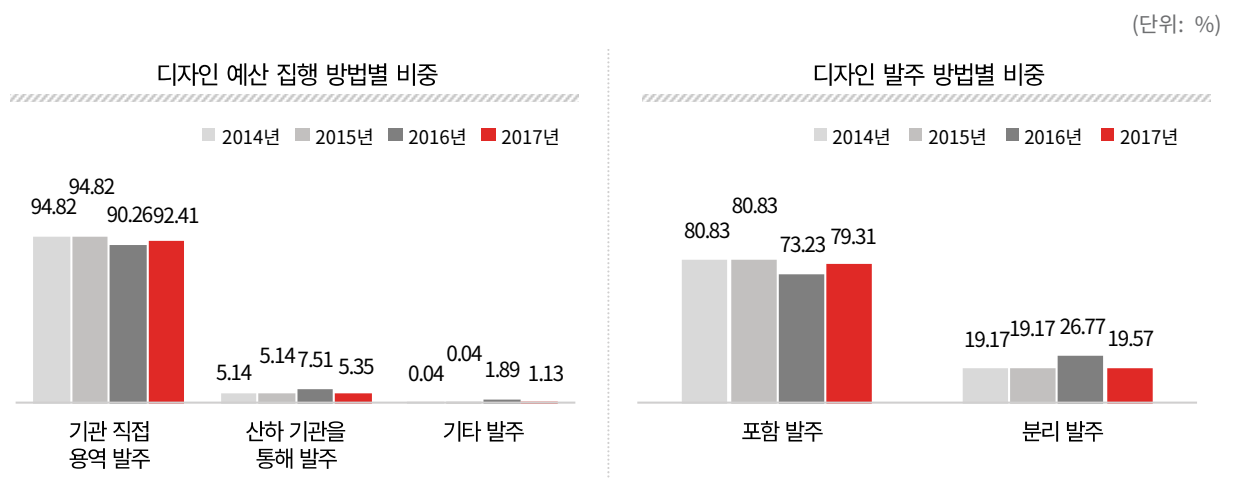
####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4.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중

-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비중을 살펴보면, ‘기관 직접 용역 발주’가 92.41%로 가장 높고, ‘산하 기관을 통해 발주’(5.35%), ‘기타 발주’(1.13%)는 낮음.
- 용역 발주 시 디자인 용역 ‘포함 발주’는 79.31%로 전년(73.23%)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용역 ‘분리 발주’는 19.57%로 전년(26.77%) 대비 감소함.

#### »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 및 디자인 발주 방법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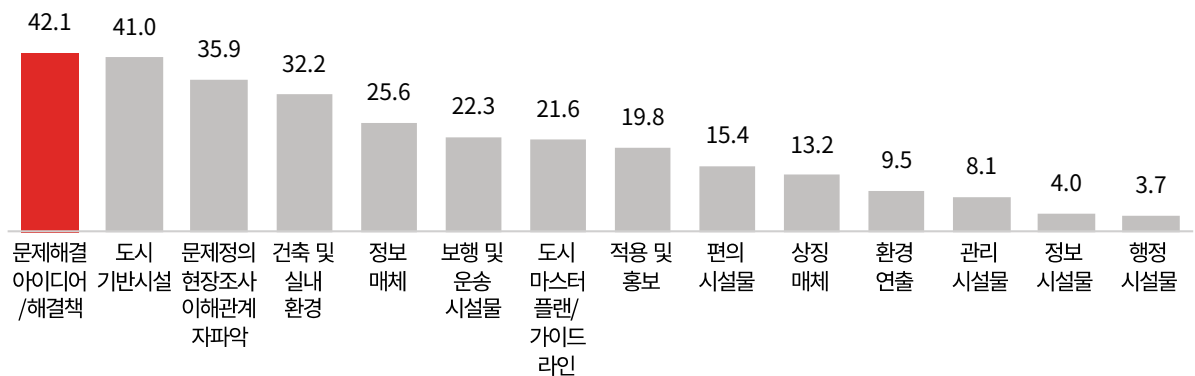
## 5.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중복응답 기준)

- 공공디자인사업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은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42.1%), ‘도시 기반시설’(41.0%)이 높고, 이어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35.9%), ‘건축 및 실내 환경’(32.2%), ‘정보매체’(25.6%), ‘보행 및 운송시설물’(2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공공디자인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중복응답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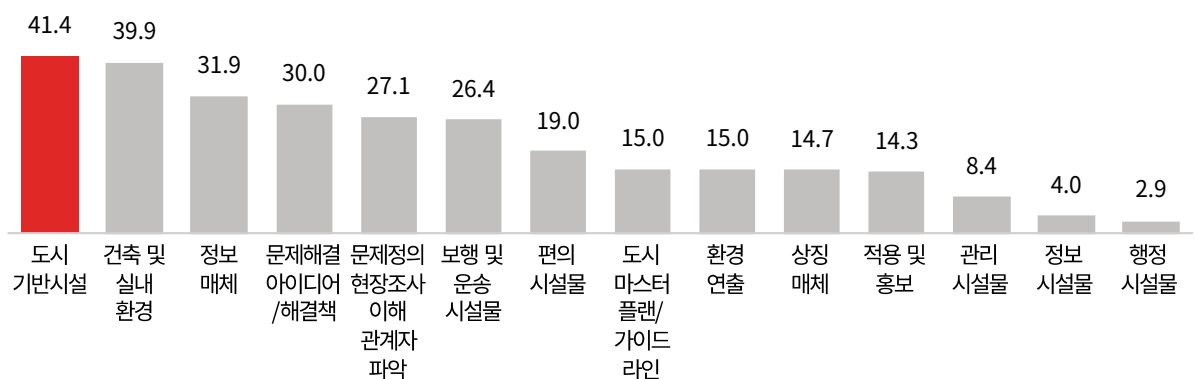


### 5-1.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중복응답 기준)

-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도시 기반시설’이 41.4%로 가장 높고, 다음은 ‘건축 및 실내 환경’(39.9%), ‘정보매체’(31.9%),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30.0%),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27.1%), ‘보행 및 운송시설물’(26.4%) 등의 순임.

### » 공공디자인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중복응답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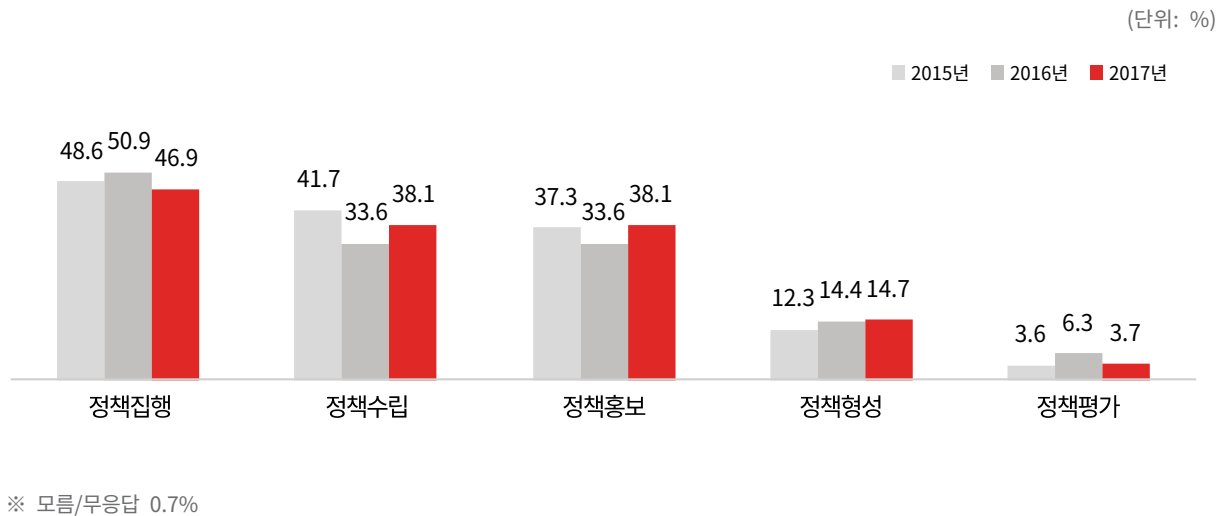


※ 모름/무응답 0.7%, 해당없음 0.4%

## 6. 공공정책 과정 중 디자인 활용 단계

- 디자인을 공공정책에서 활용하는 단계로 ‘정책집행’이 46.9%(2016년 50.9%)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정책수립’(38.1%), ‘정책홍보’(38.1%), ‘정책형성’(14.7%), ‘정책평가’(3.7%)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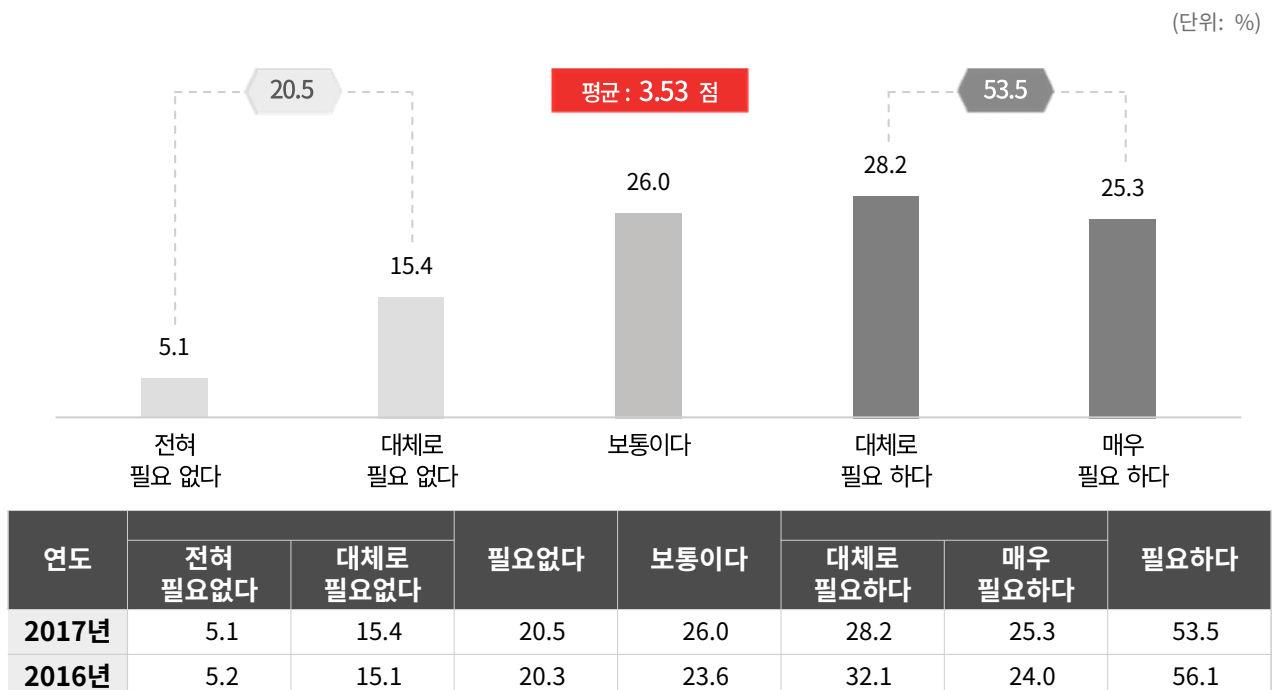
### » 공공정책 과정 중 디자인 활용 단계



## 7.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 신규 디자인 담당자를 채용할 필요도는 5점 환산 기준 3.53점으로 나타남.
- 세부 항목별로는 ‘필요하다’는 53.5%(매우 : 25.3% + 대체로 : 28.2%), ‘필요없다’는 20.5%(전혀 : 5.1% + 대체로 : 15.4%), ‘보통이다’는 26.0로 나타남.

### »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 8. 직원 디자인 교육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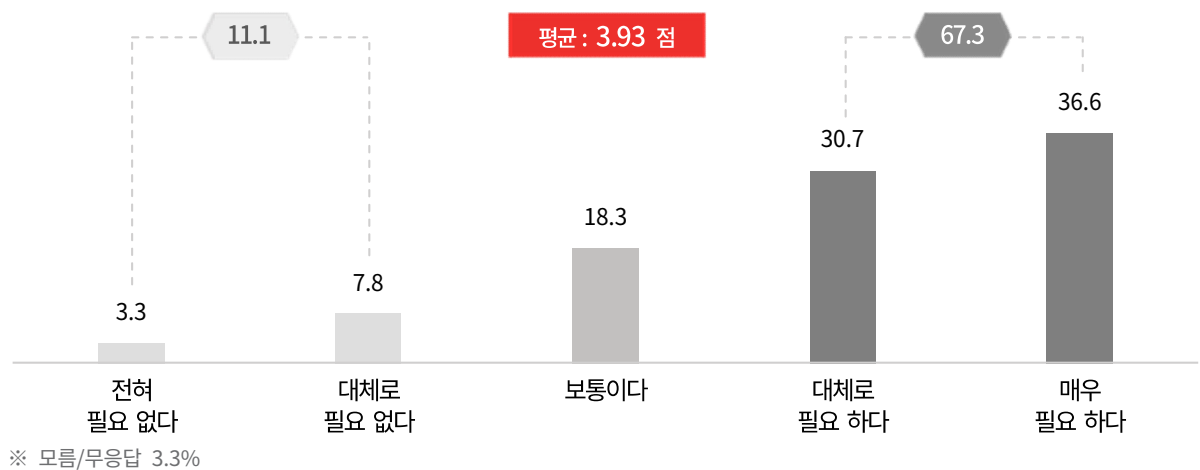
### 1) 디자인 교육 필요도

-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는 5점 환산 기준 3.93점(2016년 3.82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필요하다’는 67.3%(매우 : 36.6% + 대체로 : 30.5%), ‘필요 없다’는 11.1%(전혀 : 3.3% + 대체로 : 7.8%)임.

### » 직원 디자인 교육 관련

(단위: %)



연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무응답
2017년	3.3	7.8	11.1	18.3	30.7	36.6	67.3	3.0
2016년	4.4	7.4	11.9	18.5	39.3	28.9	68.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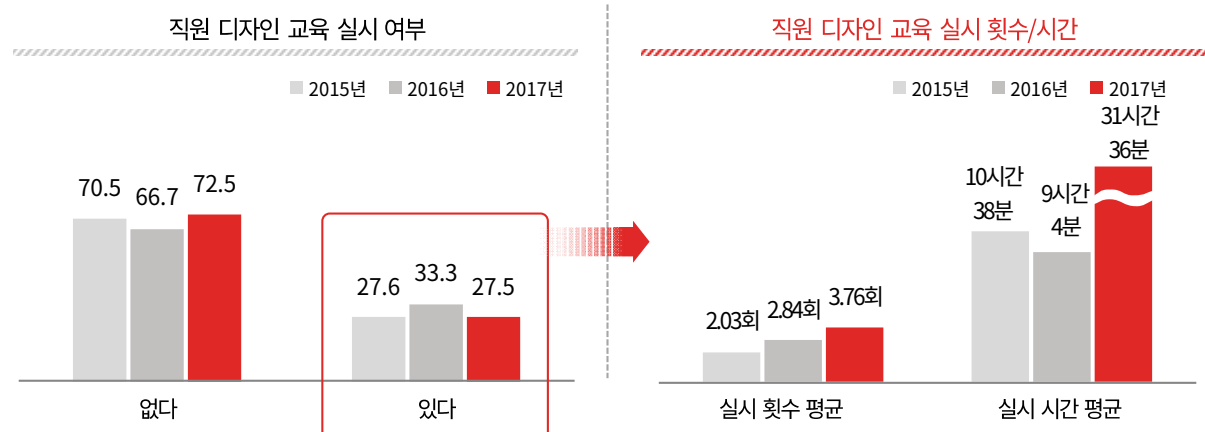
### 2)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평균 횟수/시간

-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27.5%로 나타남.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교육 실시 횟수는 평균 3.76회, 교육 실시 시간은 평균 31시간 36분임.

### »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평균 횟수/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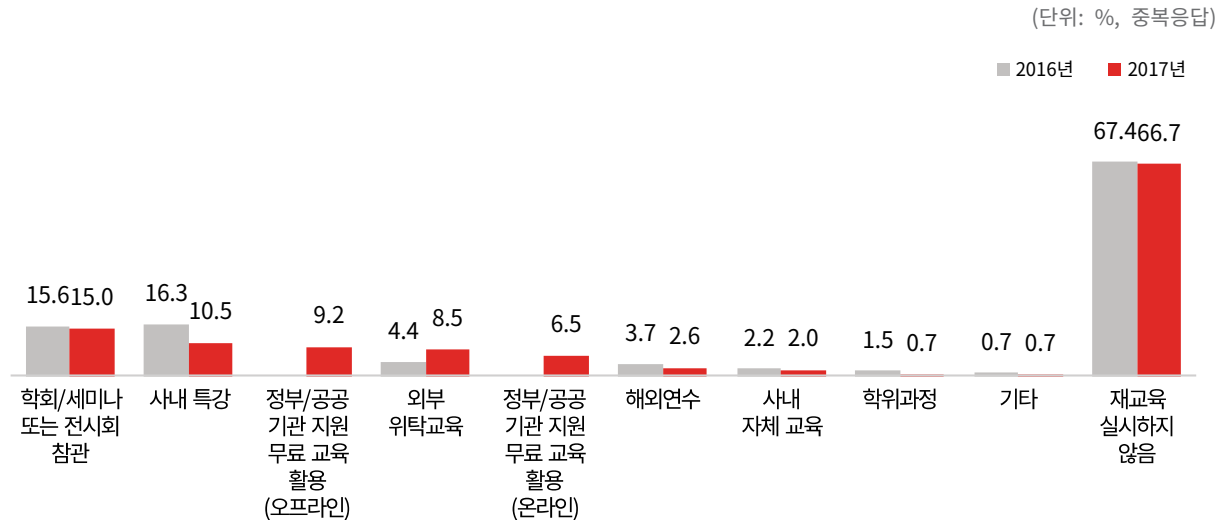
(단위: %)



### 3) 주된 디자인 재교육 방법

-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 재교육 방법으로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5.0%), ‘사내 특강(외부 강사)’(10.5%),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9.2%), ‘외부 위탁교육’ (8.5%) 등의 순임.
-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66.7%로 나타남.

#### » 주된 디자인 재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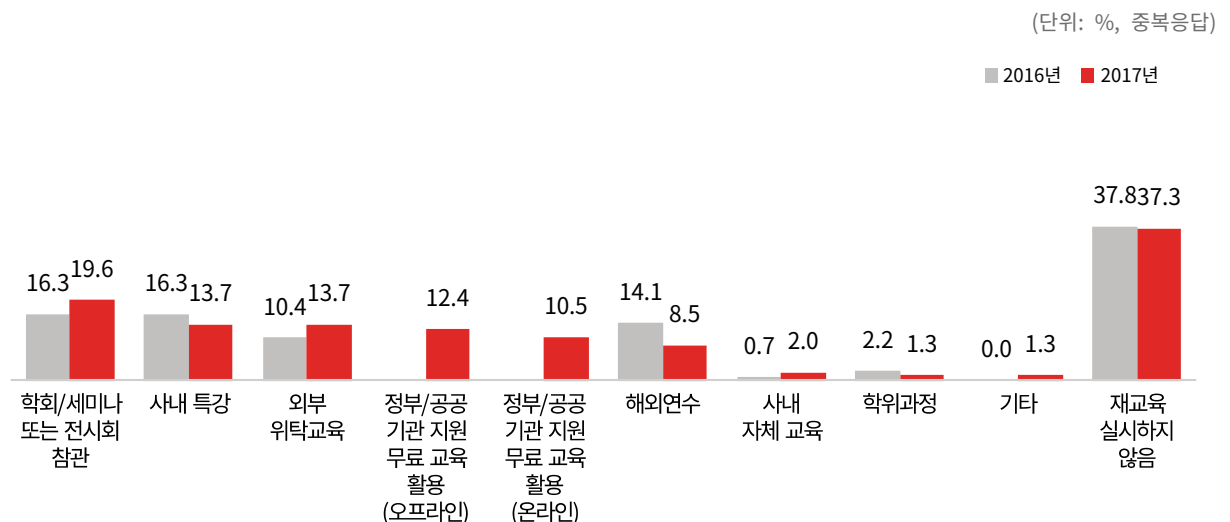


※ 2017년 설문부터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리하여 질문함.

### 4) 선호하는 디자인 재교육 방법

- 공공기관에서 선호하는 디자인 재교육 방법으로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9.6%), ‘사내 특강(외부 강사)’(13.7%), ‘외부 위탁교육’(13.7%),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 (12.4%),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10.5%) 등의 순임.
-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37.3%로 나타남.

#### » 선호하는 디자인 재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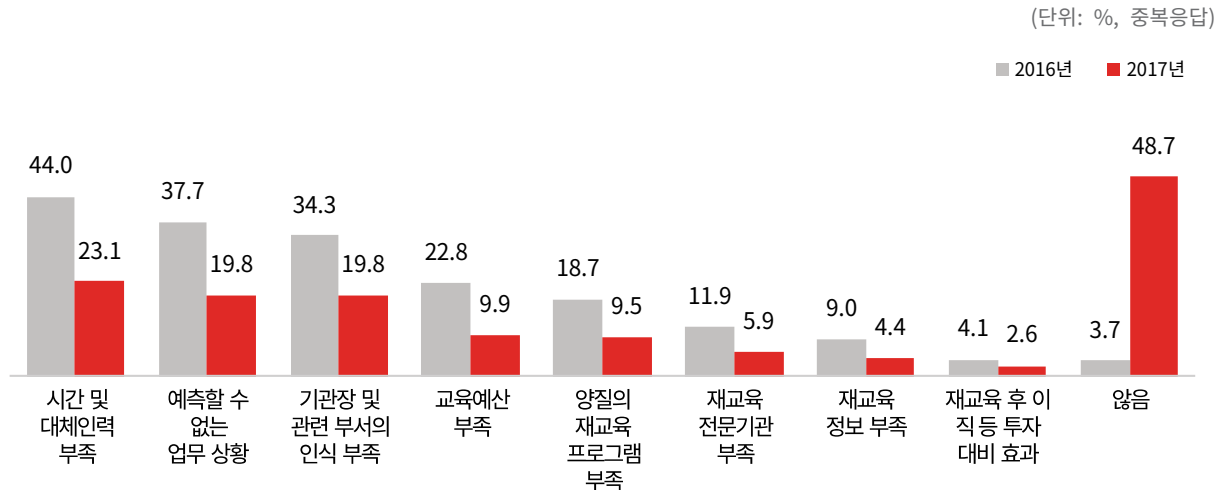
※ 2017년 설문부터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분리하여 질문함.



## 5) 재직 디자이너 재교육시 가장 큰 애로사항

- 재직 디자이너 재교육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23.1%),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19.8%),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부족’(1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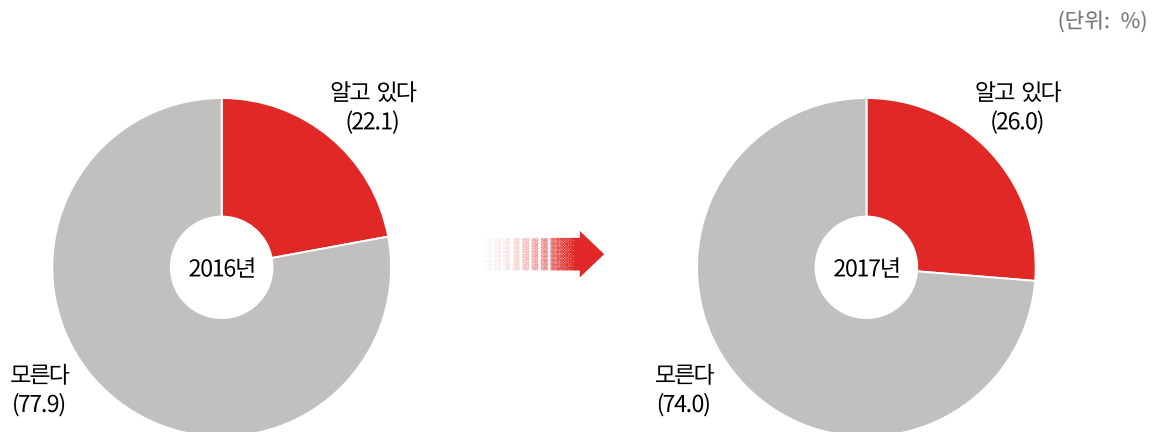
### » 재직 디자이너 재교육시 가장 큰 애로사항



##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 여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알고 있다’ 26.0%, ‘모른다’ 74.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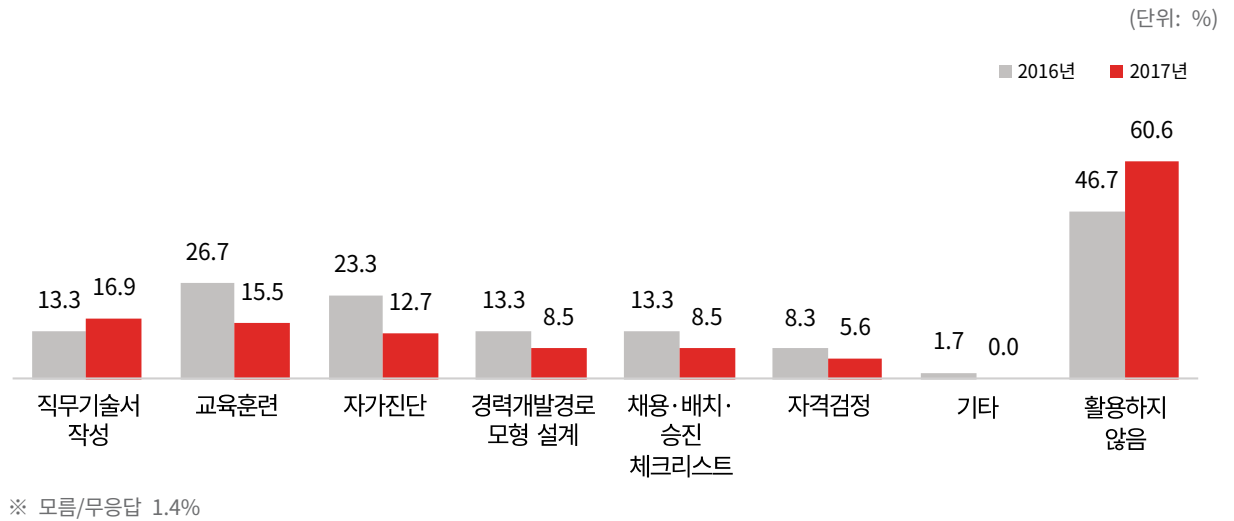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 여부



## 6)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중복응답 기준)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업무 활용 방법은 ‘직무기술서 작성’(16.9%), ‘교육훈련’(15.5%), ‘자가진단’(12.7%),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8.5%),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8.5%), ‘자격검정’(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활용하지 않음’의 응답이 60.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중복응답 기준)



## 1.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및 학교 현황

### »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학사	석사	박사	계
2018년	241	134	55	430
2017년	251	141	54	446
차이	▼10	▼ 7	▲ 1	▼16

### » 학교별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학사	석사	박사	계
총 합계	241	134	55	430
전문대학	84	-	-	84
대학교	129	-	-	129
산업대학	2	-	-	2
각종대학(대학)	1	-	-	1
일반대학원	-	134	55	189
사이버대학(대학)	10	-	-	10
전공대학	1	-	-	1
기능대학	14	-	-	14

### » 계열별/학교구분별 디자인학과 수

(단위: 개)

구분	디자인학과 수			
	학사	석사	박사	계
2018년	889	231	80	1,200
2017년	965	247	85	1,297
차이	▼76	▼16	▼ 5	▼97

» 학교구분별/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수

(단위: 개)

구분		디자인학과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총 합계
총 합계		889	231	80	1,200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340	-	-	340
	대학교	494	-	-	494
	산업대학	19	-	-	19
	각종대학(대학)	1	-	-	1
	일반대학원	-	231	80	311
	사이버대학(대학)	14	-	-	14
	전공대학	2	-	-	2
	기능대학	19	-	-	19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82	51	29	162
	제품 디자인	116	32	7	155
	시각 디자인	155	22	6	18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23	20	4	147
	공간 디자인	146	24	6	17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74	41	8	223
	서비스/경험 디자인	25	13	9	47
	산업공예 디자인	48	19	7	74
	디자인 인프라	20	9	4	33

## 2. 2018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 »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재학생	휴학생
2018년	108,341	79,192	29,149
2017년	114,198	82,355	31,843
차이	▼5,857	▼3,163	▼2,694

※ 휴학생 : 재적학생-재학생

※ 2018년 디자인 관련학과 입학자는 25,292명(2017년 26,554명)임.

### » 학교별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재학생				휴학생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32,245	-	-	32,245	21,613	-	-	21,613	10,632	-	-	10,632
	대학교	63,060	-	-	63,060	47,681	-	-	47,681	15,379	-	-	15,379
	산업대학	578	-	-	578	419	-	-	419	159	-	-	159
	각종대학(대학)	142	-	-	142	93	-	-	93	49	-	-	49
	일반대학원	-	4,122	1,066	5,188	-	3,367	873	4,240	-	755	193	948
	사이버대학(대학)	3,665	-	-	3,665	2,858	-	-	2,858	807	-	-	807
	전공대학	1,027	-	-	1,027	702	-	-	702	325	-	-	325
	기능대학	2,436	-	-	2,436	1,586	-	-	1,586	850	-	-	850
소계		103,153	4,122	1,066	108,341	74,952	3,367	873	79,192	28,201	755	193	29,149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인용 / 조사기준일 : 2018년 4월 1일

### 3.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 대학 또는 대학원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는 22,709명(2016년 대비 1,434명 감소)으로 나타남.

취업자는 13,427명(취업률 64.9%)으로 전년 대비 1,261명 감소함.

#### »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2018년	22,709	13,427	64.9
2017년	24,203	14,688	66.3
차이	▼1,434	▼1,261	▼1.4%p

#### » 분류별 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 및 취업 현황

(단위: 명)

학교 구분	계열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학부	석사 과정	박사 과정	계
총계	소계	22,093	483	133	22,709	13,121	217	89	13,427	64.9	66.6	73.6	64.9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9,889	-	-	9,889	5,837	-	-	5,837	66.3	-	-	66.3
	대학교	11,120	-	-	11,120	6,542	-	-	6,542	62.8	-	-	62.8
	산업대학	279	-	-	279	163	-	-	163	59.7	-	-	59.7
	각종대학(대학)	28	-	-	28	20	-	-	20	71.4	-	-	71.4
	일반대학원	-	483	133	616	-	217	89	306	-	66.6	73.6	68.5
	기능대학	777	-	-	777	559	-	-	559	79.9	-	-	79.9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493	182	41	1,716	829	67	25	921	61.4	57.8	75.8	61.4
	제품 디자인	3,475	53	13	3,541	2,053	27	11	2,091	64.5	81.8	91.7	64.8
	시각 디자인	3,962	27	1	3,990	2,294	14	1	2,309	62.6	73.7	100.0	62.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093	25	8	3,126	1,771	12	7	1,790	62.8	80.0	87.5	62.9
	공간 디자인	3,444	24	6	3,474	2,076	12	4	2,092	67.1	85.7	66.7	67.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748	37	6	4,791	2,940	14	3	2,957	66.7	63.6	50.0	66.6
	서비스/경험 디자인	312	40	1	353	190	22	1	213	67.6	73.3	100.0	68.3
	산업공예 디자인	1,027	17	57	1,101	582	10	37	629	63.0	66.7	68.5	63.3
	디자인 인프라	539	78	-	617	386	39	-	425	77.8	62.9	-	76.2

※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인용

※ 조사기준일 : 2017년 12월 12일

※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100

※ 취업자: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







part 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들어가며

- 본 보고서는 해외의 디자인 관련 통계자료들을 수집해 주요 디자인 지표별로 각국의 규모 및 동향을 분석함.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데이터들은 2018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EU, OECD 등의 국제기구, 그 외 통계사이트 및 디자인관련 기관에서 발표된 보고서 등을 중심으로 수집되었으며, 출처별 가장 최신 연도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함.
- 수록 자료의 대부분이 각국의 공인된 기관 및 단체에서 발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각 자료의 출처는 표 하단에 표기함.
- 환율은 1USD=1,122.8원(2018.9.10 기준)을 기준으로 표기함. 단위는 '\$ 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기준 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는 '\$'를 기준으로 작성함. 기준 단위로의 변환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작성되었음(변환이 아닌 발췌 자료들은 소수점 표기 기준이 다름).
- 국가별, 조사 기준별 분류체계가 달라 해당 범주에 대해 각주를 통해 설명하였고, 주요 용어 정의는 해당 통계표 하단에 정리하였음.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로 표기함.
- 본 보고서는 디자인산업의 여러 지표들에 대해 한국을 비롯해 주요국들을 비교하여 지표별 규모 및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국가별로 디자인 분류기준, 조사 기준이 상이해 단순 비교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요국들의 디자인 관련 통계의 규모 파악이 가능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part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제 1 장    요약본**

1. 디자인산업 규모
2. 디자인 인력
3. 디자인 역량
4. 디자인 활용률
5. 디자인 인증



## 01. 요약본

### 1. 디자인산업<sup>12)</sup> 규모

#### 1) 디자인 시장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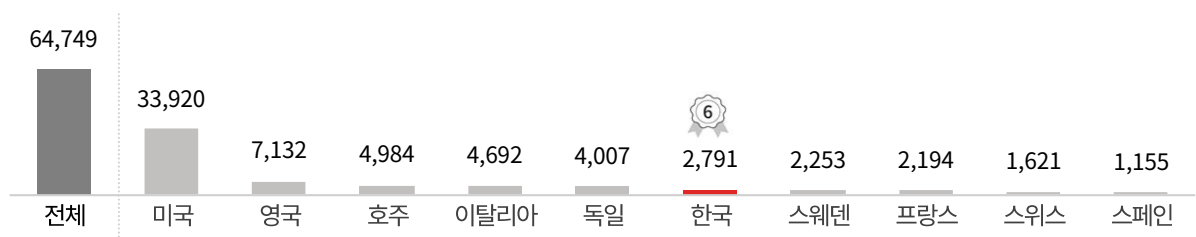
- 디자인산업 규모 관련 주요 10개국의 규모는 약 647억 달러, 그 중 미국이 약 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약 28억 달러로 6위를 차지함(2016년 기준).
  - 규모 : 미국(\$33,920M) > 영국(\$7,132M) > 호주(\$4,984M) > 이탈리아(\$4,692M) > 독일(\$4,007M) > 한국(\$2,791M)
- GDP 대비 디자인산업 규모는 주요 10개국 중 스웨덴이 0.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GDP 대비 디자인산업 비중은 0.15%로 주요 10개국 평균 비중(0.22%)보다 다소 낮음.
  - GDP 대비 디자인산업 규모 : 스웨덴(0.47%) > 호주(0.42%) > 덴마크(0.34%) > 스위스(0.30%) > 영국(0.27%)

(순위기준: 2016년 / 단위: \$ 백만)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대비 디자인산업 (2016 기준)
1	미국	27,500	29,450	32,330	33,920	36,940	0.18%
2	영국	6,433	7,517	8,516	7,132	-	0.27%
3	호주	4,799	4,977	5,204	4,984	5,029	0.42%
4	이탈리아	4,002	4,365	4,477	4,692	-	0.20%
5	독일	3,320	3,484	3,741	4,007	-	0.10%
6	한국	2,445	2,486	2,544	2,791	3,140	0.15%
7	스웨덴	1,466	1,583	1,802	2,253	-	0.47%
8	프랑스	2,178	1,913	-	2,194	-	0.08%
9	스위스	1,215	1,208	1,386	1,621	-	0.30%
10	스페인	846	934	1,081	1,155	-	0.07%
총계 (1위 - 10위)		54,204	57,917	61,081	64,749	45,109	평균 0.22%

#### » 주요 국가 디자인산업 규모 (2016년)

(단위: \$ 백만)



12) 본 장의 '디자인산업'의 범위는 'Specialized Design Service(전문디자인서비스)'에 해당하며(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NAICS Code 5414),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제외)를 제공하는 산업 그룹을 의미함.

## 2)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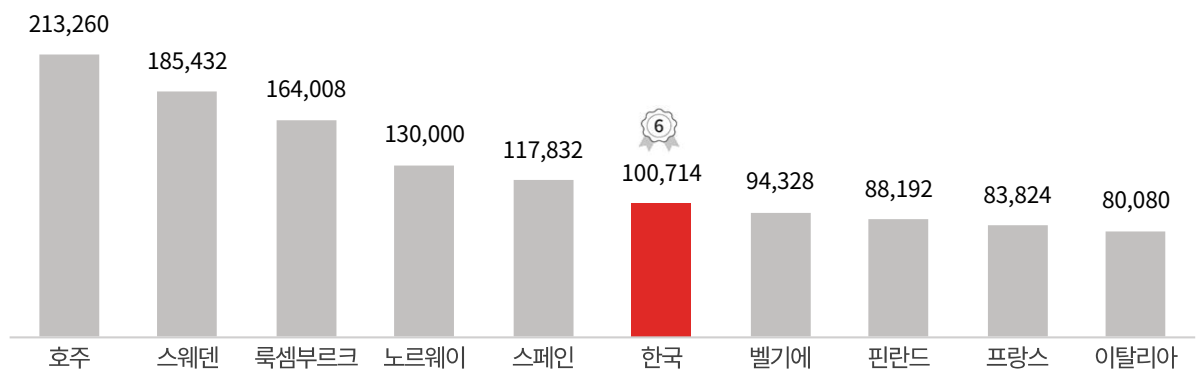
-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 관련 주요 10개국 중 호주가 약 21만 3천 달러로 1위를 차지함(2016년 기준).
  - 상위 5개국 : 호주(\$ 213,260) > 스웨덴(\$ 185,432) > 룩셈부르크(\$ 164,008) > 노르웨이(\$ 130,000) > 스페인(\$ 117,832)
  - 주요 10개국의 1인당 매출액 평균은 \$ 125,372로 나타났고 한국은 약 10만 달러로 6위를 차지함.
- 한국의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17년 반등함.
  - 스웨덴과 룩셈부르크, 스페인, 벨기에, 핀란드는 2013년 대비 2016년 성장 추세를 보임.
  - 반면, 호주와 노르웨이, 한국, 이탈리아, 독일은 동년 대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순위기준: 2016년 / 단위: \$)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호주	214,690	219,200	225,900	213,260	212,270
2	스웨덴	160,368	156,728	167,024	185,432	-
3	룩셈부르크	128,232	156,312	142,480	164,008	-
4	노르웨이	145,288	140,400	129,480	130,000	-
5	스페인	86,216	103,480	106,704	117,832	-
6	한국	106,008	124,114	119,270	100,714	105,920
7	벨기에	88,088	80,496	89,960	94,328	-
8	핀란드	-	72,592	79,248	88,192	-
9	프랑스	69,368	55,536	93,600	83,824	-
10	이탈리아	89,336	93,808	94,848	80,080	-

## » 주요 국가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 (2016년)

(단위: \$)





### 3) 디자인 전문기업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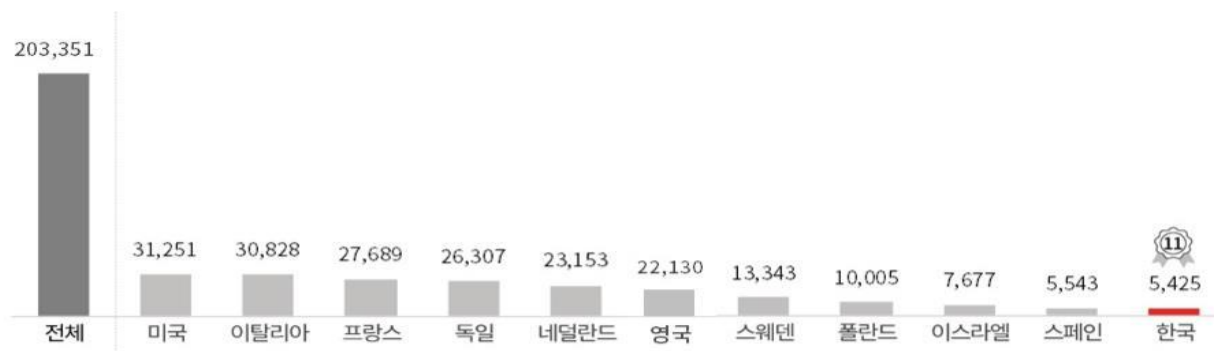
- 디자인 전문기업 수 관련 주요 11개국 중 미국이 31,251개로 1위, 국내 디자인 전문기업 수는 5,425개로 11위를 차지함(2016년 기준).
  - 상위 5개국 : 미국(31,251개) > 이탈리아(30,828개) > 프랑스(27,689개) > 독일(26,307개) > 네덜란드(23,153개)
- 전체 기업 수 대비 디자인 전문기업 수 비중은 주요국 중 네덜란드가 2.0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이 0.0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대비 디자인 전문기업 비중 : 네덜란드(2.06%) > 스웨덴(1.91%) > 이스라엘(1.70%) > 독일(1.07%) > 영국(1.05%)

(순위기준: 2016년 / 단위: 개)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기업 수 대비 디자인 전문기업	
							기준 연도	비중
1	미국	29,755	30,321	30,873	31,251	31,636	2015	0.73%
2	이탈리아	27,450	29,065	29,201	30,828	-	2016	0.83%
3	프랑스	29,508	-	25,994	27,689	-	2016	0.92%
4	독일	21,530	23,083	26,170	26,307	-	2016	1.07%
5	네덜란드	13,893	15,971	19,130	23,153	-	2016	2.06%
6	영국	19,919	20,606	21,772	22,130	-	2016	1.05%
7	스웨덴	12,846	13,054	13,153	13,343	-	2016	1.91%
8	폴란드	6,899	7,768	8,635	10,005	-	2016	0.60%
9	이스라엘	6,668	7,033	7,295	7,677	-	2015	1.70%
10	스페인	5,425	5,113	5,509	5,543	-	2016	0.21%
11	한국	4,573	4,535	4,976	5,425	5,502	2016	0.09%
총계 (1위 - 11위)		178,466	156,549	192,708	203,351	37,138	-	-

### » 주요 국가 디자인 전문기업 수 (2016년)

(단위: 개)



#### 4) 디자인 고용인 1인당 총 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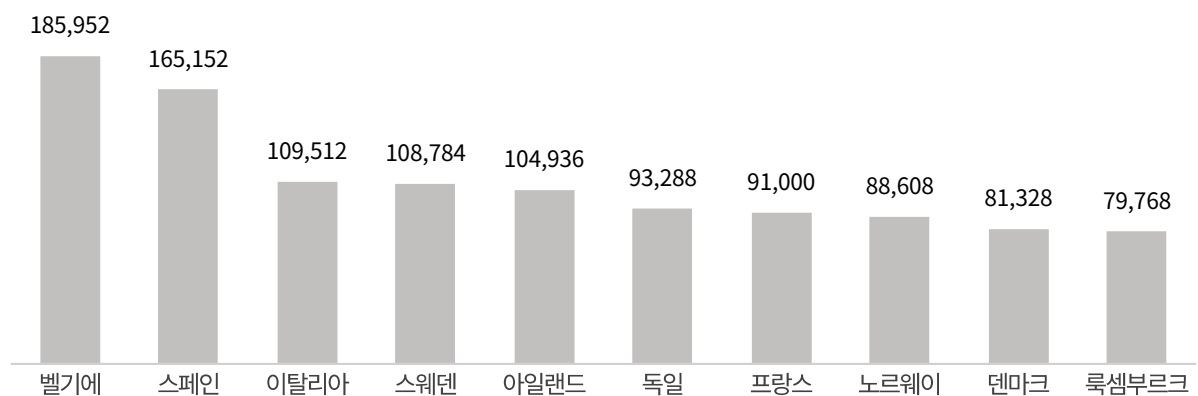
- 고용인 1인당 부가가치는 노동력 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노동생산성’을 의미(한경 경제용어사전)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디자인 고용인 1인의 성과를 경제적 지표로 환산한 수치를 ‘디자인 고용인 1인당 총 부가가치’로 정의함.
- EU 28개국 중 벨기에가 디자인 고용인 1인당 총 부가가치 185,952달러로 조사되며 주요 국가 중 1위를 차지함(2016년 기준).
  - 상위 5개국: 벨기에(\$ 185,952) > 스페인(\$ 165,152) > 이탈리아(\$ 109,512) > 스웨덴(\$ 108,784) > 아일랜드(\$ 104,936)

(순위기준: 2016년 / 단위: \$)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벨기에	116,896	101,712	159,640	185,952	-
2	스페인	129,584	148,616	137,696	165,152	-
3	이탈리아	109,824	119,808	119,912	109,512	-
4	스웨덴	87,880	92,664	97,968	108,784	-
5	아일랜드	85,488	116,064	117,520	104,936	-
6	독일	118,144	103,168	99,112	93,288	-
7	프랑스	110,656	108,160	111,176	91,000	-
8	노르웨이	107,744	99,528	91,832	88,608	-
9	덴마크	76,544	79,248	79,664	81,328	-
10	룩셈부르크	83,200	105,560	54,912	79,768	-

#### » 주요 국가 디자인 고용인 1인당 총 부가가치 (2016년)

(단위: \$)



## 2. 디자인 인력

● 전세계적으로 디자인 인력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임.

● 주요 10개국의 총 디자인 인력은 405,110명, 그 중 국내 디자인 인력은 29,536명으로 주요 국가 중 6위를 차지함(2016년 기준).

- 상위 6개국: 미국(118,148명) > 영국(56,858명) > 독일(51,695명) > 이탈리아(48,163명) > 프랑스(31,926명) > 한국(29,53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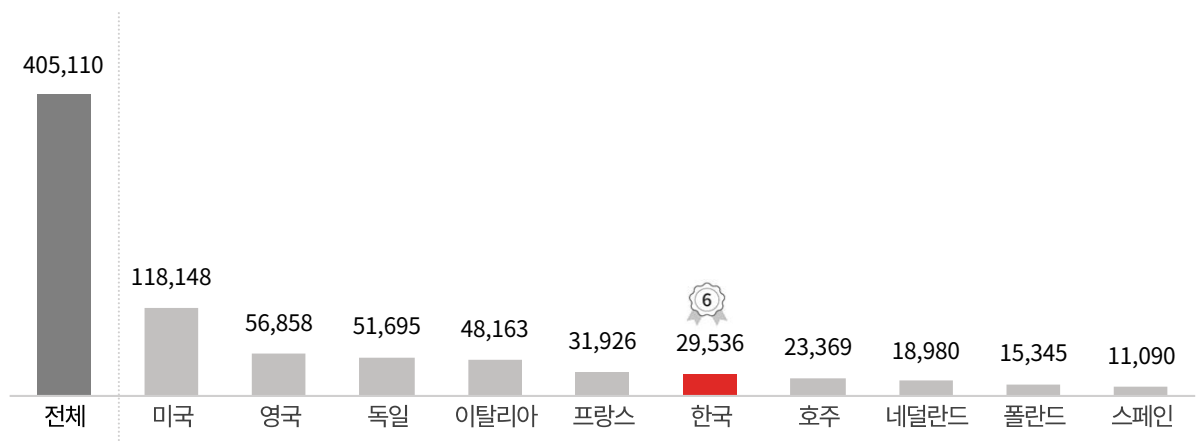
### 1) 디자인 인력 수

(순위기준: 2016년 / 단위: 명)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105,996	109,349	114,972	118,148	121,520
2	영국	42,850	53,208	51,509	56,858	-
3	독일	40,226	43,505	48,842	51,695	-
4	이탈리아	44,790	46,526	47,216	48,163	-
5	프랑스	31,392	34,459	27,065	31,926	-
6	한국	22,945	21,345	22,728	29,536	29,480
7	호주	21,868	22,705	23,035	23,369	23,693
8	네덜란드	11,250	12,021	15,899	18,980	-
9	폴란드	10,145	11,756	13,990	15,345	-
10	스페인	9,809	9,026	10,128	11,090	-
총계 (1위 - 10위)		341,271	363,900	375,384	405,110	-

### » 주요 국가 디자인 인력 (2016년)

(단위: 명)



### 3. 디자인 역량

#### 1) 디자인 혁신지수

-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리스본 전략\*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유럽혁신 지수(EIS, 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를 발표

\* 리스본 전략 :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유럽연합(EU)의 장기적인 발전전략 (두산백과)

- 유럽혁신 지수는 혁신여건(Framework conditions), 투자(Investments), 혁신활동(Innovation activities), 파급효과(Impacts)의 4개 부문, 10개 세부항목\*에 대해 27개 지표를 기준하여 EU회원국을 중심으로 기타 유럽(8개국) 및 글로벌 주요 10개국의 상호 비교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 (2017년 기준)

- 한국은 글로벌 주요 10개국\*에 포함되어 EU회원국 및 기타유럽과 상호 비교

\* 10개 세부항목: 혁신여건 [인력자원(Human resources), 연구시스템 매력도(Attractive research systems), 혁신 친화적 환경 (Innovation-friendly environment)], 투자 [재정 및 지원(Finance and support), 기업투자(Firm investments)], 혁신활동 [혁신적 중소기업(Innovators), 연계활동(Linkages), 지적 자산(Intellectual assets)], 파급효과 [고용효과(Employment impacts), 매출효과(Sales impacts)]

\* 글로벌 주요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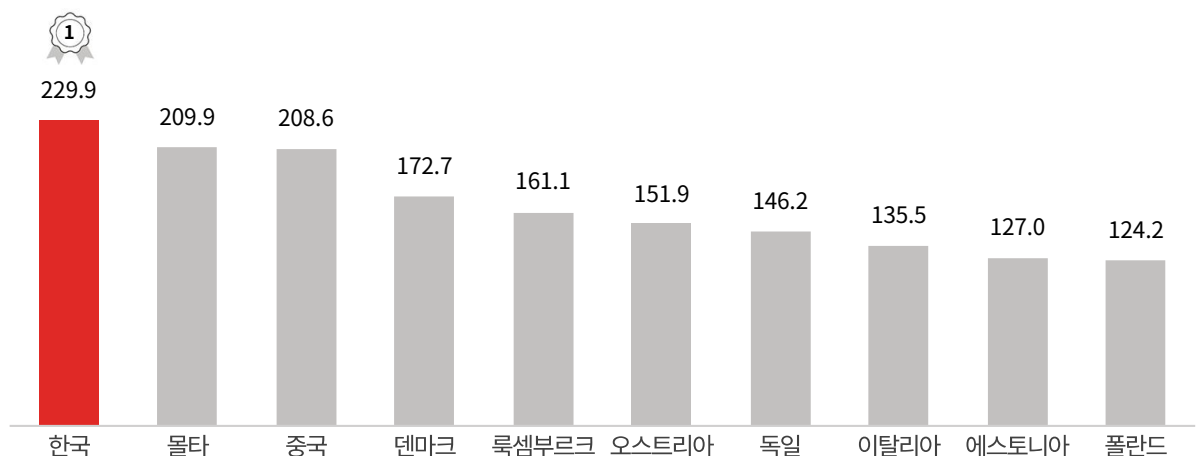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는 유럽혁신 지수 10개 항목 중 ‘지적 자산(Intellectual assets)’에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 출원(Design applications)’ 지표를 ‘디자인 혁신지수’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국가별 순위 및 연도별 변화를 조사하였음.

#### » 주요 국가 디자인 혁신지수 (2017년)

- 디자인 혁신지수관련 주요 10개국 중 한국이 229.9로 1위를 차지함. (2017년 기준)

- 디자인 혁신지수 상위 5개국 : 한국(229.9) > 몰타(209.9) > 중국(208.6) > 덴마크(172.7) > 룩셈부르크(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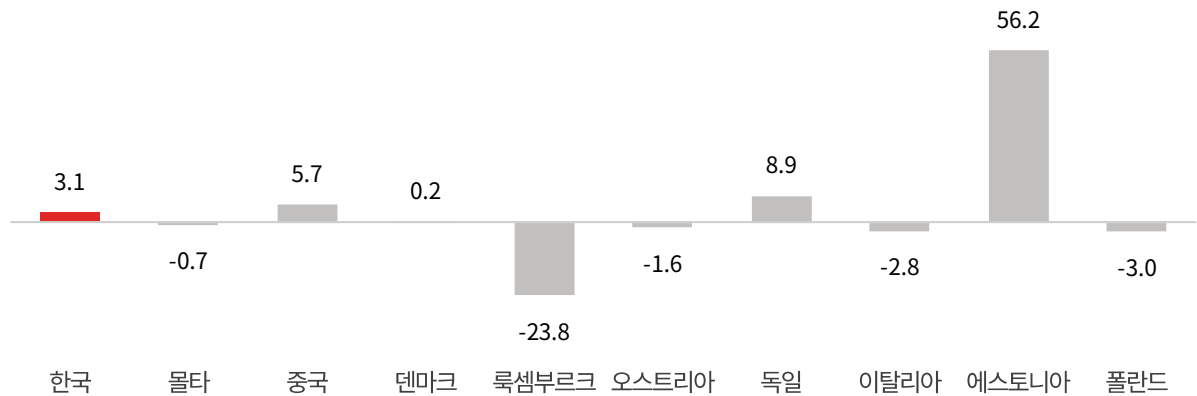
(단위: 점)



- 2016년 ~ 2017년까지 주요 10개국 중 에스토니아가 56.2%의 성장률을 보이며 타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2017년 디자인 혁신지수 229.9로 집계되며 전년대비 3.1% 증가하여 성장률 4위를 차지함.
- 상위 5개국 : 에스토니아(56.2%) > 독일(8.9%) > 중국(5.7%) > 한국(3.1%) > 덴마크(0.2%)

## » 주요 국가 디자인 혁신지수 성장률

(단위: %)



(순위기준: 2017년)

NO.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2016-2017 성장률
1	한국	-	-	-	222.9	229.9	3.1%
2	몰타	43	152	562	211.3	209.9	- 0.7%
3	중국	-	-	-	197.3	208.6	5.7%
4	덴마크	171	194	181	172.3	172.7	0.2%
5	룩셈부르크	177	216	346	211.3	161.1	- 23.8%
6	오스트리아	177	146	168	154.3	151.9	- 1.6%
7	독일	156	116	147	134.3	146.2	8.9%
8	이탈리아	131	102	134	139.4	135.5	- 2.8%
9	에스토니아	92	145	69	81.3	127	56.2%
10	폴란드	100	143	136	128.1	124.2	- 3.0%

※ Note: 주요 10개국의 전체 성장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장률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치로 작성함

## 4. 디자인 활용률

### 1) 디자인 활용수준

- 유럽연합(EU) 국가들이 디자인을 어떠한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6단계(단계 0. 모르겠음 포함)로 구분하여 단계별 비중에 따라 백분율로 표기함(2016년 기준).
- EU국가 중 덴마크와 오스트리아가 디자인 활용단계의 최고 수준인 ‘디자인을 기업전략의 핵심요소’로 활용하고 있는 비중(21%)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디자인 활용수준 순위: 덴마크, 오스트리아(21%) > 네덜란드(19%) > 독일, 몰타(18%)
- EU 주요 10개국은 디자인을 기업전략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활용의 6단계 중 디자인이 사용되지 않음 단계가 3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며 EU국가의 디자인에 대한 인지도나 가치가 여전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디자인 활용수준은 EU국가들과 조사연도 및 평가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정량적 비교는 불가
  - 2018년 한국의 디자인 활용률은 16.3%로 2017년(16.0%)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83.7%가 디자인을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에 대한 국내 인식개선 및 디자인 활용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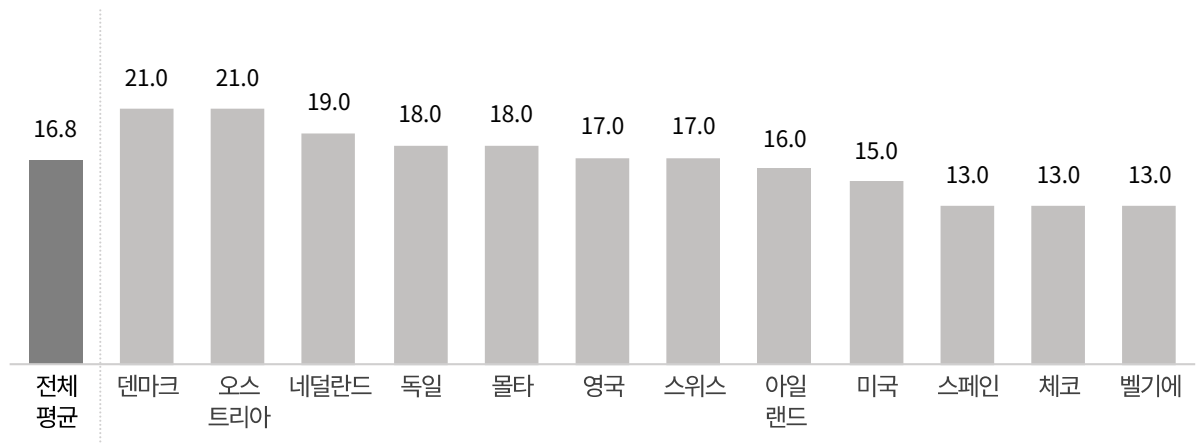
(기준연도: 2016년 / 순위기준: 1.디자인은 기업전략이 핵심요소 / 단위: %)

NO.	국가	디자인 미활용			디자인 활용				
		단계 0. 모르겠음	단계 1. 디자인이 사용되지 않음	소계	단계 2.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단계 3. 디자인은 최종 마무리로 사용되어 최종제품의 외관 및 매력을 향상시킴	단계 4. 디자인은 기업의 개발 작업의 핵심요소는 아니지만 필수적	단계 5. 디자인은 기업전략의 핵심요소	소계
1	덴마크	1	24	25	22	14	18	21	75
1	오스트리아	0	23	23	14	23	19	21	77
2	네덜란드	3	34	37	18	10	16	19	63
3	독일	3	24	27	17	19	19	18	73
3	몰타	0	30	30	16	11	25	18	70
4	영국	4	45	49	7	12	15	17	51
4	스위스	1	21	22	19	18	24	17	78
5	아일랜드	2	40	42	15	14	13	16	58
6	미국	4	46	50	9	13	13	15	50
7	스페인	1	25	26	21	11	29	13	74
7	체코	2	30	32	18	13	24	13	68
7	벨기에	1	32	33	19	16	19	13	67
전체 평균값		1.8	31.2	33	16.2	14.5	19.5	16.8	67
한국 (2018 기준)			83.7				16.3		

※ 자료: 모든 기업 (n = 13,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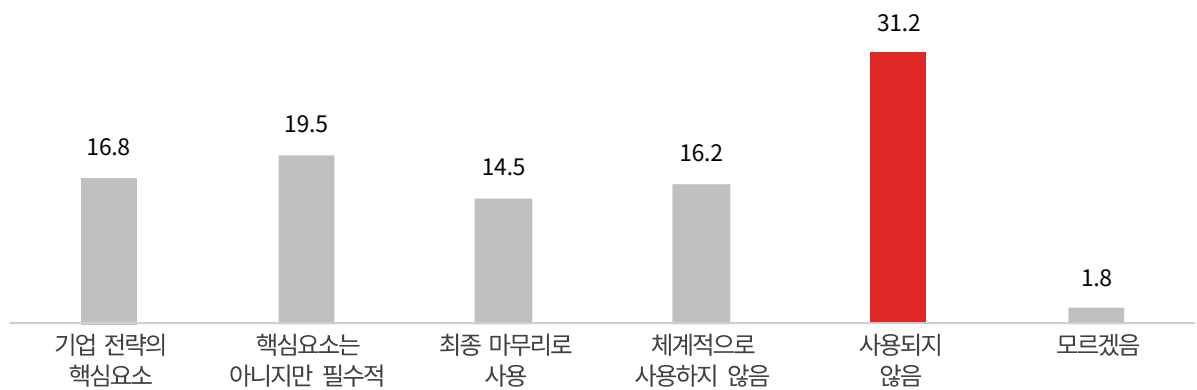
» 디자인 활용 중 ‘디자인은 기업전략이 핵심요소’단계의 국가별 비율 (2016년)

(단위: %)



» 주요 EU국가 디자인 활용수준별 평균비율 (2016년)

(단위: %)



## 5. 디자인 인증

### 1) WIPO 산업디자인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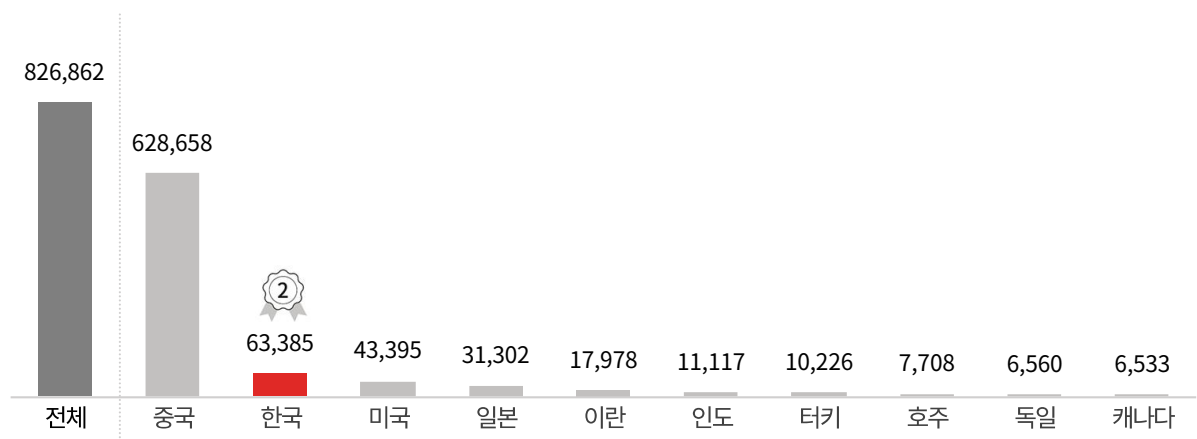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조사를 근간으로 집계한 2017년 주요 10개국의 산업디자인 출원 수는 총 826,862건
  - 그 중 중국은 2013년부터 5년 연속 압도적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7년 628,658건으로 집계되면서 2013년(659,563건) 대비 -4.7%의 하락세를 보임.
  - 한국은 2017년 63,385건으로 집계되면서 2013년 대비 -5.3% 하락세를 보였으나 5년 연속 2위를 차지함.
  - 산업디자인 출원 상위 5개국 : 중국(628,658건) > 한국(63,385건) > 미국(43,395건) > 일본(31,302건) > 이란(17,978건)
- 2013년-2017년까지 주요 10개국의 산업디자인 출원 수는 2013년 835,868건, 2017년 826,862건으로 집계됨.

(순위기준: 2017년 / 단위: 건)

NO.	국가	국가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CN	659,563	564,555	569,059	650,344	628,658
2	한국	KR	66,940	64,574	68,086	65,635	63,385
3	미국	US	36,034	35,378	39,128	42,762	43,395
4	일본	JP	31,125	29,738	29,864	29,865	31,302
5	이란	IR	4,825	8,864	11,856	15,979	17,978
6	인도	IN	8,497	9,309	10,290	10,673	11,117
7	터키	TR	10,083	10,251	10,133	10,170	10,226
8	호주	AU	6,912	6,597	7,024	7,278	7,708
9	독일	DE	6,543	7,392	7,301	7,384	6,560
10	캐나다	CA	5,346	5,767	5,846	6,170	6,533
총계 (1위 - 10위)			835,868	742,425	758,587	846,260	826,862

### » 주요 국가 WIPO 산업디자인 출원 (2017년)

(단위: 건)





## 2) WIPO 상표 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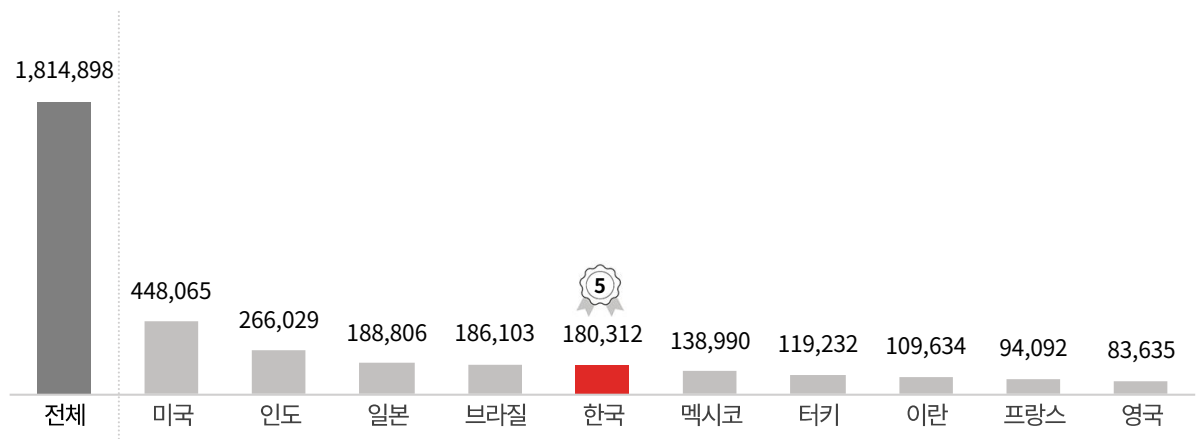
-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조사에 따른 2017년 주요 10개국의 상표 출원 건수는 총 1,814,898건
  - 그 중 미국은 2017년 448,065건을 집계되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함.
  - 한국은 2017년 180,312건을 기록하며 2013년 대비 14.7% 증가해 2017년 상표 출원 건 수 5위를 차지함.
  - 상표 출원 상위 5개국 : 미국(448,065건) > 인도(266,029건) > 일본(188,806건) > 브라질(186,103건) > 한국(180,312건)

(순위기준: 2017년 / 단위: 건)

NO.	국가	국가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US	323,340	342,576	374,974	393,243	448,065
2	인도	IN	202,818	223,756	274,822	296,321	266,029
3	일본	JP	116,141	124,618	144,862	163,007	188,806
4	브라질	BR	163,422	157,016	158,709	166,368	186,103
5	한국	KR	157,139	160,310	183,004	181,888	180,312
6	멕시코	MX	104,362	109,932	120,443	128,919	138,990
7	터키	TR	107,215	111,232	109,577	108,333	119,232
8	이란	IR	38,967	55,401	62,949	57,048	109,634
9	프랑스	FR	89,414	90,958	94,917	91,796	94,092
10	영국	GB	50,005	54,794	57,891	67,052	83,635
총계 (1위 - 10위)			1,352,823	1,430,593	1,582,148	1,653,975	1,814,898

## » 주요 국가 WIPO 상표 출원 건수 (2017년)

(단위: 건)



part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 제 2 장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

1. 디자인산업 규모
2. 디자인 인력
3. 디자인 역량
4. 디자인 활용률
5. 디자인 교육



## 02. 국제 디자인산업 통계

### 1. 디자인산업 규모<sup>13)</sup>

#### 1) 디자인 시장 규모

(단위: \$ 백만)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GDP 대비 디자인산업 (2016 기준)
한국	2,445.35	2,485.80	2,543.58	2,791.20	3,139.21	0.15%
미국	27,500.00	29,450.00	32,330.00	33,920.00	36,940.00	0.18%
일본	2,964.36	2,754.05	-	-	2,829.31	-
뉴질랜드	585.24	594.45	592.47	-	-	-
브라질	170.49	174.91	-	-	-	-
멕시코	143.73	-	-	-	-	-
인도	1,026.00	1,186.00	1,232.00	-	-	-
호주	4,799.00	4,977.00	5,203.60	4,983.70	5,029.40	0.42%
유럽						
EU(28개국)	21,217.67	23,188.84	25,699.58	25,486.85	-	0.09%
영국	6,432.82	7,516.97	8,516.03	(b)7131.69	-	0.27%
이탈리아	4,001.71	4,365.29	4,476.99	4,691.64	-	0.20%
독일	3,319.88	3,484.31	3,740.67	4,007.43	-	0.10%
스웨덴	1,465.98	1,582.91	1,801.65	2,253.35	-	0.47%
프랑스	2,178.28	1,912.76	(b)2,533.12	2,193.77	-	0.08%
스페인	845.72	934.12	1,080.66	1,155.23	-	0.07%
덴마크	832.07	885.92	954.74	981.52	-	0.34%
아일랜드	338.93	415.58	496.08	578.34	-	0.17%
폴란드	499.18	467.62	536.96	557.91	-	0.05%
벨기에	439.40	375.85	415.68	538.20	-	0.10%
포르투갈	168.37	205.60	228.90	243.04	-	0.08%
핀란드	-	204.25	223.39	242.00	-	0.10%
오스트리아	169.62	192.60	-	211.84	-	0.05%
체코	100.37	100.14	117.86	133.58	-	0.04%
루마니아	67.00	81.43	98.01	111.27	-	0.02%
헝가리	53.83	63.73	66.20	77.83	-	0.03%
크로아티아	43.30	51.18	58.59	61.70	-	0.06%
슬로베니아	37.75	42.95	53.14	59.80	-	0.09%
룩셈부르크	34.21	45.34	43.99	44.20	-	0.07%
불가리아	26.93	38.79	38.55	43.02	-	0.03%
에스토니아	26.00	38.68	42.32	41.28	-	0.10%
슬로바키아	26.41	73.32	87.36	35.77	-	0.02%
리투아니아	15.70	20.80	26.62	29.43	-	0.03%
라트비아	32.65	27.04	26.72	27.45	-	0.05%
그리스	53.66	53.66	(b)24.95	25.16	-	0.01%
키프로스	7.90	8.00	10.40	10.40	-	0.04%
네덜란드	-	-	-	-	-	-
몰타	-	-	-	-	-	-
아이슬란드	-	-	24.72	29.22	-	0.17%
노르웨이	513.63	568.63	630.57	710.31	-	0.23%
스위스	1,215.12	1,207.61	1,386.44	1,620.73	-	0.30%
마케도니아	0.93	2.33	2.33	3.26	-	0.01%
터키	70.87	71.06	127.66	-	-	-
보스니아	-	-	-	-	-	-
헤르체코비나	-	-	-	-	-	-
총계	62,652.39	66,660.68	69,772.95	69,545.27	-	0.002%

13) 본 장의 '디자인산업'의 범위는 'Specialized Design Service(전문디자인서비스)'에 해당하며(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NAICS Code 5414),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제외)를 제공하는 산업 그룹을 의미함.

(<http://siccode.com/en/naicscodes/5414/specialized-design-service>)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미국 정부가 사업장에 할당하여 사업장의 주요 사업을 식별하는 4 자리 숫자 코드. 영국 등 기타국가의 기관에서도 사용됨. 1997년 발표된 6자리의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코드)으로 대체되었으나,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와 같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는 여전히 SIC 코드를 사용. SIC 코드의 처음 3 자리는 산업 그룹, 처음 두 자리는 주요 그룹을 나타냄.

※ 출처:

- 1) 한국: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2) 미국: Anything Research: 2018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8)
- 3)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 (2016.03), 특정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2017(경제산업성, 2018)
- 4) 인도: Statista([www.statista.com](http://www.statista.com), 2016)
- 5)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2017.10)
- 6) 유럽,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OECD, 2018.9.18)
- 7) GDP: Gross domestic product(GDP)(OECD, 2018)

※ Note: (b)로 표시한 데이터는 분류와 변수의 정의 등이 변동되어 시계열상 단절(break)된 수치

## 2) 디자인 시장 규모 순위

(단위: \$ 백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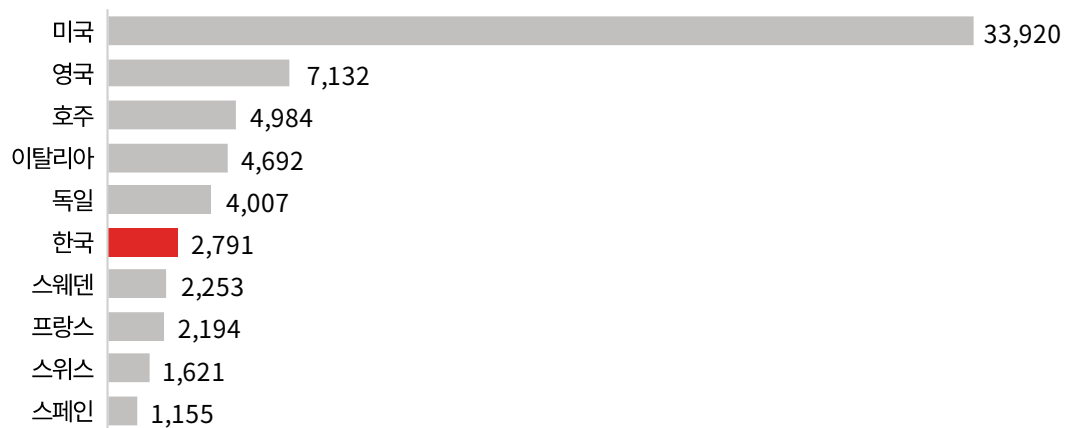
순위	2013		2014		2015		2016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국가	매출액
1	미국	27,500	미국	29,450	미국	32,330	미국	33,920
2	영국	6,433	영국	7,517	영국	8,516	영국	7,132
3	호주	4,799	호주	4,977	호주	5,204	호주	4,984
4	이탈리아	4,002	이탈리아	4,365	이탈리아	4,477	이탈리아	4,692
5	독일	3,320	독일	3,484	독일	3,741	독일	4,007
6	일본	2,964	일본	2,754	한국	2,544	한국	2,791
7	한국	2,282	한국	2,486	스웨덴	1,802	스웨덴	2,253
8	프랑스	2,178	프랑스	1,913	스위스	1,386	프랑스	2,194
9	스웨덴	1,466	스웨덴	1,583	스페인	1,081	스위스	1,621
10	스위스	1,215	스위스	1,208	덴마크	955	스페인	1,155

※ 출처:

- 1) 한국: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2) 미국: Anything Research: 2018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8)
- 3)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 (2016.03), 특정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경제산업성, 2018)
- 4) 인도: Statista(www.statista.com, 2016)
- 5)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2017.10)
- 6) 유럽,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OECD, 2018.9.18)

## » 디자인 시장 규모 순위(2016 기준)

(단위: \$ 백만)



### 3) 디자인 고용인 1인당 매출액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106,008	124,114	119,270	100,714	105,920
호주	214,690	219,200	225,900	213,260	212,270
유럽					
EU(28개국)	91,520	90,480	102,960	86,320	-
스웨덴	160,368	156,728	167,024	185,432	-
룩셈부르크	128,232	156,312	142,480	164,008	-
스페인	86,216	103,480	106,704	117,832	-
벨기에	88,088	80,496	89,960	94,328	-
핀란드	-	72,592	79,248	88,192	-
프랑스	69,368	(b)55,536	(b)93,600	(b)83,824	-
이탈리아	89,336	93,808	94,848	80,080	-
독일	82,576	80,080	76,544	79,872	-
체코	-	36,920	41,392	45,760	-
슬로바키아	44,200	80,288	97,344	42,640	-
에스토니아	37,336	52,624	45,968	42,432	-
슬로베니아	31,928	33,384	36,400	37,752	-
크로아티아	29,744	26,728	32,240	32,656	-
키프로스	32,448	27,976	30,160	32,552	-
포르투갈	32,032	34,424	33,904	32,552	-
폴란드	44,616	36,192	34,840	29,848	-
루마니아	26,104	29,952	30,056	28,912	-
아일랜드	94,224	110,656	119,704	28,808	-
리투아니아	26,104	22,152	23,504	25,792	-
불가리아	21,008	27,664	26,832	25,584	-
그리스	22,464	22,464	(b)26,624	23,608	-
헝가리	26,208	25,480	21,632	21,632	-
라트비아	46,696	28,184	22,048	21,528	-
덴마크	147,784	153,192	160,680	(b)14,248	-
영국	139,984	138,840	180,440	(b)12,168	-
몰타	-	-	-	-	-
네덜란드	-	-	-	-	-
오스트리아	68,952	76,752	-	-	-
아이슬란드	-	-	(p)50,128	(p)60,112	-
노르웨이	145,288	140,400	129,480	130,000	-
스위스	-	-	-	-	-
마케도니아	-	-	-	19,864	-
터키	-	-	-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	-	-	-

※ 출처:

- 1) 한국: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2)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2017.10)
- 3) 유럽: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10.10)

※ Note

- 1) (b)로 표시한 데이터는 분류와 변수의 정의 등이 변동되어 시계열상 단절(break)된 수치
- 2) (p)로 표시한 데이터는 잠정적(provisional) 수치



#### 4) 디자인 전문기업 수

(단위: 개)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 기업 수 대비 디자인전문기업	
						기준 연도	비중
한국	4,573	4,535	4,976	5,425	5,502	2016	0.09%
미국	29,755	30,321	30,873	31,251	31,636	2015	0.73%
일본	9,710	9,010	-	-	7,585	2013	0.32%
호주	17,490	17,817	18,153	-	-	2015	1.61%
뉴질랜드	882	882	906	918	-	2016	0.84%
칠레	27	62	-	-	-	-	-
브라질	2,102	2,261	-	-	-	2014	0.07%
이스라엘	6,668	7,033	7,295	7,677	-	2015	1.70%
유럽							
EU(28개국)	159,928	142,805	178,832	166,780	-	-	-
이탈리아	27,450	29,065	29,201	30,828	-	2016	0.83%
프랑스	29,508	-	25,994	27,689	-	2016	0.92%
독일	21,530	23,083	26,170	26,307	-	2016	1.07%
네덜란드	13,893	15,971	19,130	23,153	-	2016	2.06%
영국	19,919	20,606	21,772	22,130	-	2016	1.05%
스웨덴	12,846	13,054	13,153	13,343	-	2016	1.91%
폴란드	6,899	7,768	8,635	10,005	-	2016	0.60%
스페인	5,425	5,113	5,509	5,543	-	2016	0.21%
포르투갈	3,631	4,030	4,555	5,101	-	2016	0.62%
벨기에	3,900	3,462	3,626	3,912	-	2016	0.64%
덴마크	3,135	3,310	3,331	3,633	-	2016	1.67%
아일랜드	2,615	2,611	2,714	2,685	-	2015	1.12%
체코	-	2,353	2,399	2,530	-	2016	0.25%
헝가리	1,160	1,466	2,030	2,510	-	2016	0.46%
핀란드	-	2,006	2,058	2,016	-	2016	0.89%
오스트리아	1,540	1,542	1,558	1,594	-	2016	0.49%
루마니아	945	1,080	1,308	1,576	-	2016	0.34%
슬로베니아	1,001	1,100	1,249	1,374	-	2016	1.00%
크로아티아	822	859	885	934	-	-	-
리투아니아	267	610	769	882	-	2016	0.46%
불가리아	586	667	730	814	-	-	-
그리스	1,165	1,166	(b)758	751	-	2016	0.10%
에스토니아	511	573	642	695	-	2016	0.99%
라트비아	378	441	532	574	-	2016	0.50%
슬로바키아	393	433	405	479	-	2016	0.11%
키프로스	214	223	251	292	-	-	-
룩셈부르크	195	213	226	245	-	2016	0.77%
몰타	-	-	-	-	-	-	-
아이슬란드	-	-	(p)354	(p)400	-	2015	1.42%
노르웨이	3,969	4,181	4,706	4,902	-	2016	1.66%
스위스	-	-	1,066	1,102	-	-	-
마케도니아	46	54	68	81	-	-	-
터키	1,738	1,813	2,890	-	-	2015	0.12%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	-	-	-	-	-
총계	227,178	220,774	250,119	397,349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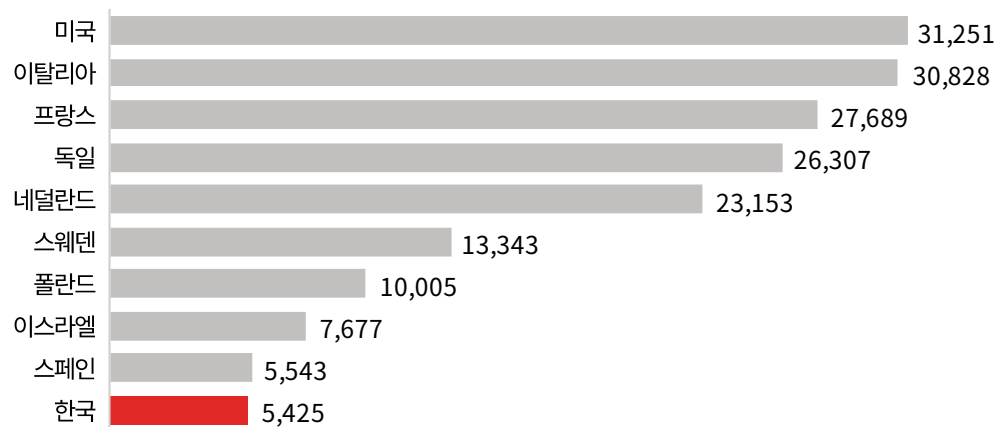
※ 출처:

- 1) 유럽: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OECD, 2018.9.18),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10.10)
- 2) 영국: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10.10), UK Business Counts - enterprises by industry and employment size band(NOMIS:Official Labour Market Statistics, 2018)
- 3) 호주: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OECD, 2018.9.18),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z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2017.10)

- 4) 뉴질랜드, 칠레, 브라질, 이스라엘: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OECD, 2018.9.18)
  - 5) 미국: Anything Research: 2018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8),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OECD, 2018.9.18)
  - 6) 한국: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7) 일본: 일본 디자인산업 통계자료(일본 경제산업성, 2016.03), 특정 서비스 산업 실태조사 2013, 2017(경제산업성)
  - 8) 전체 기업 수: Enterprises by business size(OECD, 2018), 산업별 기업 수(국가통계포털, 2018)
- ※ Note: 전체 기업 수는 'OECD Entrepreneurship at a Glance Highlights 2018'의 국가별 가장 최신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됨
- 1) (b)로 표시한 데이터는 분류와 변수의 정의 등이 변동되어 시계열상 단절(break)된 수치
  - 2) (p)로 표시한 데이터는 잠정적(provisional)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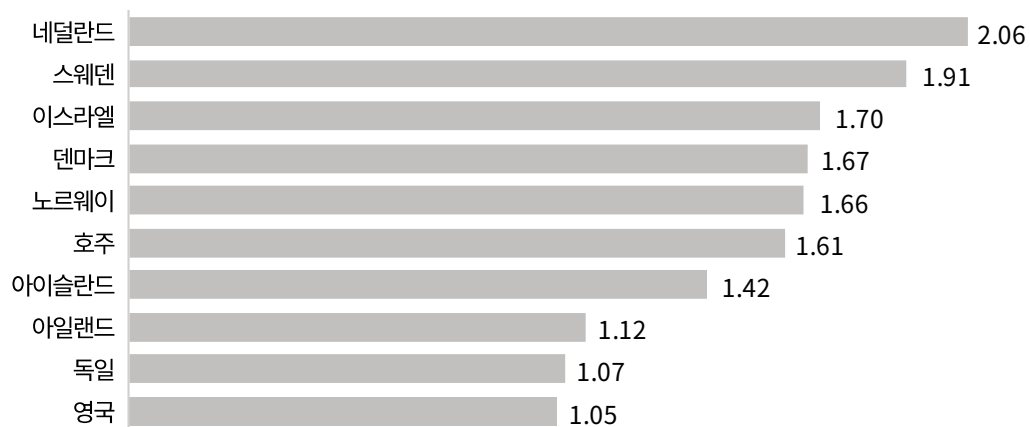
## » 주요국 디자인 전문기업 수 비교(2016 기준)

(단위: 개)



## » 주요국 전체 기업수 대비 디자인 전문기업 비중

(단위: %)



# 5) 디자인 고용 임금 및 급여

(단위: \$ 백만)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362.58	374.47	472.10	-	-
미국	5,199.70	5,559.10	-	-	-
브라질	27.40	40.10	-	-	-
칠레	16.01	21.18	-	-	-
뉴질랜드	118.36	118.36	113.76	-	-
멕시코	3.599	-	-	-	-
이스라엘	122.74	126.84	139.53	150.08	-
유럽					
EU(28개국)	3600.48	4064.84	4599.50	4594.20	-
영국	1131.94	1448.20	1613.77	(b)1406.08	-
독일	514.59	570.54	635.75	729.46	-
프랑스	400.09	(b)377.83	(b)481.52	561.29	-
이탈리아	524.89	538.82	576.58	557.75	-
스웨덴	301.29	315.22	344.76	397.28	-
덴마크	148.51	153.71	169.10	193.96	-
스페인	136.66	133.22	170.77	165.57	-
아일랜드	93.60	146.85	174.62	120.12	-
폴란드	30.16	45.14	57.20	59.38	-
포르투갈	31.20	38.06	42.12	47.42	-
핀란드	(b)38.38	40.77	46.49	47.11	-
벨기에	39.10	33.49	29.43	31.10	-
루마니아	2.81	4.78	6.86	12.58	-
룩셈부르크	7.49	8.11	9.36	10.92	-
크로아티아	6.14	7.59	8.94	9.78	-
체코	6.14	6.55	7.70	9.15	-
헝가리	6.24	6.66	6.55	7.59	-
라트비아	3.95	5.62	7.38	7.38	-
슬로베니아	5.20	5.51	6.45	6.34	-
불가리아	4.58	5.41	5.41	5.82	-
리투아니아	3.22	3.74	4.58	5.82	-
에스토니아	3.85	4.26	5.62	5.51	-
그리스	8.42	6.45	(b)3.12	4.78	-
키프로스	2.91	3.22	3.22	3.22	-
슬로바키아	2.81	8.94	8.63	2.81	-
몰타	-	-	-	-	-
네덜란드	-	-	-	-	-
오스트리아	21.84	24.75	-	-	-
아이슬란드	-	-	(b)6.97	(b)8.84	-
노르웨이	152.57	153.92	162.66	170.14	-
스위스	343.10	370.86	434.10	465.19	-
마케도니아	0.10	0.21	0.21	0.42	-
터키	-	-	-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	-	-	-

※ 출처: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9.17.)

※ Note: (b)로 표시한 데이터는 분류와 변수의 정의 등이 변동되어 시계열상 단절(break)된 수치

6) 디자인 고용인 1인당 총 부가가치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b>유럽</b>					
<b>EU(28개국)</b>	89,440	86,320	99,840	84,240	-
벨기에	116,896	101,712	159,640	185,952	-
스페인	129,584	148,616	137,696	165,152	-
이탈리아	109,824	119,808	119,912	109,512	-
스웨덴	87,880	92,664	97,968	108,784	-
아일랜드	85,488	116,064	117,520	(b)104,936	-
독일	118,144	103,168	99,112	93,288	-
프랑스	110,656	(b)108,160	(b)111,176	(b)91,000	-
덴마크	76,544	79,248	79,664	(b)81,328	-
룩셈부르크	83,200	105,560	54,912	79,768	-
영국	82,472	78,104	113,672	(b)75,816	-
핀란드	-	65,728	65,000	72,488	-
슬로베니아	37,648	45,968	55,640	67,912	-
체코	-	39,832	47,736	46,384	-
폴란드	47,320	34,320	35,048	32,344	-
포르투갈	24,856	26,936	28,184	27,560	-
키프로스	36,816	21,736	23,400	26,104	-
에스토니아	9,672	14,976	20,904	22,256	-
불가리아	15,600	18,408	18,304	20,280	-
그리스	20,280	37,336	(b)32,968	20,176	-
헝가리	13,104	13,520	15,184	18,408	-
리투아니아	12,376	11,752	14,560	16,016	-
크로아티아	14,768	12,792	15,912	15,808	-
라트비아	10,296	10,504	9,984	12,064	-
루마니아	12,792	8,736	7,488	10,088	-
슬로바키아	23,920	22,048	26,000	2,600	-
몰타	-	-	-	-	-
오스트리아	93,808	85,072	-	-	-
네덜란드	-	-	-	-	-
<b>아이슬란드</b>	-	-	(p)27,976	(p)36,400	-
<b>노르웨이</b>	107,744	99,528	91,832	88,608	-
<b>스위스</b>	-	-	-	-	-
<b>마케도니아</b>	3,848	5,720	7,072	7,280	-
<b>터키</b>	-	-	-	-	-
<b>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b>	-	-	-	-	-

※ 출처: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9.17)

※ Note:

- 1) (b)로 표시한 데이터는 분류와 변수의 정의 등이 변동되어 시계열상 단절(break)된 수치
- 2) (p)로 표시한 데이터는 잠정적(provisional) 수치

## 2. 디자인<sup>14)</sup> 인력

### 1) 디자인 인력 수

(단위: 명)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22,945	21,345	22,728	29,536	29,480
미국	105,996	109,349	114,972	118,148	121,520
일본	-	-	-	-	-
멕시코	8,444	-	-	-	-
뉴질랜드	3,550	3,650	3,750	3,900	-
브라질	6,201	6,714	-	-	-
호주	21,868	22,705	23,035	23,369	23,693
유럽					
EU(28개국)	239,364	262,819	266,583	291,137	-
영국	42,850	53,208	51,509	56,858	-
독일	40,226	43,505	48,842	51,695	-
이탈리아	44,790	46,526	47,216	48,163	-
프랑스	31,392	34,459	27,065	31,926	-
네덜란드	11,250	12,021	15,899	18,980	-
폴란드	10,145	11,756	13,990	15,345	-
스페인	9,809	9,026	10,128	11,090	-
스웨덴	9,200	9,666	10,042	10,943	-
포르투갈	5,252	5,975	6,751	7,294	-
벨기에	4,987	4,671	4,619	5,192	-
아일랜드	3,599	3,754	4,146	4,925	-
덴마크	5,021	5,160	5,297	4,807	-
루마니아	2,392	2,517	3,017	3,516	-
헝가리	1,918	2,248	2,744	3,225	-
오스트리아	2,460	2,511	-	2,694	-
체코	2,191	2,264	2,397	2,515	-
크로아티아	1,289	1,684	1,604	1,687	-
슬로베니아	1,182	1,286	1,462	1,552	-
불가리아	1,147	1,252	1,282	1,499	-
핀란드	2,769	2,812	2,818	1,420	-
라트비아	700	960	1,212	1,213	-
리투아니아	600	938	1,134	1,193	-

14) 본 장의 ‘디자인산업’의 범위는 ‘Specialized Design Service(전문디자인서비스)’에 해당하며(북미산업분류시스템 코드, NAICS Code 5414), 전문적인 디자인 서비스(건축, 엔지니어링 및 컴퓨터 시스템 설계 제외)를 제공하는 산업 그룹을 의미함.  
(<http://siccode.com/en/naicscodes/5414/specialized-design-service>)

\*SIC(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표준산업분류) 코드는 미국 정부가 사업장에 할당하여 사업장의 주요 사업을 식별하는 4 자리 숫자 코드. 영국 등 기타국가의 기관에서도 사용됨. 1997년 발표된 6자리의 북미산업분류시스템(NAICS 코드)으로 대체되었으나,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 (SEC)와 같은 정부 부처 및 기관에서는 여전히 SIC 코드를 사용. SIC 코드의 처음 3 자리는 산업 그룹, 처음 두 자리는 주요 그룹을 나타냄.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그리스	2,392	2,394	937	1,001	-
에스토니아	695	736	921	965	-
슬로바키아	596	913	897	816	-
키프로스	245	287	345	355	-
룩셈부르크	267	290	309	268	-
몰타	-	-	-	-	-
아이슬란드	-	-	374	251	-
노르웨이	3,857	4,128	4,632	4,998	-
스위스	6,320	6,863	6,624	7,604	-
마케도니아	-	-	-	-	-
터키	3,921	3,394	7,311	-	-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	-	100	123	-
<b>총계</b>	<b>422,466</b>	<b>440,967</b>	<b>450,109</b>	<b>479,066</b>	

※ 출처:

- 1) 미국: Anything Research: 2018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8)
- 2) 호주: IBISWorld Industry Report M6924: Specialised Design Services in Australia(IBISWorld, 2017.10)
- 3) 한국: 2014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5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6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7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4) 유럽: SDBS Structural Business Statistics(OECD, 2018.9.18),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9.17)

## 2) 디자인 인력 성장률

(단위: %)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10.6	-7.0	6.5	3.0	-0.2
미국	4.9	3.2	5.1	2.2	3.4
유럽					
EU(28개국)	-	-	-	-	-
덴마크	4.3	2.8	2.7	(b)23.5	-
네덜란드	-20.6	6.9	32.3	19.6	-
헝가리	0.9	17.2	22.1	18.1	-
프랑스	5.6	(b)9.8	(b)-21.5	(b)18.0	-
불가리아	8.1	9.2	2.4	16.9	-
리투아니아	9.7	56.3	20.9	16.7	-
루마니아	8.7	5.2	19.9	16.5	-
그리스	0.0	0.1	(b)-60.9	(b)15.0	-
포르투갈	4.7	13.8	13.0	11.8	-
벨기에	2.3	-6.3	-1.1	10.8	-
스웨덴	2.2	5.1	3.9	10.8	-
영국	3.0	24.2	-3.2	(b)10.5	-
키프로스	-25.1	17.1	20.2	9.9	-
폴란드	7.4	15.9	19.0	9.7	-
슬로베니아	11.1	8.8	13.7	8.8	-
체코	-0.1	3.3	5.9	5.8	-
룩셈부르크	6.8	8.6	6.6	5.5	-
독일	8.3	8.2	12.3	5.2	-
크로아티아	2.8	30.6	-4.8	5.2	-
이탈리아	0.1	3.9	1.5	4.4	-
에스토니아	7.8	5.9	25.1	3.0	-
아일랜드	1.6	4.3	10.4	2.9	-
라트비아	22.2	37.1	26.3	1.7	-
핀란드	(b)5.7	(b)1.6	0.2	-2.6	-
슬로바키아	1.5	53.2	-1.8	-6.5	-
스페인	-2.1	-8.0	12.2	-8.8	-
몰타	-	-	-	-	-
오스트리아	2.8	2.1	-	-	-
아이슬란드	-	-	(p) -1.1	(p)11.0	-
노르웨이	3.8	7.0	12.2	6.8	-
스위스	-	-	-	-	-
마케도니아	-	-	-	-	-
터키	-	-	-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	-	-	-

※ 출처:

- 1) 한국: 2014, 2015, 2016, 2017,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KIDP)
- 2) 미국: Anything Research: 2018 Premium Report on Specialized Design Services(Anything Research, 2018)
- 3) 유럽: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10.10)

※ Note:

- 1) 한국의 디자인 인력 성장률은 비디자이너 포함 디자인전문업체 총 종사자수로 산출
- 2) (p)로 표시한 데이터는 잠정적(provisional) 수치

### 3. 디자인 역량

#### 1) 디자인 생산가치

(단위: \$ 백만)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b>유럽</b>					
<b>EU(28개국)</b>	20,546.24	22,243.52	24,817.52	23,877.36	-
영국	5,789.58	7,150.73	8,120.84	(b)6,439.06	-
이탈리아	4,050.59	4,442.36	4,537.94	4,069.73	-
독일	2,952.46	2,938.62	3,149.74	3,408.39	-
프랑스	2,049.01	(b)1888.74	(b)2,455.65	2,663.75	-
스웨덴	1,346.38	1,407.95	1,495.83	1,986.30	-
스페인	773.97	829.19	1,043.85	1,061.22	-
덴마크	616.51	724.36	641.47	617.97	-
폴란드	442.94	406.12	433.16	448.66	-
벨기에	424.32	346.22	390.94	437.42	-
포르투갈	142.79	178.36	195.73	213.51	-
아일랜드	213.62	287.56	335.71	210.81	-
핀란드	(b)186.89	207.48	162.97	180.02	-
체코	84.24	79.46	94.64	109.1	-
루마니아	81.95	57.30	83.62	91.52	-
크로아티아	34.01	40.66	44.51	57.82	-
슬로베니아	35.67	40.46	49.19	55.95	-
룩셈부르크	28.08	35.05	47.01	52.62	-
헝가리	31.20	35.05	40.87	47.74	-
불가리아	23.30	33.49	33.18	36.92	-
에스토니아	26.00	39.21	42.64	36.82	-
리투아니아	14.25	18.82	24.75	32.34	-
슬로바키아	19.24	55.95	79.66	29.12	-
라트비아	32.55	26.52	26.94	26.31	-
그리스	54.08	51.27	(b)22.15	22.46	-
키프로스	7.90	8.01	10.40	12.38	-
오스트리아	139.15	139.26	-	-	-
몰타	-	-	-	-	-
네덜란드	-	-	-	-	-
<b>아이슬란드</b>	-	-	(p)14.46	(p)19.864	-
<b>노르웨이</b>	555.05	566.70	581.88	638.87	-
<b>스위스</b>	10,307.44	1,035.63	1,361.05	1,426.88	-
<b>마케도니아</b>	0.62	1.14	1.66	2.50	-
<b>터키</b>	-	-	-	-	-
<b>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b>	-	-	-	-	-

※ 출처: 유럽 디자인전문서비스 통계자료(KIDP, 2016), Annual detailed enterprise statistics for services(Eurostat, 2018.10.10)

※ 생산가치(Production Value): 생산 된 특정 상품의 생산량에 대한 물질적 또는 금전적 가치(Oxford dictionary)

※ Note:

1) (b)로 표시한 데이터는 분류와 변수의 정의 등이 변동되어 시계열상 단절(break)된 수치

2) (p)로 표시한 데이터는 잠정적(provisional) 수치



## 2) 디자인 혁신지수

국가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	-	-	222.9	229.9
캐나다	-	-	-	70.7	73.9
호주	-	-	-	93.0	96.7
일본	-	-	-	89.2	91.0
미국	-	-	-	54.9	58.8
중국	-	-	-	197.3	208.6
브라질	-	-	-	50.6	52.4
남아프리카	-	-	-	60.5	65.2
러시아	-	-	-	47.7	50.9
인도	-	-	-	41.8	41.9
벨기에	91	91	-	59.7	59.1
불가리아	67	106	122	152.5	121.0
체코	86	100	70	56.9	88.6
덴마크	171	194	181	172.3	172.7
독일	156	116	147	134.3	146.2
에스토니아	92	145	69	81.3	127.0
아일랜드	27	44	36	22.1	23.7
그리스	9	21	22	28.2	26.6
스페인	73	70	67	67.0	64.5
프랑스	78	89	69	62.5	64.3
크로아티아	0	13	20	18.7	19.5
이탈리아	131	102	134	139.4	135.5
키프로스	107	95	45	72.5	79.9
라트비아	46	55	51	37.9	26.1
리투아니아	19	41	29	30.9	37.2
룩셈부르크	177	216	346	211.3	161.1
헝가리	18	30	20	20.1	25.1
몰타	43	152	562	211.3	209.9
네덜란드	91	131	77	79.4	94.5
오스트리아	177	146	168	154.3	151.9
폴란드	100	143	136	128.1	124.2
포르투갈	106	77	99	97.2	87.8
루마니아	12	17	13	17.5	28.4
슬로베니아	75	161	76	64.6	64.7
슬로바키아	32	45	34	23.1	31.7
핀란드	101	161	123	97.7	89.5
스웨덴	101	175	111	102.3	101.6
영국	62	85	70	65.9	66.7
아이슬란드	31	44	9	2.7	4.2
이스라엘	-	-	39	37.5	28.8
마케도니아	1	2	0	1.0	1.0
노르웨이	10	16	8	8.1	11.3
세르비아	0	1	0	1.7	2.6
스위스	152	82	147	133.5	123.0
터키	5	6	6	3.0	2.3
우크라이나	-	-	2	8.8	8.5

※ 출처: European Commission, Innovation Scoreboard 2014, 2015, 2016, 2017, 2018

※ 디자인 혁신지수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Innovation Scoreboard' 보고서에서 지적 자산 중 디자인 출원(design application)

지표를 기준으로 함

## 4. 디자인 인증

### 1) WIPO 산업디자인 출원

(단위: 건)

순위 (2017 기준)	국가	국가 코드	연도별 출원 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
1	중국	CN	659,563	564,555	569,059	650,344	628,658
2	한국	KR	66,940	64,574	68,086	65,635	63,385
3	미국	US	36,034	35,378	39,128	42,762	43,395
4	일본	JP	31,125	29,738	29,864	29,865	31,302
5	이란	IR	4,825	8,864	11,856	15,979	17,978
6	인도	IN	8,497	9,309	10,290	10,673	11,117
7	터키	TR	10,083	10,251	10,133	10,170	10,226
8	호주	AU	6,912	6,597	7,024	7,278	7,708
9	독일	DE	6,543	7,392	7,301	7,384	6,560
10	캐나다	CA	5,346	5,767	5,846	6,170	6,533
11	러시아	RU	4,994	5,184	4,929	5,464	6,487
12	브라질	BR	6,847	6,590	6,039	6,027	6,000
13	태국	TH	3,802	4,077	4,461	4,857	5,122
14	프랑스	FR	4,123	4,782	5,022	5,389	4,469
15	멕시코	MX	4,011	4,080	3,999	4,296	4,233
16	영국	GB	-	-	-	3,978	4,186
17	인도네시아	ID	4,259	3,731	3,972	3,893	3,641
18	우크라이나	UA	4,472	3,254	2,702	2,904	3,034
19	스위스	CH	2,948	2,725	2,794	2,842	2,806
20	베트남	VN	2,095	2,311	2,445	2,868	2,741
21	홍콩	HK	2,336	2,453	2,769	2,515	2,609
22	이집트	EG	1,982	2,147	1,958	2,181	2,375
23	싱가폴	SG	2,393	2,305	2,348	2,155	2,363
24	남아프리카공화국	ZA	2,237	1,973	1,960	2,194	2,126
25	스페인	ES	1,890	1,842	1,987	2,165	1,958
26	말레이시아	MY	2,053	1,882	1,762	1,427	1,814
27	방글라데시	BD	1,232	1,379	1,376	1,456	1,707
28	이스라엘	IL	1,349	1,380	1,538	1,865	1,656
29	아르헨티나	AR	1,465	1,384	1,581	1,653	1,649
30	필리핀	PH	1,376	1,348	1,103	1,569	1,417
31	뉴질랜드	NZ	1,186	1,285	1,329	1,358	1,291
32	모로코	MA	1,142	1,168	1,341	1,363	1,253
33	이탈리아	IT	1,733	1,434	1,977	1,336	1,249
34	노르웨이	NO	1,283	1,216	1,246	1,186	1,243
35	폴란드	PL	1,358	1,188	1,071	1,112	1,035
36	사우디아라비아	SA	692	677	824	937	1,001
37	아랍에미리트	AE	540	804	813	917	855
38	가나	GH	-	-	-	501	793
39	오스트리아	AT	841	881	576	593	781
40	시리아	SY	-	-	287	164	581
41	콜롬비아	CO	766	577	718	533	556
42	수단	SD	115	270	163	381	545
43	파키스탄	PK	457	558	489	555	490
44	튀니지	TN	544	485	549	561	490
45	칠레	CL	762	465	402	401	438
46	포르투갈	PT	400	451	395	474	393
47	스웨덴	SE	502	437	536	468	370
48	세르비아	RS	417	314	335	358	357
49	페루	PE	499	319	358	303	349
50	루마니아	RO	419	390	348	420	341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https://www3.wipo.int/ipstats/lpsStatsResultvalue>

(WIPO statistics database. Last updated: December 2018)

※ Note: '-'는 값이 표시되지 않음을 나타냄

## 2) WIPO 상표 출원

(단위: 건)

순위 (2017 기준)	국가	국가 코드	연도별 출원 건수				
			2013	2014	2015	2016	2017
1	미국	US	323,340	342,576	374,974	393,243	448,065
2	인도	IN	202,818	223,756	274,822	296,321	266,029
3	일본	JP	116,141	124,618	144,862	163,007	188,806
4	브라질	BR	163,422	157,016	158,709	166,368	186,103
5	한국	KR	157,139	160,310	183,004	181,888	180,312
6	멕시코	MX	104,362	109,932	120,443	128,919	138,990
7	터키	TR	107,215	111,232	109,577	108,333	119,232
8	이란	IR	38,967	55,401	62,949	57,048	109,634
9	프랑스	FR	89,414	90,958	94,917	91,796	94,092
10	영국	GB	50,005	54,794	57,891	67,052	83,635
11	독일	DE	64,496	70,880	72,807	73,415	76,615
12	아르헨티나	AR	55,295	58,486	66,278	71,058	74,722
13	호주	AU	61,730	64,652	70,760	72,325	74,505
14	러시아	RU	63,017	60,546	58,630	65,859	71,654
15	인도네시아	ID	60,983	46,452	47,544	62,939	68,103
16	캐나다	CA	49,819	51,028	52,461	54,665	58,913
17	스페인	ES	49,692	52,764	53,118	54,740	55,021
18	베트남	VN	35,628	38,317	42,564	48,930	50,648
19	태국	TH	46,097	45,661	52,344	51,615	43,295
20	이탈리아	IT	40,622	40,195	39,774	41,861	41,911
21	말레이시아	MY	32,225	34,571	35,923	39,107	41,093
22	칠레	CL	33,564	31,869	31,857	33,642	39,987
23	파키스탄	PK	20,822	25,267	28,056	36,126	38,425
24	홍콩	HK	37,092	40,063	39,179	36,181	37,630
25	우크라이나	UA	33,357	26,381	31,003	36,089	36,777
26	스위스	CH	28,869	29,028	29,987	30,404	31,225
27	필리핀	PH	23,042	26,017	26,337	32,794	31,071
28	콜롬비아	CO	25,924	25,688	27,991	27,570	27,049
29	페루	PE	25,258	25,258	26,354	25,577	26,996
30	남아프리카공화국	ZA	36,070	35,418	36,973	37,976	26,251
31	싱가폴	SG	20,033	21,296	21,380	22,757	24,053
32	뉴질랜드	NZ	18,906	20,297	20,727	22,655	23,253
33	베네수엘라	VE	24,717	20,755	19,546	21,623	22,439
34	포르투갈	PT	16,981	19,668	18,509	18,694	20,383
35	아랍에미리트	AE	18,747	20,321	21,415	18,777	19,042
36	폴란드	PL	17,095	16,422	15,466	16,994	17,082
37	시리아	SY	-	-	11,394	8,761	15,812
38	노르웨이	NO	14,645	14,935	15,033	16,102	15,608
39	에콰도르	EC	20,110	25,389	17,523	15,890	14,551
40	코스타리카	CR		12,361	13,600	14,173	14,405
41	모로코	MA	10,871	11,242	11,137	12,787	13,263
42	마카오	MO	10,084	12,287	13,140	11,507	13,135
43	방글라데시	BD	11,581	11,541	12,809	12,375	13,090
44	과테말라	GT	-	-	-	-	12,012
45	도미니카공화국	DO	9,413	9,738	10,049	10,594	11,090
46	스웨덴	SE	10,360	9,859	10,136	10,510	10,618
47	루마니아	RO	11,468	10,489	10,041	10,315	9,914
48	체코	CZ	10,895	10,124	9,978	9,764	9,811
49	카자스탄	KZ	9,847	9,526	8,843	9,244	9,586
50	이스라엘	IL	8,625	8,955	9,225	9,099	9,452

※ 출처: WIPO statistics database, <http://ipstats.wipo.int/ipstatv2/index.htm?tab=trademark>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December 2018)

※ Note: '-'는 값이 표시되지 않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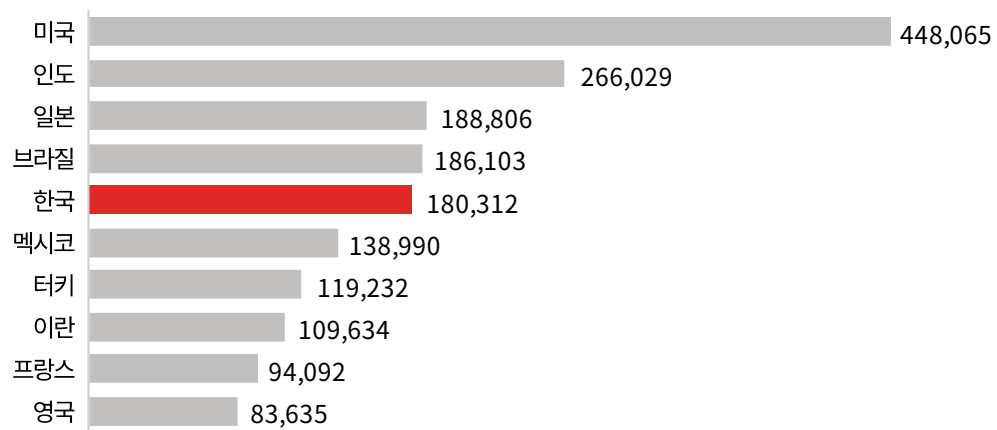
## » WIPO 산업디자인 출원 Top 10(2017 기준)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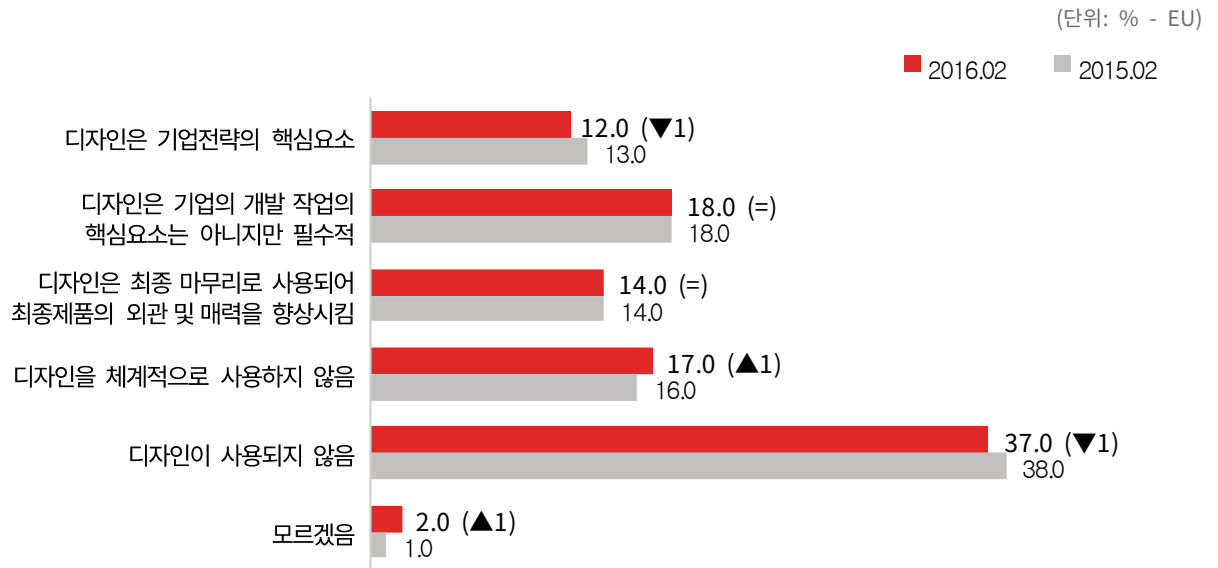
## » WIPO 상표 출원 Top 10(2017 기준)

(단위: 건)



## 5. 디자인 활용률

### 1) 디자인 활용 수준(EU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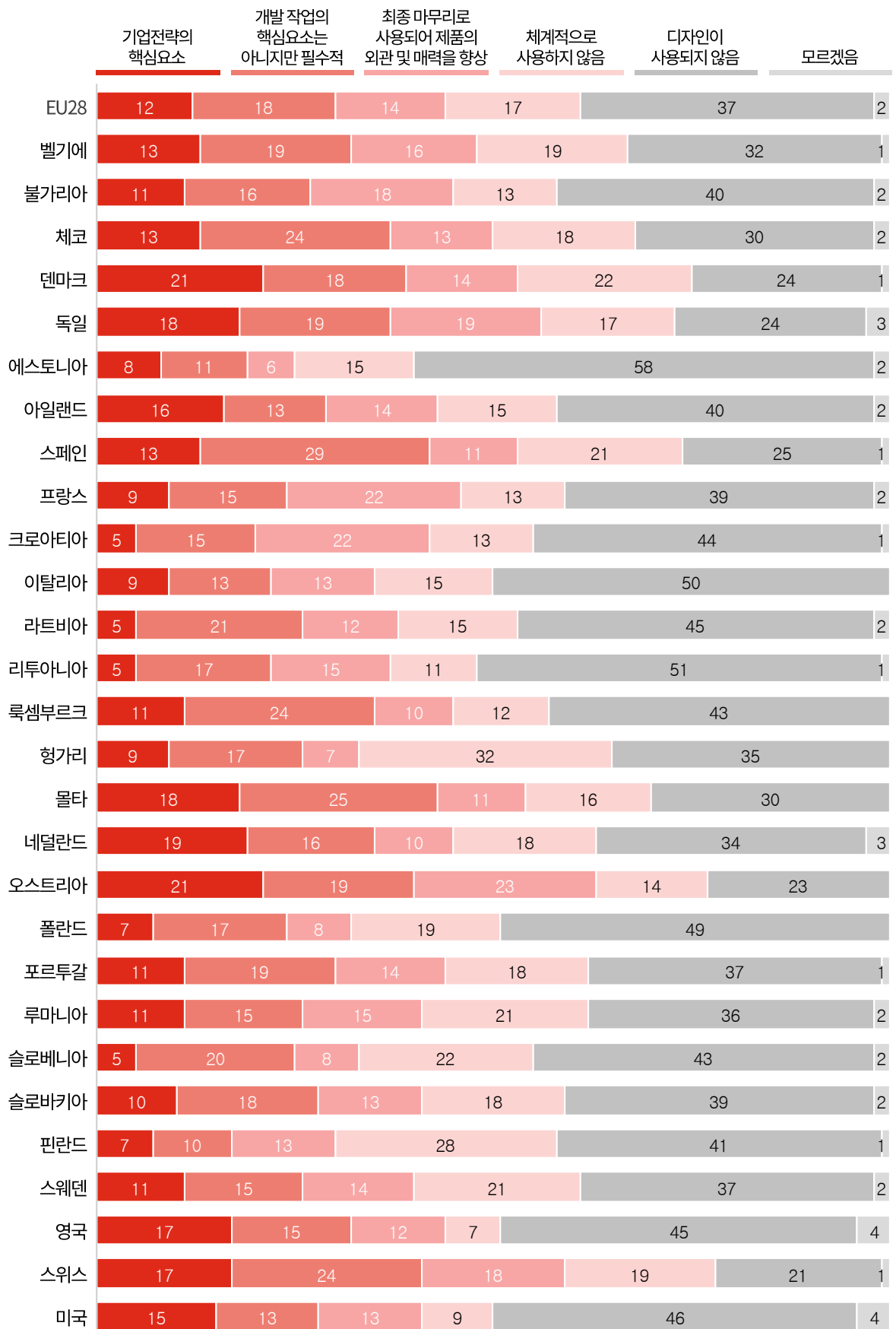


※ 자료: 모든 기업 (n = 13,112)

※ 출처: Innobarometer 2016 – EU business innovation trends, p.94 (European Commission, 2016)

## 2) 디자인 활용 수준(미국, EU 국가별)

(단위: %)



※ 자료: 모든 기업 (n = 13,112)

※ 출처: Innobarometer 2016 – EU business innovation trends, p.97 (European Commission, 2016)

### 3) 디자인 활용 수준(EU 기업 형태별)

		디자인은 기업전략의 핵심요소	디자인은 기업의 개발 작업의 핵심요소는 아니지만 필수적	디자인은 최종 마무리로 사용되어 최종제품의 외관 및 매력을 향상시킴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디자인이 사용되지 않음
<b>EU 28</b>		12	18	14	17	37
<b>기업 규모</b>	1-9명	12	17	14	16	39
	10-49명	15	21	15	19	29
	50-249명	11	30	17	13	26
	250명 이상	34	21	6	20	18
<b>그룹화 부문 (NACE)</b>	제조업 (C)	13	19	16	15	35
	소매업 (G)	12	18	15	18	36
	서비스 (H/I/J/K/L/M/N/R)	14	19	15	15	36
	산업 (D/E/F)	6	15	12	18	47
<b>기업 경력</b>	2010년 전	12	17	14	17	39
	2010년과 2015년 사이	13	21	17	17	31
	2015년 이후	16	18	19	6	35
<b>2013년 이후 기업매출</b>	5% 이상 상승	-6.3	-1.1	10.8	-	-
	거의 동일함	9.2	2.4	16.9	-	-
	5% 이상 하락	2.8	2.7	-	-	-
<b>혁신</b>	최소 한번	15	23	17	16	28
	없음	6	9	9	18	56
	제품 또는 서비스 혁신가	16	23	17	15	28
	기타 혁신가	11	18	21	19	30
	비혁신가	6	9	9	18	56
<b>2015년 기업매출비 혁신활동 투자비율</b>	0%	8	19	12	17	42
	1% 미만	13	21	21	18	26
	1 - 5% 사이	17	21	19	17	25
	6 - 10% 사이	17	31	23	10	18
	11% 이상	30	25	15	10	19

※ 출처: Innobarometer 2016 – EU business innovation trends, p.99 (European Commission, 2016)

## 6. 디자인 교육

### 1) TOP 50 디자인스쿨

순위	대학	국가
1	Royal College of Art	영국
2	Parsons School of Design at The New School	미국
3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RISD)	미국
4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미국
5	Politecnico di Milano	이탈리아
6	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영국
7	Pratt Institute	미국
8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SAIC)	미국
9	Aalto University	핀란드
10	Stanford University	미국
11	RMIT University	호주
12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영국
13	Carnegie Mellon University	미국
14	Art Center College of Design	미국
15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미국
16	The Glasgow School of Art	영국
17	School of Visual Arts (SVA)	미국
18 =	Tongji University	중국
18 =	Universidad de Buenos Aires (UBA)	아르헨티나
20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미국
21	California College of the Arts	미국
22	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 (UNAM)	멕시코
23	Tsinghua University	중국
24 =	Design Academy Eindhoven	네덜란드
24 =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홍콩
26	Universidad de Palermo (UP)	아르헨티나
27	The Royal Danish Academy of Fine Arts(KADK)	덴마크
28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호주
29	Yale University	미국
30	Columbia University	미국
31 =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UNSW Sydney)	호주
31 =	Universidade de São Paulo	브라질
33	New York University (NYU)	미국
34	Loughborough University	영국
35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 Chile (UC)	칠레
36 =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미국
36 =	University of Oxford	영국
38	The University of Melbourne	호주
39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싱가포르
40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NTU)	싱가포르
40 =	<b>Seoul National University</b>	<b>한국</b>
40 =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호주
43 =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	호주
43 =	University of Brighton	영국
45	Instituto Tecnológico y de Estudios Superiores de Monterrey	멕시코
46	Cornell University	미국

※ 출처: 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18

<https://www.topuniversities.com/university-rankings/university-subject-rankings/2018/art-design>







part 3

#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part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 **제 1 장    일반업체**



## part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 01. 일반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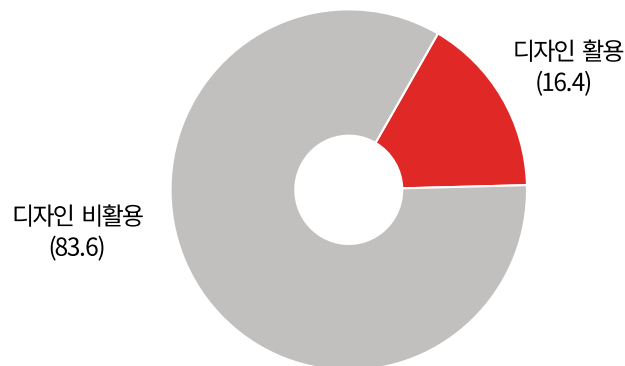
#### 디자인 활용업체

#### 1.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

- (전체 산업 기준) 일반업체 중 디자이너 종사자를 보유했거나 전문디자인업체에 최근 2년 내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경험 등으로 디자인을 활용한 비율은 16.4%로 나타남.  
그 외 83.6%는 디자이너 종사자 및 최근 2년간 디자인 개발을 의뢰한 경험이 없음.

#### »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인천(19.2%)의 디자인 활용 여부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울(18.8%)이 뒤를 이음.

#### » 권역별 디자인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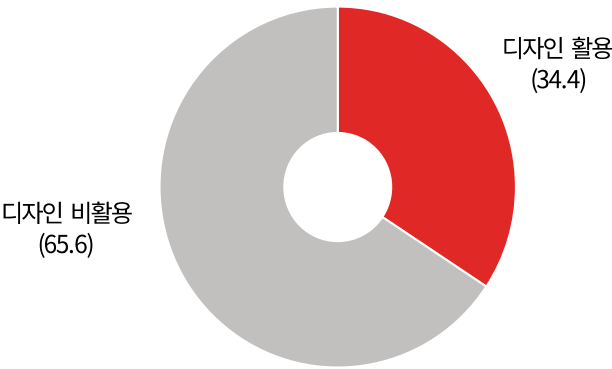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16.4	83.6
권역별	서울	18.8	81.2
	부산/울산/경남	14.2	85.8
	대구/경북	14.9	85.1
	인천	19.2	80.8
	경기	16.4	83.6
	광주/전라	14.4	85.6
	대전/충청	14.7	85.3
	강원/제주	13.4	86.6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일반업체 중 디자이너를 보유했거나,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이 있는 디자인 활용업체 비율은 34.4%로 나타남.  
그 외 65.6%는 디자이너를 보유하지 않았고 최근 2년간 디자인 개발 의뢰 경험도 없음.

»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61.1%)의 디자인 활용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 디자인(45.6%), 디자인 인프라(41.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제품 디자인(24.4%)과 산업공예 디자인(26.5%)은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 업종별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34.4	65.6
업종별	제품 디자인	24.4	75.6
	시각 디자인	45.6	54.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61.1	38.9
	공간 디자인	27.8	72.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7.7	62.3
	서비스/경험 디자인	35.1	64.9
	산업공예 디자인	26.5	73.5
	디자인 인프라	41.2	58.8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서울(39.3%)의 디자인 활용률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인천(37.9%), 광주/전라(34.6%)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디자인 활용률은 4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견기업(40.4%), 중기업(38.9%), 소기업(33.3%)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활용	디자인 비활용
일반업체		34.4	65.6
권역별	서울	39.3	60.7
	부산/울산/경남	31.2	68.8
	대구/경북	32.0	68.0
	인천	37.9	62.1
	경기	34.1	65.9
	광주/전라	34.6	65.4
	대전/충청	29.9	70.1
	강원/제주	32.2	67.8
규모별	소기업	33.3	66.7
	중기업	38.9	61.1
	중견기업	40.4	59.6
	대기업	44.1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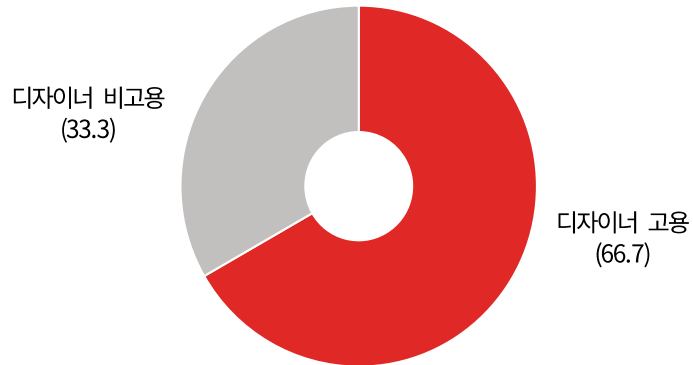
## 2. 디자인 활용 현황

### 1) 디자이너 고용 여부

- 디자인 활용업체 중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2017년 12월 기준)는 66.7%로 나타났고,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33.3%로 나타남.

#### »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 비율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97.6%)이 가장 높고, 다음은 산업공예 디자인(94.8%), 시각 디자인(9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이너 고용	디자이너 비고용
활용업체		66.7	33.3
업종별	제품 디자인	60.7	39.3
	시각 디자인	90.9	9.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7.6	2.4
	공간 디자인	80.0	20.0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9.6	20.4
	서비스/경험 디자인	28.3	71.7
	산업공예 디자인	94.8	5.2
	디자인 인프라	70.5	29.5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72.6%), 경기(68.7%), 부산/울산/경남(66.2%) 등의 순으로 디자이너 고용 비율이 높고, 강원/제주(34.9%)의 고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이 80.6%로 가장 높고, 중기업(73.9%), 소기업(64.7%), 중견기업(64.4%) 순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고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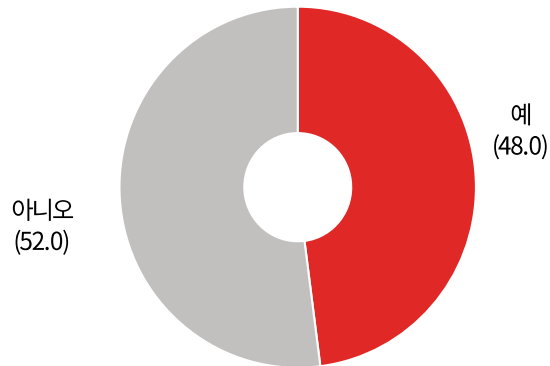
구분		디자이너 고용	디자이너 비고용
활용업체		66.7	33.3
권역별	서울	72.6	27.4
	부산/울산/경남	66.2	33.8
	대구/경북	62.9	37.1
	인천	55.6	44.4
	경기	68.7	31.3
	광주/전라	59.7	40.3
	대전/충청	65.9	34.1
	강원/제주	34.9	65.1
규모별	대기업	80.6	19.4
	중견기업	64.4	35.6
	중기업	73.9	26.1
	소기업	64.7	35.3
외주	외주용역 있음	30.6	69.4
	외주용역 없음	100.0	0.0

## 2)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 디자인 활용업체 중 최근 2년 이내 전문디자인업체에 디자인 개발 외주 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48.0%로 나타남.

### »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최근 2년 이내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이 있는 업체 비율은 서비스/경험 디자인(74.2%)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 인프라(61.0%), 제품 디자인(46.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35.3%) 등의 순으로 높음.
- 한편, 공간 디자인(20.0%)은 디자인 개발 외주용역 경험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낮게 나타남.

### »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48.0	52.0
업종별	제품 디자인	46.8	53.2
	시각 디자인	23.4	76.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5.3	64.7
	공간 디자인	20.0	8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1.3	78.7
	서비스/경험 디자인	74.2	25.8
	산업공예 디자인	22.5	77.5
	디자인 인프라	61.0	39.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이 있는 업체의 비율은 강원/제주(66.6%), 인천(54.5%), 대구/경북(52.6%)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61.0%), 소기업(48.2%), 중기업(47.3%), 대기업(29.2%), 등의 순임.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 의뢰 경험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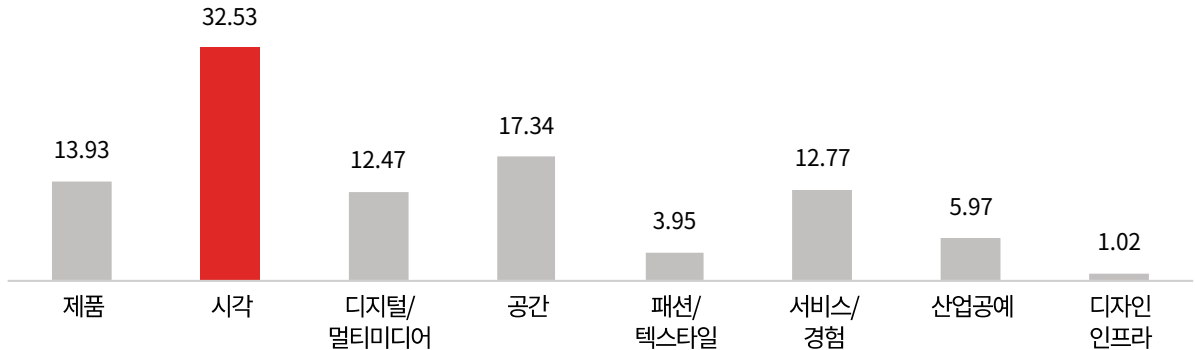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b>활용업체</b>		<b>48.0</b>	<b>52.0</b>
<b>권역별</b>	서울	47.3	52.7
	부산/울산/경남	48.7	51.3
	대구/경북	52.6	47.4
	인천	54.5	45.5
	경기	43.5	56.5
	광주/전라	48.4	51.6
	대전/충청	47.5	52.5
	강원/제주	66.6	33.4
<b>규모별</b>	대기업	29.2	70.8
	중견기업	61.0	39.0
	중기업	47.3	52.7
	소기업	48.2	51.8
<b>고용</b>	디자이너 고용	22.0	78.0
	디자이너 비고용	100.0	0.0

### 3) 디자인 활용 분야

- 주요 디자인 활용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시각 디자인’이 32.53%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간 디자인’(17.34%), ‘제품 디자인’(13.93%), ‘서비스/경험 디자인’(12.7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은 강원/제주(38.48%), 광주/전라(38.29%) 등의 순으로 높고, ‘공간 디자인’은 부산/울산/경남(27.17%), 광주/전라(24.81%)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은 중견기업(49.70%)에서 높고, ‘공간 디자인’은 대기업(40.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 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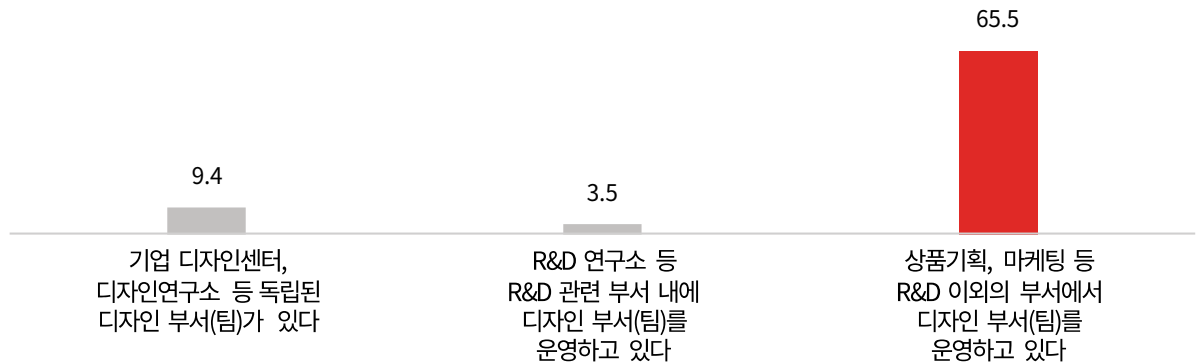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활용업체		13.93	32.53	12.47	17.34	3.95	12.77	5.97	1.02
권역별	서울	10.42	36.23	17.83	12.55	4.58	13.67	3.99	0.73
	부산/울산/경남	8.62	25.51	5.37	27.17	2.82	15.29	10.27	4.95
	대구/경북	11.52	32.54	11.61	17.13	3.34	16.69	7.18	0.00
	인천	13.56	35.67	5.01	15.70	2.46	23.37	4.22	0.00
	경기	21.83	31.25	8.39	15.71	5.95	8.70	8.16	0.00
	광주/전라	8.04	38.29	10.28	24.81	2.15	8.37	8.01	0.06
	대전/충청	18.78	22.28	15.83	23.18	1.28	13.12	2.81	2.71
	강원/제주	11.33	38.48	17.31	19.34	0.25	12.50	0.23	0.57
규모별	대기업	11.35	29.26	6.95	40.66	2.46	7.97	1.35	0.00
	중견기업	22.84	49.70	16.99	4.63	1.46	2.88	1.49	0.00
	중기업	16.01	35.04	14.11	14.97	1.59	15.22	3.05	0.01
	소기업	13.30	31.69	12.04	17.87	4.63	12.30	6.86	1.31
고용	디자이너 고용	15.30	31.78	10.65	20.99	4.65	9.33	6.12	1.17
	디자이너 비고용	11.18	34.03	16.12	10.03	2.55	19.67	5.69	0.73
외주	외주용역 있음	12.93	36.65	14.54	7.79	1.94	17.13	8.52	0.50
	외주용역 없음	14.85	28.73	10.57	26.15	5.80	8.76	3.63	1.50

#### 4) 디자인 부서 형태

- 디자인 부서의 형태로는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이 65.5%로 가장 높고,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9.4%)과 ‘R&D 관련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3.5%)은 상대적으로 낮음.

#### »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 모름/무응답 : 21.7%

- 업종별로 살펴보면,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은 공간 디자인(1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92.6%)에서 높고,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7.4%), ‘R&D 관련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은 산업공예 디자인(3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업체		9.4	3.5	65.5
업종별	제품 디자인	2.2	0.4	97.4
	시각 디자인	7.2	0.0	92.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0	8.6	82.4
	공간 디자인	0.0	0.0	10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7.4	3.4	69.2
	서비스/경험 디자인	3.7	3.7	92.6
	산업공예 디자인	21.5	32.0	46.5
	디자인 인프라	11.3	0.0	26.6

- 모든 권역에서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인천(100.0%)에서 높게 나타남.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은 강원/제주(22.8%), ‘R&D 관련 부서 내 디자인 부서(팀)’은 광주/전라(1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R&D 이외 부서 디자인 부서(팀) 운영’은 중기업(72.1%)에서 가장 높고, 대기업의 경우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61.5%)이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부서 형태

(단위: %)

구분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활용업체		9.4	3.5	65.5
권역별	서울	8.0	3.4	55.9
	부산/울산/경남	0.0	0.0	100.0
	대구/경북	6.9	0.0	37.2
	인천	0.0	0.0	100.0
	경기	17.7	5.2	77.1
	광주/전라	15.7	16.2	68.1
	대전/충청	11.4	0.4	88.2
	강원/제주	22.8	0.0	77.2
규모별	대기업	61.5	3.4	35.1
	중견기업	19.9	16.7	63.3
	중기업	13.9	2.1	72.1
	소기업	4.9	3.4	63.5
외주	외주용역 있음	16.8	0.6	55.9
	외주용역 없음	6.6	4.5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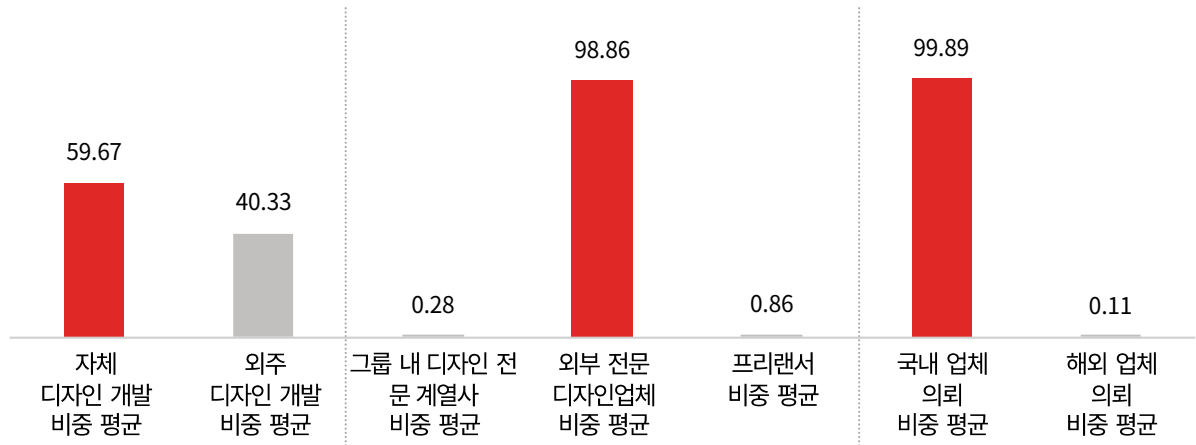


### 5-1)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 디자인 개발 시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디자인 활용업체 평균 59.67%, ‘외주 디자인 개발’은 40.33%로 나타남. 외주 디자인 개발 방법으로 ‘외부 전문디자인업체’ 비중이 98.86%, ‘국내 업체 의뢰’ 비중이 99.89%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산업공예 디자인(89.87%)에서 가장 높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서비스/경험 디자인(73.1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디자인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9.67	40.33	0.28	98.86	0.86	99.89	0.11
업종별	제품 디자인	59.42	40.58	0.91	98.07	1.02	100.00	0.00
	시각 디자인	86.96	13.04	0.19	99.81	0.00	100.00	0.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82.93	17.07	0.00	96.98	3.02	99.91	0.09
	공간 디자인	80.00	20.00	1.23	94.29	4.49	98.57	1.4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9.36	20.64	0.00	100.00	0.00	100.00	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26.88	73.12	0.20	99.53	0.27	100.00	0.00
	산업공예 디자인	89.87	10.13	0.92	99.08	0.00	100.00	0.00
	디자인 인프라	53.57	46.43	0.03	99.37	0.60	100.00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경기(62.84%),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강원/제주 (65.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대기업(78.04%), 중기업(63.66%), 소기업(58.48%), 중견기업(53.35%) 순의 비중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디자인 개발 비중(건 수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디자인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9.67	40.33	0.28	98.86	0.86	99.89	0.11
권역별	서울	62.52	37.48	0.22	98.54	1.25	100.00	0.00
	부산/울산/경남	58.59	41.41	1.01	98.15	0.84	98.99	1.01
	대구/경북	56.17	43.83	0.06	99.94	0.00	100.00	0.00
	인천	50.76	49.24	1.59	98.41	0.00	100.00	0.00
	경기	62.84	37.16	0.03	98.40	1.57	99.99	0.01
	광주/전라	55.87	44.13	0.00	100.00	0.00	100.00	0.00
	대전/충청	61.31	38.69	0.00	100.00	0.00	100.00	0.00
	강원/제주	34.09	65.91	0.35	99.65	0.00	100.00	0.00
규모별	대기업	78.04	21.96	12.94	85.79	1.28	100.00	0.00
	중견기업	53.35	46.65	2.58	90.29	7.13	94.70	5.30
	중기업	63.66	36.34	0.08	99.47	0.45	99.79	0.21
	소기업	58.48	41.52	0.21	98.93	0.86	100.00	0.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89.43	10.57	0.52	98.10	1.38	99.99	0.01
	디자이너 비고용	0.00	100.00	0.17	99.20	0.63	99.85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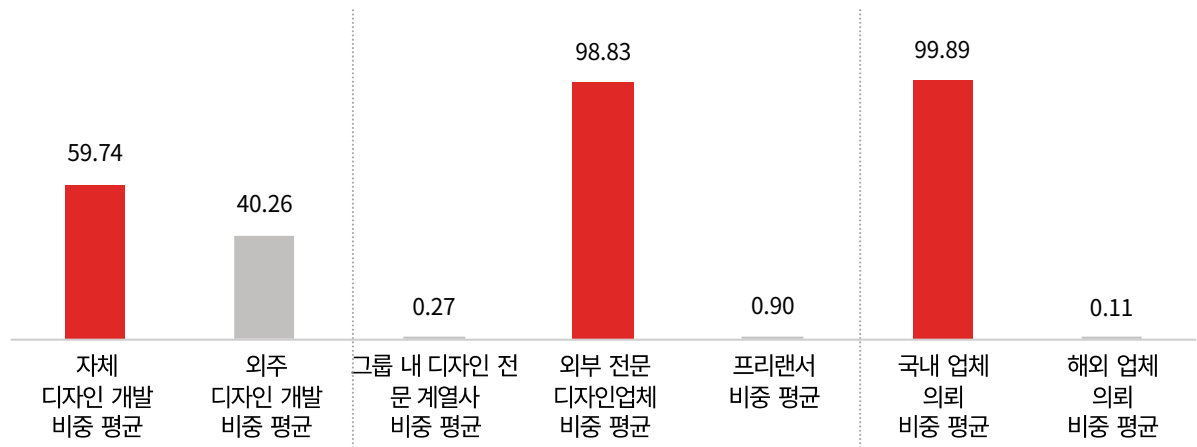
## 5-2)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 디자인 개발 비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59.74%,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40.26%로 나타남.

외주 디자인 개발 방법으로 ‘외부 전문디자인업체’ 비중이 98.83%, ‘국내 업체 의뢰’ 비중이 99.89%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산업공예 디자인(89.87%)에서 가장 높고,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서비스/경험 디자인(73.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디자인 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9.74	40.26	0.27	98.83	0.90	99.89	0.11
업종별	제품 디자인	59.42	40.58	0.91	98.07	1.02	100.00	0.00
	시각 디자인	86.96	13.04	0.19	99.81	0.00	100.00	0.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83.62	16.38	0.00	95.39	4.61	99.91	0.09
	공간 디자인	80.00	20.00	1.23	94.29	4.49	98.57	1.4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9.36	20.64	0.00	100.00	0.00	100.00	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26.86	73.14	0.18	99.55	0.27	100.00	0.00
	산업공예 디자인	89.87	10.13	0.92	99.08	0.00	100.00	0.00
	디자인 인프라	53.71	46.29	0.02	99.38	0.60	100.00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대전/충청(89.87%),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은 광주/전라(73.1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은 대기업(77.70%), 중기업(63.79%), 소기업(58.54%), 중견기업(53.24%) 순의 비중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 디자인 개발 비중(비용 기준)

(단위: %)

구분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비중	외부 전문디자인 업체 비중	프리랜서 비중	국내 업체 의뢰 비중	해외 업체 의뢰 비중
활용업체		59.74	40.26	0.27	98.83	0.90	99.89	0.11
권역별	서울	59.42	40.58	0.19	98.42	1.38	100.00	0.00
	부산/울산/경남	86.96	13.04	1.01	98.15	0.84	98.99	1.01
	대구/경북	83.62	16.38	0.06	99.94	0.00	100.00	0.00
	인천	80.00	20.00	1.59	98.41	0.00	100.00	0.00
	경기	79.36	20.64	0.03	98.40	1.57	99.99	0.01
	광주/전라	26.86	73.14	0.00	100.00	0.00	100.00	0.00
	대전/충청	89.87	10.13	0.00	100.00	0.00	100.00	0.00
	강원/제주	53.71	46.29	0.35	99.65	0.00	100.00	0.00
규모별	대기업	77.70	22.30	11.61	87.11	1.28	100.00	0.00
	중견기업	53.24	46.76	2.47	90.40	7.13	94.72	5.28
	중기업	63.79	36.21	0.08	99.50	0.41	99.79	0.21
	소기업	58.54	41.46	0.21	98.86	0.93	100.00	0.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89.54	10.46	0.49	97.96	1.55	99.99	0.01
	디자이너 비고용	0.00	100.00	0.17	99.21	0.62	99.85	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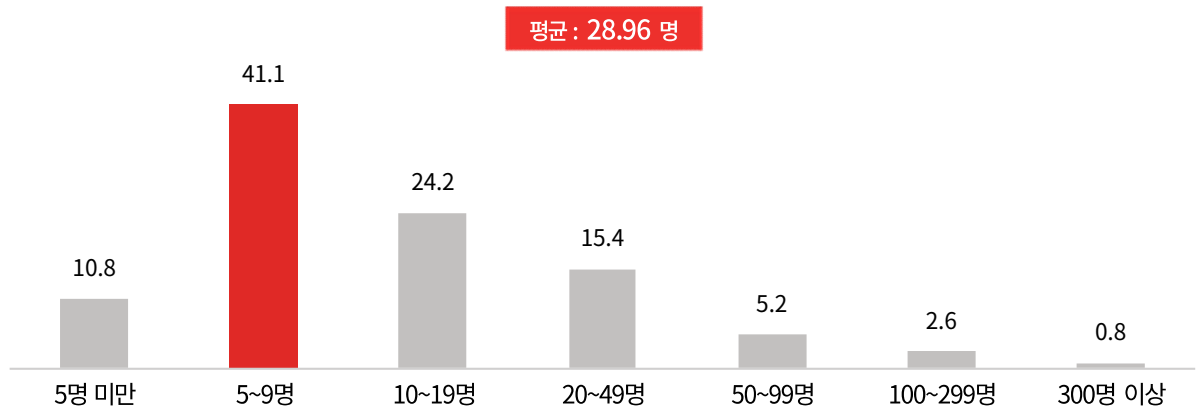
## 6) 직원 수

- 디자인 활용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28.96명으로 나타남.

‘5~9명’ 종사자 고용 업체가 41.1%로 가장 많고, 다음은 ‘10~19명’(24.2%), ‘20~49명’(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 디자인의 평균 종사자 수가 85.5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비스/경험 디자인(26.81명), 공간 디자인(24.28명), 시각 디자인(23.38명), 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21.33명) 등의 순임.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명)
활용업체		10.8	41.1	24.2	15.4	5.2	2.6	0.8	28.96
업종별	제품 디자인	10.3	36.9	20.9	18.7	7.3	4.8	1.1	85.54
	시각 디자인	25.2	34.5	18.0	13.5	5.3	2.0	1.5	23.3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6	40.1	25.1	16.5	5.4	2.7	0.6	21.33
	공간 디자인	11.4	34.8	32.5	14.6	3.7	2.0	1.0	24.2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5	52.3	24.2	10.4	2.2	1.2	0.3	15.93
	서비스/경험 디자인	3.8	39.3	25.8	22.0	4.7	3.5	0.8	26.81
	산업공예 디자인	20.9	34.1	14.8	23.6	5.0	1.5	0.2	18.78
	디자인 인프라	10.8	48.0	22.0	10.7	6.0	2.0	0.4	20.03

- 권역별로는, 종사자 수는 서울(35.78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경기(28.98명), 대구/경북(27.90명) 등의 순임.
- 디자이너 고용 업체(31.84명)가 디자이너 비고용 업체(23.17명)보다 종사자 수가 많고, 외주 용역 업체(35.97명)가 외주 용역을 주지 않는 업체(22.49명)보다 많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직원 수

(단위: %)

구분		5명 미만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평균(명)
활용업체		10.8	41.1	24.2	15.4	5.2	2.6	0.8	28.96
권역별	서울	9.9	38.1	26.1	16.6	5.3	3.0	1.0	35.78
	부산/울산/경남	10.7	44.2	22.4	14.2	4.3	3.3	0.9	24.34
	대구/경북	16.4	25.8	25.3	19.7	8.2	3.9	0.6	27.90
	인천	11.7	41.9	16.3	16.7	8.0	4.2	1.1	26.36
	경기	10.8	48.9	20.4	12.8	4.8	1.8	0.4	28.98
	광주/전라	8.4	52.0	17.7	14.9	4.0	2.4	0.6	20.24
	대전/충청	13.1	37.4	29.1	14.1	4.3	1.3	0.7	20.85
	강원/제주	5.4	28.2	42.7	18.4	4.6	0.2	0.6	19.60
규모별	대기업	0.0	10.5	0.0	11.4	14.1	24.8	39.2	932.25
	중견기업	0.0	0.0	0.0	26.1	22.7	26.5	24.7	264.97
	중기업	0.4	20.6	22.4	29.0	18.2	8.8	0.6	42.93
	소기업	13.8	47.4	25.2	11.7	1.4	0.4	0.1	12.03
고용	디자이너 고용	9.5	40.7	24.1	16.2	6.1	2.7	0.7	31.84
	디자이너 비고용	13.5	41.9	24.2	13.7	3.5	2.3	0.9	23.17
외주	외주용역 있음	11.5	42.5	22.9	14.4	5.0	2.8	0.9	35.97
	외주용역 없음	10.2	39.9	25.3	16.3	5.4	2.3	0.6	22.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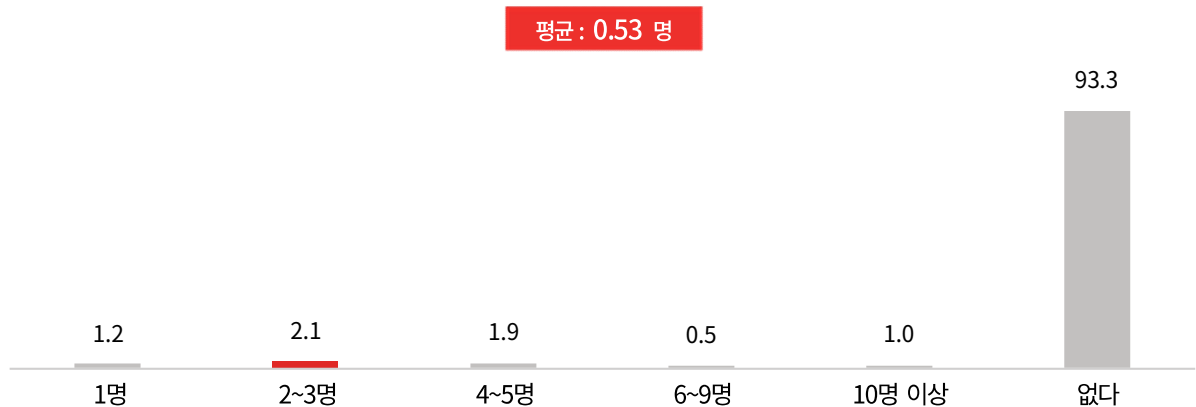
## 6-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부서 직원 수는 업체 평균 0.53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3명'이 2.1%, '4~5명'이 1.9%로 나타났으며, 디자인 부서 직원이 '없다'는 93.3%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43명)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 디자인(1.13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0.91명)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3명	4~5명	6~9명	10명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2	2.1	1.9	0.5	1.0	93.3	0.53
업종별	제품 디자인	2.3	1.8	2.2	0.3	0.2	93.1	0.67
	시각 디자인	0.0	6.4	3.2	0.1	3.0	87.2	1.1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5.6	7.2	3.1	2.8	81.4	1.43
	공간 디자인	0.0	1.0	0.2	0.0	0.7	98.0	0.4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1	1.3	2.6	2.2	1.9	90.9	0.91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2	3.1	0.6	0.7	95.5	0.41
	산업공예 디자인	1.2	5.0	3.0	0.0	0.3	90.5	0.30
	디자인 인프라	2.7	2.4	0.8	0.4	0.8	92.9	0.32

- 권역별로는 서울이 1.01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0.54명), 경기(0.33명), 부산/울산/경남(0.24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종사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디자인 부서 직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3명	4~5명	6~9명	10명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1.2	2.1	1.9	0.5	1.0	93.3	0.53
권역별	서울	2.9	1.9	3.4	1.0	1.8	89.0	1.01
	부산/울산/경남	0.0	3.5	0.6	0.0	0.7	95.3	0.24
	대구/경북	0.0	3.6	0.8	0.8	0.2	94.6	0.54
	인천	0.0	3.9	1.2	0.0	0.2	94.7	0.19
	경기	0.8	2.2	1.2	0.4	0.6	94.8	0.33
	광주/전라	0.0	0.9	2.4	0.0	0.0	96.7	0.12
	대전/충청	0.3	1.2	0.9	0.0	1.2	96.4	0.21
	강원/제주	0.0	0.0	0.0	0.0	0.2	99.8	0.10
규모별	대기업	0.0	4.5	3.4	2.1	6.9	83.1	10.83
	중견기업	0.0	0.0	8.3	1.2	12.4	78.1	8.63
	중기업	1.3	2.0	2.2	1.3	3.0	90.1	0.99
	소기업	1.2	2.2	1.7	0.3	0.2	94.5	0.18
외주	외주용역 있음	1.0	0.9	0.9	0.2	0.8	96.2	0.32
	외주용역 없음	1.4	3.3	2.7	0.8	1.2	90.6	0.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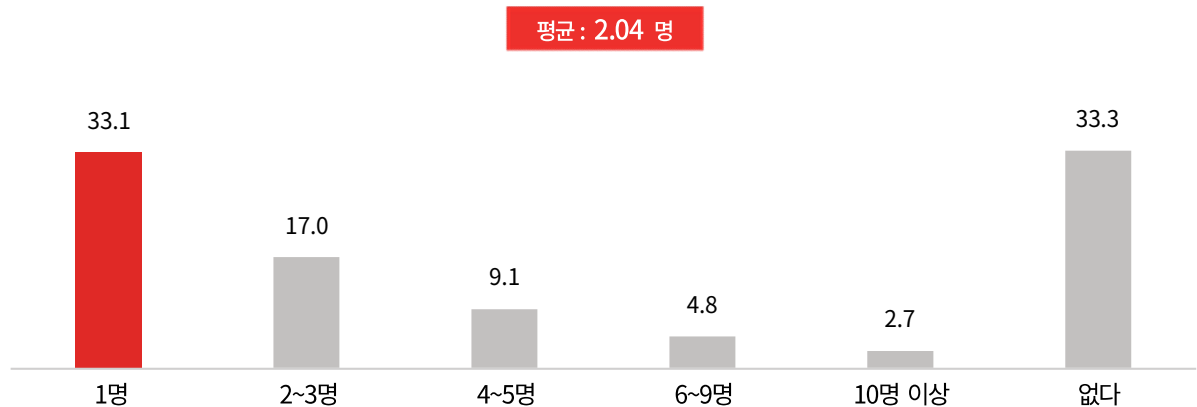
## 6-2) 디자이너 수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이너 수 평균은 2.04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명'은 33.1%, '2~3명'은 17.0%로 활용업체의 절반가량이 디자이너를 1명 또는 2~3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 디자인이 3.19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56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2.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3명	4~5명	6~9명	10명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3.1	17.0	9.1	4.8	2.7	33.3	2.04
업종별	제품 디자인	4.1	3.2	44.0	7.4	2.1	39.3	3.19
	시각 디자인	47.0	31.3	8.4	1.2	2.9	9.1	2.3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7.8	25.7	8.2	3.1	2.8	2.4	2.51
	공간 디자인	54.9	10.6	7.7	2.0	4.9	20.0	2.4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3	58.2	4.6	5.7	1.9	20.4	2.56
	서비스/경험 디자인	2.2	0.3	5.4	15.8	4.4	71.7	2.07
	산업공예 디자인	56.2	31.2	4.5	1.9	1.0	5.2	1.71
	디자인 인프라	43.0	23.6	2.6	0.3	1.0	29.5	1.3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6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2.27명), 경기(1.89명), 인천(1.67명), 대전/충청(1.63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많은 디자이너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기업은 11.3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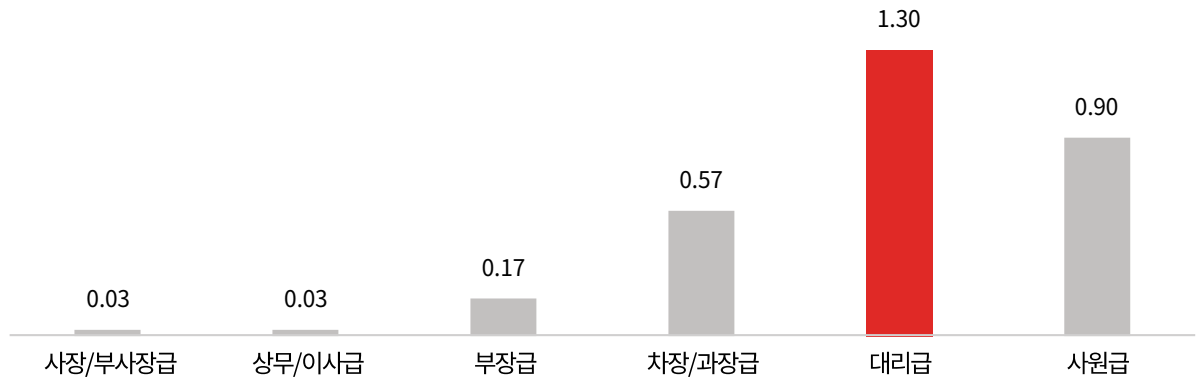
구분		1명	2~3명	4~5명	6~9명	10명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3.1	17.0	9.1	4.8	2.7	33.3	2.04
권역별	서울	31.8	21.6	7.5	6.8	4.8	27.4	2.66
	부산/울산/경남	39.3	16.2	5.4	2.7	2.6	33.8	1.53
	대구/경북	33.1	19.5	3.7	3.4	3.2	37.1	2.27
	인천	26.4	13.2	12.8	1.7	1.6	44.4	1.67
	경기	32.2	16.6	12.7	6.1	1.1	31.3	1.89
	광주/전라	29.9	14.4	9.3	5.1	1.1	40.3	1.55
	대전/충청	38.9	8.6	16.0	0.9	1.6	34.1	1.63
	강원/제주	32.5	2.2	0.0	0.0	0.2	65.1	0.48
규모별	대기업	21.9	37.6	0.6	5.3	15.2	19.4	11.36
	중견기업	3.4	33.3	8.8	3.1	15.8	35.6	10.42
	중기업	11.2	35.9	10.3	9.4	7.0	26.1	3.41
	소기업	39.4	11.5	8.9	3.6	1.3	35.3	1.46
외주	외주용역 있음	17.6	9.0	2.2	0.8	1.0	69.4	0.78
	외주용역 없음	47.4	24.3	15.5	8.6	4.3	0.0	3.19

### 6-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 직급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대리급’이 1.30명으로 가장 높고, ‘사원급’(0.90명), 차장/과장급’(0.57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리급’ 디자이너 수는 서비스/경험 디자인(3.71명), 제품 디자인(3.16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32명) 등의 순으로 높고, ‘사원급’ 디자이너 수는 서비스/경험 디자인(1.42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36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11명)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사장/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활용업체		0.03	0.03	0.17	0.57	1.30	0.90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4	0.00	0.08	0.44	3.16	0.80
	시각 디자인	0.00	0.00	0.05	0.52	1.20	0.8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2	0.02	0.03	0.23	0.91	1.36
	공간 디자인	0.08	0.08	0.43	0.81	0.89	0.7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0	0.06	0.09	0.64	1.32	1.11
	서비스/경험 디자인	0.00	0.01	0.17	1.99	3.71	1.42
	산업공예 디자인	0.10	0.05	0.52	0.58	0.33	0.23
	디자인 인프라	0.00	0.01	0.04	0.17	0.71	0.91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리급’은 경기(1.50명), 대구/경북(1.35명), 인천(1.32명) 등의 순으로 높고, ‘사원급’은 서울(1.27명), 인천(1.10명), 대구/경북(0.97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에서 ‘사원급’(7.30명)과 ‘대리급’(5.19명), ‘차장/과장급’(2.90명)이 상대적으로 많고, ‘상무/이사급’은 대기업(0.09명)에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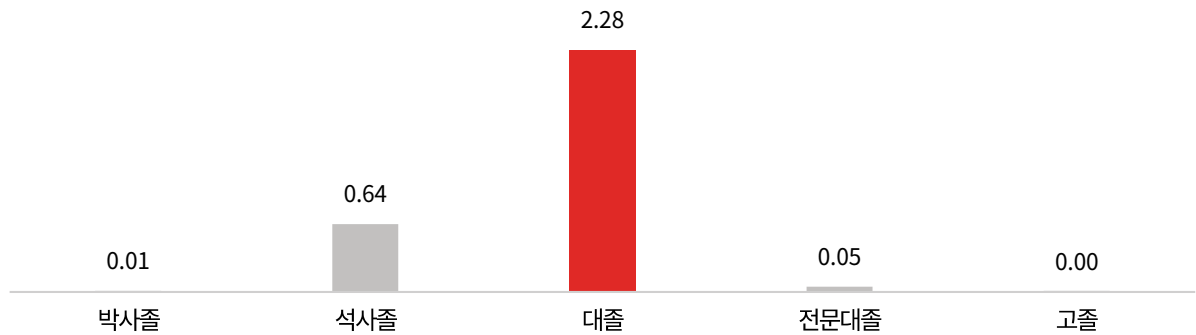
구분		사장/ 부사장급	상무/ 이사급	부장급	차장/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활용업체		0.03	0.03	0.17	0.57	1.30	0.90
권역별	서울	0.01	0.04	0.17	0.80	1.25	1.27
	부산/울산/경남	0.05	0.01	0.11	0.38	1.15	0.62
	대구/경북	0.07	0.13	0.38	0.72	1.35	0.97
	인천	0.00	0.04	0.10	0.43	1.32	1.10
	경기	0.04	0.01	0.15	0.31	1.50	0.64
	광주/전라	0.05	0.02	0.15	0.73	1.15	0.47
	대전/충청	0.00	0.00	0.13	0.41	1.30	0.64
	강원/제주	0.00	0.01	0.19	0.34	0.34	0.49
규모별	대기업	0.00	0.09	0.56	1.45	2.26	3.29
	중견기업	0.00	0.03	0.77	2.90	5.19	7.30
	중기업	0.00	0.07	0.25	0.98	1.83	1.49
	소기업	0.03	0.02	0.13	0.40	1.07	0.6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1	0.03	0.07	0.29	0.95	0.89
	외주용역 없음	0.03	0.03	0.20	0.64	1.39	0.90

## 6-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 평균 디자이너 수를 학력별로 살펴본 결과, ‘대졸’ 디자이너가 평균 2.2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석사졸’(0.64명), ‘전문대졸’(0.05명) 등의 순임.

### » 디자인 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졸’ 디자이너 수는 서비스/경험 디자인(4.60명)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 디자인(3.91명), 시각 디자인(2.35명) 등의 순으로 높음.
- ‘석사졸’은 서비스/경험 디자인(2.52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46명), 공간 디자인(0.67명) 등의 순임.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박사졸	석사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이하
활용업체		0.01	0.64	2.28	0.05	0.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0	0.61	3.91	0.01	0.00
	시각 디자인	0.00	0.22	2.35	0.01	0.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0	0.25	2.30	0.02	0.00
	공간 디자인	0.01	0.67	2.34	0.02	0.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15	1.46	1.49	0.12	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1	2.52	4.60	0.17	0.00
	산업공예 디자인	0.00	0.44	1.37	0.00	0.00
	디자인 인프라	0.00	0.29	1.49	0.06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졸’ 디자이너 수의 평균이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2.89명), 대구/경북(2.45명), 인천(2.13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졸’과 ‘석사졸’ 디자이너 수 모두 중견기업(각각 14.49명, 0.94명)에서 가장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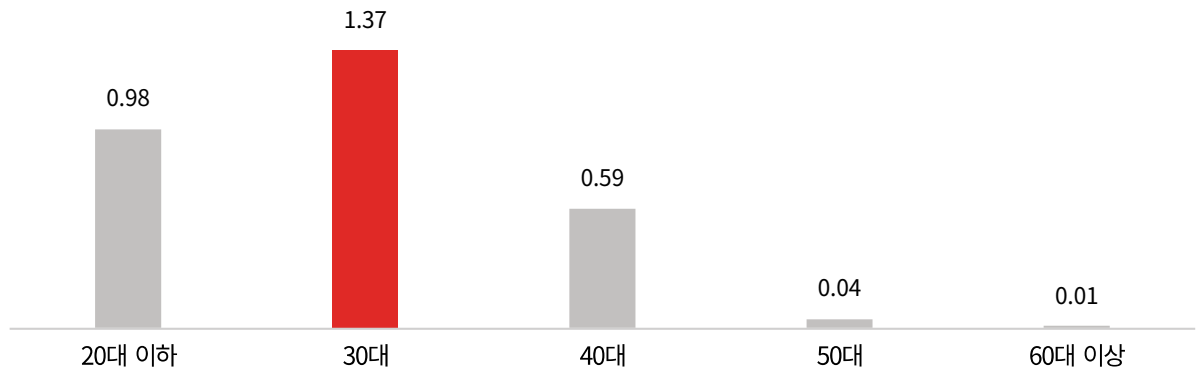
구분		박사졸	석사졸	대졸	전문대졸	고졸 이하
활용업체		0.01	0.64	2.28	0.05	0.00
권역별	서울	0.02	0.53	2.89	0.12	0.00
	부산/울산/경남	0.03	0.35	1.92	0.02	0.00
	대구/경북	0.00	1.11	2.45	0.05	0.00
	인천	0.00	0.86	2.13	0.00	0.00
	경기	0.00	0.73	1.92	0.00	0.00
	광주/전라	0.00	0.63	1.96	0.00	0.00
	대전/충청	0.01	0.88	1.59	0.00	0.00
	강원/제주	0.00	0.12	1.24	0.01	0.00
규모별	대기업	0.02	0.55	7.08	0.22	0.01
	중견기업	0.01	0.94	14.49	0.75	0.00
	중기업	0.02	0.88	3.61	0.10	0.00
	소기업	0.01	0.57	1.65	0.02	0.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0	0.40	1.74	0.09	0.00
	외주용역 없음	0.01	0.71	2.43	0.04	0.00

### 6-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 연령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본 결과, '30대' 디자이너가 평균 1.37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대 이하'(0.98명), '40대'(0.59명), '50대'(0.04명), '60대 이상'(0.01명) 순임.

#### » 디자인 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30대' 디자이너 수는 서비스/경험 디자인(3.92명)에서 가장 높고, 이어 제품 디자인(3.26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89명) 등의 순임.
- '20대 이하'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76명), 서비스/경험 디자인(1.36명)과 디자인 인프라(1.36명)에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활용업체		0.98	1.37	0.59	0.04	0.01
업종별	제품 디자인	0.64	3.26	0.60	0.02	0.00
	시각 디자인	0.45	1.48	0.63	0.02	0.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76	0.63	0.16	0.01	0.00
	공간 디자인	0.66	1.42	0.86	0.09	0.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61	1.89	0.49	0.11	0.12
	서비스/경험 디자인	1.36	3.92	1.96	0.06	0.00
	산업공예 디자인	0.27	0.80	0.59	0.15	0.00
	디자인 인프라	1.36	0.32	0.15	0.00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30대’ 디자이너 수는 대구/경북(1.67명)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경기(1.53명), 인천(1.52명) 등의 순으로 높음.

규모별로 연령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20대 이하’와 ‘30대’ 모두 중견기업(각각 6.54명, 6.45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활용업체		0.98	1.37	0.59	0.04	0.01
권역별	서울	1.32	1.38	0.78	0.04	0.02
	부산/울산/경남	0.95	0.95	0.36	0.06	0.00
	대구/경북	1.06	1.67	0.78	0.11	0.00
	인천	0.96	1.52	0.51	0.01	0.00
	경기	0.74	1.53	0.34	0.03	0.00
	광주/전라	0.58	0.85	1.10	0.06	0.00
	대전/충청	0.64	1.48	0.34	0.01	0.00
	강원/제주	0.50	0.63	0.23	0.01	0.00
규모별	대기업	2.98	3.12	1.39	0.17	0.00
	중견기업	6.54	6.45	2.89	0.31	0.00
	중기업	1.74	1.77	1.03	0.08	0.00
	소기업	0.65	1.15	0.41	0.03	0.01
외주	외주용역 있음	1.16	0.79	0.27	0.02	0.00
	외주용역 없음	0.93	1.53	0.68	0.05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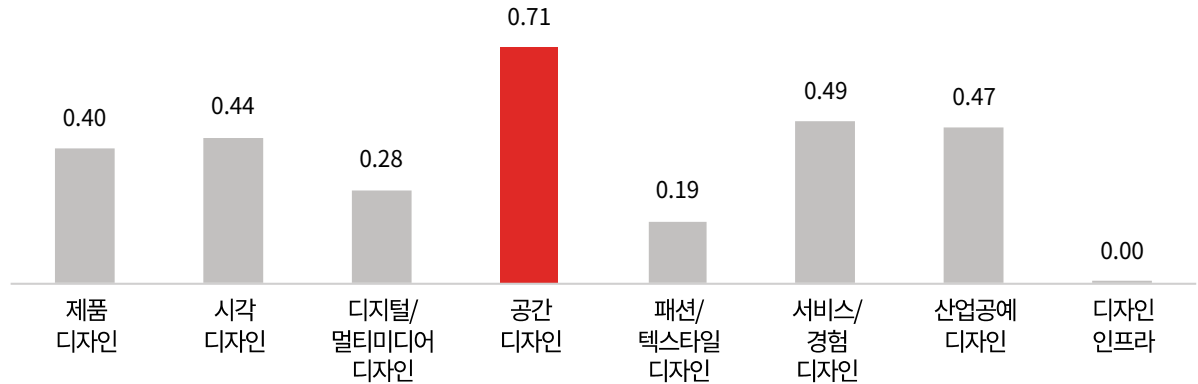


#### 6-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를 살펴본 결과, ‘공간 디자인’(0.71명), ‘서비스/경험 디자인’(0.49명), ‘산업공예 디자인’(0.47명), ‘시각 디자인’(0.44명)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기타 : 0.1%

- 권역별로 살펴보면, ‘공간 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는 대구/경북(1.85명)에서 가장 많고, 이어 인천(1.07명), 서울(0.73명), 부산/울산/경남(0.72명)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공간 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는 중견기업(5.15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경험 디자인’ 분야의 경우 중기업(0.64명)에서 가장 많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활용업체		0.40	0.44	0.28	0.71	0.19	0.49	0.47	0.00
권역별	서울	0.21	0.54	0.56	0.73	0.33	0.69	0.69	0.00
	부산/울산/경남	0.38	0.30	0.11	0.72	0.13	0.21	0.21	0.00
	대구/경북	0.34	0.57	0.19	1.85	0.11	0.26	0.26	0.00
	인천	0.28	0.74	0.11	1.07	0.09	0.00	0.00	0.00
	경기	0.76	0.30	0.12	0.37	0.13	0.42	0.42	0.00
	광주/전라	0.11	0.41	0.05	0.69	0.07	0.81	0.81	0.00
	대전/충청	0.51	0.42	0.11	0.53	0.04	0.38	0.38	0.00
	강원/제주	0.11	0.31	0.08	0.46	0.04	0.00	0.00	0.00
규모별	대기업	1.16	0.74	0.48	2.56	1.58	0.19	0.19	0.00
	중견기업	1.17	1.54	3.57	5.15	1.97	0.00	0.00	0.00
	중기업	0.46	0.37	0.55	1.44	0.15	0.64	0.64	0.00
	소기업	0.36	0.44	0.15	0.40	0.16	0.45	0.45	0.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26	0.55	0.20	0.25	0.04	0.10	0.10	0.00
	외주용역 없음	0.44	0.41	0.30	0.84	0.23	0.59	0.59	0.00

### 6-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디자인 활용업체 남자 종사자 수는 19.45명, 여자 종사자 수는 9.51명으로 남자 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남.  
반면, 여자 디자이너 종사자 수는 1.14명으로 남자 디자이너 종사자 수(0.91명) 대비 높음.

#### » 디자인 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남자 종사자’의 경우 제품 디자인(68.04명)에서 가장 높고, ‘남자 디자이너’ 역시 제품 디자인(2.09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여자 디자이너’의 경우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03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
활용업체		19.45	9.51	0.26	0.27	0.91	1.14
업종별	제품 디자인	68.04	17.50	0.30	0.37	2.09	1.10
	시각 디자인	13.07	10.31	0.55	0.57	1.03	1.3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3.16	8.17	0.78	0.65	0.95	1.56
	공간 디자인	19.51	4.77	0.35	0.13	1.87	0.5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28	8.65	0.15	0.76	0.53	2.03
	서비스/경험 디자인	14.35	12.46	0.23	0.18	0.58	1.49
	산업공예 디자인	13.15	5.63	0.16	0.14	0.90	0.81
	디자인 인프라	11.66	8.37	0.11	0.21	0.23	1.07

- 권역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 디자이너’는 대구/경북(1.37명)에서 가장 많고, 서울(1.08명), 광주/전라(0.85명), 경기(0.82명) 등의 순임. ‘여자 디자이너’는 서울(1.59명)에서 가장 많고, 경기(1.07명), 대구/경북(0.92명), 부산/울산/경남(0.9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으로 남녀 디자이너 모두 높은 특징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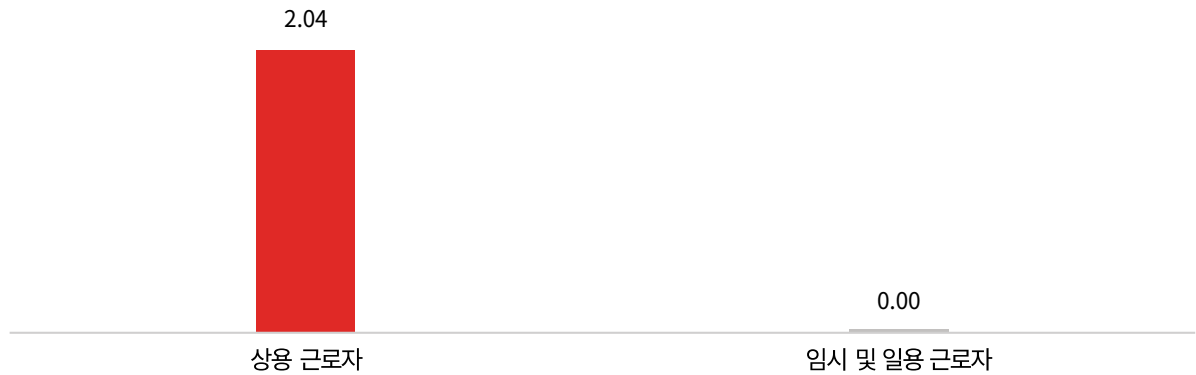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인 부서 여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남자 종사자 수	디자이너 여자 종사자 수
<b>활용업체</b>		<b>19.45</b>	<b>9.51</b>	<b>0.26</b>	<b>0.27</b>	<b>0.91</b>	<b>1.14</b>
<b>권역별</b>	서울	24.85	10.92	0.46	0.55	1.08	1.59
	부산/울산/경남	16.41	7.93	0.14	0.10	0.62	0.91
	대구/경북	17.91	9.99	0.40	0.14	1.37	0.92
	인천	15.45	10.91	0.09	0.09	0.77	0.90
	경기	19.20	9.78	0.16	0.17	0.82	1.07
	광주/전라	11.71	8.53	0.07	0.05	0.85	0.70
	대전/충청	14.65	6.20	0.06	0.14	0.80	0.87
	강원/제주	13.26	6.34	0.07	0.03	0.28	0.20
<b>규모별</b>	대기업	727.87	204.37	5.25	5.58	6.03	6.29
	중견기업	177.09	87.88	4.32	4.31	4.90	5.52
	중기업	27.11	15.82	0.55	0.44	1.56	1.85
	소기업	7.39	4.64	0.07	0.11	0.63	0.83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24.53	11.44	0.14	0.17	0.25	0.53
	외주용역 없음	14.75	7.73	0.36	0.36	1.51	1.70

## 6-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 근로자 형태별로 디자이너 현황을 살펴본 결과, ‘상용근로자’가 2.04명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디자이너는 제품 디자인(3.19명)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56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2.49명) 등의 순임.

### » 업종별 디자인 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활용업체		2.04	0.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3.19	0.00
	시각 디자인	2.34	0.0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2.49	0.02
	공간 디자인	2.46	0.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56	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2.08	0.00
	산업공예 디자인	1.71	0.00
	디자인 인프라	1.30	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디자이너 수는 서울(2.68명)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대구/경북(2.28명), 경기(1.8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상용근로자’ 디자이너 수가 대기업에서 12.3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중견기업(10.42명)이 뒤를 이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업체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활용업체		2.04	0.00
권역별	서울	2.68	0.00
	부산/울산/경남	1.53	0.00
	대구/경북	2.28	0.00
	인천	1.67	0.00
	경기	1.88	0.01
	광주/전라	1.55	0.00
	대전/충청	1.67	0.00
	강원/제주	0.48	0.00
규모별	대기업	12.31	0.00
	중견기업	10.42	0.00
	중기업	3.41	0.00
	소기업	1.46	0.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78	0.00
	외주용역 없음	3.21	0.00

## 7)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디자인 활용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16억 5,050만원으로 나타났고, 평균 인건비는 18억 9,431만원, 평균 연구개발비는 8억 1,953만원, 평균 영업이익은 25억 1,081만원으로 나타남.
- 한편,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은 1억 1,137만원으로 나타남.

### »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업종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제품 디자인(1,035억 5,524만원), 서비스/경험 디자인(179억 2,178만원) 등의 순으로 높고, ‘인건비’ 또한 제품 디자인(63억 4,789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 이익	디자인 투자비
활용업체		21,650.50	1,894.31	819.53	2,510.81	111.37
업종별	제품 디자인	103,555.24	6,347.89	6,043.73	16,359.11	229.44
	시각 디자인	8,526.62	1,312.67	201.58	435.96	195.5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493.25	884.02	223.16	805.38	155.19
	공간 디자인	14,944.74	1,582.05	115.01	1,056.16	83.4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426.71	682.53	223.57	453.83	111.32
	서비스/경험 디자인	17,921.78	2,006.27	320.24	1,559.84	103.03
	산업공예 디자인	6,652.50	675.36	79.43	350.59	57.75
	디자인 인프라	10,339.56	1,146.48	232.12	701.16	77.54

-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출액’은 서울(294억, 4,278만원)이 가장 높고, 이어 경기(243억 7,040만원), 강원/제주(230억 7,163만원) 등의 순임.  
‘디자인 투자비’는 서울(1억 5,492만원), 대구/경북(1억 1,023만원), 부산/울산/경남(9,84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매출액’의 경우 디자이너 고용 업체(254억 490만원)와 디자인 외주용역 업체(316억 9,088만원), ‘디자인 투자비’는 디자이너 고용 업체(1억 5,200만원)가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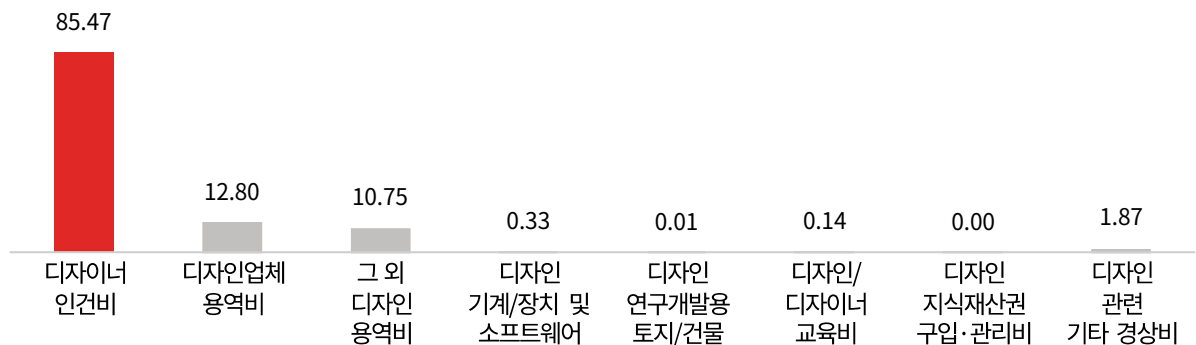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 이익	디자인 투자비
<b>활용업체</b>		<b>21,650.50</b>	<b>1,894.31</b>	<b>819.53</b>	<b>2,510.81</b>	<b>111.37</b>
<b>권역별</b>	서울	29,442.78	2,706.15	673.27	1,948.26	154.92
	부산/울산/경남	19,644.60	1,290.75	465.67	1,003.23	98.40
	대구/경북	10,432.35	1,765.80	174.50	383.49	110.23
	인천	11,168.12	1,059.90	100.19	600.87	82.22
	경기	24,370.40	1,982.94	2,009.87	6,143.22	98.15
	광주/전라	8,916.92	718.81	127.95	296.62	62.03
	대전/충청	10,593.32	1,119.49	143.52	776.96	80.45
	강원/제주	23,071.63	705.50	62.25	1,953.28	35.45
<b>규모별</b>	대기업	1,268,726.02	75,584.49	67,613.96	206,015.13	1,013.99
	중견기업	214,554.63	17,024.53	2,531.92	15,113.32	921.47
	중기업	26,971.49	3,193.37	469.27	1,575.09	168.29
	소기업	3,662.13	523.04	133.06	291.60	75.83
<b>고용</b>	디자이너 고용	25,404.90	1,933.76	1,192.72	3,204.00	152.00
	디자이너 비고용	14,122.73	1,815.22	71.27	1,120.93	29.91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31,690.88	2,770.10	1,432.62	4,628.75	87.92
	외주용역 없음	12,390.14	1,086.56	254.07	557.41	133.00

## 7-1) 2017년 디자인 투자 금액

- 세부항목별 평균 디자인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가 8,547만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업체 용역비’(1,280만원), ‘그 외 디자인 용역비’(1,075만원),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18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를 제외한 디자인 투자 금액은 평균 9,857만원으로 나타남.

### » 2017년 디자인 투자 금액

(단위: 백만 원)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제품 디자인(1억 9,443만원)에서 가장 높고, 이어 시각 디자인(1억 4,867만원),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억 2,189만원) 등의 순임.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시각 디자인(2,837만원),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979만원), 디자인 인프라(1,76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2017년 디자인 투자 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경상비
활용업체		85.47	12.80	10.75	0.33	0.01	0.14	0.00	1.87
업종별	제품 디자인	194.43	13.63	18.41	0.74	0.00	0.10	0.00	2.14
	시각 디자인	148.67	28.37	10.56	2.04	0.01	0.28	0.00	5.6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21.89	19.79	8.11	0.00	0.00	0.20	0.01	5.19
	공간 디자인	73.82	3.72	5.54	0.00	0.00	0.13	0.00	0.2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6.06	4.46	4.92	0.26	0.00	0.32	0.00	5.30
	서비스/경험 디자인	85.15	8.74	8.15	0.42	0.00	0.06	0.00	0.51
	산업공예 디자인	48.21	5.04	4.19	0.06	0.00	0.11	0.00	0.14
	디자인 인프라	43.07	17.63	14.60	0.04	0.01	0.16	0.00	2.03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서울(1억 1,727만원)에서 가장 높고, 이어 대구/경북(8,468만원), 경기(7,797만원) 등의 순임.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서울(1,857만원), 부산/울산/경남(1,303만원), 대구/경북(1,136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특징을 보이고,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중견 기업(1억 620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7년 디자인 투자 금액

(단위: 백만 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기타경상비
활용업체		85.47	12.80	10.75	0.33	0.01	0.14	0.00	1.87
권역별	서울	117.27	18.57	15.17	0.56	0.01	0.23	0.00	3.10
	부산/울산/경남	71.28	13.03	12.59	0.16	0.00	0.03	0.00	1.32
	대구/경북	84.68	11.36	12.31	0.19	0.00	0.41	0.00	1.29
	인천	64.39	8.70	7.91	0.20	0.00	0.05	0.00	0.97
	경기	77.97	10.68	7.87	0.22	0.00	0.05	0.01	1.36
	광주/전라	50.84	5.30	4.70	0.18	0.00	0.04	0.00	0.96
	대전/충청	64.07	7.94	6.64	0.37	0.00	0.09	0.00	1.34
	강원/제주	22.70	6.54	5.36	0.07	0.00	0.09	0.00	0.70
규모별	대기업	822.63	87.00	85.68	1.16	0.07	2.43	0.00	15.02
	중견기업	697.34	106.20	106.75	1.17	0.01	0.97	0.01	9.02
	중기업	135.09	17.47	12.26	0.71	0.02	0.13	0.01	2.59
	소기업	56.24	9.54	8.30	0.21	0.00	0.11	0.00	1.43
고용	디자이너 고용	128.10	11.29	9.10	0.49	0.01	0.21	0.00	2.79
	디자이너 비고용	0.00	15.82	14.08	0.00	0.00	0.00	0.00	0.01
외주	외주용역 있음	40.88	25.54	20.58	0.07	0.00	0.07	0.00	0.77
	외주용역 없음	126.60	1.05	1.69	0.57	0.01	0.21	0.00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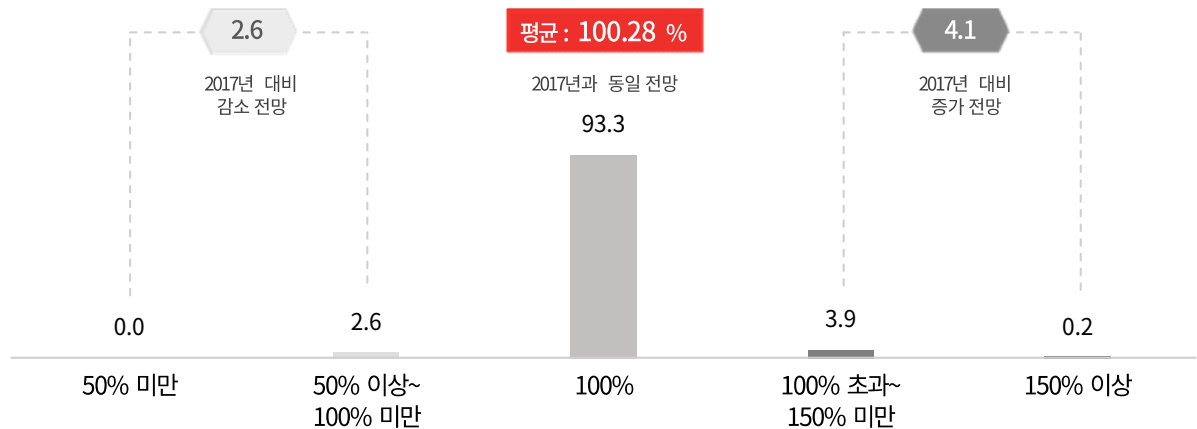
## 8) 2018년 재무 및 투자 전망<sup>15)</sup>

### 8-1) 2018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은 평균 100.28%로 나타남.

#### » 2018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단위: %)



- 업종별로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02.86%)이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제품 디자인(99.30%)은 부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2018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2.6	93.3	3.9	0.2	100.28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1.5	98.0	0.5	0.0	99.30
	시각 디자인	0.0	0.0	99.4	0.6	0.0	100.17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90.5	9.5	0.0	102.86
	공간 디자인	0.0	2.8	96.1	0.5	0.6	99.3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9	99.1	0.0	0.0	99.67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4	99.3	0.0	0.3	100.12
	산업공예 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0
	디자인 인프라	0.0	5.5	84.4	10.1	0.0	101.00

15)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광주/전라(102.04%)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산/울산/경남(98.25%)에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전망을 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기업(102.40%)의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8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2.6	93.3	3.9	0.2	100.28
권역별	서울	0.0	2.5	91.6	5.6	0.3	101.01
	부산/울산/경남	0.0	8.2	88.8	2.4	0.6	98.25
	대구/경북	0.0	0.1	98.4	1.5	0.0	100.42
	인천	0.0	2.7	93.4	3.9	0.0	99.83
	경기	0.0	2.4	93.9	3.7	0.0	100.02
	광주/전라	0.0	1.4	90.9	7.7	0.0	102.04
	대전/충청	0.0	0.0	99.4	0.6	0.0	100.07
	강원/제주	0.0	2.8	97.1	0.0	0.0	98.60
규모별	대기업	0.0	2.0	90.7	6.2	0.2	101.58
	중견기업	0.0	0.3	95.9	3.7	0.0	100.96
	중기업	0.0	2.2	87.6	9.3	0.8	102.40
	소기업	0.0	2.7	94.9	2.4	0.0	99.70
고용	디자이너 고용	0.0	2.6	92.6	4.6	0.2	100.47
	디자이너 비고용	0.0	2.6	94.8	2.4	0.2	99.9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	1.9	93.8	4.2	0.1	100.66
	외주용역 없음	0.0	3.2	92.9	3.6	0.2	9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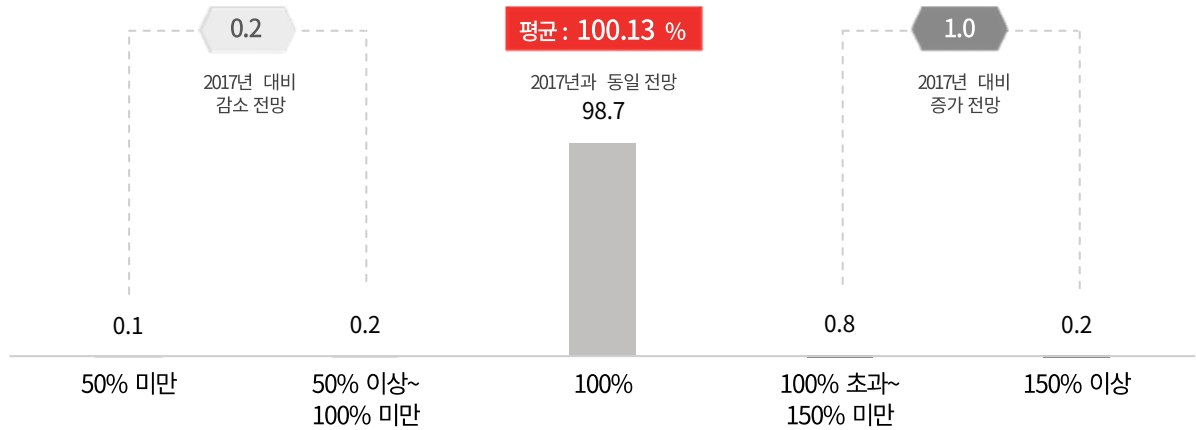
## 8-2)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sup>16)</sup>

-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100.13% 수준으로 2017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 전망’이 98.7%를 차지했고,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초과)은 1.0%로 나타남.

### »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01.81%)이 다른 업종 대비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1	0.2	98.7	0.8	0.2	100.13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0.0	99.8	0.1	0.0	100.01
	시각 디자인	0.7	0.0	99.2	0.1	0.0	99.5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92.8	6.2	1.0	101.81
	공간 디자인	0.0	0.8	97.4	1.1	0.7	100.3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3	1.1	97.8	0.8	0.1	99.48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0
	산업공예 디자인	0.0	0.0	97.8	2.2	0.0	100.52
	디자인 인프라	0.0	0.0	99.9	0.1	0.0	100.01

16)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99.40%)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증가 또는 유지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대기업(100.83%)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활용업체</b>		<b>0.1</b>	<b>0.2</b>	<b>98.7</b>	<b>0.8</b>	<b>0.2</b>	<b>100.13</b>
<b>권역별</b>	서울	0.0	0.6	98.0	0.8	0.6	100.24
	부산/울산/경남	0.0	0.0	97.7	2.3	0.0	100.56
	대구/경북	0.9	0.0	98.3	0.8	0.0	99.40
	인천	0.0	0.0	98.5	1.5	0.0	100.23
	경기	0.1	0.0	99.3	0.6	0.0	100.10
	광주/전라	0.0	0.0	100.0	0.0	0.0	100.00
	대전/충청	0.0	0.0	99.9	0.1	0.0	100.01
	강원/제주	0.0	0.0	99.8	0.2	0.0	100.02
<b>규모별</b>	대기업	0.0	0.0	95.7	2.9	0.3	100.83
	중견기업	0.0	0.0	96.2	3.8	0.0	100.38
	중기업	0.1	0.1	98.5	0.7	0.7	100.33
	소기업	0.1	0.3	98.8	0.7	0.1	100.06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0.0	0.2	98.5	1.2	0.0	100.21
	외주용역 없음	0.1	0.2	98.7	0.7	0.3	100.11

### 8-3)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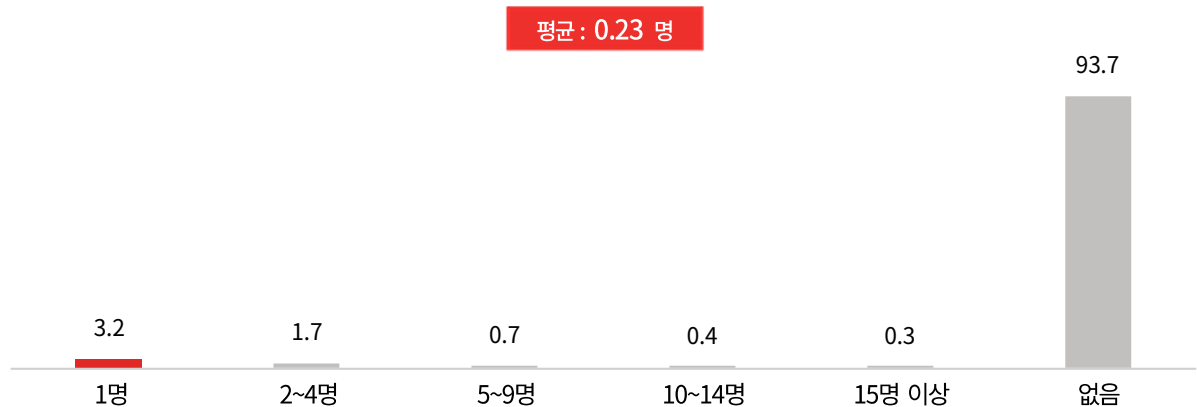
- 디자인 활용업체의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평균 0.23명으로 전망됨.

세부 항목별로는 '1명'이 3.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2~4명'(1.7%)이 뒤를 이음.

한편, '없음'은 93.7%로 나타남.

#### »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경험 디자인에서 1.07명으로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이 가장 높고, 시각 디자인에서 0.01명으로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낮게 나타남.

#### » 업종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음	평균(명)
활용업체		3.2	1.7	0.7	0.4	0.3	93.7	0.23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0.2	0.1	0.1	0.1	99.3	0.05
	시각 디자인	0.7	0.1	0.0	0.0	0.0	99.2	0.0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3	2.9	0.0	0.0	0.0	92.7	0.11
	공간 디자인	1.4	0.0	0.3	0.1	0.0	98.2	0.0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8	0.3	0.0	0.0	0.1	98.8	0.04
	서비스/경험 디자인	5.1	2.9	2.2	0.0	3.4	86.4	1.07
	산업공예 디자인	4.9	3.4	0.0	0.0	0.0	91.7	0.14
	디자인 인프라	5.2	3.1	1.1	1.0	0.0	89.5	0.33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 0.4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0.35명), 부산/울산/경남(0.1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은 중견기업이 2.9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음	평균(명)
활용업체		3.2	1.7	0.7	0.4	0.3	93.7	0.23
권역별	서울	5.6	3.0	1.4	1.0	0.7	88.4	0.48
	부산/울산/경남	2.7	0.4	0.0	0.0	0.5	96.4	0.17
	대구/경북	2.2	4.8	2.0	0.0	0.1	90.9	0.35
	인천	1.5	0.2	0.0	0.1	0.0	98.1	0.04
	경기	2.1	0.7	0.0	0.0	0.0	97.1	0.04
	광주/전라	0.0	0.7	0.0	0.0	0.0	99.3	0.01
	대전/충청	1.1	0.1	0.0	0.0	0.0	98.9	0.01
	강원/제주	0.2	0.0	0.0	0.0	0.0	99.8	0.00
규모별	대기업	1.7	2.0	0.7	0.4	0.6	93.5	0.42
	중견기업	0.0	13.7	2.7	1.7	5.7	76.1	2.98
	중기업	2.7	0.9	1.1	1.6	1.0	92.7	0.54
	소기업	3.4	1.8	0.5	0.0	0.0	94.3	0.10
외주	외주용역 있음	4.1	2.2	0.0	1.7	0.2	91.7	0.38
	외주용역 없음	2.9	1.6	0.8	0.0	0.3	94.3	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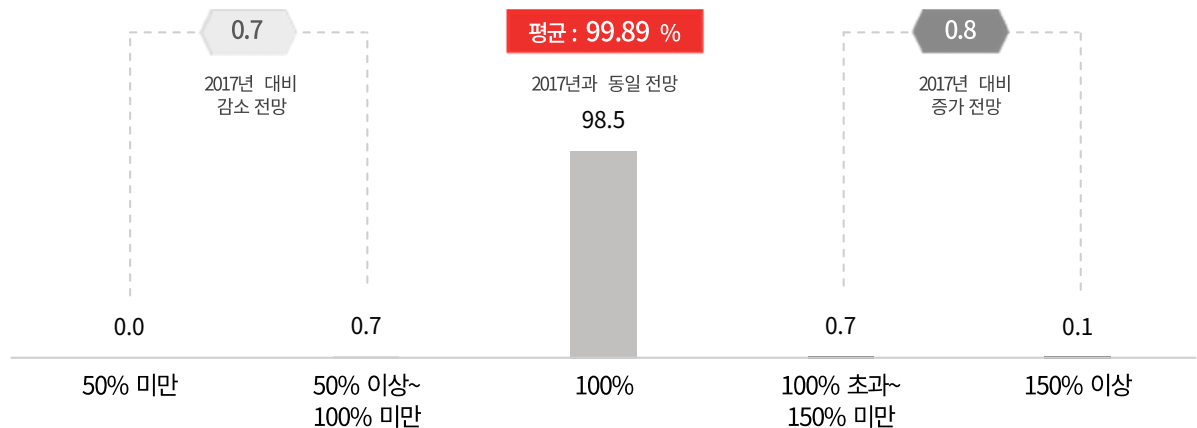
## 9) 2019년 재무 및 투자 전망<sup>17)</sup>

### 9-1) 2019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 2017년 대비 2019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은 평균 99.89% 수준으로 2017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98.5%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0.7%,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0.7%로 나타남.

#### » 2019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유지 전망을 하는 가운데, 서비스/경험 디자인(100.38%)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2019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0.7	98.5	0.7	0.1	99.89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1.5	97.5	0.9	0.0	99.35
	시각 디자인	0.0	0.0	99.6	0.4	0.0	100.0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1
	공간 디자인	0.0	2.8	96.1	0.5	0.6	99.3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9	99.1	0.0	0.0	99.68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97.4	2.6	0.0	100.38
	산업공예 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0
	디자인 인프라	0.0	0.0	100.0	0.0	0.0	100.00

17)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전/충청(100.33%)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했으며, 그 다음은 경기(100.13%)가 뒤를 이음.
- 규모별로는 중기업(100.24%)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9년 디자인 투자 금액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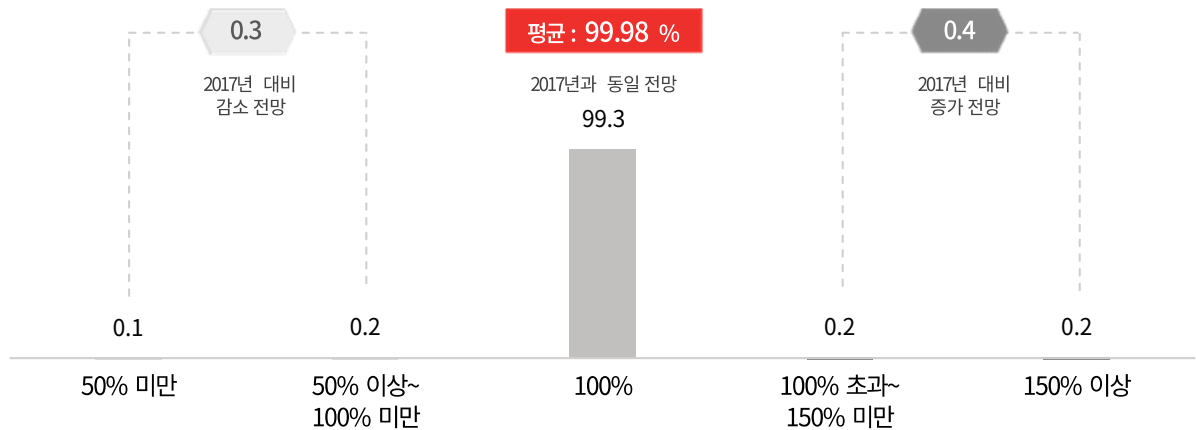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0	0.7	98.5	0.7	0.1	99.89
권역별	서울	0.0	0.6	98.8	0.2	0.3	99.95
	부산/울산/경남	0.0	0.9	98.2	0.9	0.0	99.64
	대구/경북	0.0	0.1	99.9	0.0	0.0	99.99
	인천	0.0	2.7	97.3	0.0	0.0	98.66
	경기	0.0	0.4	98.6	1.0	0.0	100.13
	광주/전라	0.0	1.4	98.6	0.0	0.0	99.72
	대전/충청	0.0	0.0	96.7	3.3	0.0	100.33
	강원/제주	0.0	2.8	97.2	0.0	0.0	98.58
규모별	대기업	0.0	1.3	97.6	0.0	0.2	100.06
	중견기업	0.0	0.0	99.8	0.2	0.0	100.05
	중기업	0.0	0.5	97.7	1.2	0.5	100.24
	소기업	0.0	0.7	98.7	0.6	0.0	99.79
고용	디자이너 고용	0.0	0.7	98.9	0.3	0.2	99.89
	디자이너 비고용	0.0	0.7	97.6	1.7	0.0	99.87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	0.6	98.3	1.1	0.0	99.88
	외주용역 없음	0.0	0.8	98.7	0.3	0.2	99.89

## 9-2)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sup>18)</sup>

- 2017년 대비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99.98% 수준으로 2017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는 ‘2017년과 동일 전망’(100%)이 99.3%,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8.3%,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0.3%로 나타남.

### »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산업공예 디자인(100.52%)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활용업체		0.1	0.2	99.3	0.2	0.2	99.98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0.0	99.8	0.0	0.0	100.00
	시각 디자인	0.8	0.0	98.8	0.5	0.0	99.5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0
	공간 디자인	0.0	0.8	98.1	0.3	0.7	100.1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3	1.1	98.6	0.0	0.1	99.4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100.0	0.0	0.0	100.00
	산업공예 디자인	0.0	0.0	97.8	2.2	0.0	100.52
	디자인 인프라	0.0	0.0	100.0	0.0	0.0	100.00

18)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유지 전망을 한 가운데, 인천(100.23%)에서 다른 권역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100.67%)이 다른 규모 업체 대비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활용업체</b>		<b>0.1</b>	<b>0.2</b>	<b>99.3</b>	<b>0.2</b>	<b>0.2</b>	<b>99.98</b>
<b>권역별</b>	서울	0.0	0.6	98.9	0.0	0.4	99.99
	부산/울산/경남	0.0	0.0	99.7	0.3	0.0	100.09
	대구/경북	0.9	0.0	98.2	0.8	0.0	99.41
	인천	0.0	0.0	98.5	1.5	0.0	100.23
	경기	0.1	0.0	99.7	0.2	0.0	100.03
	광주/전라	0.0	0.0	100.0	0.0	0.0	100.00
	대전/충청	0.0	0.0	99.5	0.5	0.0	100.05
	강원/제주	0.0	0.0	100.0	0.0	0.0	100.00
<b>규모별</b>	대기업	0.0	0.0	97.1	1.5	0.3	100.67
	중견기업	0.5	0.0	99.1	0.4	0.0	99.54
	중기업	0.1	0.1	99.0	0.3	0.7	100.29
	소기업	0.1	0.3	99.4	0.2	0.0	99.88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0.0	0.2	99.6	0.1	0.0	99.92
	외주용역 없음	0.1	0.2	99.2	0.3	0.2	100.00

### 9-3) 2019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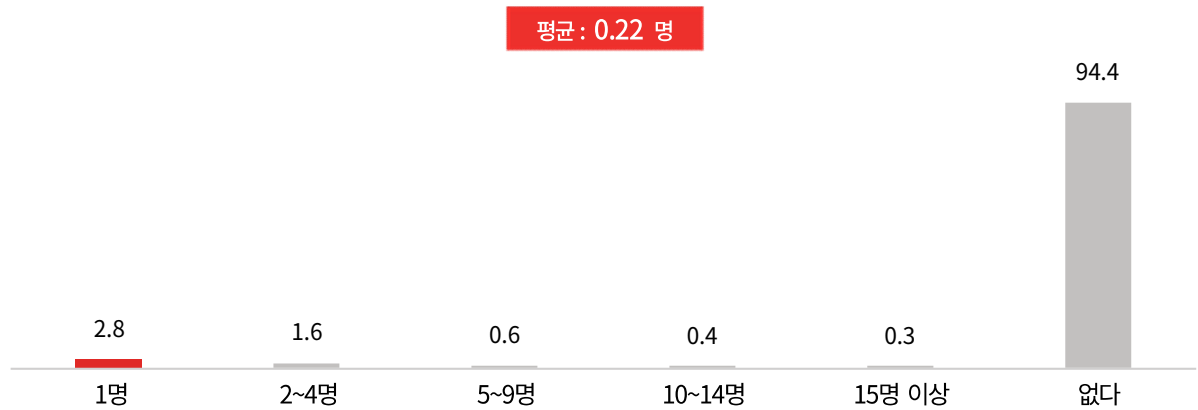
- 디자인 활용업체의 2019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는 평균 0.22명으로 전망됨.

항목별로는 '1명'이 2.8%로 가장 높고, 다음은 '2~4명'(1.6%), '5~9명'(0.6%)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디자이너 고용자가 '없다'는 전망은 94.4%로 나타남.

#### »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8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은 서비스/경험 디자인에서 1.07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디자인 인프라(0.32명)가 뒤를 이음.

#### » 업종별 2019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8	1.6	0.6	0.4	0.3	94.4	0.22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0.2	0.1	0.1	0.1	99.4	0.05
	시각 디자인	0.7	0.5	0.0	0.0	0.0	98.8	0.0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0.0	0.0	0.0	100.0	0.00
	공간 디자인	0.8	0.0	0.3	0.0	0.0	99.0	0.0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0.0	0.0	0.1	99.9	0.02
	서비스/경험 디자인	5.1	2.9	2.2	0.0	3.4	86.4	1.07
	산업공예 디자인	4.9	3.4	0.0	0.0	0.0	91.7	0.14
	디자인 인프라	5.2	3.1	1.0	1.0	0.0	89.6	0.32

- 권역별로 살펴보면, 2019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은 서울(0.46명)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대구/경북(0.35명), 부산/울산/경남(0.15명)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2.67명)의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9년 디자이너 고용자 수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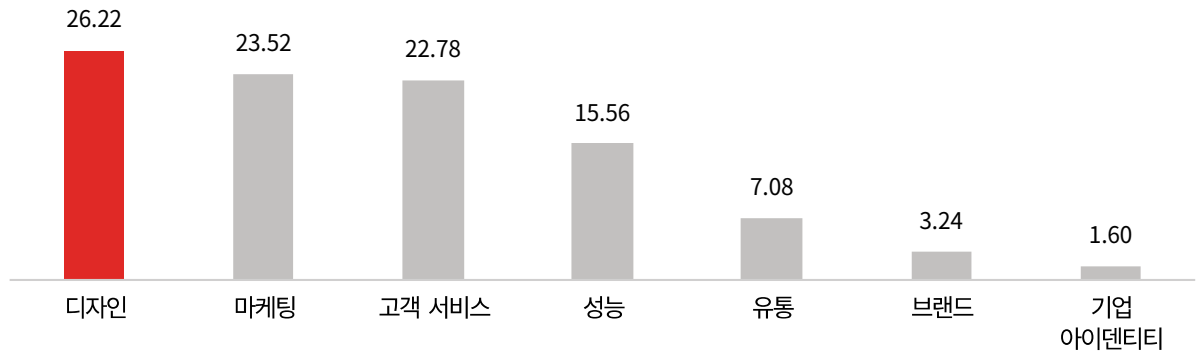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2.8	1.6	0.6	0.4	0.3	94.4	0.22
권역별	서울	5.1	2.6	1.3	1.0	0.7	89.3	0.46
	부산/울산/경남	0.8	0.4	0.0	0.0	0.5	98.3	0.15
	대구/경북	2.2	4.8	2.0	0.0	0.1	90.8	0.35
	인천	1.5	0.2	0.0	0.1	0.0	98.1	0.04
	경기	1.9	0.5	0.0	0.0	0.0	97.6	0.04
	광주/전라	0.0	0.7	0.0	0.0	0.0	99.3	0.01
	대전/충청	1.1	0.5	0.0	0.0	0.0	98.4	0.02
	강원/제주	0.0	0.0	0.0	0.0	0.0	100.0	0.00
규모별	대기업	1.3	0.9	0.7	0.4	0.6	94.9	0.39
	중견기업	0.4	11.4	0.4	0.4	5.7	81.6	2.67
	중기업	2.5	0.6	1.1	1.6	1.0	93.2	0.53
	소기업	2.9	1.8	0.5	0.0	0.0	94.9	0.09
외주	외주용역 있음	3.2	1.9	0.0	1.7	0.2	92.8	0.37
	외주용역 없음	2.6	1.5	0.8	0.0	0.3	94.8	0.18

## 10)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 제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별 비중을 살펴보면, ‘디자인’이 26.22%로 가장 높고, 다음은 ‘마케팅’(23.52%), ‘고객서비스’(22.78%), ‘성능’(15.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 업종별로는 ‘디자인’의 비중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0.94%), 공간 디자인(30.90%), 시각디자인(28.64%)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구분		디자인	마케팅	고객 서비스	성능	유통	브랜드	기업 아이덴티티
활용업체		26.22	23.52	22.78	15.56	7.08	3.24	1.60
업종별	제품 디자인	24.88	11.05	4.74	45.35	10.23	3.30	0.46
	시각 디자인	28.64	22.85	12.77	11.75	14.17	9.14	0.67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27.37	19.74	15.20	31.41	2.73	1.82	1.73
	공간 디자인	30.90	18.94	19.83	18.07	10.58	1.26	0.4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0.94	8.96	11.36	24.47	7.57	16.70	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24.60	30.42	39.88	2.10	1.76	0.48	0.77
	산업공예 디자인	23.45	6.11	31.20	30.29	7.39	0.85	0.71
	디자인 인프라	24.16	30.26	23.31	9.00	6.26	3.44	3.56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중은 인천(29.81%)에서 가장 높고, 이어 대구/경북(29.07%), 부산/울산/경남(27.78%)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비중은 소기업(27.15%)이 가장 높은 반면, 중기업은 22.77%로 상대적으로 낮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제품판매 영향 요소별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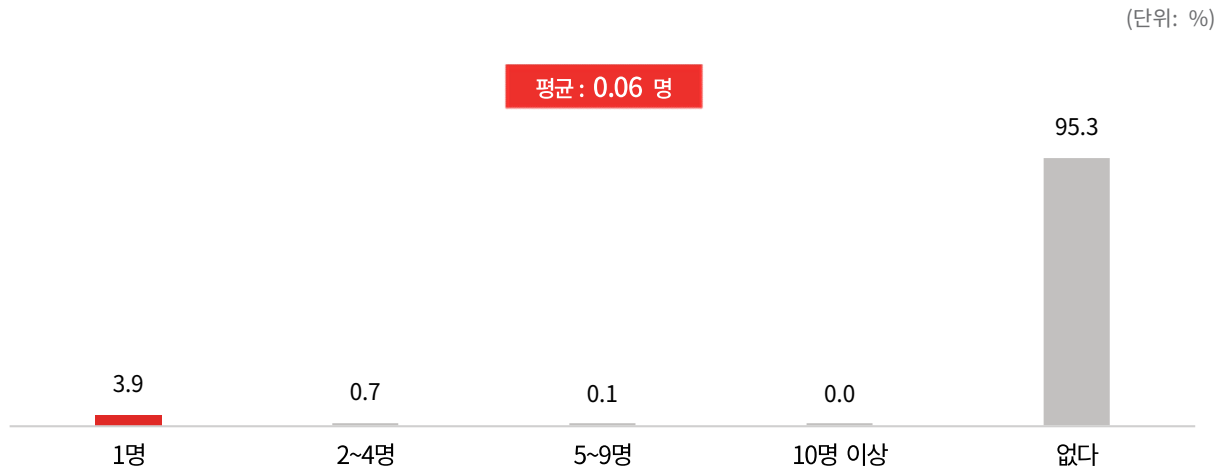
구분		디자인	마케팅	고객 서비스	성능	유통	브랜드	기업 아이덴티티
활용업체		26.22	23.52	22.78	15.56	7.08	3.24	1.60
권역별	서울	23.73	25.91	22.34	14.81	6.67	4.05	2.49
	부산/울산/경남	27.78	25.01	22.58	14.08	8.04	1.88	0.63
	대구/경북	29.07	21.10	21.95	15.61	5.96	3.51	2.80
	인천	29.81	24.85	23.09	12.24	7.18	2.71	0.12
	경기	27.18	19.64	20.64	20.54	7.12	3.52	1.36
	광주/전라	26.88	24.84	26.66	11.11	8.20	1.98	0.34
	대전/충청	26.66	23.20	24.57	13.97	8.52	2.13	0.95
	강원/제주	25.61	26.17	32.58	7.76	4.64	2.72	0.52
규모별	대기업	26.84	22.70	14.01	17.64	12.51	5.74	0.56
	중견기업	24.36	20.65	16.51	19.59	10.06	8.00	0.82
	중기업	22.77	24.68	26.41	12.75	7.60	3.47	2.31
	소기업	27.15	23.25	22.00	16.23	6.85	3.09	1.43
고용	디자이너 고용	24.87	22.11	19.94	18.21	9.27	3.98	1.62
	디자이너 비고용	28.91	26.35	28.49	10.25	2.69	1.77	1.55
외주	외주용역 있음	26.53	26.87	25.86	12.53	4.22	2.00	1.99
	외주용역 없음	25.93	20.42	19.95	18.35	9.72	4.38	1.23

### 3. 디자인 인력

#### 1) 구인 디자이너 수

- 디자인 활용업체의 구인 디자이너 수는 평균 0.06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명'(3.9%), '2~4명'(0.7%), '5~9명'(0.1%), '10명 이상'(0.0%) 등의 순임.
- 한편, 구인 디자이너가 '없다'는 업체 비율은 95.3%로 나타남.

#### » 디자인 활용업체 구인 디자이너 수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구인 디자이너 수는 서비스/경험 디자인(0.16명)에서 가장 많고, 다음은 공간 디자인(0.12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0.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9	0.7	0.1	0.0	95.3	0.06
업종별	제품 디자인	0.2	0.3	0.0	0.0	99.5	0.01
	시각 디자인	1.2	1.0	0.0	0.0	97.9	0.0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1.0	0.0	0.0	99.0	0.02
	공간 디자인	8.0	0.7	0.3	0.1	90.9	0.1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6	0.7	0.1	0.2	95.5	0.10
	서비스/경험 디자인	6.3	3.3	0.6	0.0	89.7	0.16
	산업공예 디자인	3.9	0.7	0.0	0.0	95.4	0.05
	디자인 인프라	3.1	0.0	0.0	0.0	96.8	0.03



- 권역별로 구인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대구/경북(0.16명)이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0.09명), 광주/전라(0.09명)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0.36명)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대기업(0.29명)이 뒤를 이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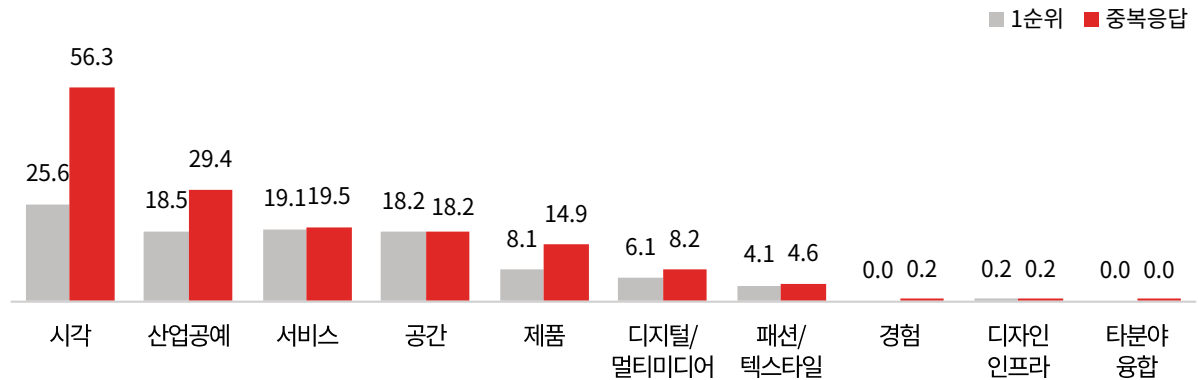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9	0.7	0.1	0.0	95.3	0.06
권역별	서울	5.8	1.0	0.0	0.1	93.1	0.09
	부산/울산/경남	3.2	0.4	0.5	0.0	95.9	0.06
	대구/경북	7.8	2.2	0.8	0.0	89.2	0.16
	인천	5.9	0.1	0.0	0.0	94.0	0.06
	경기	1.0	0.0	0.0	0.0	99.0	0.01
	광주/전라	5.5	1.0	0.0	0.0	93.4	0.09
	대전/충청	0.6	0.6	0.0	0.0	98.8	0.02
	강원/제주	0.2	0.0	0.0	0.0	99.8	0.00
규모별	대기업	4.1	2.1	0.3	0.8	91.6	0.29
	중견기업	6.1	5.6	0.0	1.3	87.0	0.36
	중기업	3.8	1.8	0.5	0.0	93.9	0.10
	소기업	3.8	0.3	0.0	0.0	95.9	0.04
외주	외주용역 있음	2.2	0.0	0.2	0.0	97.5	0.03
	외주용역 없음	4.3	0.9	0.1	0.0	94.7	0.07

##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시각 디자인’(56.3%)이 가장 높고, 다음은 ‘산업공예 디자인’(29.4%), ‘서비스디자인’(19.5%), ‘공간 디자인’(18.2%), ‘제품 자인’(14.9%) 등의 순임.

### »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92.9%)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서비스/경험 디자인(91.1%), 디자인 인프라(77.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51.5%) 등의 순임.

### » 업종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경험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타분야 융합 디자인
활용업체		56.3	29.4	19.5	18.2	14.9	8.2	4.6	0.2	0.2	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40.2	0.0	0.7	0.0	66.5	2.6	0.0	0.0	0.0	0.0
	시각 디자인	92.9	0.0	0.0	0.7	9.8	13.0	0.0	0.0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1.5	0.0	0.0	0.0	1.6	100.0	0.0	0.0	0.0	0.0
	공간 디자인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7	0.0	0.0	0.0	99.3	0.0	100.0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91.1	0.0	96.3	0.2	0.0	9.3	0.0	0.0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2.6	92.9	0.0	1.9	4.5	0.0	1.3	0.0	0.0	0.0
	디자인 인프라	77.1	77.7	1.5	0.7	9.1	3.8	1.2	0.7	0.7	0.0

- 권역별로는 ‘시각 디자인’은 강원/제주(65.4%)에서 높고,  
다음은 ‘산업공예 디자인’은 부산/울산/경남(37.3%), 인천(36.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은 중견기업이 64.9%로 높은 반면, 대기업(29.8%)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82.6%)와 디자인 외주를 주는 업체(79.9%)는 ‘시각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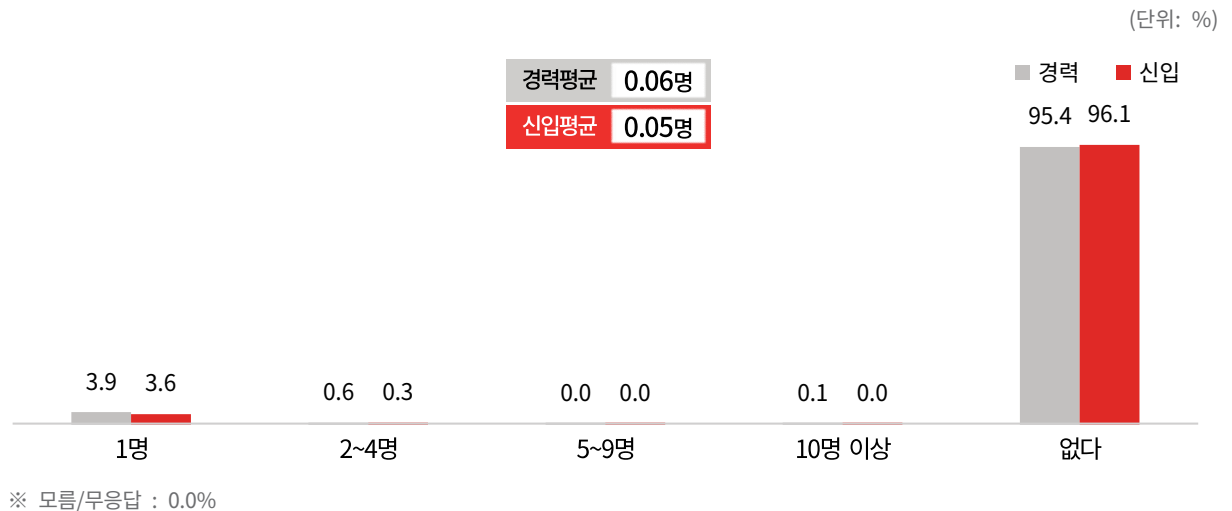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각 디자인	산업 공예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지털 /멀티 미디어 디자인	패션/ 텍스 타일 디자인	경험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타분야 융합 디자인
활용업체		56.3	29.4	19.5	18.2	14.9	8.2	4.6	0.2	0.2	0.0
권역별	서울	58.9	29.4	21.2	13.9	12.9	13.9	5.7	0.7	0.7	0.0
	부산/울산/경남	56.7	37.3	16.2	23.9	13.3	4.3	5.8	0.0	0.0	0.0
	대구/경북	54.0	35.1	16.0	21.5	12.2	5.0	3.5	0.0	0.0	0.0
	인천	61.9	36.1	21.2	11.8	13.9	7.2	2.5	0.0	0.0	0.0
	경기	53.5	30.0	10.8	15.6	24.5	5.4	5.6	0.0	0.0	0.0
	광주/전라	54.1	19.7	26.4	28.3	3.8	9.7	2.2	0.0	0.0	0.0
	대전/충청	52.0	20.5	30.0	25.1	13.2	4.3	1.2	0.0	0.0	0.0
	강원/제주	65.4	21.0	41.7	26.2	1.5	0.0	0.3	0.0	0.0	0.0
규모별	대기업	29.8	14.0	11.4	43.7	31.2	7.6	2.4	0.0	0.0	0.3
	중견기업	64.9	32.0	9.4	20.5	6.1	17.5	2.3	0.3	0.0	0.0
	중기업	62.0	34.7	22.8	15.9	13.6	10.0	3.1	0.0	0.0	0.0
	소기업	55.0	28.1	18.8	18.6	15.1	7.6	5.0	0.3	0.3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43.3	32.1	8.1	22.0	19.8	11.8	5.5	0.4	0.4	0.0
	디자이너 비고용	82.6	23.9	42.4	10.7	5.0	0.9	2.7	0.0	0.0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79.9	36.9	29.9	8.0	8.3	4.1	2.6	0.0	0.0	0.0
	외주용역 없음	34.6	22.4	9.9	27.7	20.9	11.9	6.4	0.5	0.5	0.0

### 3)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디자이너 고용 디자인 활용업체가 2017년 신규 채용한 ‘경력’ 디자이너 수는 평균 0.06명, ‘신입’ 디자이너 수는 평균 0.05명으로 나타남.

#### »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 수는 공간 디자인이 0.14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0.13명)이 뒤를 이음. ‘신입’ 디자이너 채용 수는 서비스/경험 디자인이 0.20명으로 가장 높고,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0.15명)이 뒤를 이음.

#### » 업종별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구분		경력						신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 (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 (명)
활용업체		3.9	0.6	0.0	0.1	95.4	0.06	3.6	0.3	0.0	0.0	96.1	0.05
업종별	제품 디자인	0.3	0.1	0.0	0.0	99.5	0.01	0.1	0.2	0.0	0.0	99.6	0.00
	시각 디자인	1.4	0.6	0.0	0.0	98.0	0.03	1.7	0.0	0.0	0.0	98.3	0.0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5	0.3	0.0	0.0	96.3	0.04	8.9	2.3	0.0	0.0	88.7	0.15
	공간 디자인	7.1	1.6	0.1	0.3	91.0	0.14	0.8	0.3	0.1	0.0	98.8	0.0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3	1.0	0.1	0.1	92.5	0.13	1.1	0.4	0.3	0.2	98.0	0.07
	서비스/경험 디자인	6.8	0.6	0.0	0.0	92.6	0.09	19.2	0.6	0.0	0.0	80.2	0.20
	산업공예 디자인	5.1	0.0	0.0	0.0	94.9	0.05	2.0	0.0	0.0	0.0	98.0	0.02
	디자인 인프라	2.5	0.1	0.0	0.0	97.4	0.03	2.7	0.1	0.0	0.0	97.2	0.03

- 권역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 수는 대구/경북이 0.10명으로 높고, 다음은 서울(0.09명)이 높게 나타남. ‘신입’ 디자이너 채용은 서울이 0.09명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은 대기업(0.41명), ‘신입’ 디자이너 채용은 중견기업(0.3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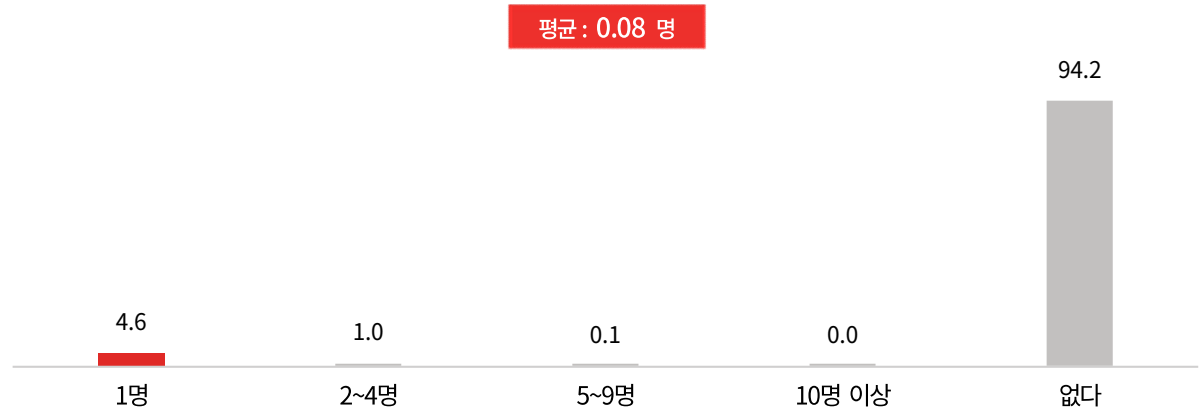
구분		경력						신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3.9	0.6	0.0	0.1	95.4	0.06	3.6	0.3	0.0	0.0	96.1	0.05
권역별	서울	5.8	0.9	0.0	0.0	93.2	0.09	7.2	0.4	0.1	0.0	92.3	0.09
	부산/울산/경남	1.9	0.5	0.0	0.0	97.6	0.03	1.0	0.5	0.0	0.0	98.6	0.02
	대구/경북	2.2	0.2	0.0	0.8	96.8	0.10	6.1	0.8	0.0	0.0	93.1	0.08
	인천	4.4	0.0	0.0	0.0	95.6	0.04	0.0	0.1	0.0	0.0	99.9	0.00
	경기	2.1	0.0	0.0	0.0	97.9	0.02	0.8	0.2	0.0	0.0	98.9	0.02
	광주/전라	0.0	2.3	0.0	0.0	97.7	0.05	1.6	0.0	0.0	0.0	98.4	0.02
	대전/충청	8.7	0.0	0.0	0.0	91.3	0.09	0.7	0.0	0.0	0.0	99.3	0.01
	강원/제주	0.2	0.1	0.0	0.0	99.7	0.00	0.1	0.0	0.0	0.0	99.9	0.00
규모별	대기업	18.7	2.5	0.5	0.5	76.6	0.41	2.5	1.0	0.0	0.8	94.5	0.17
	중견기업	10.3	4.6	1.3	0.0	83.8	0.31	3.0	7.8	1.6	0.0	87.6	0.30
	중기업	6.4	0.7	0.0	0.3	92.7	0.11	4.1	0.8	0.1	0.0	95.0	0.06
	소기업	2.9	0.4	0.0	0.0	96.7	0.04	3.4	0.1	0.0	0.0	96.5	0.04
외주	외주용역 있음	2.4	0.3	0.0	0.0	97.3	0.03	0.8	0.3	0.0	0.0	98.9	0.01
	외주용역 없음	4.4	0.6	0.0	0.1	94.9	0.07	4.3	0.3	0.0	0.0	95.3	0.05

#### 4)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평균은 0.08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4.6%), '2~4명'(1.0%), '5~9명'(0.1%), '10명 이상'(0.0%)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다'는 94.2%로 높게 나타남.

#### »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퇴직한 디자이너 수는 서비스/경험 디자인이 0.26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0.24명), 공간 디자인(0.12명), 산업공예 디자인(0.08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0.06명)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4.6	1.0	0.1	0.0	94.2	0.08
업종별	제품 디자인	0.5	0.3	0.0	0.0	99.1	0.01
	시각 디자인	0.5	1.3	0.0	0.0	98.1	0.0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5	0.2	0.0	0.0	94.3	0.06
	공간 디자인	7.1	1.6	0.3	0.0	91.0	0.1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8	2.6	0.3	0.5	90.8	0.24
	서비스/경험 디자인	18.2	3.9	0.0	0.0	77.8	0.26
	산업공예 디자인	6.4	0.7	0.0	0.0	92.9	0.08
	디자인 인프라	1.5	0.1	0.0	0.0	98.5	0.02

- 권역별 퇴사 디자이너 수는 대구/경북이 0.13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0.12명), 대전/충청(0.08명)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퇴직 디자이너 수가 각각 0.48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기업(0.12명)이 뒤를 이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퇴사한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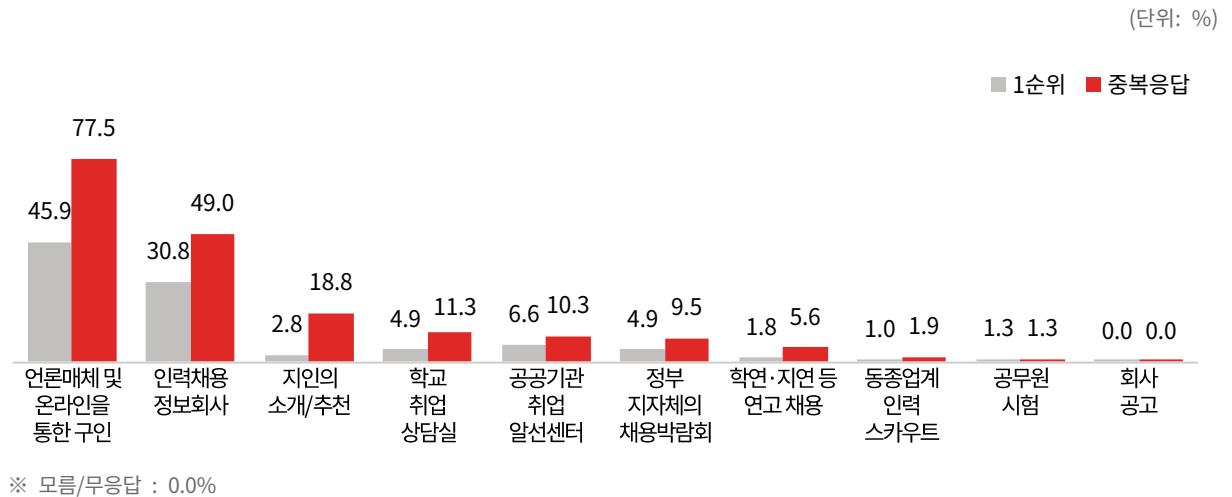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명 이상	없다	평균(명)
활용업체		4.6	1.0	0.1	0.0	94.2	0.08
권역별	서울	6.9	1.6	0.1	0.1	91.3	0.12
	부산/울산/경남	3.4	0.9	0.0	0.0	95.7	0.05
	대구/경북	3.2	2.4	0.8	0.0	93.6	0.13
	인천	4.3	0.0	0.0	0.0	95.7	0.04
	경기	2.5	0.0	0.0	0.0	97.5	0.03
	광주/전라	0.6	2.3	0.0	0.0	97.0	0.05
	대전/충청	7.6	0.1	0.0	0.0	92.3	0.08
	강원/제주	0.0	0.3	0.0	0.0	99.7	0.01
규모별	대기업	18.1	2.3	0.0	0.8	77.7	0.48
	중견기업	8.1	5.9	1.3	1.6	83.1	0.48
	중기업	5.7	2.0	0.3	0.0	91.9	0.12
	소기업	4.0	0.6	0.0	0.0	95.3	0.06
외주	외주용역 있음	1.7	0.5	0.0	0.0	97.8	0.03
	외주용역 없음	5.4	1.2	0.1	0.0	93.2	0.09

##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는 중복응답 기준으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77.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력채용 정보회사’(49.0%), ‘지인의 소개/추천’(18.8%) 등의 순임.  
1순위 응답 역시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이 45.9%로 높음.

### »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업종별로 살펴보면,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00.0%)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 디자인(96.0%), 제품 디자인(94.0%), 서비스/경험 디자인(93.1%) 순임.  
‘인력채용 정보회사’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96.7%), 디자인 인프라(81.1%)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	인력채용 정보회사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교 취업 상담실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정부 지자체의 채용 박람회	학연· 지연 등 연고 채용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공무원 시험	회사 공고
활용업체		77.5	49.0	18.8	11.3	10.3	9.5	5.6	1.9	1.3	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94.0	2.6	51.6	0.1	1.9	2.8	8.2	2.5	0.0	0.0
	시각 디자인	96.0	17.4	55.4	0.0	0.0	0.5	9.6	0.0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73.2	96.7	0.0	2.6	0.0	0.0	0.0	0.0	0.0	0.0
	공간 디자인	65.8	26.7	28.5	8.9	23.0	30.1	9.7	7.1	0.0	0.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00.0	10.3	9.4	74.4	0.1	0.0	6.0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93.1	73.1	4.5	16.5	9.8	0.1	0.0	0.0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71.2	17.6	23.3	16.3	32.6	26.3	7.9	2.7	0.0	0.0
	디자인 인프라	69.8	81.1	1.0	9.4	7.2	3.6	3.1	0.0	3.7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은 경기(85.0%)가 가장 높고, 서울(80.8%), 광주/전라(76.6%) 등의 순으로 높으며, ‘인력채용 정보회사’는 서울(5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은 대기업(84.2%), 소기업(77.9%), 중기업(76.2%), 중견기업(63.8%) 순임.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	인력채용 정보회사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교 취업 상담실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정부 지자체의 채용 박람회	학연· 지연 등 연고 채용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공무원 시험	회사 공고
활용업체		77.5	49.0	18.8	11.3	10.3	9.5	5.6	1.9	1.3	0.0
권역별	서울	80.8	58.3	13.8	14.8	5.8	7.2	3.7	1.6	0.2	0.0
	부산/울산/경남	56.7	55.5	23.1	8.4	14.8	14.8	6.7	0.0	0.0	0.0
	대구/경북	73.1	47.6	22.3	14.3	16.0	2.7	3.3	5.8	4.5	0.0
	인천	70.0	51.5	15.9	12.1	11.7	5.7	2.2	0.4	1.9	0.0
	경기	85.0	39.1	19.5	7.6	8.5	11.3	8.7	2.0	0.5	0.0
	광주/전라	76.6	47.7	22.1	6.9	8.2	13.3	8.4	3.2	3.9	0.0
	대전/충청	76.5	32.3	23.0	13.1	24.8	12.6	4.0	2.1	2.6	0.0
	강원/제주	59.8	55.1	45.9	0.0	10.5	8.1	8.1	0.0	12.5	0.0
규모별	대기업	84.2	39.1	8.0	5.4	16.0	15.9	5.0	20.8	0.0	1.3
	중견기업	63.8	78.2	10.1	0.0	5.2	9.0	6.9	0.0	0.0	0.0
	중기업	76.2	68.8	9.6	9.2	7.9	8.7	0.7	1.1	3.6	0.0
	소기업	77.9	42.8	21.9	12.1	11.0	9.7	7.1	1.9	0.6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80.6	74.5	8.4	5.2	3.3	2.3	2.6	0.1	4.8	0.0
	외주용역 없음	76.6	41.9	21.8	13.0	12.2	11.5	6.4	2.4	0.3	0.0

##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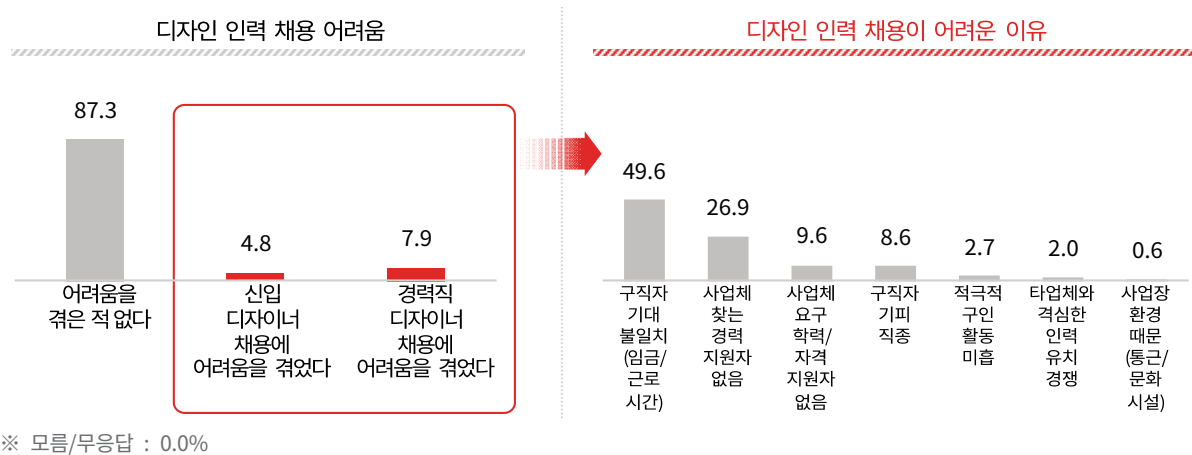
- 디자인 인력 채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다’는 기업이 87.3%의 비율로 높고,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기업은 4.8%,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7.9%로 나타남.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는 ‘구직자 기대 불일치(임금/근로시간 부족)’(49.6%), ‘사업체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26.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은 산업공예 디자인(21.8%),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은 공간 디자인(18.1%)에서 높게 나타남.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중 ‘구직자 기대 불일치’는 디자인 인프라(94.7%)에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직자 기대 불일치 (임금/근로시간)	사업체를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	사업체 요구 학력/자격 지원자 없음	구직자 기피 직종	적극적 구인활동 미흡	타업체와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사업장 환경 때문 (통근/문화시설)
활용업체		87.3	4.8	7.9	49.6	26.9	9.6	8.6	2.7	2.0	0.6
업종별	제품 디자인	96.4	1.7	1.8	0.0	50.6	48.2	0.0	0.0	1.2	0.0
	시각 디자인	96.8	0.0	3.2	71.7	14.4	13.9	0.0	0.0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79.5	7.7	12.8	58.8	33.2	0.0	0.0	8.0	0.0	0.0
	공간 디자인	71.2	10.7	18.1	39.4	38.4	14.8	7.4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00.0	0.0	0.0	-	-	-	-	-	-	-
	서비스/경험 디자인	97.7	0.0	2.3	0.0	0.0	25.8	0.0	74.2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64.2	21.8	14.0	29.4	18.4	2.9	31.6	1.9	12.3	3.5
	디자인 인프라	92.8	1.9	5.3	94.7	2.9	0.0	0.0	2.5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신입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업체는 대전/충청(10.4%)에서 높고, ‘경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인천(21.5%), 광주/전라(12.7%)에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경력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대기업(29.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직자 기대 불일치 (임금/근로시간)	사업체를 찾는 경력 자원자 없음	사업체 요구 학력/자격 자원자 없음	구직자 기피 직종	적극적 구인활동 미흡	타업체와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사업장 환경 때문 (통근/문화시설)
활용업체		87.3	4.8	7.9	49.6	26.9	9.6	8.6	2.7	2.0	0.6
권역별	서울	89.1	2.4	8.4	45.3	37.2	5.1	6.3	6.2	0.0	0.0
	부산/울산/경남	83.1	7.9	8.9	49.0	32.6	9.2	8.0	0.0	0.0	1.1
	대구/경북	88.8	7.7	3.4	83.5	0.5	4.5	0.0	11.1	0.5	0.0
	인천	76.9	1.5	21.5	93.3	0.0	0.0	6.7	0.0	0.0	0.0
	경기	90.1	4.2	5.8	34.5	26.7	15.5	11.7	0.0	9.7	2.0
	광주/전라	82.7	4.7	12.7	46.0	25.1	13.5	15.5	0.0	0.0	0.0
	대전/충청	83.6	10.4	6.0	61.3	17.4	20.0	1.4	0.0	0.0	0.0
	강원/제주	80.4	9.8	9.8	0.0	50.0	0.0	50.0	0.0	0.0	0.0
규모별	대기업	69.3	0.0	29.6	43.6	39.4	15.8	0.0	0.0	1.2	0.0
	중견기업	87.5	0.4	12.0	30.1	27.5	0.0	0.0	42.4	0.0	0.0
	중기업	86.3	3.6	10.1	66.5	19.0	5.2	0.6	8.0	0.0	0.6
	소기업	87.8	5.3	6.9	44.3	29.2	11.0	11.8	0.4	2.7	0.6
외주	외주용역 있음	88.9	5.2	5.8	68.4	6.4	3.8	21.2	0.0	0.2	0.0
	외주용역 없음	86.9	4.6	8.5	45.2	31.8	11.0	5.7	3.3	2.4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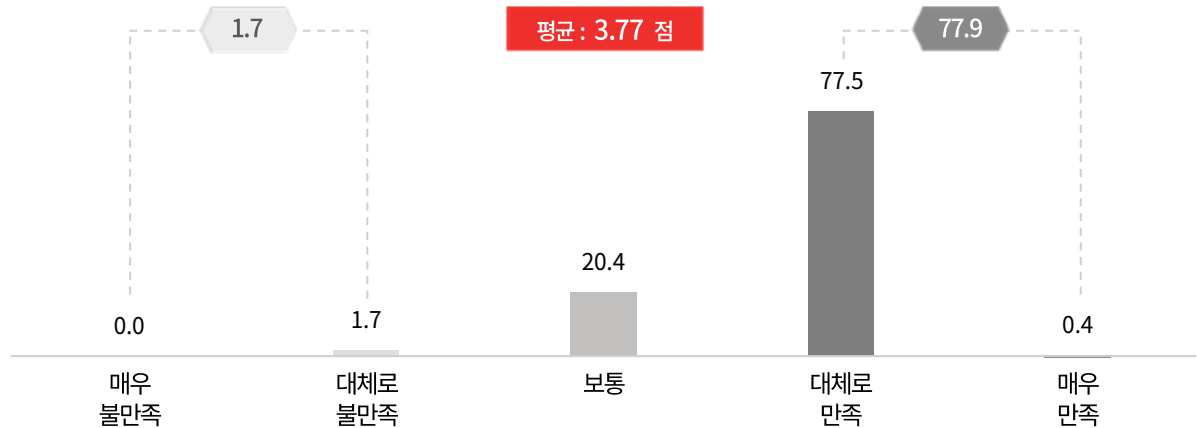
##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최근 3년간 고용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77점을 보임.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족’은 77.9%(매우 : 0.4% + 대체로 : 77.5%), ‘보통’은 20.4%, ‘불만족’은 1.7%(매우 : 0.0% + 대체로 : 1.7%)로 나타남.

### »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불만족 이유: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47.0%), 새로운 지식·기술 능력이 낮아서(28.0%),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25.0%)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인프라(3.99점),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3.94점), 시각 디자인(3.93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산업공예 디자인(3.37점), 공간 디자인(3.31점)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임.

### » 업종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 (점)
활용업체		0.0	1.7	1.7	20.4	77.5	0.4	77.9	3.77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1.7	1.7	7.1	91.1	0.0	91.1	3.90
	시각 디자인	0.0	0.0	0.0	7.0	93.0	0.0	93.0	3.9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0.0	7.6	90.8	1.6	92.4	3.94
	공간 디자인	0.0	7.0	7.0	55.3	37.8	0.0	37.8	3.3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0.0	30.1	69.9	0.0	69.9	3.7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0.0	13.1	86.9	0.0	86.9	3.87
	산업공예 디자인	0.0	1.1	1.1	61.5	36.7	0.7	37.4	3.37
	디자인 인프라	0.0	0.0	0.0	2.1	97.2	0.7	97.9	3.99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3.89점)의 만족도가 높고, 다음은 서울(3.81점), 경기(3.79점), 대전/충청(3.73점), 인천(3.72점), 부산/울산/경남(3.7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중견기업(3.97점)과 대기업(3.90점)이 고용 인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외주 디자인 개발을 하는 업체(3.93점)의 만족도가 더욱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 (점)
활용업체		0.0	1.7	1.7	20.4	77.5	0.4	77.9	3.77
권역별	서울	0.0	1.0	1.0	17.9	80.2	0.9	81.1	3.81
	부산/울산/경남	0.0	1.5	1.5	25.8	72.7	0.0	72.7	3.71
	대구/경북	0.0	4.4	4.4	23.8	71.7	0.1	71.8	3.67
	인천	0.0	6.2	6.2	15.8	78.0	0.0	78.0	3.72
	경기	0.0	0.6	0.6	20.1	79.1	0.1	79.3	3.79
	광주/전라	0.0	8.3	8.3	19.4	72.3	0.0	72.3	3.64
	대전/충청	0.0	0.0	0.0	26.6	73.4	0.0	73.4	3.73
	강원/제주	0.0	0.7	0.7	10.0	89.3	0.0	89.3	3.89
규모별	대기업	0.0	0.0	0.0	10.7	87.3	0.9	88.2	3.90
	중견기업	0.0	0.0	0.0	3.9	95.7	0.4	96.1	3.97
	중기업	0.0	2.5	2.5	12.5	85.1	0.0	85.1	3.83
	소기업	0.0	1.5	1.5	23.1	74.9	0.5	75.4	3.74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	0.1	0.1	7.4	92.4	0.1	92.5	3.93
	외주용역 없음	0.0	2.2	2.2	24.0	73.3	0.5	73.8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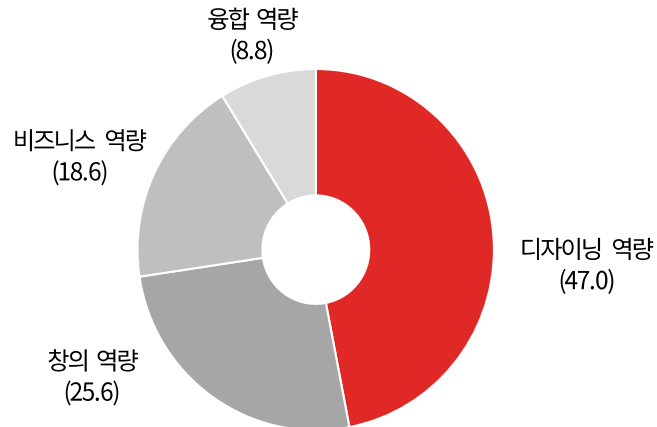
## 4. 디자인 교육

###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면, ‘디자인 역량’이 47.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창의 역량’(25.6%), ‘비즈니스 역량’(18.6%), ‘융합 역량’(8.8%)의 순으로 높음.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역량’에 높고, ‘창의 역량’은 시각 디자인(79.6%)과 제품 디자인(74.4%)에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디자인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활용업체		47.0	25.6	18.6	8.8
업종별	제품 디자인	16.6	74.4	5.4	3.5
	시각 디자인	20.4	79.6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73.2	16.9	8.3	1.7
	공간 디자인	21.7	19.5	24.4	34.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2.7	0.0	17.3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30.4	5.7	64.0	0.0
	산업공예 디자인	33.1	24.1	26.3	16.6
	디자인 인프라	75.0	11.2	13.6	0.2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디자인 역량’은 인천(52.7%), 서울(52.3%), 광주/전라(51.9%), ‘창의 역량’은 강원/제주(48.6%), 대구/경북(34.3%), 대전/충청(32.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역량’은 중견기업(82.3%), 중기업(60.5%), ‘창의 역량’은 소기업(29.1%), ‘융합 역량’은 대기업(17.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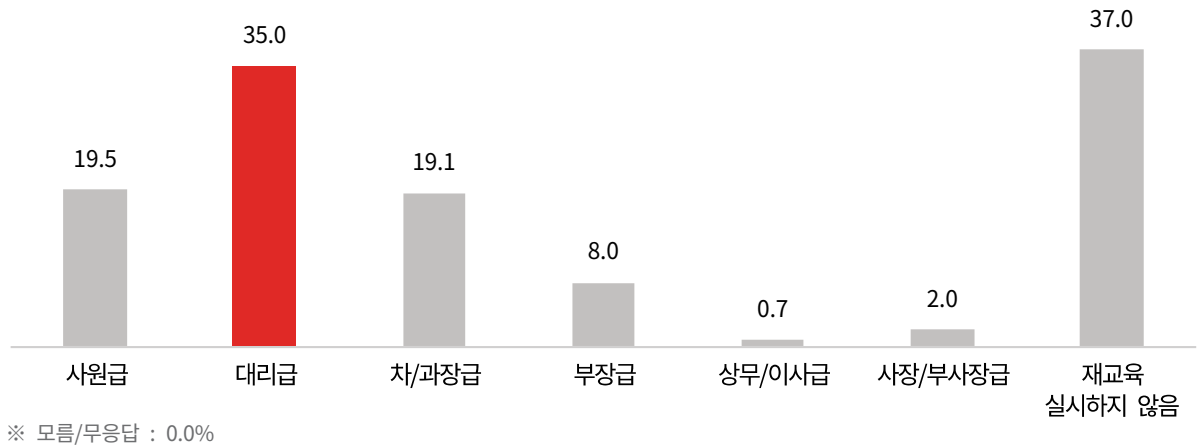
구분		디자인 역량	창의 역량	비즈니스 역량	융합 역량
<b>활용업체</b>		<b>47.0</b>	<b>25.6</b>	<b>18.6</b>	<b>8.8</b>
<b>권역별</b>	서울	52.3	21.5	22.2	4.0
	부산/울산/경남	49.5	20.4	15.3	14.8
	대구/경북	37.9	34.3	6.6	21.2
	인천	52.7	28.9	9.8	8.7
	경기	46.3	27.3	20.4	6.0
	광주/전라	51.9	22.7	10.0	15.4
	대전/충청	29.5	32.1	25.7	12.7
	강원/제주	32.6	48.6	0.2	18.6
<b>규모별</b>	대기업	45.6	17.6	18.2	17.6
	중견기업	82.3	13.0	1.7	3.0
	중기업	60.5	15.0	19.3	5.2
	소기업	42.5	29.1	18.6	9.8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65.8	23.6	9.2	1.3
	외주용역 없음	41.6	26.2	21.3	10.9

## 2)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은 ‘대리급’이 35.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원급’(19.5%), ‘차/과장급’(19.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리급’은 제품 디자인(43.7%)에서 가장 높고, 이어 디자인 인프라(43.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42.6%) 등의 순으로 높음.
- ‘차/과장급’의 경우 공간 디자인(53.3%), 산업공예 디자인(43.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사장/부사장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19.5	35.0	19.1	8.0	0.7	2.0	37.0
업종별	제품 디자인	10.2	43.7	8.2	4.2	0.0	3.4	47.0
	시각 디자인	12.6	23.0	2.5	0.0	0.0	0.0	74.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3.4	42.6	1.6	0.0	0.0	1.6	41.6
	공간 디자인	8.8	32.4	53.3	25.1	2.0	6.2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6	11.7	11.9	0.0	0.0	0.0	84.7
	서비스/경험 디자인	12.6	30.2	15.6	1.2	0.0	0.0	62.8
	산업공예 디자인	13.1	17.9	43.7	37.5	5.1	4.4	2.7
	디자인 인프라	31.2	43.4	6.5	0.0	0.0	0.0	38.3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재교육을 받은 ‘대리급’은 서울(40.7%), 대전/충청(38.7%), 부산/울산/경남(38.4%), ‘사원급’은 서울(24.9%), 인천(22.5%), 대구/경북(22.1%), ‘차/과장급’은 대구/경북(29.5%), 인천(2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리급’과 ‘사원급’은 모두 대기업(각각 74.3%, 3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사장/부사장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19.5	35.0	19.1	8.0	0.7	2.0	37.0
권역별	서울	24.9	40.7	19.6	3.6	0.0	0.6	37.4
	부산/울산/경남	15.4	38.4	17.6	6.8	0.0	4.3	34.8
	대구/경북	22.1	33.3	29.5	15.2	0.5	3.7	23.3
	인천	22.5	22.2	28.4	1.5	0.0	0.0	47.9
	경기	16.8	30.5	14.6	10.7	1.5	2.8	41.2
	광주/전라	12.6	23.7	15.0	11.3	2.3	5.4	45.2
	대전/충청	13.4	38.7	21.9	11.0	1.6	0.0	26.4
	강원/제주	8.5	13.1	20.5	18.1	0.0	0.0	40.4
규모별	대기업	38.2	74.3	39.1	13.7	0.0	0.0	2.9
	중견기업	24.3	34.1	20.1	1.7	0.0	0.0	55.2
	중기업	33.6	48.9	17.6	4.1	0.7	0.0	29.3
	소기업	14.9	30.2	19.3	9.1	0.7	2.7	39.6
외주	외주용역 있음	27.4	41.6	12.0	1.2	0.2	0.0	39.4
	외주용역 없음	17.2	33.1	21.1	9.9	0.9	2.6	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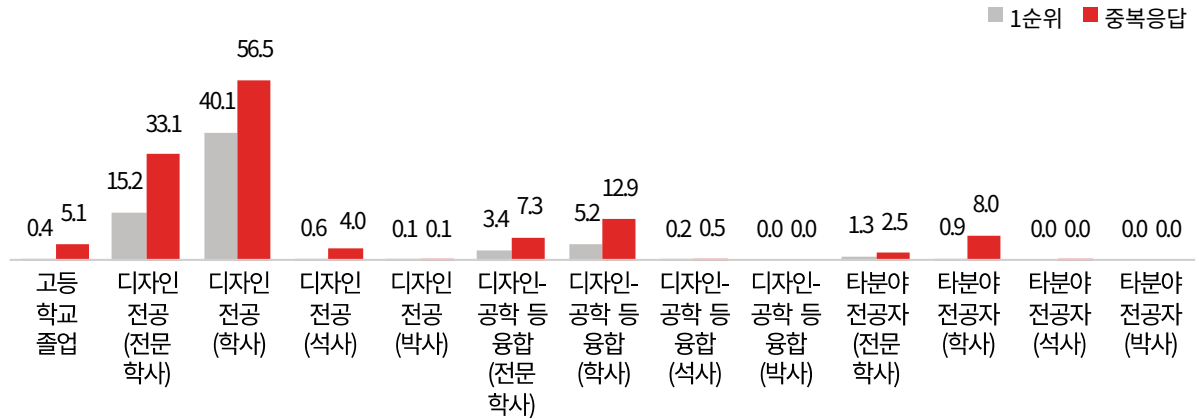
###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중복응답 기준)은, ‘디자인 전공 학사’가 56.5%로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33.1%)가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역시 ‘디자인 전공 학사’(40.1%),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24.7%)가 높음.

####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 모름/무응답 : 32.5%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공 학사’의 경우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97.6%)에서 높고, 이어 시각 디자인(86.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70.1%) 순으로 나타남.
-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79.4%), 산업공예 디자인(43.0%), 디자인 인프라(42.1%)에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활용업체		5.1	33.1	56.5	4.0	0.1	7.3	12.9	0.5	0.0	2.5	8.0	0.0	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3.1	7.1	52.7	0.2	0.0	13.7	41.6	0.0	0.0	1.0	0.1	0.0	0.0
	시각 디자인	1.1	10.5	86.6	0.6	0.0	9.0	67.3	0.0	0.0	0.7	1.7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39.2	97.6	4.4	0.0	0.0	0.0	0.0	0.0	0.0	18.0	0.0	0.0
	공간 디자인	17.3	33.8	48.2	7.9	0.7	19.9	16.3	1.5	0.0	8.3	4.3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3	79.4	70.1	0.2	0.0	2.2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26.4	23.8	2.4	0.0	5.0	0.0	0.3	0.0	0.4	0.5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26.4	43.0	60.5	18.5	0.0	14.1	19.9	4.5	0.0	6.0	5.0	0.0	0.0
	디자인 인프라	0.7	42.1	68.1	3.5	0.0	0.1	0.3	0.0	0.0	1.5	18.7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공 학사’의 경우 ‘서울’(65.7%), 부산/울산/경남(59.7%), 대전/충청(55.3%), ‘디자인 전공 전문 학사’는 서울(40.2%), 대구/경북(3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 76.0%가 ‘디자인 전공 학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 학사’의 경우 대기업(23.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에서 ‘디자인 전공 학사’(83.7%), ‘디자인 전공 전문학사’(48.9%)를 선호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학사	석사	박사
활용업체		5.1	33.1	56.5	4.0	0.1	7.3	12.9	0.5	0.0	2.5	8.0	0.0	0.0
권역별	서울	3.2	40.2	65.7	3.6	0.4	5.6	10.0	0.1	0.0	2.4	8.9	0.0	0.0
	부산/울산/경남	4.1	30.9	59.7	8.1	0.0	4.9	12.0	0.4	0.0	3.9	8.5	0.0	0.0
	대구/경북	8.1	35.7	49.8	2.0	0.0	7.3	9.3	0.5	0.0	1.2	5.0	0.0	0.0
	인천	10.4	26.1	46.8	4.2	0.0	2.6	17.3	0.0	0.0	0.0	1.1	0.1	0.0
	경기	6.3	31.3	53.6	3.3	0.0	9.9	17.1	1.1	0.0	2.9	9.6	0.0	0.0
	광주/전라	6.7	25.0	44.1	3.2	0.0	7.9	11.7	1.8	0.0	3.0	15.7	0.0	0.0
	대전/충청	4.5	32.3	55.3	6.4	0.0	12.7	17.8	0.0	0.0	0.0	0.7	0.0	0.0
	강원/제주	3.4	3.7	31.5	0.1	0.0	2.8	6.6	0.0	0.0	6.8	6.8	0.0	0.0
규모별	대기업	1.8	21.5	66.2	16.9	0.0	22.3	23.6	1.4	0.0	1.8	2.1	0.3	0.0
	중견기업	0.3	38.3	76.0	11.6	0.0	1.3	18.1	3.4	0.0	0.3	1.1	0.0	0.0
	중기업	1.1	37.1	67.7	6.3	0.6	4.1	7.4	0.4	0.0	4.3	12.8	0.0	0.0
	소기업	6.3	32.1	53.1	3.1	0.0	8.0	14.2	0.5	0.0	2.0	6.9	0.0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7.5	48.9	83.7	5.9	0.2	10.9	19.2	0.8	0.0	3.6	11.9	0.0	0.0
	디자이너 비고용	0.2	1.4	1.8	0.3	0.0	0.0	0.4	0.0	0.0	0.3	0.3	0.0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7	16.9	30.8	1.7	0.0	0.6	2.8	0.1	0.0	0.5	5.8	0.0	0.0
	외주용역 없음	9.2	48.0	80.1	6.2	0.2	13.4	22.2	0.9	0.0	4.2	1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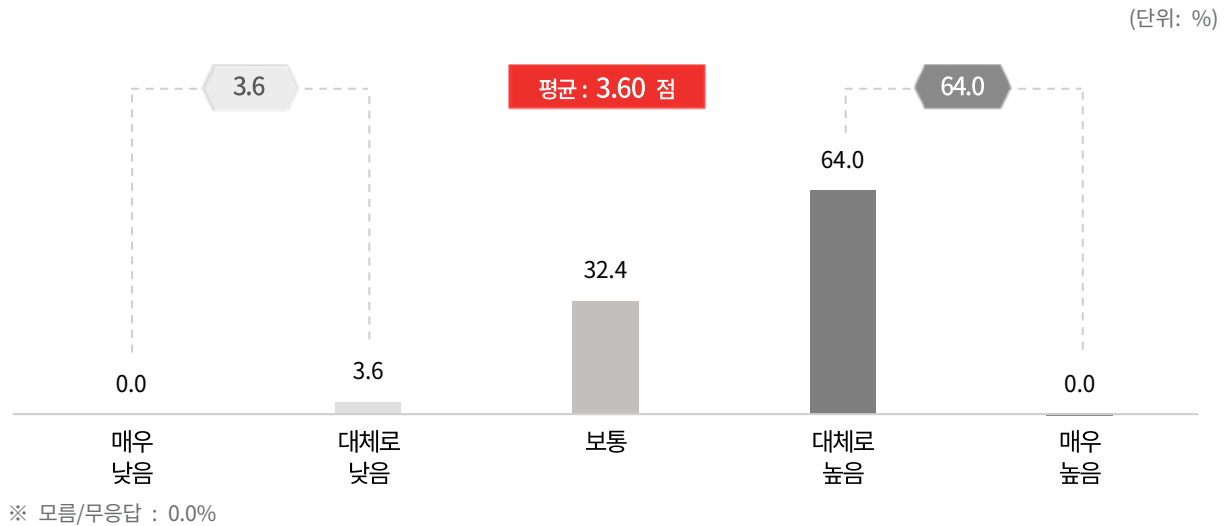
####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5점 만점)는 평균 3.60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높음’은 64.0%(매우 : 0.0% + 대체로 : 64.0%), ‘보통’은 32.4%,

‘낮음’은 3.6%(매우 : 0.0% + 대체로 : 3.6%)로 나타남.

#### »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업종별로 디자인 교육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3.96점), 시각 디자인(3.91점), 디자인 인프라(3.8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간 디자인(3.09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기여도를 보임.

#### »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점)
활용업체		0.0	3.6	3.6	32.4	64.0	0.0	64.0	3.60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0.0	0.0	22.0	77.8	0.0	77.8	3.78
	시각 디자인	0.0	0.0	0.0	8.9	91.1	0.0	91.1	3.9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0.0	4.3	95.7	0.0	95.7	3.96
	공간 디자인	0.0	15.2	15.2	60.7	24.1	0.0	24.1	3.0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0.0	50.0	50.0	0.0	50.0	3.5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1.7	1.7	38.0	60.3	0.0	60.3	3.59
	산업공예 디자인	0.0	2.7	2.7	72.6	24.7	0.0	24.7	3.22
	디자인 인프라	0.0	0.0	0.0	18.8	81.1	0.0	81.2	3.81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68점)에서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대구/경북(3.62점), 경기(3.62점), 부산/울산/경남(3.54점), 강원/제주(3.54점)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이 3.7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기업(3.63점), 소기업(3.60점), 대기업(3.47점) 순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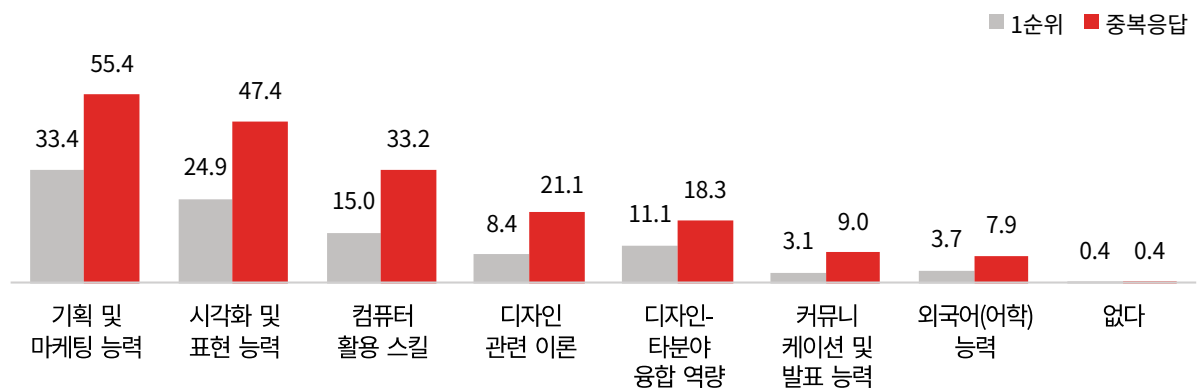
구분		낮음			보통	높음			평균(점)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활용업체		0.0	3.6	3.6	32.4	64.0	0.0	64.0	3.60
권역별	서울	0.0	2.7	2.7	27.1	70.2	0.0	70.2	3.68
	부산/울산/경남	0.0	7.3	7.3	31.8	60.9	0.0	60.9	3.54
	대구/경북	0.0	2.6	2.6	33.1	64.3	0.1	64.3	3.62
	인천	0.0	7.7	7.7	43.2	49.1	0.0	49.1	3.41
	경기	0.0	2.1	2.1	34.0	63.9	0.0	63.9	3.62
	광주/전라	0.0	5.9	5.9	43.0	51.0	0.0	51.0	3.45
	대전/충청	0.0	5.6	5.6	36.2	58.2	0.0	58.2	3.53
	강원/제주	0.0	0.0	0.0	46.1	53.9	0.0	53.9	3.54
규모별	대기업	0.0	0.0	0.0	53.4	44.6	0.9	45.5	3.47
	중견기업	0.0	0.4	0.4	20.5	78.7	0.4	79.1	3.79
	중기업	0.0	4.2	4.2	28.7	67.1	0.0	67.1	3.63
	소기업	0.0	3.4	3.4	33.4	63.1	0.0	63.1	3.6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0	0.2	0.2	15.8	83.9	0.0	83.9	3.84
	외주용역 없음	0.0	4.5	4.5	37.2	58.3	0.0	58.4	3.54

##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중복응답 기준)으로 ‘기획 및 마케팅 능력’(55.4%), ‘시각화 및 표현 능력’(47.4%), ‘컴퓨터 활용 스킬’(33.2%)등의 순으로 높고, 1순위 기준 역시 ‘기획 및 마케팅 능력’(33.4%), ‘시각화 및 표현 능력’(24.9%), ‘컴퓨터 활용 스킬’(1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95.3%)에서 가장 높고, 시각 디자인(76.8%), 서비스/경험 디자인(75.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시각 디자인(66.4%), 디자인 인프라(63.9%) 등에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관련 이론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외국어(어학) 능력
활용업체		55.4	47.4	33.2	21.1	18.3	9.0	7.9
업종별	제품 디자인	66.5	62.5	16.0	1.3	47.8	0.8	3.3
	시각 디자인	76.8	66.4	4.6	5.1	45.7	0.0	0.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6.7	47.6	62.1	43.5	0.0	0.0	0.0
	공간 디자인	46.3	10.5	15.0	14.4	33.7	27.5	27.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5.3	58.1	38.3	3.8	0.0	4.4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75.0	47.5	69.4	3.5	0.0	4.6	0.0
	산업공예 디자인	56.0	17.5	13.7	27.7	31.2	22.7	30.4
	디자인 인프라	43.1	63.9	46.2	36.9	1.1	3.3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대전/충청(62.2%), 서울(58.9%)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강원/제주(54.9%), 경기(53.2%), 대전/충청(48.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소기업(57.1%)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중견기업(55.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디자인 외주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64.2%)이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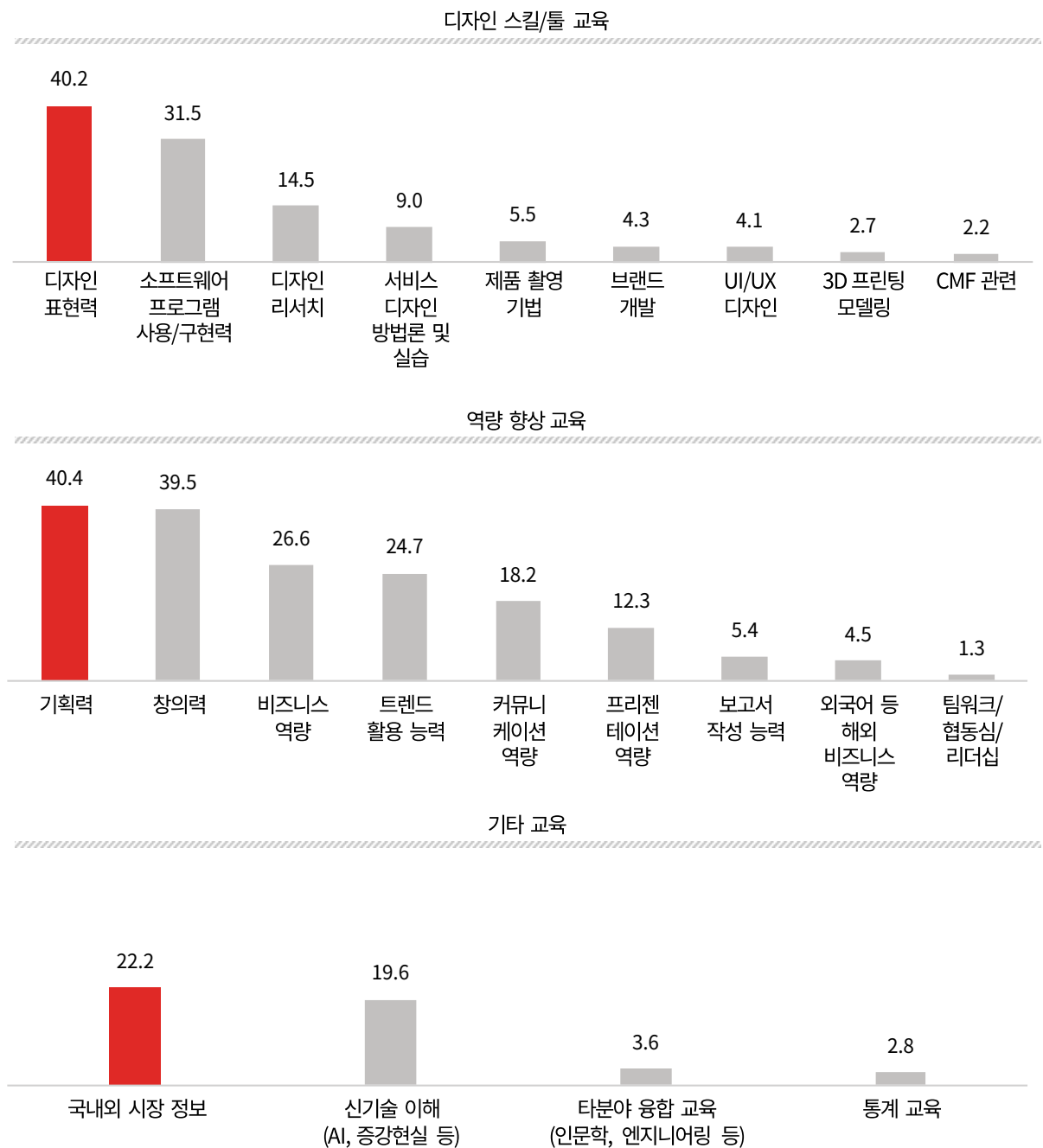
구분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관련 이론	디자인- 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외국어 (어학) 능력
활용업체		55.4	47.4	33.2	21.1	18.3	9.0	7.9
권역별	서울	58.9	48.1	38.4	19.0	12.7	9.4	4.1
	부산/울산/경남	51.0	43.7	32.1	30.4	15.9	10.0	6.1
	대구/경북	56.7	32.3	37.1	15.8	30.3	10.4	13.7
	인천	58.4	40.9	29.6	20.7	33.7	10.1	0.4
	경기	51.3	53.2	30.3	23.2	18.2	7.6	11.7
	광주/전라	45.8	42.7	23.1	28.3	31.5	6.0	16.6
	대전/충청	62.2	48.4	30.4	12.8	17.9	10.8	6.4
	강원/제주	57.2	54.9	14.1	19.6	26.5	9.8	9.8
규모별	대기업	56.4	38.1	15.2	35.3	10.0	19.2	21.3
	중견기업	47.7	55.1	40.7	16.9	9.6	2.6	5.1
	중기업	50.1	42.5	51.1	26.7	14.3	3.8	4.3
	소기업	57.1	48.9	28.0	19.2	19.7	10.5	8.8
외주	외주용역 있음	48.5	64.2	38.7	33.1	5.7	2.1	2.7
	외주용역 없음	57.4	42.6	31.7	17.7	21.9	10.9	9.4

##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스킬/툴 교육]은 ‘디자인 표현력’(40.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1.5%) 등, [역량 향상 교육]은 ‘기획력’ (40.4%), ‘창의력’(39.5%), ‘비즈니스 역량’(26.6%) 등, [기타교육]은 ‘국내외 시장 정보’(22.2%), ‘신기술 이해’(1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없음 0.7%



- 업종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스킬/툴 교육]은 디자인 인프라(70.1%)에서 ‘디자인 표현력’이 가장 높음. [역량향상 교육] 역시 디자인 인프라(68.5%)에서 ‘기획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제품 촬영 기법	브랜드 개발	UI/UX 디자인	3D 프린팅 모델링	CMF 관련
활용업체		40.2	31.5	14.5	9.0	5.5	4.3	4.1	2.7	2.2
업종별	제품 디자인	41.8	50.2	1.9	3.2	4.5	0.0	0.0	1.3	0.5
	시각 디자인	26.2	63.7	4.8	0.0	0.0	0.5	0.0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8.9	52.7	5.6	0.0	1.0	0.0	1.7	1.0	0.0
	공간 디자인	3.5	1.3	11.8	22.7	17.6	5.5	14.5	9.3	6.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0.0	3.3	69.4	0.0	3.3	60.1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40.4	85.6	39.2	23.5	0.0	0.0	0.0	0.6	0.0
	산업공예 디자인	5.2	5.8	11.0	33.2	19.5	1.3	1.8	8.5	11.4
	디자인 인프라	70.1	27.7	10.6	0.0	0.0	0.0	2.2	0.0	0.2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획력	창의력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커뮤니 케이션 역량	프리젠 테이션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활용업체		40.4	39.5	26.6	24.7	18.2	12.3	5.4	4.5	1.3
업종별	제품 디자인	15.9	58.1	5.6	0.4	19.6	1.8	0.0	4.6	0.0
	시각 디자인	14.3	85.3	10.9	12.7	6.2	6.1	0.0	0.0	0.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63.6	58.9	16.4	10.2	43.4	30.3	9.1	0.0	0.0
	공간 디자인	20.9	6.2	18.6	18.2	11.0	11.5	2.5	14.7	4.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4	63.7	22.8	71.8	3.0	0.3	0.0	3.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49.2	45.2	57.9	1.2	29.0	0.0	1.1	0.0	0.1
	산업공예 디자인	17.8	2.7	21.7	16.9	7.6	14.4	1.6	14.0	5.3
	디자인 인프라	68.5	40.0	37.0	41.2	22.7	18.6	11.9	0.0	0.2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국내외 시장 정보	신기술 이해	타분야 융합 교육	통계 교육
활용업체		22.2	19.6	3.6	2.8
업종별	제품 디자인	29.3	67.6	3.8	0.3
	시각 디자인	30.1	63.4	2.4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86.1	0.0	0.0	0.0
	공간 디자인	7.2	28.9	11.9	10.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5.6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1.8	5.7	5.1	4.0
	산업공예 디자인	1.4	7.4	1.0	5.5
	디자인 인프라	20.5	0.0	0.0	0.0

- 권역별로는 [디자인 스킬/툴 교육]에 대해 경기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표현력’이 가장 높고, [역량향상 교육]에 대해서는 인천(53.0%), 서울(46.1%)에서 ‘기획력’이 높은 비율을 보임. 한편, [기타 교육]의 ‘국내외 시장 정보’는 인천(30.1%), 서울(28.5%)에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스킬/툴 교육]의 ‘디자인 표현력’(50.2%)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3.1%)은 대기업에서 높고, [역량 향상 교육]의 ‘기획력’은 중견기업(65.1%)과 중기업(53.6%)에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고, [기타 영역]의 ‘트렌트 정보’(59.5%)는 중견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제품 촬영 기법	브랜드 개발	UI/UX 디자인	3D 프린팅 모델링	CMF 관련
활용업체		40.2	31.5	14.5	9.0	5.5	4.3	4.1	2.7	2.2
권역별	서울	49.1	34.6	15.5	6.5	2.5	5.2	4.7	1.3	2.4
	부산/울산/경남	42.3	22.7	13.8	6.4	4.2	7.6	4.5	3.7	1.4
	대구/경북	39.1	22.4	16.9	13.9	7.2	3.9	2.9	3.4	6.5
	인천	32.1	26.1	4.7	18.0	1.5	0.0	0.0	5.8	0.0
	경기	36.0	38.1	17.6	7.6	7.5	3.9	1.3	2.1	1.2
	광주/전라	25.7	23.1	14.5	7.8	10.4	2.0	7.8	8.3	7.2
	대전/충청	31.8	25.5	6.3	17.6	9.1	1.7	8.1	4.1	0.0
	강원/제주	15.5	28.1	0.7	17.9	10.5	0.0	9.9	0.0	0.0
규모별	대기업	41.3	8.5	19.5	6.2	4.0	28.7	1.1	0.5	11.1
	중견기업	27.8	31.6	10.5	7.0	3.4	0.4	0.7	0.0	0.0
	중기업	50.2	33.1	16.2	4.5	2.6	1.3	4.2	3.7	1.2
	소기업	37.3	31.3	13.9	10.4	6.4	4.9	4.1	2.5	2.5
외주	외주용역 있음	61.2	23.4	8.1	1.8	1.4	0.0	0.3	1.4	0.5
	외주용역 없음	34.3	33.8	16.3	11.0	6.6	5.5	5.2	3.1	2.7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획력	창의력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프리젠테이션 역량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팀워크/협동심/리더십
활용업체		40.4	39.5	26.6	24.7	18.2	12.3	5.4	4.5	1.3
권역별	서울	46.1	46.2	27.4	24.7	17.8	8.9	1.4	4.7	0.6
	부산/울산/경남	39.7	43.5	26.2	30.7	19.9	20.0	9.7	4.0	1.8
	대구/경북	44.9	38.4	26.0	21.5	9.1	10.5	2.4	2.3	2.0
	인천	53.0	40.8	16.1	30.4	15.7	17.0	3.4	0.0	0.0
	경기	39.8	31.0	25.3	22.5	27.5	12.9	10.1	3.7	2.7
	광주/전라	26.1	36.8	25.3	28.2	8.8	15.5	3.9	6.0	0.2
	대전/충청	20.4	30.9	34.2	21.4	8.8	15.3	8.7	4.6	0.1
	강원/제주	42.8	53.5	19.6	30.4	2.9	3.0	0.1	28.4	0.0
규모별	대기업	10.8	26.7	36.2	30.4	27.4	5.4	0.7	7.8	8.9
	중견기업	65.1	33.0	45.2	39.1	19.1	7.4	0.7	2.6	0.4
	중기업	53.6	35.7	34.1	30.2	26.5	13.4	9.2	1.8	1.2
	소기업	36.5	40.9	23.9	22.8	15.5	12.1	4.4	5.3	1.2
외주	외주용역 있음	60.9	50.3	34.4	32.1	24.5	16.9	8.9	1.2	0.3
	외주용역 없음	34.7	36.4	24.4	22.6	16.4	11.0	4.4	5.5	1.5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기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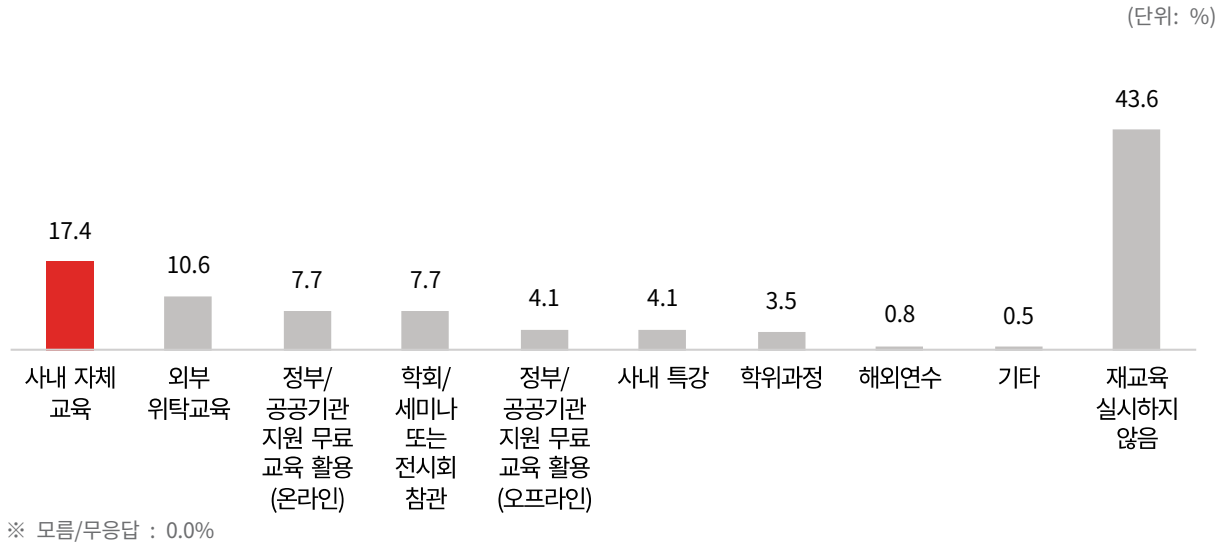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국내외 시장 정보	신기술 이해	타분야 융합 교육	통계 교육
활용업체		22.2	19.6	3.6	2.8
권역별	서울	28.5	11.4	1.0	2.1
	부산/울산/경남	24.4	18.2	5.6	3.8
	대구/경북	21.2	20.3	1.9	7.2
	인천	30.1	27.9	0.6	0.6
	경기	17.1	25.8	3.8	2.8
	광주/전라	14.8	18.0	6.4	2.3
	대전/충청	15.6	30.7	11.1	2.8
	강원/제주	3.2	38.0	10.0	0.2
규모별	대기업	29.8	17.3	26.3	7.8
	중견기업	59.5	18.3	4.8	9.5
	중기업	23.6	11.8	1.1	3.7
	소기업	21.2	22.0	4.1	2.4
외주	외주용역 있음	19.7	8.9	0.4	0.9
	외주용역 없음	22.9	22.7	4.6	3.4

##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는 ‘사내 자체 교육’(17.4%), ‘외부 위탁교육’(10.6%)이 높고, 다음은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7.7%),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7.7%) 등의 순임.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43.6%로 나타남.

###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내 자체 교육’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44.2%), ‘외부 위탁교육’은 공간 디자인(27.7%),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20.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사내 자체 교육	외부 위탁 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온라인)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오프라인)	사내 특강	학위 과정	해외 연수	기타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17.4	10.6	7.7	7.7	4.1	4.1	3.5	0.8	0.5	43.6
업종별	제품 디자인	0.9	20.5	0.2	0.2	2.1	3.6	1.1	0.0	0.0	71.3
	시각 디자인	1.5	19.4	1.6	0.1	0.0	0.0	0.0	0.5	0.5	76.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4.2	0.0	20.1	1.6	0.0	0.0	0.0	0.0	0.0	34.0
	공간 디자인	2.7	27.7	2.1	15.0	9.3	9.9	12.5	2.9	0.0	17.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1.2	0.0	11.5	0.0	0.4	0.0	0.0	0.0	86.9
	서비스/경험 디자인	8.0	0.7	5.1	19.4	0.0	0.6	0.0	0.0	0.0	66.2
	산업공예 디자인	6.1	12.6	1.1	4.8	14.2	19.7	12.3	3.0	1.4	24.9
	디자인 인프라	37.5	0.0	15.7	5.5	3.2	1.2	0.0	0.0	1.0	35.8

-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내 자체 교육’은 대구/경북(25.7%), ‘외부 위탁 교육’은 대전/충청(24.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사내 자체 교육’은 중기업(27.8%), 중견기업(23.0%)에서, ‘외부 위탁 교육’은 대기업(18.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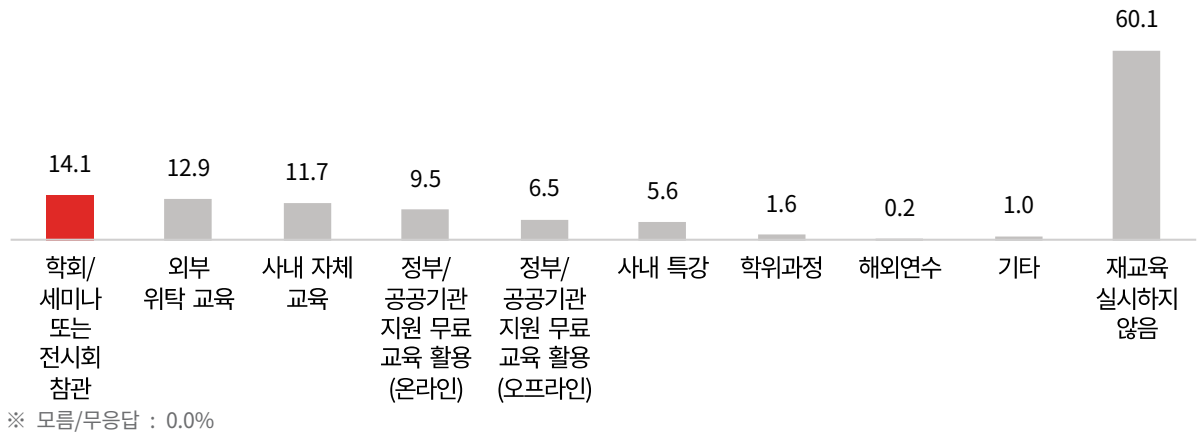
구분		사내 자체 교육	외부 위탁 교육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온라인)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오프라인)	사내 특강	학위 과정	해외 연수	기타	재교육 실시 하지 않음
활용업체		17.4	10.6	7.7	7.7	4.1	4.1	3.5	0.8	0.5	43.6
권역별	서울	23.8	7.7	6.3	11.7	6.7	1.7	1.7	0.9	1.0	38.5
	부산/울산/경남	20.4	8.4	17.4	3.6	2.5	2.5	8.5	0.0	0.6	36.1
	대구/경북	25.7	11.0	7.5	3.0	4.9	5.3	3.2	0.8	0.0	38.7
	인천	7.1	7.5	13.1	4.6	5.9	1.5	7.5	0.4	0.0	52.4
	경기	15.2	11.0	4.4	5.1	2.3	4.6	2.4	0.8	0.1	53.9
	광주/전라	3.9	12.0	3.9	1.0	3.4	4.7	10.8	0.0	0.6	59.6
	대전/충청	3.8	24.1	11.9	10.7	0.6	12.2	2.4	2.4	0.0	31.8
	강원/제주	0.0	8.6	12.5	19.6	0.0	10.1	0.0	0.0	0.0	49.2
규모별	대기업	19.9	18.9	1.6	14.7	15.7	18.3	0.0	7.3	0.0	2.6
	중견기업	23.0	4.3	7.0	4.3	0.0	2.2	1.3	2.6	6.0	49.2
	중기업	27.8	9.7	16.9	5.2	1.2	3.9	3.0	0.2	0.2	32.0
	소기업	14.2	10.8	5.1	8.4	4.9	3.9	3.7	0.9	0.5	47.6
외주	외주용역 있음	30.2	3.4	11.8	2.5	6.5	4.7	0.1	0.0	1.7	39.0
	외주용역 없음	13.8	12.6	6.6	9.1	3.4	3.9	4.4	1.1	0.2	44.8

##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디자이너를 재교육하는 방법으로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이 1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외부 위탁 교육’(12.9%), ‘사내 자체 교육’(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60.1%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공간 디자인(33.5%), 산업공예 디자인(23.6%)에서 높고, ‘외부 위탁 교육’은 공간 디자인(29.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외부 위탁 교육	사내 자체 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온라인)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오프라인)	사내 특강	학위 과정	해외 연수	기타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활용업체		14.1	12.9	11.7	9.5	6.5	5.6	1.6	0.2	1.0	60.1
업종별	제품 디자인	2.1	21.5	1.5	2.8	4.5	1.9	0.0	0.0	0.3	71.3
	시각 디자인	0.8	19.9	2.0	1.6	0.5	0.7	0.0	0.0	0.5	76.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2.1	0.0	34.7	18.8	7.4	0.2	0.0	0.0	0.0	47.5
	공간 디자인	33.5	29.9	11.8	7.3	13.1	14.4	4.9	0.9	0.0	4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2.3	2.9	2.1	3.3	0.0	9.9	0.0	0.0	0.0	86.9
	서비스/경험 디자인	19.5	9.3	12.5	8.7	0.0	8.6	0.0	0.0	1.1	66.2
	산업공예 디자인	23.6	24.3	8.8	1.0	8.9	6.8	9.4	0.0	2.7	46.9
	디자인 인프라	8.7	0.9	14.8	15.8	6.5	2.0	0.0	0.0	2.1	63.8

- 권역별로는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을 활용하는 비율이 강원/제주(18.1%)에서 높고, 다음은 서울(16.7%), 대구/경북(15.9%), 인천(14.8%)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중견기업(8.2%) 보다는 소기업(13.7%)과 중기업(13.9%), 대기업(53.7%)의 활용 비중이 더욱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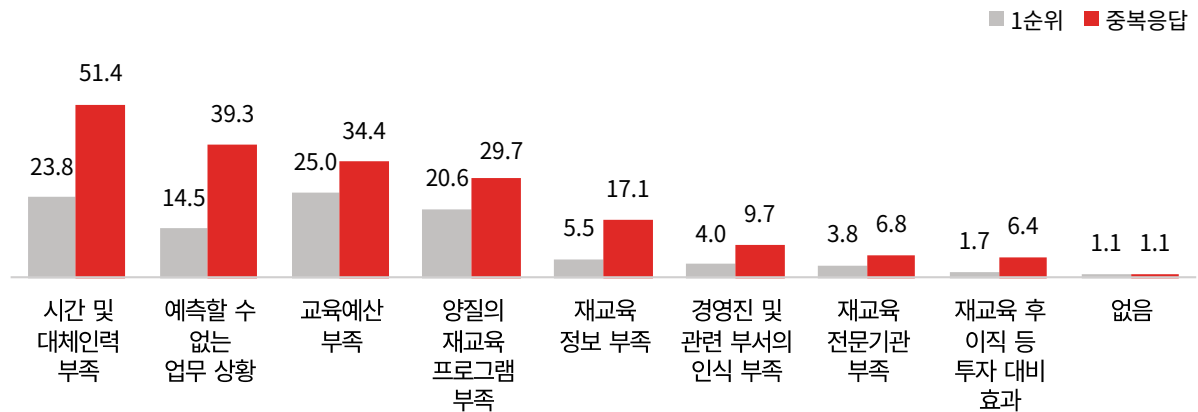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외부 위탁 교육	사내 자체 교육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온라인)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오프라인)	사내 특강	학위 과정	해외 연수	기타	재교육 실시 하지 않음
활용업체		14.1	12.9	11.7	9.5	6.5	5.6	1.6	0.2	1.0	60.1
권역별	서울	16.7	12.3	14.1	10.4	6.0	4.7	1.6	0.1	2.5	55.2
	부산/울산/경남	13.1	11.4	10.1	9.9	3.5	2.5	0.9	0.0	0.6	63.4
	대구/경북	15.9	20.9	19.8	14.2	9.0	11.3	5.4	0.0	0.0	49.5
	인천	14.8	2.9	7.1	22.8	10.4	7.7	4.6	0.0	0.4	58.4
	경기	10.5	11.7	7.8	6.9	5.1	3.7	0.0	0.7	0.2	70.4
	광주/전라	12.2	7.1	3.2	3.9	10.8	7.3	0.0	0.0	0.6	73.8
	대전/충청	14.5	18.7	10.4	7.6	7.9	11.2	4.0	0.0	0.0	49.1
	강원/제주	18.1	28.4	32.2	12.5	12.5	10.4	0.0	0.0	0.0	49.2
규모별	대기업	53.7	34.5	24.7	22.2	21.1	21.2	2.3	2.1	1.1	2.6
	중견기업	8.2	6.1	31.8	4.3	3.4	11.9	0.0	0.0	6.9	50.5
	중기업	13.9	13.0	21.2	17.0	7.9	5.0	1.5	0.0	0.6	46.4
	소기업	13.7	12.7	8.3	7.1	5.9	5.6	1.6	0.2	1.1	65.2
외주	외주용역 있음	6.7	5.5	13.9	10.8	11.3	2.7	0.1	0.0	2.1	63.1
	외주용역 없음	16.2	15.1	11.0	9.2	5.1	6.5	2.0	0.3	0.7	59.2

##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디자이너 재교육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은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51.4%),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39.3%), ‘교육예산 부족’(34.4%)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기준 결과는 교육예산 부족’(25.0%),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23.8%),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20.6%) 등의 순으로 높음.

###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67.1%), 시각 디자인(63.8%)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은 디자인 인프라(49.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활용업체		51.4	39.3	34.4	29.7	17.1	9.7	6.8	6.4
업종별	제품 디자인	62.8	37.5	7.4	57.8	19.0	2.4	5.7	0.3
	시각 디자인	63.8	29.4	20.6	71.0	4.1	2.6	0.5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8.9	45.4	53.4	19.7	12.7	0.0	2.3	1.6
	공간 디자인	35.1	36.3	18.0	29.3	19.9	19.4	21.0	20.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7.1	8.5	90.2	0.3	14.5	19.4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38.8	30.4	72.9	20.5	4.1	31.6	1.2	0.6
	산업공예 디자인	28.5	44.5	15.4	41.2	24.2	17.3	18.8	8.8
	디자인 인프라	58.2	49.0	38.5	16.9	21.6	1.5	1.3	3.5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대구/경북(64.8%), 대전/충청(60.1%)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강원제주(60.0%), ‘광주/전라’(5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대기업’(61.2%)에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이 높게 나타났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중견기업(54.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활용업체		51.4	39.3	34.4	29.7	17.1	9.7	6.8	6.4
권역별	서울	44.6	44.1	39.0	24.1	17.2	12.6	3.1	7.0
	부산/울산/경남	45.9	49.5	28.7	32.4	20.2	8.5	8.9	6.1
	대구/경북	64.8	25.8	41.2	29.1	8.1	9.7	10.5	9.7
	인천	46.9	41.1	50.4	35.7	10.0	6.1	7.5	0.0
	경기	58.6	29.3	32.3	37.1	18.2	5.8	8.0	4.4
	광주/전라	46.2	58.4	34.3	26.8	5.2	20.7	2.4	3.4
	대전/충청	60.1	30.4	21.8	26.0	30.1	6.8	13.7	8.8
	강원/제주	45.3	60.0	9.6	38.7	9.8	0.0	17.9	18.6
규모별	대기업	61.2	34.4	27.3	12.2	16.6	4.0	13.3	28.8
	중견기업	59.1	54.8	17.6	22.6	29.7	7.9	0.5	2.6
	중기업	57.0	46.1	29.2	26.9	16.1	6.9	6.6	9.6
	소기업	49.5	37.1	36.3	30.9	17.3	10.7	6.9	5.1
외주	외주용역 있음	54.8	53.9	39.0	19.3	18.1	3.0	2.7	4.2
	외주용역 없음	50.5	35.2	33.1	32.6	16.8	11.6	8.0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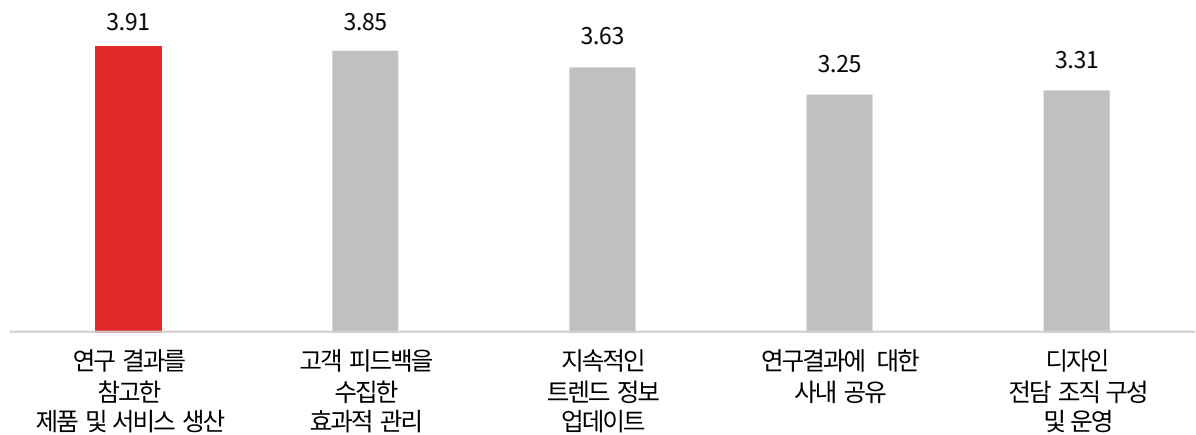
## 5. 디자인 역량

### 1) 디자인 수준 - 공감

- 디자인 공감에 있어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3.91점),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3.85점)가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남.  
반면, ‘연구결과에 대한 사내 공유’는 3.25점으로 가장 낮음.

#### » 디자인 수준 - 공감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과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는 시각 디자인(각각 4.14점, 4.10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공감

(단위: %)

구분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	지속적인 트렌드 정보 업데이트	연구결과에 대한 사내 공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활용업체		3.91	3.85	3.63	3.25	3.31
업종별	제품 디자인	4.08	3.98	3.92	3.28	3.08
	시각 디자인	4.14	4.10	4.00	3.36	3.17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92	4.07	3.92	3.34	3.33
	공간 디자인	3.65	3.59	3.26	3.10	3.3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75	4.03	4.03	3.38	3.10
	서비스/경험 디자인	3.71	3.88	3.61	3.27	3.29
	산업공예 디자인	3.60	3.30	3.23	3.11	3.21
	디자인 인프라	4.12	3.90	3.65	3.29	3.46

- 권역별로 살펴보면, ‘연구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은 ‘서울’(3.99점)과 인천(3.99점)에서 높고,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는 대전/충청(3.91점)에서 높음.
- ‘연구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은 중기업(3.99점),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는 중기업(3.92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의 [공감] 부분의 디자인 수준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특징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공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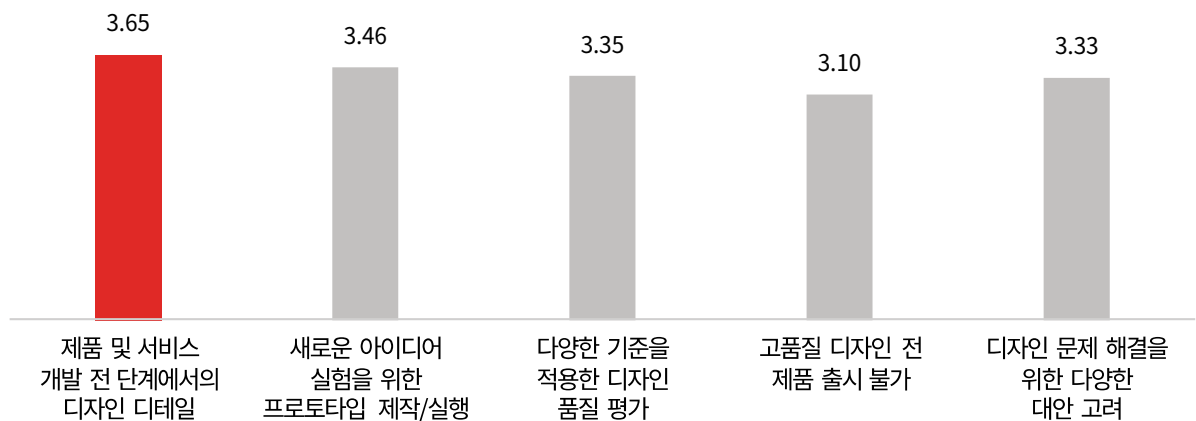
구분		연구 결과를 참고한 제품 및 서비스 생산	고객 피드백을 수집한 효과적 관리	지속적인 트렌드 정보 업데이트	연구결과에 대한 사내 공유	디자인 전담 조직 구성 및 운영
활용업체		3.91	3.85	3.63	3.25	3.31
권역별	서울	3.99	3.88	3.71	3.30	3.34
	부산/울산/경남	3.75	3.83	3.60	3.32	3.31
	대구/경북	3.84	3.70	3.51	3.10	3.21
	인천	3.99	3.76	3.38	3.27	3.35
	경기	3.96	3.89	3.71	3.23	3.29
	광주/전라	3.65	3.83	3.53	3.16	3.33
	대전/충청	3.86	3.91	3.49	3.27	3.30
	강원/제주	3.95	3.73	3.63	3.19	3.40
규모별	대기업	3.93	3.74	3.46	3.10	3.30
	중견기업	3.94	3.83	3.46	3.27	3.29
	중기업	3.99	3.92	3.70	3.28	3.33
	소기업	3.89	3.84	3.62	3.25	3.31
고용	디자이너 고용	3.95	3.89	3.68	3.29	3.37
	디자이너 비고용	3.83	3.79	3.54	3.17	3.19
외주	외주용역 있음	3.92	3.84	3.61	3.23	3.28
	외주용역 없음	3.90	3.86	3.66	3.28	3.34

## 2) 디자인 수준 - 능력

- 디자인 능력에 있어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 수준(5점 만점)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3.65점)이 높고, 다음은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3.46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디자인 품질 평가’(3.35점) 등의 순임.

### » 디자인 수준 - 능력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과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각각 4.30점, 4.05점),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디자인 품질평가’는 시각 디자인(3.91점)에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능력

(단위: %)

구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디자인 품질 평가	고품질 디자인 전 제품 출시 불가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고려
활용업체		3.65	3.46	3.35	3.10	3.33
업종별	제품 디자인	3.94	3.95	3.79	3.72	3.26
	시각 디자인	4.08	3.99	3.91	3.78	3.2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30	4.05	3.55	3.13	3.79
	공간 디자인	3.32	3.31	3.25	3.16	3.3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42	3.23	3.46	3.02	3.16
	서비스/경험 디자인	2.78	3.02	2.89	2.46	2.97
	산업공예 디자인	3.03	3.07	2.95	2.99	3.21
	디자인 인프라	4.18	3.54	3.42	3.12	3.57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은 경기(3.76점),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은 부산/울산/경남(3.54점)에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은 중기업(3.82점),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은 대기업(3.63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디자이너를 고용한 기업이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기업보다 모든 [능력] 분야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능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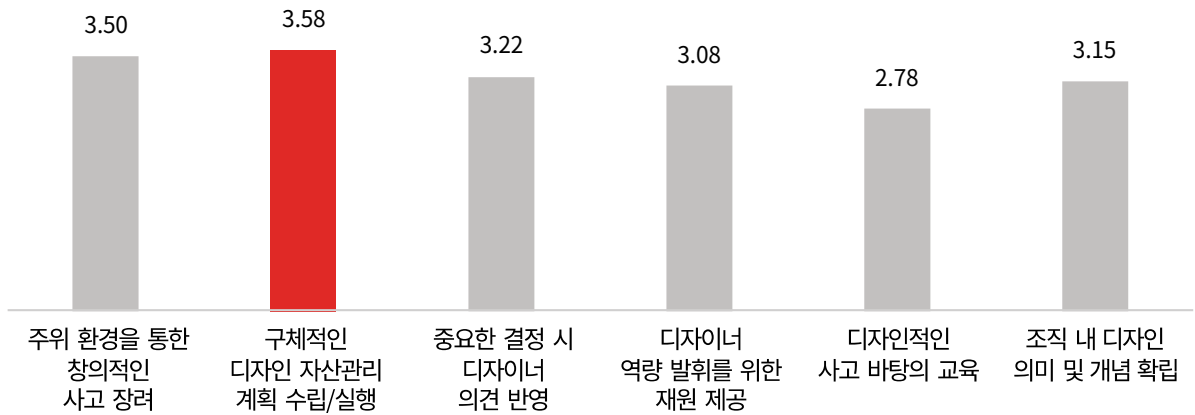
구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의 디자인 디테일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 제작/실행	다양한 기준을 적용한 디자인 품질 평가	고품질 디자인 전 제품 출시 불가	디자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 고려
활용업체		3.65	3.46	3.35	3.10	3.33
권역별	서울	3.71	3.50	3.35	3.10	3.40
	부산/울산/경남	3.68	3.54	3.22	2.96	3.28
	대구/경북	3.49	3.33	3.17	3.16	3.17
	인천	3.69	3.51	3.59	3.28	3.39
	경기	3.76	3.44	3.44	3.24	3.41
	광주/전라	3.43	3.32	3.17	2.99	3.23
	대전/충청	3.51	3.51	3.41	2.94	3.24
	강원/제주	3.26	3.44	3.32	2.74	3.09
규모별	대기업	3.37	3.63	3.13	3.30	3.71
	중견기업	3.65	3.58	3.60	3.20	3.23
	중기업	3.82	3.59	3.35	3.06	3.49
	소기업	3.61	3.42	3.35	3.10	3.29
고용	디자이너 고용	3.85	3.61	3.43	3.24	3.46
	디자이너 비고용	3.25	3.16	3.18	2.81	3.08
외주	외주용역 있음	3.53	3.31	3.27	2.95	3.31
	외주용역 없음	3.76	3.60	3.42	3.23	3.35

### 3) 디자인 수준 - 문화

- 디자인 문화에 대한 수준(5점 만점)은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이 3.58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3.50점),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3.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수준 - 문화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은 제품 디자인(3.93점),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3.86점)에서 다소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문화

(단위: %)

구분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	디자이너 역량 발휘를 위한 자원 제공	디자인적인 사고 바탕의 교육	조직 내 디자인 의미 및 개념 확립
활용업체		3.50	3.58	3.22	3.08	2.78	3.15
업종별	제품 디자인	3.82	3.93	3.82	3.77	3.22	3.07
	시각 디자인	3.83	3.84	3.93	3.82	3.12	3.09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86	3.61	3.90	3.17	2.29	3.44
	공간 디자인	3.01	3.12	3.02	3.00	3.05	3.1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13	3.57	3.21	3.04	3.02	3.06
	서비스/경험 디자인	3.35	3.32	2.48	2.81	2.80	2.92
	산업공예 디자인	3.16	3.17	3.02	2.97	3.05	2.92
	디자인 인프라	3.72	3.87	3.37	2.93	2.40	3.32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은 대전/충청(3.69점), 강원/제주(3.68점),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는 경기(3.56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은 소기업(3.61점)에서 높고,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는 중기업(3.6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문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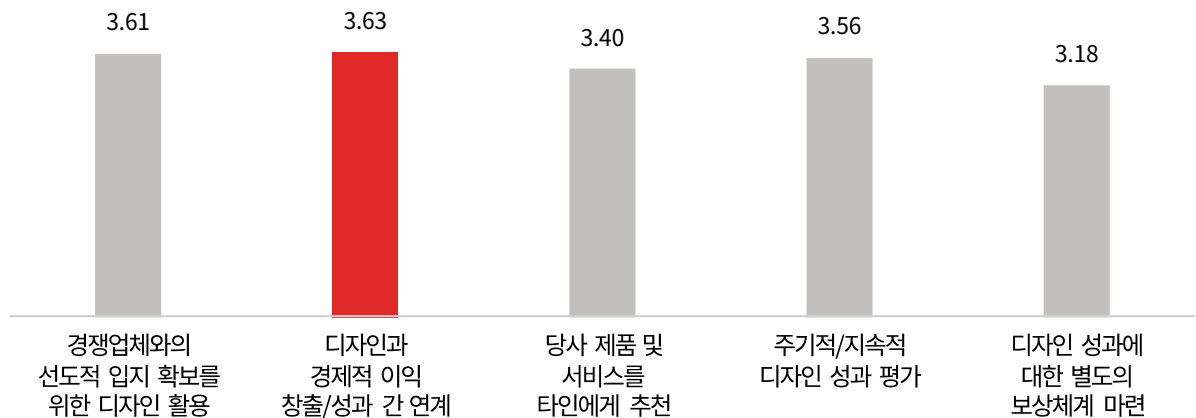
구분		주위 환경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 장려	구체적인 디자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실행	중요한 결정 시 디자이너 의견 반영	디자이너 역량 발휘를 위한 자원 제공	디자인적인 사고 바탕의 교육	조직 내 디자인 의미 및 개념 확립
활용업체		3.50	3.58	3.22	3.08	2.78	3.15
권역별	서울	3.53	3.58	3.23	3.12	2.75	3.15
	부산/울산/경남	3.39	3.60	3.24	3.06	2.58	3.01
	대구/경북	3.50	3.56	3.12	3.01	2.87	3.16
	인천	3.44	3.63	3.23	3.19	3.02	3.14
	경기	3.56	3.60	3.44	3.14	2.82	3.21
	광주/전라	3.42	3.28	2.81	2.92	2.70	3.20
	대전/충청	3.49	3.69	3.06	3.02	2.80	3.11
	강원/제주	3.26	3.68	2.84	2.96	2.94	3.21
규모별	대기업	3.26	3.32	3.33	3.12	2.97	3.27
	중견기업	3.30	3.18	3.31	3.26	2.82	3.34
	중기업	3.60	3.53	3.28	3.12	2.65	3.25
	소기업	3.48	3.61	3.20	3.07	2.81	3.12
고용	디자이너 고용	3.53	3.55	3.48	3.22	2.82	3.24
	디자이너 비고용	3.43	3.66	2.69	2.81	2.69	2.97
외주	외주용역 있음	3.53	3.69	2.96	2.92	2.65	3.08
	외주용역 없음	3.46	3.48	3.46	3.24	2.89	3.21

#### 4) 디자인 수준 - 성과

- 디자인 성과 항목에 대한 디자인 활용업체의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3.63점),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3.61점)에서 다른 항목 대비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수준 - 성과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은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4.56점),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3.87점)에서 다른 항목 대비 높고, 그 외 업종별로는 ‘주기적/지속적 디자인 성과 평가’는 시각 디자인(3.85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성과

(단위: %)

구분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	당사 제품 및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	주기적/지속적 디자인 성과 평가	디자인 성과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활용업체		3.61	3.63	3.40	3.56	3.18
업종별	제품 디자인	3.81	3.96	3.72	3.84	3.29
	시각 디자인	3.87	4.05	3.64	3.85	3.2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87	4.56	3.40	3.65	3.38
	공간 디자인	3.34	3.21	2.99	3.00	3.1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83	3.82	3.71	3.56	3.04
	서비스/경험 디자인	3.31	3.19	3.60	3.70	3.01
	산업공예 디자인	3.36	3.20	2.98	2.86	3.12
	디자인 인프라	3.79	3.85	3.37	3.70	3.24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는 부산/울산/경남(3.74점),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은 인천(3.71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성과 간 연계’는 중견기업(3.75점),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은 중기업(3.64점)에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성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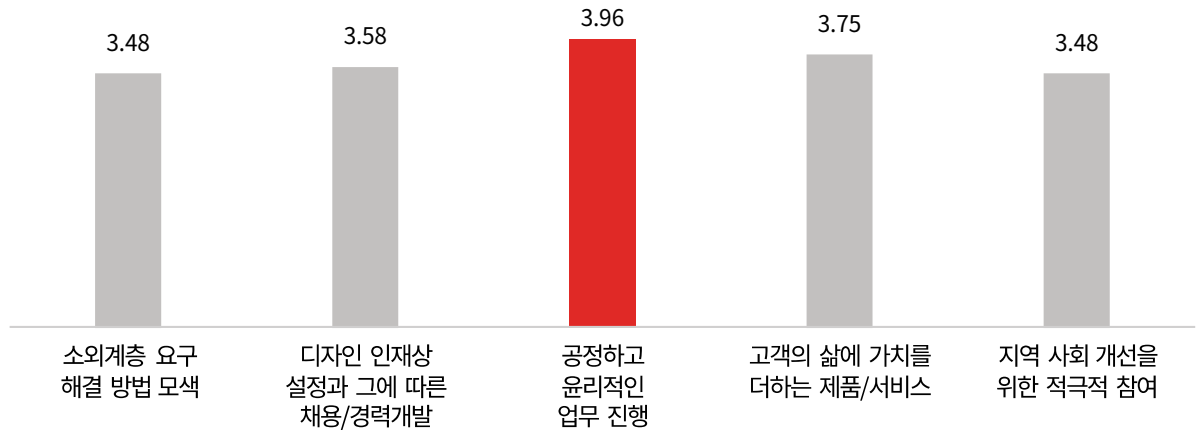
구분		경쟁업체와의 선도적 입지 확보를 위한 디자인 활용	디자인과 경제적 이익 창출/ 성과 간 연계	당사 제품 및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	주기적/지속적 디자인 성과 평가	디자인 성과에 대한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b>활용업체</b>		<b>3.61</b>	<b>3.63</b>	<b>3.40</b>	<b>3.56</b>	<b>3.18</b>
<b>권역별</b>	서울	3.63	3.61	3.41	3.62	3.23
	부산/울산/경남	3.67	3.74	3.39	3.55	3.13
	대구/경북	3.53	3.58	3.34	3.36	3.09
	인천	3.71	3.58	3.41	3.76	3.12
	경기	3.66	3.71	3.41	3.53	3.22
	광주/전라	3.39	3.38	3.37	3.57	3.07
	대전/충청	3.56	3.69	3.43	3.49	3.05
	강원/제주	3.59	3.40	3.43	3.58	3.20
<b>규모별</b>	대기업	3.37	3.63	3.38	2.96	3.27
	중견기업	3.43	3.75	3.35	3.76	3.33
	중기업	3.64	3.63	3.55	3.70	3.22
	소기업	3.61	3.63	3.36	3.53	3.16
<b>고용</b>	디자이너 고용	3.72	3.78	3.39	3.54	3.23
	디자이너 비고용	3.39	3.33	3.44	3.59	3.07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3.55	3.57	3.44	3.64	3.15
	외주용역 없음	3.67	3.69	3.37	3.49	3.20

## 5) 디자인 수준 - 영향

- 디자인 영향에 대한 디자인 활용업체의 수준(5점 만점)을 살펴보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3.96점),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3.75점), ‘디자인 인재상 설정과 그에 따른 채용/경력개발’(3.58점) 등의 순으로 높음.

### » 디자인 수준 - 영향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은 디자인 인프라(4.46점),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는 ‘시각 디자인(4.10점)’에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수준 - 영향

(단위: %)

구분		소외계층 요구 해결 방법 모색	디자인 인재상 설정과 그에 따른 채용/경력개발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
활용업체		3.48	3.58	3.96	3.75	3.48
업종별	제품 디자인	3.64	3.96	4.06	3.98	3.20
	시각 디자인	3.84	4.02	4.11	4.10	3.4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02	3.38	4.25	3.95	3.22
	공간 디자인	3.29	3.41	3.10	3.04	3.2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18	3.28	3.77	3.88	3.03
	서비스/경험 디자인	3.75	3.32	3.97	3.95	3.64
	산업공예 디자인	3.37	3.19	3.06	3.12	3.27
	디자인 인프라	3.39	3.71	4.46	3.89	3.74

● 권역별로 살펴보면,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과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 모두 인천(각각 4.14점, 3.8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과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 모두 중기업(각각 4.08점, 3.85점)에서 높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준 - 영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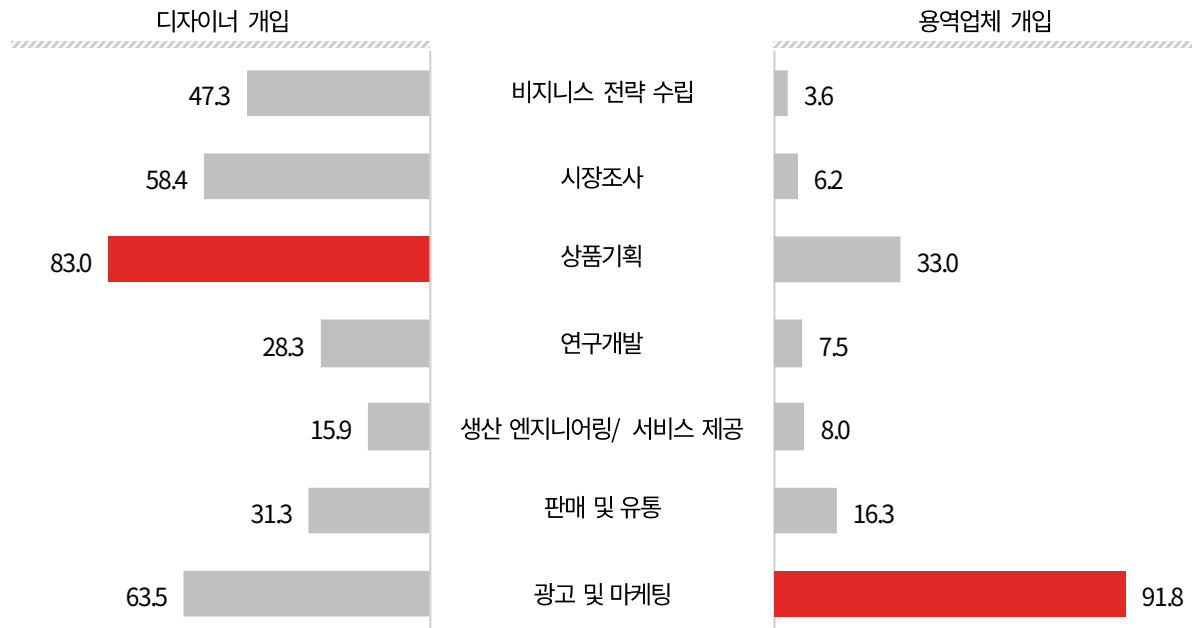
구분		소외계층 요구 해결 방법 모색	디자인 인재상 설정과 그에 따른 채용/경력개발	공정하고 윤리적인 업무 진행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하는 제품/서비스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참여
활용업체		3.48	3.58	3.96	3.75	3.48
권역별	서울	3.41	3.54	3.99	3.80	3.44
	부산/울산/경남	3.34	3.65	4.12	3.66	3.47
	대구/경북	3.54	3.62	3.85	3.63	3.44
	인천	3.61	3.65	4.14	3.84	3.74
	경기	3.49	3.67	3.97	3.79	3.44
	광주/전라	3.45	3.35	3.76	3.76	3.66
	대전/충청	3.61	3.53	3.86	3.63	3.39
	강원/제주	3.90	3.45	3.93	3.62	3.89
규모별	대기업	3.36	3.45	3.68	3.59	3.55
	중견기업	3.24	3.34	3.82	3.77	3.25
	중기업	3.45	3.67	4.08	3.85	3.55
	소기업	3.49	3.56	3.94	3.72	3.47
고용	디자이너 고용	3.43	3.61	3.94	3.73	3.46
	디자이너 비고용	3.58	3.50	4.01	3.78	3.52
외주	외주용역 있음	3.52	3.58	4.11	3.84	3.56
	외주용역 없음	3.44	3.57	3.83	3.66	3.41

## 6)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 개발 프로세스에 개입하는 단계를 살펴보면(중복응답 기준), 디자이너의 경우 ‘상품기획’ (83.0%), ‘광고 및 마케팅’(63.5%)이 높고, 전문디자인 용역업체의 경우 ‘광고 및 마케팅’(91.8%)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 디자이너 개입 단계로는 ‘상품 기획’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97.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5.6%), ‘광고 및 마케팅’은 시각 디자인(98.5%)에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47.3	58.4	83.0	28.3	15.9	31.3	63.5
업종별	제품 디자인	84.2	62.6	77.0	38.7	20.5	82.1	75.2
	시각 디자인	70.3	50.3	80.5	10.1	6.6	81.3	98.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3.8	39.2	97.9	2.6	3.0	5.3	96.7
	공간 디자인	37.5	78.2	77.2	64.7	35.9	15.5	18.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6	58.3	95.6	65.6	0.1	8.3	14.8
	서비스/경험 디자인	28.8	57.7	54.3	2.4	11.9	8.2	93.6
	산업공예 디자인	13.2	60.8	77.1	75.8	66.2	24.8	15.9
	디자인 인프라	52.0	50.2	92.5	5.7	2.3	27.3	80.2

- 업종별 용역업체 개입 단계로는 모든 업종에서 ‘광고 및 마케팅’이 높게 나타남. 한편, ‘상품 기획’은 디자인 인프라(5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3.6	6.2	33.0	7.5	8.0	16.3	91.8
업종별	제품 디자인	14.6	5.4	30.0	8.3	5.1	66.7	93.1
	시각 디자인	0.0	1.7	57.4	2.1	0.0	45.7	95.1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17.5	0.0	31.5	0.0	83.7
	공간 디자인	3.7	13.7	30.6	32.5	31.2	22.5	77.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1	11.2	33.7	22.3	0.0	16.3	58.3
	서비스/경험 디자인	0.2	4.1	0.0	0.0	1.3	1.7	99.6
	산업공예 디자인	0.0	21.9	12.4	31.0	44.3	21.0	70.5
	디자인 인프라	4.3	4.9	58.5	2.5	2.5	10.9	93.8

- 디자이너 개입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상품 기획’은 인천(88.6%), 대기업(90.2%), ‘광고 및 마케팅’은 인천(78.1%), 중견기업(77.8%)에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개발 프로세스 중 디자이너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47.3	58.4	83.0	28.3	15.9	31.3	63.5
권역별	서울	49.8	52.8	86.0	23.8	13.1	26.9	63.2
	부산/울산/경남	46.0	59.8	85.1	19.7	18.3	37.0	71.1
	대구/경북	51.1	73.8	85.6	32.7	15.4	24.8	39.4
	인천	66.4	63.1	88.6	32.6	10.1	44.9	78.1
	경기	42.6	57.9	81.8	31.8	17.8	34.3	65.4
	광주/전라	32.7	57.3	74.9	44.3	21.7	36.1	59.5
	대전/충청	49.5	62.6	76.6	28.2	21.4	33.8	67.0
	강원/제주	55.1	77.8	66.3	39.1	0.2	18.2	70.0
규모별	대기업	43.7	61.4	90.2	70.1	23.8	14.4	32.7
	중견기업	70.7	52.1	89.9	25.0	21.2	35.6	77.8
	중기업	53.2	59.5	79.0	19.4	14.8	25.2	75.7
	소기업	45.2	58.0	84.0	30.4	16.1	33.3	60.1
외주	외주용역 있음	53.1	43.1	91.6	12.5	5.2	30.5	71.7
	외주용역 없음	45.6	62.7	80.6	32.7	19.0	31.5	61.2

- 디자인 전문 용역업체의 개입 단계를 계층별로 살펴보면, ‘광고 및 마케팅’은 광주/전라(98.4%), 대전/충청(98.0%), 인천(95.5%), 대기업(92.2%)에서 높고, ‘상품 기획’은 인천(45.6%), 중견기업(5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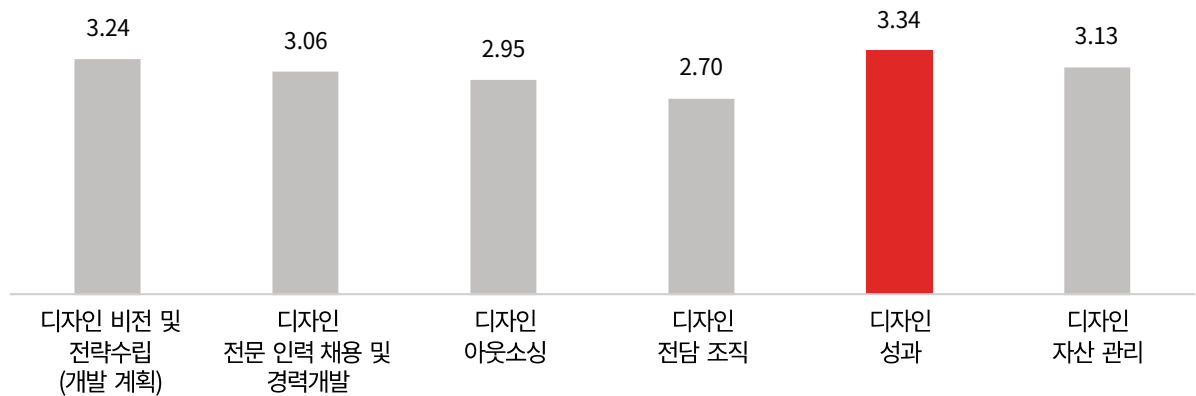
구분		비즈니스 전략 수립	시장 조사	상품 기획	연구 개발	생산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판매 및 유통	광고 및 마케팅
활용업체		3.6	6.2	33.0	7.5	8.0	16.3	91.8
권역별	서울	2.6	6.2	39.2	6.6	5.4	7.2	89.3
	부산/울산/경남	2.1	5.9	44.4	9.8	5.9	14.1	84.6
	대구/경북	7.1	8.2	24.2	7.7	8.4	22.6	93.1
	인천	0.0	0.1	45.6	10.4	4.0	4.3	95.5
	경기	8.3	10.6	29.4	7.2	11.3	31.2	92.4
	광주/전라	0.2	1.8	25.2	8.1	11.3	26.4	98.4
	대전/충청	0.6	0.7	21.8	6.7	7.6	13.5	98.0
	강원/제주	0.0	4.8	20.6	6.5	12.7	3.6	95.2
규모별	대기업	14.1	15.9	38.4	6.0	42.6	2.9	92.2
	중견기업	13.6	17.4	52.2	4.0	20.3	9.1	87.7
	중기업	4.2	10.0	23.6	3.5	4.2	10.1	91.7
	소기업	3.2	5.0	35.0	8.5	8.4	18.1	91.9
외주	외주용역 있음	2.5	9.7	41.4	9.4	11.5	15.1	83.9
	외주용역 없음	4.3	4.2	28.4	6.4	6.0	17.0	96.3

## 7)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 디자인 활용업체 내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 성과’(3.34점),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3.24점), ‘디자인 자산 관리’(3.13점),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3.06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성과’는 시각 디자인(3.79점),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69점)에서 높고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3.95점), 디자인 인프라(3.76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

(단위: 점)

구분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 성과	디자인 자산관리
활용업체		3.24	3.06	2.95	2.70	3.34	3.13
업종별	제품 디자인	2.97	2.99	3.26	3.03	3.53	2.96
	시각 디자인	3.23	3.07	3.16	2.97	3.79	3.15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95	3.31	3.01	2.47	3.49	3.78
	공간 디자인	2.85	2.88	2.79	3.00	3.08	3.1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30	2.93	2.98	3.11	3.69	3.01
	서비스/경험 디자인	2.81	2.85	2.92	2.84	3.46	2.91
	산업공예 디자인	2.74	2.82	3.21	3.03	3.01	2.98
	디자인 인프라	3.76	3.31	2.86	2.24	3.23	3.26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성과’는 인천(3.49점), 서울(3.45점), 대전/충청(3.37점)에서 높고,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은 서울(3.39점), 부산/울산/경남(3.30점), 경기(3.19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디자인 업무 및 활동 수준이 중견기업에서 높게 나타남.
-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의 경우 모든 업무 및 활동 수준이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개발 프로세스 중 용역업체 개입 단계

(단위: 점)

구분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 (개발 계획)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디자인 아웃소싱	디자인 전담 조직	디자인 성과	디자인 자산관리
활용업체		3.24	3.06	2.95	2.70	3.34	3.13
권역별	서울	3.39	3.09	2.94	2.71	3.45	3.18
	부산/울산/경남	3.30	3.02	2.89	2.66	3.34	3.23
	대구/경북	3.17	2.96	2.87	2.64	3.26	3.15
	인천	3.08	3.12	2.89	2.80	3.49	3.26
	경기	3.19	3.06	2.97	2.74	3.19	3.01
	광주/전라	3.15	3.13	2.90	2.53	3.31	3.03
	대전/충청	3.09	2.99	3.03	2.83	3.37	3.16
	강원/제주	2.88	3.08	3.11	2.51	3.34	3.11
규모별	대기업	3.17	2.83	2.98	2.83	3.33	3.42
	중견기업	3.57	3.54	2.99	2.94	3.36	3.33
	중기업	3.46	3.11	2.98	2.73	3.42	3.25
	소기업	3.18	3.04	2.94	2.69	3.32	3.09
고용	디자이너 고용	3.38	3.15	2.99	2.77	3.44	3.28
	디자이너 비고용	2.96	2.88	2.86	2.56	3.14	2.83
외주	외주용역 있음	3.20	3.01	2.94	2.52	3.25	3.03
	외주용역 없음	3.27	3.11	2.96	2.87	3.43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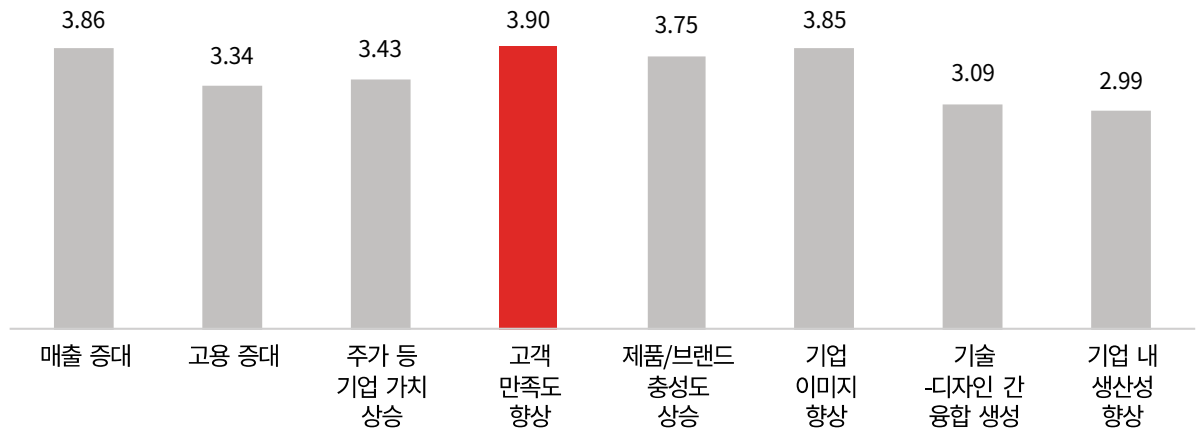


## 8)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 디자인 활용업체 내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를 살펴본 결과, ‘고객 만족도 향상’(3.90점), ‘매출 증대’(3.86점), ‘기업 이미지 향상’(3.85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객 만족도 향상’은 디자인 인프라(4.51점),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4.33점), ‘매출 증대’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4.4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구분		매출증대	고용증대	주가 등 기업가치 상승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브랜드 충성도 상승	기업 이미지 향상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
활용업체		3.86	3.34	3.43	3.90	3.75	3.85	3.09	2.99
업종별	제품 디자인	3.81	3.10	3.29	3.75	3.72	3.90	3.11	2.92
	시각 디자인	4.26	3.27	3.45	3.99	3.94	4.12	3.31	3.0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40	3.09	3.66	4.33	4.33	4.13	3.40	3.04
	공간 디자인	3.44	3.60	3.19	3.19	3.36	3.34	3.20	3.1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80	2.97	2.95	3.56	3.34	3.67	3.06	3.06
	서비스/경험 디자인	3.64	2.96	2.94	3.69	3.22	3.81	2.93	2.92
	산업공예 디자인	3.44	3.12	2.85	3.19	3.36	3.26	3.02	3.15
	디자인 인프라	4.13	3.61	4.00	4.51	4.28	4.14	3.05	2.91

- 권역별로 살펴보면, ‘고객만족도 향상’은 인천(4.02점), ‘매출 증대’는 대전/충청(3.98점), ‘기업이미지 향상’은 인천(3.95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고객만족도 향상’, ‘매출 증대’ 모두 중기업(각각 4.04점, 4.00점)에서 높게 나타남.
- ‘기업이미지 향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디자이너를 고용한 업체가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보다 높은 기여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투자 및 활용 기여도**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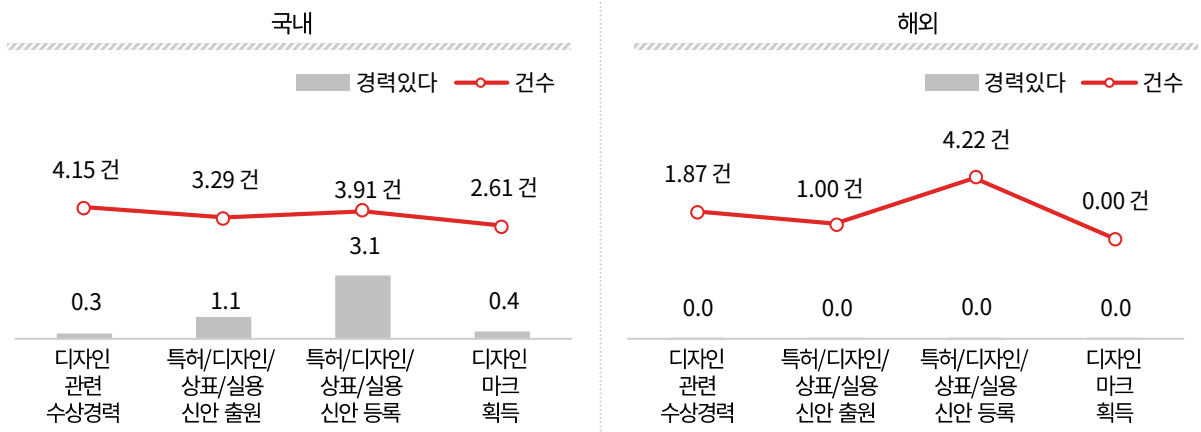
구분		매출증대	고용증대	주가 등 기업가치 상승	고객 만족도 향상	제품/ 브랜드 충성도 상승	기업 이미지 향상	기술- 디자인 간 융합 생성	기업 내 생산성 향상
<b>활용업체</b>		<b>3.86</b>	<b>3.34</b>	<b>3.43</b>	<b>3.90</b>	<b>3.75</b>	<b>3.85</b>	<b>3.09</b>	<b>2.99</b>
<b>권역별</b>	서울	3.92	3.29	3.47	3.99	3.76	3.85	3.06	2.99
	부산/울산/경남	3.94	3.37	3.41	3.96	3.67	3.87	3.14	3.17
	대구/경북	3.62	3.19	3.39	3.88	3.94	3.79	3.04	2.94
	인천	3.57	3.32	3.45	4.02	4.02	3.95	3.17	3.04
	경기	3.85	3.40	3.48	3.81	3.72	3.84	3.12	2.98
	광주/전라	3.75	3.41	3.31	3.75	3.77	3.83	3.13	2.93
	대전/충청	3.98	3.36	3.28	3.89	3.72	3.85	3.10	2.99
	강원/제주	3.73	3.38	3.47	3.73	3.43	3.93	2.98	2.84
<b>규모별</b>	대기업	3.60	3.50	3.40	3.57	3.30	3.48	3.28	2.97
	중견기업	3.75	3.64	3.18	3.81	3.85	3.54	3.26	3.05
	중기업	4.00	3.44	3.51	4.04	3.84	3.87	3.09	2.95
	소기업	3.82	3.30	3.42	3.87	3.73	3.85	3.09	3.00
<b>고용</b>	디자이너 고용	3.97	3.43	3.50	3.91	3.84	3.85	3.20	3.08
	디자이너 비고용	3.63	3.15	3.30	3.87	3.59	3.85	2.88	2.81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3.79	3.25	3.44	4.01	3.77	3.92	2.97	2.87
	외주용역 없음	3.92	3.42	3.42	3.79	3.73	3.79	3.21	3.11

## 9)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건수

- 국내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은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3.1%)이 다른 경력에 비해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과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모두 산업공예 디자인(각각 15.7%, 3.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단위: %)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활용업체		0.3	1.1	3.1	0.4	0.0	0.0	0.0	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0.1	1.1	1.1	0.0	0.0	0.0	0.0	0.0
	시각 디자인	0.0	0.0	0.0	0.0	0.0	0.0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1	0.0	1.0	0.0	0.1	0.0	0.0	0.0
	공간 디자인	0.0	1.8	10.3	0.6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0.0	0.0	0.0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0.0	0.0	0.0	0.0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1.5	3.3	15.7	0.6	0.0	0.9	0.0	0.0
	디자인 인프라	0.7	1.5	1.6	0.7	0.0	0.0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은 대전/충청(5.1%),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대구/경북(2.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과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모두 대기업(각각 25.8%, 12.0%)에서 다른 규모의 기업 대비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단위: %)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등록	디자인 마크 획득
활용업체		0.3	1.1	3.1	0.4	0.0	0.0	0.0	0.0
권역별	서울	0.9	1.8	3.9	1.1	0.0	0.0	0.0	0.0
	부산/울산/경남	0.0	0.0	1.5	0.0	0.0	0.0	0.0	0.0
	대구/경북	0.0	2.0	3.9	0.1	0.0	0.0	0.0	0.0
	인천	0.1	1.1	0.5	0.0	0.0	0.9	0.0	0.0
	경기	0.0	0.9	3.0	0.0	0.0	0.0	0.0	0.0
	광주/전라	0.5	0.0	2.0	0.0	0.0	0.0	0.0	0.0
	대전/충청	0.0	0.1	5.1	0.0	0.0	0.1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대기업	0.7	12.0	25.8	0.9	0.4	0.9	0.0	0.0
	중견기업	1.7	1.7	3.0	0.3	0.6	0.0	0.3	0.0
	중기업	1.2	1.3	4.7	1.2	0.0	0.0	0.0	0.0
	소기업	0.1	0.8	2.5	0.2	0.0	0.0	0.0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0.5	1.3	3.9	0.4	0.0	0.1	0.0	0.0
	디자이너 비고용	0.0	0.6	1.6	0.3	0.0	0.0	0.0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0.5	0.9	1.8	0.7	0.0	0.0	0.0	0.0
	외주용역 없음	0.1	1.2	4.4	0.1	0.0	0.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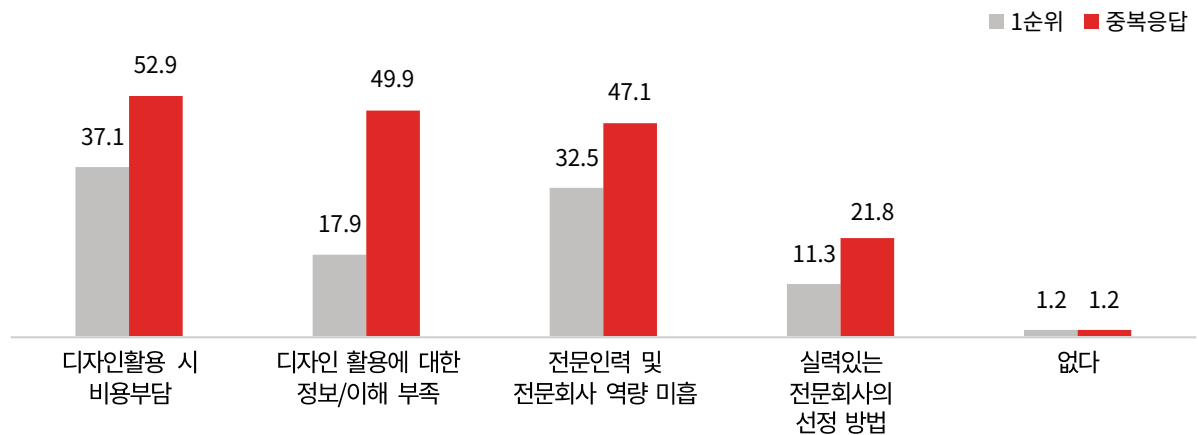
## 6. 기타

### 1)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52.9%)이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49.9%),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47.1%) 등의 순임. 1순위 기준으로 역시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이 37.1%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활용 시 비용 부담’은 시각 디자인(69.6%), 제품 디자인(60.7%),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5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이해 부족	실력있는 전문회사의 선정방법	없다
활용업체		37.1	32.5	17.9	11.3	1.2
업종별	제품 디자인	60.7	7.1	4.2	27.9	0.0
	시각 디자인	69.6	24.6	4.6	1.2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5.7	57.1	5.6	1.6	0.0
	공간 디자인	38.8	28.9	20.3	12.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2.5	2.0	42.5	3.1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46.6	24.8	18.7	9.9	0.0
	산업공예 디자인	28.3	13.7	35.9	22.1	0.0
	디자인 인프라	15.4	51.8	19.4	9.8	3.7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은 대전/충청(49.1%),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각각 38.0%)에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은 소기업(31.9%)과 대기업(30.9%)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 활용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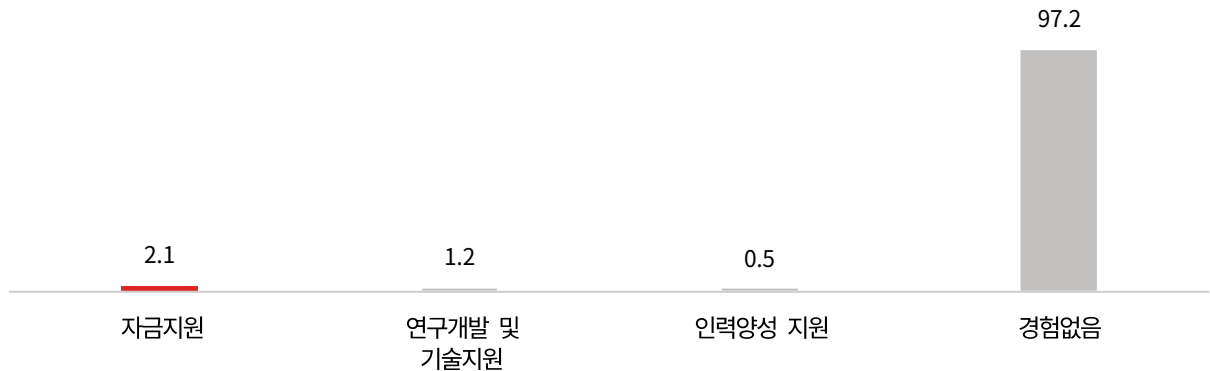
구분		디자인 활용 시 비용부담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디자인 활용에 대한 정보/ 이해 부족	실력있는 전문회사의 선정방법	없다
활용업체		37.1	32.5	17.9	11.3	1.2
권역별	서울	37.1	32.5	17.9	11.3	1.2
	부산/울산/경남	35.3	38.0	13.6	11.0	2.2
	대구/경북	34.2	38.0	16.5	11.3	0.0
	인천	35.4	24.8	24.0	12.8	3.1
	경기	33.5	26.4	16.1	23.9	0.0
	광주/전라	36.3	31.1	19.4	12.2	1.0
	대전/충청	49.1	19.5	24.7	6.7	0.0
	강원/제주	46.1	33.9	15.8	4.2	0.0
규모별	대기업	30.9	19.2	32.2	17.7	0.0
	중견기업	16.2	65.0	11.2	6.8	0.0
	중기업	21.0	48.9	14.9	15.0	0.3
	소기업	31.9	41.5	19.5	5.9	1.2
고용	디자이너 고용	38.9	29.5	17.5	12.8	1.2
	디자이너 비고용	39.5	39.6	14.0	5.0	1.8
외주	외주용역 있음	32.3	18.2	25.5	24.0	0.0
	외주용역 없음	31.0	29.8	21.1	17.0	1.0

## 2) 정부 지원 여부

- 디자인 관련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경험없음’이 97.2%로 압도적으로 높고, 정부지원 경험 비율은 ‘자금지원’ 2.1%,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1.2%, ‘인력양성 지원’은 0.5%로 5.0% 이하 낮게 나타남.

### » 정부 지원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낮게 나타난 가운데,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은 모두 디자인 인프라(각각 6.3%, 3.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정부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자금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없음
활용업체		2.1	1.2	0.5	97.2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0.0	0.0	100.0
	시각 디자인	0.0	0.0	0.0	10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0.0	0.0	100.0
	공간 디자인	0.0	0.0	0.6	99.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0.0	1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0.7	99.3
	산업공예 디자인	0.0	0.0	0.6	99.4
	디자인 인프라	6.3	3.7	0.7	92.4

- 모든 권역과 규모 등에서 정부 지원 경험의 낮게 나타난 가운데, 자금지원'은 광주/전라(7.4%), 중소기업(6.2%), '인력양성 지원'은 대구/경북(4.7%),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은 중견기업(10.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정부 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자금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없음
<b>활용업체</b>		<b>2.1</b>	<b>1.2</b>	<b>0.5</b>	<b>97.2</b>
<b>권역별</b>	서울	1.2	0.7	1.1	97.7
	부산/울산/경남	0.0	0.0	0.9	99.1
	대구/경북	4.0	4.7	0.0	94.1
	인천	3.4	2.3	0.0	96.6
	경기	1.3	0.2	0.0	98.5
	광주/전라	7.4	2.3	0.0	92.6
	대전/충청	1.7	1.7	0.3	98.0
	강원/제주	6.9	4.4	0.0	93.1
<b>규모별</b>	대기업	0.0	0.0	0.4	99.6
	중견기업	0.0	0.0	10.3	89.7
	중기업	6.2	2.5	1.8	93.0
	소기업	1.0	0.9	0.0	98.4
<b>고용</b>	디자이너 고용	1.8	1.7	0.4	97.5
	디자이너 비고용	2.6	0.3	0.7	96.8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4.0	1.4	1.0	95.4
	외주용역 없음	0.3	1.1	0.0	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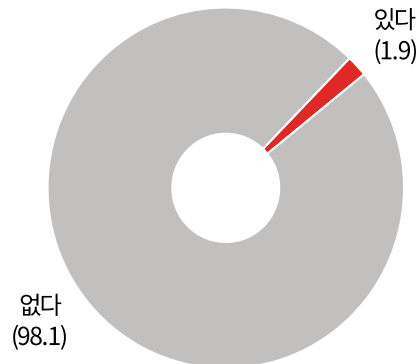


### 3)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디자인 활용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1.9%로 매우 낮게 나타남.  
그 외 98.1%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가운데,  
시각 디자인(5.2%), 산업공예 디자인(4.8%)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활용업체		1.9	98.1
업종별	제품 디자인	2.0	98.0
	시각 디자인	5.2	94.8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100.0
	공간 디자인	0.0	10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6	97.4
	서비스/경험 디자인	1.3	98.7
	산업공예 디자인	4.8	95.2
	디자인 인프라	2.4	97.6

- 모든 권역, 업체 규모, 디자이너 고용, 외주 여부 등에서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낮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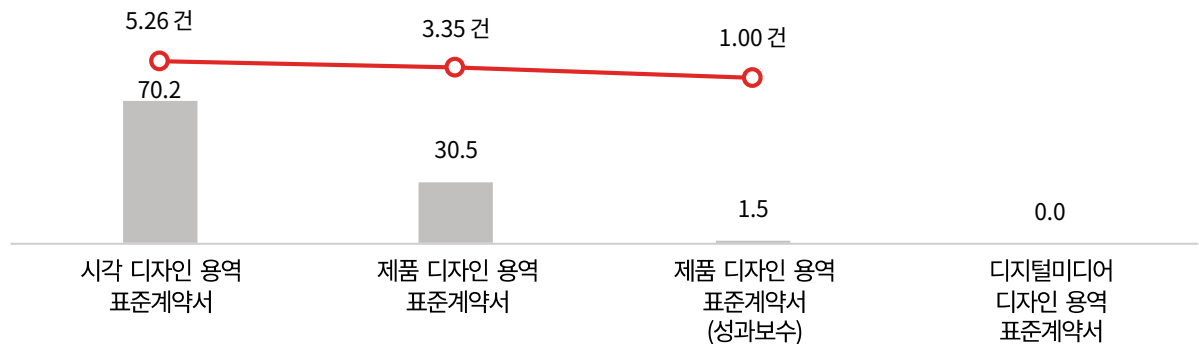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활용업체		1.9	98.1
권역별	서울	3.5	96.5
	부산/울산/경남	1.2	98.8
	대구/경북	0.0	100.0
	인천	0.0	100.0
	경기	2.2	97.8
	광주/전라	0.8	99.2
	대전/충청	0.6	99.4
	강원/제주	0.0	100.0
규모별	대기업	1.4	97.7
	중견기업	1.4	98.6
	중기업	2.9	97.1
	소기업	1.7	98.3
고용	디자이너 고용	2.8	97.2
	디자이너 비고용	0.2	99.8
외주	외주용역 있음	1.1	98.8
	외주용역 없음	2.7	97.3

### 3-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 활용되는 디자인표준계약서 종류로는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70.2%)가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30.5%),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성과보수)’(1.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에서 활용되고,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구분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보수)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활용업체		70.2	5.26	30.5	3.35	1.5	1.00	0.0	-
업종별	제품 디자인	24.5	1.00	76.8	1.62	0.0	-	0.0	-
	시각 디자인	66.7	6.25	25.5	10.00	7.9	1.00	0.0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	0.0	-	0.0	-	0.0	-
	공간 디자인	0.0	-	0.0	-	0.0	-	0.0	-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	100.0	4.83	0.0	-	0.0	-
	서비스/경험 디자인	100.0	1.96	0.0	-	0.0	-	0.0	-
	산업공예 디자인	0.0	-	100.0	1.14	0.0	-	0.0	-
	디자인 인프라	100.0	6.32	5.2	1.00	0.0	-	0.0	-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경기, 광주/전라, 대전/충청,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는 서울, 부산/울산/경남, 경기에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견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규모에서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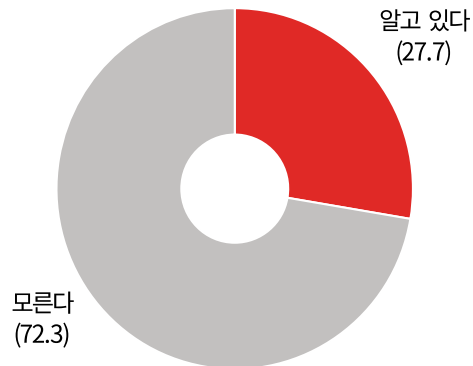
구분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보수)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활용업체		70.2	5.26	30.5	3.35	1.5	1.00	0.0	-
권역별	서울	89.1	5.42	8.6	4.92	2.5	1.00	0.0	-
	부산/울산/경남	78.8	7.77	21.2	2.00	0.0	-	0.0	-
	대구/경북	0.0	-	0.0	-	0.0	-	0.0	-
	인천	0.0	-	0.0	-	0.0	-	0.0	-
	경기	21.8	1.00	85.9	3.09	0.0	-	0.0	-
	광주/전라	100.0	9.44	0.0	-	0.0	-	0.0	-
	대전/충청	100.0	2.87	0.0	-	0.0	-	0.0	-
	강원/제주	0.0	-	0.0	-	0.0	-	0.0	-
규모별	대기업	100.0	1.00	21.6	2.00	0.0	-	0.0	-
	중견기업	0.0	-	100.0	2.00	0.0	-	0.0	-
	중기업	96.3	4.72	10.5	1.49	0.0	-	0.0	-
	소기업	58.5	5.75	39.2	3.62	2.2	1.00	0.0	-
고용	디자이너 고용	71.4	5.29	29.4	3.38	1.6	1.00	0.0	-
	디자이너 비고용	43.1	4.29	56.9	3.00	0.0	-	0.0	-
외주	외주용역 있음	91.3	7.15	16.7	2.06	0.0	-	0.0	-
	외주용역 없음	61.9	4.17	36.0	3.58	2.1	1.00	0.0	-

#### 4)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알고 있다’는 업체는 27.7%로 나타남. 그 외 72.3%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디자인 인프라(42.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36.4%), 서비스/경험 디자인(35.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활용업체		27.7	72.3
업종별	제품 디자인	6.9	93.1
	시각 디자인	3.6	96.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6.4	63.6
	공간 디자인	20.5	79.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2	93.8
	서비스/경험 디자인	35.5	64.5
	산업공예 디자인	12.9	87.1
	디자인 인프라	42.0	58.0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알고 있다’는 강원/제주(31.8%), 광주/전라(30.9%), 대구/경북(29.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높은 인지도를 보인 가운데, 인지도는 대기업 48.9%, 중견기업 40.0%로 나타남.
- 외주 용역 업체의 인지도는 33.7%로 외주 용역을 주지 않는 업체(22.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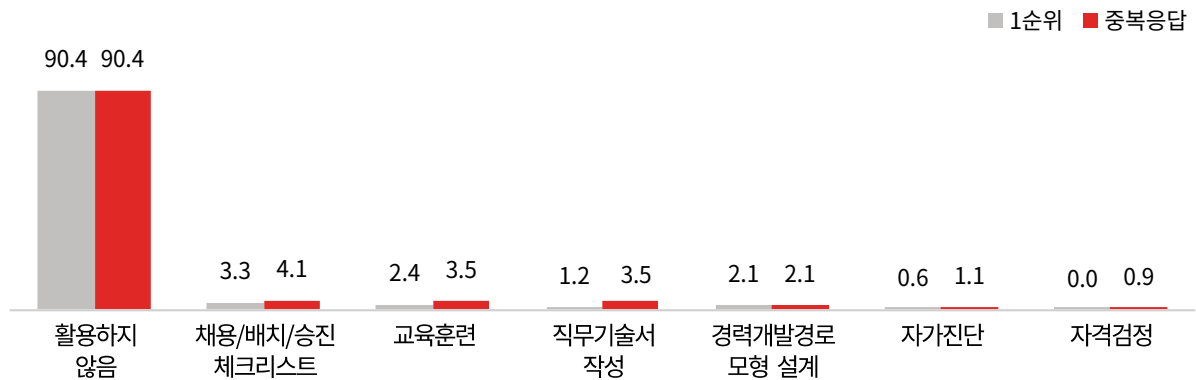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b>활용업체</b>		<b>27.7</b>	<b>72.3</b>
<b>권역별</b>	서울	28.8	71.2
	부산/울산/경남	27.5	72.5
	대구/경북	29.3	70.7
	인천	23.6	76.4
	경기	27.1	72.9
	광주/전라	30.9	69.1
	대전/충청	21.7	78.3
	강원/제주	31.8	68.2
<b>규모별</b>	대기업	48.9	50.2
	중견기업	40.0	60.0
	중기업	30.5	69.5
	소기업	26.5	73.5
<b>고용</b>	디자이너 고용	28.4	71.6
	디자이너 비고용	26.2	73.8
<b>외주</b>	외주용역 있음	33.7	66.3
	외주용역 없음	22.1	77.9

#### 4-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한 업무 활용도(중복응답 기준)는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4.1%), ‘교육훈련’(3.5%), ‘직무기술서 작성’(3.5%), ‘경력개발경로모형 설계’(2.1%), ‘자가진단’(1.1%)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활용하지 않음’은 90.4%로 높음.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는 전 업종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는 산업공예 디자인(14.4%), 서비스/경험 디자인(10.1%), ‘교육훈련’은 산업공예 디자인(5.0%), ‘직무기술서 작성’은 서비스/경험 디자인(7.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활용하지 않음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교육훈련	직무기술서 작성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자가진단	자격검정
활용업체		90.4	4.1	3.5	3.5	2.1	1.1	0.9
업종별	제품 디자인	97.4	1.5	1.9	0.0	0.4	0.0	0.0
	시각 디자인	95.1	4.9	0.0	2.4	0.0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9.6	0.1	0.2	0.1	0.0	0.0	0.0
	공간 디자인	86.2	6.7	4.4	5.9	2.7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5.0	1.5	3.5	5.0	0.0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89.9	10.1	2.4	7.6	0.0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80.3	14.4	5.0	5.0	0.0	0.0	0.2
	디자인 인프라	90.6	0.5	4.3	1.2	3.5	2.2	1.7

- 권역별로 살펴보면,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는 대전/충청(6.6%), ‘교육훈련’은 인천(16.5%), ‘직무기술서 작성’은 강원/제주(14.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지 않는 비율이 38.6%로 낮으며, 대기업은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51.0%), ‘직업기술서 작성’(45.3%) 등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활용하지 않음	채용/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교육훈련	직무기술서 작성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자가진단	자격검정
활용업체		90.4	4.1	3.5	3.5	2.1	1.1	0.9
권역별	서울	85.3	6.4	4.3	5.0	5.0	0.0	2.5
	부산/울산/경남	88.9	2.0	5.5	5.0	3.6	0.0	0.0
	대구/경북	95.5	4.3	2.8	1.6	0.0	0.0	0.1
	인천	83.5	0.0	16.5	0.0	0.0	16.5	0.0
	경기	95.0	2.5	2.6	0.2	0.0	0.0	0.0
	광주/전라	97.7	2.3	0.0	1.6	0.0	0.0	0.0
	대전/충청	93.4	6.6	0.0	5.3	0.0	0.0	0.0
	강원/제주	86.0	0.3	0.0	14.0	0.0	13.7	0.0
규모별	대기업	38.6	51.0	12.9	45.3	0.0	0.0	1.0
	중견기업	82.2	16.0	11.0	0.8	0.7	0.0	0.0
	중기업	78.3	6.6	11.6	5.3	5.4	2.5	3.9
	소기업	95.3	2.1	0.7	2.1	1.2	0.7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87.6	5.1	4.2	4.5	3.1	1.6	1.3
	디자이너 비고용	96.4	1.7	1.9	1.4	0.0	0.0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94.6	1.7	2.7	1.0	1.5	0.0	1.5
	외주용역 없음	84.5	7.3	4.7	7.1	3.0	2.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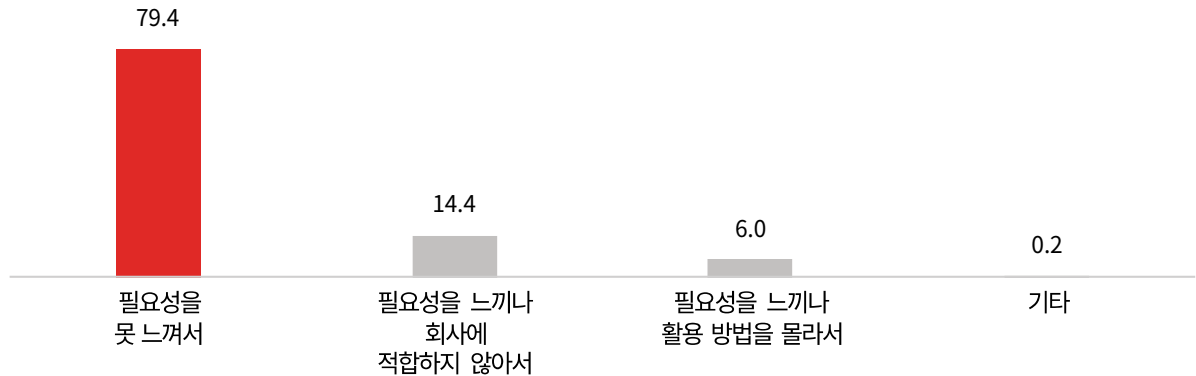


#### 4-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79.4%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14.4%),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6.0%) 등의 순임.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공간 디자인(96.8%), 산업공예 디자인 (93.8%), 디자인 인프라(87.2%),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83.2%) 등의 순임.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제품 디자인(59.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52.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활용업체		79.4	14.4	6.0	0.2
업종별	제품 디자인	33.3	59.5	7.2	0.0
	시각 디자인	76.3	23.7	0.0	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83.2	12.3	0.0	4.4
	공간 디자인	96.8	3.2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7.7	52.3	0.0	0.0
	서비스/경험 디자인	59.6	19.4	21.1	0.0
	산업공예 디자인	93.8	0.0	6.2	0.0
	디자인 인프라	87.2	12.1	0.7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광주/전라(92.0%), 부산/울산/경남(89.4%), 경기(87.4%)

등에서 높고,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인천(35.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중기업(82.3%)에서 높고,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대기업(35.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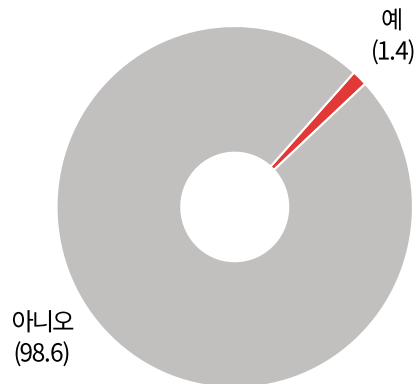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기타
활용업체		79.4	14.4	6.0	0.2
권역별	서울	72.1	26.8	0.3	0.8
	부산/울산/경남	89.4	10.5	0.1	0.0
	대구/경북	83.4	12.5	4.1	0.0
	인천	64.3	35.7	0.0	0.0
	경기	87.4	8.8	3.9	0.0
	광주/전라	92.0	0.0	8.0	0.0
	대전/충청	60.7	0.0	39.3	0.0
	강원/제주	74.3	0.0	25.7	0.0
규모별	대기업	64.6	35.4	0.0	0.0
	중견기업	73.4	25.8	0.8	0.0
	중기업	82.3	9.2	8.4	0.0
	소기업	78.9	15.3	5.5	0.3
고용	디자이너 고용	83.6	13.5	2.5	0.4
	디자이너 비고용	71.1	16.1	12.8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76.3	16.6	7.1	0.0
	외주용역 없음	84.2	10.9	4.2	0.6

## 5)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업체는 1.4%, ‘아니오’는 98.6%로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 모름/무응답 : 0.0%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했는지에 대해, ‘예’는 공간 디자인(4.9%), 제품 디자인(4.7%)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1.4	98.6
업종별	제품 디자인	4.7	95.3
	시각 디자인	0.0	100.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0.0	100.0
	공간 디자인	4.9	95.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100.0
	서비스/경험 디자인	0.2	99.8
	산업공예 디자인	0.3	99.7
	디자인 인프라	0.0	100.0

- 모든 권역, 업체 규모, 디자이너 고용, 외주 여부 등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률이 낮음

##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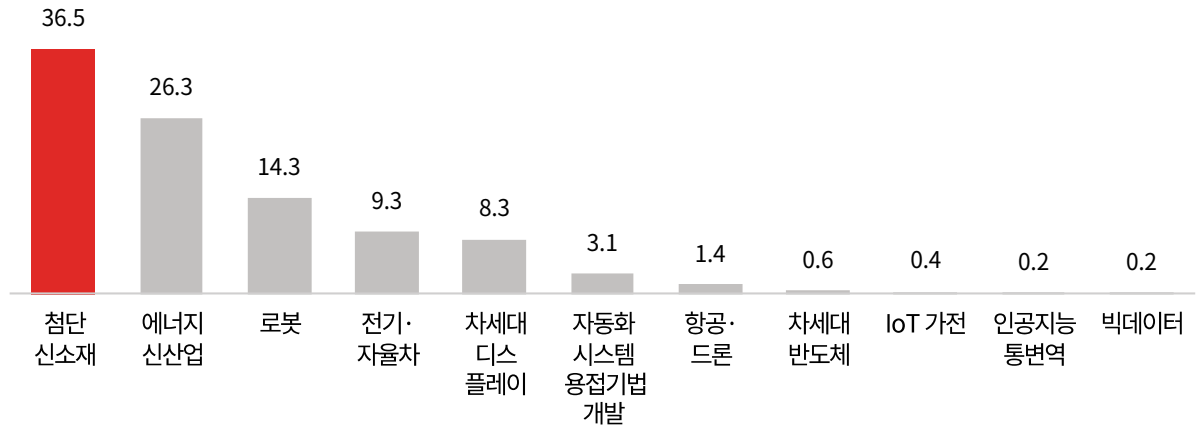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활용업체		1.4	98.6
권역별	서울	0.6	99.4
	부산/울산/경남	1.5	98.5
	대구/경북	2.1	97.9
	인천	1.1	98.9
	경기	1.9	98.1
	광주/전라	2.0	98.0
	대전/충청	2.6	97.4
	강원/제주	0.0	100.0
규모별	대기업	3.9	95.2
	중견기업	2.2	97.8
	중기업	1.9	98.1
	소기업	1.2	98.8
고용	디자이너 고용	1.4	98.6
	디자이너 비고용	1.4	98.6
외주	외주용역 있음	1.0	99.0
	외주용역 없음	1.8	98.2

### 5-1)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로는 ‘첨단신소재’(36.5%), ‘에너지 신산업’(26.3%), ‘로봇’(14.3%), ‘전기/자율차’(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첨단 신소재’는 산업공예 디자인(100.0%), 공간 디자인(42.2%), ‘에너지 신산업’은 서비스/경험 디자인(83.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첨단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로봇	전기/자율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동화 시스템 융접기법 개발	항공/드론	차세대 반도체	IoT 가전	인공지능 통번역	빅데이터
활용업체		36.5	26.3	14.3	9.3	8.3	3.1	1.4	0.6	0.4	0.2	0.2
업종별	제품 디자인	28.0	0.0	42.0	2.2	22.6	0.0	4.2	1.6	0.0	0.0	0.0
	시각 디자인	-	-	-	-	-	-	-	-	-	-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	-	-	-	-	-	-	-	-	-	-
	공간 디자인	42.2	38.8	0.0	13.9	0.9	5.0	0.0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	-	-	-	-	-	-	-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83.9	0.0	0.0	0.0	0.0	0.0	0.0	0.0	8.1	8.1
	산업공예 디자인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디자인 인프라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첨단 신소재’는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경기, 대전/충청, ‘IoT 가전’은 서울에서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가 진행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첨단 신소재’와 ‘IoT 가전’은 대기업(각각 47.8%, 1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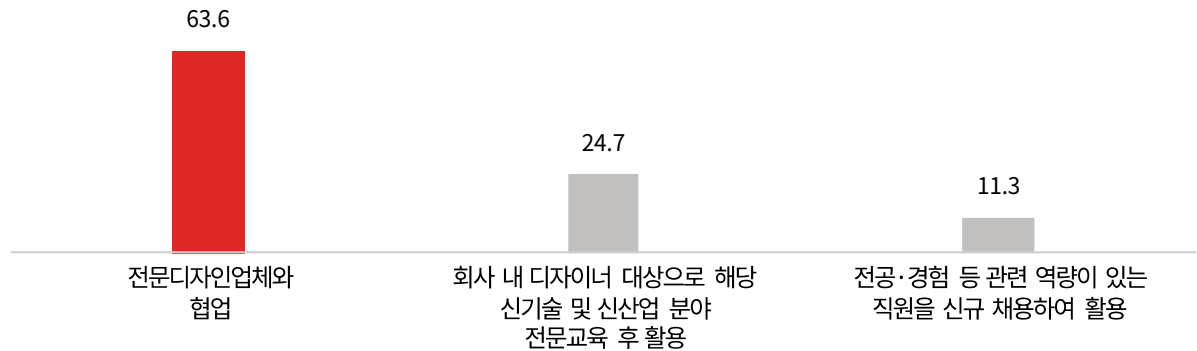
구분		첨단 신소재	에너지 신산업	로봇	전기/ 자율차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동화시스템 융접 기법 개발	항공/ 드론	차세대 반도체	IoT 가전	인공 지능 통번역	빅 데이터
활용업체		36.5	26.3	14.3	9.3	8.3	3.1	1.4	0.6	0.4	0.2	0.2
권역별	서울	0.0	44.5	0.0	0.0	50.9	0.0	0.0	0.0	3.0	0.0	1.5
	부산/울산/경남	71.0	0.0	0.0	1.6	0.0	27.4	0.0	0.0	0.0	0.0	0.0
	대구/경북	77.9	0.0	17.3	3.2	0.0	0.0	0.0	1.6	0.0	0.0	0.0
	인천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54.4	21.3	22.5	0.0	0.6	0.0	0.0	1.1	0.0	0.7	0.0
	광주/전라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대전/충청	7.2	0.0	29.6	54.3	3.6	0.0	8.9	0.0	0.0	0.0	0.0
	강원/제주	-	-	-	-	-	-	-	-	-	-	-
규모별	대기업	47.8	0.0	0.0	7.6	23.9	0.0	0.0	7.6	18.4	9.3	9.3
	중견기업	38.5	0.0	0.0	36.9	12.3	0.0	0.0	24.6	0.0	0.0	0.0
	중기업	35.8	46.7	12.3	0.0	0.0	0.0	5.1	0.0	0.0	0.0	0.0
	소기업	36.4	19.3	16.0	12.6	11.1	4.6	0.0	0.0	0.0	0.0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42.4	25.0	16.4	13.4	0.9	0.0	2.1	0.0	0.7	0.0	0.0
	디자이너 비고용	24.6	28.8	10.1	1.1	23.4	9.4	0.0	1.7	0.0	0.7	0.7
외주	외주용역 있음	24.1	28.3	10.0	1.7	22.9	9.2	0.0	1.7	1.3	0.7	0.7
	외주용역 없음	42.8	25.3	16.6	13.2	0.9	0.0	2.2	0.0	0.0	0.0	0.0

## 5-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방안은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63.6%),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교육 후 활용’(24.7%),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11.3%)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 모름/무응답 : 0.5%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은 디자인 인프라(100.0%), 공간 디자인(71.7%), 제품 디자인(55.4%)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구분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활용업체		63.6	24.7	11.3
업종별	제품 디자인	55.4	39.3	5.3
	시각 디자인	-	-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	-	-
	공간 디자인	71.7	16.8	11.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83.9
	산업공예 디자인	0.0	100.0	0.0
	디자인 인프라	100.0	0.0	0.0

-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 경기를 제외한 타 지역에서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이 높은 비중을 보임.  
규모별로는 중견기업(75.4%)과 소기업(76.3%)에서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은 경기(54.4%), 대기업(55.5%), 디자이너 고용 업체(35.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구분		전문디자인 업체와 협업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활용업체		63.6	24.7	11.3
권역별	서울	98.5	0.0	0.0
	부산/울산/경남	29.0	8.3	62.7
	대구/경북	73.0	25.5	1.6
	인천	100.0	0.0	0.0
	경기	44.4	54.4	0.6
	광주/전라	69.1	6.1	24.8
	대전/충청	78.6	12.5	8.9
	강원/제주	-	-	-
규모별	대기업	18.4	55.5	7.6
	중견기업	75.4	12.3	12.3
	중기업	36.3	25.0	38.7
	소기업	76.3	23.7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51.3	35.9	12.8
	디자이너 비고용	88.6	1.8	8.3
외주	외주용역 있음	88.2	2.3	8.1
	외주용역 없음	51.1	36.0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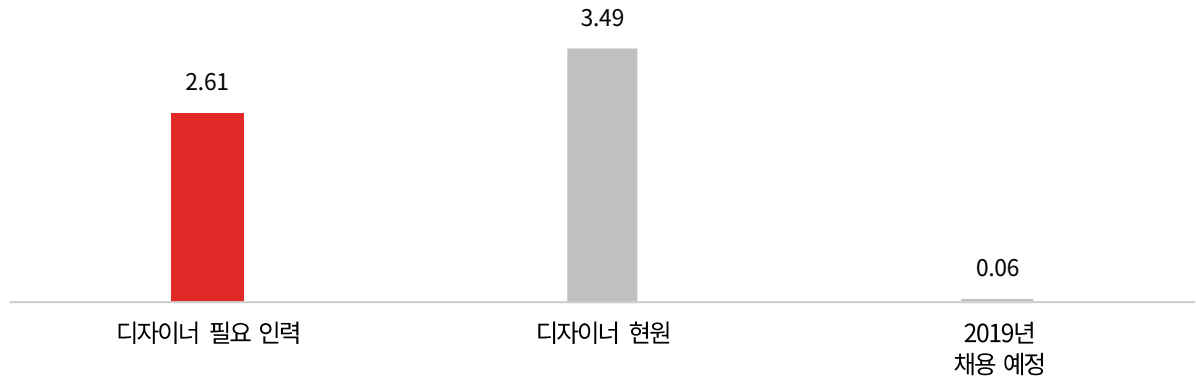
### 5-3)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평균 2.61명.

디자이너 현원은 3.49명, 2019년 채용 예정은 0.06명으로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공간 디자인(3.92명),

산업공예 디자인(3.00명)에서 높고, ‘디자이너 현원’은 산업공예 디자인(9.00명), ‘2019년 채용 예정’은 서비스/경험 디자인(1.16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명)

구분		디자이너 필요 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9년 채용 예정
활용업체		2.61	3.49	0.06
업종별	제품 디자인	0.36	1.02	0.00
	시각 디자인	-	-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	-	-
	공간 디자인	3.92	4.96	0.0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서비스/경험 디자인	1.16	0.16	1.16
	산업공예 디자인	3.00	9.00	0.00
	디자인 인프라	2.00	0.00	0.00

- 권역별로는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인천(40.00명), 부산/울산/경남(2.98명), ‘디자이너 현원’ 역시 인천(40.00명), 부산/울산/경남(5.99명), 2019년 채용 예정은 광주/전라(0.37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디자이너 필요인력’과 ‘디자이너 현원’은 중기업(각각 5.13명, 8.69명), ‘2019년 채용 예정’은 중견기업(0.77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명)

구분		디자이너 필요 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9년 채용 예정
활용업체		2.61	3.49	0.06
권역별	서울	0.09	0.02	0.03
	부산/울산/경남	2.98	5.99	0.00
	대구/경북	1.86	1.90	0.00
	인천	40.00	40.00	0.00
	경기	1.03	2.95	0.01
	광주/전라	1.94	0.69	0.37
	대전/충청	1.67	1.82	0.07
	강원/제주	-	-	-
규모별	대기업	0.98	2.97	0.37
	중견기업	0.77	0.51	0.77
	중기업	5.13	8.69	0.12
	소기업	1.66	1.42	0.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3.32	4.73	0.00
	디자이너 비고용	1.17	0.97	0.17
외주	외주용역 있음	1.17	0.96	0.17
	외주용역 없음	3.34	4.77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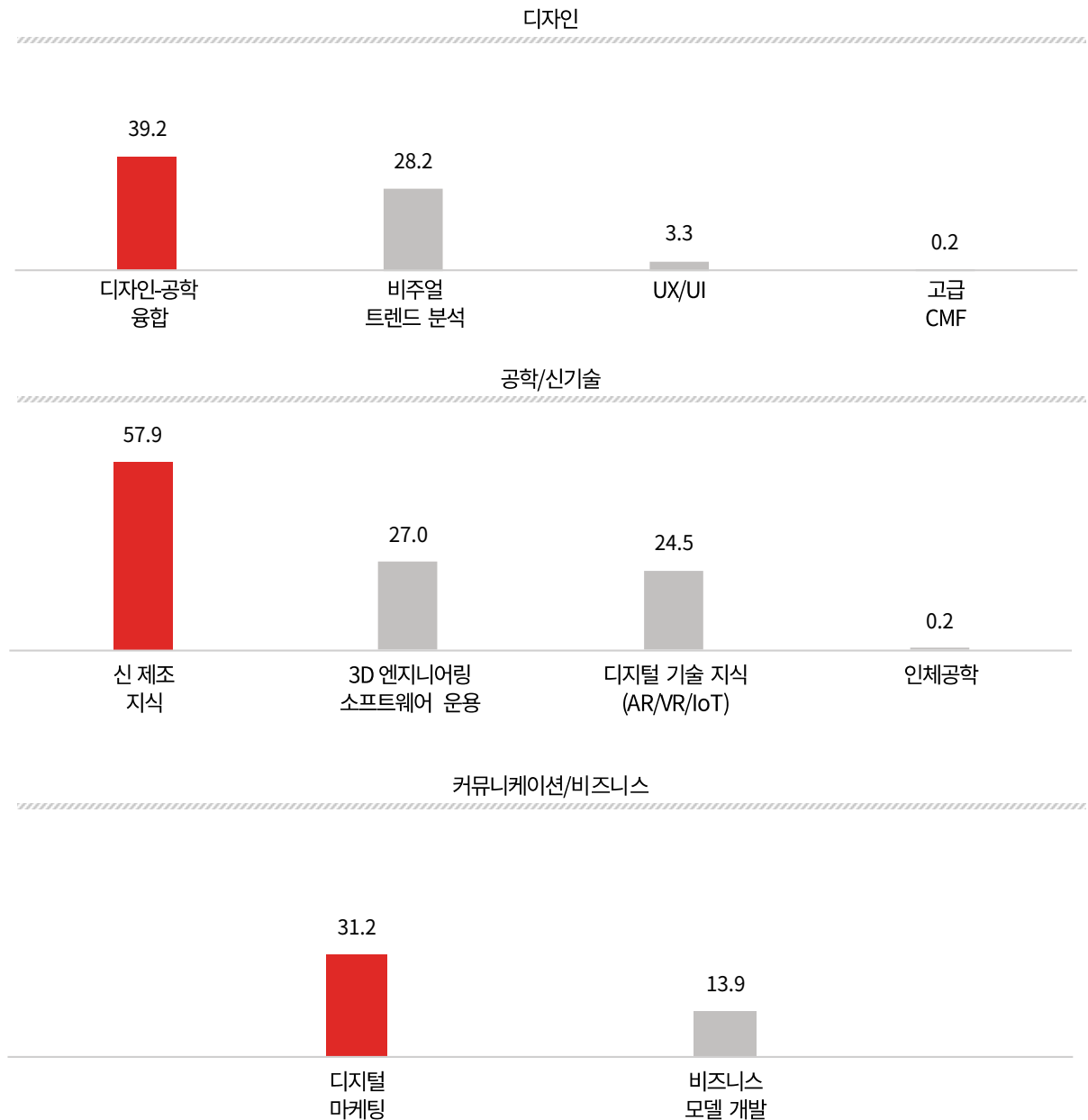
#### 5-4)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에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살펴보면,

[디자인] 분야에서는 ‘디자인-공학 융합’(39.2%)과 ‘비주얼 트렌드 분석’(28.2%), [공학/신기술]에서는 ‘신 제조 지식’(57.9%),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에서는 ‘디지털 마케팅’(31.2%)이 높게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단위: %)



※ 모름/무응답 : 0.5%

- 업종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공학 융합’은 제품 디자인(67.1%), ‘신 제조 지식’은 산업공예 디자인(100.0%), ‘디지털 마케팅’은 제품 디자인(89.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디자인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공학 융합	비주얼 트렌드 분석	UX/UI	고급 CMF
활용업체		39.2	28.2	3.3	0.2
업종별	제품 디자인	67.1	23.1	9.8	0.5
	시각 디자인	-	-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	-	-	
	공간 디자인	26.4	32.9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0.0	0.0	0.0	0.0
	디자인 인프라	0.0	0.0	0.0	0.0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공학·신기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신 제조 지식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디지털 기술 지식(AR/VR/IoT)	인체공학
활용업체		57.9	27.0	24.5	0.2
업종별	제품 디자인	37.1	23.1	40.9	0.5
	시각 디자인	-	-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	-	-	
	공간 디자인	71.8	27.2	12.5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83.9	83.9	0.0
	산업공예 디자인	100.0	0.0	0.0	0.0
	디자인 인프라	0.0	0.0	100.0	0.0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활용업체		31.2	13.9
업종별	제품 디자인	89.7	9.8
	시각 디자인	-	-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	-
	공간 디자인	0.9	14.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서비스/경험 디자인	0.0	0.0
	산업공예 디자인	0.0	100.0
	디자인 인프라	0.0	100.0

- 권역별로는 [디자인]의 ‘디자인-공학 융합’은 대구/경북(93.5%), 서울(50.9%), [공학/신기술]의 ‘신 제조 지식’은 부산/울산/경남(98.4%),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의 ‘디지털 마케팅’은 경기(51.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의 ‘디자인-공학 융합’은 중견기업(87.7%), [공학/신기술]의 ‘신 제조 지식’은 소기업(68.2%),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의 ‘디지털 마케팅’은 중견기업(49.2%)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디자인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공학 융합	비주얼 트렌드 분석	UX/UI	고급 CMF
활용업체		39.2	28.2	3.3	0.2
권역별	서울	50.9	0.0	0.0	0.0
	부산/울산/경남	1.6	27.4	0.0	0.0
	대구/경북	93.5	1.6	0.0	1.6
	인천	0.0	0.0	0.0	0.0
	경기	50.5	48.8	0.0	0.0
	광주/전라	0.0	0.0	0.0	0.0
	대전/충청	22.6	53.1	20.7	0.0
	강원/제주	-	-	-	-
규모별	대기업	7.6	7.6	0.0	7.6
	중견기업	87.7	12.3	0.0	0.0
	중기업	50.0	0.0	0.0	0.0
	소기업	34.8	40.9	4.9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45.3	25.9	0.0	0.3
	디자이너 비고용	26.8	32.8	10.1	0.0
외주	외주용역 있음	26.9	32.2	10.0	0.0
	외주용역 없음	45.4	26.1	0.0	0.3

» 권역별/규모별/고용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공학/신기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신 제조 지식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디지털 기술 지식(AR/VR/IoT)	인체공학
활용업체		57.9	27.0	24.5	0.2
권역별	서울	44.5	50.9	3.0	0.0
	부산/울산/경남	98.4	0.0	64.4	0.0
	대구/경북	77.9	1.6	20.5	0.0
	인천	0.0	100.0	0.0	0.0
	경기	49.4	21.9	29.2	0.6
	광주/전라	6.1	93.9	24.8	0.0
	대전/충청	86.3	0.0	13.7	0.0
	강원/제주	-	-	-	-
규모별	대기업	23.9	7.6	49.9	0.0
	중견기업	63.1	12.3	49.2	12.3
	중기업	35.8	44.6	53.2	0.0
	소기업	68.2	20.7	11.1	0.0
고용	디자이너 고용	53.4	25.0	32.1	0.0
	디자이너 비고용	67.0	31.1	8.8	0.6
외주	외주용역 있음	65.7	30.5	10.6	0.6
	외주용역 없음	53.9	25.3	31.5	0.0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발
활용업체		31.2	13.9
권역별	서울	50.9	3.0
	부산/울산/경남	1.6	8.3
	대구/경북	27.0	77.9
	인천	0.0	0.0
	경기	51.7	0.0
	광주/전라	0.0	0.0
	대전/충청	19.0	20.7
	강원/제주	-	-
규모별	대기업	39.2	42.3
	중견기업	49.2	0.0
	중기업	24.7	3.3
	소기업	33.2	17.6
고용	디자이너 고용	23.0	15.7
	디자이너 비고용	47.9	10.1
외주	외주용역 있음	47.5	11.3
	외주용역 없음	22.9	15.2



part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 제 2 장

## 전문디자인업체



## 02. 전문디자인업체

### 전문디자인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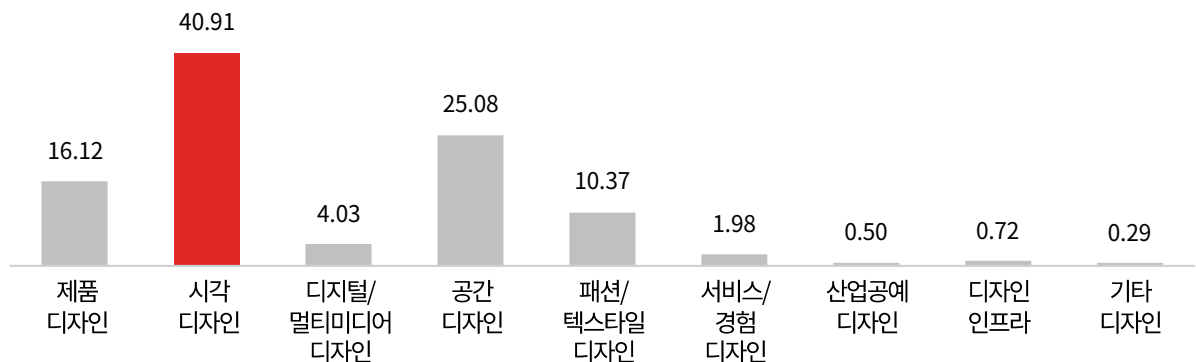
#### 1. 디자인 활용 현황

##### 1)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제공 분야

-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주로 제공하는 디자인 분야를 살펴본 결과, ‘시각 디자인’(40.91%)이 가장 많고, 이어 ‘공간 디자인’(25.08%), ‘제품 디자인’(16.1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0.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디자인 제공 분야

(단위: %)



- 각 업종별로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시각 디자인’은 시각 디자인(74.67%)과 ‘공간 디자인’은 인테리어 디자인(79.59%)에서 더욱 높음.

#### »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제공 분야

(단위: %)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16.12	40.91	4.03	25.08	10.37	1.98	0.50	0.72	0.29
업종별	제품 디자인	49.54	33.69	2.77	6.54	2.11	2.73	1.55	1.06	0.00
	시각 디자인	5.21	74.67	6.32	10.04	1.15	1.53	0.03	0.51	0.55
	인테리어 디자인	5.64	10.58	1.49	79.59	1.03	0.74	0.13	0.64	0.1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39	15.63	4.18	8.32	58.93	3.79	0.61	0.81	0.33

- 주로 제공하는 디자인 분야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 디자인’ 분야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었으며, 특히 대전/충청(83.37%)과 광주/전라(53.61%)에서 가장 높음. 한편, ‘제품 디자인’은 인천(26.18%)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사업체 규모 단위에서 ‘시각 디자인’이 주요 제공 분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1인’ 규모의 경우 48.69%로 가장 높음.
- 매출 구성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시각 디자인’ 분야를 가장 많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공간 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매출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8.5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업체의 주요 제공 분야**

(단위: %)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 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b>전문디자인업체</b>		<b>16.12</b>	<b>40.91</b>	<b>4.03</b>	<b>25.08</b>	<b>10.37</b>	<b>1.98</b>	<b>0.50</b>	<b>0.72</b>	<b>0.29</b>
<b>권역별</b>	서울	18.63	33.19	3.28	28.20	13.05	2.46	0.08	0.72	0.38
	부산/울산/경남	11.44	48.91	4.20	24.10	8.11	3.25	0.00	0.00	0.00
	대구/경북	6.82	43.84	3.74	28.53	11.41	1.52	1.88	1.81	0.47
	인천	26.18	19.90	16.47	19.90	17.55	0.00	0.00	0.00	0.00
	경기	14.42	41.65	5.73	21.28	12.17	1.42	1.96	0.93	0.43
	광주/전라	17.00	53.61	5.58	21.38	0.31	0.64	0.70	0.78	0.00
	대전/충청	10.36	83.37	2.01	3.94	0.00	0.32	0.00	0.00	0.00
	강원/제주	17.37	60.12	3.64	18.41	0.00	0.00	0.46	0.00	0.00
<b>규모별</b>	1인	8.76	48.69	1.28	22.32	18.44	0.17	0.00	0.34	0.00
	2~4인	14.42	41.89	3.85	24.43	11.44	1.69	0.91	0.83	0.54
	5~9인	19.17	38.67	4.31	27.44	6.28	3.22	0.21	0.71	0.00
	10~14인	29.94	34.42	7.73	23.58	0.00	2.70	0.00	0.90	0.72
	15인 이상	23.66	27.49	8.45	28.44	8.29	2.84	0.19	0.64	0.00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17.60	37.19	4.10	26.16	11.39	2.20	0.57	0.73	0.06
	기타매출 50% ↑	5.38	71.01	2.39	16.24	2.05	0.30	0.00	0.45	2.18
	반반	6.00	31.73	15.93	28.54	13.82	1.73	0.00	2.25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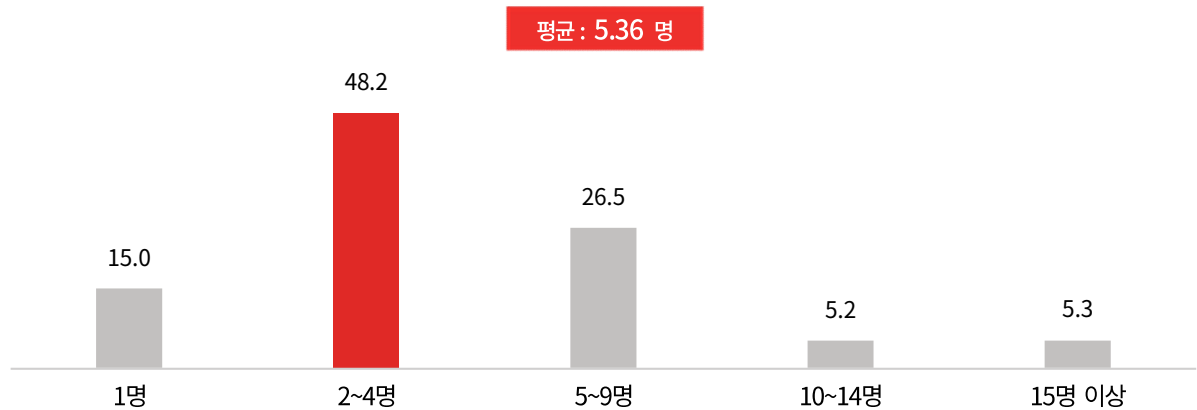
## 2) 직원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5.36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4명'이 4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명'(26.5%), '1명'(15.0%), '10~14명'(5.2%), '15명 이상'(5.3%)의 순으로 나타남.

### » 직원 수

(단위: %)



- 모든 전문디자인 업종에서 '2~4명' 규모 업체 비율이 가장 높고, 종사자 수가 '1명'인 업체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3.9%), '5~9명' 업체는 시각 디자인(29.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인테리어 디자인의 평균 종사자 수는 6.16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임.

### » 업종별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5.0	48.2	26.5	5.2	5.3	5.36
업종별	제품 디자인	8.8	52.5	22.2	10.3	6.2	5.58
	시각 디자인	14.5	49.6	29.2	3.1	3.6	5.00
	인테리어 디자인	16.1	42.2	28.7	5.9	7.0	6.1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3.9	46.7	22.8	1.2	5.3	4.69

- 권역별 전문디자인업체 종사자 수는 서울(5.93명)이 가장 높고, 대구/경북(5.55명), 부산/울산/경남(5.43명)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2.95명)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11.80명으로 가장 높고,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5.37명),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4.66명)의 순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5.0	48.2	26.5	5.2	5.3	5.36
권역별	서울	14.5	44.0	28.3	5.6	7.7	5.93
	부산/울산/경남	20.5	51.7	21.9	.5	5.3	5.43
	대구/경북	10.7	58.0	18.8	7.8	4.6	5.55
	인천	52.6	6.2	41.1	0.0	0.0	2.95
	경기	13.6	49.6	30.4	4.9	1.5	4.40
	광주/전라	14.8	55.0	24.2	5.0	1.0	4.26
	대전/충청	14.8	63.2	17.2	4.8	0.0	3.79
	강원/제주	6.7	57.7	25.6	10.1	0.0	4.47
규모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4인	0.0	100.0	0.0	0.0	0.0	2.90
	5~9인	0.0	0.0	100.0	0.0	0.0	6.40
	10~14인	0.0	0.0	0.0	100.0	0.0	11.38
	15인 이상	0.0	0.0	0.0	0.0	100.0	29.11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14.0	48.4	26.5	5.7	5.4	5.37
	기타매출 50% ↑	24.2	48.0	24.0	1.3	2.5	4.66
	반반	0.0	30.1	47.4	0.0	22.5	1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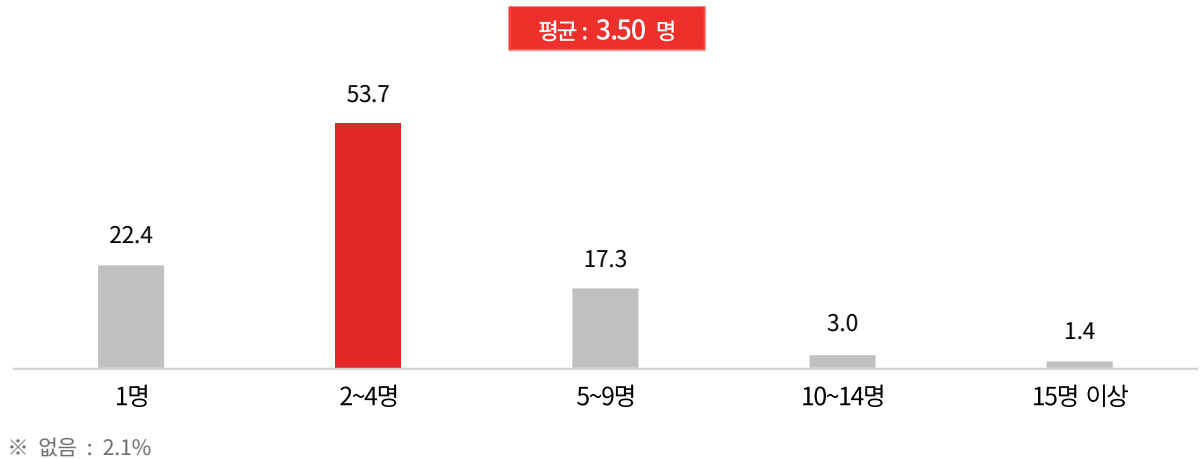
## 2-1) 디자인 부서 직원 수

- 디자인 부서 내 총 종사자 수는 업체 평균 3.50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2~4명'이 53.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22.4%), '5~9명'(17.3%), '10~14명'(3.0%), '15명 이상'(1.4%) 순으로 높음.

### »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는 제품 디자인(3.79명), 시각 디자인(3.57명), 인테리어 디자인(3.55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81명)의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2.44	53.74	17.32	3.03	1.36	3.50
업종별	제품 디자인	16.18	57.11	18.91	4.46	1.48	3.79
	시각 디자인	19.01	54.00	19.95	2.77	1.61	3.57
	인테리어 디자인	23.20	55.77	14.61	2.47	1.11	3.5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9.09	44.99	12.64	2.31	0.97	2.81

- 권역별 디자인 부서 평균 종사자 수는 서울(3.97명), 대구/경북(3.21명), 강원/제주(3.10명)의 순으로 높았으며, 인천(2.41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5인 이상 규모 업체의 디자인 부서 종사자 수는 평균 12.48명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64명),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3.08명),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42명)의 순서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2.44	53.74	17.32	3.03	1.36	3.50
권역별	서울	22.04	49.96	18.89	4.35	2.22	3.97
	부산/울산/경남	28.74	56.35	9.94	1.71	0.86	2.75
	대구/경북	21.46	59.87	14.34	3.26	1.07	3.21
	인천	52.64	29.77	17.59	0.00	0.00	2.41
	경기	18.92	60.60	18.59	0.00	0.00	2.92
	광주/전라	24.95	54.87	18.72	1.47	0.00	2.88
	대전/충청	20.35	52.57	16.52	3.16	0.00	3.09
	강원/제주	6.68	83.22	10.10	0.00	0.00	3.10
규모별	1인	89.39	0.00	0.00	0.00	0.00	0.89
	2~4인	16.95	81.98	0.00	0.00	0.00	2.29
	5~9인	3.22	45.91	50.88	0.00	0.00	4.59
	10~14인	0.00	18.46	48.97	32.57	0.00	7.49
	15인 이상	0.94	22.16	25.41	25.60	25.89	12.4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21.61	53.50	18.24	3.45	1.48	3.64
	기타매출 50% ↑	31.00	54.15	9.01	0.00	0.56	2.42
	반반	0.00	69.87	30.13	0.00	0.00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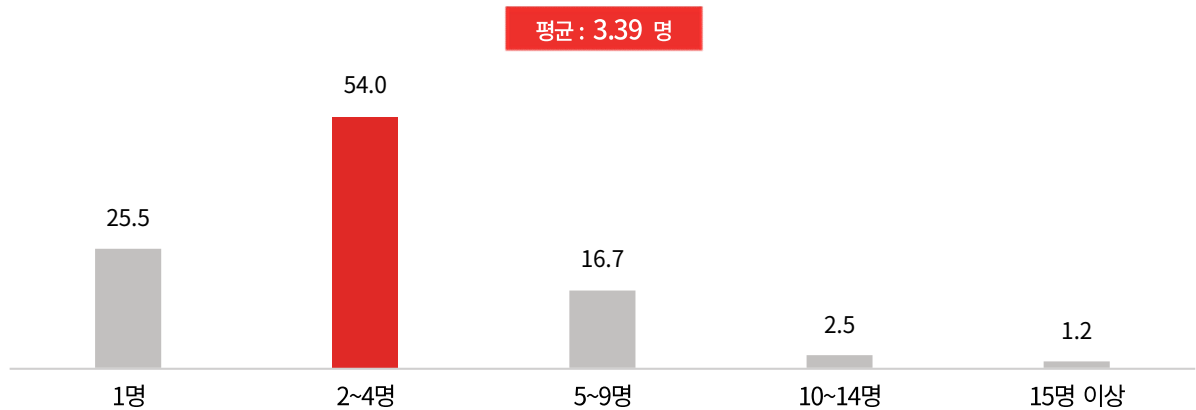
## 2-2)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수는 평균 3.39명인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분석해 보면, '2~4명'이 54.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명'(25.5%), '5~9명' (16.7%), '10~14명'(2.5%), '15명 이상'(1.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 디자이너 수는 제품 디자인이 평균 3.7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각 디자인(3.52명), 인테리어 디자인(3.27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2.72명)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5.5	54.0	16.7	2.5	1.2	3.39
업종별	제품 디자인	18.0	57.8	18.8	3.9	1.5	3.73
	시각 디자인	21.7	54.8	19.7	2.3	1.6	3.52
	인테리어 디자인	27.4	57.1	13.3	1.8	0.4	3.2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3.4	41.7	11.6	2.3	1.0	2.72

- 권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디자이너 수가 평균 3.8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대전/충청(3.16명), 강원/제주(3.10명), 대구/경북(3.05명) 등의 순을 보인 가운데, 인천은 2.41명으로 평균 디자이너 수가 가장 낮음.
- 규모별로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규모는 평균 11.87명의 디자이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52명),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73명),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39명)의 순서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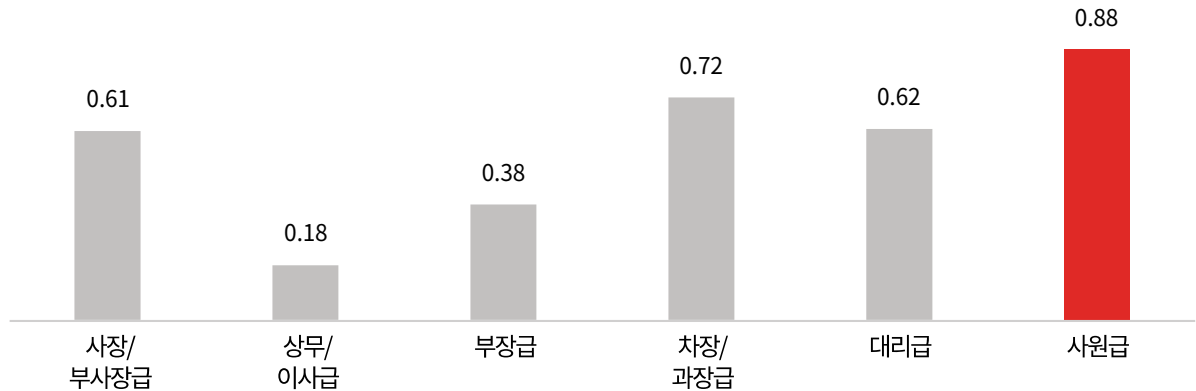
구분		1명	2~4명	5~9명	10~14명	15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25.5	54.0	16.7	2.5	1.2	3.39
권역별	서울	25.6	51.0	17.7	3.8	1.9	3.82
	부산/울산/경남	28.7	58.8	10.6	1.0	0.9	2.75
	대구/경북	22.6	59.5	15.2	1.7	1.1	3.05
	인천	52.6	29.8	17.6	0.0	0.0	2.41
	경기	25.6	55.8	18.6	0.0	0.0	2.82
	광주/전라	24.9	55.7	17.9	1.5	0.0	2.82
	대전/충청	27.8	52.6	16.5	3.2	0.0	3.16
	강원/제주	6.7	83.2	10.1	0.0	0.0	3.10
규모별	1인	100.0	0.0	0.0	0.0	0.0	1.00
	2~4인	18.7	81.3	0.0	0.0	0.0	2.26
	5~9인	5.8	46.7	47.5	0.0	0.0	4.44
	10~14인	0.0	25.4	50.3	24.3	0.0	6.86
	15인 이상	0.9	22.2	29.6	24.6	22.7	11.8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23.8	54.4	17.6	2.8	1.4	3.52
	기타매출 50% ↑	39.8	50.7	9.0	0.6	0.0	2.39
	반반	17.3	52.6	30.1	0.0	0.0	2.73

## 2-2-1) 직급별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직급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사원급’이 0.8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차장/과장급’(0.72명), ‘대리급’(0.62명), ‘사장/부사장급’(0.61명) 등의 순임.

### »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사원급’은 시각 디자인(1.00명), 제품 디자인(0.94명)에서 가장 높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0.68명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모든 업종에서 ‘상무/이사급’의 디자이너 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한편, ‘차장/과장급’과 ‘대리급’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각각 0.41명, 0.44명)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업종별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사장/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장/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전문디자인업체		0.61	0.18	0.38	0.72	0.62	0.88
업종별	제품 디자인	0.66	0.24	0.48	0.77	0.63	0.94
	시각 디자인	0.62	0.20	0.32	0.78	0.62	1.00
	인테리어 디자인	0.52	0.14	0.42	0.79	0.73	0.6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69	0.10	0.29	0.41	0.44	0.78

-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원급’은 서울(1.07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강원/제주(0.42명)는 ‘사원급’ 디자이너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차장/과장급’과 ‘대리급’은 서울(각각 0.76명, 0.69명)에서, ‘사장/부사장급’은 인천(1.00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사장/부사장급’과 ‘차장/과장급’을 제외하고 모든 직급의 디자이너 수가 디자인 매출이 높은 업체에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직급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사장/ 부사장급	상무/ 이사급	부장급	차장/ 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전문디자인업체		0.61	0.18	0.38	0.72	0.62	0.88
권역별	서울	0.66	0.22	0.43	0.76	0.69	1.07
	부산/울산/경남	0.48	0.05	0.21	0.70	0.56	0.76
	대구/경북	0.51	0.08	0.39	0.74	0.61	0.71
	인천	1.00	0.00	0.70	0.18	0.06	0.47
	경기	0.64	0.12	0.24	0.72	0.50	0.60
	광주/전라	0.51	0.20	0.27	0.62	0.58	0.64
	대전/충청	0.58	0.24	0.48	0.63	0.53	0.70
	강원/제주	0.63	0.30	0.56	0.59	0.60	0.42
규모별	1인	0.92	0.00	0.01	0.04	0.02	0.00
	2~4인	0.62	0.08	0.22	0.44	0.36	0.53
	5~9인	0.49	0.27	0.53	1.09	0.84	1.22
	10~14인	0.67	0.62	0.97	1.36	1.37	1.87
	15인 이상	0.27	0.67	1.43	2.78	2.82	3.8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0.61	0.20	0.39	0.75	0.65	0.91
	기타매출 50% ↑	0.63	0.05	0.24	0.43	0.41	0.63
	반반	0.78	0.00	0.22	1.13	0.00	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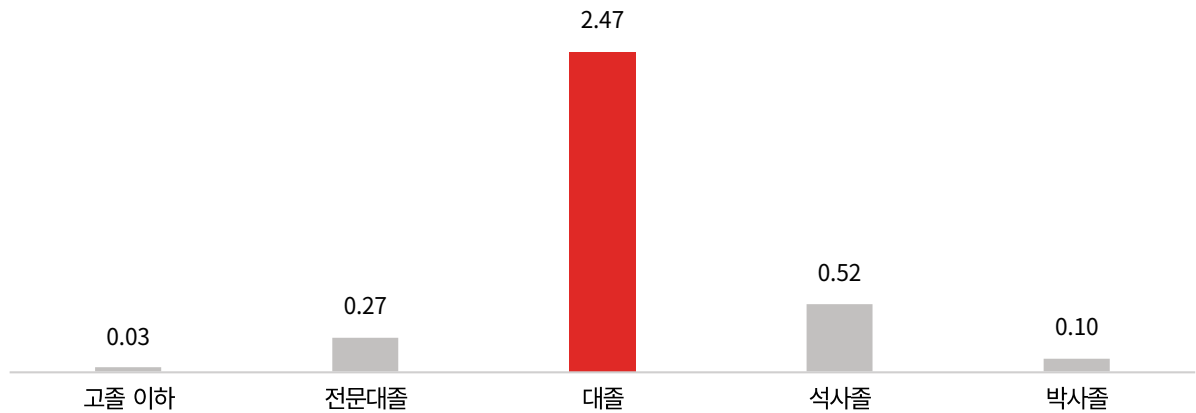
## 2-2-2) 학력별 디자이너 수

- 학력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대졸’이 2.47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석사’(0.52명), ‘전문대졸업’(0.27), ‘박사’(0.10명), ‘고졸이하’(0.03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대졸’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제품 디자인(3.05명)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석사’ 디자이너 수는 시각 디자인(0.7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문디자인업체		0.03	0.27	2.47	0.52	0.10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1	0.30	3.05	0.34	0.04
	시각 디자인	0.03	0.35	2.33	0.70	0.11
	인테리어 디자인	0.05	0.23	2.46	0.49	0.0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2	0.11	1.92	0.44	0.22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대졸’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난 가운데, 특히 서울(2.82명), 강원/제주(2.49명)에서 가장 높았음. 반면 인천은 1.36명으로 ‘대졸’ 디자이너를 상대적으로 낮게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대졸’ 디자이너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대졸’ 디자이너 수가 높게 나타남. 15인 이상의 경우 ‘대졸’ 디자이너 수가 평균 9.19명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학력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전문디자인업체		0.03	0.27	2.47	0.52	0.10
권역별	서울	0.04	0.28	2.82	0.56	0.12
	부산/울산/경남	0.08	0.27	2.05	0.36	0.09
	대구/경북	0.00	0.17	2.24	0.58	0.07
	인천	0.00	0.00	1.36	0.71	0.35
	경기	0.02	0.27	1.81	0.60	0.12
	광주/전라	0.00	0.30	2.16	0.33	0.05
	대전/충청	0.02	0.40	2.11	0.59	0.03
	강원/제주	0.03	0.10	2.49	0.32	0.12
규모별	1인	0.00	0.12	0.53	0.21	0.16
	2~4인	0.00	0.19	1.66	0.33	0.07
	5~9인	0.06	0.30	3.27	0.72	0.13
	10~14인	0.25	0.75	4.72	1.05	0.09
	15인 이상	0.02	0.85	9.19	1.68	0.13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0.03	0.28	2.60	0.51	0.11
	기타매출 50% ↑	0.00	0.20	1.43	0.66	0.10
	반반	0.00	0.00	2.13	0.6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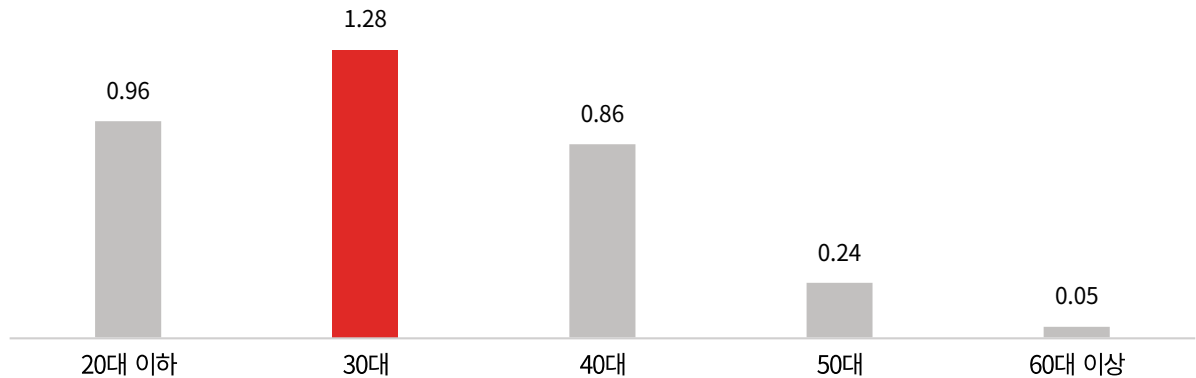
### 2-2-3) 연령별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연령별 디자이너 수 평균을 살펴보면, '30대'의 디자이너 수 평균이 1.28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20대 이하'(0.96명), '40대'(0.86명), '50대'(0.24명), '60대 이상'(0.05명)의 순으로 높음.

#### »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30대'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제품 디자인(1.59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편, '20대 이하' 디자이너는 제품 디자인(1.1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0.96	1.28	0.86	0.24	0.05
업종별	제품 디자인	1.10	1.59	0.80	0.23	0.01
	시각 디자인	0.97	1.27	0.97	0.24	0.08
	인테리어 디자인	1.00	1.13	0.89	0.24	0.0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65	1.04	0.61	0.28	0.09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30대’ 디자이너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전/충청(1.45명), 서울(1.43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0대 이하’ 디자이너 수는 서울(1.16명)과 광주/전라(0.89명)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40대’ 디자이너 수는 대전/충청(1.03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20대 이하’와 ‘30대’, ‘40대’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20대 이하’(1.02명), ‘30대’(1.32명)의 디자이너 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30대’ 디자이너 수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1.13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연령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0.96	1.28	0.86	0.24	0.05
권역별	서울	1.16	1.43	0.92	0.24	0.07
	부산/울산/경남	0.87	1.08	0.55	0.17	0.09
	대구/경북	0.75	1.01	0.93	0.35	0.01
	인천	0.30	0.88	0.88	0.35	0.00
	경기	0.58	1.10	0.83	0.30	0.01
	광주/전라	0.89	1.08	0.63	0.21	0.00
	대전/충청	0.51	1.45	1.03	0.12	0.05
	강원/제주	0.72	1.16	0.97	0.18	0.07
규모별	1인	0.02	0.20	0.49	0.22	0.06
	2~4인	0.49	0.87	0.67	0.20	0.04
	5~9인	1.38	1.63	1.10	0.28	0.05
	10~14인	2.28	2.71	1.21	0.47	0.18
	15인 이상	4.51	4.93	2.00	0.29	0.01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1.02	1.32	0.87	0.25	0.06
	기타매출 50% ↑	0.51	0.93	0.72	0.23	0.00
	반반	0.60	1.13	1.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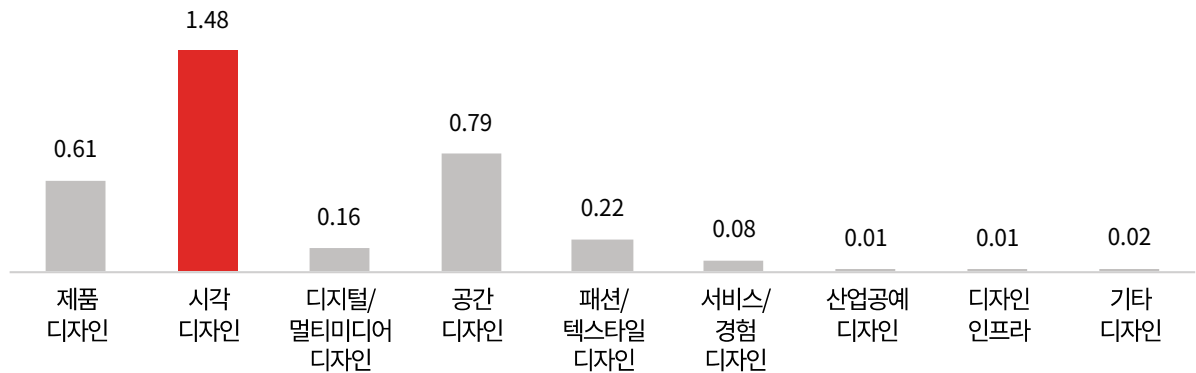


## 2-2-4)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영역별로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가 평균 1.4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간 디자인’(0.79명), ‘제품 디자인’(0.61명)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각 업종별로 해당 영역의 디자이너 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업종별로 보면 ‘시각 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는 시각 디자인에서 2.58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0.61	1.48	0.16	0.79	0.22	0.08	0.01	0.01	0.02
업종별	제품 디자인	1.86	1.40	0.05	0.18	0.04	0.13	0.03	0.04	0.02
	시각 디자인	0.21	2.58	0.28	0.30	0.01	0.08	0.02	0.00	0.04
	인테리어 디자인	0.16	0.50	0.11	2.44	0.01	0.04	0.00	0.00	0.0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35	0.44	0.11	0.43	1.29	0.06	0.00	0.03	0.01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시각 디자인’ 분야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대전/충청(2.47명)에서 높게 나타남.  
‘공간 디자인’ 영역은 서울(1.08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시각 디자인’ 영역 디자이너 수가 가장 높았으며, 규모가 클수록 ‘시각 디자인’ 디자이너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 디자이너의 수는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46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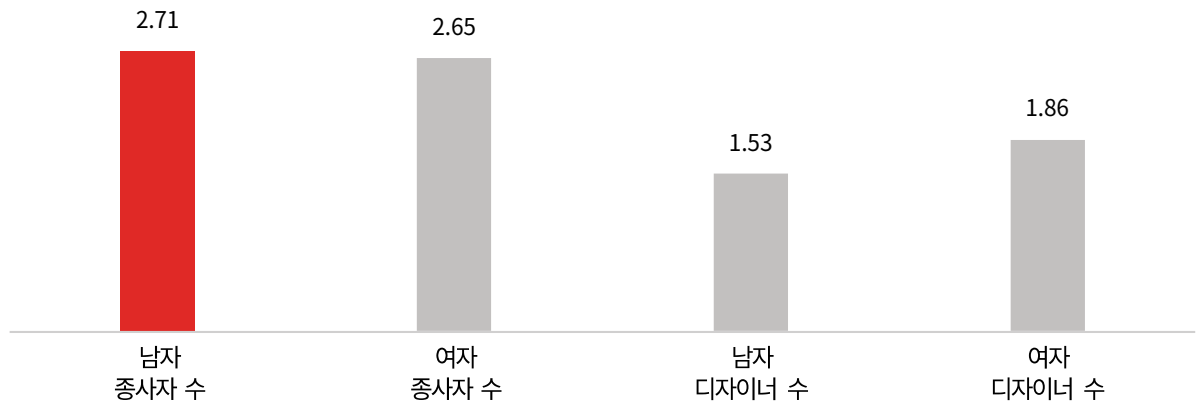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 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 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0.61	1.48	0.16	0.79	0.22	0.08	0.01	0.01	0.02
권역별	서울	0.67	1.42	0.18	1.08	0.30	0.11	0.01	0.03	0.03
	부산/울산/경남	0.57	1.36	0.12	0.49	0.13	0.06	0.00	0.00	0.02
	대구/경북	0.32	1.67	0.10	0.70	0.19	0.06	0.00	0.00	0.01
	인천	1.18	0.18	0.71	0.18	0.18	0.00	0.00	0.00	0.00
	경기	0.46	1.50	0.11	0.41	0.23	0.06	0.04	0.00	0.01
	광주/전라	0.75	1.44	0.17	0.40	0.00	0.02	0.03	0.00	0.01
	대전/충청	0.36	2.47	0.14	0.12	0.00	0.02	0.06	0.00	0.00
	강원/제주	0.66	1.74	0.09	0.57	0.00	0.00	0.05	0.00	0.00
규모별	1인	0.08	0.51	0.00	0.22	0.20	0.00	0.00	0.00	0.00
	2~4인	0.31	1.04	0.06	0.55	0.20	0.04	0.01	0.02	0.02
	5~9인	0.91	1.89	0.17	1.07	0.20	0.12	0.02	0.02	0.03
	10~14인	2.03	2.61	0.66	1.29	0.02	0.17	0.04	0.00	0.04
	15인 이상	1.99	5.16	0.95	2.66	0.69	0.38	0.01	0.00	0.0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0.69	1.46	0.17	0.83	0.24	0.09	0.02	0.02	0.02
	기타매출 50% ↑	0.06	1.67	0.08	0.50	0.02	0.00	0.00	0.00	0.06
	반반	0.00	1.51	0.30	0.75	0.17	0.00	0.00	0.00	0.00

## 2-2-5)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종사자 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자 종사자 수는 평균 2.71명, 여자 종사자 수는 평균 2.65명으로 남자 종사자 수가 여자 종사자 수 대비 높게 나타남.
- 반면, 디자이너 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여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86명, 남자 디자이너 수는 평균 1.53명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높음.

### »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 종사자 성별은 제품 디자인(3.19명)과 인테리어 디자인(3.53명)에서는 남자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 디자인(2.84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58명)에서는 여자 종사자 수가 높게 나타남. 한편,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남녀 성별 종사자 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디자이너의 경우, 제품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전문디자인업체		2.71	2.65	1.53	1.86
업종별	제품 디자인	3.19	2.39	1.96	1.78
	시각 디자인	2.16	2.84	1.46	2.06
	인테리어 디자인	3.53	2.65	1.45	1.8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11	2.58	1.15	1.57

-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충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평균 남자 종사자 수가 평균 여자 종사자 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에서 평균 남자 종사자 수가 2.94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디자이너의 경우 인천,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남자 디자이너 수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2.13명)과 대전/충청(1.84명)에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나누어 분석하면,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남자 종사자 수가 여자 종사자 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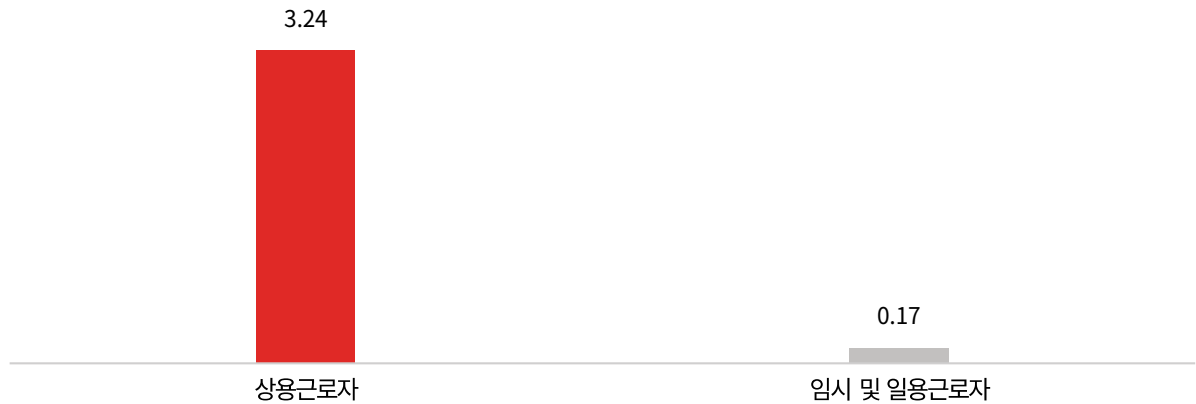
구분		남자 종사자 수	여자 종사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전문디자인업체		2.71	2.65	1.53	1.86
권역별	서울	2.90	3.03	1.69	2.13
	부산/울산/경남	2.94	2.54	1.10	1.66
	대구/경북	3.00	2.55	1.39	1.66
	인천	1.82	1.12	1.59	0.83
	경기	2.28	2.12	1.37	1.46
	광주/전라	2.29	1.97	1.33	1.49
	대전/충청	1.61	2.18	1.32	1.84
	강원/제주	2.70	1.77	1.86	1.25
규모별	1인	0.76	0.24	0.76	0.24
	2~4인	1.44	1.47	1.01	1.25
	5~9인	3.19	3.21	1.98	2.46
	10~14인	5.70	5.68	3.03	3.83
	15인 이상	14.60	14.51	4.76	7.11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2.66	2.72	1.57	1.95
	기타매출 50% ↑	2.65	2.01	1.18	1.21
	반반	8.56	3.24	1.30	1.43

## 2-2-6) 근로자 형태별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근로자 형태별 평균 디자이너 수는 ‘상용근로자’가 평균 3.24명,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0.17명으로 나타남.

### »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평균 상용근로자의 디자이너 수는 제품 디자인에서 3.70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3.23명), 시각 디자인(3.20명), 패션/텍스타일디자인(2.65명)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전문디자인업체		3.24	0.17
업종별	제품 디자인	3.70	0.03
	시각 디자인	3.20	0.34
	인테리어 디자인	3.23	0.0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65	0.07

- 권역별로 디자인업체 디자이너 수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 서울이 평균 3.65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대전/충청(3.16명), 강원/제주(3.10명) 등의 순임. 반면, 인천 2.41명으로 가장 적은 종사자 수를 보임.
- 규모별로는 규모가 클수록 ‘상용근로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용근로자’ 수가 11.75명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는, ‘상용근로자’ 수 평균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3.3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2.43명),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26명)의 순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전문디자인업체 근로자형태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b>전문디자인업체</b>		<b>3.24</b>	<b>0.17</b>
<b>권역별</b>	서울	3.65	0.20
	부산/울산/경남	2.65	0.11
	대구/경북	3.04	0.01
	인천	2.41	0.00
	경기	2.49	0.38
	광주/전라	2.76	0.05
	대전/충청	3.16	0.00
	강원/제주	3.10	0.00
<b>규모별</b>	1인	1.00	0.01
	2~4인	2.20	0.06
	5~9인	4.09	0.37
	10~14인	6.49	0.62
	15인 이상	11.75	0.12
<b>매출구성</b>	디자인매출 50% ↑	3.38	0.17
	기타매출 50% ↑	2.26	0.12
	반반	2.43	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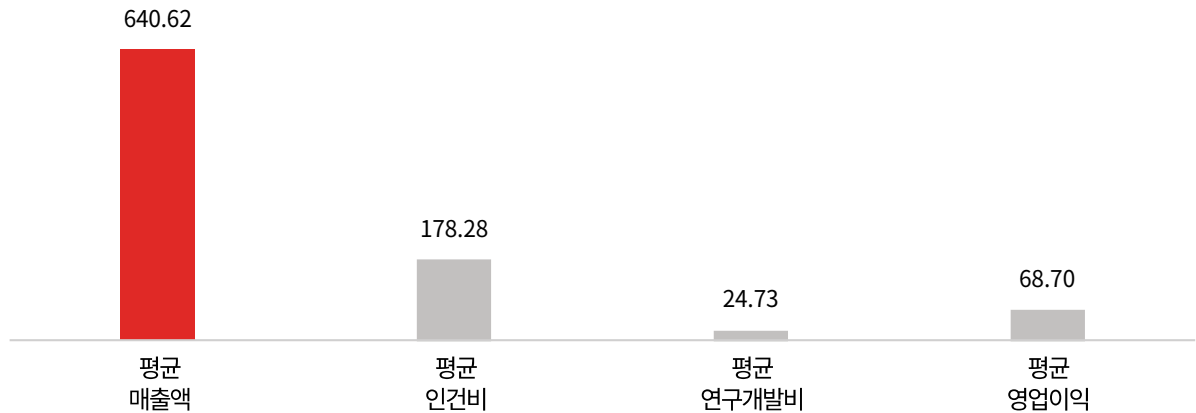
### 3)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 전문디자인업체의 2017년 ‘매출액’은 평균 6억 4,062만원임.

‘인건비’는 평균 1억 7,828만원, ‘연구개발비’는 평균 2,473만원, ‘영업이익’은 평균 6,870만원으로 나타남.

#### »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 업종별 살펴본 결과, 평균 ‘매출액’은 인테리어 디자인이 9억 6,624만원으로 가장 높고, 선/텍스타일디자인(6억 4,854만원), 제품 디자인(6억 1,302만원), 시각 디자인(4억 5,376만원) 순서로 나타남.

#### » 업종별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전문디자인업체		640.62	178.28	24.73	68.70
업종별	제품 디자인	613.02	174.92	44.95	78.13
	시각 디자인	453.76	170.83	22.75	60.23
	인테리어 디자인	966.24	207.06	13.23	82.6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48.54	158.57	15.98	54.15

- 권역별로 살펴보면, 평균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투자 현황에서 서울이 가장 높은 액수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평균 ‘매출액’ 7억 6,441만원, ‘인건비’ 2억 357만원, ‘영업이익’ 7,492만원을 보임. ‘연구개발비’는 대전/충청(2,807만원)에서 가장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모든 재무 및 투자 현황에서 높은 액수를 보임.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각각 6억 7,433만원, 2,626만원)에서 가장 높은 액수를 보임. ‘인건비’와 ‘영업이익’은 디자인과 기타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각각 2억 7,165만원, 1억 51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재무 및 투자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매출액	인건비	연구개발비	영업이익
<b>전문디자인업체</b>		<b>640.62</b>	<b>178.28</b>	<b>24.73</b>	<b>68.70</b>
<b>권역별</b>	서울	764.41	203.57	27.52	74.92
	부산/울산/경남	447.06	155.97	21.08	52.70
	대구/경북	683.71	159.68	27.15	57.84
	인천	156.61	99.91	17.49	35.97
	경기	485.69	151.82	18.40	64.54
	광주/전라	473.68	125.81	21.33	59.16
	대전/충청	435.91	167.52	28.07	73.15
	강원/제주	468.03	152.25	11.10	92.05
<b>규모별</b>	1인	121.81	44.58	1.32	14.50
	2~4인	401.36	103.11	10.33	57.26
	5~9인	809.90	220.88	23.48	84.28
	10~14인	1,456.70	365.38	84.63	103.57
	15인 이상	2,655.02	849.05	170.58	215.05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674.33	182.77	26.26	69.93
	기타매출 50% ↑	390.42	134.79	12.59	55.82
	반반	471.07	271.65	25.69	10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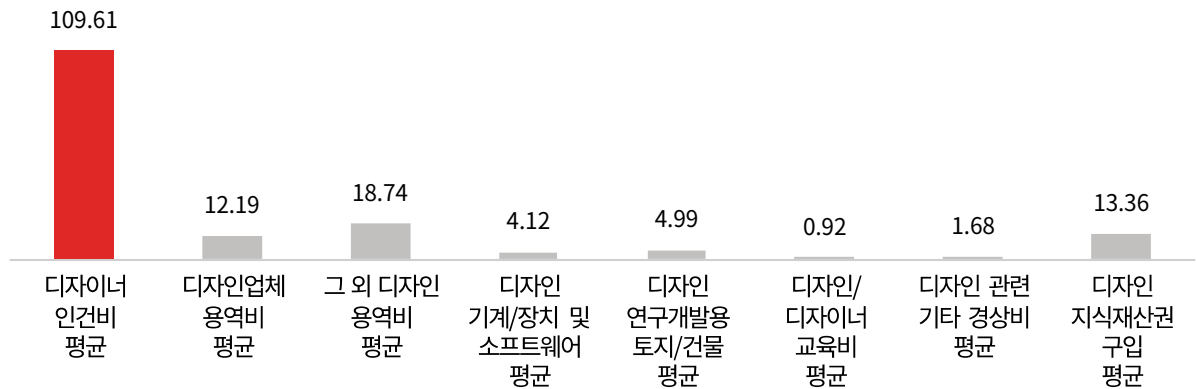


### 3-1) 2017년 디자인 사업비

- 전문디자인업체의 2017년 디자인 사업비는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가 1억 961만원으로 가장 높음. 이어 ‘그 외 디자인업체 용역비’(1,874만원),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1,336만원), ‘디자인 업체용역비’(1,219만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2017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 원)



- 업종별 디자인 사업비 항목을 보면, ‘디자이너 인건비’ 평균은 제품 디자인(1억 1,379만원), 시각 디자인(1억 1,288만원), 인테리어 디자인(1억 1,226만원), 패션/텍스타일 디자인(9,149만원)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그 외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인테리어 디자인(2,540만원)에서,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는 제품 디자인(1,896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 원)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
전문디자인업체		109.61	12.19	18.74	4.12	4.99	0.92	1.68	13.36
업종별	제품 디자인	113.79	14.59	17.92	5.99	6.01	0.96	4.31	18.96
	시각 디자인	112.88	14.60	19.24	3.70	6.68	0.86	1.14	11.52
	인테리어 디자인	112.26	9.03	25.40	3.94	2.18	1.29	0.52	10.0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1.49	7.46	8.85	2.55	3.54	0.44	0.74	14.51

- 권역별 디자인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디자이너 인건비’는 서울(1억 2,636만원)과 강원/제주(1억 355만원)에서 가장 높고, 인천(8,101만원)에서 가장 낮은 액수를 보임. 그 외 디자인업체 용역비’는 부산/울산/경남(3,102만원)과 대구/경북(2,502만원)에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대부분의 디자인 사업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인건비’는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1억 1,337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디자인 사업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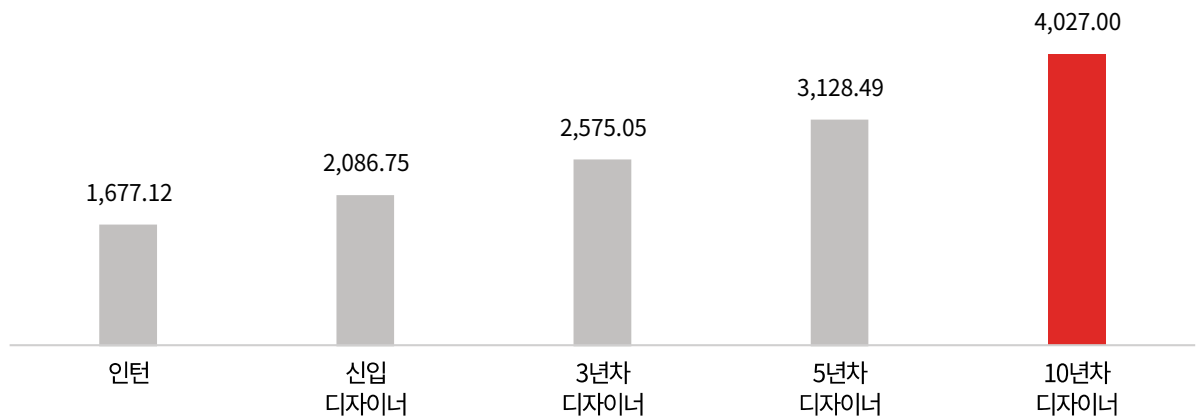
구분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업체 용역비	그 외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
<b>전문디자인업체</b>		<b>109.61</b>	<b>12.19</b>	<b>18.74</b>	<b>4.12</b>	<b>4.99</b>	<b>0.92</b>	<b>1.68</b>	<b>13.36</b>
<b>권역별</b>	서울	126.36	13.19	18.95	4.44	5.76	1.12	1.88	14.94
	부산/울산/경남	84.74	9.00	31.02	2.74	3.37	0.77	1.27	13.52
	대구/경북	95.05	6.17	25.02	3.50	6.89	0.71	0.76	9.65
	인천	81.01	7.63	6.63	2.52	3.23	1.00	0.41	6.76
	경기	90.65	11.71	13.63	2.42	2.34	0.50	1.05	9.72
	광주/전라	86.64	12.36	11.50	7.39	5.57	0.48	3.12	11.83
	대전/충청	92.02	12.36	18.76	2.68	1.98	0.63	0.60	8.14
	강원/제주	103.55	24.95	6.57	3.02	4.02	1.74	1.57	24.18
<b>규모별</b>	1인	40.22	7.39	5.01	0.65	1.75	0.11	0.03	4.83
	2~4인	73.68	6.02	17.78	3.56	3.30	0.43	0.95	11.50
	5~9인	140.70	16.92	19.43	4.48	6.54	1.44	2.10	16.17
	10~14인	199.41	33.97	37.64	3.64	9.94	1.47	9.51	18.27
	15인 이상	391.47	37.20	44.49	17.66	16.98	4.53	3.33	35.38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113.37	12.76	19.78	4.30	5.40	0.94	1.78	13.63
	기타매출 50% ↑	80.07	7.39	9.46	2.53	1.96	0.74	1.02	10.60
	반반	109.26	16.08	30.60	5.26	2.71	1.21	0.30	20.46

### 3-2)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연차가 높을수록 높아졌으며, ‘10년차 디자이너’는 4,027만원, ‘5년차 디자이너’는 3,128만원, ‘3년차 디자이너’는 2,575만원, ‘신입 디자이너’는 2,086만원, ‘인턴’은 1,677만원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만원)



- 업종별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인턴’과 ‘신입 디자이너’의 경우 제품 디자인(각각 1,787만원, 2,129만원)에서 높고, ‘3년차 디자이너’와 ‘5년차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디자인(각각 2,710만원, 3,283만원, 4,287만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만원)

구분		인턴	신입 디자이너	3년차 디자이너	5년차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체		1,677.12	2,086.75	2,575.05	3,128.49	4,027.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1,787.58	2,129.15	2,597.76	3,077.99	3,913.77
	시각 디자인	1,753.21	2,038.61	2,501.91	3,156.20	4,035.70
	인테리어 디자인	1,690.34	2,176.39	2,710.64	3,283.89	4,287.0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36.74	1,991.35	2,510.64	2,988.97	3,888.98

- 권역별로 살펴보면, ‘5년차 디자이너’와 ‘10년차 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년차의 디자이너에 대해 인천에서 가장 높은 연봉 평균을 보임.  
서울의 ‘10년차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4,156만원으로 나타난 반면, 인천은 3,499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10년차 디자이너’를 제외한 모든 년차의 디자이너 연봉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10년차 디자이너’ 평균 연봉은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4,8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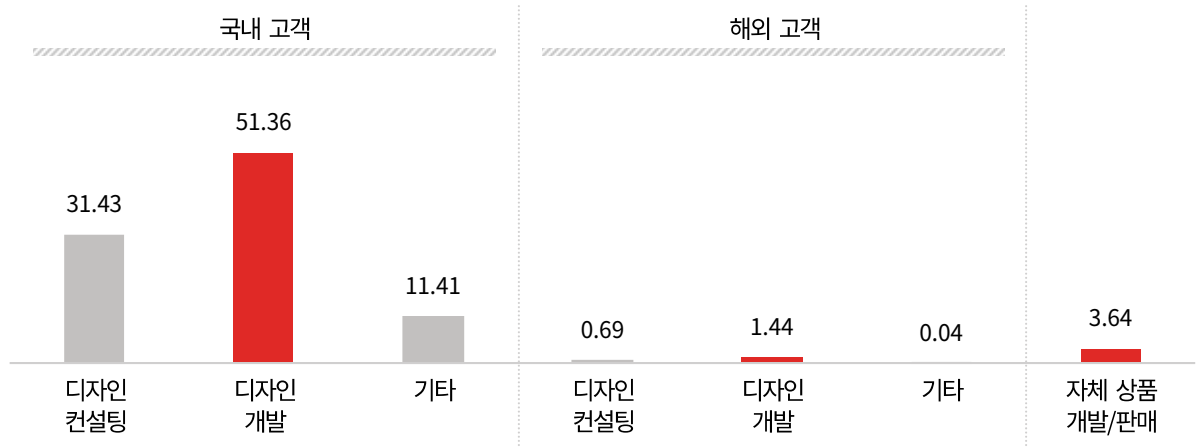
구분		인턴	신입 디자이너	3년차 디자이너	5년차 디자이너	10년차 디자이너
전문디자인업체		1,677.12	2,086.75	2,575.05	3,128.49	4,027.00
권역별	서울	1,719.48	2,138.19	2,663.07	3,231.25	4,156.08
	부산/울산/경남	1,596.01	1,994.94	2,453.47	2,953.74	3,887.86
	대구/경북	1,636.26	2,042.10	2,486.72	3,013.92	3,802.27
	인천	2,100.00	2,276.51	2,708.04	3,206.19	3,499.59
	경기	1,563.66	2,076.12	2,560.93	3,081.88	3,998.31
	광주/전라	1,643.86	1,952.98	2,301.47	2,838.99	3,774.27
	대전/충청	1,711.63	1,959.02	2,467.43	3,038.63	3,824.25
	강원/제주	1,717.79	2,099.63	2,571.98	3,072.65	3,935.26
규모별	1인	1,522.53	2,037.15	2,483.42	3,020.21	3,896.33
	2~4인	1,666.87	2,051.20	2,545.71	3,111.01	4,028.93
	5~9인	1,717.54	2,105.68	2,589.84	3,140.59	3,975.86
	10~14인	1,905.22	2,255.57	2,676.64	3,134.61	4,168.26
	15인 이상	1,631.10	2,189.03	2,755.20	3,377.01	4,356.74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1,698.38	2,095.54	2,584.02	3,139.14	4,028.38
	기타매출 50% ↑	1,429.47	1,990.82	2,473.70	3,085.32	3,908.54
	반반	993.76	1,874.17	2,262.51	2,519.22	4,800.00

### 3-3-1)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비율

-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94.1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해외 용역’의 비율은 2.17%로 낮은 비중을 차지함.  
그 외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율은 3.64%로 나타남.

#### »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용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국내 고객-디자인 개발’의 경우 패션/텍스타일 디자인(65.00%)에서 가장 높음.  
한편,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시각 디자인(4.9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31.43	51.36	11.41	0.69	1.44	0.04	3.64
업종별	제품 디자인	33.48	58.46	1.47	1.23	1.88	0.03	3.45
	시각 디자인	17.74	50.68	25.21	0.08	1.29	0.09	4.91
	인테리어 디자인	56.64	36.03	3.70	0.91	0.62	0.00	2.1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3.82	65.00	4.67	1.04	2.34	0.00	3.15

- 권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국내 고객-디자인 컨설팅’의 경우 인천(50.61%)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고객-디자인 개발’은 경기(54.81%), 서울(52.4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대구/경북(10.43%), 부산/울산/경남(5.64%)이 다른 권역 대비 높았으며, 인천은 0.00%로 자체 상품 개발/판매 비중이 매우 낮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10~14인(56.64%)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자체 상품 개발/판매’의 비중은 1인(4.09%), 10~14인(6.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의 비중이 높았으며,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국내 기타 용역’에서 96.28%로 높은 비율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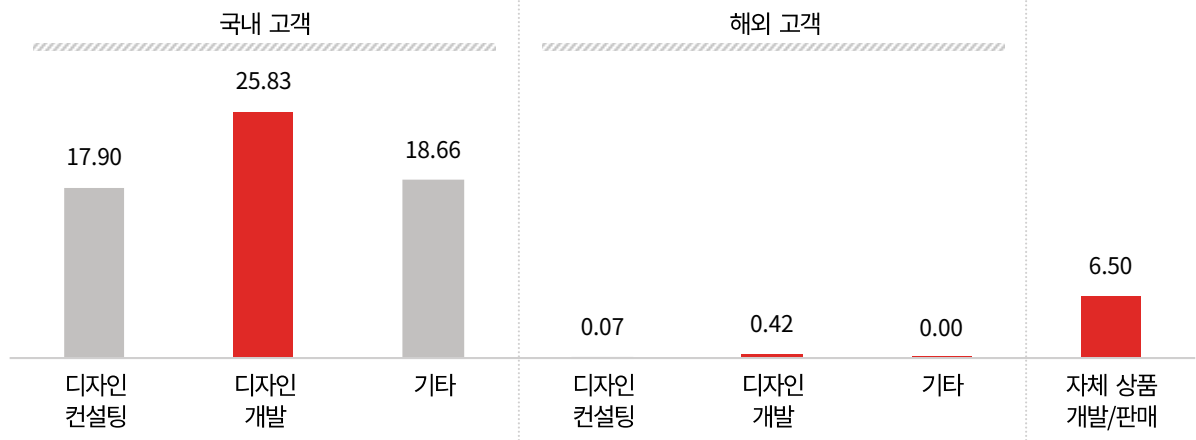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31.43	51.36	11.41	0.69	1.44	0.04	3.64
권역별	서울	33.02	52.49	9.21	1.00	1.49	0.00	2.78
	부산/울산/경남	28.09	48.25	17.42	0.11	0.50	0.00	5.64
	대구/경북	33.25	46.55	9.64	0.00	0.03	0.10	10.43
	인천	50.61	30.57	18.83	0.00	0.00	0.00	0.00
	경기	21.77	54.81	14.63	0.46	2.90	0.30	5.13
	광주/전라	38.30	50.67	11.01	0.00	0.00	0.00	0.01
	대전/충청	18.57	51.86	22.21	0.00	5.54	0.00	1.83
	강원/제주	33.55	49.66	7.85	3.49	0.87	0.00	4.59
규모별	1인	35.05	40.26	18.42	1.21	0.96	0.00	4.09
	2~4인	32.04	52.04	11.53	0.78	1.60	0.00	2.01
	5~9인	28.73	55.05	9.86	0.40	1.18	0.16	4.62
	10~14인	32.12	56.64	2.92	0.00	2.23	0.00	6.08
	15인 이상	28.40	52.89	6.47	0.56	1.78	0.00	9.9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35.43	57.78	0.18	0.79	1.63	0.05	4.14
	기타매출 50% ↑	1.76	1.96	96.28	0.00	0.00	0.00	0.00
	반반	11.23	38.77	50.00	0.00	0.00	0.00	0.00

### 3-3-2) 용역 형태별 매출구성 건수

- 용역의 형태에 따른 매출구성 건수는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이 평균 25.83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기타’(18.66건)가 뒤를 이음.

#### »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과 ‘국내 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디자인 인프라(각각 30.21건, 24.39건)에서 높고, ‘국내 기타 용역’은 시각 디자인(47.94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17.90	25.83	18.66	0.07	0.42	0.00	6.50
업종별	제품 디자인	17.59	25.38	1.40	0.07	0.17	0.00	2.13
	시각 디자인	15.68	28.20	47.94	0.00	0.07	0.00	14.52
	인테리어 디자인	17.46	19.50	0.87	0.09	0.10	0.00	0.5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4.39	30.21	0.71	0.19	2.11	0.00	2.69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은 인천(65.34건)에서 가장 높고, 이어 대전/충청(64.14건), 경기(43.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남. ‘국내 디자인 컨설팅 용역’은 인천(152.37건), 대구/경북(21.50건)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국내 디자인 개발 용역’과 ‘국내 디자인 컨설팅’ 모두 10~14인 업체(각각 74.75건, 29.65건)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용역 형태별 매출 구성 건수

(단위: 건)

구분		국내 고객			해외 고객			자체 상품 개발/판매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개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17.90	25.83	18.66	0.07	0.42	0.00	6.50
권역별	서울	16.86	22.22	4.36	0.09	0.35	0.00	1.26
	부산/울산/경남	21.50	18.33	30.89	0.09	0.27	0.00	0.58
	대구/경북	20.92	22.02	0.90	0.00	0.01	0.01	46.27
	인천	152.37	65.34	1.88	0.00	0.00	0.00	0.00
	경기	11.28	43.31	24.05	0.03	1.59	0.01	10.94
	광주/전라	9.67	15.62	11.66	0.00	0.00	0.00	0.01
	대전/충청	19.14	64.14	236.96	0.00	0.28	0.00	17.36
	강원/제주	10.39	19.24	0.58	0.26	0.26	0.00	4.37
규모별	1인	16.79	14.31	78.98	0.15	0.48	0.00	22.02
	2~4인	16.62	22.21	11.18	0.05	0.49	0.00	1.28
	5~9인	16.69	27.72	4.74	0.03	0.22	0.01	6.33
	10~14인	29.65	74.75	1.46	0.00	0.41	0.00	13.47
	15인 이상	27.36	34.21	2.40	0.19	0.62	0.00	4.0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20.30	29.20	0.13	0.08	0.48	0.00	7.40
	기타매출 50% ↑	0.43	1.39	165.45	0.00	0.00	0.00	0.00
	반반	2.25	2.80	6.17	0.00	0.00	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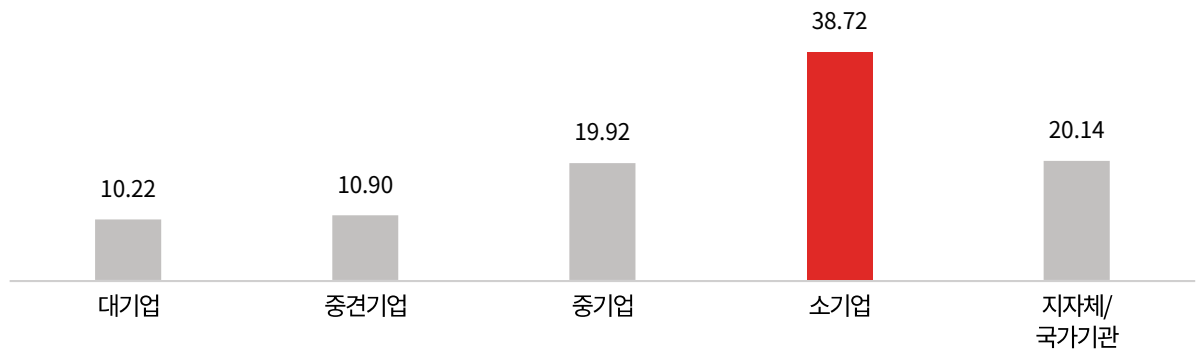


### 3-4)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 매출액 기준으로 고객 구성 비중을 분석하면, 국내기업 기준 ‘소기업’ 비중이 38.72%로 가장 높고, 다음은 ‘지자체/국가기관’(20.14%), ‘중기업’(19.92%), ‘중견기업’(10.90%), ‘대기업’(10.22%)의 순으로 나타남.

#### »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 업종별 고객 비중은 제품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패션/텍스타일 디자인(59.32%)에서 더욱 높게 나타남. 한편, ‘지자체/국가기관’의 비중은 시각 디자인(28.82%), ‘중기업’은 제품 디자인(26.5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매출액 기준 고객 비중

(단위: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지자체/국가기관
전문디자인업체		10.22	10.90	19.92	38.72	20.14
업종별	제품 디자인	11.32	13.39	26.50	25.57	22.83
	시각 디자인	11.79	10.92	17.11	31.37	28.82
	인테리어 디자인	7.32	12.33	18.76	50.18	11.4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11	4.96	18.49	59.32	8.14

- 권역별 고객비중은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소기업’이 가장 높은 가운데, 인천(56.15%), 부산/울산/경남(46.98%), 광주/전라(43.44%) 등의 순을 보임.  
한편, ‘지자체/국가기관’ 비중은 강원/제주(56.90%)에서, ‘중기업’의 경우 대구/경북(23.13%)에서, ‘중견기업’은 서울(14.96%)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클수록 ‘대기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소기업’의 비중은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와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각각 38.99%, 37.83%)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

(단위: %)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지자체/ 국가기관
전문디자인업체		10.22	10.90	19.92	38.72	20.14
권역별	서울	14.27	14.96	21.48	36.58	12.71
	부산/울산/경남	2.83	1.52	20.75	46.98	27.91
	대구/경북	3.53	5.78	23.13	42.68	24.88
	인천	0.00	3.52	11.74	56.15	28.58
	경기	14.02	10.73	18.33	35.87	21.05
	광주/전라	1.15	7.42	12.86	43.44	34.31
	대전/충청	4.58	4.49	23.10	36.34	31.10
	강원/제주	2.14	1.84	6.34	32.79	56.90
규모별	1인	5.87	8.06	8.39	65.65	12.02
	2~4인	7.02	10.85	22.36	39.26	20.47
	5~9인	13.29	12.07	21.22	29.06	24.36
	10~14인	16.83	10.38	26.55	19.93	24.79
	15인 이상	30.01	14.01	17.38	24.22	14.38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9.46	11.24	20.91	38.99	19.29
	기타매출 50% ↑	15.95	9.13	13.61	37.83	23.47
	반반	13.48	0.00	3.45	25.10	57.96

#### 4) 2018년 재무 및 투자 전망

##### 4-1) 2018년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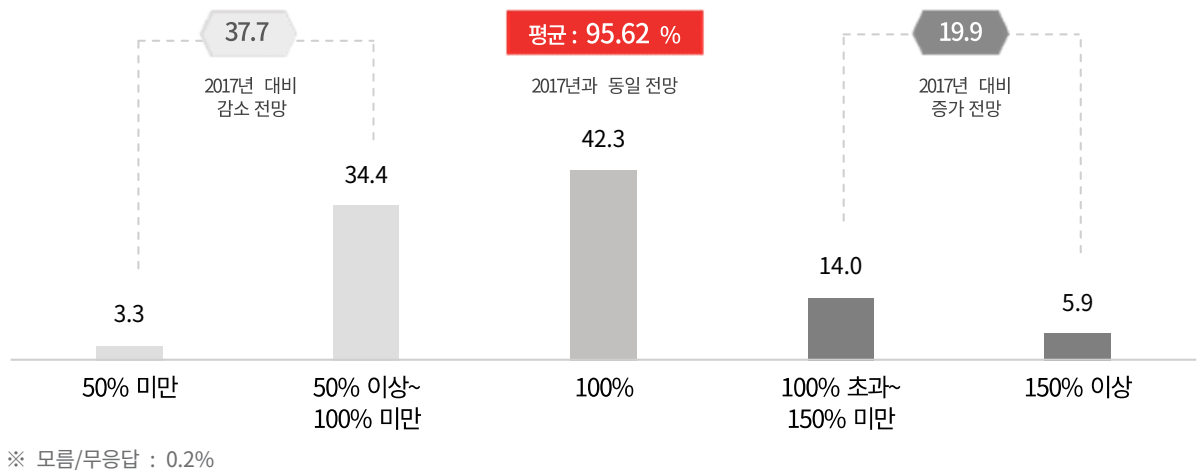
- 2017년 대비 2018년 매출액을 전망<sup>19)</sup> 한 결과, 2018년 매출액은 2017년의 평균 95.62% 수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간 감소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보면, ‘2017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42.3%로 가장 높았고,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37.7%,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9.9%로 나타남.

##### » 2018년 매출액 전망

(단위: %)



- 업종별 2018년 매출액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대비 감소를 전망하였으며, 특히 패션/텍스타일 디자인(89.26%)에서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

##### » 업종별 2018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3	34.4	42.3	14.0	5.9	95.62
업종별	제품 디자인	2.4	39.1	38.6	15.4	4.5	96.20
	시각 디자인	1.4	32.2	45.5	13.5	7.4	99.44
	인테리어 디자인	5.1	28.9	43.4	16.8	5.8	93.0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5	40.5	38.6	8.6	4.7	89.26

19)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 보다 증가하면 100%초과, 2017년 보다 감소하면 100% 미만으로 작성  
예를 들어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했으면 200% 등으로 작성

- 권역별 매출액 전망 평균을 비교해 보면, 부산/울산/경남(102.95%)은 2018년 매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인천(87.72%)에서는 매출액 감소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망은 15인 이상의 업체(103.19%)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5~9인 업체(102.92%) 역시 긍정적 전망을 보임. 반면, 나머지 업체의 경우는 2018년 매출액을 부정적으로 전망함.
- 매출 구성별 매출액 전망을 보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12.69%)는 2018년 매출액 증가를 전망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5.73%)와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3.26%)에서는 부정적 전망치를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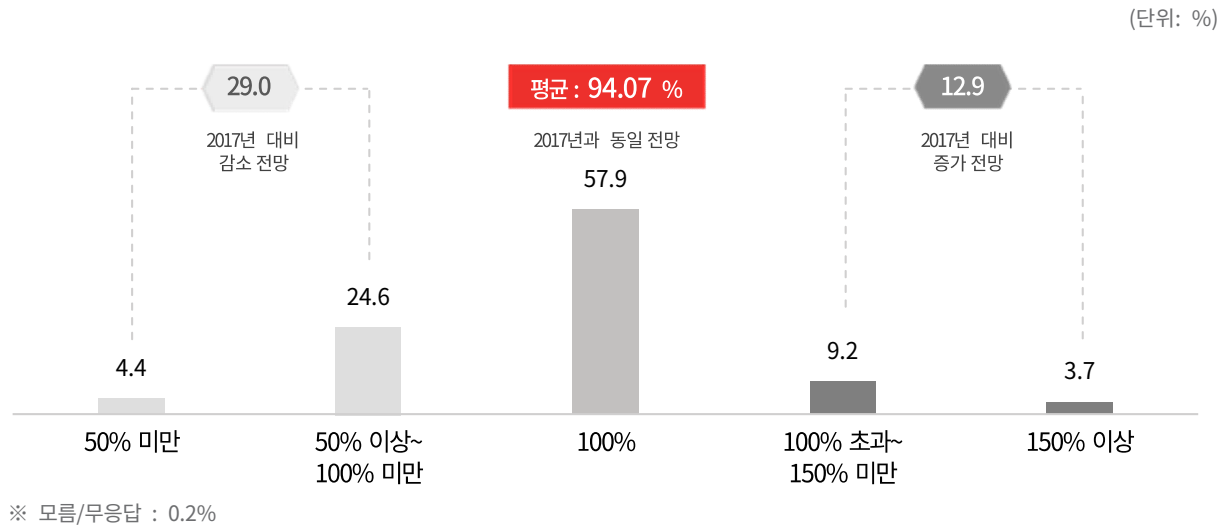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3.3</b>	<b>34.4</b>	<b>42.3</b>	<b>14.0</b>	<b>5.9</b>	<b>95.62</b>
<b>권역별</b>	서울	3.7	33.7	45.6	12.1	4.7	93.97
	부산/울산/경남	2.8	29.3	36.9	21.9	9.0	102.95
	대구/경북	5.5	35.1	34.3	19.8	5.3	96.37
	인천	0.0	35.1	64.9	0.0	0.0	87.72
	경기	3.4	39.3	33.1	15.6	8.6	97.35
	광주/전라	2.3	31.0	45.3	15.8	5.6	95.87
	대전/충청	0.0	52.0	28.9	9.4	9.7	95.23
	강원/제주	0.0	27.0	57.1	7.7	8.2	97.35
<b>규모별</b>	1인	1.5	47.1	36.8	8.0	6.5	89.92
	2~4인	4.6	37.1	43.3	10.2	4.3	92.26
	5~9인	1.9	26.8	44.5	18.6	8.2	102.92
	10~14인	5.7	22.4	33.4	29.9	8.5	98.24
	15인 이상	0.7	22.9	45.8	26.4	4.2	103.19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3.5	35.0	40.9	14.1	6.4	95.73
	기타매출 50% ↑	2.3	32.8	54.2	8.0	2.6	93.26
	반반	0.0	0.0	30.1	69.9	0.0	112.69

#### 4-2)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평균 94.07%수준으로 2017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는, ‘2017년과 동일 전망’(100%)이 57.9%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9.0%,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2.9%로  
나타남.

#### »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품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사업비의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제품 디자인(95.93%), 시각 디자인(93.8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93.23%), 인테리어 디자인(93.18%)의 전망치 순을 보임.

#### » 업종별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4.4	24.6	57.9	9.2	3.7	94.07
업종별	제품 디자인	2.2	33.7	48.4	12.2	3.5	95.93
	시각 디자인	6.8	18.4	62.3	7.7	4.8	93.80
	인테리어 디자인	4.2	21.7	59.4	12.1	2.7	93.1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2	30.4	59.6	4.3	2.5	93.23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104.27%)에서 2018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전/충청(78.63%)에서 가장 부정적 전망을 보임.
- 규모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한 가운데, 5~9인(99.74%)업체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09.67%)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한 반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4.97%),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85.62%)는 부정적인 전망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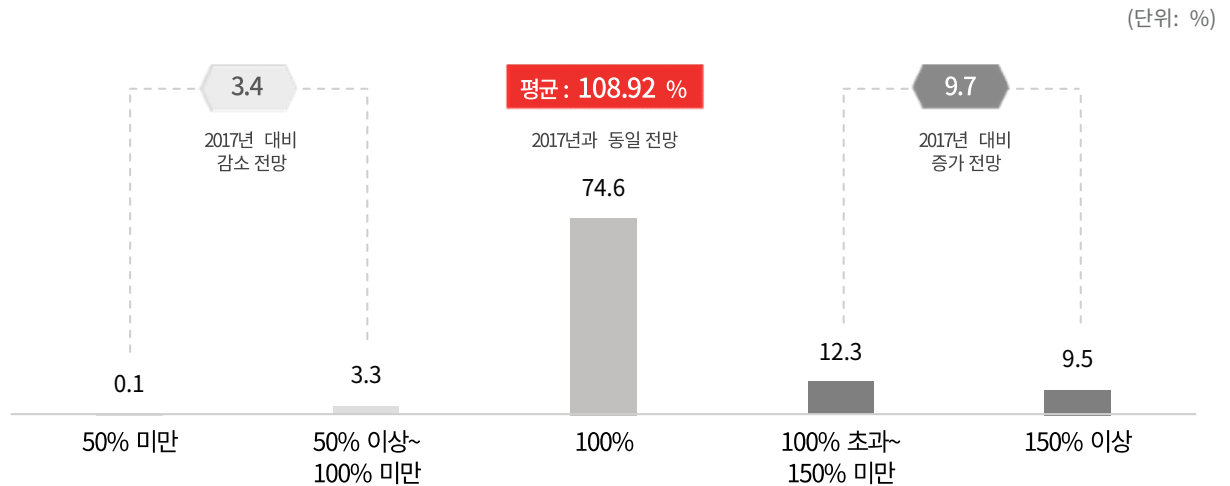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4.4</b>	<b>24.6</b>	<b>57.9</b>	<b>9.2</b>	<b>3.7</b>	<b>94.07</b>
<b>권역별</b>	서울	4.6	24.0	59.6	8.3	3.2	93.44
	부산/울산/경남	2.4	28.8	51.1	11.3	6.5	97.28
	대구/경북	4.2	23.4	50.5	17.4	4.5	97.46
	인천	0.0	35.1	64.9	0.0	0.0	87.72
	경기	4.0	21.6	62.0	8.2	4.2	96.22
	광주/전라	3.1	27.9	55.1	10.5	3.3	93.66
	대전/충청	14.8	39.9	41.5	1.6	2.3	78.63
	강원/제주	0.0	0.0	84.1	12.2	3.6	104.27
<b>규모별</b>	1인	5.9	25.5	64.1	3.0	1.5	87.48
	2~4인	3.8	27.6	58.3	7.1	2.8	92.79
	5~9인	4.1	21.3	55.7	12.7	6.2	99.74
	10~14인	5.7	21.2	45.4	23.4	4.2	92.32
	15인 이상	5.4	15.3	59.9	15.3	4.2	97.75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3.5	26.1	56.6	9.4	4.2	94.97
	기타매출 50% ↑	11.4	15.3	68.0	5.3	0.0	85.62
	반반	0.0	0.0	60.3	39.7	0.0	109.67

#### 4-3)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108.92%수준으로 2017년에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 전망’(100%)이 74.6%로 압도적인 가운데,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3.4%,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9.7%로 나타남.

#### »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모름/무응답 : 0.2%

- 업종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고용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시각 디자인(109.76%)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

#### » 업종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1	3.3	74.6	12.3	9.5	108.92
업종별	제품 디자인	0.3	4.3	68.3	15.8	11.3	109.27
	시각 디자인	0.0	4.7	73.4	12.1	9.7	109.76
	인테리어 디자인	0.0	1.3	77.4	12.3	8.9	109.5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1.6	82.8	7.4	7.1	105.39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고용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114.62%), 광주/전라(113.26%), 대구/경북(111.38%)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업체 종사자 규모에 따르면,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긍정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10-14인 업체에서 114.75%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했고, 15인 이상 업체(112.71%), 1인 업체(110.56%) 등의 순으로 고용 증가를 전망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9.81%)에서 2018년 디자이너 고용을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0.1</b>	<b>3.3</b>	<b>74.6</b>	<b>12.3</b>	<b>9.5</b>	<b>108.92</b>
<b>권역별</b>	서울	0.1	2.8	75.5	13.6	7.6	107.44
	부산/울산/경남	0.0	5.5	65.2	12.7	16.5	114.62
	대구/경북	0.0	6.6	77.6	5.8	10.1	111.38
	인천	0.0	0.0	76.2	17.6	6.2	106.11
	경기	0.0	3.4	77.9	8.8	9.8	109.90
	광주/전라	0.0	0.5	70.2	12.0	17.2	113.26
	대전/충청	0.0	8.4	69.7	20.3	1.6	101.58
	강원/제주	0.0	0.0	88.8	4.6	6.7	104.25
<b>규모별</b>	1인	0.0	0.0	88.9	0.0	11.1	110.56
	2~4인	0.0	3.4	81.7	3.7	10.8	107.40
	5~9인	0.3	4.5	64.9	23.4	6.9	108.86
	10~14인	0.0	6.4	43.2	41.2	9.3	114.75
	15인 이상	0.0	3.2	48.8	41.8	6.2	112.71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0.1	3.4	72.4	13.6	10.4	109.81
	기타매출 50% ↑	0.0	3.3	90.0	3.2	3.5	102.67
	반반	0.0	0.0	100.0	0.0	0.0	100.00



#### 4-4)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평균 76.16%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2017년에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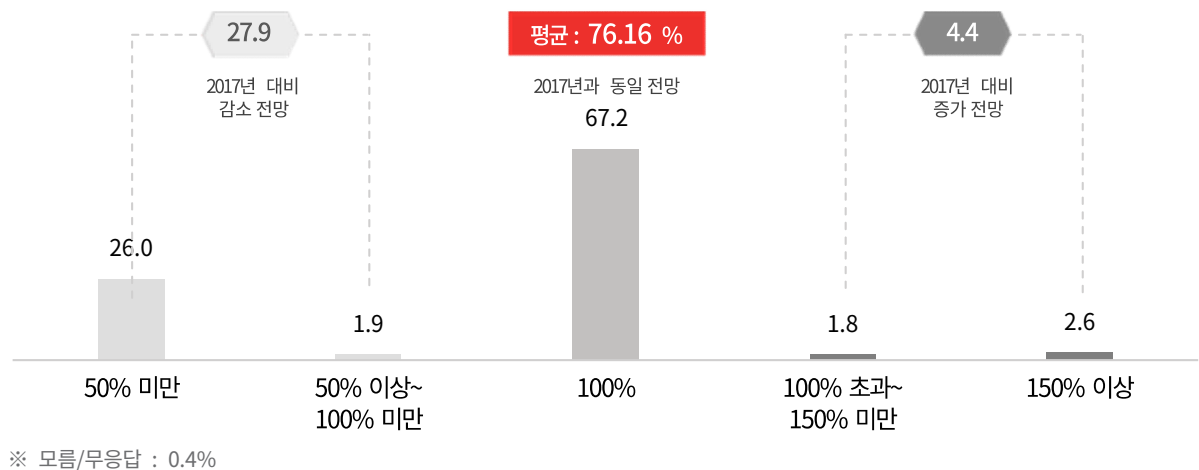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 전망’(100%)이 67.2%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7.9%,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4.4%로 나타남.

#### »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 업종별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제품 디자인(89.28%)의 감소폭이 가장 좁게 전망되었으며, 시각 디자인(68.74%)은 2018년 연구개발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함.

#### » 업종별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26.0	1.9	67.2	1.8	2.6	76.16
업종별	제품 디자인	14.1	1.3	80.6	2.5	1.6	89.28
	시각 디자인	34.6	4.1	54.5	1.6	5.2	68.74
	인테리어 디자인	22.0	0.0	73.6	2.2	1.2	78.7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9.5	0.6	68.1	0.8	0.0	70.27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2018년 연구개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한 가운데, 특히 강원/제주(50.41%)에서 부정적 전망치를 보임. 대전/충청(84.99%)에서 가장 적은 감소치를 전망함.
- 업체 종사자 규모별 연구개발비 전망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연구개발비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15인(89.78%)이 가장 적은 감소폭을 전망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는 59.65%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8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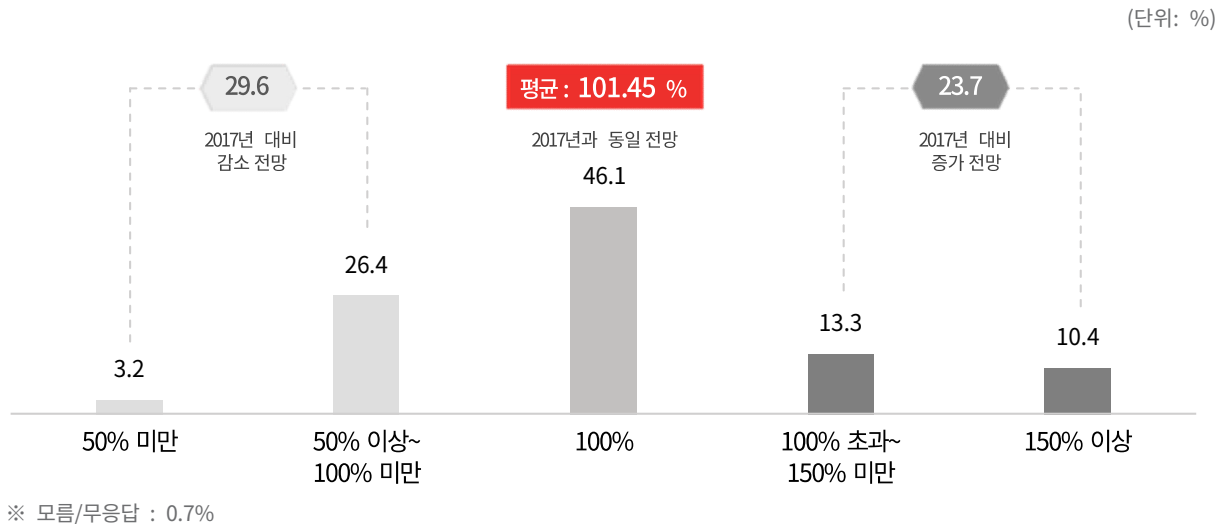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26.0</b>	<b>1.9</b>	<b>67.2</b>	<b>1.8</b>	<b>2.6</b>	<b>76.16</b>
<b>권역별</b>	서울	26.4	2.5	67.9	1.3	1.2	73.99
	부산/울산/경남	27.6	0.0	59.4	4.1	8.9	84.38
	대구/경북	29.6	0.0	65.3	0.4	4.7	74.89
	인천	17.5	0.0	82.5	0.0	0.0	82.45
	경기	21.1	2.0	74.4	2.6	0.0	79.34
	광주/전라	22.7	0.0	70.9	2.6	3.8	79.97
	대전/충청	20.3	8.4	59.4	1.6	10.3	84.99
	강원/제주	50.5	0.0	44.9	4.6	0.0	50.41
<b>규모별</b>	1인	36.3	3.9	58.3	0.0	1.5	63.62
	2~4인	30.9	1.6	63.1	1.1	3.1	71.37
	5~9인	16.7	1.9	74.8	2.9	3.0	87.06
	10~14인	13.0	1.7	81.7	3.7	0.0	87.83
	15인 이상	12.6	0.0	78.8	6.4	2.2	89.78
	디자인매출 50% ↑	23.6	2.2	69.0	2.1	2.7	78.34
<b>매출 구성</b>	기타매출 50% ↑	45.3	0.0	52.7	0.0	2.0	59.65
	반반	30.1	0.0	69.9	0.0	0.0	69.87

## 5) 2019년 재무 및 투자 전망

### 5-1) 2019년 매출액 전망

- 2017년 대비 2019년 매출액 전망은 평균 101.45%수준으로 2017년에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 전망’(100%)이 46.1%로 높았으며,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9.6%,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3.7%로 나타남.

### » 2019년 매출액 전망



- 업종별 2018년 매출액 전망은 시각 디자인(108.86%)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제품 디자인(100.10%), 인테리어 디자인(96.9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91.96%)의 순으로 매출액을 예상함.

### » 업종별 2019년 매출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3.2	26.4	46.1	13.3	10.4	101.45
업종별	제품 디자인	1.8	29.0	44.8	15.2	8.4	100.10
	시각 디자인	2.4	23.2	47.9	11.2	15.4	108.86
	인테리어 디자인	3.8	24.3	48.3	15.6	8.1	96.9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5	33.1	40.3	12.1	4.7	91.96

- 권역별 전망은 부산/울산/경남(116.00%)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남. 대전/충청에서는 110.98%, 광주/전라에서는 110.35%순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보임.
-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전망은 1인 업체와 2~4인 업체(각각 94.69%, 98.07%)를 제외한 기업에서 증가 전망을 보였으며, 5~9인 규모의 업체(110.11%)의 증가폭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1.93%)에서는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99.21%)와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97.94%)에서는 다소 낮은 전망치를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9년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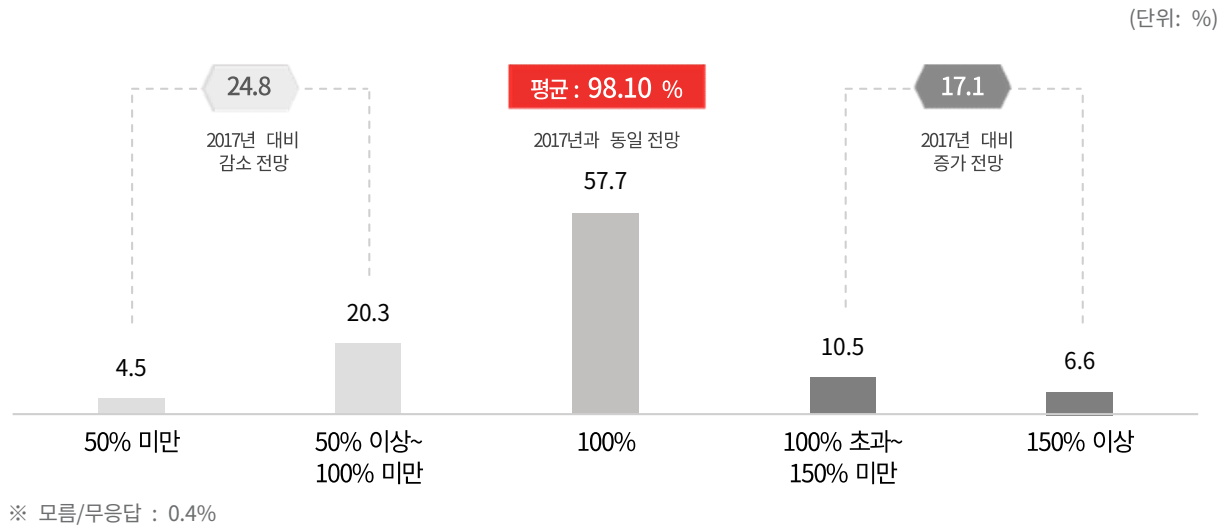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3.2</b>	<b>26.4</b>	<b>46.1</b>	<b>13.3</b>	<b>10.4</b>	<b>101.45</b>
<b>권역별</b>	서울	4.6	25.2	48.5	13.1	7.3	97.88
	부산/울산/경남	2.8	24.1	34.7	15.3	23.1	116.00
	대구/경북	2.8	42.9	30.9	12.8	10.6	96.48
	인천	0.0	35.1	47.3	17.6	0.0	91.24
	경기	2.0	30.0	46.3	13.3	8.4	99.01
	광주/전라	0.0	16.9	54.2	12.2	16.7	110.35
	대전/충청	0.0	28.5	39.3	19.6	12.6	110.98
	강원/제주	0.0	17.3	62.3	4.6	15.9	107.80
<b>규모별</b>	1인	1.1	39.9	39.3	11.1	8.5	94.69
	2~4인	4.4	28.3	47.8	9.8	8.1	98.07
	5~9인	2.1	18.2	48.2	16.4	15.1	110.11
	10~14인	5.7	19.6	31.1	29.8	13.8	102.56
	15인 이상	0.7	17.8	53.5	19.2	8.9	106.65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3.5	26.6	44.5	13.5	11.1	101.93
	기타매출 50% ↑	1.5	24.8	59.8	8.6	5.3	97.94
	반반	0.0	22.5	30.1	47.4	0.0	99.21

## 5-2) 2019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2017년 대비 2019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평균 98.10%수준으로 2017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 전망’(100%)이 57.7%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4.8%,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7.1%로 나타남.

### » 2019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 업종별 2018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은 시각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시각 디자인은 101.21%로 긍정적으로 전망함.

### » 업종별 2019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4.5	20.3	57.7	10.5	6.6	98.10
업종별	제품 디자인	2.7	26.4	49.9	15.5	4.6	97.96
	시각 디자인	7.2	12.4	60.8	8.3	11.3	101.21
	인테리어 디자인	3.2	19.8	60.7	12.6	3.6	96.0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2	30.9	57.8	5.5	2.5	93.85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109.68%), 강원/제주(108.23%), 광주/전라(105.29%), 경기(101.20%)의 순으로 2019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95.10%), 대구/경북(94.15%), 인천(91.24%), 대전/충청(89.27%)에서는 디자인 투자 감소 전망으로 나타남.
-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5~9인 업체(102.82%)와 15인 이상(102.56%)에서 2018년 디자인 사업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 반면, 2~4인 업체(97.07%)와 10~14인(96.57%), 1인 업체(91.98%)에서는 낮은 전망치를 보임.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체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89.20%)에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9년 디자인 사업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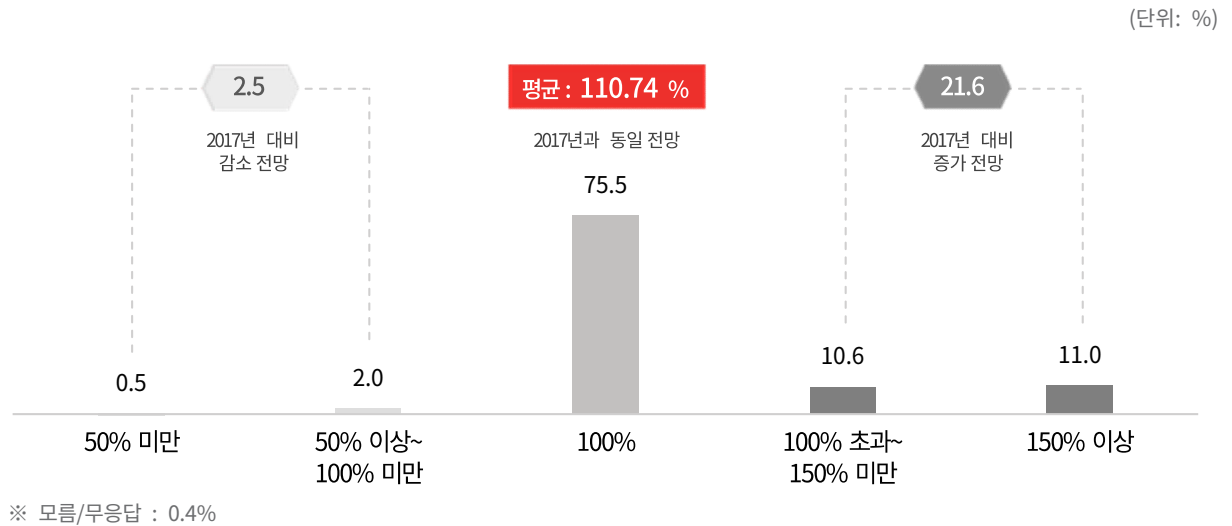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4.5</b>	<b>20.3</b>	<b>57.7</b>	<b>10.5</b>	<b>6.6</b>	<b>98.10</b>
<b>권역별</b>	서울	5.3	20.5	59.0	10.7	3.9	95.10
	부산/울산/경남	2.4	22.1	50.2	9.2	16.0	109.68
	대구/경북	2.8	29.9	50.9	11.3	5.1	94.15
	인천	0.0	35.1	47.3	17.6	0.0	91.24
	경기	2.5	16.1	68.3	8.2	4.9	101.20
	광주/전라	3.1	17.0	54.2	13.8	11.9	105.29
	대전/충청	14.8	21.1	40.9	10.6	12.6	89.27
	강원/제주	0.0	3.1	76.5	4.6	15.9	108.23
<b>규모별</b>	1인	5.9	20.6	62.9	5.2	5.4	91.98
	2~4인	3.8	23.0	58.7	7.9	5.8	97.07
	5~9인	5.3	15.0	56.2	15.0	8.5	102.82
	10~14인	5.7	24.0	38.6	23.9	7.7	96.57
	15인 이상	1.2	17.5	60.7	14.2	6.4	102.56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3.6	21.3	56.9	10.9	6.8	99.28
	기타매출 50% ↑	11.4	12.3	63.9	7.2	5.3	89.20
	반반	0.0	22.5	60.3	17.3	0.0	93.95

### 5-3)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7년 대비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110.74%수준으로 2017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는 ‘2017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75.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5%,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21.6%로 나타남.

#### »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2017년 대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시각 디자인 분야에서 114.33%로 가장 높은 전망을 나타냄.

#### » 업종별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0.5	2.0	75.5	10.6	11.0	110.74
업종별	제품 디자인	1.9	0.8	70.7	14.8	10.8	108.98
	시각 디자인	0.0	3.6	72.0	10.7	13.6	114.33
	인테리어 디자인	0.0	1.3	81.4	9.4	7.8	107.7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9	82.2	6.0	9.8	109.19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2018년 디자이너 고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치를 보였고, 특히 부산/울산/경남에서 118.91%로 가장 증가폭이 큼.
- 업체 종사자 규모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모든 규모에서 고용의 증가를 예상한 가운데, 1인 규모 업체(123.68%)에서 가장 긍정적인 전망을 한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11.18%),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108.27%),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100.00%)의 순으로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증가를 전망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9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0.5</b>	<b>2.0</b>	<b>75.5</b>	<b>10.6</b>	<b>11.0</b>	<b>110.74</b>
<b>권역별</b>	서울	0.8	1.9	74.9	12.4	9.2	109.19
	부산/울산/경남	0.0	3.1	70.6	10.3	16.0	118.91
	대구/경북	0.0	5.8	86.7	3.0	4.5	103.20
	인천	0.0	0.0	82.4	17.6	0.0	102.99
	경기	0.0	1.0	75.5	4.0	19.5	117.07
	광주/전라	0.0	0.0	77.3	10.5	12.2	110.03
	대전/충청	0.0	2.9	68.9	18.4	9.7	112.33
	강원/제주	0.0	0.0	70.3	12.2	17.4	112.60
<b>규모별</b>	1인	0.0	0.0	79.1	0.0	20.9	123.68
	2~4인	0.5	2.5	82.2	3.5	10.6	106.75
	5~9인	0.6	1.4	67.1	21.7	9.2	111.34
	10~14인	1.5	4.8	64.7	27.5	1.5	106.27
	15인 이상	0.0	3.2	56.7	34.2	5.9	111.55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0.4	2.2	74.0	11.4	11.5	111.18
	기타매출 50% ↑	0.7	1.0	85.0	5.2	8.1	108.27
	반반	0.0	0.0	100.0	0.0	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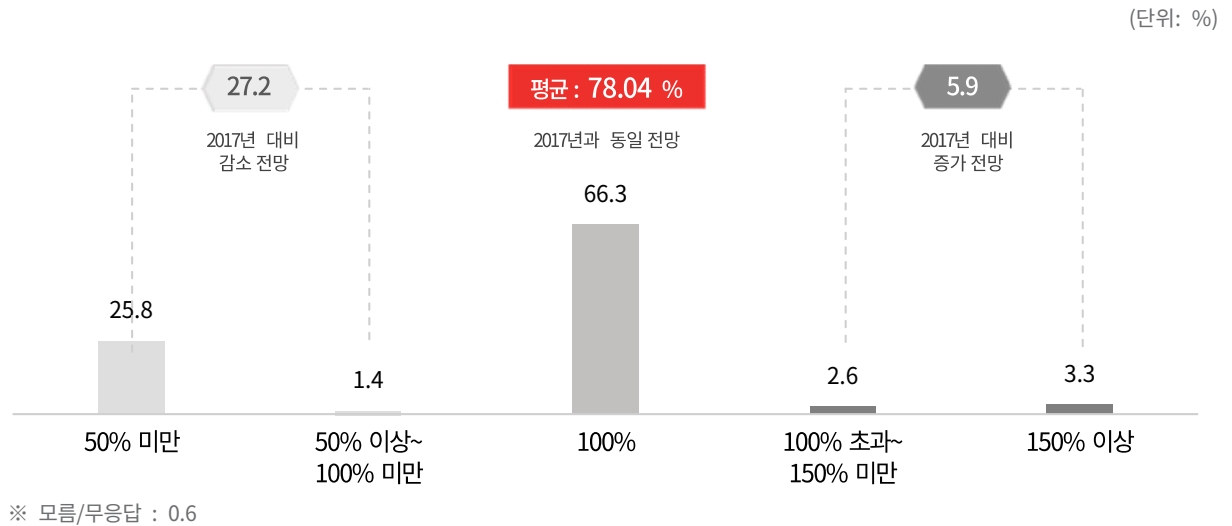


#### 5-4) 2019년 연구개발비 전망

- 2017년 대비 2019년 연구개발비 전망은 평균 78.04%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2017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전망’(100%)이 66.3%로 가장 높았으며,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27.2%,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5.9%로 나타남.

#### » 2019년 연구개발비 전망



- 업종별 연구개발비 전망은 모든 업종에서 부정적 전망치를 보였으며, 제품 디자인(92.52%)에서 가장 적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반면, 시각 디자인(71.16%)의 연구개발비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 업종별 2019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문디자인업체		25.8	1.4	66.3	2.6	3.3	78.04
업종별	제품 디자인	13.5	0.0	75.5	7.4	2.7	92.52
	시각 디자인	34.8	3.3	55.1	0.7	6.1	71.16
	인테리어 디자인	22.0	0.0	73.6	2.2	1.2	78.8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8.4	0.9	68.5	0.6	0.6	71.72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2019년 연구개발비 감소를 전망한 가운데, 대전/충청(92.30%)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전망함.  
강원/제주의 경우 53.02%로 낮은 전망치를 보여 2019년 연구개발비의 감소를 전망함.
- 업체 규모별 전망 역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연구개발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5~9인 업체(90.67%)와 15인 이상 업체(90.26%)에서 가장 긍정적 전망치를 보임.  
한편, 1인 업체(64.95%)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2019년 연구개발비가 감소할 것으로 모든 업체가 전망한 가운데,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60.63%로 가장 큰 감소폭을 예상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9년 연구개발비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b>전문디자인업체</b>		<b>25.8</b>	<b>1.4</b>	<b>66.3</b>	<b>2.6</b>	<b>3.3</b>	<b>78.04</b>
<b>권역별</b>	서울	25.9	1.6	67.9	1.2	2.3	75.67
	부산/울산/경남	27.6	0.0	56.6	6.5	9.3	91.06
	대구/경북	29.6	3.7	64.9	0.0	1.8	71.13
	인천	17.5	0.0	64.9	17.6	0.0	85.97
	경기	21.1	1.0	72.7	4.4	0.7	80.56
	광주/전라	22.7	0.0	68.6	4.9	3.8	81.12
	대전/충청	20.3	2.9	62.0	1.6	13.2	92.30
	강원/제주	50.5	0.0	41.8	3.1	4.6	53.02
<b>규모별</b>	1인	35.2	2.0	61.4	0.0	1.5	64.95
	2~4인	30.4	1.7	61.6	2.5	3.0	72.79
	5~9인	17.2	0.4	72.5	3.3	5.7	90.67
	10~14인	13.0	1.7	81.7	3.7	0.0	87.95
	15인 이상	12.6	1.0	76.9	6.5	2.9	90.26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23.3	1.6	68.0	3.0	3.5	80.36
	기타매출 50% ↑	45.3	0.0	52.7	0.0	2.0	60.63
	반반	30.1	0.0	69.9	0.0	0.0	69.87

## 2. 디자인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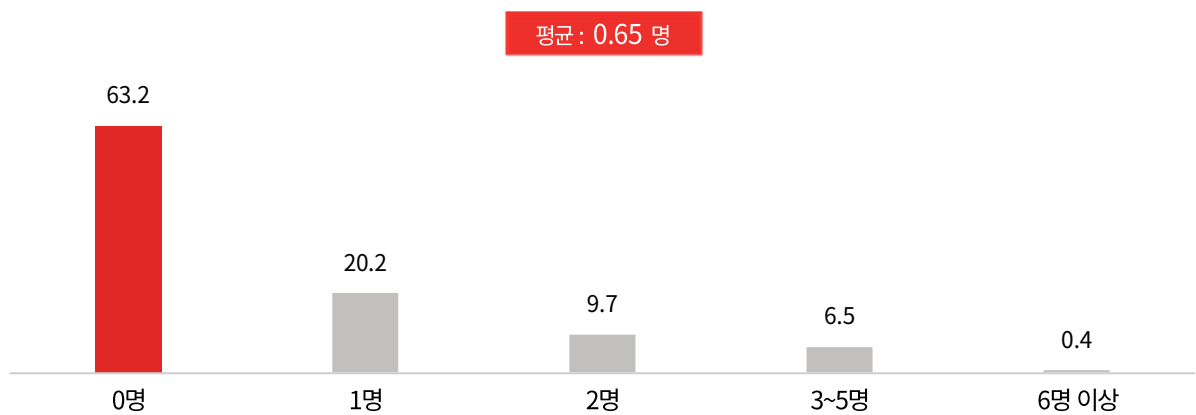
### 1) 구인 디자이너 수

- 전문디자인업체의 구인 디자이너 수는 평균 0.65명인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0명'이 63.2%로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1명'(20.2%), '2명'(9.7%), '3~5명'(6.5%), '6명 이상'(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 구인 디자이너 수의 평균은 시각 디자인과 인테리어 디자인(각각 0.74명), 제품 디자인(0.71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0.25명)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63.2	20.2	9.7	6.5	0.4	0.65
업종별	제품 디자인	58.8	25.0	9.5	6.2	0.5	0.71
	시각 디자인	61.2	19.4	10.3	8.6	0.5	0.74
	인테리어 디자인	56.5	24.5	12.1	6.5	0.4	0.7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4.7	8.3	5.0	1.8	0.2	0.25

- 권역별 구인 디자이너 수는 광주/전라에서 0.8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0.73명), 부산/울산/경남(0.6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강원/제주는 0.39명으로 가장 낮은 디자이너 수를 보임.
- 규모별 구인 디자이너 수는 업체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평균 1.35명으로 가장 구인을 많이 했고, 기타매출이 절반 이상인 업체(0.50명)에서는 구인 디자이너 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63.2	20.2	9.7	6.5	0.4	0.65
권역별	서울	59.7	21.7	11.3	6.6	0.8	0.73
	부산/울산/경남	62.5	26.4	3.2	7.5	0.4	0.61
	대구/경북	78.8	5.9	12.4	3.0	0.0	0.40
	인천	52.6	47.4	0.0	0.0	0.0	0.47
	경기	71.3	14.1	10.7	3.9	0.0	0.47
	광주/전라	57.2	21.9	8.0	12.8	0.0	0.81
	대전/충청	67.0	24.5	1.6	6.8	0.0	0.60
	강원/제주	76.0	11.8	9.1	3.1	0.0	0.39
규모별	1인	96.6	2.0	1.5	0.0	0.0	0.05
	2~4인	70.0	21.9	5.7	2.4	0.0	0.41
	5~9인	47.1	26.4	14.9	11.6	0.0	0.95
	10~14인	28.8	21.7	29.9	18.0	1.5	1.61
	15인 이상	20.7	23.4	23.4	25.5	6.9	2.18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63.0	19.7	10.3	6.6	0.5	0.66
	기타매출 50% ↑	66.4	26.0	3.7	3.9	0.0	0.50
	반반	47.4	0.0	22.5	30.1	0.0	1.35

## 2)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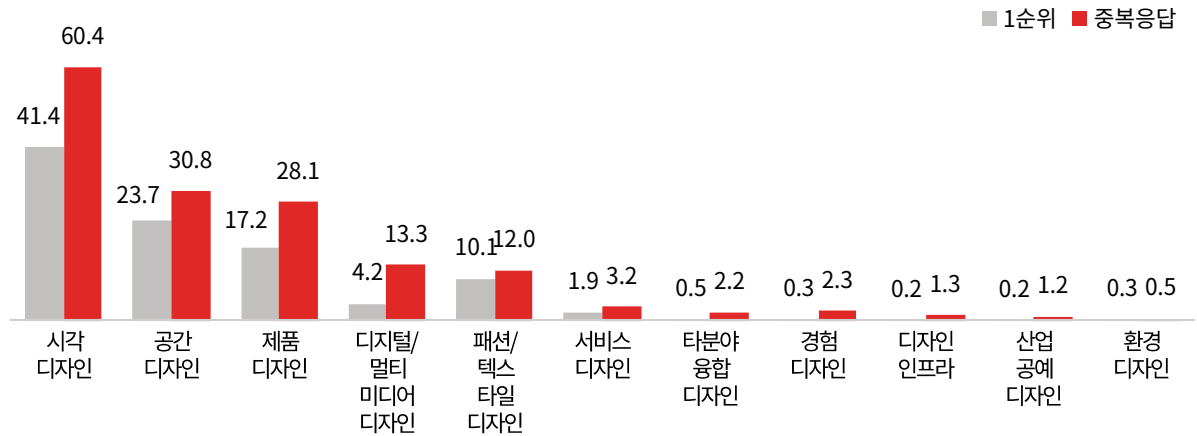
-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시각 디자인’ 영역 디자이너가 6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외 ‘공간 디자인’(30.8%),

‘제품 디자인’(28.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선택도 시각 디자인이 가장 높게 나타남.

### »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 업종별로 보면 모든 분야에서 해당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단위: %)

구분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타분야 융합 디자인	경험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산업 공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60.4	30.8	28.1	13.3	12.0	3.2	2.2	2.3	1.3	1.2	0.5
업종별	제품 디자인	65.2	9.2	69.6	8.2	2.8	4.1	3.1	1.5	1.9	2.0	0.9
	시각 디자인	87.6	17.7	13.7	25.1	0.8	3.7	2.7	4.4	0.8	0.0	0.8
	인테리어 디자인	33.4	85.8	15.3	5.0	2.0	3.2	0.9	0.0	0.9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7.6	13.2	19.3	4.6	67.7	0.9	1.3	2.2	2.2	4.4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시각 디자인’ 분야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강원/제주(96.4%), 대전/충청(91.6%), 부산/울산/경남(72.2%) 등의 순서로 나타남. ‘공간 디자인’의 경우 대구/경북(41.7%), 부산/울산/경남(34.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체의 규모에서 ‘시각 디자인’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로 응답함.

‘공간 디자인’의 경우 15인 이상의 업체(37.2%)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 구성별 결과 역시 매출 구성과 관계없이 ‘시각 디자인’ 분야가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라고

응답한 가운데, 기타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의 경우 8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 전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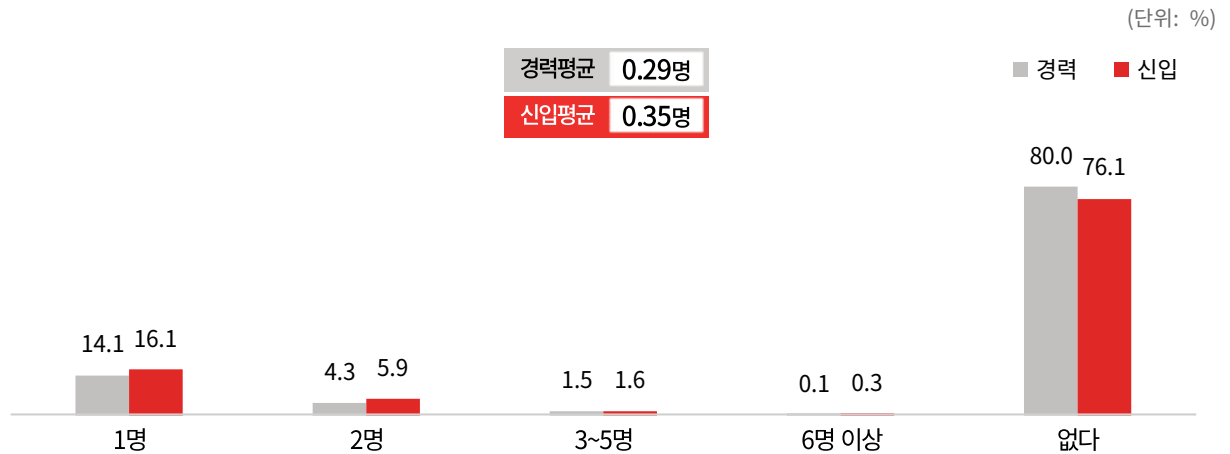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시각 디자인	공간 디자인	제품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타분야 융합 디자인	경험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산업 공예 디자인	환경 디자인
전문디자인업체		60.4	30.8	28.1	13.3	12.0	3.2	2.2	2.3	1.3	1.2	0.5
권역별	서울	52.1	33.6	30.1	12.6	15.5	4.0	1.9	2.2	1.0	0.6	0.5
	부산/울산/경남	72.2	34.7	17.7	13.5	9.2	4.8	0.4	0.0	3.2	4.1	0.0
	대구/경북	60.6	41.7	16.0	14.4	14.3	2.0	0.0	0.7	2.8	2.8	0.0
	인천	47.3	17.5	23.8	23.5	17.5	0.0	0.0	0.0	0.0	0.0	0.0
	경기	65.1	24.7	26.2	12.4	10.6	3.5	4.0	2.5	0.0	1.9	1.9
	광주/전라	69.2	27.3	33.1	11.2	1.8	0.4	6.7	8.6	0.0	0.0	0.0
	대전/충청	91.6	2.3	29.9	24.4	0.0	1.6	0.0	0.0	5.5	0.0	0.0
	강원/제주	96.4	15.3	51.8	11.7	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61.9	29.0	12.8	8.5	18.4	2.0	1.5	2.6	1.1	2.3	0.0
	2~4인	58.5	29.1	26.7	12.3	13.0	4.6	2.5	1.6	2.3	1.6	0.6
	5~9인	61.9	34.3	34.1	16.7	8.0	1.3	2.4	4.1	0.0	0.0	0.0
	10~14인	61.3	28.2	50.3	14.7	7.0	5.7	1.0	0.0	0.0	0.0	4.3
	15인 이상	64.7	37.2	33.2	16.6	8.9	2.4	0.6	2.0	0.0	0.7	0.0
	디자인매출 50% ↑	57.0	30.9	30.5	14.0	13.3	3.4	1.8	2.7	0.9	1.3	0.3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86.2	31.1	12.3	5.8	1.5	2.6	2.6	0.0	4.2	0.0	2.6
	반반	69.9	22.5	0.0	30.1	17.3	0.0	30.1	0.0	0.0	0.0	0.0

### 3)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전문디자인업체의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 평균은 0.29명,  
신입 디자이너 수 평균은 0.35명으로 경력 채용과 신입 채용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경력 디자이너와 신규 디자이너 모두 '1명'(각 14.1%, 16.1%) 채용이 가장 많음.

#### »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 업종별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는 경력과 신입 각각 평균 0.29명, 0.35명으로 시각 디자인에서 타 업종 대비 채용이 높음.  
제품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력 디자이너보다 신입 디자이너의 채용이 많음.

#### » 업종별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구분		경력 디자이너						신입 디자이너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 (명)
전문디자인업체		14.1	4.3	1.5	0.1	80.0	0.29	16.1	5.9	1.6	0.3	76.1	0.35
업종별	제품 디자인	16.1	4.0	2.8	0.0	77.1	0.34	16.2	4.1	1.7	0.0	77.9	0.30
	시각 디자인	15.1	3.5	1.4	0.1	79.9	0.28	16.4	7.5	2.6	0.2	73.3	0.41
	인테리어 디자인	14.6	6.4	0.9	0.4	77.8	0.33	19.5	6.3	0.4	0.4	73.4	0.3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0	3.5	0.9	0.0	87.7	0.18	9.9	4.0	0.9	1.1	84.1	0.28

- 권역별 신규 채용 경력 디자이너 수는 강원/제주가 0.37명으로 타 권역 대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서울(0.35명), 대구/경북(0.25명), 경기(0.25명)가 뒤를 이음. 신규 채용 신입 디자이너 수는 광주/전라(0.41명)에서 가장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규 채용한 경력 디자이너와 신입 디자이너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신규 채용한 디자이너 수(경력/신입)**

(단위: %)

구분		경력 디자이너						신입 디자이너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4.1	4.3	1.5	0.1	80.0	0.29	16.1	5.9	1.6	0.3	76.1	0.35
권역별	서울	15.5	5.1	2.0	0.3	77.1	0.35	12.8	7.2	2.5	0.6	76.8	0.40
	부산/울산/경남	8.5	3.3	0.0	0.0	88.2	0.15	21.2	7.3	0.0	0.0	71.5	0.36
	대구/경북	16.3	3.6	0.4	0.0	79.7	0.25	11.5	3.6	0.7	0.0	84.2	0.21
	인천	17.6	0.0	0.0	0.0	82.4	0.18	6.2	0.0	0.0	0.0	93.8	0.06
	경기	6.6	7.6	1.0	0.0	84.7	0.25	21.2	1.7	0.4	0.0	76.7	0.26
	광주/전라	12.9	0.5	1.4	0.0	85.3	0.19	22.6	8.0	0.8	0.0	68.6	0.41
	대전/충청	18.5	0.0	1.6	0.0	79.9	0.23	29.7	1.6	0.0	0.0	68.7	0.33
	강원/제주	27.5	0.0	3.1	0.0	69.4	0.37	16.2	0.0	3.1	0.0	80.7	0.25
규모별	1인	1.1	0.0	0.0	0.0	98.9	0.01	0.0	2.0	0.0	1.1	96.9	0.11
	2~4인	11.4	3.4	0.0	0.0	85.2	0.18	16.0	3.2	0.4	0.0	80.4	0.24
	5~9인	24.7	6.3	0.4	0.0	68.5	0.39	24.6	8.2	0.7	0.0	66.4	0.43
	10~14인	17.0	10.1	9.5	0.0	63.4	0.74	20.5	19.6	7.6	1.2	51.1	0.93
	15인 이상	19.2	9.1	17.3	2.7	51.7	1.15	14.7	16.5	16.0	1.7	51.0	1.13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14.5	4.3	1.6	0.2	79.5	0.30	16.3	6.7	1.7	0.4	74.9	0.38
	기타매출 50% ↑	9.9	4.2	1.3	0.0	84.7	0.23	15.3	0.0	0.7	0.0	84.0	0.17
	반반	30.1	0.0	0.0	0.0	69.9	0.30	0.0	0.0	0.0	0.0	100.0	0.00



#### 4)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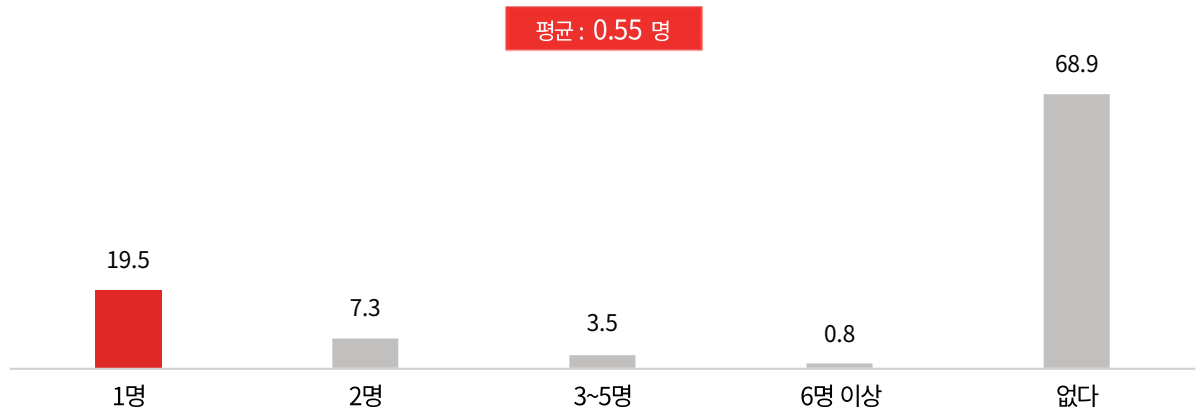
-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는 평균 0.55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19.5%), '2명'(7.3%), '3~5명'(3.5%), '6명 이상'(0.8%) 순임.

전문디자인업체의 68.9%는 퇴직한 디자이너 수가 '없다'고 응답함.

#### »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 업종별 퇴사 디자이너 수는 제품 디자인(0.70명)에서 가장 높음.

이어 시각 디자인(0.54명), 인테리어 디자인(0.46명), 패션/텍스타일 디자인(0.46명)의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9.5	7.3	3.5	0.8	68.9	0.55
업종별	제품 디자인	19.2	8.6	4.6	1.1	66.5	0.70
	시각 디자인	21.7	8.0	3.1	0.8	66.4	0.54
	인테리어 디자인	20.3	5.3	2.6	0.8	71.0	0.4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6	6.5	3.8	0.7	75.3	0.46

- 권역별로 분석해보면,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는 서울에서 평균 0.61명으로 가장 높고, 대구/경북(0.56명), 부산/울산/경남(0.53명)에서도 높게 나타남. 한편, 인천은 0.06명으로 퇴사 디자이너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퇴사 디자이너 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구성별로는 비슷한 수준이나,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에서 퇴직한 디자이너 수가 0.58명으로 가장 높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2017년 퇴사한 디자이너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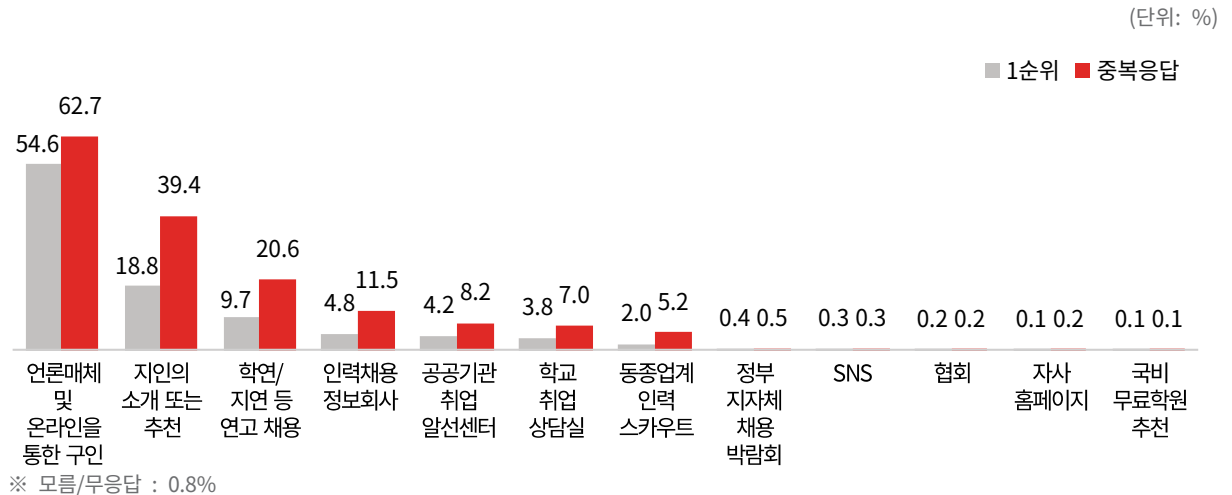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1명	2명	3~5명	6명 이상	없다	평균(명)
전문디자인업체		19.5	7.3	3.5	0.8	68.9	0.55
권역별	서울	20.6	7.2	3.4	1.2	67.7	0.61
	부산/울산/경남	17.2	9.8	3.2	1.0	68.8	0.53
	대구/경북	18.0	10.4	4.2	0.7	66.7	0.56
	인천	6.2	0.0	0.0	0.0	93.8	0.06
	경기	21.1	8.0	4.0	0.4	66.5	0.52
	광주/전라	25.2	7.4	1.9	0.0	65.6	0.48
	대전/충청	6.5	0.0	3.2	0.0	90.3	0.19
	강원/제주	9.1	2.4	9.8	0.0	78.6	0.43
규모별	1인	1.1	0.0	3.1	0.0	95.8	0.10
	2~4인	21.8	6.3	0.4	0.2	71.3	0.37
	5~9인	26.0	11.4	2.3	0.0	60.4	0.56
	10~14인	17.5	9.3	26.8	3.2	43.2	1.97
	15인 이상	20.3	15.1	15.8	10.6	38.1	1.96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20.2	7.9	3.7	0.9	67.2	0.58
	기타매출 50% ↑	15.6	3.2	1.5	0.7	79.0	0.34
	반반	0.0	0.0	0.0	0.0	100.0	0.00

## 5)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중복응답 기준)로는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62.7%)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39.4%),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20.6%), ‘인력채용 정보회사’(11.5%) 등의 순임.

### »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를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이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을 통한 구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인력채용 정보회사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학교 취업 상담실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전문디자인업체		62.7	39.4	20.6	11.5	8.2	7.0	5.2
업종별	제품 디자인	76.8	36.1	21.9	8.5	7.3	3.9	2.9
	시각 디자인	67.9	38.1	21.7	9.1	8.7	5.3	6.1
	인테리어 디자인	50.5	38.3	17.3	18.7	9.6	13.6	7.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7.0	49.1	20.9	11.2	6.0	6.2	3.8

구분		정부 지자체 채용 박람회	SNS	협회	자사 홈페이지	국비무료학원 추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0.5	0.3	0.2	0.2	0.1	0.3
업종별	제품 디자인	0.3	0.0	0.0	0.0	0.0	0.0
	시각 디자인	0.0	0.8	0.0	0.5	0.3	0.0
	인테리어 디자인	0.4	0.0	0.9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2	0.0	0.0	0.0	0.0	2.2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52.0%)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규모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이 주된 채용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응답 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1인 규모 업체의 경우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의 비율이 52.6%로 높게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매출이 비슷한 업체(60.3%)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주된 경로로 꼽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인력 채용 경로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언론매체 및 온라인 을 통한 구인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학연/ 지연 등 연고 채용	인력채용 정보회사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학교 취업 상담실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전문디자인업체		62.7	39.4	20.6	11.5	8.2	7.0	5.2
권역별	서울	62.6	39.8	19.8	13.3	7.1	5.6	5.3
	부산/울산/경남	70.0	28.4	14.6	11.2	8.1	12.6	8.2
	대구/경북	50.0	42.3	27.6	9.6	4.1	18.6	8.7
	인천	47.4	41.3	17.5	0.0	0.0	0.0	17.5
	경기	62.7	40.1	20.1	8.3	6.9	3.4	4.4
	광주/전라	68.1	40.2	18.7	11.7	18.6	8.6	1.5
	대전/충청	71.2	32.0	38.2	4.5	5.5	4.3	0.0
	강원/제주	52.0	65.8	19.3	11.7	19.5	0.0	0.0
규모별	1인	47.2	52.6	22.3	5.2	4.6	7.5	4.1
	2~4인	55.2	41.3	24.9	9.9	7.3	7.4	4.5
	5~9인	76.7	31.2	15.9	17.4	10.0	5.5	6.5
	10~14인	83.1	38.7	11.9	10.2	15.8	7.7	6.6
	15인 이상	85.2	26.3	7.9	15.6	9.4	9.7	6.9
	반반	60.3	82.7	0.0	17.3	17.3	0.0	22.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63.4	38.8	20.6	12.2	8.7	7.1	4.4
	기타매출 50% ↑	57.3	40.0	22.5	5.7	3.5	7.4	10.2
	반반	60.3	82.7	0.0	17.3	17.3	0.0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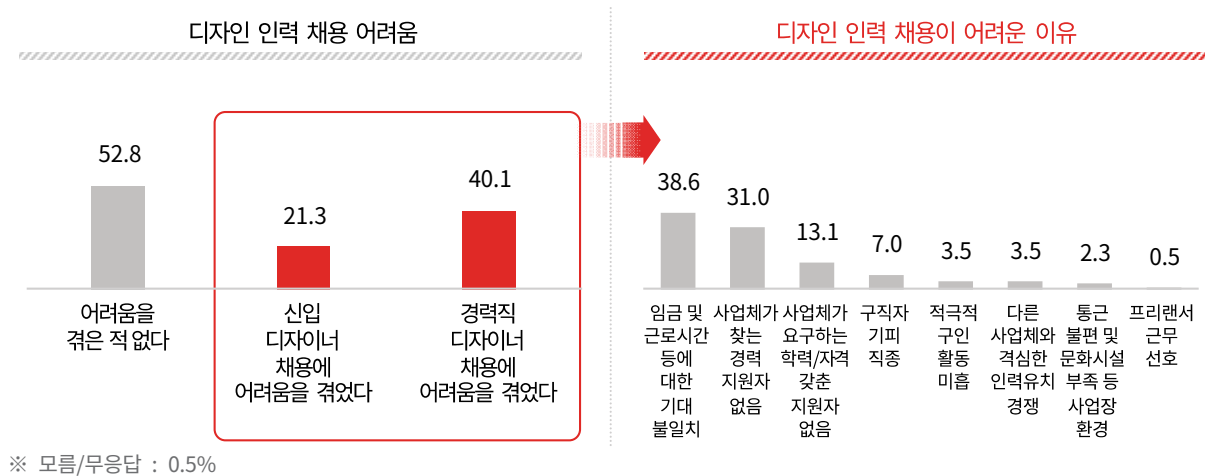
구분		정부 지자체 채용 박람회	SNS	협회	자사 홈페이지	국비무료학원 추천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0.5	0.3	0.2	0.2	0.1	0.3
권역별	서울	0.9	0.5	0.0	0.4	0.0	0.3
	부산/울산/경남	0.4	0.0	2.4	0.0	0.0	1.8
	대구/경북	0.0	0.0	0.0	0.0	0.0	0.0
	인천	0.0	0.0	0.0	0.0	0.0	0.0
	경기	0.0	0.0	0.0	0.0	1.0	0.0
	광주/전라	0.0	0.0	0.0	0.0	0.0	0.0
	대전/충청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1.1	0.0	0.0	0.0	0.0	1.1
	2~4인	0.4	0.6	0.5	0.1	0.0	0.4
	5~9인	0.3	0.0	0.0	0.2	0.4	0.0
	10~14인	0.0	0.0	0.0	0.0	0.0	0.0
	15인 이상	1.5	0.0	0.0	1.2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0.4	0.0	0.3	0.2	0.1	0.4
	기타매출 50% ↑	1.5	2.6	0.0	0.0	0.0	0.0
	반반	0.0	0.0	0.0	0.0	0.0	0.0

## 6)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은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52.8%의 비율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 중 ‘경력직 디자이너’의 경우 40.1%, ‘신입 디자이너’의 경우 21.3%의 비율을 보임.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38.6%), ‘사업체가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31.0%) 등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시각 디자인의 경우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47.3%로 높게 나타남.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의 경우 패션/텍스타일 디자인(48.3%), ‘사업체가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은 인테리어 디자인(37.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력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	사업체가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	사업체가 요구하는 학력/자 격 갖춘 지원자 없음	구직자 기피 직종	적극적 구인 활동 미흡	다른 사업체와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통근불편 및 문화시설 부족 등 사업장 환경	프리랜서 근무 선호
전문디자인업체		52.8	21.3	40.1	38.6	31.0	13.1	7.0	3.5	3.5	2.3	0.5
업종별	제품 디자인	53.8	25.8	38.3	41.9	24.3	18.3	2.8	1.4	2.0	7.2	0.0
	시각 디자인	47.4	21.6	47.3	38.2	33.5	11.8	6.4	6.9	1.7	1.5	0.0
	인테리어 디자인	53.0	17.7	38.7	31.0	37.6	14.0	6.9	0.8	7.6	0.0	2.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4.4	19.3	27.7	48.3	22.5	5.9	17.7	0.9	4.6	0.0	0.0

- 권역별로 어려움을 분석하면, 대전/충청(62.8%), 서울(57.2%), 대구/경북(52.2%) 권역에서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제주(59.4%), 광주/전라(50.0%), 경기(47.2%)는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 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게 나타남.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에 대해 인천(66.7%)과 경기(48.2%)에서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사업체가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에 대해 광주/전라(66.3%)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15인 이상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규모가 커질수록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1인 규모의 업체에서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은 비율이 47.9%로 높게 나타남.

- 매출 구성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41.7%)에서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특히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인력 채용의 어려움

(단위: %)

구분		디자인 인력 채용 어려움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에 대한 기대 불일치	사업체가 찾는 경력 지원자 없음	사업체가 요구하는 학력/자격 갖춘 자원이 없음	구직자 기피 작용	적극적 구인 활동 미흡	다른 사업체와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통근불편 및 문화시설 부족 등 사업장 환경	프랜차이즈 근무 선호
전문디자인업체		52.8	21.3	40.1	38.6	31.0	13.1	7.0	3.5	3.5	2.3	0.5
권역별	서울	57.2	18.5	36.8	38.1	28.6	14.9	8.7	2.5	5.1	1.2	1.0
	부산/울산/경남	44.3	31.3	44.8	39.9	22.9	18.0	9.1	5.8	4.3	0.0	0.0
	대구/경북	52.2	25.9	31.0	45.7	28.2	3.9	3.0	15.5	1.6	2.1	0.0
	인천	47.3	35.1	35.1	66.7	33.3	0.0	0.0	0.0	0.0	0.0	0.0
	경기	46.5	23.9	47.2	48.2	15.3	16.1	8.9	3.3	2.7	5.4	0.0
	광주/전라	46.3	20.3	50.0	26.1	66.3	5.4	1.0	0.0	0.0	1.3	0.0
	대전/충청	62.8	10.0	37.2	35.5	27.7	14.0	0.0	0.0	0.0	7.8	0.0
	강원/제주	33.9	34.2	59.4	18.7	49.7	11.6	6.9	0.0	0.0	13.2	0.0
규모별	1인	69.6	17.5	23.9	47.9	12.3	0.0	7.4	13.0	9.7	4.9	4.8
	2~4인	57.5	20.1	35.3	36.7	33.9	8.9	9.4	3.3	4.4	2.2	0.0
	5~9인	42.5	23.6	50.4	39.5	32.9	20.4	3.0	0.8	1.0	2.5	0.0
	10~14인	29.6	23.4	61.5	31.6	35.9	15.8	10.6	6.1	0.0	0.0	0.0
	15인 이상	37.3	30.5	57.5	40.6	25.0	20.9	6.4	1.6	4.1	1.5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51.2	22.3	41.7	38.3	31.4	13.1	6.6	3.2	3.8	2.5	0.5
	기타매출 50% ↑	66.0	13.7	28.6	42.1	22.7	15.2	12.2	7.8	0.0	0.0	0.0
	반반	52.6	17.3	30.1	36.4	63.6	0.0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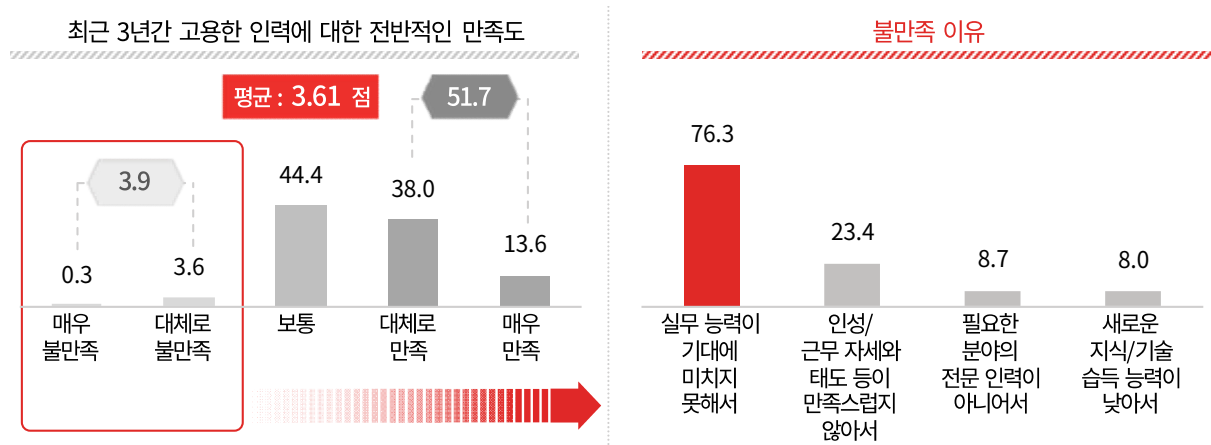
## 7)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61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족’(대체로 만족: 38.0% + 매우 만족: 13.6%) 응답이 51.7%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불만족’(매우 불만족: 0.3% + 대체로 불만족: 3.6%) 응답 비율은 3.9%로 나타남. 불만족의 이유로는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76.3%),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23.4%) 등이 나타남.

### »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고용 인력 전반적 만족도는 모든 업종에서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시각 디자인이 3.66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 디자인(3.64점),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56점), 인테리어 디자인(3.54점)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 (점)
전문디자인업체		0.3	3.6	3.9	44.4	38.0	13.6	51.7	3.61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5.1	5.1	36.9	47.0	11.0	58.0	3.64
	시각 디자인	0.0	1.9	1.9	47.0	34.1	17.0	51.1	3.66
	인테리어 디자인	0.0	5.7	5.7	45.8	38.0	10.6	48.6	3.5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2	2.2	4.3	47.5	34.0	14.1	48.2	3.56



- 권역별 만족도는 강원/제주(3.70점), 대전/충청(3.68점), 광주/전라(3.66점) 등의 순위를 보였으며, 인천(3.18점)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3.70점), 5~9인(3.68점), 15인 이상(3.65점), 2~4인(3.62점), 1인(3.40점)의 순을 보임.
- 매출 구성에 따른 만족도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4.00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최근 3년간 고용한 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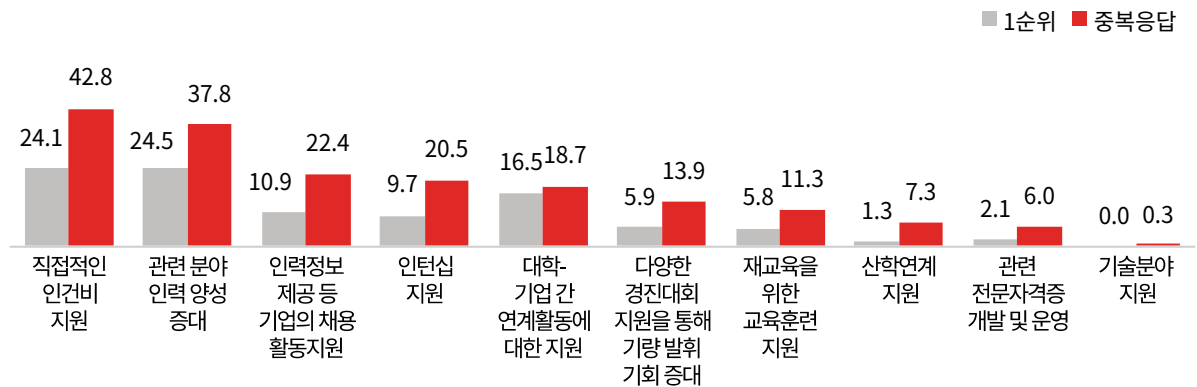
구분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만족	평균 (점)
전문디자인업체		0.3	3.6	3.9	44.4	38.0	13.6	51.7	3.61
권역별	서울	0.3	2.3	2.6	44.9	39.6	12.8	52.5	3.62
	부산/울산/경남	0.0	4.8	4.8	41.6	38.7	14.9	53.6	3.64
	대구/경북	0.0	7.3	7.3	47.2	33.1	12.4	45.5	3.51
	인천	0.0	0.0	0.0	82.4	17.6	0.0	17.6	3.18
	경기	1.4	5.0	6.4	42.7	37.6	13.3	50.9	3.56
	광주/전라	0.0	5.1	5.1	42.8	32.5	19.6	52.0	3.66
	대전/충청	0.0	2.9	2.9	40.5	42.1	14.5	56.6	3.68
	강원/제주	0.0	3.6	3.6	37.8	43.8	14.7	58.6	3.70
규모별	1인	0.0	0.0	0.0	73.3	13.7	13.0	26.7	3.40
	2~4인	0.7	4.2	4.9	43.7	34.5	16.8	51.3	3.62
	5~9인	0.0	4.6	4.6	33.0	52.0	10.4	62.4	3.68
	10~14인	0.0	0.0	0.0	35.9	58.6	5.5	64.1	3.70
	15인 이상	0.0	5.9	5.9	34.2	49.1	10.8	59.8	3.6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0.4	4.0	4.4	44.8	37.0	13.8	50.8	3.60
	기타매출 50% ↑	0.0	0.0	0.0	45.4	41.0	13.6	54.6	3.68
	반반	0.0	0.0	0.0	0.0	100.0	0.0	100.0	4.00

## 8)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중복응답 기준)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42.8%로 가장 높고, 다음은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37.8%),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활동지원’(22.4%), ‘인턴십 지원’(20.5%), ‘대학-기업 간 연계활동에 대한 지원’(18.7%) 등의 순임.

### »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 모름/무응답 : 0.7%

- 업종별로 살펴보면,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은 시각 디자인(47.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45.1%)에서 높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에 대해 제품 디자인(39.7%),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은 시각 디자인(25.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인턴십 지원	대학-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을 통해 기량 발휘 기회 증대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산학연계 지원	관련 전문 자격증 개발 및 운영	기술분야 지원
전문디자인업체		42.8	37.8	22.4	20.5	18.7	13.9	11.3	7.3	6.0	0.3
업종별	제품 디자인	45.0	39.7	17.6	24.7	23.4	9.0	9.3	7.6	8.5	0.0
	시각 디자인	47.7	37.4	25.8	18.3	14.6	13.2	11.6	6.2	6.5	0.8
	인테리어 디자인	31.2	35.6	24.9	22.6	18.9	21.4	14.0	7.7	2.3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5.1	39.2	17.9	16.3	21.1	11.7	9.4	8.9	6.5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을 가장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구/경북(50.7%)에서 더욱 높음. 한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49.4%) 강화가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41.6%), 2~4인(46.0%), 10~14인(50.1%) 기업에서는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장 높고, 5~9인(37.4%)과 15인 이상(52.4%) 규모는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가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정부의 지원 강화 부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	관련 분야 인력 양성 증대	인력정보 제공 등 기업의 채용 활동지원	인턴십 지원	대학 기업 간 연계 활동에 대한 지원	다양한 경진대회 지원 통해 기량 발휘 기회 증대	재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산학연계 지원	관련 전문 자격증 개발 및 운영	기술분야 지원
전문디자인업체		42.8	37.8	22.4	20.5	18.7	13.9	11.3	7.3	6.0	0.3
권역별	서울	42.0	37.2	21.3	20.7	15.6	15.7	12.4	8.0	5.5	1.0
	부산/울산/경남	43.9	49.4	26.3	19.3	20.1	13.1	9.8	7.7	2.1	0.0
	대구/경북	50.7	34.6	16.4	19.7	20.0	10.7	10.6	6.8	4.0	2.8
	인천	41.1	17.6	35.1	6.2	35.1	17.5	23.5	6.2	0.0	0.0
	경기	47.2	31.7	19.8	17.5	23.9	11.9	10.6	7.8	8.0	0.0
	광주/전라	42.3	37.0	37.7	23.7	13.0	12.1	8.1	4.0	7.3	0.0
	대전/충청	37.4	40.8	14.6	26.2	31.8	12.7	14.5	9.0	12.9	0.0
	강원/제주	24.5	54.4	10.2	22.3	44.0	4.6	0.0	3.1	14.9	0.0
규모별	1인	41.6	37.1	19.6	15.8	19.6	15.1	7.1	10.5	3.1	0.0
	2~4인	46.0	36.6	19.9	22.9	18.1	14.3	11.6	6.1	7.2	0.9
	5~9인	36.5	37.4	27.3	20.9	18.8	14.7	11.5	8.5	5.3	1.1
	10~14인	50.1	38.6	23.9	19.6	15.5	8.0	17.3	6.5	9.4	0.0
	15인 이상	42.3	52.4	27.3	10.8	24.2	8.3	13.6	4.8	4.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43.0	38.4	22.1	21.7	18.4	13.6	10.6	7.4	5.8	0.6
	기타매출 50% ↑	36.2	33.3	24.9	10.3	22.5	15.2	17.4	7.3	7.9	2.0
	반반	100.0	30.1	17.3	30.1	0.0	22.5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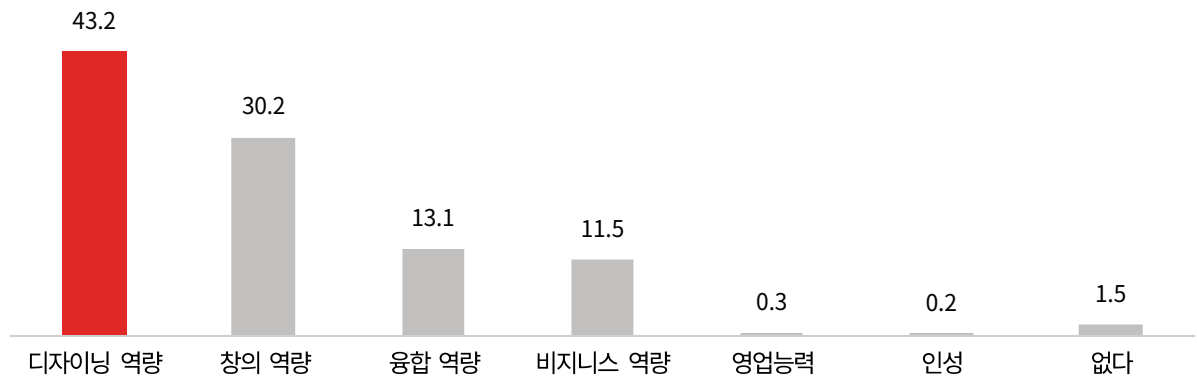
### 3. 디자인 교육

####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디자인 역량’이 43.2%로 가장 높고, ‘창의 역량’(30.2%), ‘융합 역량’(13.1%), ‘비즈니스 역량’(11.5%)등 의 항목으로 나타남.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업종별 필요 역량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 역량’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시각 디자인(47.9%)에서 높게 나타남. ‘창의 역량’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8.4%), ‘융합 역량’은 시각 디자인(14.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디자인 역량	창의 역량	융합 역량	비즈니스 역량	영업능력	인성
전문디자인업체		43.2	30.2	13.1	11.5	0.3	0.2
업종별	제품 디자인	41.6	37.2	14.2	7.0	0.0	0.0
	시각 디자인	47.9	22.5	14.9	11.5	0.8	0.0
	인테리어 디자인	43.0	30.0	11.5	12.7	0.0	0.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4.4	38.4	9.5	16.6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역량’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천(58.7%)에서 높게 나타남. ‘창의 역량’의 경우 강원/제주(41.4%)에서 타 권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규모 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역량’에 가장 높은 필요도를 준 가운데, 특히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61.2%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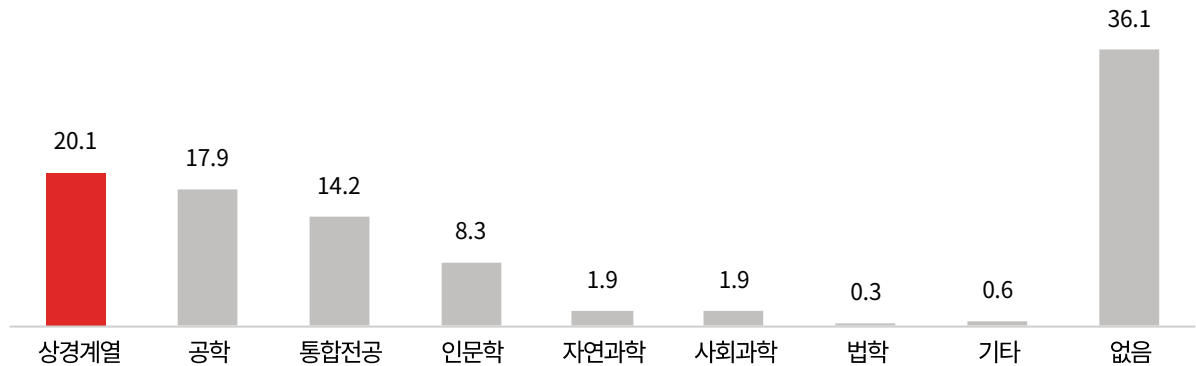
구분		디자인 역량	창의 역량	융합 역량	비즈니스 역량	영업능력	인성
전문디자인업체		43.2	30.2	13.1	11.5	0.3	0.2
권역별	서울	42.4	32.6	11.4	11.5	0.5	0.4
	부산/울산/경남	39.9	24.2	18.5	17.4	0.0	0.0
	대구/경북	38.6	30.2	14.0	12.3	0.0	0.0
	인천	58.7	23.8	0.0	0.0	0.0	0.0
	경기	50.5	23.0	15.3	8.7	0.0	0.0
	광주/전라	42.9	28.3	17.0	11.8	0.0	0.0
	대전/충청	45.9	32.2	7.1	14.8	0.0	0.0
	강원/제주	41.2	41.4	17.4	0.0	0.0	0.0
규모별	1인	29.6	33.9	15.1	16.0	0.0	0.0
	2~4인	42.1	28.1	14.5	12.8	0.6	0.5
	5~9인	47.2	33.7	9.6	9.6	0.0	0.0
	10~14인	54.4	27.5	13.0	5.1	0.0	0.0
	15인 이상	61.2	23.6	12.0	3.2	0.0	0.0
	디자인매출 50% ↑	41.4	32.4	13.5	11.1	0.3	0.3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56.6	13.1	10.9	14.1	0.0	0.0
	반반	52.6	30.1	0.0	17.3	0.0	0.0

##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디자인 전공 외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중복응답 기준)는 ‘상경계열’이 2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공학’(17.9%)이 뒤를 이음. ‘없다’의 응답은 36.1%의 비율로 나타남.

### »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모름/무응답 : 0.3%

- 업종별 필요 전공 분야는 ‘상경계열’은 시각 디자인(26.7%)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의 분야로 꼽았으며, ‘공학’의 경우 제품 디자인(28.9%)과 인테리어 디자인(2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상경계열	공학	통합전공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학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0.1	17.9	14.2	8.3	1.9	1.9	0.3	0.6	36.1
업종별	제품 디자인	19.4	28.9	12.0	7.8	2.8	2.2	0.0	0.0	27.8
	시각 디자인	26.7	7.7	13.7	9.9	0.8	2.5	0.9	1.4	41.1
	인테리어 디자인	17.3	28.3	11.8	9.5	1.6	0.4	0.0	0.0	31.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3	10.6	22.2	3.8	3.7	2.2	0.0	0.6	44.3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권역에서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가운데, 인천이 76.2%로 높게 나타남.

‘상경계열’의 경우 광주/전라(30.4%), 부산/울산/경남(26.1%), 경기(20.4%)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상경계열’은 15인 이상(38.9%), ‘공학’은 10~14인(43.1%)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출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에서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는 60.3%가 ‘상경계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상경계열	공학	통합전공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법학	기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0.1	17.9	14.2	8.3	1.9	1.9	0.3	0.6	36.1
권역별	서울	18.7	18.9	13.9	8.8	2.0	2.8	0.6	0.7	36.2
	부산/울산/경남	26.1	14.1	12.7	11.2	0.6	0.0	0.0	0.0	33.8
	대구/경북	19.2	12.0	19.2	10.3	2.3	0.0	0.0	0.0	36.4
	인천	0.0	23.8	17.6	0.0	0.0	0.0	0.0	0.0	76.2
	경기	20.4	20.9	10.8	5.5	2.3	1.4	0.0	2.0	34.1
	광주/전라	30.4	19.5	16.0	4.2	1.0	0.0	0.0	0.0	29.4
	대전/충청	13.9	10.4	12.9	5.5	5.5	5.5	0.0	0.0	54.7
	강원/제주	11.7	18.9	20.4	19.9	0.0	0.0	0.0	0.0	29.1
규모별	1인	7.3	13.4	11.1	5.7	0.0	0.0	0.0	0.0	60.2
	2~4인	21.2	14.5	10.3	7.8	1.9	2.4	0.0	0.6	40.9
	5~9인	20.9	22.0	20.3	10.4	1.6	1.5	0.0	1.2	23.1
	10~14인	23.4	43.1	22.5	14.4	6.7	5.7	5.7	0.0	11.7
	15인 이상	38.9	17.7	19.9	4.4	3.9	1.2	1.0	0.0	13.7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21.3	19.5	14.5	9.1	2.2	1.8	0.4	0.7	32.3
	기타매출 50% ↑	7.3	7.2	9.8	3.5	0.0	2.6	0.0	0.0	69.6
	반반	60.3	0.0	39.7	0.0	0.0	0.0	0.0	0.0	0.0

### 3)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중복응답 기준)은 ‘디자인전공-학사(4년제)’의 비율이 76.8%로 가장 높고, 이어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45.8%), ‘디자인전공-석사’(13.9%) 등의 순임.

#### »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디자인전공-학사(4년제)’를 꼽은 응답이 가장 높고, 제품 디자인에서 비율이 95.9%로 더욱 높음.

#### » 업종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 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학력 상관 없음
			전문 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3년제)	학사 (4년제)	
전문디자인업체		8.6	45.8	76.8	13.9	0.6	2.1	6.7	1.2	0.3	0.6	1.5	3.3
업종별	제품 디자인	7.5	36.7	95.9	22.8	0.0	0.8	9.0	0.9	0.2	0.9	0.9	0.0
	시각 디자인	5.0	49.0	76.6	11.3	0.0	1.3	6.9	1.1	0.3	0.8	2.4	3.8
	인테리어 디자인	8.9	48.5	66.0	11.9	0.9	4.7	5.4	1.9	0.4	0.3	0.9	3.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8.5	47.7	64.2	9.7	2.2	2.2	4.9	1.1	0.0	0.0	1.1	6.5



- 권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권역에서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85.3%), 대전/충청(85.2%), 강원/제주(83.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업체에서 ‘디자인 전공-학사(4년제)’를 가장 선호하는 교육 수준으로 응답한 가운데 10~14인 규모의 기업에서 97.0%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임.  
한편, 1인 규모 기업에서는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선호도가 14.1%로 다른 규모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매출 구성별 결과는 디자인과 기타매출이 비슷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디자인전공-학사(4년제)’,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과 기타매출이 비슷한 업체는 ‘디자인전공-학사(4년제)’와 ‘디자인전공-전문학사(2~3년제)’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52.6%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가장 선호하는 디자이너 교육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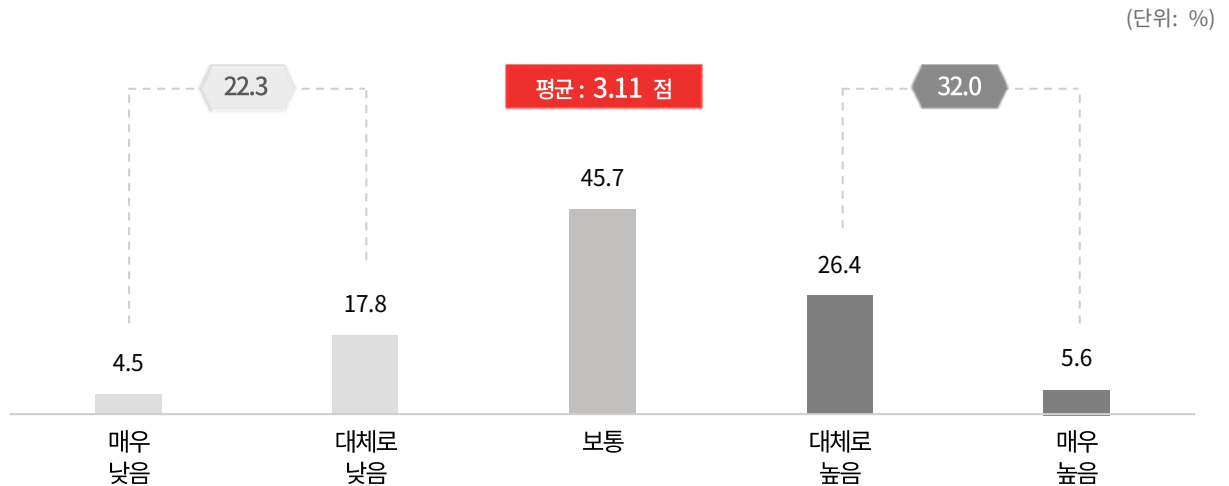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	디자인 전공				디자인, 공학 등 융합 전공자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		학력 상관 없음
			전문 학사 (2~ 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 3년제)	학사 (4년제)	석사	박사	전문 학사 (2~ 3년제)	학사 (4년제)	
<b>전문디자인업체</b>		8.6	45.8	76.8	13.9	0.6	2.1	6.7	1.2	0.3	0.6	1.5	3.3
<b>권역별</b>	서울	6.2	44.8	76.7	15.1	.7	2.2	4.9	.6	0.0	1.0	1.3	5.3
	부산/울산/경남	13.3	41.2	85.3	10.3	1.8	.4	9.3	0.0	0.0	0.0	7.5	0.0
	대구/경북	2.3	61.7	75.3	10.6	0.0	5.5	3.9	.6	.6	0.0	1.0	2.1
	인천	35.1	41.1	47.4	23.8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9.2	48.7	71.1	13.1	0.0	2.5	12.8	2.4	1.0	0.0	0.0	2.5
	광주/전라	17.2	37.0	75.5	18.1	0.0	.8	11.0	5.5	1.0	0.0	0.0	0.0
	대전/충청	14.5	47.9	85.2	8.7	0.0	0.0	8.4	0.0	0.0	0.0	0.0	0.0
	강원/제주	6.7	52.4	83.4	3.6	0.0	2.5	2.5	3.1	0.0	2.4	0.0	0.0
<b>규모별</b>	1인	14.1	48.5	55.9	7.0	1.1	2.9	1.1	1.5	0.0	0.0	3.1	9.3
	2~4인	10.0	44.2	74.8	13.0	.4	2.2	5.8	1.7	.4	1.1	1.0	3.7
	5~9인	4.5	48.2	85.4	16.4	.8	2.1	13.0	.5	.2	0.0	.9	.4
	10~14인	0.0	43.4	97.0	24.6	0.0	0.0	0.0	1.5	0.0	1.2	1.5	0.0
	15인 이상	9.4	42.7	90.7	18.9	0.0	.7	5.9	0.0	0.0	0.0	4.2	0.0
	반반	0.0	52.6	52.6	17.3	0.0	0.0	47.4	0.0	0.0	0.0	0.0	0.0
<b>매출 구성</b>	디자인매출 50% ↑	8.8	45.0	78.5	15.2	.6	2.2	6.9	1.4	.3	.7	1.3	3.1
	기타매출 50% ↑	7.7	51.7	64.8	3.2	0.0	1.5	2.0	0.0	0.0	0.0	2.7	5.3
	반반	0.0	52.6	52.6	17.3	0.0	0.0	47.4	0.0	0.0	0.0	0.0	0.0

#### 4)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 실제 디자인 업무 기여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11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보통’의 비율은 45.7%로 가장 높고,  
‘높음’(대체로 : 26.4% + 매우 : 5.6%)은 32.0%,  
‘낮음’(대체로 : 17.8% + 매우 : 4.5%)은 22.3%로 나타남.

#### »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 업종별 디자인 업무 기여도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에서 3.1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3.17점), 시각 디자인(3.08점), 제품 디자인(3.03점)의 순임.

#### » 업종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 (점)
전문디자인업체		4.5	17.8	22.3	45.7	26.4	5.6	32.0	3.11
업종별	제품 디자인	5.6	17.2	22.9	50.1	22.8	4.2	27.0	3.03
	시각 디자인	5.5	21.6	27.0	40.6	24.2	8.2	32.4	3.08
	인테리어 디자인	2.8	14.6	17.5	49.7	27.8	5.0	32.8	3.1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3	14.1	17.4	45.2	34.9	2.5	37.4	3.19

- 권역별 디자인 업무 기여도는 대전/충청(3.29점), 부산/울산/경남(3.25점)에서 가장 높고, 강원/제주(2.71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3.40점), 15인 이상(3.34점), 5~9인(3.26점), 1인(3.06점), 2~4인(2.98점)의 순의 디자인 업무 기여도를 보임.
- 매출 구성별 결과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가 3.2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디자인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3.13점), 기타매출이 반 이상인 업체(2.91점)의 순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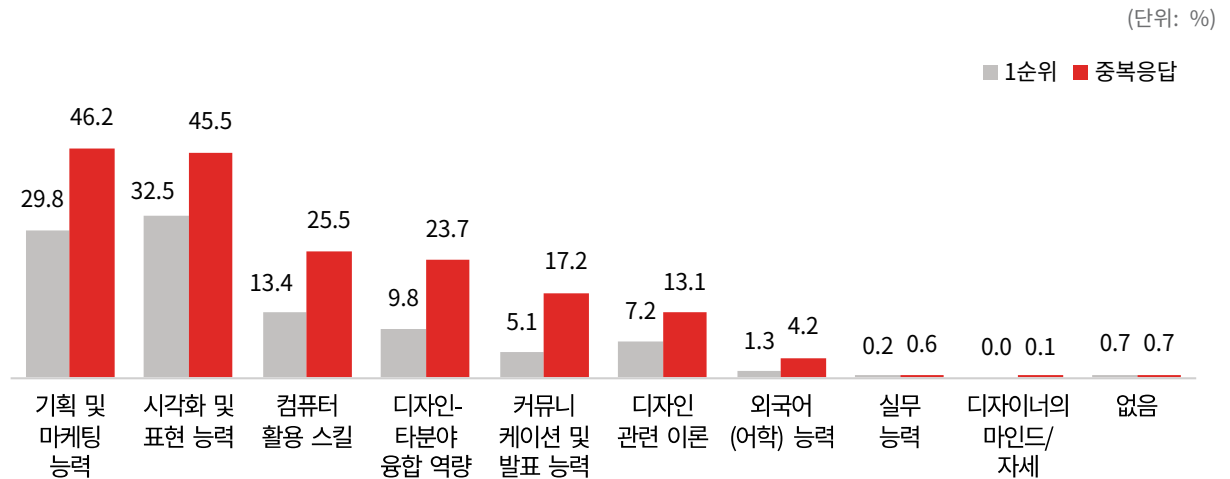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 (점)
전문디자인업체		4.5	17.8	22.3	45.7	26.4	5.6	32.0	3.11
권역별	서울	4.6	17.0	21.7	46.1	25.4	6.9	32.3	3.13
	부산/울산/경남	3.7	17.0	20.7	39.0	31.8	8.6	40.3	3.25
	대구/경북	0.0	24.9	24.9	34.8	40.3	0.0	40.3	3.15
	인천	0.0	0.0	0.0	100.0	0.0	0.0	0.0	3.00
	경기	7.8	23.2	31.0	46.1	18.5	4.4	22.9	2.89
	광주/전라	5.5	18.8	24.3	38.8	31.6	5.3	36.9	3.13
	대전/충청	0.0	8.4	8.4	56.1	33.8	1.6	35.4	3.29
	강원/제주	11.7	8.7	20.4	76.5	3.1	0.0	3.1	2.71
규모별	1인	3.4	22.3	25.7	44.9	23.5	5.9	29.4	3.06
	2~4인	6.3	21.2	27.5	45.7	22.1	4.8	26.9	2.98
	5~9인	3.5	13.2	16.6	44.5	31.5	7.4	38.9	3.26
	10~14인	0.0	3.0	3.0	59.6	32.0	5.5	37.5	3.40
	15인 이상	1.8	11.6	13.4	40.5	42.9	3.2	46.1	3.34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4.6	16.0	20.6	46.8	27.1	5.6	32.7	3.13
	기타매출 50% ↑	4.6	33.6	38.2	34.2	21.2	6.3	27.5	2.91
	반반	0.0	0.0	0.0	77.5	22.5	0.0	22.5	3.22

## 5)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중복응답 기준)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46.2%)이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화 및 표현 능력’(45.5%), ‘컴퓨터 활용 스킬’(25.5%),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2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제품 디자인(54.5%)과 시각 디자인(48.5%)에서 높고,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제품 디자인(52.5%)과 인테리어 디자인(49.7%)에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 케이션 및 발표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실무 능력	디자이너의 마인드/ 자세
전문디자인업체		46.2	45.5	25.5	23.7	17.2	13.1	4.2	0.6	0.1
업종별	제품 디자인	54.5	52.5	27.2	23.4	15.4	15.1	4.1	0.0	0.0
	시각 디자인	48.5	39.8	30.9	20.9	23.4	7.9	4.2	0.0	0.3
	인테리어 디자인	38.4	49.7	22.0	27.2	12.5	15.0	3.7	0.9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9.9	42.4	15.4	25.6	12.2	20.2	5.1	2.2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기획 및 마케팅 능력'과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이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기획 및 마케팅 능력'은 15인 이상(53.2%), 2~4인(49.1%), 5~9인(46.2%)에서 높고, '시각화 및 표현 능력'은 10~14인(63.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매출 구성별로는, 디자인과 기타 매출이 비슷한 업체에서 '시각화 및 표현 능력'(82.7%)에 높은 비율을 보임.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타분야 융합 역량	커뮤니 케이션 및 발표 능력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실무 적응력	디자이너의 마인드/ 자세
전문디자인업체		46.2	45.5	25.5	23.7	17.2	13.1	4.2	0.6	0.1
권역별	서울	46.1	43.9	23.8	24.5	18.5	13.8	5.1	0.3	0.2
	부산/울산/경남	57.8	41.0	30.7	20.8	20.0	9.4	3.5	0.0	0.0
	대구/경북	39.4	50.7	23.5	18.6	12.2	21.7	2.8	2.8	0.0
	인천	23.8	23.8	35.1	23.5	23.5	0.0	17.5	0.0	0.0
	경기	39.6	54.7	21.5	31.1	8.1	12.7	3.9	1.4	0.0
	광주/전라	48.7	44.6	36.5	24.4	17.9	6.0	1.5	0.0	0.0
	대전/충청	54.8	54.4	27.4	14.5	23.0	8.4	1.6	0.0	0.0
	강원/제주	46.7	37.2	20.4	10.7	24.5	29.1	0.0	0.0	0.0
규모별	1인	39.7	40.3	22.9	19.8	9.2	13.9	7.5	1.1	0.0
	2~4인	49.1	44.3	24.9	22.6	16.1	12.6	3.6	0.8	0.2
	5~9인	46.2	45.7	27.2	27.7	21.6	13.9	2.7	0.0	0.0
	10~14인	31.4	63.2	33.1	24.9	30.2	13.1	2.3	0.0	0.0
	15인 이상	53.2	52.5	23.1	23.0	15.9	12.4	8.7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46.5	46.9	25.0	25.1	17.8	12.6	4.1	0.6	0.1
	기타매출 50% ↑	46.6	30.8	29.2	12.8	14.1	16.8	5.4	0.0	0.0
	반반	17.3	82.7	30.1	17.3	0.0	22.5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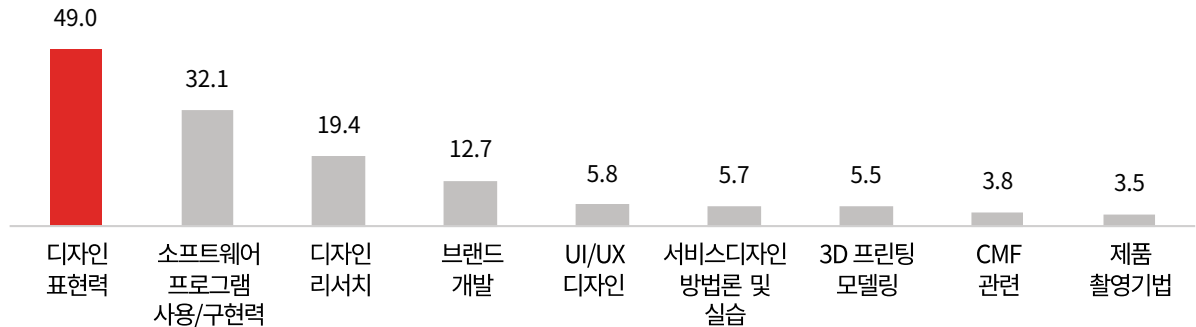
## 6)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1) 디자인 스킬/툴 교육

- 디자인 스킬/툴 교육 중 필요한 재교육으로 ‘디자인 표현력’(49.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32.1%)이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표현력’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모두 제품 디자인(각각 58.9%, 47.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브랜드 개발	UI/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3D 프린팅 모델링	CMF 관련	제품 촬영 기법
전문디자인업체		49.0	32.1	19.4	12.7	5.8	5.7	5.5	3.8	3.5
업종별	제품 디자인	58.9	47.2	32.2	24.7	4.7	6.8	7.6	10.7	7.6
	시각 디자인	48.4	31.2	18.2	9.4	8.6	6.0	3.3	1.2	1.7
	인테리어 디자인	48.2	22.8	13.5	9.7	5.7	5.4	7.6	3.2	3.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6.8	25.0	11.8	7.3	1.1	3.6	4.7	.5	1.1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표현력’은 광주/전라(60.1%), 부산/울산/경남(59.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광주/전라(41.3%), 강원/제주(38.9%)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음.
- ‘디자인 표현력’은 종사자 10인 이상(10~14인 : 61.0%, 15인 이상 : 58.1%)에서 높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은 10~14인(47.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 표현력	소프트 웨어 프로그램 사용 /구현력	디자인 리서치	브랜드 개발	UI/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3D 프린팅 모델링	CMF 관련	제품 촬영 기법
전문디자인업체		49.0	32.1	19.4	12.7	5.8	5.7	5.5	3.8	3.5
권역별	서울	47.7	31.8	21.1	10.6	5.9	6.1	4.4	4.4	1.5
	부산/울산/경남	59.0	35.0	19.5	12.1	4.9	6.5	10.3	0.0	9.6
	대구/경북	47.8	24.8	14.4	9.5	3.5	3.2	1.6	0.6	0.0
	인천	35.1	6.2	6.2	0.0	17.6	0.0	17.6	17.6	0.0
	경기	42.6	27.4	15.5	18.1	7.6	6.9	4.4	6.1	4.8
	광주/전라	60.1	41.3	15.6	21.2	7.5	4.4	9.0	0.0	7.8
	대전/충청	52.8	38.3	29.2	14.9	0.0	9.1	11.7	8.4	4.5
	강원/제주	35.2	38.9	22.0	17.4	4.6	0.0	0.0	4.6	12.2
규모별	1인	41.7	18.2	8.2	5.9	2.0	1.1	0.0	1.5	2.9
	2~4인	45.5	29.4	20.6	13.1	4.8	6.2	5.9	2.8	2.5
	5~9인	55.5	39.9	20.4	13.4	9.1	6.1	7.2	5.6	4.8
	10~14인	61.0	47.7	37.6	22.1	8.7	8.1	5.5	9.5	4.5
	15인 이상	58.1	41.1	17.3	16.3	6.8	9.7	9.6	5.8	5.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50.5	34.8	21.8	13.4	6.6	5.5	6.1	4.4	3.4
	기타매출 50% ↑	34.6	10.6	2.5	7.3	0.0	7.6	0.0	0.0	2.7
	반반	82.7	30.1	0.0	17.3	0.0	0.0	17.3	0.0	1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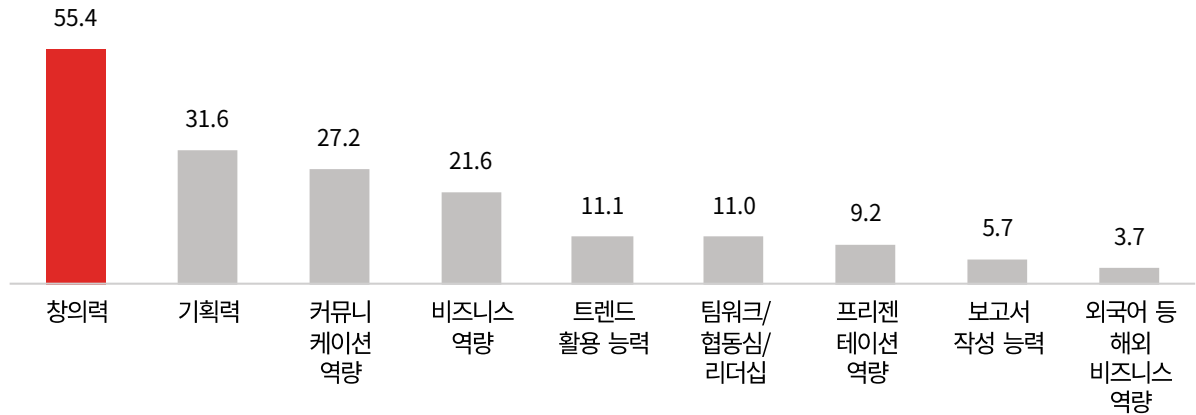
## (2) 역량 향상 교육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향상 교육으로 '창의력'(55.4%)이 가장 높음.

다음은 '기획력'(31.6%), '커뮤니케이션 역량'(27.2%), '비즈니스 역량'(21.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창의력'은 제품 디자인(84.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60.3%)에서 높고, '기획력'은 시각 디자인(3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프리젠테이션 역량	팀워크/협동심/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전문디자인업체		55.4	31.6	27.2	21.6	11.1	11.0	9.2	5.7	3.7
업종별	제품 디자인	84.3	33.0	38.2	27.5	9.5	14.3	10.4	5.7	5.6
	시각 디자인	43.8	38.7	30.2	21.8	9.8	12.0	10.7	6.0	3.2
	인테리어 디자인	41.4	22.5	15.5	14.1	12.4	9.1	8.6	7.7	2.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0.3	25.6	20.3	23.6	14.5	6.5	4.9	2.0	4.4



- 권역별로 살펴보면, ‘창의력’은 경기(59.1%), 광주/전라(58.5%), 대전/충청(58.4%) 등의 순으로 높고, ‘기획력’은 대구/경북(36.9%)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10~14인 규모의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창의력’(67.0%)과 ‘기획력’(52.2%) 모두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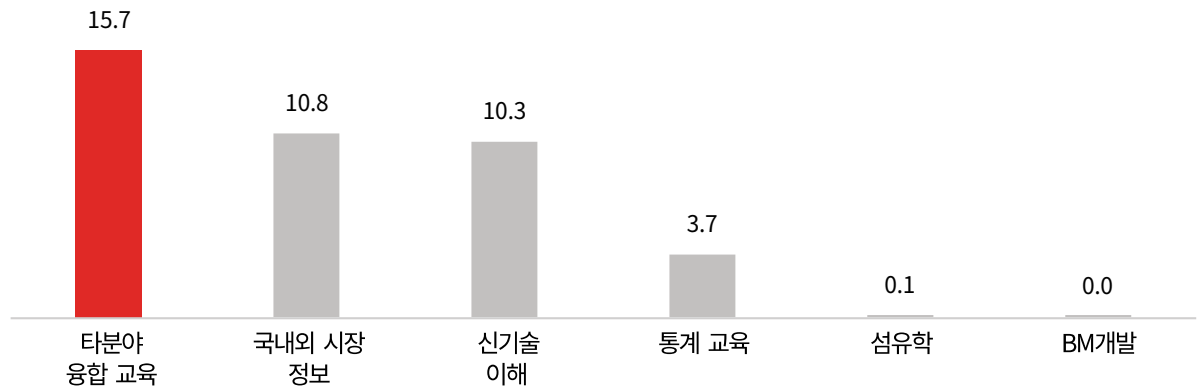
구분		창의력	기획력	커뮤니케이션 역량	비즈니스 역량	트렌드 활용 능력	프레젠테이션 역량	팀워크/협동심/리더십	보고서 작성 능력	외국어 등 해외 비즈니스 역량
전문디자인업체		55.4	31.6	27.2	21.6	11.1	11.0	9.2	5.7	3.7
권역별	서울	57.0	31.3	30.2	23.6	11.0	11.3	9.6	5.9	4.5
	부산/울산/경남	45.9	32.4	27.9	18.4	15.4	12.0	10.0	8.0	1.3
	대구/경북	47.9	36.9	21.4	15.7	10.3	10.6	4.8	2.1	7.1
	인천	41.4	17.6	6.2	17.6	0.0	0.0	0.0	0.0	17.6
	경기	59.1	34.8	22.3	22.3	12.7	6.7	8.9	7.2	2.6
	광주/전라	58.5	24.6	19.9	24.8	11.9	12.7	9.3	7.1	0.0
	대전/충청	58.4	36.0	40.3	10.0	7.4	19.8	19.1	2.9	0.0
	강원/제주	53.6	27.1	17.8	16.4	0.0	8.7	3.1	0.0	4.6
규모별	1인	44.7	22.3	19.2	16.0	7.7	9.5	2.0	2.0	5.4
	2~4인	52.6	29.3	23.7	23.6	11.0	9.5	8.7	6.0	1.6
	5~9인	63.3	36.1	31.7	21.2	11.9	13.9	12.6	7.7	6.4
	10~14인	67.0	52.2	47.7	22.9	12.7	14.7	8.5	1.2	2.2
	15인 이상	60.4	35.2	38.6	21.3	15.4	10.9	18.7	8.1	6.3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60.7	33.6	28.9	22.8	11.5	11.3	9.4	6.2	3.9
	기타매출 50% ↑	15.5	18.6	15.9	14.5	5.3	9.5	8.9	2.0	2.6
	반반	30.1	0.0	0.0	0.0	39.7	0.0	0.0	0.0	0.0

### (3) 기타 교육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기타 교육으로는 ‘타분야 융합 교육(15.7%)이 가장 높고, 다음은 ‘국내외 시장 정보’(10.8%), ‘신기술 이해’(10.3%), ‘통계 교육’(3.7%)의 순을 보임.

## »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타분야 융합 교육’과 ‘국내외 시장 정보’는 제품 디자인(각각 29.6%, 1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타분야 융합 교육	국내외 시장 정보	신기술 이해	통계 교육	섬유학	BM개발
전문디자인업체		15.7	10.8	10.3	3.7	0.1	0.0
업종별	제품 디자인	29.6	15.3	21.9	5.1	0.0	0.2
	시각 디자인	14.7	9.2	9.0	2.0	0.0	0.0
	인테리어 디자인	7.4	13.1	5.9	5.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4	4.5	2.7	3.7	0.6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타분야 융합 교육’은 대전/충청(31.8%)에서 높고, 그 다음은 광주/전라(24.2%)가 뒤를 이음. ‘국내외 시장 정보’는 인천(23.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타분야 융합 교육’은 10~14인(19.4%), 2~4인(17.4%)에서 높고, ‘국내외 시장 정보’는 전반적으로 15인 이상 업체에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재교육 :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타분야 융합 교육	국내외 시장 정보	신기술 이해	통계 교육	섬유학	BM개발
전문디자인업체		15.7	10.8	10.3	3.7	0.1	0.0
권역별	서울	15.6	10.6	7.1	3.7	0.2	0.1
	부산/울산/경남	15.9	8.4	12.5	3.5	0.0	0.0
	대구/경북	6.3	9.2	6.8	1.2	0.0	0.0
	인천	0.0	23.8	17.6	0.0	0.0	0.0
	경기	11.8	14.7	17.0	4.4	0.0	0.0
	광주/전라	24.2	11.5	20.7	8.1	0.0	0.0
	대전/충청	31.8	12.9	9.1	0.0	0.0	0.0
	강원/제주	13.7	0.0	11.8	0.0	0.0	0.0
규모별	1인	14.4	7.1	3.0	0.0	0.0	0.0
	2~4인	17.4	10.1	11.4	3.3	0.0	0.0
	5~9인	12.9	13.9	10.6	4.7	0.0	0.0
	10~14인	19.4	7.0	13.8	3.0	0.0	1.0
	15인 이상	14.1	16.4	16.4	13.6	1.7	0.0
	디자인매출 50% ↑	15.5	11.1	11.0	3.7	0.1	0.1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18.4	9.3	4.2	3.9	0.0	0.0
	반반	0.0	0.0	22.5	0.0	0.0	0.0

## 7)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는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이 19.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내 자체 교육’(10.4%),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6.0%), ‘외부 위탁교육’(5.1%) 등의 순으로 높음.

###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제품 디자인(34.8%)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 디자인(14.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4.8%) 등의 순으로 높음.
- ‘사내 자체 교육’의 경우 ‘제품 디자인(1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육	사내 특강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연수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9.0	10.4	6.0	5.1	4.3	2.9	1.6	0.5	58.5
업종별	제품 디자인	34.8	16.6	6.8	8.9	6.0	3.9	3.0	0.5	31.2
	시각 디자인	14.9	8.7	10.7	2.8	5.1	2.7	1.1	0.0	64.4
	인테리어 디자인	12.6	10.8	1.2	5.8	0.7	3.5	1.3	0.9	70.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4.8	4.2	0.8	4.2	5.2	1.1	1.1	1.1	68.2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대전/충청(37.2%)에서 높고, ‘사내 자체 교육’은 인천(17.6%), 대전/충청(1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과 ‘사내 자체 교육’은 모두 10~14인(각각 35.2%, 19.2%)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교육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 육	사내 특강	정부/공 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연수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9.0	10.4	6.0	5.1	4.3	2.9	1.6	0.5	58.5
권역별	서울	19.3	9.6	3.2	6.0	5.8	1.8	2.1	0.5	58.6
	부산/울산/경남	27.4	9.5	17.6	4.1	0.4	3.1	0.0	0.0	50.1
	대구/경북	11.6	3.5	9.0	9.0	1.4	1.4	0.6	0.0	74.0
	인천	6.2	17.6	0.0	0.0	0.0	0.0	0.0	0.0	76.2
	경기	11.1	13.0	5.1	1.0	3.2	7.5	1.9	2.1	60.9
	광주/전라	16.7	13.1	13.7	3.3	5.7	7.1	2.3	0.0	54.9
	대전/충청	37.2	17.5	2.0	7.1	2.0	0.0	0.0	0.0	45.2
	강원/제주	29.1	13.4	0.0	3.1	0.0	0.0	0.0	0.0	54.4
규모별	1인	8.7	1.1	0.0	1.5	0.0	0.0	2.6	0.0	87.6
	2~4인	19.5	10.4	7.6	5.3	3.4	3.4	1.5	0.4	57.6
	5~9인	19.5	12.8	6.6	5.5	5.9	2.8	0.4	0.8	53.8
	10~14인	35.2	19.2	3.4	9.0	5.8	6.0	5.2	0.0	28.8
	15인 이상	26.6	15.1	8.8	8.2	14.3	3.9	1.7	2.4	37.3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21.4	11.1	6.3	5.4	4.9	3.2	1.8	0.3	55.0
	기타매출 50% ↑	2.5	5.4	4.6	3.5	0.0	1.0	0.0	2.0	82.9
	반반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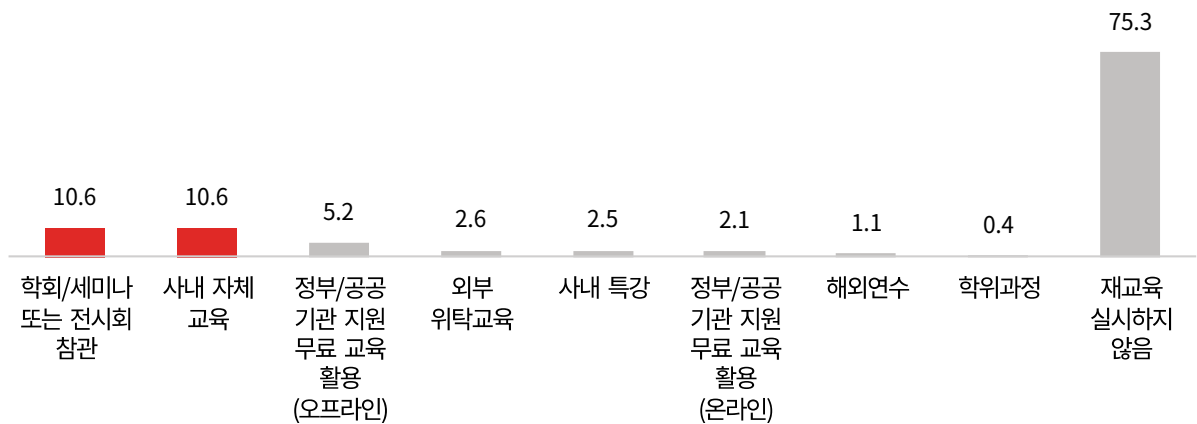
## 8)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2017년에 전문디자인업체에서 실시한 재교육 방법으로는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과 ‘사내 자체 교육’(각각 10.6%),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5.2%) 등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은 75.3%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품 디자인에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다른 업종 대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육	사내 특강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연수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0.6	10.6	5.2	2.6	2.5	2.1	1.1	0.4	75.3
업종별	제품 디자인	14.4	12.9	4.5	3.9	3.8	3.0	0.2	0.5	67.4
	시각 디자인	11.0	11.2	8.3	2.2	2.8	2.2	1.1	0.2	73.1
	인테리어 디자인	11.1	11.2	3.1	3.5	2.0	2.6	2.8	0.0	77.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5	4.7	1.8	0.0	0.5	0.0	0.0	1.1	88.7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은 부산/울산/경남(19.3%), 광주/전라(11.7%), 서울(11.1%), ‘사내 자체 교육’은 강원/제주(18.0%), 인천(17.6%), 대전/충청(1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 규모의 기업에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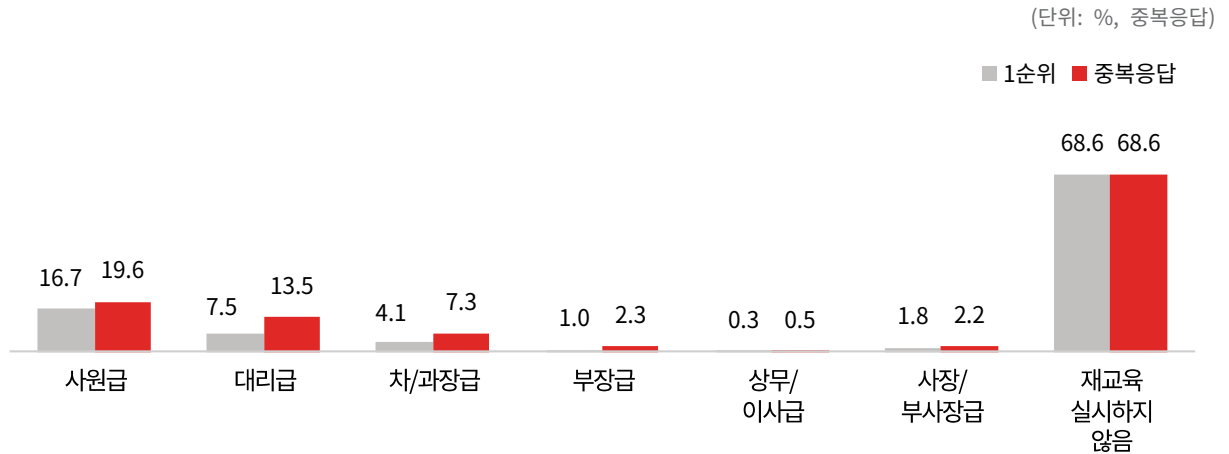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자체교육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육	사내 특강	정부/공공 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연수	학위과정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0.6	10.6	5.2	2.6	2.5	2.1	1.1	0.4	75.3
권역별	서울	11.1	9.8	3.3	2.0	1.8	1.9	1.6	0.2	77.3
	부산/울산/경남	19.3	10.2	18.1	5.2	5.5	4.4	0.0	0.0	66.2
	대구/경북	5.3	7.0	7.0	3.4	0.8	1.4	3.4	0.0	80.3
	인천	0.0	17.6	0.0	0.0	0.0	0.0	0.0	0.0	82.4
	경기	9.1	9.3	0.0	2.5	4.4	0.0	0.0	2.1	77.7
	광주/전라	11.7	14.8	10.6	0.9	3.6	6.3	0.0	0.0	67.4
	대전/충청	4.5	17.5	2.0	7.1	2.0	0.0	0.0	0.0	69.0
	강원/제주	4.6	18.0	4.6	3.1	0.0	0.0	0.0	0.0	74.4
규모별	1인	1.5	2.6	1.1	0.0	0.0	0.0	0.0	0.0	96.3
	2~4인	8.7	9.8	5.9	1.8	1.5	2.1	0.6	0.4	77.8
	5~9인	15.1	13.2	5.5	3.1	4.0	1.6	2.1	0.2	68.1
	10~14인	28.0	18.0	4.7	10.1	7.5	9.5	5.2	0.0	43.2
	15인 이상	15.0	20.5	9.0	7.2	5.6	3.7	0.0	2.4	60.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11.8	11.4	5.2	2.7	2.7	2.3	1.3	0.4	73.4
	기타매출 50% ↑	2.5	5.4	5.7	2.0	0.7	1.0	0.0	0.0	88.4
	반반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 8-1)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 2017년에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은 ‘사원급’(19.6%), ‘대리급’(13.5%), ‘차/과장급’(7.3%), ‘부장급’(2.3%), 사장/부사장급’(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제품 디자인에서 각 직급별 재교육 비율이 다른 업종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사장/부사장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9.6	13.5	7.3	2.3	0.5	2.2	68.6
업종별	제품 디자인	25.0	19.4	9.6	2.4	0.0	1.6	63.4
	시각 디자인	14.9	15.9	7.0	2.4	0.8	1.6	71.5
	인테리어 디자인	20.7	10.1	8.3	1.2	0.9	2.3	68.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1.1	4.0	2.9	3.8	0.0	4.3	70.2



- 권역별로 살펴보면, ‘사원급’은 부산/울산/경남(40.5%), ‘대리급’은 광주/전라(20.2%)에서 높고, ‘차/과장급’은 부산/울산/경남(17.7%), 대전/충청(17.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 규모의 기업에서 각 디자이너 직급별 재교육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재교육을 받은 직원 직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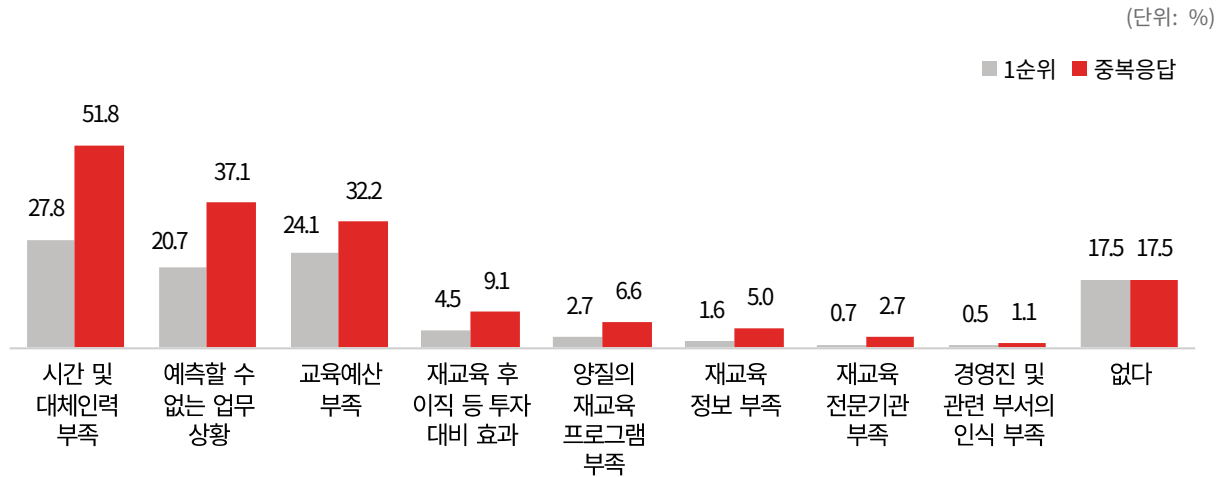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원급	대리급	차/과장급	부장급	상무/이사급	사장/부사장급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9.6	13.5	7.3	2.3	0.5	2.2	68.6
권역별	서울	17.9	12.3	5.7	2.3	0.4	2.3	71.4
	부산/울산/경남	40.5	10.0	17.7	3.6	0.0	2.4	50.2
	대구/경북	24.0	14.4	4.0	0.6	0.0	0.0	72.0
	인천	17.5	0.0	0.0	17.6	0.0	0.0	64.9
	경기	10.5	17.2	8.2	0.7	2.5	1.0	71.6
	광주/전라	20.8	20.2	4.5	3.5	0.0	3.0	62.7
	대전/충청	19.1	16.5	17.5	0.0	0.0	2.0	69.0
	강원/제주	4.6	11.3	7.7	3.1	0.0	10.3	74.4
규모별	1인	8.6	0.0	1.5	0.0	0.0	2.3	87.7
	2~4인	17.3	12.6	6.3	2.5	0.0	2.8	70.3
	5~9인	23.3	13.5	10.4	2.3	1.9	1.4	63.7
	10~14인	41.8	43.9	6.6	5.2	0.0	3.0	41.4
	15인 이상	30.9	31.1	17.9	4.5	0.0	0.0	50.4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19.9	15.1	7.7	2.6	0.6	2.3	67.0
	기타매출 50% ↑	17.2	2.8	4.6	0.0	0.0	1.5	80.3
	반반	22.5	0.0	0.0	0.0	0.0	0.0	77.5

##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중복응답 기준)으로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51.8%)이 가장 높고, 다음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37.1%), ‘교육예산 부족’(3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업종별로 분석하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제품 디자인(62.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58.9%)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제품 디자인(4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51.8	37.1	32.2	9.1	6.6	5.0	2.7	1.1
업종별	제품 디자인	62.8	47.3	43.8	8.6	10.7	5.8	3.0	2.7
	시각 디자인	49.6	34.6	28.1	11.2	5.5	3.9	2.0	0.2
	인테리어 디자인	39.6	29.3	22.0	7.8	4.7	5.7	4.2	0.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8.9	39.1	39.3	6.9	5.6	5.6	1.8	1.6

- 권역별로 살펴보면,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은 대전/충청(72.5%), 광주/전라(56.7%)에서 높고,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은 강원/제주(53.4%)에서 다른 권역 대비 높음.
-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과 ‘예측할 수 없는 업무상황’은 모두 10~14인(각각 67.2%, 54.0%)에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교육예산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전문디자인업체		51.8	37.1	32.2	9.1	6.6	5.0	2.7	1.1
권역별	서울	53.5	36.8	34.0	7.4	4.8	4.4	2.4	1.2
	부산/울산/경남	46.3	38.2	32.2	12.7	7.9	4.5	1.3	0.0
	대구/경북	50.1	43.1	19.6	10.4	13.6	0.4	1.6	0.0
	인천	29.8	41.1	41.4	0.0	17.5	0.0	0.0	0.0
	경기	40.5	30.3	36.6	10.3	11.9	7.6	3.2	0.0
	광주/전라	56.7	40.6	27.7	10.7	4.1	5.0	7.8	2.0
	대전/충청	72.5	26.5	27.9	24.0	0.0	10.4	2.0	0.0
	강원/제주	53.8	53.4	30.3	0.0	6.7	17.4	0.0	8.7
규모별	1인	38.5	18.4	32.5	2.3	3.7	3.7	1.5	0.0
	2~4인	50.7	33.4	31.8	8.6	7.8	4.2	3.4	0.8
	5~9인	57.3	49.0	29.4	13.9	5.1	7.5	2.4	2.1
	10~14인	67.2	54.0	38.1	11.4	7.9	2.7	0.0	2.5
	15인 이상	58.0	46.8	42.8	7.7	9.5	6.5	3.8	0.0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54.5	38.7	34.0	9.7	7.4	5.5	2.9	1.1
	기타매출 50% ↑	29.6	25.0	14.3	5.3	0.8	2.0	1.5	0.8
	반반	69.9	30.1	69.9	0.0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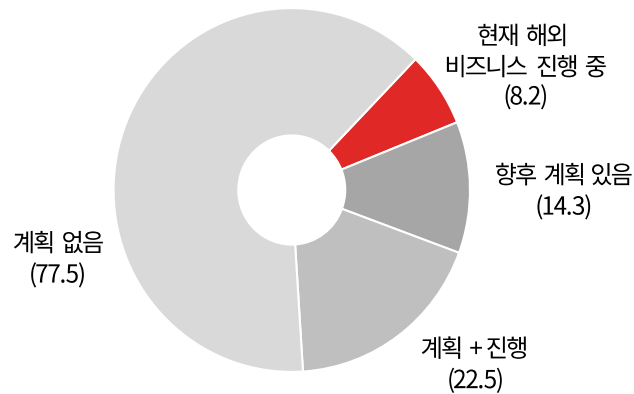
## 4. 디자인 역량

### 1)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에 대해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이면서, 향후 계획 중인’ 비율은 22.5%,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은 8.2%, ‘향후 계획 있음’은 14.3%로 나타남. 한편, ‘계획 없음’은 77.5%로 높게 나타남.

#### »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현재 해외 비즈니스를 ‘진행 중이면서 계획 중’인 업체는 제품 디자인(30.4%)과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1.0%)에서 높고,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3.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구분		계획 + 진행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향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2.5	8.2	14.3	77.5
업종별	제품 디자인	30.4	12.3	18.0	69.6
	시각 디자인	19.2	4.7	14.6	80.8
	인테리어 디자인	20.9	6.1	14.8	79.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1.0	13.6	7.4	79.0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해외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중인 업체는 인천(52.7%)에서 가장 높고,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은 서울(11.0%), 경기(10.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5인 이상 규모의 업체(36.0%)에서 비즈니스 ‘진행 및 계획’ 중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및 진출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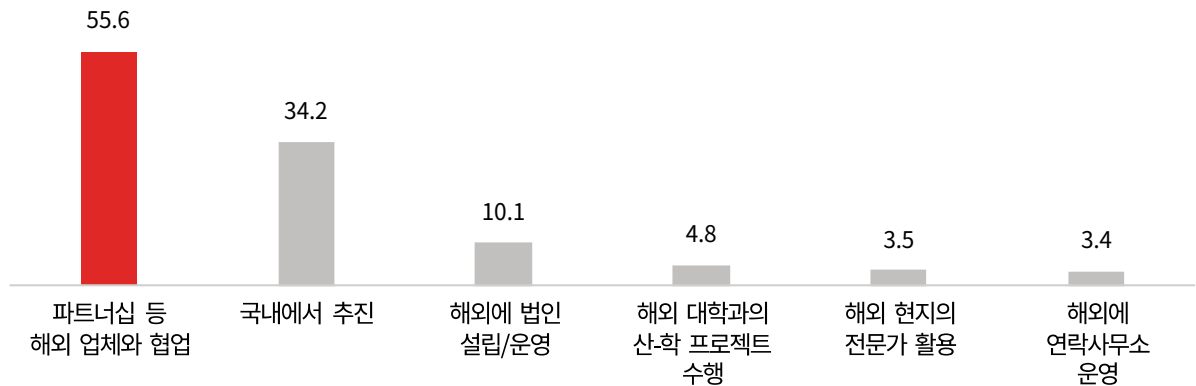
구분		계획 + 진행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향후 계획 있음	계획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2.5	8.2	14.3	77.5
권역별	서울	23.5	11.0	12.5	76.5
	부산/울산/경남	20.6	1.4	19.2	79.4
	대구/경북	18.3	2.0	16.3	81.7
	인천	52.7	0.0	52.7	47.3
	경기	26.7	10.5	16.1	73.3
	광주/전라	14.9	3.1	11.8	85.1
	대전/충청	20.1	5.5	14.5	79.9
	강원/제주	20.9	8.7	12.2	79.1
규모별	1인	23.5	7.9	15.6	76.5
	2~4인	20.0	6.9	13.0	80.0
	5~9인	24.6	9.6	14.9	75.4
	10~14인	19.8	7.9	11.9	80.2
	15인 이상	36.0	13.6	22.4	64.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24.6	9.3	15.3	75.4
	기타매출 50% ↑	6.6	0.0	6.6	93.4
	반반	17.3	0.0	17.3	82.7

### 1-1) 해외 비즈니스 방법

- 해외 비즈니스 방법으로는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55.6%)이 가장 높고, 다음은 ‘국내에서 추진(필요 시 현지 출장 등)’(34.2%),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1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 업종별로 해외 비즈니스 방법을 살펴보면,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은 인테리어 디자인(65.3%)에서 높고, 그 다음은 제품 디자인(49.3%) 뒤를 이음.  
‘국내에서 추진’은 제품 디자인(47.7%), 인테리어 디자인(37.7%)에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구분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	국내에서 추진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해외 대학과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	해외 현지의 전문가 활용	해외에 연락사무소 운영
전문디자인업체		55.6	34.2	10.1	4.8	3.5	3.4
업종별	제품 디자인	49.3	47.7	3.1	0.0	7.6	2.7
	시각 디자인	56.6	13.2	26.6	0.0	3.6	1.8
	인테리어 디자인	62.3	37.7	15.6	15.6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9.0	30.5	2.5	8.0	0.0	8.0

- 권역별로 살펴보면,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은 강원/제주(100.0%), ‘국내에서 추진’은 대전/충청(10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은 10~14인(78.2%)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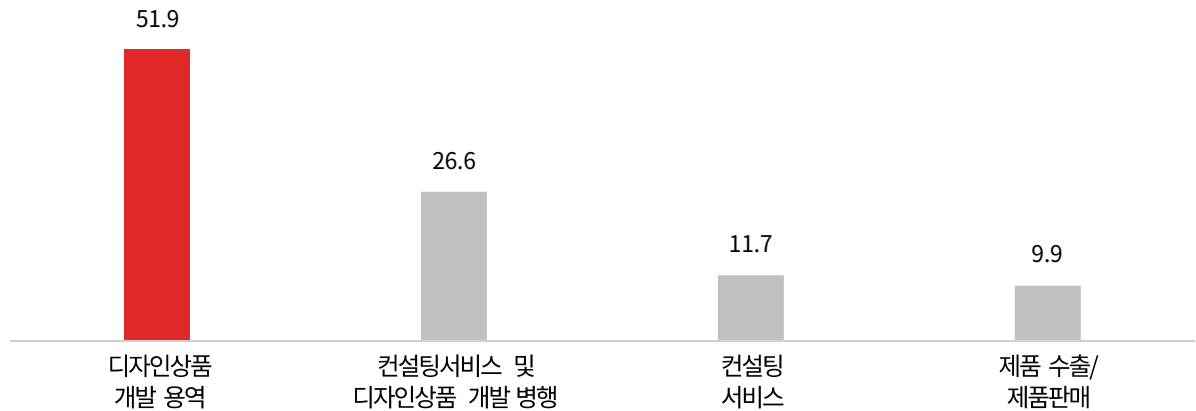
구분		파트너십 등 해외 업체와 협업	국내에서 추진	해외에 법인 설립/ 운영	해외 대학과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	해외 현지의 전문가 활용	해외에 연락사무소 운영
전문디자인업체		55.6	34.2	10.1	4.8	3.5	3.4
권역별	서울	63.8	30.7	8.1	6.6	4.8	1.9
	부산/울산/경남	57.6	0.0	42.4	0.0	0.0	0.0
	대구/경북	51.1	48.9	0.0	0.0	0.0	0.0
	인천	-	-	-	-		
	경기	31.5	54.7	0.0	0.0	0.0	13.8
	광주/전라	0.0	0.0	100.0	0.0	0.0	0.0
	대전/충청	0.0	100.0	0.0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71.4	14.3	0.0	32.9	0.0	0.0
	2~4인	43.7	56.3	0.0	0.0	0.0	5.1
	5~9인	64.4	24.0	11.6	0.0	8.7	3.1
	10~14인	78.2	12.1	63.6	0.0	0.0	0.0
	15인 이상	40.8	12.2	38.1	0.0	8.9	4.4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55.6	34.2	10.1	4.8	3.5	3.4
	기타매출 50% ↑	-	-	-	-	-	-
	반반	-	-	-	-	-	-

## 1-2)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로는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51.9%)이 가장 높고, 다음은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26.6%), ‘컨설팅서비스’(11.7%), ‘제품 수출/제품판매’(9.9%) 순임.

### »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73.5%)에서 높고,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은 인테리어 디자인(4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단위: %)

구분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컨설팅서비스	제품 수출/제품판매
전문디자인업체		51.9	26.6	11.7	9.9
업종별	제품 디자인	38.6	34.2	12.0	15.2
	시각 디자인	71.7	21.7	6.6	0.0
	인테리어 디자인	22.1	46.7	31.2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3.5	6.6	2.5	17.5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 대전/충청(각각 100.0%)에서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이 높고,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은 강원/제주(10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은 2~4인(57.8%)에서,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은 10~14인(66.1%)에서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 비즈니스 주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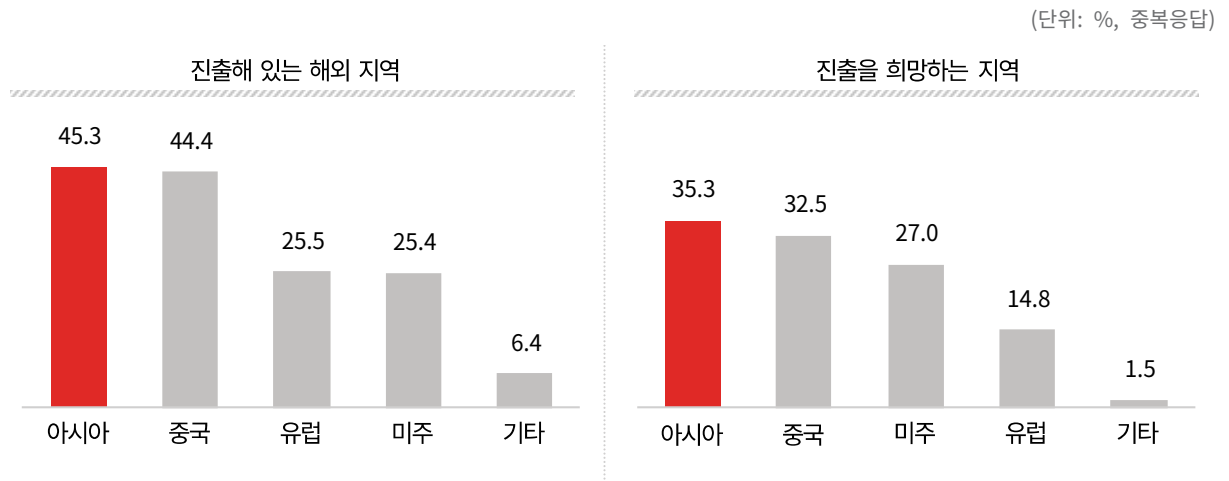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컨설팅서비스	제품 수출/ 제품판매
전문디자인업체		51.9	26.6	11.7	9.9
권역별	서울	50.2	24.3	16.1	9.4
	부산/울산/경남	100.0	0.0	0.0	0.0
	대구/경북	0.0	79.8	0.0	20.2
	인천	-	-	-	-
	경기	50.7	31.4	0.0	17.9
	광주/전라	100.0	0.0	0.0	0.0
	대전/충청	100.0	0.0	0.0	0.0
	강원/제주	0.0	100.0	0.0	0.0
규모별	1인	57.3	0.0	28.4	14.3
	2~4인	57.8	29.0	6.6	6.6
	5~9인	44.0	29.0	11.7	15.3
	10~14인	33.9	66.1	0.0	0.0
	15인 이상	53.4	27.8	14.3	4.5
	디자인매출 50% ↑	51.9	26.6	11.7	9.9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	-	-	-
	반반	-	-	-	-

### 1-3) 교류 해외 지역

- 교류 해외 지역 중, 진출 지역은 '아시아'(45.3%), '중국'(44.4%), '유럽'(25.5%), '미주'(2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은 '아시아'(35.3%), '중국'(3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교류 해외 지역



- 업종별로 살펴보면, [진출 지역] 중 '아시아'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55.9%)에서 가장 높고, '중국'은 시각 디자인(60.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진출 희망 지역] 중 '아시아'는 시각 디자인(40.3%), '중국'은 시각 디자인(3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아시아	중국	유럽	미주	기타	아시아	중국	미주	유럽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45.3	44.4	25.5	25.4	6.4	35.3	32.5	27.0	14.8	1.5
업종별	제품 디자인	53.1	40.7	19.2	20.5	15.2	37.6	37.8	23.5	17.2	0.0
	시각 디자인	13.2	60.2	13.3	36.1	0.0	40.3	38.4	30.5	18.1	1.6
	인테리어 디자인	53.3	46.7	31.2	15.6	0.0	33.2	25.4	28.5	9.1	4.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55.9	35.1	40.6	29.7	4.1	22.4	18.2	24.9	10.4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진출 지역] 중 ‘아시아’는 대전/충청(100.0%), ‘중국’은 부산/울산/경남, 경기, 광주/전라(100.0%)에서 높게 나타남.

[진출 희망 지역]은 ‘아시아’는 대구/경북(69.9%), 강원/제주(5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진출 지역] 중 ‘아시아’는 10~14인(61.6%), 5~9인(55.9%), ‘중국’은 1인(60.2%), [진출 희망 지역] 중 ‘아시아’는 2~4인(43.1%), ‘중국’은 10~14인(73.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교류 해외 지역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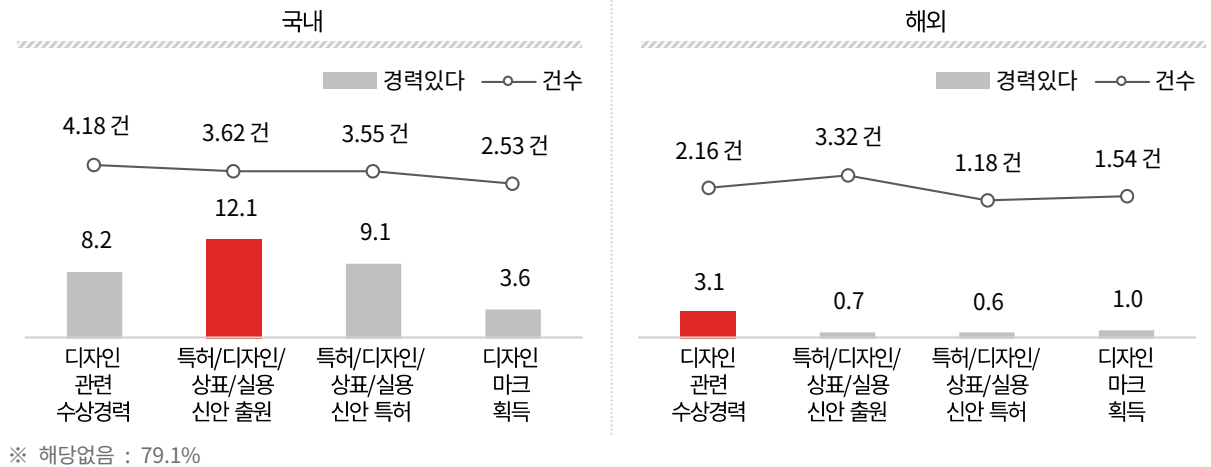
구분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				
		아시아	중국	유럽	미주	기타	아시아	중국	미주	유럽	기타
전문디자인업체		45.3	44.4	25.5	25.4	6.4	35.3	32.5	27.0	14.8	1.5
권역별	서울	49.7	35.0	30.6	30.2	8.9	29.1	29.6	25.0	17.3	2.7
	부산/울산/경남	31.7	100.0	57.6	26.0	0.0	47.1	27.4	28.3	0.0	0.0
	대구/경북	69.0	51.1	20.2	20.2	0.0	69.9	35.7	19.4	22.4	0.0
	인천	31.7	68.3	13.8	17.9	0.0	33.3	33.4	33.3	33.4	0.0
	경기	0.0	100.0	0.0	0.0	0.0	31.8	28.1	38.3	16.6	0.0
	광주/전라	0.0	100.0	0.0	0.0	0.0	43.4	64.8	36.7	0.0	0.0
	대전/충청	100.0	0.0	0.0	0.0	0.0	27.6	64.4	8.0	8.0	0.0
	강원/제주	53.1	40.7	19.2	20.5	15.2	58.4	0.0	21.8	0.0	0.0
규모별	1인	13.2	60.2	13.3	36.1	0.0	21.0	32.1	22.2	19.5	0.0
	2~4인	53.3	46.7	31.2	15.6	0.0	43.1	25.7	28.6	14.6	0.0
	5~9인	55.9	35.1	40.6	29.7	4.1	33.9	33.1	29.4	14.5	5.2
	10~14인	61.6	14.3	47.3	24.1	0.0	22.5	73.7	17.6	11.1	0.0
	15인 이상	43.1	45.7	16.7	20.4	9.2	34.0	43.0	25.4	9.7	0.0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53.0	46.0	24.9	22.9	8.7	36.8	31.4	26.4	15.4	1.6
	기타매출 50% ↑	-	-	-	-	-	0.0	70.0	30.0	0.0	0.0
	반반	-	-	-	-	-	0.0	0.0	100.0	0.0	0.0

## 2)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은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12.1%), ‘국내 디자인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특허’(9.1%)가 다른 경력 대비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경력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제품 디자인(23.0%)에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10.6%)에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

(단위: 건)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마크 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마크 획득
전문디자인업체		8.2	12.1	9.1	3.6	3.1	0.7	0.6	1.0
업종별	제품 디자인	13.9	23.0	14.9	6.0	7.6	1.7	0.0	2.0
	시각 디자인	7.8	9.2	8.6	3.3	2.4	0.4	1.1	0.9
	인테리어 디자인	6.9	10.6	5.8	3.1	1.2	0.0	0.0	0.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4	5.1	6.7	1.1	0.7	1.1	1.4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은 부산/울산/경남(27.1%), 광주/전라(21.0%), 인천(17.6%) 등,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특허’는 부산/울산/경남(22.2%), ‘인천’(17.6%) 등의 순으로 높음.
-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과 ‘국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특허’는 규모가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과 ‘디자인 마크획득’은 10~14인(각각 24.7%, 1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경력 건수**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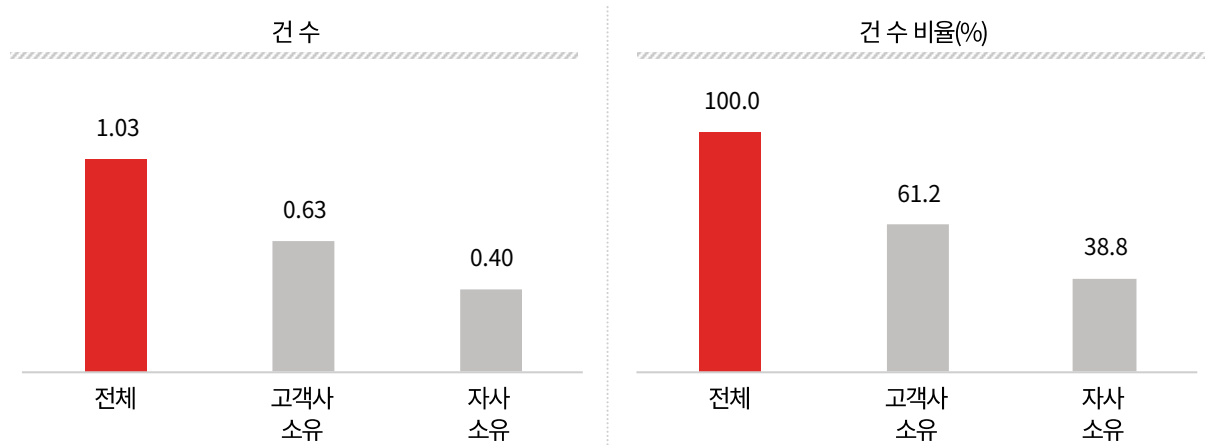
구분		국내				해외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마크획득	디자인 관련 수상경력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출원	특허/ 디자인/ 상표/ 실용신안 특허	디자인 마크획득
전문디자인업체		8.2	12.1	9.1	3.6	3.1	0.7	0.6	1.0
권역별	서울	6.7	9.2	6.1	3.5	3.5	0.8	0.3	1.1
	부산/울산/경남	16.6	27.1	22.2	6.8	0.6	0.6	0.6	0.0
	대구/경북	6.5	9.0	4.3	2.1	2.0	1.0	0.0	0.6
	인천	0.0	17.6	17.6	0.0	0.0	0.0	0.0	0.0
	경기	12.2	12.2	10.5	2.8	2.6	1.4	3.5	0.7
	광주/전라	9.5	21.0	13.7	4.2	6.3	0.0	0.0	3.1
	대전/충청	5.1	9.1	13.9	3.5	2.9	0.0	0.0	0.0
	강원/제주	0.0	0.0	7.7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3.4	7.4	5.1	2.0	0.0	0.0	1.1	0.0
	2~4인	5.0	9.2	8.0	1.1	1.1	0.2	0.0	0.2
	5~9인	12.7	15.1	10.9	6.0	5.2	1.6	1.6	1.6
	10~14인	24.7	29.4	17.1	14.3	16.7	1.0	0.0	5.2
	15인 이상	11.3	20.9	14.0	7.7	6.8	3.6	1.0	4.8
	디자인매출 50% ↑	9.0	13.0	9.1	3.8	3.5	0.8	0.7	1.2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2.0	6.6	9.8	2.0	0.0	0.0	0.0	0.0
	반반	0.0	0.0	0.0	0.0	0.0	0.0	0.0	0.0

### 3)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은 전체 평균 1.03건 중 고객사에서 0.63건(61.2%), 자사에서 0.40건(38.8%)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 »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권의 고객사 소유 비율은 시각 디자인(69.1%)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 디자인(61.5%), 인테리어 디자인(57.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22.0%)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단위: %)

구분		건 수			건 수 비율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문디자인업체		1.03	0.63	0.40	100.0	61.2	38.8
업종별	제품 디자인	2.25	1.38	0.87	100.0	61.5	38.5
	시각 디자인	0.91	0.63	0.28	100.0	69.1	30.9
	인테리어 디자인	0.42	0.24	0.18	100.0	57.3	42.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41	0.09	0.32	100.0	22.0	78.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권의 고객사 소유 비중은 인천(83.3%)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부산/울산/경남(82.1%), 광주/전라(70.7%), 서울(6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5~9인 규모 기업(71.7%)의 고객사 소유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15인 이상 규모(43.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 최종산출물에 대한 디자인권 소유(명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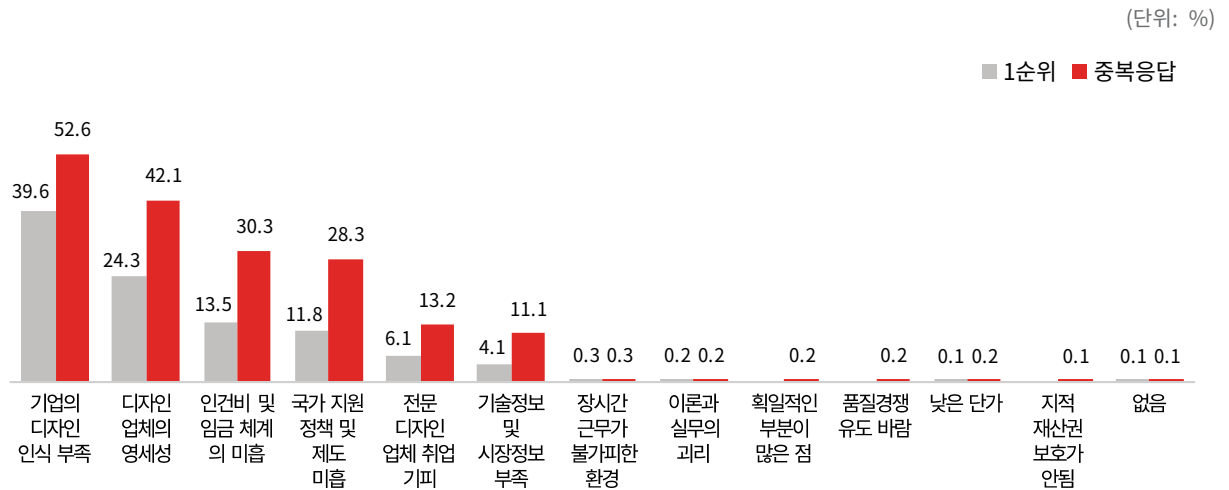
구분		고객사			자사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체	고객사 소유	자사 소유
전문디자인업체		1.03	0.63	0.40	100.0	61.2	38.8
권역별	서울	0.76	0.46	0.30	100.0	60.5	39.5
	부산/울산/경남	1.64	1.35	0.29	100.0	82.1	17.9
	대구/경북	1.00	0.54	0.46	100.0	53.5	46.5
	인천	1.06	0.88	0.18	100.0	83.3	16.7
	경기	1.29	0.52	0.78	100.0	39.9	60.1
	광주/전라	1.80	1.27	0.53	100.0	70.7	29.3
	대전/충청	1.08	0.55	0.54	100.0	50.4	49.6
	강원/제주	0.70	0.25	0.46	100.0	35.1	64.9
규모별	1인	0.31	0.16	0.15	100.0	51.6	48.4
	2~4인	0.64	0.41	0.23	100.0	63.9	36.1
	5~9인	1.46	1.05	0.41	100.0	71.7	28.3
	10~14인	3.11	1.51	1.60	100.0	48.6	51.4
	15인 이상	2.53	1.09	1.44	100.0	43.1	56.9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1.11	0.67	0.44	100.0	60.3	39.7
	기타매출 50% ↑	0.50	0.39	0.11	100.0	77.9	22.1
	반반	0.00	0.00	0.00	100.0	0.00	0.00

## 5. 기타

### 1)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중복응답 기준)으로는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52.6%),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42.1%)이 높고, 다음은 ‘인건비 및 임금체계의 미흡’(30.3%),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28.3%), ‘전문디자인업체 취업 기피’(13.2%) 등의 순으로 높음.

### »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 업종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은 제품 디자인(61.6%),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57.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인건비 및 임금 체계의 미흡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전문 디자인업체 취업 기피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환경
전문디자인업체		52.6	42.1	30.3	28.3	13.2	11.1	0.3
업종별	제품 디자인	61.6	33.8	26.5	39.2	15.6	13.7	0.0
	시각 디자인	58.8	42.1	36.9	23.7	7.6	8.6	0.8
	인테리어 디자인	46.2	40.2	27.6	27.7	10.7	10.6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3.8	57.3	24.1	23.5	26.5	13.9	0.0

구분		이론과 실무의 괴리	획일적인 부분이 많은 점	품질경쟁 유도 바람	낮은 단가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됨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0.2	0.2	0.2	0.2	0.1	0.1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0.0	0.0	0.3	0.0	0.0
	시각 디자인	0.0	0.0	0.0	0.3	0.3	0.2
	인테리어 디자인	0.9	0.9	0.9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0.0	0.0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은 서울(56.4%), 대전/충청(55.7%),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은 부산/울산/경남(63.3%), ‘인건비 및 임금 체계의 미흡’은 대전/충청(4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종사자 수 규모가 클 수록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이 장애요인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0~14인 기업의 경우 59.6%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 육성·발전 장애 요인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인건비 및 임금 체계의 미흡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전문 디자인업체 취업 기피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환경
전문디자인업체		52.6	42.1	30.3	28.3	13.2	11.1	0.3
권역별	서울	56.4	40.0	27.1	27.7	12.9	11.1	0.5
	부산/울산/경남	47.3	63.3	25.8	29.4	7.8	8.3	0.0
	대구/경북	43.3	50.3	24.3	31.8	16.2	20.3	0.0
	인천	47.4	35.1	17.5	82.5	0.0	0.0	0.0
	경기	45.8	30.9	44.4	29.6	13.6	10.3	0.0
	광주/전라	54.3	40.8	36.3	25.2	11.7	7.3	0.0
	대전/충청	55.7	33.1	46.3	28.5	21.5	7.5	0.0
	강원/제주	43.9	57.7	28.6	4.6	24.9	20.4	0.0
규모별	1인	47.8	56.0	23.5	27.9	15.8	5.1	0.0
	2~4인	52.7	38.7	32.7	28.8	11.0	13.5	0.6
	5~9인	53.9	42.5	31.7	27.2	11.7	9.9	0.0
	10~14인	59.6	30.8	26.7	31.0	32.4	6.5	0.0
	15인 이상	52.9	42.4	23.7	26.8	14.6	16.5	0.0
	디자인매출 50% ↑	53.4	43.4	27.6	29.1	14.4	11.2	0.3
매출구성	기타매출 50% ↑	46.4	33.9	47.5	24.4	4.6	9.5	0.0
	반반	52.6	17.3	77.5	0.0	0.0	22.5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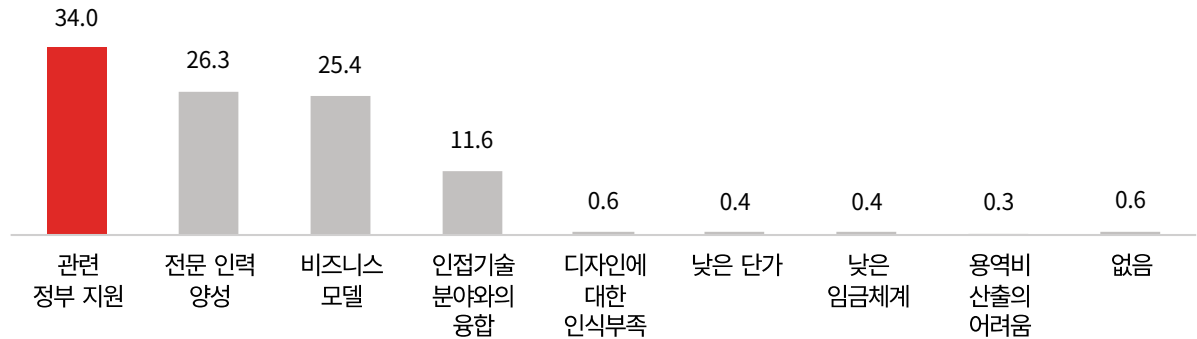
구분		이론과 실무의 괴리	획일적인 부분이 많은점	품질경쟁 유도 바람	낮은 단가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됨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0.2	0.2	0.2	0.2	0.1	0.1
권역별	서울	0.5	0.0	0.0	0.4	0.4	0.2
	부산/울산/경남	0.0	0.0	0.0	0.0	0.0	0.0
	대구/경북	0.0	0.0	0.0	0.0	0.0	0.0
	인천	0.0	0.0	0.0	0.0	0.0	0.0
	경기	0.0	1.9	1.9	0.0	0.0	0.0
	광주/전라	0.0	0.0	0.0	0.0	0.0	0.0
	대전/충청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0.0	1.5	1.5	0.0	0.0	0.0
	2~4인	0.6	0.0	0.0	0.5	0.2	0.0
	5~9인	0.0	0.0	0.0	0.0	0.3	0.4
	10~14인	0.0	0.0	0.0	0.0	0.0	0.0
	15인 이상	0.0	0.0	0.0	0.0	0.0	0.0
	디자인매출 50% ↑	0.3	0.3	0.3	0.3	0.2	0.1
매출구성	기타매출 50% ↑	0.0	0.0	0.0	0.0	0.0	0.0
	반반	0.0	0.0	0.0	0.0	0.0	0.0

## 2)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으로는 ‘관련 정부 지원’(34.0%), ‘전문 인력 양성’(26.3%), ‘비즈니스 모델’(25.4%),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11.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 무응답/모름 : 0.2%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인산업의 취약한 부분으로 ‘관련 정부 지원’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8.7%), ‘전문 인력 양성’은 인테리어 디자인(32.4%), 시각 디자인(28.4%)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구분		관련 정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비즈니스 모델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	낮은 단가	낮은 임금체계	용역비 산출의 어려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34.0	26.3	25.4	11.6	0.6	0.4	0.4	0.3	0.6
업종별	제품 디자인	34.2	19.8	31.3	12.4	0.0	0.9	0.3	0.0	0.0
	시각 디자인	33.7	28.4	25.4	9.8	1.6	0.0	0.3	0.8	0.0
	인테리어 디자인	31.3	32.4	20.7	12.7	0.0	0.9	0.9	0.0	0.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8.7	22.0	23.1	13.5	0.0	0.0	0.0	0.0	2.7

- 권역별로 살펴보면, ‘관련 정부 지원’은 부산/울산/경남(41.1%), 광주/전라(39.2%), ‘전문 인력 양성’은 강원/제주(50.3%), ‘비즈니스 모델’은 부산/울산/경남(30.8%), 대전/충청(28.5%), 서울(26.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관련 정부 지원’은 전반적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4인 규모(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취약한 부분

(단위: %)

구분		관련 정부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비즈니스 모델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	낮은 단가	낮은 임금체계	용역비 산출의 어려움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34.0	26.3	25.4	11.6	0.6	0.4	0.4	0.3	0.6
권역별	서울	32.8	26.6	26.3	11.7	0.5	0.4	0.4	0.0	0.9
	부산/울산/경남	41.1	9.5	30.8	17.4	0.0	0.0	1.3	0.0	0.0
	대구/경북	27.1	37.9	24.6	10.4	0.0	0.0	0.0	0.0	0.0
	인천	35.1	41.1	6.2	17.6	0.0	0.0	0.0	0.0	0.0
	경기	37.3	30.7	21.8	10.2	0.0	0.0	0.0	0.0	0.0
	광주/전라	39.2	20.3	21.9	10.0	3.1	2.3	0.0	3.1	0.0
	대전/충청	37.5	20.6	28.5	11.4	0.0	0.0	2.0	0.0	0.0
	강원/제주	17.4	50.3	22.0	3.6	0.0	0.0	0.0	0.0	6.7
규모별	1인	29.4	23.4	27.9	15.2	0.0	1.5	0.0	0.0	1.1
	2~4인	37.5	21.2	28.8	10.3	0.6	0.0	0.5	0.6	0.5
	5~9인	34.4	33.0	17.3	12.7	0.0	0.8	0.7	0.0	1.0
	10~14인	23.7	33.0	27.2	10.5	5.7	0.0	0.0	0.0	0.0
	15인 이상	23.7	41.5	25.3	9.5	0.0	0.0	0.0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33.4	25.8	25.9	12.3	0.7	0.5	0.3	0.3	0.5
	기타매출 50% ↑	39.7	27.0	23.5	7.3	0.0	0.0	1.0	0.0	1.5
	반반	30.1	69.9	0.0	0.0	0.0	0.0	0.0	0.0	0.0

### 3)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 디자인 개발 시 애로사항으로는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인식이 낮음’(6.6%), ‘자금부족/정부의 자금지원 확대바람’(5.0%), ‘전문인력이 부족함’(4.0%), ‘디자인 개발단가가 낮음/디자인 가격 하락’(3.5%) 등이 제기됨.

#### » 디자인 개발 시 느끼는 애로사항

(단위: %)

의견	%	의견	%
<b>전체</b>	<b>100.0</b>	<b>전체</b>	<b>100.0</b>
<b>디자인에 대한 인식부족</b>	<b>8.6</b>	<b>사업환경</b>	<b>6.5</b>
디자인 개발비에 대한 인식이 낮음	6.6	작업시간 보장이 필요/개발시간이 촉박함	1.4
디자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움	1.1	소규모/영세업체가 많음	0.9
디자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	0.7	지역제한이 없어 입찰경쟁이 치열함	0.5
중견/중소기업은 인식부족으로 디자인개발에 소극적임	0.3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맞추기 어려움	0.4
<b>근무환경</b>	<b>2.0</b>	영세 제조업과 거래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음	0.4
임금이 낮음	0.7	주관성이 강해 취향을 맞추기 어려움	0.4
고객사와 일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	0.4	공공기관/대형업체의 갑질행위가 많음	0.4
작업강도가 높음	0.3	소규모/영세기업에 입찰/수주 기회가 없음	0.3
인식부족으로 디자인 인력에 대한 대우가 좋지않음	0.3	업체별 개발비용 차이가 크다	0.3
<b>경제적 측면</b>	<b>14.1</b>	업체등록 기준완화 바람	0.3
자금부족/정부의 자금지원 확대바람	5.0	영업활동(판매/마케팅)이 어려움	0.3
디자인 개발단가가 낮음/디자인 가격 하락	3.5	<b>시장/판로개척</b>	<b>2.0</b>
기술적 가치에 비해 저평가됨	1.1	시장/판로개척이 어려움	0.6
현실적인 개발단가 책정 바람	0.9	경쟁력이 심함	0.5
정부차원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	0.7	<b>지적재산권 침해/법제도</b>	<b>4.0</b>
세금지원 바람	0.6	비용체계 확립	1.3
고 퀄리티를 요구하며 단가는 낮게 책정함	0.6	지적재산권 보호가 안됨/ 디자인 도용이 많음	1.1
디자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감	0.5	규제완화 바람	0.7
인건비 지원 바람	0.4	계약서 작성의 법제화가 필요	0.3
브랜드 런칭시 비용발생함	0.4	<b>정보제공</b>	<b>1.2</b>
수익성이 낮음	0.4	디자인 관련 정보가 부족함	0.6
<b>인적자원 활용</b>	<b>5.2</b>	비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가 어려움	0.4
전문인력이 부족함	4.0	<b>기타</b>	<b>0.2</b>
이직률이 높음	0.6	국가정책 보완 바람	0.2
양질의 우수인력 채용이 어려움	0.4	없음	62.8

※ 모름/무응답 :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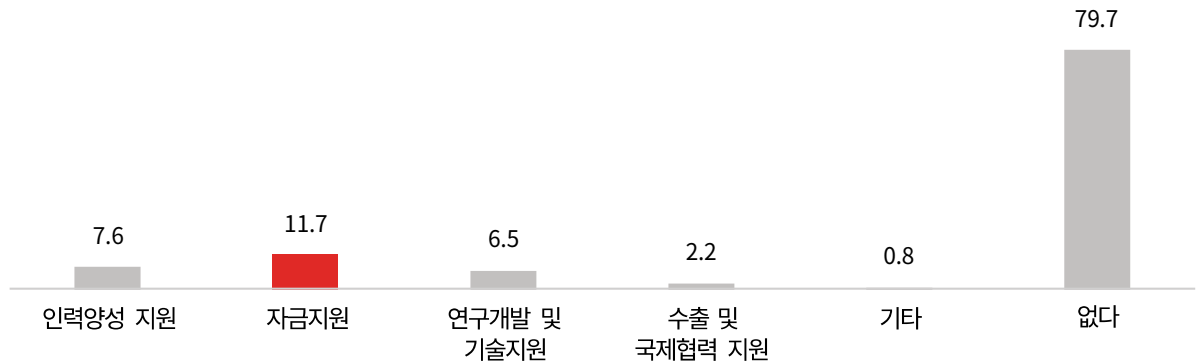
※ 비율 0.3% 이상만 제시함

#### 4) 정부지원 여부

- 전문디자인업체가 받은 정부지원이 ‘없다’가 79.7%로 높게 나타났고, 수혜 받은 지원 내용은 ‘자금지원’(11.7%), ‘인력양성 지원’(7.6%),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6.5%) 등의 순임.

#### » 정부지원 여부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지원받지 않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의 정부지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업종별 정부지원 여부

(단위: %)

구분		인력양성 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7.6	11.7	6.5	2.2	0.8	79.7
업종별	제품 디자인	9.2	17.1	14.0	5.2	0.0	73.6
	시각 디자인	11.2	13.4	6.8	1.9	1.1	73.5
	인테리어 디자인	3.9	9.6	1.9	0.0	0.0	87.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0	2.7	1.4	1.4	2.4	92.6

- 권역별로 살펴보면, ‘자금지원’과 ‘인력양성 지원’은 모두 광주/전라(각각 15.3%, 16.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10~14인 규모의 전문디자인업체의 ‘자금지원’ 비율(22.9%)이 다른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정부지원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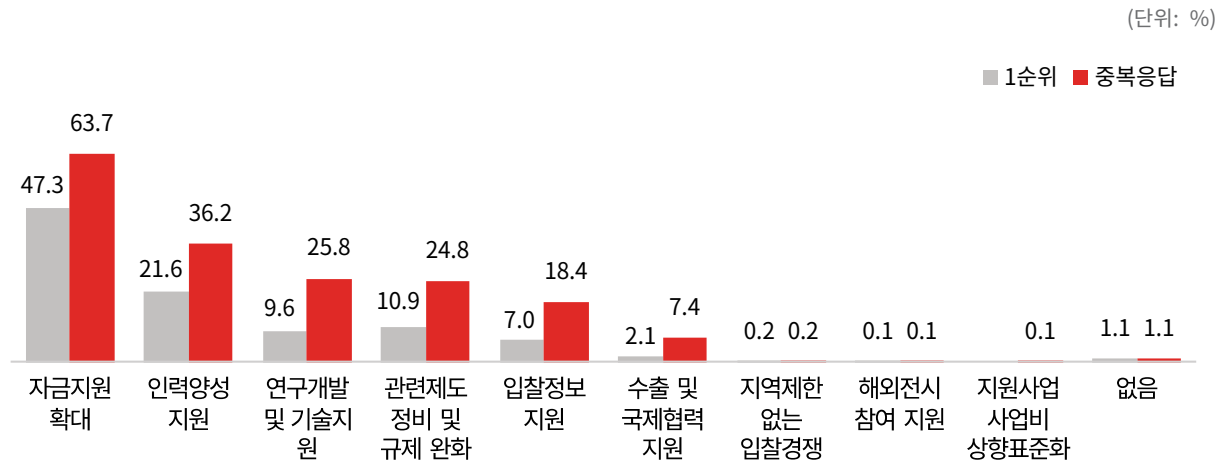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인력양성 지원	자금지원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수출 및 국제협력 지원	기타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7.6	11.7	6.5	2.2	0.8	79.7
권역별	서울	5.3	11.8	3.9	2.3	0.8	82.6
	부산/울산/경남	14.4	14.4	11.9	0.6	3.2	71.1
	대구/경북	11.0	10.5	10.1	0.6	0.4	76.0
	인천	0.0	0.0	0.0	0.0	0.0	100.0
	경기	6.5	8.5	4.4	5.2	0.0	84.3
	광주/전라	16.0	15.3	16.8	0.0	0.0	66.5
	대전/충청	5.1	13.3	8.1	5.5	0.0	75.1
	강원/제주	4.6	9.1	3.1	0.0	0.0	87.8
규모별	1인	2.0	4.1	3.9	3.9	1.1	90.0
	2~4인	6.5	12.7	5.1	1.7	1.0	79.2
	5~9인	9.4	12.1	9.1	1.6	0.4	78.3
	10~14인	18.6	22.9	10.6	1.0	0.0	70.2
	15인 이상	14.6	11.4	10.4	5.2	0.6	72.5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8.0	12.6	7.2	2.5	0.9	78.6
	기타매출 50% ↑	5.3	4.6	2.0	0.0	0.0	88.1
	반반	0.0	17.3	0.0	0.0	0.0	82.7

#### 4-1)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중복응답)으로는 ‘자금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인력양성 지원’(36.2%)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25.8%), ‘관련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24.8%), ‘입찰정보 지원’(18.4%) 등의 순으로 높음.

#### »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업종에서 ‘자금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가운데, 패션/텍스타일 디자인(69.9%)에서 인테리어 디자인(56.5%) 대비 높게 나타남. ‘인력양성 지원’ 역시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9.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자금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 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 협력 지원	지역 제한 없는 입찰 경쟁	해외 전시 참여 지원	지원 사업 사업비 상향표 준화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63.7	36.2	25.8	24.8	18.4	7.4	0.2	0.1	0.1	1.1
업종별	제품 디자인	67.4	37.1	40.7	18.5	16.5	6.8	0.9	0.0	0.0	1.3
	시각 디자인	63.1	34.2	22.3	26.5	23.7	8.8	0.0	0.3	0.2	0.0
	인테리어 디자인	56.5	36.6	22.1	30.1	20.0	3.8	0.0	0.0	0.0	2.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9.9	39.1	16.9	22.4	6.2	10.3	0.0	0.0	0.0	1.1

- 권역별로는, ‘자금지원 확대’는 광주/전라(72.0%)에서 높고,  
‘인력양성 지원’은 인천(64.9%), 강원/제주(62.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전반적으로 전문디자인업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자금 지원 확대	인력 양성 지원	연구 개발 및 기술 지원	관련 제도 정비 및 규제 완화	입찰 정보 지원	수출 및 국제 협력 지원	지역 제한 없는 입찰 경쟁	해외 전시 참여 지원	지원 사업 사업비 상향표 준화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63.7	36.2	25.8	24.8	18.4	7.4	0.2	0.1	0.1	1.1
권역별	서울	63.7	35.1	23.8	25.3	19.0	7.8	0.0	0.2	0.0	1.3
	부산/울산/경남	63.3	36.6	21.3	37.0	13.4	5.5	0.0	0.0	0.0	2.4
	대구/경북	60.6	33.6	35.9	21.2	23.4	2.1	2.8	0.0	0.8	2.8
	인천	23.8	64.9	58.7	17.5	0.0	17.6	0.0	0.0	0.0	0.0
	경기	65.5	37.1	21.5	21.6	21.4	10.6	0.0	0.0	0.0	0.0
	광주/전라	72.0	26.8	22.2	25.7	23.1	7.9	0.0	0.0	0.0	0.0
	대전/충청	59.6	49.1	49.3	19.4	5.2	7.1	0.0	0.0	0.0	0.0
	강원/제주	60.8	62.8	30.6	4.6	7.7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60.2	28.6	16.9	19.5	14.1	11.9	0.0	0.0	0.0	1.5
	2~4인	67.4	34.6	26.0	29.1	18.3	5.1	0.5	0.0	0.0	0.8
	5~9인	63.3	37.6	28.1	21.6	20.6	8.4	0.0	0.4	0.0	1.1
	10~14인	55.8	46.8	30.8	18.5	21.2	7.2	0.0	0.0	1.2	4.3
	15인 이상	48.8	55.4	32.2	23.3	17.9	10.4	0.0	0.0	0.0	0.0
	디자인매출 50% ↑	63.8	36.8	26.5	24.2	18.0	6.9	0.3	0.1	0.1	1.0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61.9	34.8	22.0	27.4	17.8	10.6	0.0	0.0	0.0	2.0
	반반	69.9	0.0	0.0	52.6	60.3	17.3	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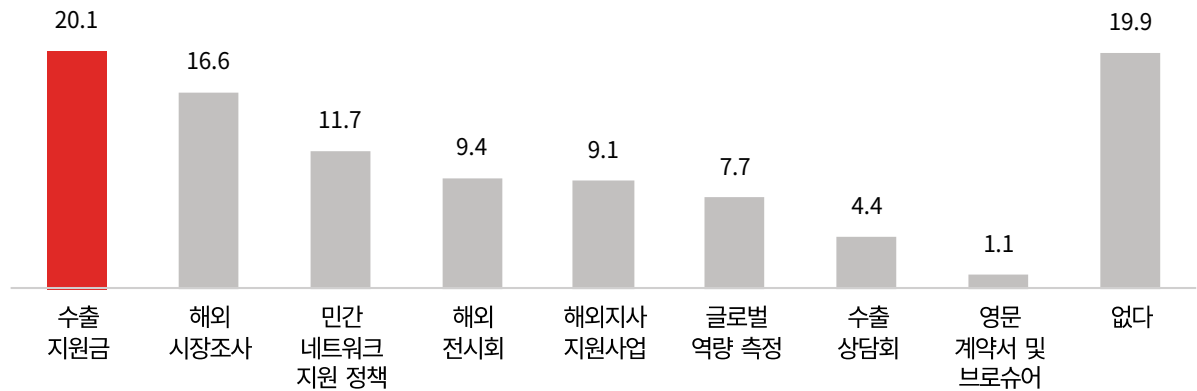


#### 4-2)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 해외 시장으로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으로 ‘수출지원금’(20.1%)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해외 시장조사’(16.6%)가 뒤를 이음.

#### »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출지원금’은 제품 디자인(33.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8.7%), ‘해외 시장조사’는 시각 디자인(20.2%), 인테리어 디자인(17.1%)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구분		수출 지원금	해외 시장 조사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	해외 전시회	해외지사 지원사업	글로벌 역량 측정	수출 상담회	영문 계약서 및 브로슈어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0.1	16.6	11.7	9.4	9.1	7.7	4.4	1.1	19.9
업종별	제품 디자인	33.7	10.3	9.7	7.8	12.1	7.4	7.3	1.3	10.6
	시각 디자인	14.6	20.2	10.5	8.1	10.4	7.9	3.0	1.0	24.4
	인테리어 디자인	16.4	17.1	17.2	12.0	8.3	7.4	2.8	1.3	17.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8.7	16.8	9.2	11.1	2.5	8.2	5.4	1.1	27.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출지원금’은 인천(52.7%)에서 가장 높고, ‘해외 시장 조사’는 강원/제주(26.4%)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수출지원금’은 10인 이상 규모(10~14인 : 25.3%, 15인 이상 : 25.2%), ‘해외시장 조사’는 5~9인(1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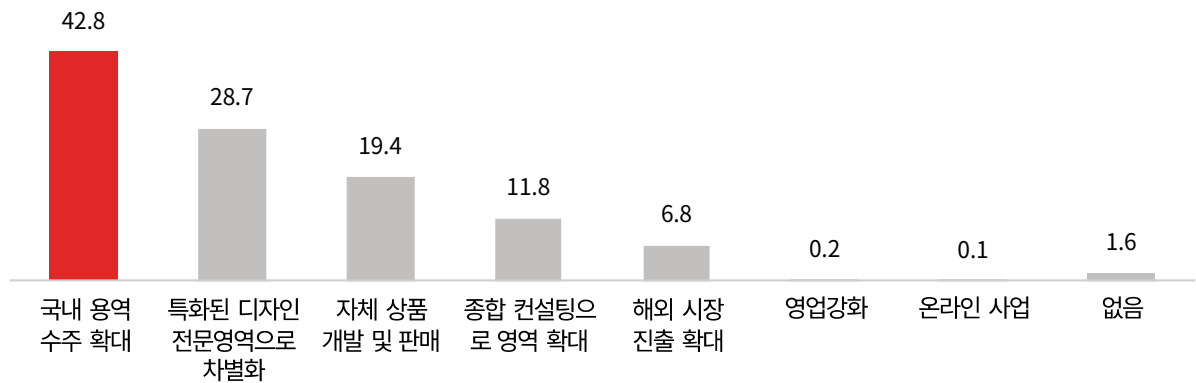
구분		수출 지원금	해외 시장 조사	민간 네트워크 지원 정책	해외 전시회	해외지사 지원사업	글로벌 역량 측정	수출 상담회	영문 계약서 및 브로슈어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20.1	16.6	11.7	9.4	9.1	7.7	4.4	1.1	19.9
권역별	서울	18.7	17.2	10.3	12.1	9.4	6.9	3.5	1.4	20.5
	부산/울산/경남	22.4	20.2	9.9	4.8	10.6	5.7	4.3	0.0	22.2
	대구/경북	14.5	21.1	15.2	11.2	10.7	3.5	4.7	0.0	19.0
	인천	52.7	0.0	17.5	0.0	23.5	0.0	0.0	0.0	6.2
	경기	18.6	11.6	19.4	7.3	7.7	8.5	5.9	0.0	21.1
	광주/전라	30.2	8.1	12.3	7.1	1.2	15.7	6.0	0.0	19.3
	대전/충청	25.5	25.8	7.2	0.0	15.8	11.1	5.5	9.0	0.0
	강원/제주	4.6	26.4	3.6	0.0	8.7	9.8	8.7	0.0	38.2
규모별	1인	18.8	18.5	22.1	6.3	4.6	.8	2.3	3.1	23.6
	2~4인	20.7	16.1	10.2	11.1	9.5	7.0	2.9	.5	22.0
	5~9인	17.8	18.7	7.8	9.7	11.7	10.0	8.6	.8	14.8
	10~14인	25.3	15.9	10.6	4.0	4.2	14.3	1.2	4.5	20.0
	15인 이상	25.2	6.1	15.8	6.4	9.3	15.6	5.6	0.0	16.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21.6	17.7	11.0	10.1	9.0	7.8	4.9	.8	17.3
	기타매출 50% ↑	9.2	7.2	13.3	4.6	10.6	7.8	.6	4.2	42.6
	반반	17.3	30.1	52.6	0.0	0.0	0.0	0.0	0.0	0.0

## 5) 향후 매출 증대 방안

- 향후 매출 증대 방안으로는 ‘국내 용역 수주 확대’가 42.8%로 가장 높고, 다음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28.7%), ‘자체 상품 개발 및 판매’(19.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용역 수주 확대’는 시각 디자인(50.5%)이 가장 높고,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는 인테리어 디자인(3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구분		국내용역 수주확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	자체상품 개발 및 판매	종합 컨설팅으로 영역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영업강화	온라인 사업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42.8	28.7	19.4	11.8	6.8	0.2	0.1	1.6
업종별	제품 디자인	33.4	24.7	26.7	15.6	8.1	0.9	0.0	0.0
	시각 디자인	50.5	28.4	19.1	7.8	5.2	0.0	0.0	2.4
	인테리어 디자인	45.4	33.1	14.8	16.4	4.2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4.8	28.8	15.8	9.0	12.3	0.0	0.3	4.3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내 용역 수주 확대’는 인천(52.7%)에서 가장 높고,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는 대구/경북(44.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국내 용역 수주 확대’는 1인(52.3%)에서,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으로 차별화’는 15인 이상(34.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향후 매출 증대 방안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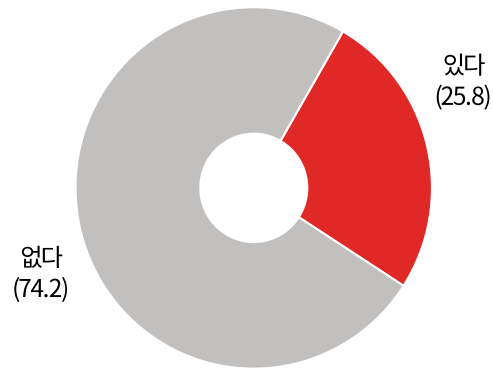
구분		국내용역 수주확대	특화된 디자인 전문영역 으로 차별화	자체상품 개발 및 판매	종합 컨설팅 으로 영역확대	해외시장 진출확대	영업강화	온라인 사업	없음
전문디자인업체		42.8	28.7	19.4	11.8	6.8	0.2	0.1	1.6
권역별	서울	42.8	28.0	16.5	12.9	6.5	0.4	0.1	2.0
	부산/울산/경남	43.6	29.3	29.1	4.6	4.6	0.0	0.0	0.0
	대구/경북	44.1	44.2	14.9	10.5	6.5	0.0	0.0	0.0
	인천	52.7	35.1	41.1	23.8	17.6	0.0	0.0	0.0
	경기	36.3	25.2	25.1	9.5	11.8	0.0	0.0	4.0
	광주/전라	47.5	28.3	11.5	14.0	6.0	0.0	0.0	0.0
	대전/충청	43.0	15.6	38.6	11.6	0.0	0.0	0.0	0.0
	강원/제주	44.9	25.4	22.4	16.4	4.6	0.0	0.0	0.0
규모별	1인	52.3	22.8	12.7	8.1	4.5	0.0	0.0	5.9
	2~4인	43.0	29.8	22.3	11.0	5.8	0.5	0.0	1.4
	5~9인	38.9	30.0	18.3	13.6	8.6	0.0	0.0	0.0
	10~14인	43.5	22.7	21.5	18.7	5.2	0.0	0.0	0.0
	15인 이상	33.2	34.2	15.5	13.6	14.0	0.0	1.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39.6	30.5	20.6	12.4	7.5	0.3	0.1	1.3
	기타매출 50% ↑	64.8	16.5	11.9	8.6	0.0	0.0	0.0	4.2
	반반	82.7	0.0	0.0	0.0	17.3	0.0	0.0	0.0

## 6) 부당한 처우 경험

- 전문디자인업체 10곳 중 2곳 이상(25.8%)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고 있음.

### »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평균 : 2.95 회

- 업종별로 부당한 처우 경험이 비슷하게 나타난 가운데, 시각 디자인(32.0%, 평균 3.98회)이 다른 업종 대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임.

### » 업종별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횟수(회)
전문디자인업체		25.8	74.2	2.95
업종별	제품 디자인	21.0	79.0	1.99
	시각 디자인	32.0	68.0	3.98
	인테리어 디자인	23.1	76.9	1.6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2.1	77.9	2.72

● 권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울산/경남(49.9%)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인천(35.1%), 광주/전라(30.5%), 경기(29.0%) 등의 순임.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28.7%), 1인(28.4%), 2~4인(27.6%) 등의 순으로 부당한 처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부당한 처우 경험 비율 및 횟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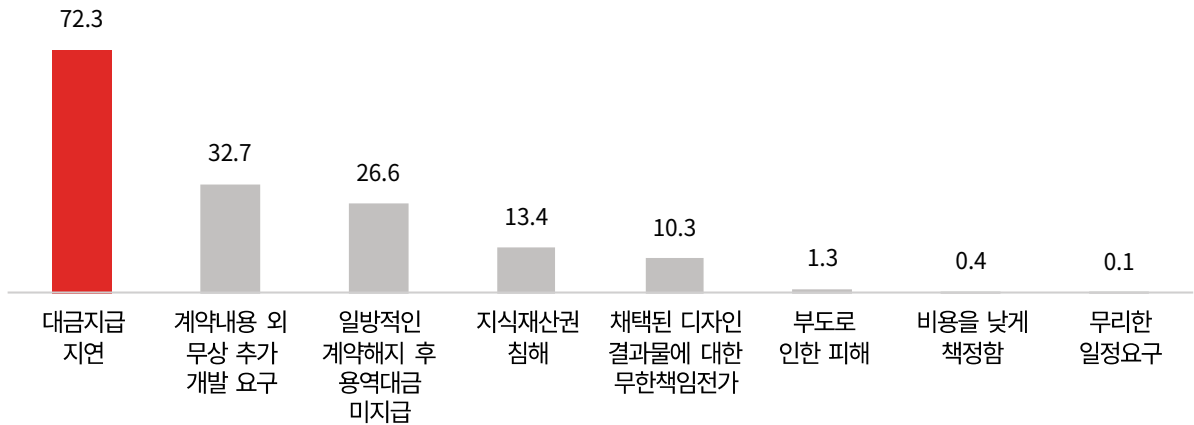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횟수(회)
전문디자인업체		25.8	74.2	2.95
권역별	서울	22.0	78.0	2.66
	부산/울산/경남	49.9	50.1	2.69
	대구/경북	18.5	81.5	4.46
	인천	35.1	64.9	1.50
	경기	29.0	71.0	3.66
	광주/전라	30.5	69.5	3.08
	대전/충청	27.3	72.7	2.95
	강원/제주	3.1	96.9	3.00
규모별	1인	28.4	71.6	2.53
	2~4인	27.6	72.4	3.12
	5~9인	21.0	79.0	3.20
	10~14인	28.7	71.3	2.14
	15인 이상	22.7	77.3	2.28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25.4	74.6	2.58
	기타매출 50% ↑	30.9	69.1	5.26
	반반	-	-	-

## 6-1)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 부당한 처우의 피해 유형(중복응답 기준)으로는 ‘대금지급 지연’(72.3%)이 가장 높고, 이어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32.7%),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26.6%), ‘지식재산권 침해’(13.4%),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책임전가’(10.3%) 등의 부당 처우 항목을 보임.

### »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금지급 지연’은 인테리어 디자인(82.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80.4%)에서 높고,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개발 요구’는 제품 디자인(3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대금지급 지연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지식 재산권 침해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책임 전가	부도로 인한 피해	비용을 낮게 책정함	무리한 일정요구
전문디자인업체		72.3	32.7	26.6	13.4	10.3	1.3	0.4	0.1
업종별	제품 디자인	60.3	38.8	35.3	8.6	11.3	0.0	0.0	0.0
	시각 디자인	70.3	32.7	21.1	13.3	7.9	0.0	1.0	0.3
	인테리어 디자인	82.6	32.7	30.4	20.5	15.2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0.4	23.7	27.1	9.8	9.8	9.8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금지급 지연’은 인천, 강원/제주(100.0%)에서 높고,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는 강원/제주(10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15인 이상에서 ‘대금지급 지연’(88.9%)이 가장 높고, 5~9인 규모에서는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40.5%)가 다른 기업 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부당한 처우 피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대금지급 지연	계약내용 외 무상 추가 개발 요구	일방적인 계약해지 후 용역대금 미지급	지식 재산권 침해	채택된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무한책임 전가	부도로 인한 피해	비용을 낮게 책정함	무리한 일정요구
전문디자인업체		72.3	32.7	26.6	13.4	10.3	1.3	0.4	0.1
권역별	서울	71.5	24.7	30.1	13.1	4.6	1.4	1.0	0.3
	부산/울산/경남	71.9	46.2	32.7	22.4	19.1	3.7	0.0	0.0
	대구/경북	89.1	57.4	18.3	14.9	0.0	0.0	0.0	0.0
	인천	10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67.5	38.5	23.8	2.3	8.7	0.0	0.0	0.0
	광주/전라	67.7	27.3	24.5	10.3	20.6	0.0	0.0	0.0
	대전/충청	72.9	33.0	0.0	27.1	33.0	0.0	0.0	0.0
	강원/제주	100.0	100.0	0.0	0.0	0.0	0.0	0.0	0.0
규모별	1인	73.0	18.3	20.1	25.3	13.1	4.0	0.0	0.0
	2~4인	76.4	33.9	26.1	8.3	13.9	1.3	0.9	0.0
	5~9인	65.1	40.5	30.0	14.2	0.0	0.0	0.0	0.0
	10~14인	47.0	39.4	34.8	3.3	10.6	0.0	0.0	0.0
	15인 이상	88.9	25.7	28.8	36.9	8.5	0.0	0.0	2.7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71.9	34.4	26.8	13.2	11.9	1.5	0.5	0.1
	기타매출 50% ↑	74.7	21.4	25.3	14.9	0.0	0.0	0.0	0.0
	반반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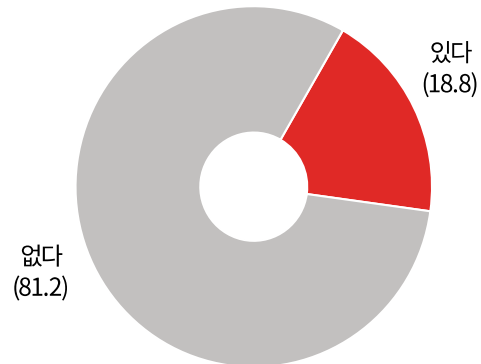


## 7)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전문디자인업체 18.8%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외 81.2%의 전문디자인업체는 디자인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26.1%)이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 디자인(16.7%), 인테리어 디자인(16.4%) 등의 순임.

###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8.8	81.2
업종별	제품 디자인	16.7	83.3
	시각 디자인	26.1	73.9
	인테리어 디자인	16.4	83.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10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은 대구/경북(27.9%)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부산/울산/경남(27.7%), 대전/충청(26.4%) 등의 순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0~14인(23.2%) 규모에서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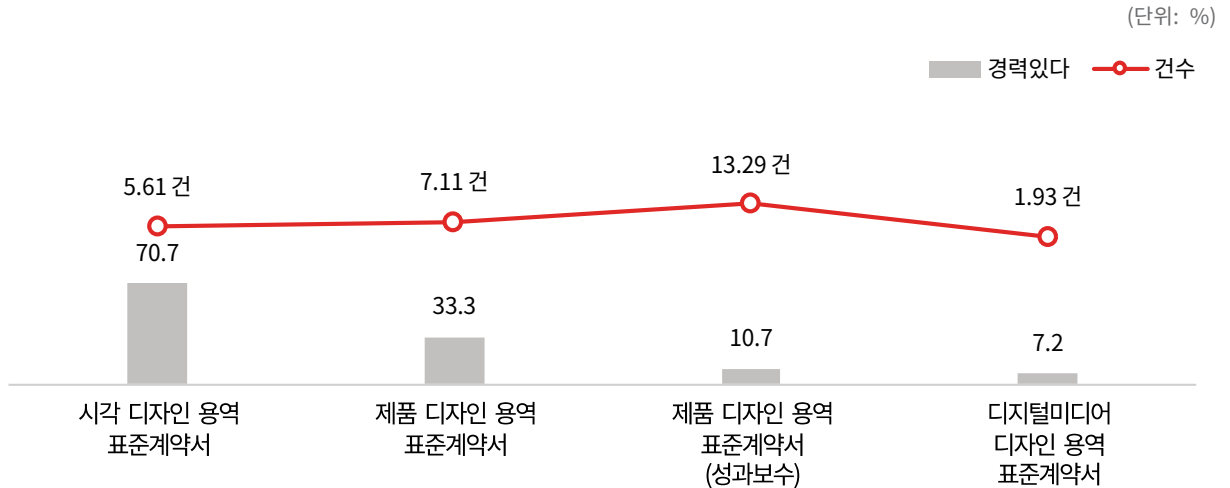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전문디자인업체		18.8	81.2
권역별	서울	17.3	82.7
	부산/울산/경남	27.7	72.3
	대구/경북	27.9	72.1
	인천	0.0	100.0
	경기	15.2	84.8
	광주/전라	17.5	82.5
	대전/충청	26.4	73.6
	강원/제주	10.7	89.3
규모별	1인	10.3	89.7
	2~4인	19.0	81.0
	5~9인	20.3	79.7
	10~14인	23.2	76.8
	15인 이상	14.6	85.4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18.5	81.5
	기타매출 50% ↑	32.9	67.1
	반반	0.0	100.0

### 7-1)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로는 ‘시각 디자인 영역’이 70.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제품 디자인 영역’(33.3%)이 뒤를 이음.
- 한편, ‘제품 디자인 영역(성과 보수)’(10.7%), ‘디지털미디어디자인 영역’(7.2%)의 활용도는 낮음.

#### »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각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는 시각 디자인(83.8%)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제품 디자인(67.2%), 인테리어 디자인(31.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구분		시각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 (성과보수)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영역 표준계약서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전문디자인업체		70.7	5.61	33.3	7.11	10.7	13.29	7.2	1.93
업종별	제품 디자인	67.2	6.96	37.7	13.44	18.1	20.35	6.9	1.00
	시각 디자인	83.8	5.14	14.7	2.44	6.8	2.00	9.4	2.44
	인테리어 디자인	31.5	1.00	89.6	2.24	5.2	1.00	0.0	-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	-	-	-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각각 100.0%)에서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제주(100.0%)에서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가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1인 규모와 15인 이상 업체(각각 100.0%)에서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종류 및 건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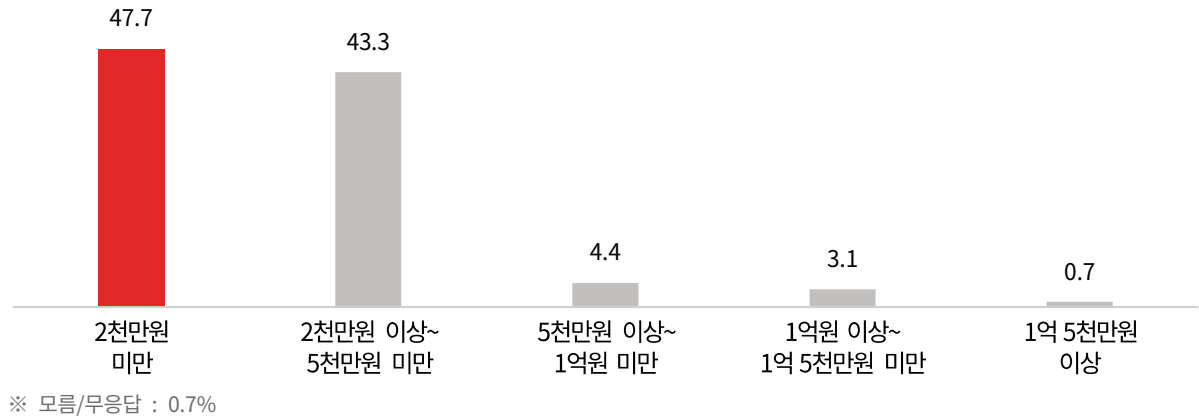
구분		시각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제품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성과보수)		디지털미디어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전문디자인업체		70.7	5.61	33.3	7.11	10.7	13.29	7.2	1.93
권역별	서울	68.1	5.13	36.8	2.58	6.5	2.37	2.8	1.00
	부산/울산/경남	100.0	7.81	23.4	5.39	3.5	2.00	19.8	1.00
	대구/경북	58.5	5.72	34.8	35.59	36.1	33.55	0.0	-
	인천	-	-	-	-	-	-	-	-
	경기	87.1	2.03	25.7	10.00	0.0		0.0	-
	광주/전라	37.4	2.12	38.7	2.47	27.7	2.00	27.7	3.00
	대전/충청	82.4	8.42	17.6	5.00	0.0	-	0.0	-
	강원/제주	100.0	5.00	50.0	-	0.0	-	0.0	-
규모별	1인	100.0	-	0.0	-	0.0	-	0.0	-
	2~4인	71.2	4.73	19.0	14.93	10.8	26.00	15.4	1.93
	5~9인	55.4	6.03	53.1	4.13	14.6	2.09	0.0	-
	10~14인	85.1	4.00	57.7	4.51	5.0	1.00	0.0	-
	15인 이상	100.0	11.04	13.4	1.50	6.7	2.00	0.0	-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68.8	5.41	32.7	7.21	11.4	13.29	7.7	1.93
	기타매출 50% ↑	100.0	10.00	42.8	6.00	0.0	-	0.0	-
	반반	-	-	-	-	-	-	-	-

## 7-2)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 디자인 표준계약서의 평균 계약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이 47.7% 비율로 가장 높고, 다음은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43.3%), '5천만 원~1억 원 미만'(4.4%), '1억 원~1억 5천만 원 미만'(3.1%), '1억 5천만 원 이상'(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 업종별 계약금액은 '2천만 원 미만'은 제품 디자인(68.8%)에서 높고,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은 인테리어 디자인(68.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구분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1억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이상
전문디자인업체		47.7	43.3	4.4	3.1	0.7
업종별	제품 디자인	68.8	21.3	3.1	6.9	0.0
	시각 디자인	43.2	52.7	1.5	1.2	0.0
	인테리어 디자인	7.8	68.5	18.5	0.0	5.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	-

- 권역별로 살펴보면, 강원/제주(100.0%)에서 ‘2천만 원 미만’ 대의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이 높고,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은 경기(63.7%), 광주/전라(62.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계약금액이 낮을수록 작은 규모의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표준계약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평균 계약금액**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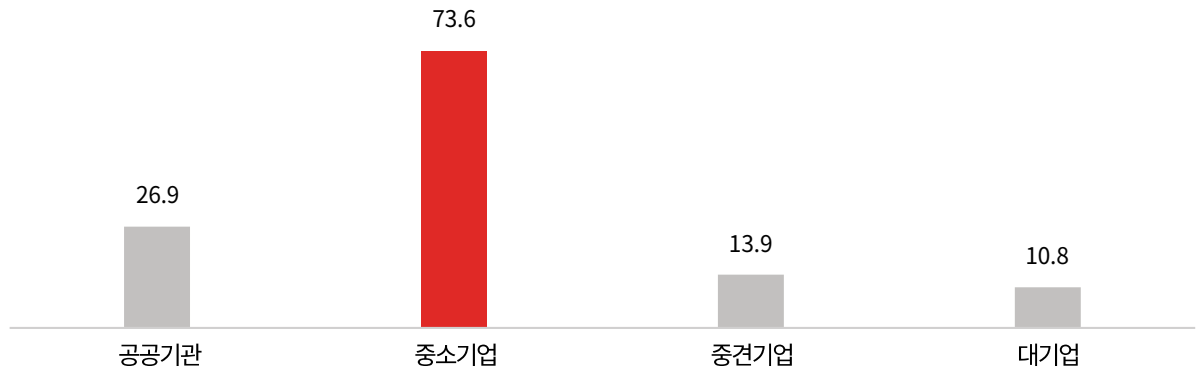
구분		2천만 원 미만	2천만 원 ~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1억 원 ~ 5천만 원 미만	1억 5천만 원
<b>전문디자인업체</b>		<b>47.7</b>	<b>43.3</b>	<b>4.4</b>	<b>3.1</b>	<b>0.7</b>
<b>권역별</b>	서울	35.4	50.1	8.0	6.6	0.0
	부산/울산/경남	89.6	10.4	0.0	0.0	0.0
	대구/경북	61.5	26.4	5.4	0.0	6.7
	인천	-	-	-	-	-
	경기	36.3	63.7	0.0	0.0	0.0
	광주/전라	31.3	62.6	0.0	0.0	0.0
	대전/충청	55.1	44.9	0.0	0.0	0.0
	강원/제주	100.0	0.0	0.0	0.0	0.0
<b>규모별</b>	1인	0.0	100.0	0.0	0.0	0.0
	2~4인	62.2	32.4	5.4	0.0	2.2
	5~9인	36.1	55.3	4.1	0.0	0.0
	10~14인	55.3	39.8	5.0	0.0	0.0
	15인 이상	13.4	39.9	0.0	46.7	0.8
	디자인매출 50% ↑	48.1	42.5	4.6	3.3	0.0
<b>매출 구성</b>	기타매출 50% ↑	42.8	57.2	0.0	0.0	0.0
	반반	-	-	-	-	--

### 7-3)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

-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대상으로는(중복응답 기준) ‘중소기업’이 73.6%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공공기관’(26.9%), ‘중견기업’(13.9%), ‘대기업’(10.8%) 등의 순을 보임.

#### »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 업종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시각 디자인(75.3%), 인테리어 디자인(73.7%)에서 높고, ‘공공기관’은 시각 디자인(3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전문디자인업체		26.9	73.6	13.9	10.8
업종별	제품 디자인	23.4	71.3	23.1	20.6
	시각 디자인	36.7	75.3	6.8	1.5
	인테리어 디자인	0.0	73.7	15.5	18.5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	-	-	-

- 권역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대구/경북(93.0%)과 부산/울산/경남(80.2%)에서 높고, ‘공공기관’은 강원/제주(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경우 1인 기업(100.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기관’은 15인 이상(6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디자인표준계약서 사용 대상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전문디자인업체		26.9	73.6	13.9	10.8
권역별	서울	26.5	76.0	18.2	17.4
	부산/울산/경남	39.7	80.2	19.8	0.0
	대구/경북	0.0	93.0	13.9	0.0
	인천	-	-	-	-
	경기	19.0	63.7	0.0	36.3
	광주/전라	37.4	62.6	0.0	0.0
	대전/충청	27.3	55.1	17.6	0.0
	강원/제주	50.0	50.0	0.0	0.0
규모별	1인	0.0	100.0	0.0	0.0
	2~4인	15.4	71.5	12.3	16.2
	5~9인	43.7	74.3	10.2	2.3
	10~14인	11.6	79.2	15.6	0.0
	15인 이상	66.2	62.4	46.7	37.6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22.3	72.0	14.8	11.5
	기타매출 50% ↑	100.0	100.0	0.0	0.0
	반반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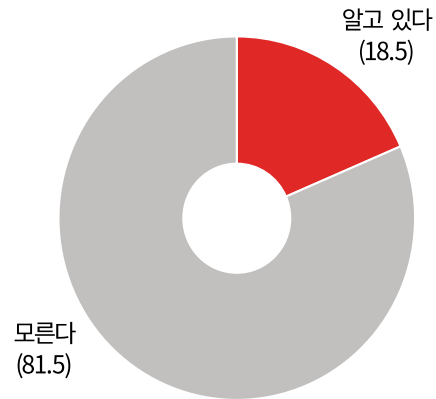


## 8)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전문디자인업체를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해 대부분(81.5%)의 업체가 ‘모른다’로 나타났으며, 그 외 18.5%가 ‘알고 있다’로 나타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 업종별 인지도는 시각 디자인(21.2%)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 제품 디자인(19.5%), 인테리어 디자인(17.2%) 등의 순으로 높음.

###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문디자인업체		18.5	81.5
업종별	제품 디자인	19.5	80.5
	시각 디자인	21.2	78.8
	인테리어 디자인	17.2	82.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2.5	87.5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가직무능력표준 인지도는 광주/전라(29.7%), 부산/울산/경남(27.7%), 대전/충청(27.6%)에서 높은 반면, 경기(13.3%)에서 상대적으로 낮음.
- 규모별로는 15인 이상 규모에서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2~4인(14.8%)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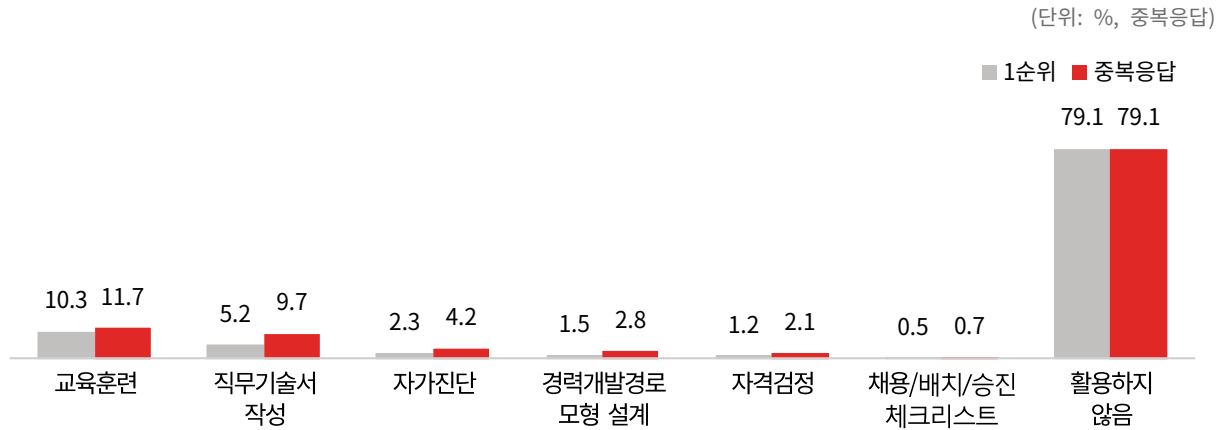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문디자인업체		18.5	81.5
권역별	서울	15.6	84.4
	부산/울산/경남	27.7	72.3
	대구/경북	16.8	83.2
	인천	23.5	76.5
	경기	13.3	86.7
	광주/전라	29.7	70.3
	대전/충청	27.6	72.4
	강원/제주	18.3	81.7
규모별	1인	18.0	82.0
	2~4인	14.8	85.2
	5~9인	22.9	77.1
	10~14인	21.3	78.7
	15인 이상	29.7	70.3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18.2	81.8
	기타매출 50% ↑	21.0	79.0
	반반	17.3	82.7

### 8-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음’이 79.1%로 압도적으로 높고,  
그 외 ‘교육훈련’(11.7%), ‘직무기술서 작성’(9.7%), ‘자가진단’(4.2%) 등에 활용한다는 순으로 나타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은 제품 디자인(24.1%), 인테리어 디자인(18.9%), ‘직무기술서 작성’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17.3%), ‘자가진단’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8.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교육 훈련	직무 기술서 작성	자가 진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자격 검정	채용/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활용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1.7	9.7	4.2	2.8	2.1	0.7	79.1
업종별	제품 디자인	24.1	6.9	4.3	8.2	2.8	1.1	69.3
	시각 디자인	2.7	6.8	2.9	1.8	1.5	0.0	87.7
	인테리어 디자인	18.9	14.9	4.6	0.0	2.3	0.0	74.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5	17.3	8.7	0.0	2.7	4.5	75.5

- 권역별로 살펴보면, ‘교육훈련’은 대전/충청(46.0%), 부산/울산/경남(26.1%), ‘직무기술서 작성’은 부산/울산/경남(17.4%), 강원/제주(13.4%)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남.
- 규모별로는 ‘교육훈련’은 10~14인(46.6%), ‘직무기술서 작성’은 2~4인(16.7%) 규모의 업체에서 활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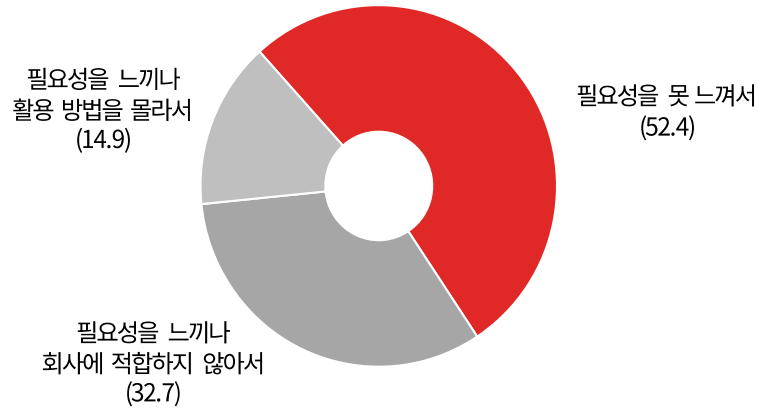
구분		교육 훈련	직무 기술서 작성	자가 진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자격 검정	채용·배치 ·승진 체크리스트	활용하지 않음
전문디자인업체		11.7	9.7	4.2	2.8	2.1	0.7	79.1
권역별	서울	6.0	9.2	4.0	1.8	2.0	1.6	82.6
	부산/울산/경남	26.1	17.4	0.0	0.0	2.1	0.0	71.8
	대구/경북	14.3	9.6	12.2	0.0	6.9	0.0	71.3
	인천	0.0	0.0	0.0	0.0	0.0	0.0	100.0
	경기	0.0	10.9	10.9	0.0	0.0	0.0	89.1
	광주/전라	10.7	7.9	0.0	5.6	2.8	0.0	83.8
	대전/충청	46.0	0.0	0.0	20.1	0.0	0.0	54.0
	강원/제주	0.0	13.4	25.0	0.0	0.0	0.0	61.6
규모별	1인	0.0	0.0	0.0	0.0	0.0	0.0	100.0
	2~4인	15.5	16.7	0.0	3.1	0.0	0.0	77.0
	5~9인	8.5	7.9	7.8	4.5	5.5	1.4	77.6
	10~14인	46.6	11.5	23.9	0.0	0.0	4.5	31.6
	15인 이상	2.0	0.0	3.4	2.0	3.4	0.0	91.2
	디자인매출 50% ↑	13.5	10.1	3.8	3.3	2.4	0.9	76.8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0.0	0.0	0.0	0.0	0.0	0.0	100.0
	반반	0.0	100.0	100.0	0.0	0.0	0.0	0.0

## 8-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52.4%로 가장 높고, 다음은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32.7%),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1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71.2%)에서 높고, 다음은 인테리어 디자인(68.4%), 시각 디자인(47.8%) 등의 순으로 높음.
-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제품 디자인(39.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업종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전문디자인업체		52.4	32.7	14.9
업종별	제품 디자인	38.6	39.5	21.9
	시각 디자인	47.8	37.9	14.3
	인테리어 디자인	68.4	29.5	2.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71.2	0.0	28.8

- 권역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인천과 강원/제주(각각 100.0%),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대전/충청(56.6%)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10~14인(100.0%),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는 1인(3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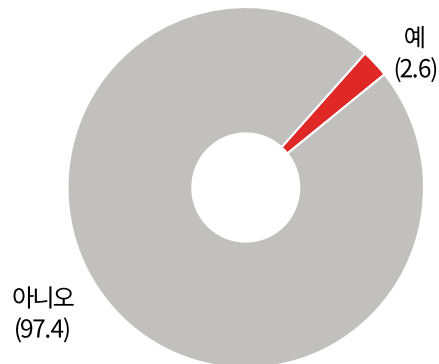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회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전문디자인업체		52.4	32.7	14.9
권역별	서울	40.5	39.4	20.1
	부산/울산/경남	84.3	3.5	12.1
	대구/경북	79.7	13.8	6.5
	인천	100.0	0.0	0.0
	경기	64.8	29.6	5.6
	광주/전라	38.0	47.2	14.8
	대전/충청	30.2	56.6	13.2
	강원/제주	100.0	0.0	0.0
규모별	1인	50.8	38.2	10.9
	2~4인	53.1	34.4	12.5
	5~9인	47.7	30.2	22.1
	10~14인	100.0	0.0	0.0
	15인 이상	56.5	31.8	11.7
	디자인매출 50% ↑	49.3	34.7	16.0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68.6	22.0	9.4
	반반	-	-	-

## 9) 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전문디자인업체의 2.6%가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대부분(97.4%)의 전문디자인업체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에서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아니오’가 95.0% 이상으로 높은 가운데,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업종은 제품 디자인(4.1%)이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2.6	97.4
업종별	제품 디자인	4.1	95.9
	시각 디자인	2.2	97.8
	인테리어 디자인	1.2	98.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1	96.9

- 모든 권역과 규모, 매출구성에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비율이 낮게 나온 가운데, 부산/울산/경남(4.7%)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디자인업체의 규모가 클수록 세액공제 적용을 받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2.6	97.4
권역별	서울	2.8	97.2
	부산/울산/경남	4.7	95.3
	대구/경북	2.6	97.4
	인천	0.0	100.0
	경기	1.4	98.6
	광주/전라	2.3	97.7
	대전/충청	0.0	100.0
	강원/제주	0.0	100.0
규모별	1인	1.1	98.9
	2~4인	2.0	98.0
	5~9인	2.5	97.5
	10~14인	3.4	96.6
	15인 이상	11.3	88.7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2.9	97.1
	기타매출 50% ↑	0.0	100.0
	반반	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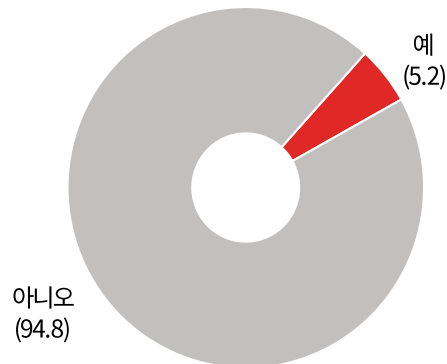


## 10)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에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업체는 5.2%(디자인 활용업체 : 1.4%), ‘아니오’는 94.8%로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한 업체는 제품 디자인(7.6%), 시각 디자인(6.2%)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그 외 업종은 5%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5.2	94.8
업종별	제품 디자인	7.6	92.4
	시각 디자인	6.2	93.8
	인테리어 디자인	3.7	96.3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6	98.4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은 인천(17.6%), 광주/전라(1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규모별로는 수행 경험이 10~14인(10.0%)과 15인 이상(8.9%)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음.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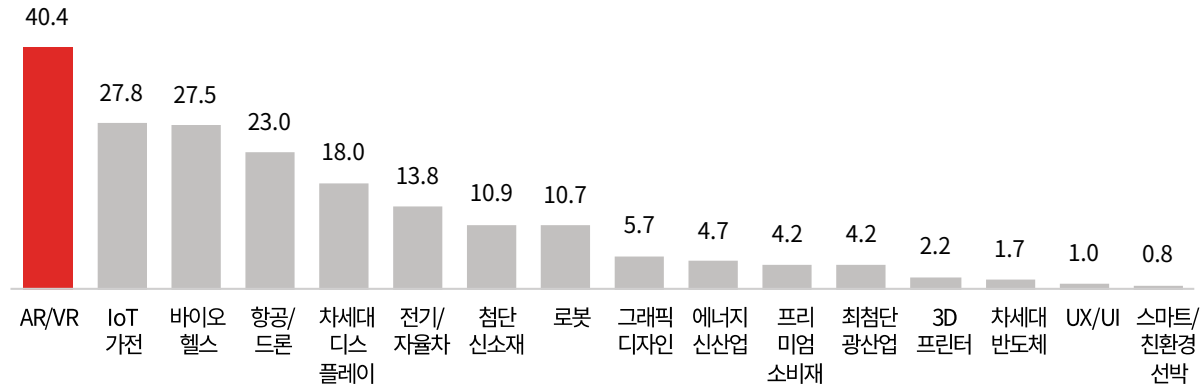
구분		예	아니오
전문디자인업체		5.2	94.8
권역별	서울	3.3	96.7
	부산/울산/경남	8.9	91.1
	대구/경북	5.1	94.9
	인천	17.6	82.4
	경기	4.2	95.8
	광주/전라	14.0	86.0
	대전/충청	4.5	95.5
	강원/제주	0.0	100.0
규모별	1인	0.0	100.0
	2~4인	5.7	94.3
	5~9인	5.6	94.4
	10~14인	10.0	90.0
	15인 이상	8.9	91.1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5.5	94.5
	기타매출 50% ↑	3.3	96.7
	반반	0.0	100.0

## 10-1)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로는 ‘AR/VR 가전’이 40.4%로 가장 높고, 다음은 ‘IoT 가전’(27.8%), ‘바이오 헬스’(2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 모름/무응답 : 1.8%

- 업종별로 살펴보면, ‘AR/VR’과 ‘IoT 가전’은 패션/텍스타일 디자인(각각 100.0%)에서 가장 높고, ‘바이오 헬스’는 제품 디자인(39.8%), 패션/텍스타일 디자인(34.0%), ‘항공/드론’은 제품 디자인(46.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AR/VR	IoT 가전	바이오 헬스	항공/드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자율차	첨단 신소재	로봇
전문디자인업체		40.4	27.8	27.5	23.0	18.0	13.8	10.9	10.7
업종별	제품 디자인	25.4	32.1	39.8	46.7	14.5	25.9	18.8	31.1
	시각 디자인	37.0	17.4	17.8	15.5	25.6	0.0	2.8	0.0
	인테리어 디자인	63.5	25.7	25.7	0.0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00.0	100.0	34.0	0.0	34.0	100.0	66.0	0.0

구분		그래픽 디자인	에너지 신산업	프리미엄 소비자재	최첨단 광산업	3D PRINTER	차세대 반도체	UX/UI	스마트/환경선박
전문디자인업체		5.7	4.7	4.2	4.2	2.2	1.7	1.0	0.8
업종별	제품 디자인	0.0	4.4	12.3	12.3	0.0	0.0	0.0	2.2
	시각 디자인	12.8	0.0	0.0	0.0	5.0	0.0	2.3	0.0
	인테리어 디자인	0.0	0.0	0.0	0.0	0.0	0.0	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66.0	0.0	0.0	0.0	34.0	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AR/VR’은 부산/울산/경남(63.3%), ‘IoT 가전’은 대전/충청(64.4%), ‘바이오 헬스’는 광주/전라(45.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AR/VR’은 2~4인(51.6%), ‘IoT 가전’은 10~14인(54.5%) 규모에서 다른 규모 대비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AR/VR	IoT 가전	바이오 헬스	항공/드론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기/자율차	첨단 신소재	로봇
전문디자인업체		40.4	27.8	27.5	23.0	18.0	13.8	10.9	10.7
권역별	서울	45.2	40.2	24.5	7.1	7.1	18.6	0.0	6.6
	부산/울산/경남	63.3	0.0	31.9	27.1	0.0	0.0	4.8	0.0
	대구/경북	0.0	27.8	15.7	27.8	72.2	0.0	15.7	0.0
	인천	0.0	0.0	0.0	100.0	0.0	0.0	0.0	100.0
	경기	0.0	23.7	16.0	0.0	0.0	0.0	0.0	0.0
	광주/전라	54.9	29.6	45.1	39.1	39.1	29.6	35.5	16.7
	대전/충청	35.6	64.4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	-	-	-	-	-	-	-
규모별	1인	-	-	-	-	-	-	-	-
	2~4인	51.6	22.2	37.6	26.8	29.5	14.2	14.2	8.0
	5~9인	13.6	30.7	16.4	18.2	5.8	14.4	5.3	14.8
	10~14인	50.4	54.5	12.4	37.2	7.6	22.8	12.4	22.8
	15인 이상	49.0	22.7	19.8	0.0	0.0	0.0	8.4	0.0
	매출구성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42.0	30.0	29.6	23.1	13.3	14.9	11.8	11.5
	기타매출 50% ↑	20.9	0.0	0.0	20.9	79.1	0.0	0.0	0.0
	반반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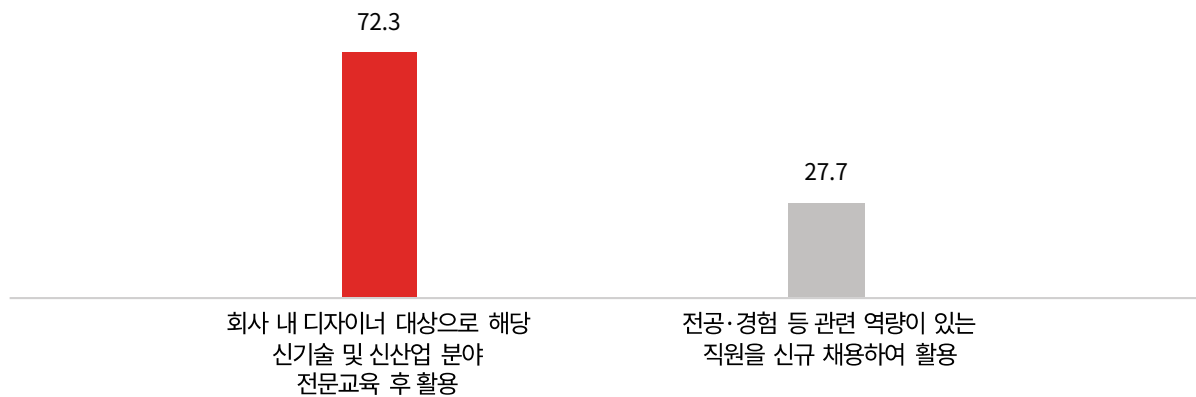
구분		그래픽 디자인	에너지 신산업	프리미엄 소비재	최첨단 광산업	3D PRINTER	차세대 반도체	UX/UI	스마트/환경선박
전문디자인업체		5.7	4.7	4.2	4.2	2.2	1.7	1.0	0.8
권역별	서울	0.0	0.0	0.0	0.0	6.5	4.9	3.0	0.0
	부산/울산/경남	0.0	0.0	0.0	0.0	0.0	0.0	0.0	4.8
	대구/경북	0.0	0.0	0.0	0.0	0.0	0.0	0.0	0.0
	인천	0.0	0.0	0.0	0.0	0.0	0.0	0.0	0.0
	경기	60.4	0.0	0.0	0.0	0.0	0.0	0.0	0.0
	광주/전라	0.0	18.8	16.7	16.7	0.0	0.0	0.0	0.0
	대전/충청	0.0	0.0	0.0	0.0	0.0	0.0	0.0	0.0
	강원/제주	-	-	-	-	-	-	-	-
규모별	1인	-	-	-	-	-	-	-	-
	2~4인	0.0	6.2	8.0	8.0	0.0	0.0	0.0	0.0
	5~9인	19.8	5.3	0.0	0.0	7.8	5.8	0.0	0.0
	10~14인	0.0	0.0	0.0	0.0	0.0	0.0	0.0	0.0
	15인 이상	0.0	0.0	0.0	0.0	0.0	0.0	11.4	8.4
	매출구성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6.1	5.1	4.6	4.6	2.4	1.8	1.1	0.8
	기타매출 50% ↑	0.0	0.0	0.0	0.0	0.0	0.0	0.0	0.0
	반반	-	-	-	-	-	-	-	-

## 10-2)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방안은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 교육 후 활용’이 72.3%로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27.7%) 대비 높게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문교육 후 활용’은 인테리어 디자인과 패션/텍스타일 디자인(각각 100.0%)에서 가장 높고, 다음은 시각 디자인(67.1%), 제품 디자인(61.8%) 순으로 나타남.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활용

(단위: %)

구분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전문디자인업체		72.3	27.7
업종별	제품 디자인	61.8	38.2
	시각 디자인	67.1	32.9
	인테리어 디자인	100.0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00.0	0.0

-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문교육 후 활용’은 대구/경북, 인천(각각 100.0%)에서 높고,

‘신규 채용하여 활용’은 경기(76.3%)에서 높게 나타남.

- ‘전문교육 후 활용’은 10~14인 규모의 전문디자인업체(87.6%)에서 가장 높고, ‘신규 채용하여 활용’은 15인 이상 기업(31.2%)에서 높게 나타남.

##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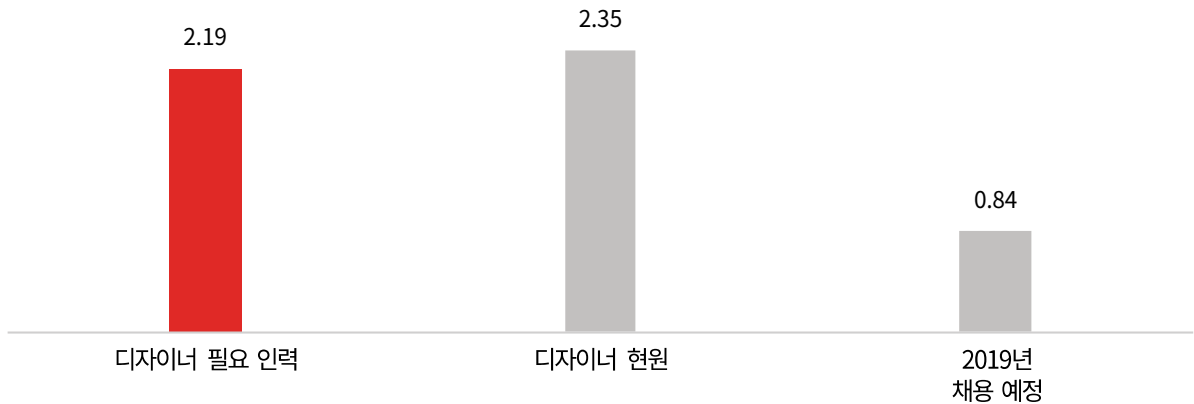
구분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b>전문디자인업체</b>		<b>72.3</b>	<b>27.7</b>
<b>권역별</b>	서울	86.9	13.1
	부산/울산/경남	36.7	63.3
	대구/경북	100.0	0.0
	인천	100.0	0.0
	경기	23.7	76.3
	광주/전라	80.3	19.7
	대전/충청	64.4	35.6
	강원/제주	-	-
<b>규모별</b>	1인	-	-
	2~4인	70.4	29.6
	5~9인	71.6	28.4
	10~14인	87.6	12.4
	15인 이상	68.8	31.2
	디자인매출 50% ↑	70.1	29.9
<b>매출 구성</b>	기타매출 50% ↑	100.0	0.0
	반반	-	-

### 10-3)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평균 2.19명. 디자이너 현원은 2.35명, 2019년 채용 예정은 0.84명으로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명)



- 업종별로 살펴보면,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제품 디자인(2.85명), ‘디자이너 현원’은 제품 디자인(2.86명)에서 높고, ‘2019년 채용 예정’은 제품 디자인(1.37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명)

구분		디자이너 필요 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9년 채용 예정
전문디자인업체		2.19	2.35	0.84
업종별	제품 디자인	2.85	2.86	1.37
	시각 디자인	1.53	2.17	0.66
	인테리어 디자인	2.64	1.74	0.4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00	2.34	0.00

- 권역별로는 ‘디자이너 필요 인력’은 광주/전라(2.72명), 서울(2.63명), ‘디자이너 현원’은 인천(5.0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는 ‘디자이너 필요인력’은 15인 이상(3.07명)과 ‘디자이너 현원’은 10~14인(5.70명)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권역별/규모별/매출구성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시 디자이너 필요 인력/현원

(단위: 명)

구분		디자이너 필요 인력	디자이너 현원	2019년 채용 예정
전문디자인업체		2.19	2.35	0.84
권역별	서울	2.63	2.57	0.63
	부산/울산/경남	1.92	0.87	0.64
	대구/경북	1.28	2.85	1.04
	인천	0.00	5.00	0.00
	경기	1.76	3.66	0.24
	광주/전라	2.72	1.87	1.62
	대전/충청	1.07	2.36	0.36
	강원/제주	-	-	-
규모별	1인		-	-
	2~4인	2.32	1.17	1.04
	5~9인	1.47	3.10	0.25
	10~14인	2.80	5.70	1.43
	15인 이상	3.07	3.18	0.87
매출구성	디자인매출 50% ↑	2.25	2.45	0.81
	기타매출 50% ↑	1.42	1.00	1.21
	반반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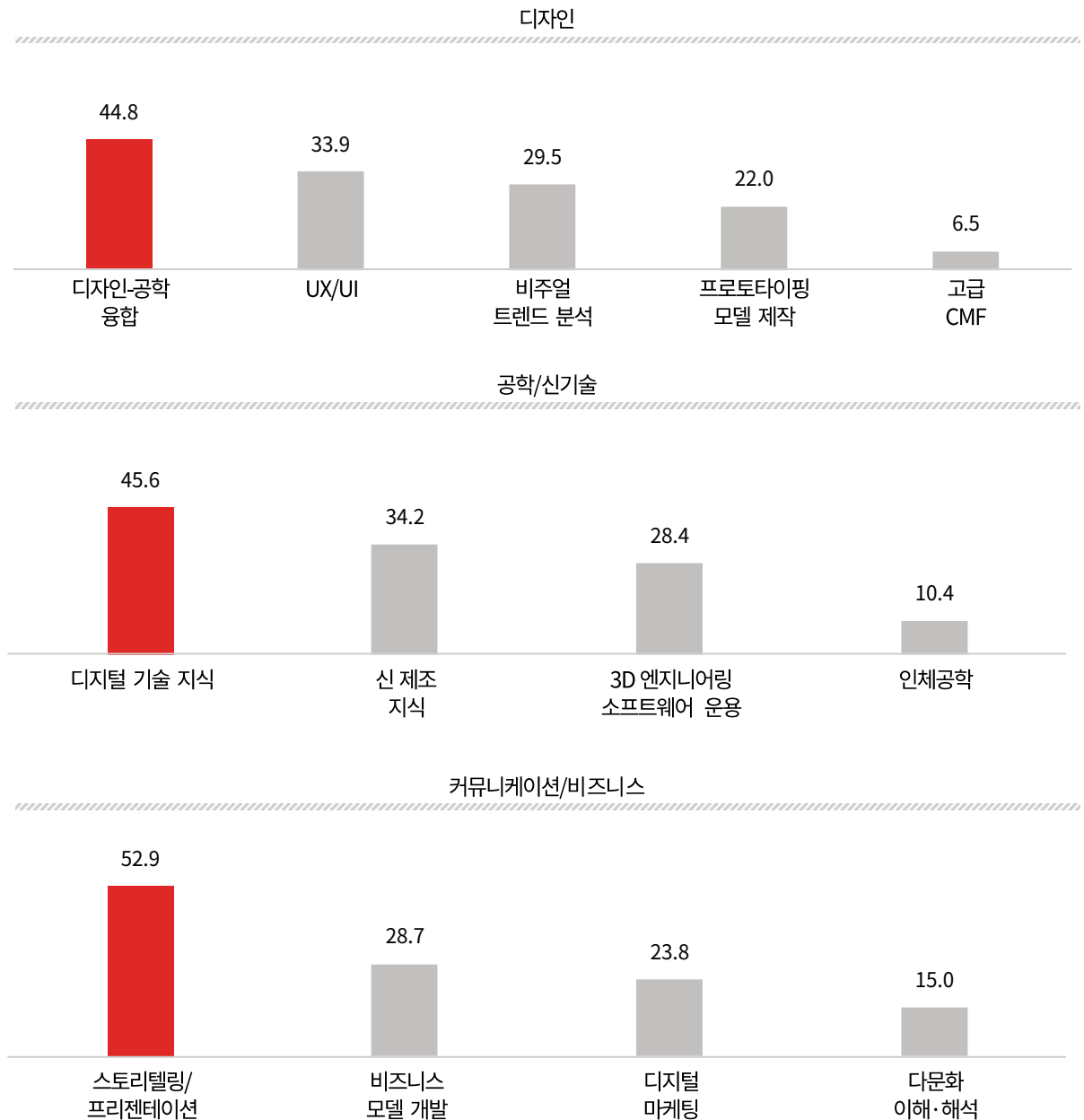


#### 10-4)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으로 [디자인]은 ‘디자인-공학 융합’(44.8%), [공학/신기술]은 ‘디지털 기술 지식’(45.6%),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는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52.9%)이 높게 나타남.

####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단위: %)



- 업종별로 필요한 재교육을 살펴본 결과, ‘디자인-공학 융합’은 인테리어 디자인(74.3%), ‘UX/UI’는 시각 디자인(43.4%), ‘디지털 기술 지식’은 인테리어 디자인(63.5%), 시각 디자인(49.4%),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은 시각 디자인(66.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공학 융합	UX/UI	비주얼 트렌드 분석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고급 CMF
전문디자인업체		44.8	33.9	29.5	22.0	6.5
업종별	제품 디자인	45.9	42.6	18.8	28.9	18.8
	시각 디자인	37.9	43.4	30.6	17.8	0.0
	인테리어 디자인	74.3	0.0	37.9	25.7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66.0	0.0	0.0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기술 지식	신 제조 지식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인체공학
전문디자인업체		45.6	34.2	28.4	10.4
업종별	제품 디자인	33.9	58.4	42.0	23.7
	시각 디자인	49.4	15.1	21.9	5.0
	인테리어 디자인	63.5	25.7	25.7	0.0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34.0	66.0	0.0	0.0

## » 업종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디지털 마케팅	다문화 이해·해석
전문디자인업체		52.9	28.7	23.8	15.0
업종별	제품 디자인	38.8	35.5	39.6	15.0
	시각 디자인	66.2	23.7	19.2	12.8
	인테리어 디자인	62.1	36.5	0.0	25.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0.0	0.0	34.0	0.0

- 권역별로는 [디자인]의 ‘디자인-공학 융합’은 인천(100.0%), [공학/신기술]의 ‘디지털 기술 지식’은 인천과 대전/충청(각각 100.0%),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의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 역시 인천과 대전/충청(각각 10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규모별로 살펴보면, ‘디자인-공학 융합’은 10~14인(77.2%)에서, ‘디지털 기술 지식’은 15인 이상(71.8%)인에서 높고, ‘스토리텔링/프레젠테이션’은 2~4인(56.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디자인 스킬/툴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공학 융합	UX/UI	비주얼 트렌드 분석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고급 CMF
전문디자인업체		44.8	33.9	29.5	22.0	6.5
권역별	서울	64.4	18.9	11.0	23.1	6.6
	부산/울산/경남	36.7	36.2	27.0	0.0	0.0
	대구/경북	27.8	15.7	0.0	0.0	0.0
	인천	100.0	100.0	100.0	100.0	100.0
	경기	23.7	0.0	76.3	0.0	0.0
	광주/전라	28.3	64.5	35.2	39.1	0.0
	대전/충청	35.6	0.0	35.6	0.0	0.0
	강원/제주	-	-	-	-	-
규모별	1인	-	-	-	-	-
	2~4인	34.8	40.2	27.7	26.8	0.0
	5~9인	46.7	22.7	34.7	27.9	17.5
	10~14인	77.2	44.9	20.1	0.0	15.2
	15인 이상	62.0	19.8	33.8	0.0	0.0
매출 구성	디자인매출 50% ↑	48.2	36.5	31.8	23.7	7.0
	기타매출 50% ↑	0.0	0.0	0.0	0.0	0.0
	반반	-	-	-	-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역량 향상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지털 기술 지식	신 제조 지식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인체공학
전문디자인업체		45.6	34.2	28.4	10.4
권역별	서울	59.6	21.8	29.3	11.5
	부산/울산/경남	36.2	27.1	9.7	0.0
	대구/경북	15.7	12.1	0.0	0.0
	인천	100.0	100.0	100.0	100.0
	경기	0.0	0.0	0.0	23.7
	광주/전라	42.1	68.7	45.1	0.0
	대전/충청	100.0	0.0	35.6	0.0
	강원/제주	-	-	-	-
규모별	1인	-	-	-	-
	2~4인	45.5	49.0	26.8	0.0
	5~9인	41.5	17.5	33.1	36.4
	10~14인	34.5	24.8	27.6	0.0
	15인 이상	71.8	11.4	23.7	0.0
	디자인매출 50% ↑	49.1	35.3	29.0	11.2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0.0	20.9	20.9	0.0
	반반	-	-	-	-

» 권역별/규모별/외주여부별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시 디자이너 필요 역량  
: 기타 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디지털 마케팅	다문화 이해·해석
전문디자인업체		52.9	28.7	23.8	15.0
권역별	서울	43.3	29.5	12.4	12.3
	부산/울산/경남	68.1	31.9	0.0	0.0
	대구/경북	87.9	0.0	15.7	12.1
	인천	100.0	0.0	100.0	0.0
	경기	23.7	0.0	0.0	0.0
	광주/전라	42.1	45.1	55.9	39.1
	대전/충청	100.0	64.4	0.0	0.0
	강원/제주	-	-	-	-
규모별	1인	-	-	-	-
	2~4인	56.2	34.8	26.8	26.8
	5~9인	54.5	13.0	24.0	0.0
	10~14인	52.4	33.1	12.4	9.6
	15인 이상	28.2	38.0	18.2	0.0
	디자인매출 50% ↑	50.8	29.3	25.6	16.2
매출 구성	기타매출 50% ↑	79.1	20.9	0.0	0.0
	반반	-	-	-	-



part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 **제 3 장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 03.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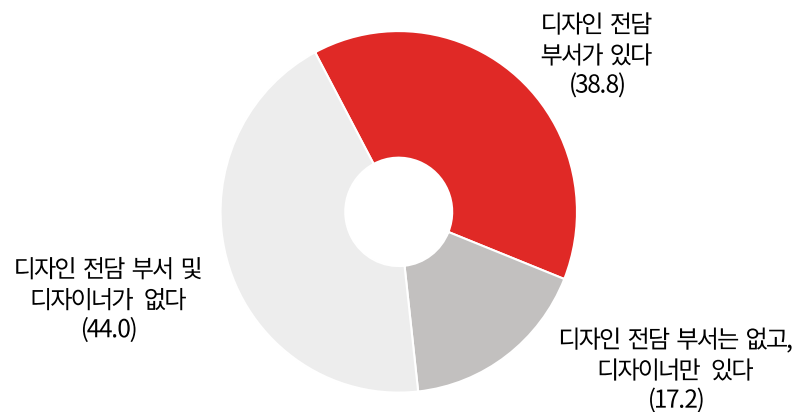
#### 1. 디자인 활용 현황

##### 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기관은 38.8%로 나타남.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는 17.2%,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는 44.0%로 나타남.

#### »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 정부 기관을 구분하여 분석해보면, 지자체 중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인 반면, 중앙부처는 12.5%로 낮은 수준을 보임.

####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38.8	17.2	44.0
구분	지자체	42.3	15.8	41.9
	중앙부처	12.5	28.1	59.4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시/도에서 72.2%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시/군/구에서는 39.9%로 낮게 나타남.
- 예산별로는 지자체 예산이 많을수록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는 비율이 높음. 지자체 예산이 5천억 원 이상인 기관은 68.9%가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고 응답한 반면, 지자체 예산이 3천억 원 미만인 기관은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의 응답이 13.3%로 낮게 나타남.

## » 업종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여부

(단위: %)

구분		디자인 전담 부서가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지자체		38.8	17.2	44.0
지자체	시/도	72.2	11.1	16.7
	시/군/구	39.9	16.1	43.9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16.7	83.3
	3천억 원 미만	13.3	13.3	73.3
	5천억 원 미만	25.7	18.8	55.4
	5천억 원 이상	68.9	13.6	17.5

## 2) 직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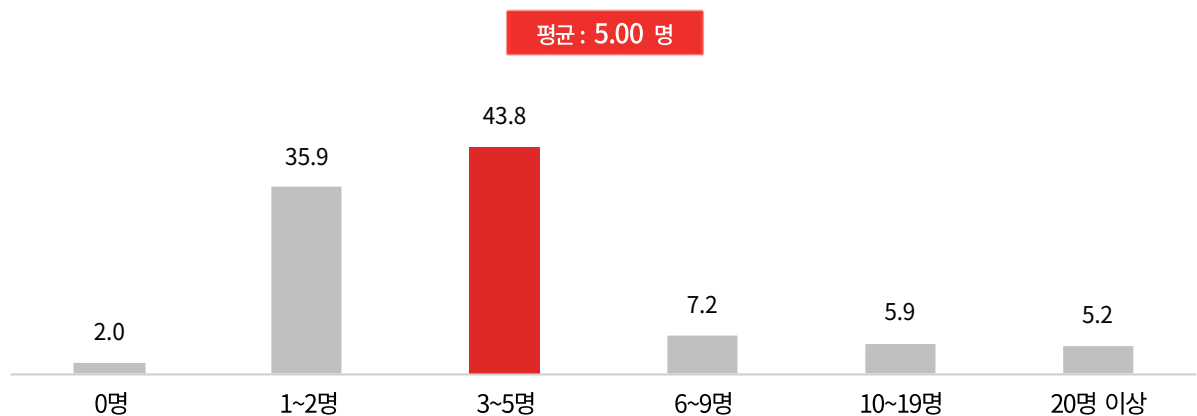
### 2-1)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의 총 직원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5.00명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는 '1~2명'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6~9명'(7.2%), '10~19명'(5.9%), '20명 이상'(5.2%), '0명'(2.0%)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종사자 수는 지자체에서 '3~5명'이 46.4%로 가장 높은 반면, 중앙부처에서는 '1~2명'이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구분		0명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2.0	35.9	43.8	7.2	5.9	5.2	5.00
구분	지자체	2.1	32.9	46.4	7.1	5.7	5.7	5.20
	중앙부처	0.0	69.2	15.4	7.7	7.7	0.0	2.85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15.33명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3.98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예산별로는, 5천억 원 이상이 6.3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천억 원 미만(5.75명), 5천억 원 미만(평균 2.71명), 2천억 원 미만 (평균 1.00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총 직원 수**

(단위: %)

구분		0명	1~2명	3~5명	6~9명	10~19명	20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2.0	35.9	43.8	7.2	5.9	5.2	5.00
지자체	시/도	0.0	6.7	26.7	20.0	13.3	33.3	15.33
	시/군/구	2.4	36.0	48.8	5.6	4.8	2.4	3.98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100.0	0.0	0.0	0.0	0.0	1.00
	3천억 원 미만	12.5	25.0	37.5	0.0	12.5	12.5	5.75
	5천억 원 미만	2.2	46.7	44.4	6.7	0.0	0.0	2.71
	5천억 원 이상	1.2	25.9	49.4	8.2	8.2	7.1	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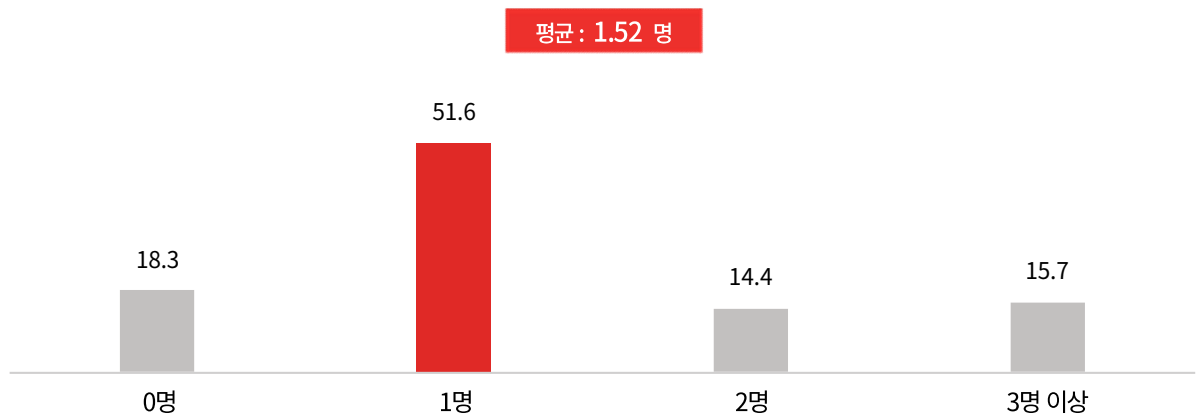
## 2-2)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 내 디자이너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평균 1.52명으로 나타남.

세부 항목별로는 '1명'이 51.6%로 가장 높고, 다음은 '0명'(18.3%), '3명 이상'(15.7%), '2명'(14.4%)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내 디자이너 수는 지자체에서는 평균 1.54명, 중앙부처는 평균 1.38명으로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1.61명으로 나타났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는 평균 1.32명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18.3	51.6	14.4	15.7	1.52
구분	지자체	19.3	50.0	14.3	16.4	1.54
	중앙부처	7.7	69.2	15.4	7.7	1.38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6.4	37.7	16.0	19.8	1.61
	디자이너만 있음	0.0	83.0	10.6	6.4	1.32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디자이너 수가 3.73명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1.27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예산별로 살펴보면, 5천억 원 이상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천억 원 미만 (평균 1.25명), 5천억 원 미만(평균 1.04명), 2천억 원 미만(평균 1.00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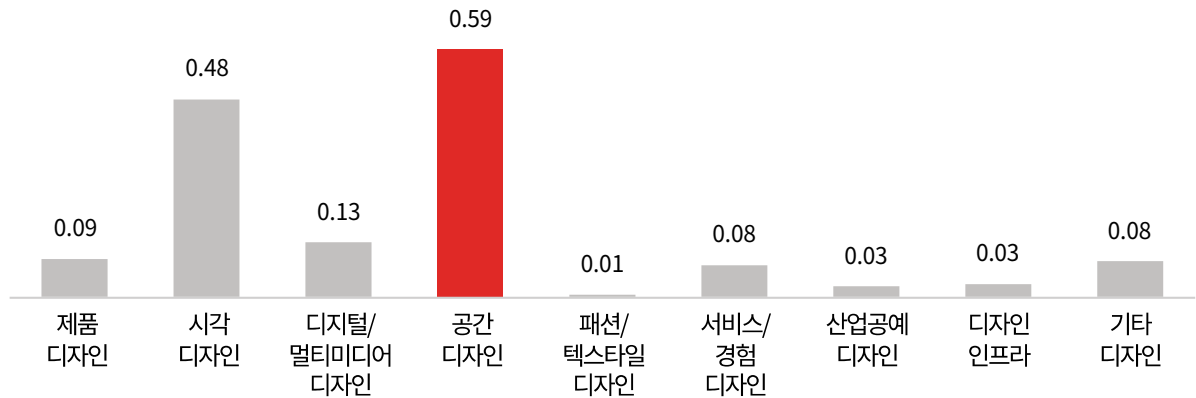
구분		0명	1명	2명	3명 이상	평균(명)
지자체		18.3	51.6	14.4	15.7	1.52
지자체	시/도	20.0	13.3	13.3	53.3	3.73
	시/군/구	19.2	54.4	14.4	12.0	1.27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100.0	0.0	0.0	1.00
	3천억 원 미만	25.0	62.5	0.0	12.5	1.25
	5천억 원 미만	17.8	68.9	6.7	6.7	1.04
	5천억 원 이상	20.0	38.8	20.0	21.2	1.78

## 2-2-1)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0.5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 디자인’(0.48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0.1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 구분별 디자이너 수는 중앙부처는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영역에서 1.00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였으며, 지자체는 ‘공간 디자인’ 분야에 0.64명으로 가장 많은 디자이너 수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서는,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이 ‘공간 디자인’(0.70명)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디자이너를 보임.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영역별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0.09	0.48	0.13	0.59	0.01	0.08	0.03	0.03	0.08
구분	지자체	0.10	0.51	0.05	0.64	0.01	0.08	0.03	0.04	0.09
	중앙부처	0.00	0.15	1.00	0.15	0.00	0.08	0.00	0.00	0.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0.10	0.47	0.08	0.70	0.01	0.08	0.03	0.05	0.08
	디자이너만 있음	0.06	0.49	0.23	0.36	0.00	0.06	0.02	0.00	0.09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는 ‘시각 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1.53명, 시/군/구는 ‘공간 디자인’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0.55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예산에서 ‘공간 디자인’ 분야에 가장 많은 수의 디자이너를 보인 가운데, 2천억 원 미만은 ‘시각 디자인’(1.00명) 분야의 디자이너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디지털/멀티 미디어 디자인	공간 디자인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경험 디자인	산업 공예 디자인	디자인 인프라	기타 디자인
<b>지자체</b>		<b>0.09</b>	<b>0.48</b>	<b>0.13</b>	<b>0.59</b>	<b>0.01</b>	<b>0.08</b>	<b>0.03</b>	<b>0.03</b>	<b>0.08</b>
<b>지자체</b>	시/도	0.33	1.53	0.13	1.33	0.00	0.27	0.13	0.00	0.00
	시/군/구	0.07	0.38	0.04	0.55	0.01	0.06	0.02	0.04	0.10
<b>지자체 예산</b>	2천억 원 미만	0.00	1.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천억 원 미만	0.00	0.13	0.13	0.88	0.00	0.00	0.00	0.00	0.13
	5천억 원 미만	0.02	0.36	0.07	0.40	0.00	0.09	0.02	0.00	0.09
	5천억 원 이상	0.15	0.60	0.04	0.74	0.01	0.05	0.04	0.06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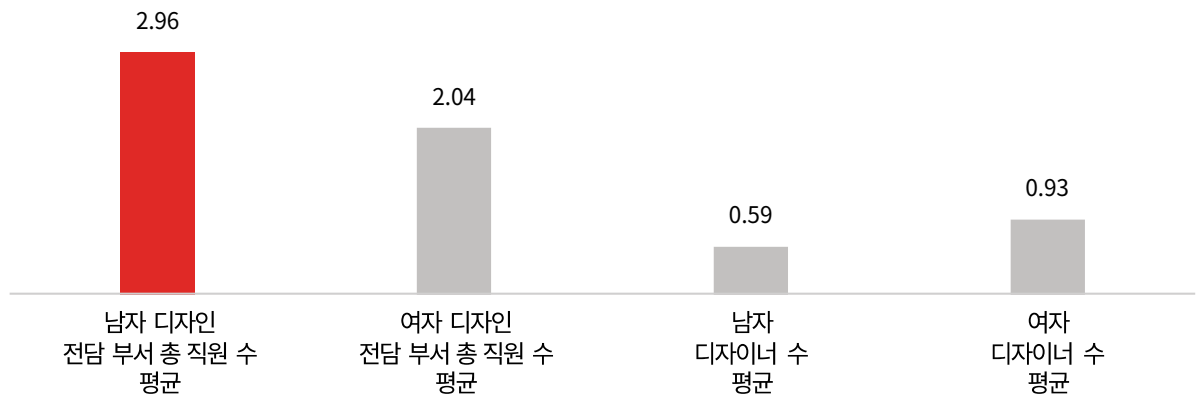


## 2-2-2)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디자인 전담부서의 총 직원 수와 디자이너 수를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디자인 전담부서 내 ‘남자 총 직원 수’는 2.96명으로 ‘여자 총 직원 수’(2.04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디자이너 수는 ‘여자’가 0.93명, ‘남자’가 0.59명으로 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



- 지자체의 경우, 디자인 전담부서 ‘남자 직원 수’는 3.11명, ‘여자 직원 수’는 2.09명으로 남자직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앙부처는 ‘남자 직원 수’(1.31명)보다 ‘여자 직원 수’(1.54명)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남자 디자이너 수’는 0.61명(지자체)과 0.38명(중앙부처), ‘여자 디자이너 수’는 0.92명(지자체)과 1.00명(중앙부처)으로 여자 디자이너 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구분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여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중앙부처 및 지자체		2.96	2.04	0.59	0.93
구분	지자체	3.11	2.09	0.61	0.92
	중앙부처	1.31	1.54	0.38	1.00

- 지자체 구분별로는, 시/도 단위의 평균 디자인 전담부서 직원 수가 ‘남자’ 9.27명, ‘여자’ 6.07명으로, 시/군/구 단위(‘남자’ 2.38명, ‘여자’ 1.61명)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와 관계없이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디자이너 수는 여자가 남자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예산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는 남자는 3천억 원 미만(4.25명), 여자는 5천억 원 이상(2.66명)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디자이너 수의 경우에도 남자는 3천억 원 미만(1.00명), 여자는 5천억 원 이상(1.11명)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성별 종사자 및 디자이너 수**

(단위: 명)

구분		남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여자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남자 디자이너 수	여자 디자이너 수
<b>지자체</b>		<b>2.96</b>	<b>2.04</b>	<b>0.59</b>	<b>0.93</b>
<b>지자체</b>	시/도	9.27	6.07	1.67	2.07
	시/군/구	2.38	1.61	0.49	0.78
<b>지자체 예산</b>	2천억 원 미만	0.00	1.00	0.00	1.00
	3천억 원 미만	4.25	1.50	1.00	0.25
	5천억 원 미만	1.67	1.04	0.36	0.69
	5천억 원 이상	3.67	2.66	0.67	1.11

### 3)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 3-1)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보유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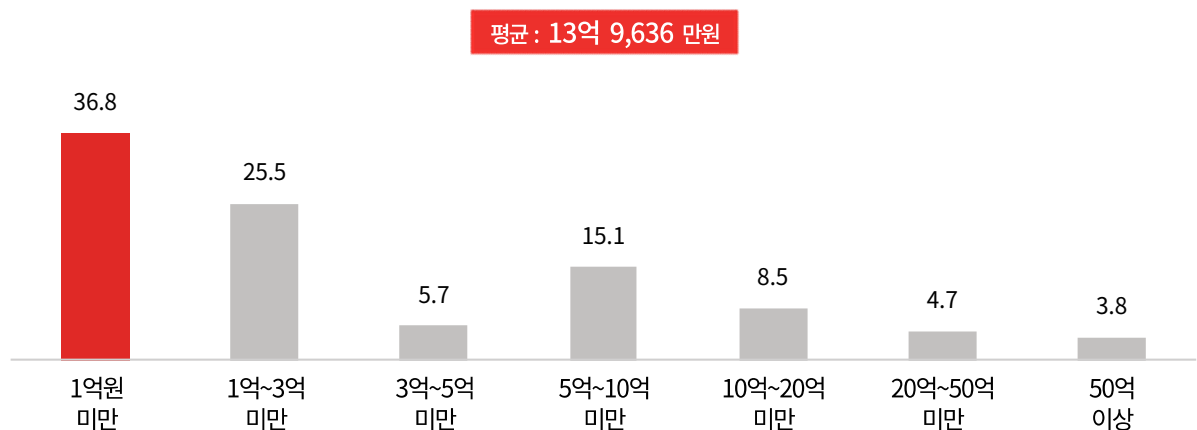
##### 3-1-1) 디자인 용역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13억 9,636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36.8%로 가장 높고, 다음은 '1억~3억 미만'(25.5%), '5억~10억 미만'(15.1%), '10억~20억 미만'(8.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은 평균 156억 2,075만원으로 지자체(8억 3,854만원) 대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예산 비율이 37.3%로 가장 높은 반면, 중앙부처의 경우 '1억~3억 미만'이 50.0%의 비율을 보임.

#### » 구분별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6.8	25.5	5.7	15.1	8.5	4.7	3.8	1,396.36
구분	지자체	37.3	24.5	5.9	15.7	8.8	4.9	2.9	838.54
	중앙부처	25.0	50.0	0.0	0.0	0.0	0.0	25.0	15,620.75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40억 6,054만원으로 시/군/구(3억 6,791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예산별로는 3천억 원 미만은 1억 3,625만원, 5천억 원 미만은 3억 5,038만원, 5천억 원 이상은 10억 17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50억 이상	평균 (백만 원)
지자체		36.8	25.5	5.7	15.1	8.5	4.7	3.8	1,396.36
지자체	시/도	15.4	23.1	0.0	7.7	15.4	15.4	23.1	4,060.54
	시/군/구	40.4	24.7	6.7	16.9	7.9	3.4	0.0	367.9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	-	-	-	-	-	-	-
	3천억 원 미만	75.0	0.0	25.0	0.0	0.0	0.0	0.0	136.25
	5천억 원 미만	42.3	26.9	7.7	11.5	11.5	0.0	0.0	350.38
	5천억 원 이상	33.8	25.4	4.2	18.3	8.5	5.6	4.2	1,00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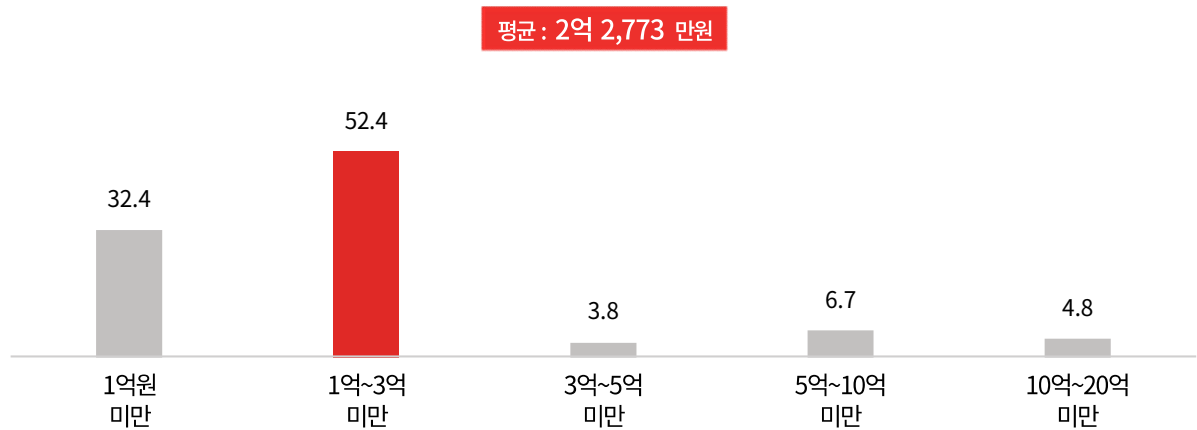
### 3-1-2)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평균 2억 2,773만원임.

인건비를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5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억 원 미만'(32.4%), '5억~10억 미만'(6.7%), '10억~20억 미만'(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 정부기관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평균 2억 2,844만원으로 중앙부처(2억 1,000만원)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3억 미만'의 비율이 5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앙부처의 경우 '1억 원 미만'이 50.0%의 비율을 보임.

#### » 구분별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2.4	52.4	3.8	6.7	4.8	227.73
구분	지자체	31.7	53.5	4.0	5.9	5.0	228.44
	중앙부처	50.0	25.0	0.0	25.0	0.0	210.00

- 지자체 구분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는 시/도에서 평균 7억 3,075만원으로 시/군/구(1억 6,071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3천억 원 미만은 2억 1,225만원, 5천억 원 미만은 1억 2,431만원, 5천억 원 이상은 2억 6,330만원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지자체		32.4	52.4	3.8	6.7	4.8	227.73
지자체	시/도	8.3	16.7	16.7	25.0	33.3	730.75
	시/군/구	34.8	58.4	2.2	3.4	1.1	160.7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	-	-	-	-	-
	3천억 원 미만	25.0	50.0	0.0	25.0	0.0	212.25
	5천억 원 미만	30.8	69.2	0.0	0.0	0.0	124.31
	5천억 원 이상	32.9	48.6	5.7	5.7	7.1	26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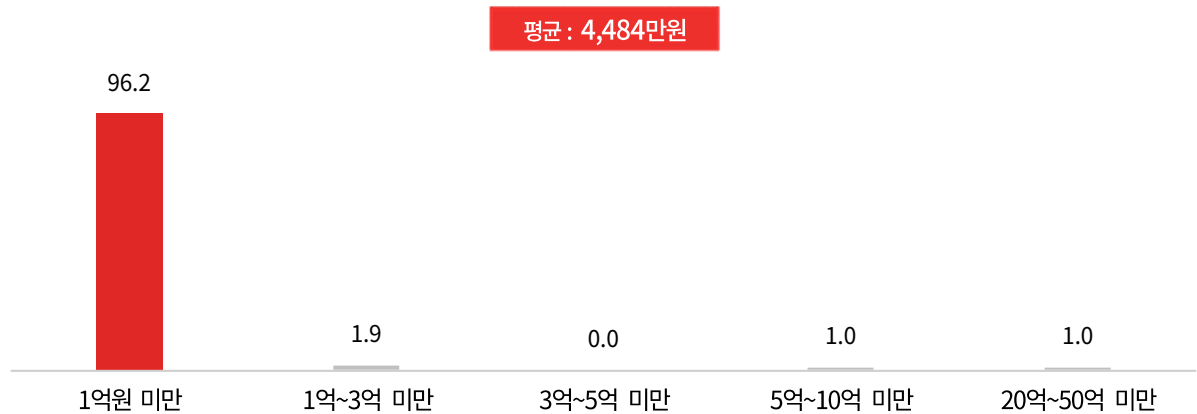
### 3-1-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평균은 4,484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96.2%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1.9%), '5억~10억 미만'(1.0%), '20억~50억 미만'(1.0%)의 순으로 나타남.

#### »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 정부기관별 디자인 전담부서 내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지자체에서 4,662만원으로 중앙부처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96.0%로 가장 높았고, 중앙부처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100.0%를 차지해 모든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나타남.

#### » 구분별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6.2	1.9	0.0	1.0	1.0	44.84
구분	지자체	96.0	2.0	0.0	1.0	1.0	46.62
	중앙부처	100.0	0.0	0.0	0.0	0.0	0.00

- 지자체 구분별 고용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 예산은 시/도에서 평균 2억 7,675만원으로 시/군/구(1,559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3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0원, 5천억 원 미만은 1,582만원, 5천억 원 이상은 6,139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6.2	1.9	0.0	1.0	1.0	44.84
지자체	시/도	91.7	0.0	0.0	0.0	8.3	276.75
	시/군/구	96.6	2.2	0.0	1.1	0.0	15.59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	-	-	-	-	-
	3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0.0	0.00
	5천억 원 미만	92.3	7.7	0.0	0.0	0.0	15.82
	5천억 원 이상	97.1	0.0	0.0	1.4	1.4	6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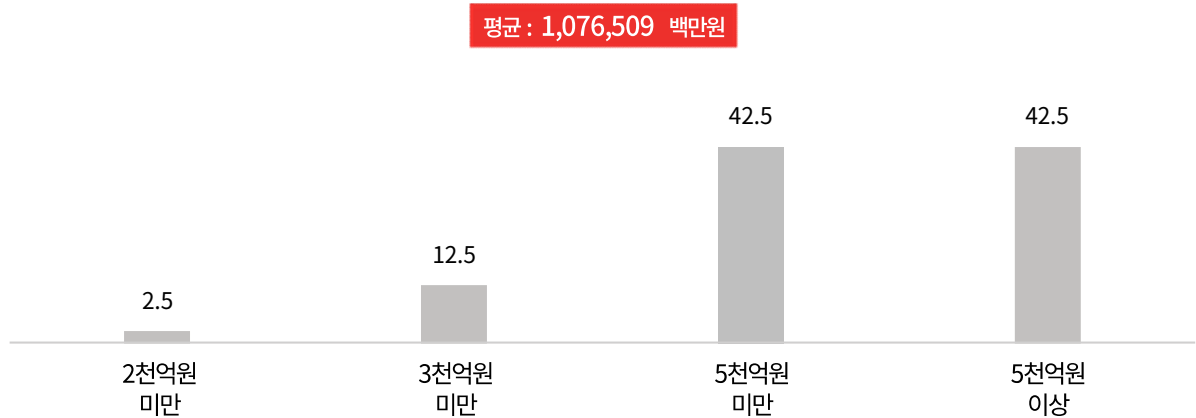
### 3-1-4) 지방자치단체 예산

- 2017년 지자체 예산은 평균 1조 765억 원으로 나타남.

세부항목별로는 '5천억 원 미만'(42.5%), '5천억 원 이상'(42.5%)이 높고, 이어 '3천억 원 미만'(12.5%), '2천억 원 미만'(2.5%) 순임.

#### » 2017년 지자체 예산

(단위: %)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지자체 예산 평균이 1조 7,579억 원으로 가장 높음.

#### » 전담부서별 2017년 지자체 예산

(단위: %)

구분		2천억 원 미만	3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평균 (백만 원)
지자체		2.5	12.5	42.5	42.5	1,076,509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0.0	4.0	25.7	70.3	1,757,885
	디자이너만 있음	2.6	10.5	50.0	36.8	757,962
	없음	5.0	21.8	56.4	16.8	514,983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디자인 전담부서 예산의 평균은 7조 7,25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예산 평균은 5,696억 원으로 나타남.

#### » 전담부서별 2017년 지자체 예산

(단위: %)

구분		2천억 원 미만	3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미만	5천억 원 이상	평균 (백만 원)
지자체		2.5	12.5	42.5	42.5	1,076,509
지자체	시/도	0.0	0.0	0.0	100.0	7,725,557
	시/군/구	2.7	13.5	45.7	38.1	569,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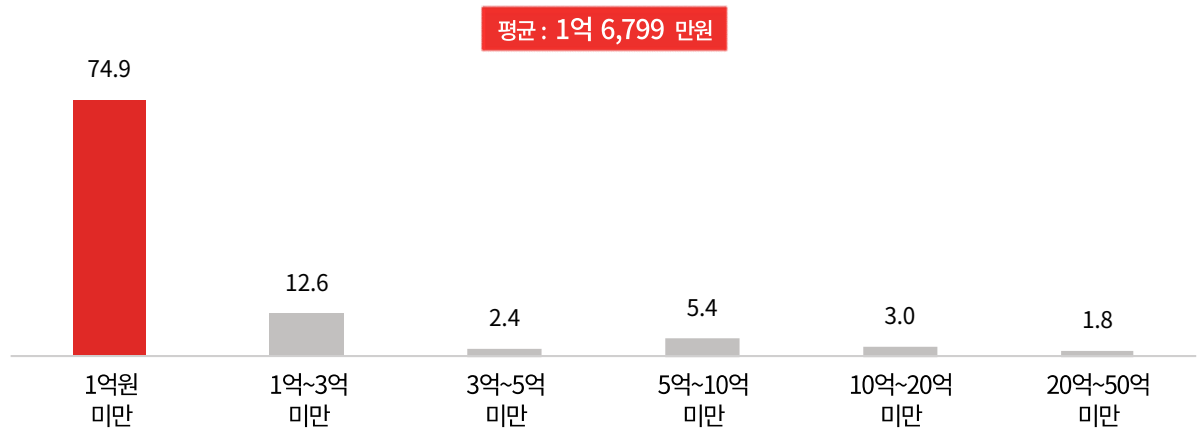
### 3-2) 2017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 3-2-1) 디자인 용역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사업비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1억 6,799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7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억~3억'(12.6%), '5억~10억 미만'(5.4%), '10억~20억 미만'(3.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디자인 용역비는 평균 2억 1,750만원으로 지자체(1억 5,802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74.9	12.6	2.4	5.4	3.0	1.8	167.99
구분	지자체	74.1	12.2	2.9	5.8	3.6	1.4	158.02
	중앙부처	78.6	14.3	0.0	3.6	0.0	3.6	217.50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군/구의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디자인 용역비(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는 평균 1억 6,235만원으로 시/도(4,200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자체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1억 6,983만원, 3천억 원 미만은 2,938만원, 5천억 원 미만은 9,985만원, 5천억 원 이상은 3억 9,666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용역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3억~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2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 (백만 원)
지자체		74.9	12.6	2.4	5.4	3.0	1.8	167.99
지자체	시/도	80.0	20.0	0.0	0.0	0.0	0.0	42.00
	시/군/구	73.9	11.9	3.0	6.0	3.7	1.5	162.35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83.3	0.0	0.0	0.0	16.7	0.0	169.83
	3천억 원 미만	92.3	3.8	3.8	0.0	0.0	0.0	29.38
	5천억 원 미만	78.7	9.3	4.0	5.3	2.7	0.0	99.85
	5천억 원 이상	46.9	28.1	0.0	12.5	6.3	6.3	396.66

### 3-2-2)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사업비 예산 중 인건비는 평균 1억 2,177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89.4%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6.4%)의 비율을 보임.

####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사업비 예산 - 인건비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인건비 예산은 평균 1억 4,334만원으로 중앙부처(3,067만원) 대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86.8%, 100%로 매우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89.4	6.4	2.1	2.1	121.77
구분	지자체	86.8	7.9	2.6	2.6	143.34
	중앙부처	100.0	0.0	0.0	0.0	30.67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의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의 인건비 예산은 1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시/군/구의 인건비 예산은 1억 4,336만원으로 나타남.
- 지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2,700만원, 3천억 원 미만은 7,125만원, 5천억 원 미만은 7,116만원, 5천억 원 이상은 2억 7,021만원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디자인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미만	5억~10억 미만	20억~50억 미만	평균(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89.4	6.4	2.1	2.1	121.77
지자체	시/도	50.0	50.0	0.0	0.0	143.00
	시/군/구	88.9	5.6	2.8	2.8	143.3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27.00
	3천억 원 미만	75.0	25.0	0.0	0.0	71.25
	5천억 원 미만	89.5	5.3	5.3	0.0	71.16
	5천억 원 이상	85.7	7.1	0.0	7.1	27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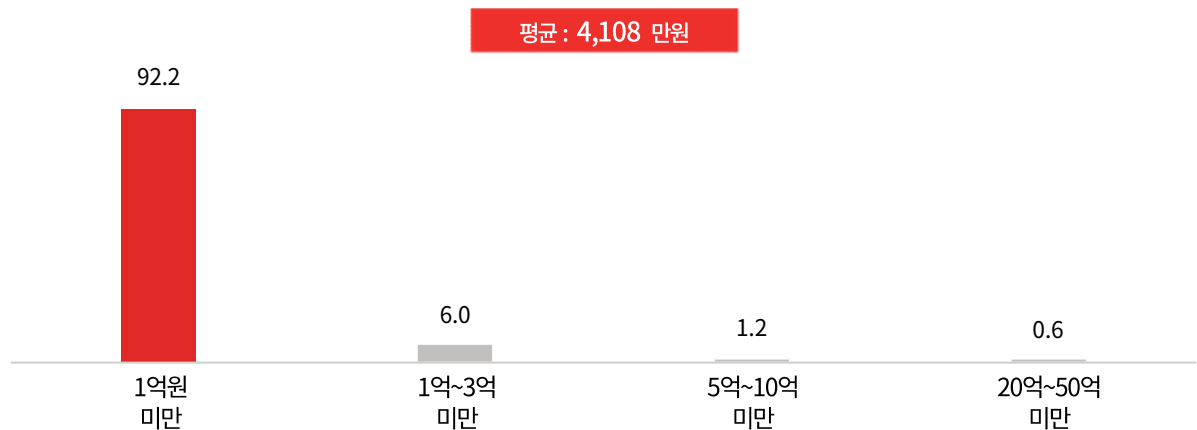
### 3-2-3)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기관의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는 평균 4,108만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92.2%로 압도적이었고, 다음은 '1억~3억 미만'(6.0%), '5억~10억 미만'(1.2%)의 순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는 평균 1억 5,193만원으로 지자체(1,876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각각 92.1%와 92.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만	5억~10억 만	20억~50억 미만	평균(백만 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92.2	6.0	1.2	0.6	41.08
구분	지자체	92.1	6.5	1.4	0.0	18.76
	중앙부처	92.9	3.6	0.0	3.6	151.93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군/구의 2017년 디자인 사업비 예산 중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평균은 1억 5,193만원으로 시/도(1,876만원)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자체 예산별로는,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1억 원 미만'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가운데, 2천억 원 미만의 평균은 0만원, 3천억 원 미만은 1,946만원, 5천억 원 미만은 0만원, 5천억 원 이상은 819만원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전담부서 미보유 기관 디자인 사업비 예산 - 고용되지 않은 인건비

(단위: %)

구분		1억 원 미만	1억~3억 만	5억~10억 만	20억~50억 미만	평균(백만 원)
지자체		92.2	6.0	1.2	0.6	41.08
지자체	시/도	92.1	6.5	1.4	0.0	18.76
	시/군/구	92.9	3.6	0.0	3.6	151.93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0.00
	3천억 원 미만	91.8	6.7	1.5	0.0	19.46
	5천억 원 미만	100.0	0.0	0.0	0.0	0.00
	5천억 원 이상	92.3	7.7	0.0	0.0	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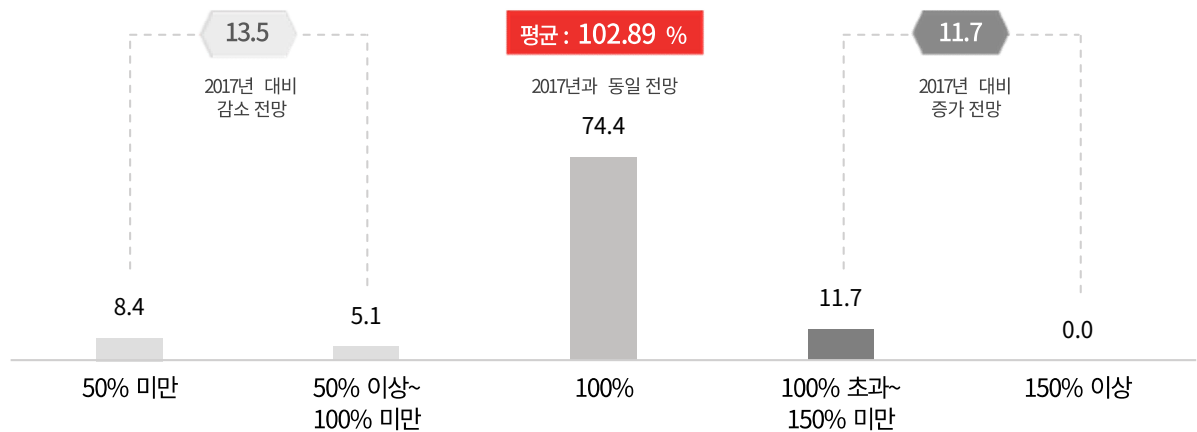
#### 4) 2018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평균 102.89% 수준으로 2017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74.4%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11.7%,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13.5%로 나타남.

#### » 2018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 모름/무응답 : 0.4%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의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은 102.69%, 중앙부처는 104.45%로 증가 전망을 예상함.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에서는 114.59%,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에서는 108.45%로 증가를 예상하는 반면, 전담부서와 디자이너 모두 없는 정부기관에서는 90.49%로 감소 전망치를 보임.

#### » 구분별/전담부서별 2018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8.4	5.1	74.4	11.7	-	102.89
구분	지자체	9.1	5.4	73.0	12.0	-	102.69
	중앙부처	3.1	3.1	84.4	9.4	-	104.45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8	6.6	70.8	17.9	-	114.59
	디자이너만 있음	4.3	8.5	70.2	17.0	-	108.45
	없음	14.2	2.5	79.2	4.2	-	90.49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군/구는 103.45%로 2018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의 증가를 전망한 반면, 시/도(93.33%)는 예산집행금액의 감소를 전망함.

지자체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133.33%)과 5천억 원 이상(106.65%)은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3천억 원 미만(95.00%), 5천억 원 미만(99.18%)에서는 감소를 전망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7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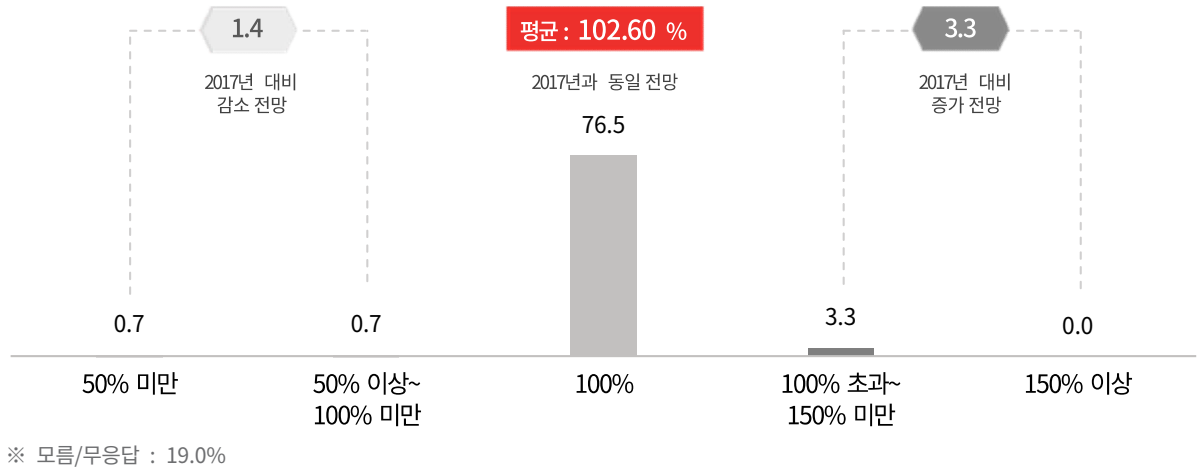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지자체		8.4	5.1	74.4	11.7	-	102.89
지자체	시/도	11.1	0.0	88.9	0.0	-	93.33
	시/군/구	9.0	5.8	71.7	13.0	-	103.45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6.7	0.0	66.7	16.7	-	133.33
	3천억 원 미만	10.0	0.0	83.3	6.7	-	95.00
	5천억 원 미만	10.9	5.0	71.3	12.9	-	99.18
	5천억 원 이상	6.8	7.8	71.8	12.6	-	106.65

## 5)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 2017년 대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은 평균 102.60% 수준으로 2017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범주별로 살펴보면, ‘2017년과 동일 할 것이다’는 전망(100%)이 76.5%로 가장 높은 가운데, ‘2017년 대비  
증가 전망’(100% 초과)은 3.3%, ‘2017년 대비 감소 전망’(100% 미만)은 1.4%로 나타남.

### »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해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2017년 디자이너 고용의 증가를 전망한 가운데, 중앙부처(106.67%)의 전망치가 지자체(102.17%)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의 유무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102.44%)와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102.89%) 모두 증가를  
전망한 것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100% 미만	100%	100% 초과~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0.7	0.7	76.5	3.3	-	102.60
구분	지자체	0.7	0.0	76.4	2.9	-	102.17
	중앙부처	0.0	7.7	76.9	7.7	-	106.67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0.0	0.9	69.8	2.8	-	102.44
	디자이너만 있음	2.1	0.0	91.5	4.3	-	102.89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는 105.45%, 시/군/구는 101.81%로 2018년에 고용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지자체 예산별 결과, 2천억 원 미만과 3천억 원 미만(각각 100%)은 유지, 5천억 원 미만(100.89%), 5천억 원 이상(103.13%)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2018년 디자이너 고용 전망

(단위: %)

구분		5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100%	100% 초과~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지자체		0.7	0.7	76.5	3.3	-	102.60
지자체	시/도	0.0	0.0	66.7	6.7	-	105.45
	시/군/구	0.8	0.0	77.6	2.4	-	101.8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100.0	0.0	-	100.00
	3천억 원 미만	0.0	0.0	75.0	0.0	-	100.00
	5천억 원 미만	2.2	0.0	77.8	2.2	-	100.89
	5천억 원 이상	0.0	0.0	75.3	3.5	-	10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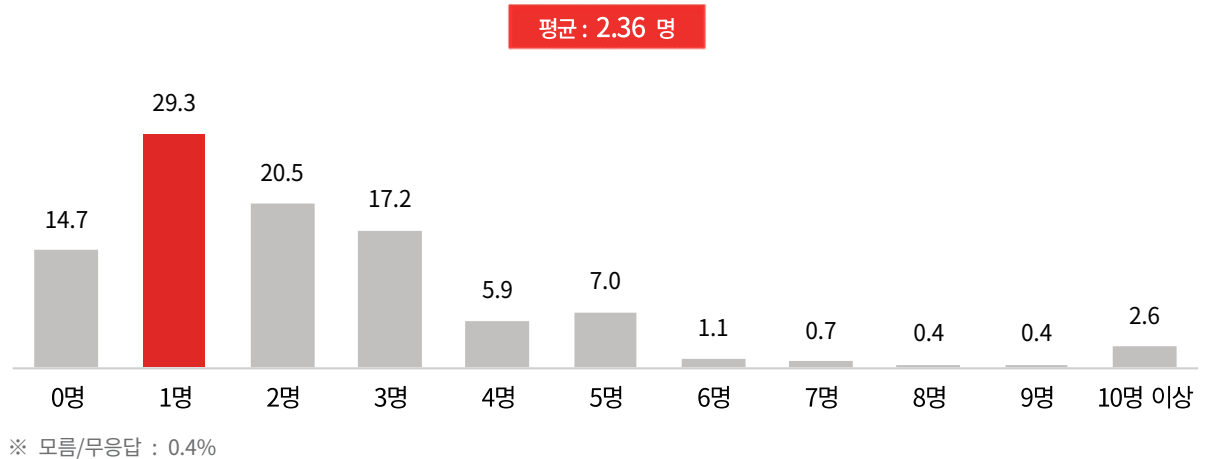
## 2. 디자인 인력

### 1) 구인 디자이너 수

- 구인 디자이너 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2.36명으로 나타남. 범주별로는 ‘1명’(29.3%), ‘2명’(20.5%), ‘3명’(17.2%), ‘0명’(14.7%), ‘5명’(7.0%), ‘4명’(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구인 디자인 담당 인력

(단위: %)



- 정부기관 구분별 적정 디자이너 수는 지자체의 경우 평균 2.44명으로 중앙부처(평균 1.81명)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평균 3.42명으로 적정 인력 수치가 가장 많았으며,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는 평균 2.04명,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는 평균 1.55명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	평균 (명)
중앙부처 및 지자체		14.7	29.3	20.5	17.2	5.9	7.0	1.1	0.7	0.4	0.4	2.6	2.36
구분	지자체	12.9	28.2	21.2	18.7	6.2	7.9	0.8	0.8	0.4	0.4	2.1	2.44
	중앙부처	28.1	37.5	15.6	6.3	3.1	0.0	3.1	0.0	0.0	0.0	6.3	1.81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6.6	18.9	21.7	21.7	6.6	14.2	2.8	0.9	0.9	0.9	4.7	3.42
	디자이너만 있음	4.3	46.8	17.0	14.9	10.6	4.3	0.0	2.1	0.0	0.0	0.0	2.04
	없음	25.8	31.7	20.8	14.2	3.3	1.7	0.0	0.0	0.0	0.0	1.7	1.55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의 적정 디자이너 수는 평균 6.11명으로 시/군/구(평균 2.14명) 대비 높은 수치를 보임.
- 예산별 적정 인력은 5천억 원 이상(평균 3.18명), 2천억 원 미만(평균 2.67명), 5천억 원 미만(평균 1.76명), 3천억 원 미만(평균 1.40명)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구인 디자이너 수

(단위: %)

구분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이상	평균 (명)
지자체		14.7	29.3	20.5	17.2	5.9	7.0	1.1	0.7	0.4	0.4	2.6	2.36
지자체	시/도	5.6	5.6	5.6	16.7	5.6	27.8	5.6	5.6	0.0	5.6	16.7	6.11
	시/군/구	13.5	30.0	22.4	18.8	6.3	6.3	0.4	0.4	0.4	0.0	0.9	2.14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16.7	33.3	33.3	0.0	16.7	0.0	0.0	0.0	0.0	0.0	2.67
	3천억 원 미만	26.7	40.0	10.0	16.7	3.3	3.3	0.0	0.0	0.0	0.0	0.0	1.40
	5천억 원 미만	15.8	34.7	21.8	18.8	3.0	4.0	0.0	0.0	1.0	0.0	0.0	1.76
	5천억 원 이상	6.8	19.4	23.3	18.4	10.7	12.6	1.9	1.9	0.0	1.0	3.9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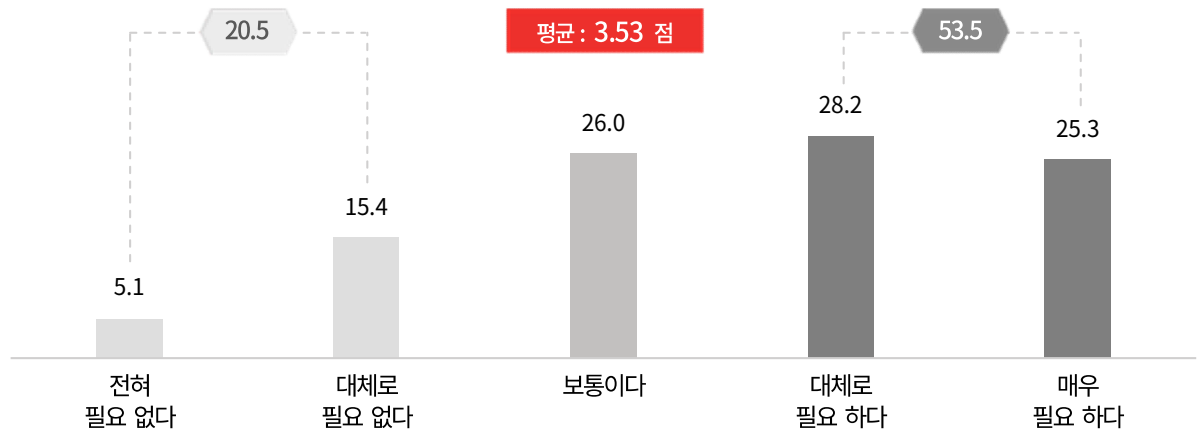
## 2)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53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53.5%(대체로 : 28.2% + 매우 : 25.3%)로 높고, ‘필요 없다’는 20.5%(대체로 : 15.4% + 전혀 : 5.1%)로 나타남. ‘보통이다’는 26.0%의 비율을 보임.

### »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단위: %)



- 구분별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는 지자체에서 평균 3.56점으로 중앙부처(평균 3.28점)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 유무에 따른 채용 필요도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가 평균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평균 3.38점),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평균 3.23점)의 순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평균 (점)
중앙부처 및 지자체		5.1	15.4	20.5	26.0	28.2	25.3	53.5	3.53
구분	지자체	4.6	14.9	19.5	26.1	28.2	26.1	54.4	3.56
	중앙부처	9.4	18.8	28.1	25.0	28.1	18.8	46.9	3.28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8	5.7	9.4	20.8	33.0	36.8	69.8	3.93
	디자이너만 있음	8.5	19.1	27.7	23.4	23.4	25.5	48.9	3.38
	없음	5.0	22.5	27.5	31.7	25.8	15.0	40.8	3.23

- 지자체 규모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는 시/도 단위에서 평균 4.06점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3.52점)에 비해 다소 높은 필요도를 보임.

예산별로는 전반적으로 예산 단위가 커짐에 따라 채용 필요도가 커지는 가운데, 5천억 원 이상의 단위에서는 평균 3.78점으로 높음.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신규 디자인 담당자 채용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평균 (점)
지자체		5.1	15.4	20.5	26.0	28.2	25.3	53.5	3.53
지자체	시/도	5.6	0.0	5.6	16.7	38.9	38.9	77.8	4.06
	시/군/구	4.5	16.1	20.6	26.9	27.4	25.1	52.5	3.52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33.3	33.3	33.3	33.3	0.0	33.3	3.00
	3천억 원 미만	16.7	23.3	40.0	36.7	10.0	13.3	23.3	2.80
	5천억 원 미만	3.0	15.8	18.8	25.7	29.7	25.7	55.4	3.59
	5천억 원 이상	2.9	10.7	13.6	23.3	32.0	31.1	63.1	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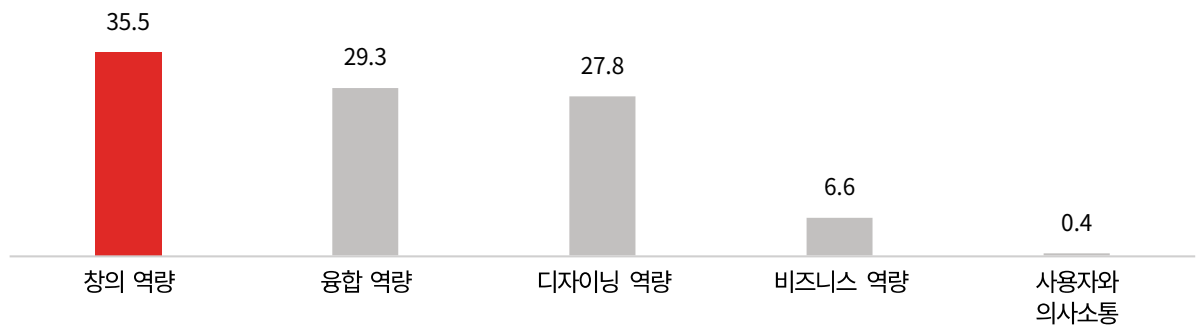
### 3. 디자인 교육

#### 1)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사한 결과, 35.5%가 ‘창의 역량’이라는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융합역량’(29.3%), ‘디자인 역량’(27.8%), ‘비즈니스 역량’(6.6%)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임.

#### »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 모름/무응답 : 0.4%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창의 역량’(34.4%)을 가장 필요 역량으로 뽑은 반면, 중앙부처는 ‘디자인 역량’(46.9%)을 가장 필요 역량으로 응답함.  
다음 필요 역량으로는 지자체는 ‘융합 역량’(32.0%), 중앙부처는 ‘창의 역량’(43.8%)을 꼽음.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융합 역량’(40.6%)을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은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창의 역량’(43.3%)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구분		창의 역량	융합 역량	디자인 역량	비즈니스 역량	사용자와 의사소통
중앙부처 및 지자체		35.5	29.3	27.8	6.6	0.4
구분	지자체	34.4	32.0	25.3	7.5	0.4
	중앙부처	43.8	9.4	46.9	0.0	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5.5	40.6	22.6	9.4	0.9
	디자이너만 있음	38.3	29.8	25.5	6.4	0.0
	없음	43.3	19.2	33.3	4.2	0.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 ‘융합 역량’이 55.6%로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으로 꼽힌 가운데, 시/군/구에서는 ‘창의역량’(35.9%)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예산별로는 5천억 원 미만에서는 ‘창의 역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5천억 원 이상에서는 ‘융합역량’이 39.8%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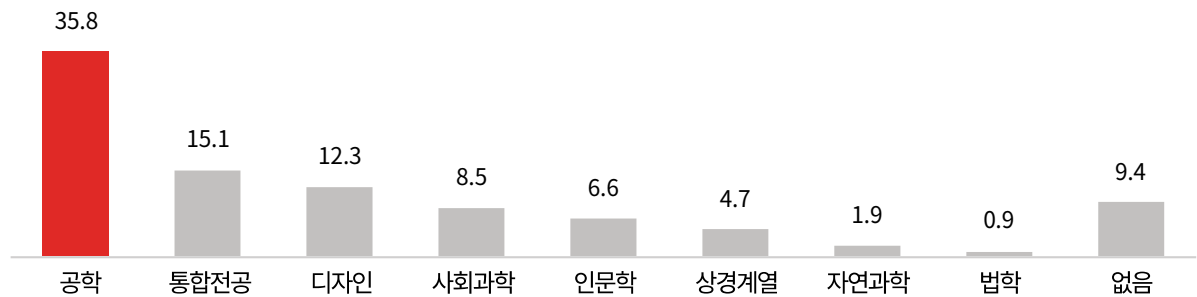
구분		창의 역량	융합 역량	디자인 역량	비즈니스 역량	사용자와 의사소통
지자체		35.5	29.3	27.8	6.6	0.4
지자체	시/도	16.7	55.6	27.8	0.0	0.0
	시/군/구	35.9	30.0	25.1	8.1	0.4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66.7	16.7	16.7	0.0	0.0
	3천억 원 미만	50.0	6.7	26.7	16.7	0.0
	5천억 원 미만	36.6	31.7	24.8	6.9	0.0
	5천억 원 이상	26.2	39.8	26.2	5.8	1.0

## 2)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학’ 분야가 35.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 ‘통합전공’(15.1%) ‘디자인’(12.3%), ‘사회과학’(8.5%), ‘인문학’(6.6%), ‘상경계열’(4.7%), ‘자연과학’(1.9%), ‘법학’(0.9%)의 순서로 나타남. ‘없음’은 9.4%로 나타남.

### »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 모름/무응답 : 11.3%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에서는 ‘공학’(37.3%), 중앙부처에서는 ‘통합전공’, ‘디자인’, ‘자연과학’(각 25.0%) 분야의 인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중앙부처의 경우 ‘통합전공’과 ‘디자인’, ‘자연과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0.0%의 응답률을 보여, ‘상경계열’, ‘사회과학’ 등의 전공 분야 인재에 대한 필요도는 낮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공학	통합전공	디자인	사회과학	인문학	상경계열	자연과학	법학	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35.8	15.1	12.3	8.5	6.6	4.7	1.9	0.9	9.4
구분	지자체	37.3	14.7	11.8	8.8	6.9	4.9	1.0	1.0	8.8
	중앙부처	0.0	25.0	25.0	0.0	0.0	0.0	25.0	0.0	25.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공학’ 전공의 인재에 대한 필요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시/도(46.2%) 단위 응답률이 시/군/구(36.0%) 단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예산별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공학’ 전공 인재의 필요도가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5천억 원 미만에서는 50.0%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필요 인력의 전공 분야

(단위: %)

구분		공학	통합 전공	디자인	사회 과학	인문학	상경 계열	자연 과학	법학	없음
지자체		35.8	15.1	12.3	8.5	6.6	4.7	1.9	0.9	9.4
지자체	시/도	46.2	0.0	0.0	23.1	7.7	0.0	7.7	7.7	23.1
	시/군/구	36.0	16.9	13.5	6.7	6.7	5.6	0.0	0.0	6.7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	-	-	-	-	-	-	-	-
	3천억 원 미만	0.0	0.0	25.0	0.0	0.0	25.0	0.0	0.0	25.0
	5천억 원 미만	50.0	15.4	15.4	3.8	3.8	0.0	0.0	0.0	0.0
	5천억 원 이상	35.2	15.5	9.9	9.9	7.0	5.6	0.0	0.0	11.3

### 3)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3.29점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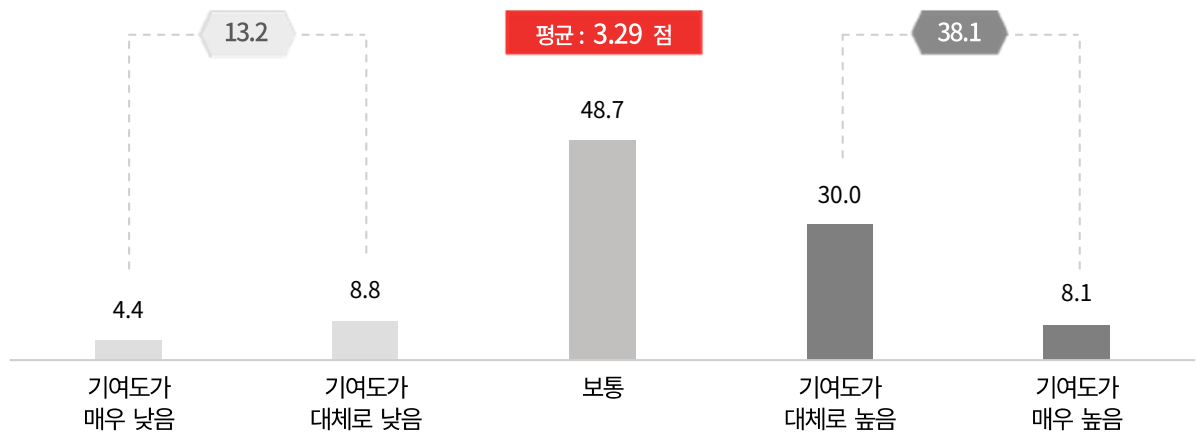
범주별로 살펴보면, ‘보통’의 응답이 48.7%로 가장 많았으며,

‘기여도가 높음’(‘대체로 높음’: 30.0% + ‘매우 높음’: 8.1%)의 응답이 38.1%,

‘기여도가 낮음’(‘대체로 낮음’: 8.8% + ‘매우 낮음’: 4.4%)의 응답 비율은 13.2%를 차지함.

#### »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 정부기관 구분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는 지자체에서 평균 3.25점, 중앙부처에서 평균 3.56점으로 비슷한 기여도 수준을 보임.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평균 3.38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였으며,

다음은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평균 3.34점),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평균 3.18점)의 순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 (점)
중앙부처 및 지자체		4.4	8.8	13.2	48.7	30.0	8.1	38.1	3.29
구분	지자체	4.6	10.0	14.5	49.8	27.4	8.3	35.7	3.25
	중앙부처	3.1	0.0	3.1	40.6	50.0	6.3	56.3	3.56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8	11.3	14.2	45.3	26.4	14.2	40.6	3.38
	디자이너만 있음	6.4	4.3	10.6	44.7	38.3	6.4	44.7	3.34
	없음	5.0	8.3	13.3	53.3	30.0	3.3	33.3	3.18

- 지자체 규모별 대학 디자인 교육 기여도는 시/도에서 평균 3.50점으로, 시/군/구(3.23점) 단위 대비 높은 기여도를 보임.

예산별로 살펴보면, 2천억 원 미만은 3.33점, 3천억 원 미만은 3.23점, 5천억 원 미만은 3.10점인 가운데 5천억 원 이상은 3.41점으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임.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대학 디자인 교육의 기여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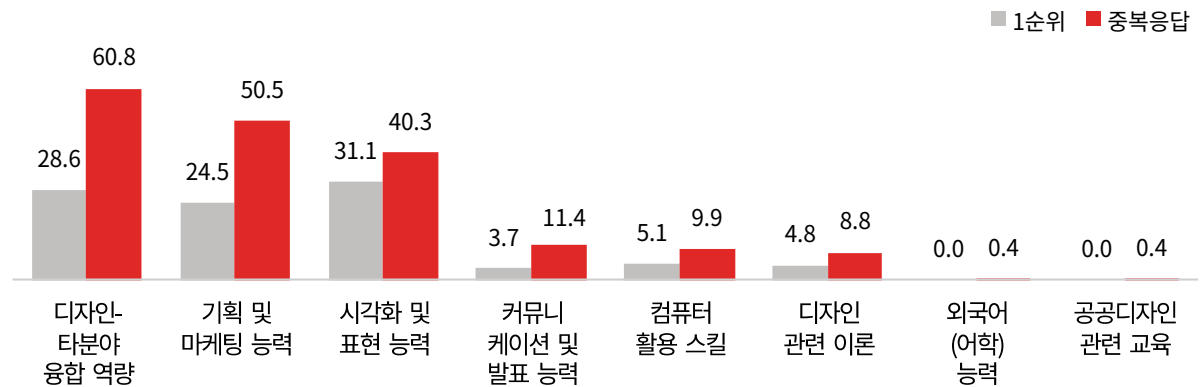
구분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높음	평균 (점)
지자체		4.4	8.8	13.2	48.7	30.0	8.1	38.1	3.29
지자체	시/도	0.0	5.6	5.6	55.6	22.2	16.7	38.9	3.50
	시/군/구	4.9	10.3	15.2	49.3	27.8	7.6	35.4	3.23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0.0	66.7	33.3	0.0	33.3	3.33
	3천억 원 미만	3.3	10.0	13.3	50.0	33.3	3.3	36.7	3.23
	5천억 원 미만	5.9	12.9	18.8	51.5	24.8	5.0	29.7	3.10
	5천억 원 이상	3.9	6.8	10.7	47.6	28.2	13.6	41.7	3.41

#### 4)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 보강되어야 할 대학 디자인 전공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60.8%로 가장 높고, 다음은 ‘기획 및 마케팅 능력’(50.5%), ‘시각화 및 표현 능력’(40.3%),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11.4%), ‘컴퓨터 활용 스킬’(9.9%) 등이 보강되어야 할 전공으로 조사됨.

#### »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 모름/무응답 : 2.2%

- 정부기관 구분별로는, 지자체에서는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63.1%로 가장 보강되어야 할 전공으로 뽑았으며, 중앙부처에서는 ‘시각화 및 표현능력’(59.4%)을 뽑음.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 기관과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에서 ‘디자인-타분야 융합역량’을 각각 70.8%, 68.1%로 가장 보강되어야할 전공으로 꼽음.

#### » 구분별/전담부서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공공 디자인 관련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60.8	50.5	40.3	11.4	9.9	8.8	0.4	0.4
구분	지자체	63.1	51.0	37.8	11.6	9.1	9.1	0.4	0.0
	중앙부처	43.8	46.9	59.4	9.4	15.6	6.3	0.0	3.1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70.8	50.0	34.9	11.3	6.6	8.5	0.9	0.0
	디자이너만 있음	68.1	48.9	34.0	14.9	6.4	4.3	0.0	0.0
	없음	49.2	51.7	47.5	10.0	14.2	10.8	0.0	0.8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의 비중이 다른 전공 대비 높은 가운데, 시/도(83.3%) 단위 응답률이 시/군/구(61.4%) 단위 대비 높게 나타남.
- 예산별 결과는 2천억 원 미만에서는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83.3%로, 3천억 원 미만에서는 ‘시각화 및 표현능력’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5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이상에서는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이 각각 60.4%, 68.9%로 가장 보강이 필요한 대학 디자인 전공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보강되어야 할 디자인 전공 대학교육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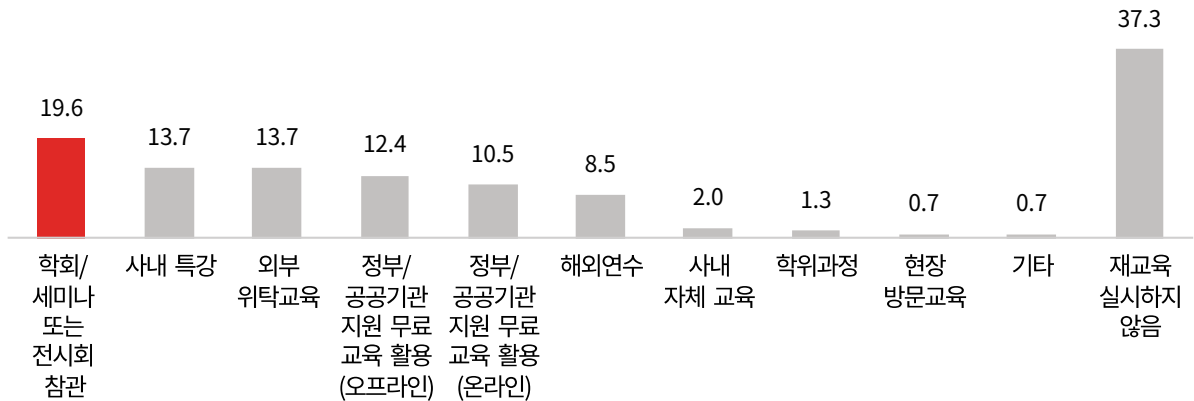
구분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기획 및 마케팅 능력	시각화 및 표현능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능력	컴퓨터 활용 스킬	디자인 관련 이론	외국어 (어학) 능력	공공 디자인 관련 교육
지자체		60.8	50.5	40.3	11.4	9.9	8.8	0.4	0.4
지자체	시/도	83.3	50.0	22.2	11.1	5.6	11.1	0.0	0.0
	시/군/구	61.4	51.1	39.0	11.7	9.4	9.0	0.4	0.0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83.3	50.0	33.3	0.0	0.0	16.7	0.0	0.0
	3천억 원 미만	46.7	36.7	53.3	13.3	20.0	6.7	3.3	0.0
	5천억 원 미만	60.4	58.4	35.6	11.9	5.9	9.9	0.0	0.0
	5천억 원 이상	68.9	47.6	35.9	11.7	9.7	8.7	0.0	0.0

## 5)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19.6%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내특강’과 ‘외부위탁교육’이 13.7%의 선호도(활용도)를 보임.

### »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방법을 21.4%로 가장 선호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경우 ‘외부 위탁교육’(23.1%)을 가장 선호(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20.8%)의 선호도(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 위탁 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오프라인)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 연수	사내 자체 교육	학위 과정	현장 방문 교육	기타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19.6	13.7	13.7	12.4	10.5	8.5	2.0	1.3	0.7	0.7	37.3
구분	지자체	21.4	14.3	12.9	13.6	10.7	8.6	2.1	0.7	0.7	0.7	35.0
	중앙부처	0.0	7.7	23.1	0.0	7.7	7.7	0.0	7.7	0.0	0.0	61.5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20.8	16.0	13.2	10.4	9.4	6.6	2.8	0.9	0.9	0.9	37.7
	디자이너만 있음	17.0	8.5	14.9	17.0	12.8	12.8	0.0	2.1	0.0	0.0	36.2
	없음	-	-	-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20.0%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가장 선호(많이 활용)하는 가운데,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교육 활용(오프라인)’은 0.0%의 비율을 보임. 시/군/구 단위 역시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21.6%)을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으로 가장 선호(많이 활용)함.
-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선호(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2천억 원 미만에서는 ‘사내특강’이 100.0%로 선호(활용)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외부 위탁 교육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오프라인)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 연수	사내 자체 교육	학위 과정	현장 방문 교육	기타	재교육 실시 하지 않음
지자체		19.6	13.7	13.7	12.4	10.5	8.5	2.0	1.3	0.7	0.7	37.3
지자체	시/도	20.0	6.7	13.3	0.0	13.3	6.7	13.3	0.0	6.7	6.7	33.3
	시/군/구	21.6	15.2	12.8	15.2	10.4	8.8	0.8	0.8	0.0	0.0	35.2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3천억 원 미만	25.0	12.5	12.5	12.5	0.0	0.0	0.0	0.0	0.0	0.0	50.0
	5천억 원 미만	15.6	8.9	11.1	11.1	15.6	13.3	2.2	0.0	0.0	0.0	40.0
	5천억 원 이상	23.5	15.3	14.1	15.3	9.4	7.1	2.4	1.2	1.2	0.0	31.8

## 6) 주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 주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중복응답 기준)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15.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내특강’(10.5%)과 ‘외부위탁교육’(8.5%) 등의 순임.

### » 주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은 지자체(각각 15.7%, 11.4%)에서 중앙부처(7.7%, 0.0%) 대비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구분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육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연수	사내 자체 교육	기타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15.0	10.5	9.2	8.5	6.5	2.6	1.3	2.0	66.7
구분	지자체	15.7	11.4	7.9	9.3	7.1	2.9	1.4	2.1	65.7
	중앙부처	7.7	0.0	23.1	0.0	0.0	0.0	0.0	0.0	76.9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15.1	10.4	7.5	8.5	4.7	2.8	1.9	1.9	67.0
	디자이너만 있음	14.9	10.6	12.8	8.5	10.6	2.1	0.0	2.1	66.0
	없음	-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학회/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과 ‘사내 특강’은 시/군/구(각각 16.0%, 12.0%)가 시/도(각각 13.3%, 6.7%)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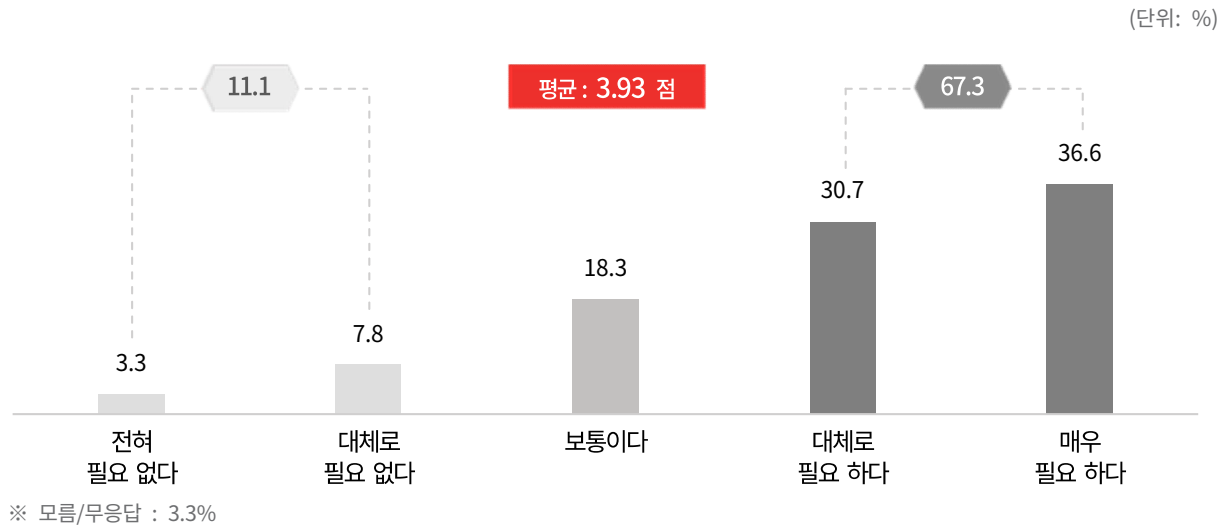
구분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사내 특강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오프라인)	외부 위탁교육	정부/ 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 (온라인)	해외연수	사내 자체 교육	기타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지자체		15.0	10.5	9.2	8.5	6.5	2.6	1.3	2.0	66.7
지자체	시/도	13.3	6.7	0.0	0.0	6.7	13.3	6.7	6.7	60.0
	시/군/구	16.0	12.0	8.8	10.4	7.2	1.6	0.8	1.6	66.4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3천억 원 미만	0.0	12.5	12.5	0.0	0.0	0.0	0.0	0.0	75.0
	5천억 원 미만	13.3	8.9	2.2	8.9	6.7	2.2	0.0	2.2	73.3
	5천억 원 이상	18.8	12.9	10.6	10.6	8.2	3.5	1.2	2.4	61.2

## 7) 디자인 교육 필요도

- 디자인 교육이 필요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3.93점으로 나타남.

범주별로 살펴보면, ‘필요하다’(‘대체로 필요하다’: 30.7% + ‘매우 필요하다’: 36.6%)는 응답이 67.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필요 없다’(‘대체로 필요 없다’: 7.8% + ‘전혀 필요 없다’: 3.3%)라고 응답한 비율은 11.1%로 나타남.

### »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가 3.96점으로 중앙부처(3.54점) 대비 높은 필요도를 보임.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평균 4.02점으로 나타나, 디자이너만 있는 부서(평균 3.72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평균 (점)
중앙부처 및 지자체		3.3	7.8	11.1	18.3	30.7	36.6	67.3	3.93
구분	지자체	3.6	6.4	10.0	17.9	30.7	37.9	68.6	3.96
	중앙부처	0.0	23.1	23.1	23.1	30.8	23.1	53.8	3.54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8	7.5	10.4	16.0	27.4	41.5	68.9	4.02
	디자이너만 있음	4.3	8.5	12.8	23.4	38.3	25.5	63.8	3.72
	없음	-	-	-	-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평균 4.07점으로 시/군/구 단위(평균 3.95점)과 비교하여 높은 필요도를 보임.

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는 5천억 원 미만(평균 4.16점), 5천억 원 이상(평균 3.99점), 2천억 원 미만(평균 3.00점), 3천억 원 미만(평균 2.63점)의 순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필요도

(단위: %)

구분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보통 이다	대체로 필요 하다	매우 필요 하다	필요 하다	평균 (점)
지자체		3.3	7.8	11.1	18.3	30.7	36.6	67.3	3.93
지자체	시/도	0.0	13.3	13.3	6.7	40.0	40.0	80.0	4.07
	시/군/구	4.0	5.6	9.6	19.2	29.6	37.6	67.2	3.95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0.0	100.0	0.0	0.0	0.0	3.00
	3천억 원 미만	37.5	12.5	50.0	12.5	25.0	12.5	37.5	2.63
	5천억 원 미만	2.2	2.2	4.4	13.3	37.8	40.0	77.8	4.16
	5천억 원 이상	1.2	8.2	9.4	20.0	28.2	38.8	67.1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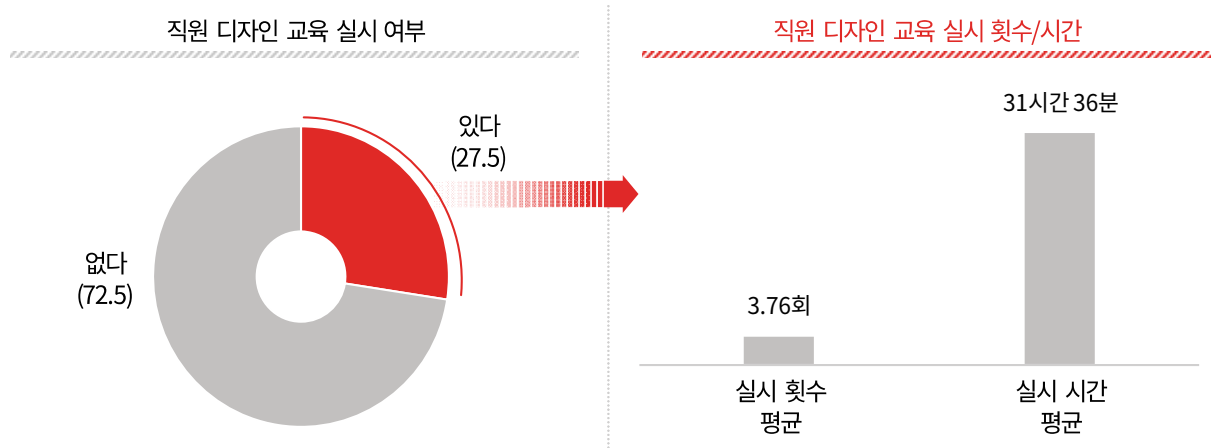
## 8)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 디자인 교육을 실시했는지 조사한 결과, ‘있다’의 비율이 27.5%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기관을 대상으로 횟수 및 시간을 조사한 결과, 교육 ‘실시 시간’은 평균 31시간 36분으로 나타났고, ‘실시 횟수’는 평균 3.76회로 나타남.

### »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 정부기관 구분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는 ‘있다’의 응답이 지자체(28.6%)에서 중앙부처(15.4%) 대비 높게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횟수 평균은 지자체는 3.80번, 중앙부처는 3.00번이었으며, 교육 시간 평균은 지자체 32.55시간, 중앙부처 12.50시간으로 나타남.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의 교육 실시 정도를 보인 반면, 교육 시간의 경우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39.52시간)가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9.27시간)에 비해 높은 시간을 보임.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구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	시간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27.5	72.5	3.76	31.60
구분	지자체	28.6	71.4	3.80	32.55
	중앙부처	15.4	84.6	3.00	12.5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29.2	70.8	4.16	39.52
	디자이너만 있음	23.4	76.6	2.64	9.27
	없음	-	-	-	-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직원 디자인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의 응답은 시/도 단위(40.0%)가 시/군/구(27.2%) 단위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남. 교육 시간의 평균 또한 시/도(129.00시간) 단위에서 시/군/구(15.53시간) 단위 대비 높게 나타남.
- 예산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천억 원 이상(32.9%), 3천억 원 미만(25.0%), 5천억 원 미만(20.0%), 2천억 원 미만(0.0%)의 순으로 나타남.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는 5천억 원 미만(3.67번)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실시 시간은 5천억 원 이상(17.61시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및 횟수/시간**

(단위: %)

구분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여부		직원 디자인 교육 실시 횟수/시간	
		있다	없다	횟수 평균	시간 평균
<b>지자체</b>		<b>27.5</b>	<b>72.5</b>	<b>3.76</b>	<b>31.60</b>
<b>지자체</b>	시/도	40.0	60.0	9.00	129.00
	시/군/구	27.2	72.8	2.88	15.53
<b>지자체 예산</b>	2천억 원 미만	0.0	100.0	-	-
	3천억 원 미만	25.0	75.0	2.00	3.00
	5천억 원 미만	20.0	80.0	3.67	14.78
	5천억 원 이상	32.9	67.1	3.36	17.61

## 8-1)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를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 디자인’이 11.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니버설 디자인’(8.5%), ‘셉테드디자인’(5.9%), ‘경관디자인’(3.3%), ‘도시디자인’(2.6%)의 순서로 나타남. 그 외에도 ‘포럼/세미나’, ‘도시재생’, ‘환경디자인’, ‘기획 및 제작’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됨.

### » 실시한 디자인 교육 분야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비율
공공 디자인	11.8
유니버설디자인	8.5
셉테드 디자인(범죄예방)	5.9
경관디자인	3.3
도시디자인	2.6
포럼/세미나	2.0
도시재생	2.0
환경디자인	2.0
기획 및 제작	1.3
전시회 및 박람회 참관	1.3
개발관리	0.7
도시브랜딩	0.7
디자인 마인드업	0.7
현장방문 체험교육	0.7
콘텐츠 트렌드	0.7
디자인 씽킹	0.7
색채	0.7
서체	0.7
산업디자인	0.7
홍보	0.7
품질관리	0.7
리스크관리	0.7
커뮤니케이션 방법	0.7
없다	67.3

※ 모름/무응답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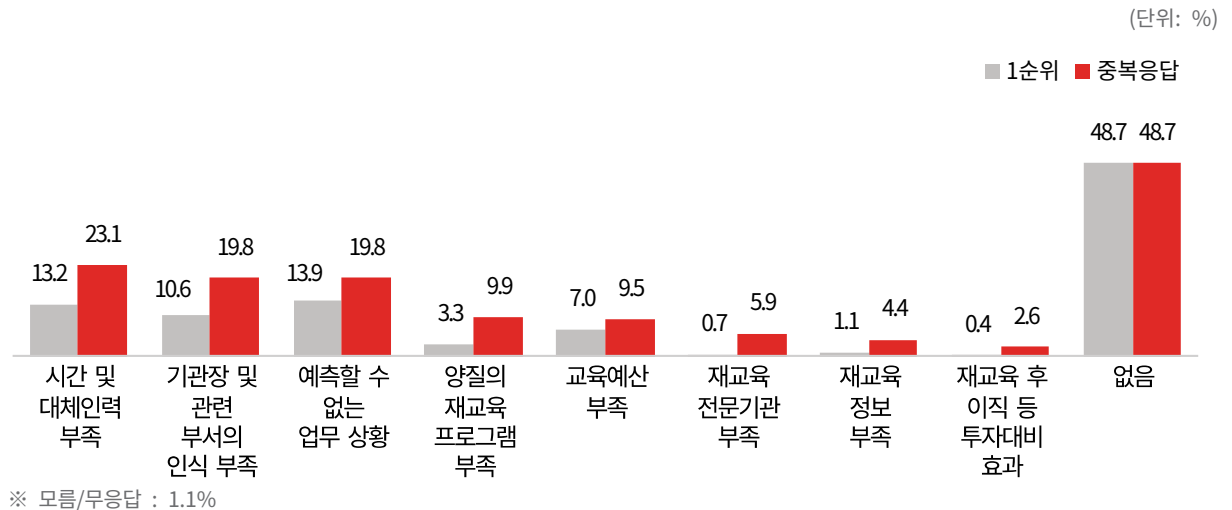


## 9)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23.1%가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꼽았고, 다음으로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19.8%),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19.8%),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9.9%) 등의 순으로 나타남.

1순위 응답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이 1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와 중앙부처 모두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각각 22.4%, 28.1%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다음으로 지자체는 ‘기관장 및 관련부서의 인식 부족’(22.0%), 중앙부처는 ‘예측할 수 없는 업무상황’(15.6%)을 꼽음.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교육예산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대비 효과	없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23.1	19.8	19.8	9.9	9.5	5.9	4.4	2.6	48.7
구분	지자체	22.4	22.0	20.3	10.8	9.5	6.2	4.1	2.5	47.7
	중앙부처	28.1	3.1	15.6	3.1	9.4	3.1	6.3	3.1	56.3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1.1	30.2	25.5	9.4	14.2	10.4	5.7	1.9	32.1
	디자이너만 있음	38.3	29.8	34.0	25.5	12.8	8.5	8.5	6.4	10.6
	없음	10.0	6.7	9.2	4.2	4.2	.8	1.7	1.7	78.3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과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예측할 수 없는 업무상황’을 각각 27.8%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음.

시/군/구 단위에서는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을 22.0%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21.5%)을 꼽음.

-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은 ‘예측할 수 없는 업무상황’과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교육예산 부족’을 모두 16.7%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3천억 원 미만의 경우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13.3%), 5천억 원 미만은 ‘기관장 및 관련부서의 인식 부족’과 ‘예측할 수 없는 업무상황’(각각 18.8%), 5천억 원 이상은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과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각각 30.1%)을 꼽음.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이너 재교육 시 애로사항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예측 할 수 없는 업무 상황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교육예산 부족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재교육 정보 부족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대비 효과	없음
지자체		23.1	19.8	19.8	9.9	9.5	5.9	4.4	2.6	48.7
지자체	시/도	27.8	27.8	27.8	5.6	11.1	11.1	0.0	0.0	44.4
	시/군/구	22.0	21.5	19.7	11.2	9.4	5.8	4.5	2.7	48.0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16.7	16.7	16.7	0.0	0.0	0.0	66.7
	3천억 원 미만	13.3	10.0	10.0	3.3	3.3	0.0	3.3	0.0	73.3
	5천억 원 미만	17.8	18.8	18.8	12.9	6.9	2.0	5.0	3.0	54.5
	5천억 원 이상	30.1	30.1	24.3	10.7	13.6	12.6	3.9	2.9	33.0

## 4. 기타

### 1)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 정부기관의 공공 디자인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56.8%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절반이상이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다’는 지자체가 59.3%로 중앙부처(37.5%) 대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기관(76.4%)의 경우에 가장 비율이 높음.

####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구분		있다	없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56.8	43.2
구분	지자체	59.3	40.7
	중앙부처	37.5	62.5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76.4	23.6
	디자이너만 있음	55.3	44.7
	없음	40.0	60.0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시/도와 시/군/구 모두 가이드라인 및 마스터플랜이 ‘있다’가 높은 가운데, 특히 시/도는 83.3%로 시/군/구(57.4%) 대비 높음.
- 지자체 예산별로는 5천억 원 이상 예산 규모를 제외한 경우 ‘없다’가 ‘있다’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5천억 원 이상 예산 규모에서는 ‘있다’의 비율이 76.7%로 높게 나타남.  
또한 예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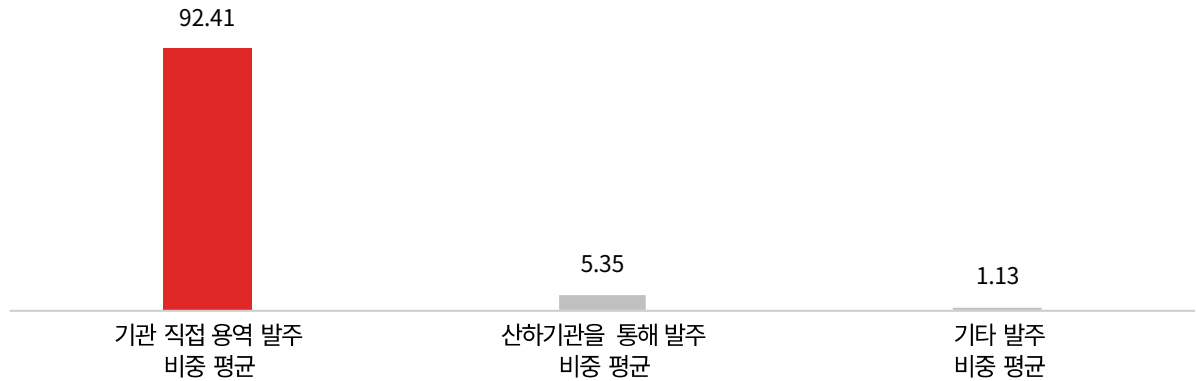
구분		있다	없다
지자체		56.8	43.2
지자체	시/도	83.3	16.7
	시/군/구	57.4	42.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6.7	83.3
	3천억 원 미만	46.7	53.3
	5천억 원 미만	47.5	52.5
	5천억 원 이상	76.7	23.3

## 2)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중은 기관 평균 92.4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반면,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율은 평균 5.35%, 그 외 기타 발주 비율은 평균 1.13%로 낮게 나타남.

### » 디자인 예산 집행방법별 비율

(단위: %)



- 모든 지자체 구분과 디자인 전담부서 구분에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특히 지자체(93.70%)와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95.00%)에서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단위: %)

구분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92.41	5.35	1.13
구분	지자체	93.70	4.23	1.23
	중앙부처	82.81	13.75	0.31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93.53	5.58	0.90
	디자이너만 있음	95.00	4.78	0.22
	없음	90.42	5.38	1.68

- 지자체 구분별로 살펴보면, 지자체 구분과 관계없이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중이 가장 큰 가운데, 시/군/구는 93.95%, 시/도는 90.56%의 비중을 보임.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은 시/도에서 9.44%로 시/군/구(3.81%) 대비 높게 나타남.

- 지자체 예산별 결과 역시 ‘기관 직접 용역 발주’의 비중이 90.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5천억 원 이상에서 94.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하는 비중은 2천억 원 미만 예산 기관에서 8.33%로 다른 예산 규모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예산 집행 방법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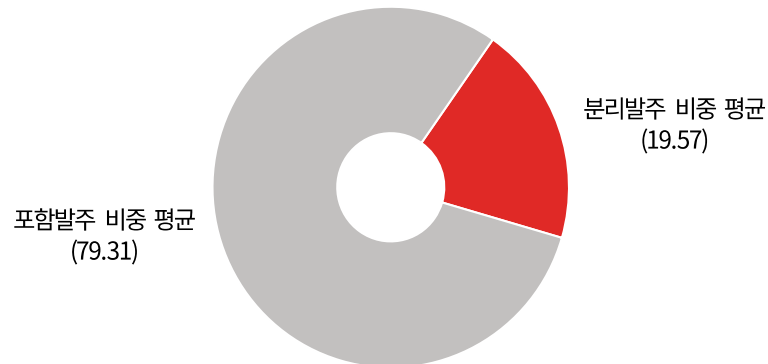
구분		기관 직접 용역 발주 비중 평균	산하기관을 통해 발주 비중 평균	기타 발주 비중 평균
<b>지자체</b>		<b>92.41</b>	<b>5.35</b>	<b>1.13</b>
<b>지자체</b>	시/도	90.56	9.44	0.00
	시/군/구	93.95	3.81	1.33
<b>지자체 예산</b>	2천억 원 미만	91.67	8.33	0.00
	3천억 원 미만	92.33	4.33	0.00
	5천억 원 미만	92.93	4.04	2.02
	5천억 원 이상	94.89	4.18	0.92

### 3)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 공공 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설계·시공 등과 디자인산업 부분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포함발주’ 비중이 평균 79.31%로 ‘분리 발주’(19.57%)보다 높게 나타남.

#### » 디자인 사업 발주방법별 비율

(단위: %)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포함발주’의 비중이 ‘분리발주’ 비중을 앞서는 가운데, 특히 ‘포함발주’ 비중은 중앙부처(92.19%)에서 지자체(77.57%)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디자인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포함 발주’의 비중이 60.0%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특히, 전담부서와 디자이너가 모두 없는 정부기관의 경우 89.16%로 높은 비율을 나타냄.

####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구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중앙부처 및 지자체		19.57	79.31
구분	지자체	21.58	77.57
	중앙부처	4.69	92.19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0.80	69.20
	디자이너만 있음	22.95	77.05
	없음	8.32	89.16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모든 구분에서 ‘포함발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시/도 단위는 71.47%, 시/군/구 단위는 78.05%로 나타남.

예산별로도 모든 예산 단위에서 ‘포함 발주’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3천억 원 미만의 경우 87.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 여부

(단위: %)

구분		분리발주 비중 평균	포함발주 비중 평균
지자체		19.57	79.31
지자체	시/도	28.53	71.47
	시/군/구	21.05	78.05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6.67	83.33
	3천억 원 미만	9.00	87.67
	5천억 원 미만	16.48	82.50
	5천억 원 이상	29.71	7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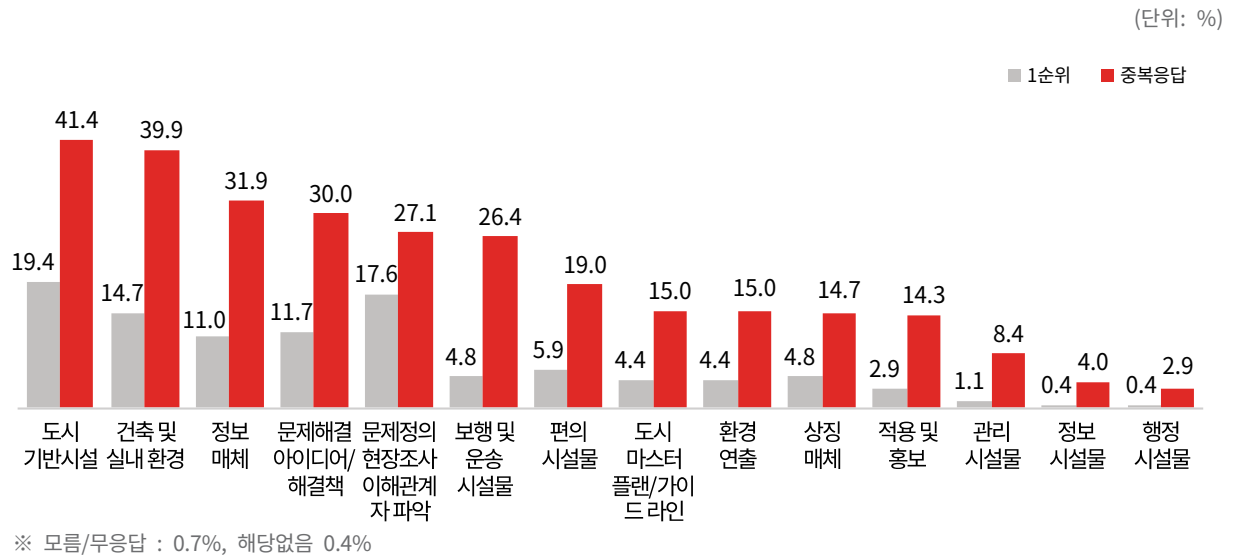


#### 4) 공공 디자인 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공공 디자인 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도시 기반시설’이 41.4%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건축 및 실내 환경’(39.9%), ‘정보매체’(31.9%),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3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응답 기준에서도 ‘도시 기반시설’(19.4%)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17.6%), ‘건축 및 실내 환경’(14.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공공 디자인 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도시 기반시설’(46.5%)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건축 및 실내 환경’(41.5%), ‘정보매체’(31.1%)의 순으로 나타남.

한편 중앙부처는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59.4%)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56.3%), ‘정보매체’(3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와 디자이너가 있는 기관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을 각각 38.7%, 42.6%로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은 반면,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건축 및 실내 환경’(46.7%)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음.

##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 디자인 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도시 기반시설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문제해결 아이디어/ 해결책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	보행 및 운송 시설물	편의 시설물
<b>중앙부처 및 지자체</b>		<b>41.4</b>	<b>39.9</b>	<b>31.9</b>	<b>30.0</b>	<b>27.1</b>	<b>26.4</b>	<b>19.0</b>
<b>구분</b>	지자체	46.5	41.5	31.1	26.6	22.8	29.0	20.7
	중앙부처	3.1	28.1	37.5	56.3	59.4	6.3	6.3
<b>전담 부서</b>	전담부서 있음	38.7	38.7	30.2	34.0	29.2	28.3	21.7
	디자이너만 있음	42.6	25.5	42.6	29.8	27.7	21.3	14.9
	없음	43.3	46.7	29.2	26.7	25.0	26.7	18.3

구분		도시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환경연출	상징매체	적용 및 홍보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b>중앙부처 및 지자체</b>		<b>15.0</b>	<b>15.0</b>	<b>14.7</b>	<b>14.3</b>	<b>8.4</b>	<b>4.0</b>	<b>2.9</b>
<b>구분</b>	지자체	16.6	16.2	13.7	9.1	8.7	3.7	3.3
	중앙부처	3.1	6.3	21.9	53.1	6.3	6.3	0.0
<b>전담 부서</b>	전담부서 있음	18.9	13.2	14.2	8.5	9.4	2.8	3.8
	디자이너만 있음	14.9	12.8	19.1	21.3	6.4	2.1	4.3
	없음	11.7	17.5	13.3	16.7	8.3	5.8	1.7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해결책(55.6%)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도시 기반시설’(44.4%),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3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시/군/구 단위에서는 ‘도시 기반시설’(46.6%)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음.

-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이상에서는 ‘건축 및 실내 환경’(각각 66.7%, 43.7%)이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혔으며, 3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미만에서는 ‘도시 기반시설’(각각 63.3%, 46.5%)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 디자인 사업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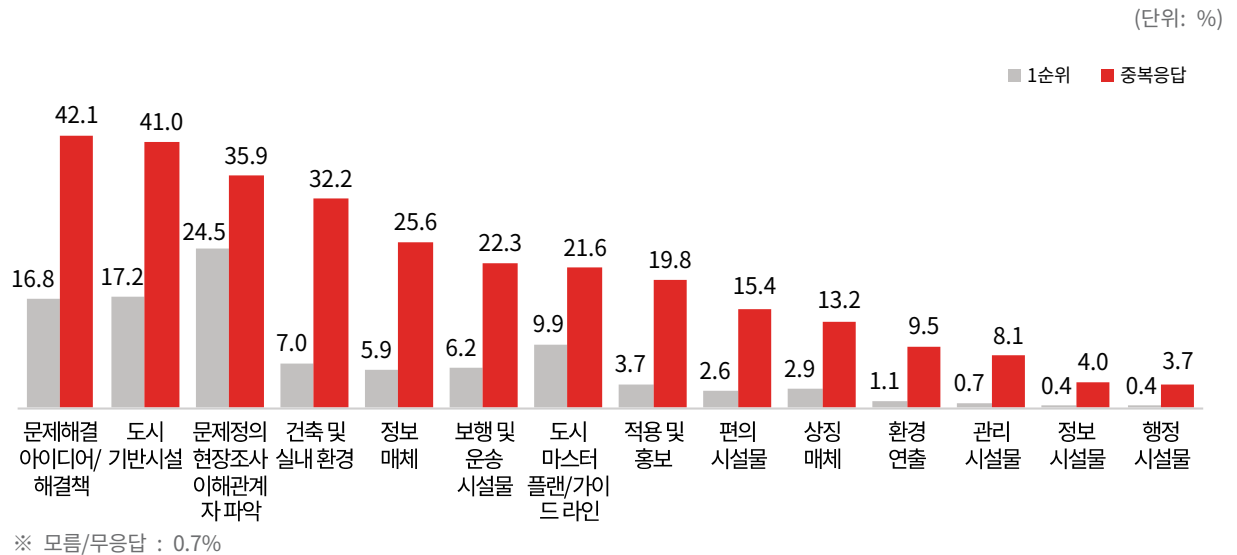
구분		도시 기반시설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해결책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	보행 및 운송 시설물	편의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41.4	39.9	31.9	30.0	27.1	26.4	19.0
지자체	시/도	44.4	33.3	33.3	55.6	38.9	27.8	22.2
	시/군/구	46.6	42.2	30.9	24.2	21.5	29.1	20.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50.0	66.7	0.0	16.7	16.7	33.3	16.7
	3천억 원 미만	63.3	43.3	20.0	13.3	13.3	40.0	16.7
	5천억 원 미만	46.5	37.6	35.6	27.7	20.8	27.7	22.8
	5천억 원 이상	41.7	43.7	32.0	29.1	27.2	27.2	20.4

구분		도시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환경연출	상징매체	적용 및 홍보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15.0	15.0	14.7	14.3	8.4	4.0	2.9
지자체	시/도	5.6	11.1	5.6	11.1	5.6	0.0	5.6
	시/군/구	17.5	16.6	14.3	9.0	9.0	4.0	3.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6.7	0.0	0.0	33.3	16.7	0.0	0.0
	3천억 원 미만	20.0	20.0	16.7	3.3	13.3	10.0	0.0
	5천억 원 미만	9.9	18.8	15.8	10.9	7.9	3.0	3.0
	5천억 원 이상	22.3	13.6	11.7	6.8	7.8	2.9	4.9

#### 4-1) 공공 디자인 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공공 디자인 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이 42.1%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도시 기반시설’(41.0%),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35.9%), ‘건축 및 실내 환경’(3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1순위 기준으로는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24.5%), ‘도시 기반시설’(17.2%),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1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 공공 디자인 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도시 기반시설’(45.2%)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39.8%), ‘건축 및 실내 환경’(33.6%),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33.2%) 등의 정책이 나타남.  
한편, 중앙부처는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59.4%)과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과 ‘적용 및 홍보’(각각 56.3%)를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정보매체’(37.5%), ‘건축 및 실내 환경’(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담부서별로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의 경우와 디자이너만 있는 기관의 경우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각각 49.1%, 51.1%)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의 경우 ‘도시 기반시설’이 45.8%로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 디자인 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문제해결 아이디어/ 해결책	도시 기반시설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보행 및 운송시설물	도시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중앙부처 및 지자체		42.1	41.0	35.9	32.2	25.6	22.3	21.6
구분	지자체	39.8	45.2	33.2	33.6	24.1	24.5	24.1
	중앙부처	59.4	9.4	56.3	21.9	37.5	6.3	3.1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49.1	34.0	35.8	33.0	22.6	19.8	26.4
	디자이너만 있음	51.1	44.7	40.4	17.0	38.3	19.1	17.0
	없음	32.5	45.8	34.2	37.5	23.3	25.8	19.2

구분		적용 및 홍보	편의 시설물	상징매체	환경연출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중앙부처 및 지자체		19.8	15.4	13.2	9.5	8.1	4.0	3.7
구분	지자체	14.9	15.8	12.9	10.4	7.9	4.1	4.1
	중앙부처	56.3	12.5	15.6	3.1	9.4	3.1	0.0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17.0	19.8	13.2	7.5	8.5	2.8	2.8
	디자이너만 있음	25.5	10.6	12.8	8.5	4.3	0.0	2.1
	없음	20.0	13.3	13.3	11.7	9.2	6.7	5.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는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55.6%)의 응답률이 높은 가운데,

시/군/구 단위는 ‘도시 기반시설’(45.3%)이 높음.

예산별로는 2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이상에서는 ‘문제해결 아이디어/해결책’이 각각 66.7%, 43.7%로 높은 응답률이 나타났으며, 3천억 원 미만과 5천억 원 미만에서는 ‘도시 기반시설’이 각각 53.3%, 47.5%로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 예산별 공공 디자인 사업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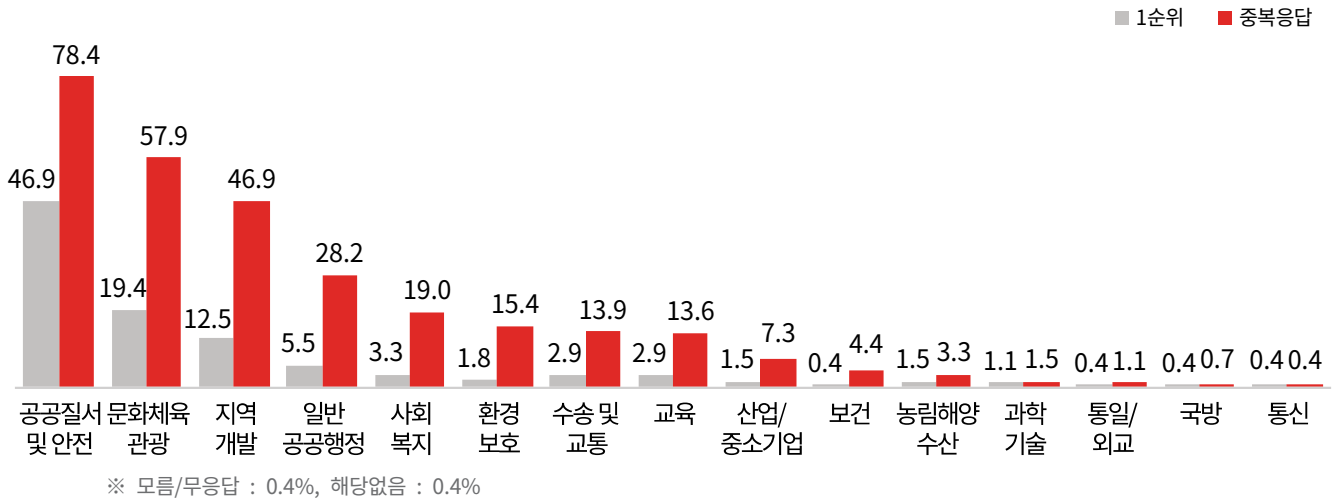
구분		문제해결 아이디어/ 해결책	도시 기반시설	문제정의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파악	건축 및 실내 환경	정보매체	보행 및 운송시설물	도시 마스터플랜/ 가이드라인
지자체		42.1	41.0	35.9	32.2	25.6	22.3	21.6
지자체	시/도	55.6	44.4	44.4	27.8	27.8	38.9	11.1
	시/군/구	38.6	45.3	32.3	34.1	23.8	23.3	25.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66.7	33.3	50.0	33.3	0.0	33.3	33.3
	3천억 원 미만	16.7	53.3	23.3	33.3	10.0	40.0	30.0
	5천억 원 미만	40.6	47.5	32.7	33.7	28.7	20.8	15.8
	5천억 원 이상	43.7	41.7	35.0	34.0	25.2	23.3	30.1

구분		적용 및 홍보	편의 시설물	상징매체	환경연출	관리 시설물	정보 시설물	행정 시설물
지자체		19.8	15.4	13.2	9.5	8.1	4.0	3.7
지자체	시/도	11.1	11.1	5.6	11.1	5.6	0.0	5.6
	시/군/구	15.2	16.1	13.5	10.3	8.1	4.5	4.0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33.3	0.0	0.0	0.0	0.0	0.0	0.0
	3천억 원 미만	6.7	16.7	13.3	16.7	20.0	10.0	3.3
	5천억 원 미만	17.8	15.8	16.8	9.9	5.9	4.0	5.0
	5천억 원 이상	12.6	16.5	9.7	9.7	6.8	2.9	3.9

## 5)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이 7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57.9%), ‘지역개발’(46.9%), ‘일반 공공행정’(2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기준 역시 비슷한 순위를 보임.

###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 지자체는 ‘공공질서 및 안전’을 80.9%로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58.9%), ‘지역 개발’(51.5%) 등의 정책이 나타남.  
중앙부처 역시 ‘공공질서 및 안전’(59.4%)을 가장 효과 있는 정책으로 꼽았으며, ‘문화체육관광’(50.0%), ‘교육’(34.4%) 등이 그 뒤를 따름.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공공질서 및 안전’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 기관의 경우 85.1%로 더욱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체육 관광	지역 개발	일반 공공 행정	사회 복지	환경 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78.4	57.9	46.9	28.2	19.0	15.4	13.9	13.6
구분	지자체	80.9	58.9	51.5	28.2	18.7	14.5	14.5	10.8
	중앙부처	59.4	50.0	12.5	28.1	21.9	21.9	9.4	34.4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82.1	60.4	51.9	33.0	19.8	12.3	7.5	12.3
	디자이너만 있음	85.1	51.1	48.9	29.8	12.8	12.8	10.6	17.0
	없음	72.5	58.3	41.7	23.3	20.8	19.2	20.8	13.3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농림 해양수산	과학 기술	통일/ 외교	국방	통신
중앙부처 및 지자체		7.3	4.4	3.3	1.5	1.1	0.7	0.4
구분	지자체	6.2	2.9	3.3	1.2	0.4	0.0	0.4
	중앙부처	15.6	15.6	3.1	3.1	6.3	6.3	0.0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7.5	1.9	2.8	0.9	0.0	0.9	0.0
	디자이너만 있음	6.4	4.3	4.3	0.0	0.0	0.0	2.1
	없음	7.5	6.7	3.3	2.5	2.5	0.8	0.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질서 및 안전’이 각각 83.3%, 80.7%로 가장 높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각각 72.2%, 57.8%)로 나타남.
- 예산별로 살펴보면, 모든 규모에서 ‘공공질서 및 안전’에 높은 비율을 보이며, 5천억 원 이상에서 8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가장 효과 있는 정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관광	지역개발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b>지자체</b>		<b>78.4</b>	<b>57.9</b>	<b>46.9</b>	<b>28.2</b>	<b>19.0</b>	<b>15.4</b>	<b>13.9</b>	<b>13.6</b>
<b>지자체</b>	시/도	83.3	72.2	33.3	5.6	27.8	16.7	11.1	5.6
	시/군/구	80.7	57.8	52.9	30.0	17.9	14.3	14.8	11.2
<b>지자체 예산</b>	2천억 원 미만	66.7	50.0	16.7	16.7	16.7	50.0	0.0	0.0
	3천억 원 미만	73.3	53.3	46.7	33.3	26.7	16.7	26.7	16.7
	5천억 원 미만	81.2	59.4	57.4	28.7	12.9	13.9	12.9	10.9
	5천억 원 이상	84.5	61.2	48.5	27.2	22.3	12.6	13.6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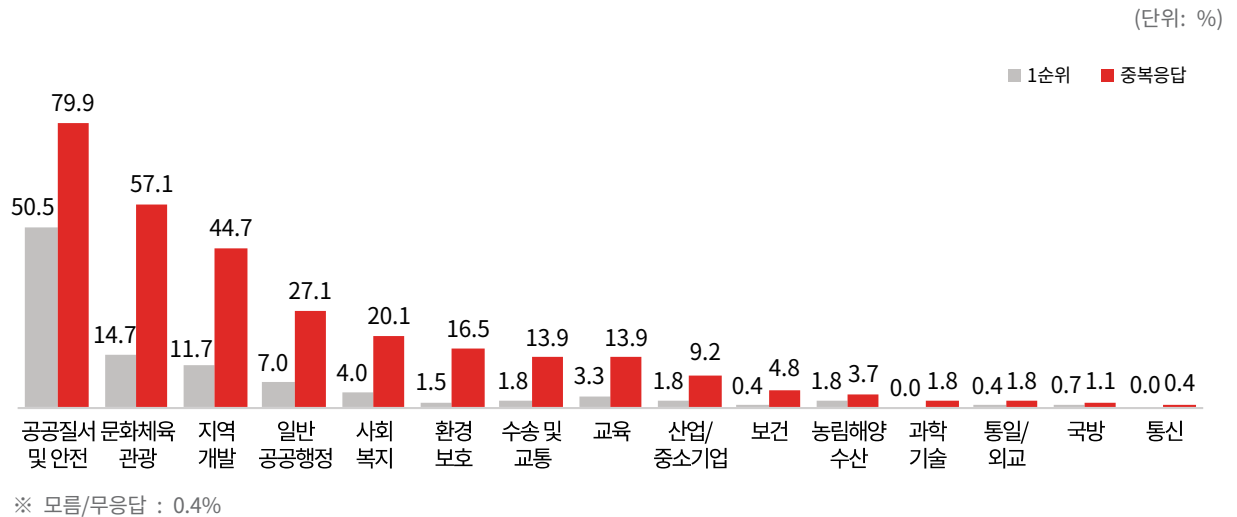
구분		산업/중소기업	보건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통일/외교	국방	통신
<b>지자체</b>		<b>7.3</b>	<b>4.4</b>	<b>3.3</b>	<b>1.5</b>	<b>1.1</b>	<b>0.7</b>	<b>0.4</b>
<b>지자체</b>	시/도	22.2	0.0	5.6	5.6	0.0	0.0	0.0
	시/군/구	4.9	3.1	3.1	0.9	0.4	0.0	0.4
<b>지자체 예산</b>	2천억 원 미만	0.0	33.3	16.7	0.0	0.0	0.0	0.0
	3천억 원 미만	0.0	6.7	0.0	0.0	0.0	0.0	0.0
	5천억 원 미만	5.9	3.0	5.9	2.0	1.0	0.0	1.0
	5천억 원 이상	7.8	0.0	1.0	0.0	0.0	0.0	0.0

### 5-1)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을 살펴본 결과(중복응답 기준), ‘공공질서 및 안전’이 7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57.1%), ‘지역개발’(44.7%), ‘일반 공공행정’(27.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1순위 응답 역시 ‘공공질서 및 안전’(50.5%)이 우선 추진 정책으로 나타남.

### »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 지자체/중앙부처 모두 ‘공공질서 및 안전’을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은 가운데, 지자체에서 81.7%로 높은 비율을 보임. 전담부서별 구분에서도 ‘공공질서 및 안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디자이너만 있는 정부기관의 경우 85.1%로 더욱 높게 나타남.

## **》지자체별/전담부서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공공 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79.9	57.1	44.7	27.1	20.1	16.5	13.9	13.9
구분	지자체	81.7	58.9	49.0	27.4	18.7	16.2	14.9	12.0
	중앙부처	65.6	43.8	12.5	25.0	31.3	18.8	6.3	28.1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82.1	59.4	51.9	32.1	18.9	13.2	9.4	12.3
	디자이너만 있음	85.1	53.2	48.9	29.8	14.9	14.9	8.5	17.0
	없음	75.8	56.7	36.7	21.7	23.3	20.0	20.0	14.2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농림해양 수산	과학기술	통일/외교	국방	통신
중앙부처 및 지자체		9.2	4.8	3.7	1.8	1.8	1.1	0.4
구분	지자체	7.9	3.3	3.3	1.7	1.2	0.4	0.4
	중앙부처	18.8	15.6	6.3	3.1	6.3	6.3	0.0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8.5	1.9	1.9	2.8	1.9	0.9	0.0
	디자이너만 있음	8.5	4.3	2.1	2.1	0.0	0.0	0.0
	없음	10.0	7.5	5.8	0.8	2.5	1.7	0.8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규모와 관계없이 ‘공공질서 및 안전’을 시/도는 83.3%, 시/군/구는 81.6%로 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으며,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각각 77.8%, 57.4%)과 ‘지역개발’(각각 33.3%, 50.2%) 등의 순임.
- 예산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5천억 원 이상(84.5%)에서 더욱 높음.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디자인 적용 정책 분야 중 우선 추진 정책

(단위: %)

구분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일반공공 행정	사회복지	환경보호	수송 및 교통	교육
중앙부처 및 지자체		79.9	57.1	44.7	27.1	20.1	16.5	13.9	13.9
지자체	시/도	83.3	77.8	33.3	5.6	22.2	16.7	11.1	5.6
	시/군/구	81.6	57.4	50.2	29.1	18.4	16.1	15.2	12.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83.3	50.0	16.7	16.7	16.7	50.0	0.0	0.0
	3천억 원 미만	76.7	56.7	46.7	30.0	23.3	20.0	26.7	13.3
	5천억 원 미만	81.2	58.4	50.5	28.7	15.8	15.8	12.9	14.9
	5천억 원 이상	84.5	61.2	49.5	26.2	20.4	13.6	14.6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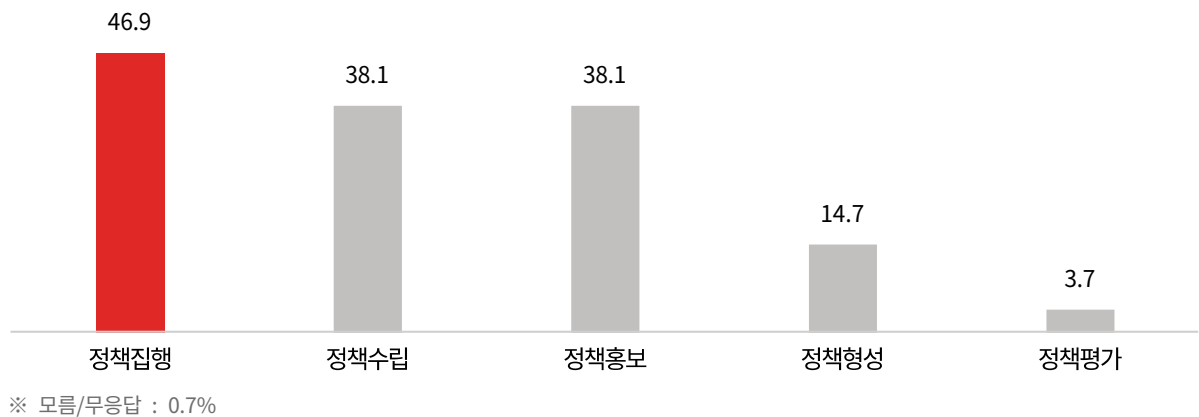
구분		산업/ 중소기업	보건	농림해양 수산	과학기술	통일/외교	국방	통신
중앙부처 및 지자체		9.2	4.8	3.7	1.8	1.8	1.1	0.4
지자체	시/도	22.2	0.0	5.6	5.6	0.0	0.0	0.0
	시/군/구	6.7	3.6	3.1	1.3	1.3	0.4	0.4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6.7	33.3	0.0	0.0	0.0	0.0	0.0
	3천억 원 미만	0.0	6.7	0.0	0.0	0.0	0.0	0.0
	5천억 원 미만	6.9	4.0	6.9	1.0	1.0	1.0	1.0
	5천억 원 이상	9.7	0.0	1.0	1.9	1.9	0.0	0.0

## 6)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 공공정책에서 디자인이 활용되는 단계를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46.9%가 ‘정책집행’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책수립’ 및 ‘정책홍보’(38.1%), ‘정책형성’(14.7%), ‘정책평가’(3.7%)의 순으로 나타남.

### »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 단계

(단위: %, 중복응답)



- 정부기관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자체는 ‘정책집행’(49.8%)의 단계에서 디자인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반면, 중앙부처는 ‘정책홍보’(75.0%)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가 있는 정부 기관의 경우 58.5%로 ‘정책집행’의 응답이 높은 반면, 디자이너만 있거나 전담부서가 없는 정부 기관의 경우에는 ‘정책홍보’(각각 42.6%, 45.8%)가 가장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단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홍보	정책형성	정책평가
중앙부처 및 지자체		46.9	38.1	38.1	14.7	3.7
구분	지자체	49.8	41.1	33.2	14.9	3.3
	중앙부처	25.0	15.6	75.0	12.5	6.3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58.5	42.5	27.4	17.9	3.8
	디자이너만 있음	38.3	31.9	42.6	19.1	6.4
	없음	40.0	36.7	45.8	10.0	2.5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정책집행’의 비중은 시/도(50.0%)와 시/군/구(49.8%)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정책수립’은 시/도(50.0%), ‘정책홍보’는 시/군/구(3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 예산별 살펴본 결과, 2천억 원 미만의 지자체는 ‘정책수립’(66.7%)의 비중이 높았고, 그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는 ‘정책집행’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5천억 원 이상에서 ‘정책집행’(59.2%) 비중이 높음.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공공정책의 디자인 활용단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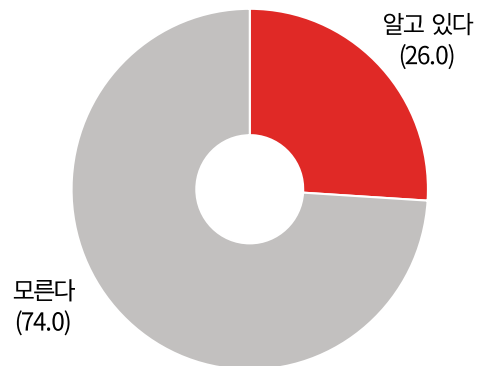
구분		정책집행	정책수립	정책홍보	정책형성	정책평가
지자체		46.9	38.1	38.1	14.7	3.7
지자체	시/도	50.0	50.0	22.2	16.7	5.6
	시/군/구	49.8	40.4	34.1	14.8	3.1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33.3	66.7	33.3	16.7	0.0
	3천억 원 미만	46.7	40.0	40.0	6.7	0.0
	5천억 원 미만	41.6	38.6	37.6	14.9	5.0
	5천억 원 이상	59.2	42.7	27.2	17.5	2.9

## 7)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6.0%만이 NCS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 정부기관별 NCS 인지도는 중앙부처(43.8%)가 지자체(23.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NCS 인지도는 전담부서가 있을 경우 35.8%, 다자이너만 있을 경우 27.7%,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16.7%로 나타나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 인지도 차이를 보임.

###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0	74.0
구분	지자체	23.7	76.3
	중앙부처	43.8	56.3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35.8	64.2
	디자인너만 있음	27.7	72.3
	없음	16.7	83.3

- 지자체 규모별 NCS 인지도는 시/도(44.4%)가 시/군/구(22.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예산별 NCS 인지도는 5천억 원 이상(30.1%), 3천억 원 미만(23.3%), 5천억 원 미만(16.8%), 2천억 원 미만(16.7%) 순으로 나타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인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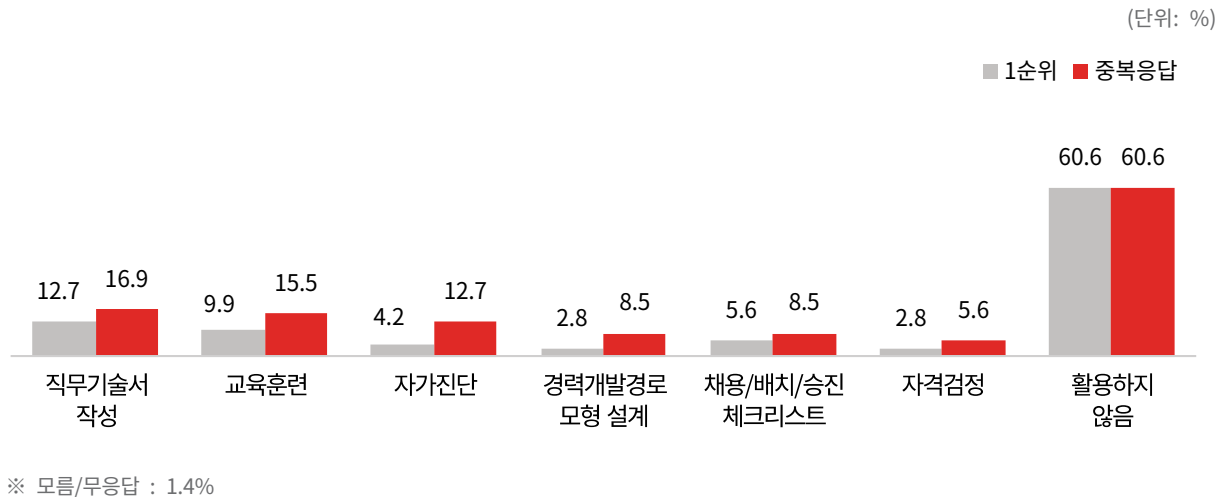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26.0	74.0
지자체	시/도	44.4	55.6
	시/군/구	22.0	78.0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6.7	83.3
	3천억 원 미만	23.3	76.7
	5천억 원 미만	16.8	83.2
	5천억 원 이상	30.1	69.9



## 7-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업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기준),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남. 반면, 활용 업무는 ‘직무기술서 작성’(16.9%), ‘교육훈련’(15.5%), ‘자가진단’(12.7%),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8.5%),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8.5%), ‘자격검정’(5.6%) 순으로 나타남. 1순위 응답에서도 ‘직무기술서 작성’(12.7%)에 대한 활용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 정부기관별 NCS 업무 활용도는 지자체보다는 중앙부처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활용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교육훈련’(15.8%), ‘직무기술서 작성’(14.0%), ‘자가진단’(14.0%) 등의 순으로 높았고, 중앙부처는 ‘직무기술서 작성’,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 ‘자격검정’이 각각 28.6%로 높은 활용도를 보임. 한편, NCS 업무 활용도는 전담부서가 없을 경우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활용 업무를 살펴보면,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 기술서 작성’(18.4%),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에는 ‘직무 기술서 작성’(15.4%)과 ‘자가진단’(15.4%), 모두 없을 경우에는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25.0%)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직무 기술서 작성	교육훈련	자가진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채용/ 배치/ 승진 체크 리스트	자격검정	활용하지 않음
중앙부처 및 지자체		16.9	15.5	12.7	8.5	8.5	5.6	60.6
구분	지자체	14.0	15.8	14.0	7.0	3.5	0.0	66.7
	중앙부처	28.6	14.3	7.1	14.3	28.6	28.6	35.7
전담 부서	전담부서 있음	18.4	15.8	15.8	7.9	0.0	2.6	60.5
	디자이너만 있음	15.4	7.7	15.4	0.0	7.7	0.0	76.9
	없음	15.0	20.0	5.0	15.0	25.0	15.0	50.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군/구 단위의 활용도가 시/도 단위의 활용도 대비 높은 가운데, 시/군/구 단위에서는 ‘교육훈련’(16.3%)에 대한 비중이 높았고, 시/도 단위에서는 ‘직무 기술서 작성’(25.0%), ‘자가진단’(25.0%),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25.0%)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산별로 살펴보면, 예산이 많을수록 NCS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활용 업무를 살펴본 결과, 5천억 원 이상에서는 ‘자가진단’(19.4%), 5천억 원 미만에서는 ‘직무 기술서 작성’(17.6%), 3천억 원 미만에서는 ‘교육훈련’(14.3%), ‘채용/배치/승진 체크리스트’(14.3%)에 대한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한편, 2천억 원 미만에서는 NCS 업무를 100.0%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업무 활용도**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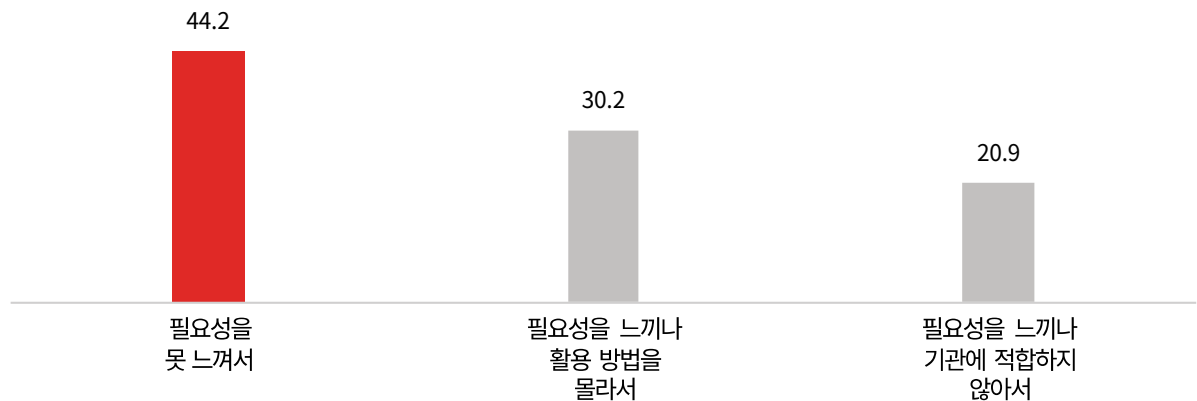
구분		직무 기술서 작성	교육훈련	자가진단	경력개발 경로 모형 설계	채용/ 배치/ 승진 체크 리스트	자격검정	활용하지 않음
지자체		16.9	15.5	12.7	8.5	8.5	5.6	60.6
지자체	시/도	25.0	12.5	25.0	25.0	0.0	0.0	50.0
	시/군/구	12.2	16.3	12.2	4.1	4.1	0.0	69.4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0.0	0.0	0.0	0.0	0.0	0.0	100.0
	3천억 원 미만	0.0	14.3	0.0	0.0	14.3	0.0	71.4
	5천억 원 미만	17.6	11.8	11.8	11.8	0.0	0.0	70.6
	5천억 원 이상	16.1	16.1	19.4	6.5	3.2	0.0	64.5

## 7-2)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44.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30.2%),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20.9%) 순으로 나타남.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모름/무응답 : 4.7%

- 정부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자체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44.7%)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중앙부처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40.0%) 외에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40.0%)에 대한 비율도 높게 나타남.

전담부서별로는 전담부서 유무와 관계없이 ‘필요성을 못 느껴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구분별/전담부서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44.2	30.2	20.9
구분	지자체	44.7	28.9	21.1
	중앙부처	40.0	40.0	20.0
전담부서	전담부서 있음	43.5	26.1	26.1
	디자이너만 있음	40.0	40.0	10.0
	없음	50.0	30.0	20.0

- 지자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모두 ‘필요성을 못 느껴서’(각각 50.0%, 44.1%)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예산별로 살펴보면, 모든 예산 수준에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예산 수준이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지자체별/지자체예산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구분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지자체		44.2	30.2	20.9
지자체	시/도	50.0	0.0	50.0
	시/군/구	44.1	32.4	17.6
지자체 예산	2천억 원 미만	100.0	0.0	0.0
	3천억 원 미만	60.0	40.0	0.0
	5천억 원 미만	41.7	16.7	25.0
	5천억 원 이상	40.0	35.0	25.0



### part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 **제 4 장    교육통계(문헌조사)**





## 04. 교육통계(문헌조사)

### 교육통계(문헌조사)

#### 1.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및 학과 현황<sup>20)</sup>

- 2018년 대학(원)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는 총 430개로 나타남. 그 중 학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241개로 가장 많고, 석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134개, 박사 과정에 디자인학과가 있는 학교는 총 55개로 나타남.

#### » 학교별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보유 학교 수

(단위: 개)

구분	학교 수			
	학사	석사	박사	계
총계	241	134	55	430
전문대학	84	-	-	84
대학교	129	-	-	129
산업대학	2	-	-	2
각종대학(대학)	1	-	-	1
일반대학원	-	134	55	189
사이버대학(대학)	10	-	-	10
전공대학	1	-	-	1
기능대학	14	-	-	14

20) 조사기준일: 2018. 4. 1

디자인 관련 학과: 요청 시 첨부한 학과리스트 기준  
분교 및 캠퍼스가 포함된 학교 수임.

폐교는 제외됨.

개설된 학과가 1개 이상인 학교 기준임.

개설된 학과는 재적학생 수가 1명 이상인 학과 기준임.

한 학교에 2개 이상의 학과가 개설되어있을 경우, 1개의 학교로 카운트됨. 각 과정별로는 중복 카운트됨.

- 디자인 관련 학과 수는 학부, 석·박사 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총 1,200개로 나타남.  
학부과정의 디자인학과 수는 889개, 석사과정은 231개, 박사과정은 80개임.
- 학교 구분별로는 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수가 494개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문대학(340개), 일반대학원(311개)등의 순으로 나타남.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의 디자인학과 수가 223개로 가장 많고, 제품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176개), 시각 디자인(183개), 디자인 일반(162개) 등의 순임.

## **» 학교 구분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2018년 대학(원)의 디자인학과 수**

(단위: 개)

구분		디자인학과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b>총합계</b>		<b>889</b>	<b>231</b>	<b>80</b>	<b>1,200</b>
<b>학교 구분별</b>	전문대학	340	-	-	340
	대학교	494	-	-	494
	산업대학	19	-	-	19
	각종대학(대학)	1	-	-	1
	일반대학원	-	231	80	311
	사이버대학(대학)	14	-	-	14
	전공대학	2	-	-	2
	기능대학	19	-	-	19
<b>디자인 특수 분류별</b>	디자인 일반	82	51	29	162
	제품 디자인	116	32	7	155
	시각 디자인	155	22	6	18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23	20	4	147
	공간 디자인	146	24	6	17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74	41	8	223
	서비스/경험 디자인	25	13	9	47
	산업공예 디자인	48	19	7	74
	디자인 인프라	20	9	4	33

## 2. 대학(원) 디자인학과 학생 현황

### 1) 재적학생 수<sup>21)</sup>

- 2018년 대학(원) 내 디자인학과 재적학생은 108,341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생은 103,153명, 석사과정은 4,122명, 박사과정은 1,066명으로 나타남.

### » 2018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103,153	4,122	1,066	108,341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32,245	-	-	32,245
	대학교	63,060	-	-	63,060
	산업대학	578	-	-	578
	각종대학(대학)	142	-	-	142
	일반대학원	-	4,122	1,066	5,188
	사이버대학(대학)	3,665	-	-	3,665
	전공대학	1,027	-	-	1,027
	기능대학	2,436	-	-	2,436

- 성별로는 여학생이 65,950명으로 남학생(42,391명)보다 많고, 산업대학 및 기능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서 여학생 수가 남학생 수를 앞서고 있음.

### » 2018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디자인학과 재적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적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40,709	62,444	1,261	2,861	421	645	42,391	65,950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5,402	16,843	-	-	-	-	15,402	16,843
	대학교	21,351	41,709	-	-	-	-	21,351	41,709
	산업대학	350	228	-	-	-	-	350	228
	각종대학(대학)	47	95	-	-	-	-	47	95
	일반대학원	-	-	1,261	2,861	421	645	1,682	3,506
	사이버대학(대학)	1,183	2,482	-	-	-	-	1,183	2,482
	전공대학	415	612	-	-	-	-	415	612
	기능대학	1,961	475	-	-	-	-	1,961	475

21) 조사기준일: 2018. 4. 1

## 2) 재학생 수<sup>22)</sup>

- 2018년 디자인학과 총 재학생 수는 79,192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재학생 수는 74,952명, 석사과정 재학생 수는 3,367명, 박사과정 재학생 수는 873명임.

학교 구분별로는 절반 이상이 대학교의 디자인학과 재학생(47,681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대학(21,613)이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디자인학과 재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74,952	3,367	873	79,192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21,613	-	-	21,613
	대학교	47,681	-	-	47,681
	산업대학	419	-	-	419
	각종대학(대학)	93	-	-	93
	일반대학원	-	3,367	873	4,240
	사이버대학(대학)	2,858	-	-	2,858
	전공대학	702	-	-	702
	기능대학	1,586	-	-	1,586

- 성별로는 여자 재학생 수는 55,019명, 남자 재학생 수는 24,173명으로 나타남.

학교 구분별로는 산업대학과 기능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여자 재학생 수가 남자 재학생 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디자인학과 재학생 수

(단위: 명)

구분		재학생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22,831	52,121	1,000	2,367	342	531	24,173	55,019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7,356	14,257	-	-	-	-	7,356	14,257
	대학교	12,980	34,701	-	-	-	-	12,980	34,701
	산업대학	213	206	-	-	-	-	213	206
	각종대학(대학)	22	71	-	-	-	-	22	71
	일반대학원	-	-	1,000	2,367	342	531	1,342	2,898
	사이버대학(대학)	885	1,973	-	-	-	-	885	1,973
	전공대학	208	494	-	-	-	-	208	494
	기능대학	1,167	419	-	-	-	-	1,167	419

22) 조사기준일: 2018. 4. 1

### 3) 입학자 수<sup>23)</sup>

- 2017년 디자인학과 총 입학자 수는 25,292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입학자 수는 23,225명, 석사과정 입학자 수는 1,631명, 박사과정 입학자 수는 436명임.

- 학교 구분별로는 일반대학(10,679명), 전문대학(10,349명)의 입학자가 주를 이루고 있음.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가 4,8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일반(4,629명), 공간 디자인(3,802명), 시각 디자인(3,427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3,15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8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단위: 명)

구분		입학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23,225	1,631	436	25,292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0,349	-	-	10,349
	대학교	10,679	-	-	10,679
	산업대학	94	-	-	94
	각종대학(대학)	21	-	-	21
	일반대학원	-	1,631	436	2,067
	사이버대학(대학)	804	-	-	804
	전공대학	412	-	-	412
	기능대학	866	-	-	866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3,804	631	194	4,629
	제품 디자인	2,315	143	40	2,498
	시각 디자인	3,274	136	17	3,427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071	79	8	3,158
	공간 디자인	3,645	146	11	3,80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638	186	21	4,845
	서비스/경험 디자인	793	89	39	921
	산업공예 디자인	841	61	72	974
	디자인 인프라	844	160	34	1,038

23) 2018년 3월 입학자 기준

- 성별로는 여학생 입학자 수가 17,103명으로 남학생 입학자 수(8,189명) 대비 2배 가량 많음.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 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디자인 분류에서 여학생 입학자 수가 남학생 입학자 수에 비해 많음.

## » 2018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입학자 수

(단위: 명)

구분		입학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b>총합계</b>		<b>7,497</b>	<b>15,728</b>	<b>508</b>	<b>1,123</b>	<b>184</b>	<b>252</b>	<b>8,189</b>	<b>17,103</b>
<b>학교 구분별</b>	전문대학	3,523	6,826					3,523	6,826
	대학교	2,909	7,770					2,909	7,770
	산업대학	57	37					57	37
	각종대학(대학)	6	15					6	15
	일반대학원			508	1,123	184	252	692	1,375
	사이버대학(대학)	255	549					255	549
	전공대학	126	286					126	286
	기능대학	621	245					621	245
<b>디자인 특수 분류별</b>	디자인 일반	1,132	2,672	167	464	76	118	1,375	3,254
	제품 디자인	793	1,522	68	75	22	18	883	1,615
	시각 디자인	844	2,430	45	91	12	5	901	2,52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65	2,106	35	44	3	5	1,003	2,155
	공간 디자인	1,657	1,988	49	97	5	6	1,711	2,09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55	3,683	15	171	2	19	972	3,873
	서비스/경험 디자인	279	514	37	52	16	23	332	589
	산업공예 디자인	213	628	18	43	29	43	260	714
	디자인 인프라	659	185	74	86	19	15	752	286

※ 조사기준일 : 2018년 4월 1일

#### 4) 졸업자 수<sup>24)</sup>

- 2017년 디자인학과 총 졸업자 수는 22,709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졸업자 수는 22,093명, 석사과정 졸업자 수는 483명, 박사과정 졸업자 수는 133명임.

- 학교 구분별로는 일반대학교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11,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9,889명)이 다음으로 나타남.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4,748명으로 가장 많고, 시각 디자인(3,990명), 제품 디자인(3,541명) 등의 순임.

#### » 2017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계열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22,093	483	133	22,709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9,889	-	-	9,889
	대학교	11,120	-	-	11,120
	산업대학	279	-	-	279
	각종대학(대학)	28	-	-	28
	일반대학원	-	483	133	616
	기능대학	777	-	-	777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1,493	182	41	1,716
	제품 디자인	3,475	53	13	3,541
	시각 디자인	3,962	27	1	3,990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3,093	25	8	3,126
	공간 디자인	3,444	24	6	3,47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748	37	6	4,791
	서비스/경험 디자인	312	40	1	353
	산업공예 디자인	1,027	17	57	1,101
	디자인 인프라	539	78	-	617

- 성별로는 여학생 졸업자 수가 17,243명으로 남학생 졸업자 수(6,960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남.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 인프라(남학생 졸업자 수: 585명, 여학생 졸업자 수: 193명)를 제외한 모든 분류의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2018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졸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졸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b>총합계</b>		<b>6,284</b>	<b>1,5809</b>	<b>109</b>	<b>374</b>	<b>52</b>	<b>81</b>	<b>6,445</b>	<b>16,264</b>
<b>학교 구분별</b>	전문대학	3,027	6,862	-	-	-	-	3,027	6,862
	대학교	2,595	8,525	-	-	-	-	2,595	8,525
	산업대학	143	136	-	-	-	-	143	136
	각종대학(대학)	5	23	-	-	-	-	5	23
	일반대학원	-	-	109	374	52	81	161	455
	기능대학	514	263	-	-	-	-	514	263
<b>디자인 특수 분류별</b>	디자인 일반	393	1,100	33	149	18	23	444	1,272
	제품 디자인	1,150	2,325	19	34	6	7	1,175	2,366
	시각 디자인	952	3,010	4	23	0	1	956	3,03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31	2,162	10	15	5	3	946	2,180
	공간 디자인	1,251	2,193	5	19	1	5	1,257	2,217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827	3,921	3	34	2	4	832	3,959
	서비스/경험 디자인	111	201	20	20	1	0	132	221
	산업공예 디자인	176	851	4	13	19	38	199	902
	디자인 인프라	493	46	11	67			504	113

※ 조사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5) 취업자 수<sup>25)</sup>

- 2017년 디자인학과 총 취업자 수는 13,427명으로 나타남.

그 중 학부 취업자 수는 13,121명, 석사과정 취업자 수는 217명, 박사과정 취업자 수는 89명이었음.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가 2,957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각 디자인(2,309명), 공간 디자인(2,092명), 제품 디자인(2,091명),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1,79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2017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취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13,121	217	89	13,427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5,837	-	-	5,837
	대학교	6,542	-	-	6,542
	산업대학	163	-	-	163
	각종대학(대학)	20	-	-	20
	일반대학원	-	217	89	306
	기능대학	559	-	-	559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829	67	25	921
	제품 디자인	2,053	27	11	2,091
	시각 디자인	2,294	14	1	2,309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771	12	7	1,790
	공간 디자인	2,076	12	4	2,09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940	14	3	2,957
	서비스/경험 디자인	190	22	1	213
	산업공예 디자인	582	10	37	629
	디자인 인프라	386	39	-	425

25)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임.

- 일반대학원 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조사에서 제외됨

- 성별로는 여학생 취업자 수가 9,615명으로 남학생 취업자 수(3,812명) 대비 2배 이상 많음.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서비스/경험 디자인과 디자인 인프라 분야에서는 디자인학과 남학생 취업자 수가 여학생에 비해 많고, 그 외 모든 분류에서 여학생 취업자 수가 남학생 대비 많음.

## ▶▶ 2017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명)

구분		취업자 수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총합계		3,729	9,392	47	170	36	53	3,812	9,615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1,717	4,120	-	-	-	-	1,717	4,120
	대학교	1,560	4,982	-	-	-	-	1,560	4,982
	산업대학	84	79	-	-	-	-	84	79
	각종대학(대학)	4	16	-	-	-	-	4	16
	일반대학원	-	-	47	170	36	53	83	223
	기능대학	364	195	-	-	-	-	364	195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220	609	11	56	12	13	243	678
	제품 디자인	684	1369	8	19	5	6	697	1394
	시각 디자인	533	1761	2	12	0	1	535	177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524	1247	3	9	4	3	531	1259
	공간 디자인	759	1317	3	9	1	3	763	1329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498	2442	1	13	1	2	500	2457
	서비스/경험 디자인	68	122	9	13	1	-	78	135
	산업공예 디자인	86	496	3	7	12	25	101	528
	디자인 인프라	357	29	7	32	-	-	364	61

※ 조사기준일 : 2017년 12월 31일

## 6) 취업률<sup>26)</sup>

- 2017년 디자인학과 졸업자의 취업률은 64.9%로 나타남.

학위별로는 박사과정(73.6%), 석사과정 취업률(66.6%), 학부과정(64.9%) 순으로 나타남.

- 학교 구분별로는 학부 내 기능대학(대학)의 취업률이 79.9%로 가장 높고, 각종대학(대학)(71.4%), 일반대학원(68.5%), 전문대학(6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로는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학과 취업률이 76.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서비스/경험 디자인(68.3%)이 뒤를 이음.

## » 2017년 대학(원)의 학교 구분별 & 디자인산업 특수분류별 디자인학과 취업자 수

(단위: %)

구분		취업률			
		학부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총합계		64.9	66.6	73.6	64.9
학교 구분별	전문대학	66.3	-	-	66.3
	대학교	62.8	-	-	62.8
	산업대학	59.7	-	-	59.7
	각종대학(대학)	71.4	-	-	71.4
	일반대학원	-	66.6	73.6	68.5
	기능대학	79.9	-	-	79.9
디자인 특수 분류별	디자인 일반	61.4	57.8	75.8	61.4
	제품 디자인	64.5	81.8	91.7	64.8
	시각 디자인	62.6	73.7	100.0	62.6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62.8	80.0	87.5	62.9
	공간 디자인	67.1	85.7	66.7	67.2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66.7	63.6	50.0	66.6
	서비스/경험 디자인	67.6	73.3	100.0	68.3
	산업공예 디자인	63.0	66.7	68.5	63.3
	디자인 인프라	77.8	62.9	-	76.2

26) 취업률: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제외인정자+외국인유학생))\*100

취업자는 조사 기준일(12월 31일) 당시 건강보험가입 취업자, 교내취업자, 해외취업자, 농림어업종사자, 개인창작활동종사자, 1인창(사)업자, 프리랜서임.

- 일반대학원 외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조사에서 제외됨

part3 국내 디자인산업 통계조사 결과



## **제 5 장    부록**



## 1. 표본 설계

## 1) 디자인 활용업체(일반업체) 조사

## (1) 모집단 분석

## ① 모집단

-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중 디자인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5인 이상인 사업체를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함. 종사자수 4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하여 4인 이하는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에서 제외함.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중 1-7-1 제품 디자인, 2-5-6 시각 디자인, 4-10-1 인테리어 디자인, 5-5-1 기타패션텍스타일 디자인 등 전문디자인업체 전체와 8-3-2 행정서비스 중 지자체 및 중앙부처, 8-3-3 교육 서비스 중 대학은 타 조사영역과 중복되므로 제외함.

## ② 모집단 특성

-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DB(한국통계진흥원)를 이용하여 업종별/규모별 사업체수를 파악함. 전체 조사 대상 사업체 수는 364,139개임. 업종별 사업체는 제품 디자인 52,913개(14.5%), 시각 디자인 19,683개(5.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7,986개(2.2%), 공간 디자인 80,534개(22.1%),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13,608개(3.7%), 서비스/경험 디자인 70,266개(19.3%), 산업공예 디자인 18,712개(5.1%),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100,437(27.6%)개임.
- 종사자수별로는 5-9인 197,442개(54.2%), 10-19인 91,247개(25.1%), 20-49인 50,352개(13.8%), 50-99인 15,032개(4.1%), 100-299인 8,004개(2.2%), 300인 이상 2,062(0.6%)개임.

## » 디자인 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

대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총계	197,442	91,247	50,352	15,032	8,004	2,062	364,139
제품 디자인	27,166	10,956	9,385	3,208	1,769	429	52,913
시각 디자인	11,697	3,786	2,748	846	525	81	19,683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4,093	2,096	1,193	381	190	33	7,986
공간 디자인	41,494	23,504	10,595	2,670	1,702	569	80,534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9,307	2,547	1,284	325	126	19	13,608
서비스/경험 디자인	33,923	21,544	10,296	2,697	1,482	324	70,266
산업공예 디자인	11,560	3,999	2,468	462	203	20	18,712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58,202	22,815	12,383	4,443	2,007	587	100,437

» 디자인 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모집단 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97,442	91,247	50,352	15,032	8,004	2,062	364,139
1	1-1	1-1-1	의료기기 디자인	1,211	342	237	77	50	2	1,919
1	1-1	1-1-2	컴퓨터 및 모니터 디자인	101	41	38	10	7	-	197
1	1-1	1-1-3	컴퓨터주변기기 디자인	130	70	57	11	10	1	279
1	1-1	1-1-4	유무선통신기기 및 통신장비 디자인	717	339	304	102	55	16	1,533
1	1-1	1-1-5	영상기기 디자인	193	70	69	24	16	5	377
1	1-1	1-1-6	음향기기 디자인	175	77	84	18	16	10	380
1	1-1	1-1-7	방송용 장비/기기 디자인	282	111	99	25	17	5	539
1	1-1	1-1-8	생활가전 및 주방가전 디자인	1,420	662	529	141	70	21	2,843
1	1-1	1-1-9	사무기기 디자인	113	68	40	15	9	2	247
1	1-1	1-1-10	조명기기 디자인	751	240	167	42	11	-	1,211
1	1-1	1-1-11	전기장비 및 특수용도조명 등 디자인	3,249	1,147	884	259	146	30	5,715
1	1-2	1-2-1	공구 디자인	686	238	176	35	24	6	1,165
1	1-2	1-2-2	약기 디자인	16	5	3	3	1	-	28
1	1-2	1-2-3	측정, 시험,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디자인	1,415	583	359	95	49	4	2,505
1	1-2	1-2-4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 관련 디자인	2,065	867	748	309	216	92	4,297
1	1-2	1-2-5	로봇 디자인	123	78	50	18	8	-	277
1	1-2	1-2-6	시계 디자인	26	5	4	-	-	-	35
1	1-3	1-3-1	안경 및 광학기기 디자인	251	71	73	38	20	3	456
1	1-3	1-3-2	완구 디자인	136	35	19	3	4	-	197
1	1-3	1-3-3	스포츠/레저용품 디자인	147	54	24	5	2	-	232
1	1-3	1-3-4	사무/화화용품 디자인	82	18	20	8	2	-	130
1	1-3	1-3-5	위생용품 디자인	86	24	22	2	5	1	140
1	1-3	1-3-6	용기(用器) 디자인	39	16	25	7	3	-	90
1	1-3	1-3-7	생활용품 디자인	870	303	210	38	11	-	1,432
1	1-3	1-3-8	종이 및 판지제품 디자인	1,608	691	481	112	36	8	2,936
1	1-3	1-3-9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디자인	4,497	2,000	1,826	510	253	53	9,139
1	1-4	1-4-1	자동차 디자인	2,044	981	1,324	641	327	78	5,395
1	1-4	1-4-2	요트/선박 디자인	634	293	362	313	211	12	1,825
1	1-4	1-4-3	기차 디자인	-	3	3	2	2	1	11
1	1-4	1-4-4	항공/우주선 디자인	17	3	1	2		2	25
1	1-4	1-4-5	바이크 디자인	57	15	9	2	1	-	84
1	1-4	1-4-6	기타운송기기 디자인	372	243	218	53	15	3	904
1	1-5	1-5-1	리빙가구 디자인	271	62	44	4	2	-	383
1	1-5	1-5-2	주방가구 디자인	763	156	106	11	11	1	1,048
1	1-5	1-5-3	의료가구 디자인	41	9	13	1	-	-	64
1	1-5	1-5-4	기타 가구 디자인	2,149	650	375	59	24	2	3,259
1	1-6	1-6-1	제조업회사본부 디자인	429	386	382	213	135	71	1,616
2	2-1	2-1-1	일반서적편집 디자인	1,481	534	286	49	35	9	2,394
2	2-1	2-1-2	신문/잡지편집 디자인	570	239	151	56	41	11	1,068
2	2-1	2-1-3	기타 인쇄물편집 디자인	761	133	58	10	9	-	97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97,442	91,247	50,352	15,032	8,004	2,062	364,139
2	2-2	2-2-1	축·수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1,673	771	667	189	99	9	3,408
2	2-2	2-2-2	농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1,189	388	269	60	22	1	1,929
2	2-2	2-2-3	낙농품 및 빙과류패키지그래픽 디자인	37	20	37	24	28	5	151
2	2-2	2-2-4	떡, 빵, 과자, 면류패키지그래픽 디자인	1,083	330	258	86	53	17	1,827
2	2-2	2-2-5	기타 식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1,423	457	376	139	69	6	2,470
2	2-2	2-2-6	음료패키지그래픽 디자인	112	42	59	30	28	3	274
2	2-2	2-2-7	의약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220	90	131	90	92	13	636
2	2-3	2-3-1	화학제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509	183	193	74	36	6	1,001
2	2-3	2-3-2	미디어상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64	23	5	4	2	1	99
2	2-4	2-4-1	신문·잡지 및 기타인쇄물광고 디자인	461	139	34	1	-	-	635
2	2-4	2-4-2	옥외인쇄물광고 디자인	856	110	75	10	-	-	1,051
2	2-5	2-5-1	일러스트레이션	16	15	20	6	2	-	59
2	2-5	2-5-2	아이덴티티 디자인	472	113	58	6	2	-	651
2	2-5	2-5-3	캐릭터 디자인	561	140	48	11	5	-	765
2	2-5	2-5-4	타이포그래피	145	47	18	1	2	-	213
2	2-5	2-5-5	사진 디자인	64	12	5	-	-	-	81
3	3-1	3-1-1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영상 디자인	285	117	34	7	2	-	445
3	3-1	3-1-2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영상 디자인	680	258	229	110	22	1	1,300
3	3-1	3-1-3	방송프로그램영상 디자인	237	101	63	17	7	1	426
3	3-1	3-1-4	애니메이션 디자인	99	84	49	12	10	-	254
3	3-1	3-1-5	공간영상 디자인	147	47	17	3	1	-	215
3	3-2	3-2-1	웹사이트 디자인	949	495	226	59	34	3	1,766
3	3-2	3-2-2	온라인광고 디자인	893	482	231	55	31	5	1,697
3	3-3	3-3-1	온라인/모바일게임 디자인	358	264	173	57	44	16	912
3	3-3	3-3-2	기타 게임 디자인	64	41	23	3	5	-	136
3	3-5	3-5-1	디지털DB소스 디자인	221	117	75	35	17	4	469
3	3-5	3-5-2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60	90	73	23	17	3	366
4	4-1	4-1-1	인테리어 디자인	5,541	2,349	656	171	182	49	8,948
4	4-1	4-1-2	건축 디자인	2,859	1,271	631	185	104	34	5,084
4	4-1	4-1-3	실내조경 디자인	46	16	4	-	1	-	67
4	4-2	4-2-1	인테리어코디네이션	85	24	23	5	3	-	140
4	4-2	4-2-2	실내조명 디자인	4,401	2,606	1,081	217	113	20	8,438
4	4-3	4-3-1	전시 디자인	541	229	91	22	9	4	896
4	4-3	4-3-2	무대 디자인	527	292	277	87	21	4	1,208
4	4-4	4-4-1	목재자재 디자인	406	105	83	12	9	-	615
4	4-4	4-4-2	플라스틱자재 디자인	891	376	234	45	16	3	1,565
4	4-4	4-4-3	금속자재 디자인	2,106	742	477	76	27	2	3,430
4	4-4	4-4-4	기타자재 디자인	2,201	999	415	72	34	9	3,730
4	4-5	4-5-1	환경 디자인	270	78	42	6	2	-	398
4	4-5	4-5-2	경관 디자인	199	100	25	7	2	1	334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97,442	91,247	50,352	15,032	8,004	2,062	364,139
4	4-5	4-5-3	예술장식품 디자인	206	116	25	6	3	-	356
4	4-6	4-6-1	조경 디자인	1,397	795	211	46	16	1	2,466
4	4-6	4-6-2	놀이터/공원 디자인	49	15	11	1	-	-	76
4	4-7	4-7-1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디자인	1,892	1,241	598	180	100	41	4,052
4	4-7	4-7-2	상업 및 기타 건축물리모델링 디자인	1,539	1,579	748	201	94	15	4,176
4	4-8	4-8-1	건축물축조 디자인	3,699	2,218	730	206	184	97	7,134
4	4-8	4-8-2	건축물설비 디자인	4,230	2,747	1,028	224	168	56	8,453
4	4-8	4-8-3	건축물유지관리서비스 디자인	1,872	1,181	1,056	434	338	145	5,026
4	4-9	4-9-1	도로 및 교량 디자인	2,130	1,142	660	153	69	23	4,177
4	4-9	4-9-2	토목환경 디자인	4,042	3,062	1,335	299	201	65	9,004
4	4-9	4-9-3	토목지질환경 디자인	365	221	154	15	6	-	761
5	5-1	5-1-1	남성복 디자인	177	57	48	14	16	2	314
5	5-1	5-1-2	여성복 디자인	1,121	192	110	18	16	8	1,465
5	5-1	5-1-3	유아동복 디자인	128	45	26	4	3	-	206
5	5-1	5-1-4	모피 디자인	88	20	9	3	1	-	121
5	5-1	5-1-5	전통복식 디자인	72	7	2	-	-	-	81
5	5-2	5-2-1	스포츠웨어 디자인	1,927	609	195	38	11	1	2,781
5	5-2	5-2-2	근무복, 캐주얼웨어 디자인	792	155	72	20	4	1	1,044
5	5-2	5-2-3	테크니컬웨어, 아우터웨어 디자인	228	36	10	1	-	-	275
5	5-2	5-2-4	이너웨어 디자인	412	150	49	8	11	4	634
5	5-3	5-3-1	인테리어텍스타일 디자인	641	164	85	18	10	1	919
5	5-3	5-3-2	직물 디자인	91	41	24	4	-	-	160
5	5-3	5-3-3	편물 디자인	848	210	78	11	3	-	1,150
5	5-3	5-3-4	프린팅 디자인	489	211	241	106	25	-	1,072
5	5-3	5-3-5	기타 페브릭 디자인	261	151	97	21	7	-	537
5	5-4	5-4-1	패션악세서리 디자인	532	132	51	13	4	2	734
5	5-4	5-4-2	슈즈 디자인	367	168	93	27	6	-	661
5	5-4	5-4-3	가방 디자인	569	103	37	9	5	-	723
5	5-4	5-4-4	기타 잡화 디자인	564	96	57	10	4	-	731
6	6-1	6-1-1	보건의료서비스 디자인	4,479	3,472	3,224	881	362	39	12,457
6	6-1	6-1-2	여가/레저서비스 디자인	1,271	644	442	143	86	7	2,593
6	6-1	6-1-3	교육서비스 디자인	152	75	36	13	5	3	284
6	6-1	6-1-4	커뮤니티서비스 디자인	331	184	162	34	15	1	727
6	6-1	6-1-5	공공행정서비스 디자인	23,963	14,621	4,668	1,026	626	178	45,082
6	6-2	6-2-1	휴먼인터랙션 디자인	527	353	274	100	69	34	1,357
6	6-2	6-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디자인	2,435	1,630	1,014	295	188	31	5,593
6	6-2	6-2-3	디지털간행물 디자인	279	112	69	27	20	9	516
6	6-2	6-2-4	사용자인터페이스(UI) 디자인	80	59	38	15	12	1	205
6	6-2	6-2-5	기타 인터랙티브미디어 디자인	406	394	369	163	99	21	1,452
6	6-3	6-3-1	서비스/경영 디자인 컨설팅	-	-	-	-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197,442	91,247	50,352	15,032	8,004	2,062	364,139
7	7-1	7-1-1	금속단조 디자인	212	109	88	21	14	3	447
7	7-1	7-1-2	금속압형 디자인	1,300	349	327	80	32	1	2,089
7	7-1	7-1-3	금속주조 디자인	187	136	154	49	17	1	544
7	7-1	7-1-4	비철금속주조 디자인	224	80	73	18	5	-	400
7	7-1	7-1-5	커머셜주얼리 디자인	107	26	11	1	1	-	146
7	7-1	7-1-6	귀금속 디자인	269	61	30	7	3	2	372
7	7-1	7-1-7	금속표면장식 디자인	6,574	2,313	1,233	183	74	7	10,384
7	7-2	7-2-1	도자 디자인	119	20	19	3	3	-	164
7	7-2	7-2-2	건축도자 디자인	38	7	22	7	-	-	74
7	7-3	7-3-1	자수 디자인	238	39	10	2	-	-	289
7	7-3	7-3-2	매듭 디자인	195	58	38	4	1	-	296
7	7-3	7-3-3	염색 디자인	65	50	41	8	2	-	166
7	7-3	7-3-4	직조 디자인	815	346	205	30	21	-	1,417
7	7-4	7-4-1	대목 디자인	119	51	25	2	2	-	199
7	7-4	7-4-2	소목 디자인	201	43	12	1	1	-	258
7	7-5	7-5-1	나전·칠공예 디자인	150	66	67	27	17	6	333
7	7-5	7-5-2	유리공예 디자인	21	5	4	1	1	-	32
7	7-5	7-5-3	가죽공예 디자인	132	43	30	10	8	-	223
7	7-5	7-5-4	지물공예 디자인	164	122	60	6	1	-	353
7	7-5	7-5-5	석공예 디자인	430	75	19	2	-	-	526
8	8-1	8-1-1	디자인 목업 및 모형제작	2,686	891	590	127	42	-	4,336
8	8-1	8-1-2	컴퓨터응용모델링(CAD/CAM)	7	2	1	1	1	-	12
8	8-2	8-2-1	디자인 기획	1,203	571	266	60	43	5	2,148
8	8-2	8-2-2	디자인 연구 및 출판	2,159	1,103	726	207	105	14	4,314
8	8-3	8-3-1	법률서비스	1,525	686	273	44	21	8	2,557
8	8-3	8-3-2	행정서비스	86	73	58	15	13	7	252
8	8-3	8-3-3	교육서비스	12,508	4,458	3,757	2,427	1,204	427	24,781
8	8-3	8-3-4	디자인 마케팅 및 유통	31,828	13,132	6,015	1,350	482	97	52,904
8	8-3	8-3-5	디자인 관련 기관	6,033	1,745	601	164	60	4	8,607
8	8-3	8-3-6	기타 산업회사본부	167	154	96	48	36	25	526

## (2) 표본 설계

### ①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총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n = \frac{N(zs)^2}{Nd^2 + (zs)^2}$$

-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임(신뢰수준 95% 하에서  $z=1.96$ 임). 본 조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대분류 업종의 상대표본오차가 3% 이하가 되도록 하였고,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약 10,000개(모집단 크기 대비 약 3.0%)로 결정.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 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0.97P$ (단,  $p=0.5$ 로 가정함)임.

본 조사는 업종 및 종사자수를 고려한 총화추출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실제 표본오차가 이보다 조금 더 작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표본오차가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 ②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총화]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종사자수를 총화변수로 고려함.  
즉, 총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종: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소분류 154개 (디자인 활용업체의 해당 특수분류 150개, 전문디자인업체 분류 4개)
  - 종사자규모 :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 [표본 추출 방법]

- 디자인 활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차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1차 표본 중 약 일부를 2차 표본으로 추출하여 관심변수들을 조사하는 이중추출법(two-phase sampling) 사용함. 이는 디자인 활용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조사비용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임.

#### [표본 추출 단계]

- 1차 표본 배분: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할 경우 상당수의 층에 너무 작은 표본 크기가 할당되는 문제점이 발생. 따라서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업종별 모집단 크기가 50개 이하 또는 각 층별 조사 모집단 크기가 5개 이하인 경우 또는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인 업체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조사함.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2차 표본조사는 1차 표본조사에서 디자인 활용업체로 파악된 사업체를 조사 대상으로 약 1,000개의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된. 1차 조사결과 파악된 디자인 활용업체 수 추정치와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디자인 활용업체 실태조사 표본크기를 아래 표에 제시함.

### ③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업종별, 종사자수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일반업체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 오차를 계산함.

### [디자인 활용 여부 조사(1차 조사)]

- $N$  : 전체 조사 모집단크기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조사 모집단 크기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1차 조사 표본크기
- $m_{ij} = \sum_k x_{ijk}$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표본 중 디자인 활용업체 수
- 단,  $x_{ijk} = 1$  : 디자인 활용업체인 경우,  $x_{ijk} = 0$  : 디자인 활용업체가 아닌 경우

### ▶ 디자인 활용업체의 수

- 층별 :  $\hat{M}_{ij} = N_{ij} \times \frac{m_{ij}}{n'_{ij}}$
- 전체 :  $\hat{M} = \sum_i \sum_j \hat{M}_{ij} = \sum_i \sum_j \sum_k w'_{ijk} x_{ijk}$

### ▶ 디자인 활용업체의 비율

- 층별 :  $\hat{r}_{ij} = \hat{M}_{ij} / N_{ij}$
- 전체 :  $\hat{r} = \hat{M} / N$

### [실태조사 (2차 조사)]

- $y_{ijk}$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k$ 번째 표본 일반업체에 대한 관찰 값.
- $i$  : 업종의 번호( $i = 1, 2, \dots, I$ ). 단,  $I = 8$ .
- $j$  : 규모의 번호( $j = 1, 2, \dots, J$ ). 단,  $J = 6$ .
- $k$  : 권역/업종/규모 내의 표본 업체의 번호( $k = 1, 2, \dots, n_{ij}$ )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 층의 2차 조사 표본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 2차 조사 전체 표본크기
- $\bar{y}_{ij} = \sum_{k=1}^{n_{ij}} y_{ijk}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평균
- $\hat{\tau}_{ij} = \hat{M}_{ij} \bar{y}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 합
- $s_{ij}^2 = \sum_{k=1}^{n_{ij}} (y_{ijk} - \bar{y}_{ij})^2 / (n_{ij} - 1)$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분산
- $\hat{p}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비율
- 모비율 합  $\tau$ , 모평균  $\mu$ , 모비율  $p$ 에 대한 추정량

$$- \bar{\tau} = \sum_{i=1}^I \sum_{j=1}^J \hat{M}_{ij} \bar{y}_{ij} = \sum_{i=1}^I \sum_{j=1}^J \sum_{k=1}^{n_{ij}} w_{ijk} y_{ijk}$$

$$- \hat{\mu} = \sum_{i=1}^I \sum_{j=1}^J \frac{\hat{M}_{ij}}{\hat{M}} \bar{y}_{ij}$$

$$- \hat{p} = \sum_{i=1}^I \sum_{j=1}^J \frac{\hat{M}_{ij}}{\hat{M}} \hat{p}_{ij}$$

#### [분산에 대한 추정량]

$$- \widehat{Var}(\hat{\tau}_{ij}) = \hat{M}_{ij}^2 \left( 1 - \frac{n_{ij}}{N_{ij}} \right) \frac{s_{ij}^2}{n_{ij}} + N_{ij}^2 \left( 1 - \frac{n'_{ij}}{N_{ij}} \right) \frac{s'_{ij}^2}{n'_{ij}}$$

$$\text{단, } s_{ij}^2 = \frac{1}{n_{ij} - 1} \sum_k (y_{ijk} - \bar{y}_{ij})^2, \quad s'_{ij}^2 = \frac{1}{N_{ij} - 1} \left\{ (\hat{M}_{ij} - 1) s_{ij}^2 + \frac{N_{ij} - \hat{M}_{ij}}{N_{ij}} \hat{M}_{ij} \bar{y}_{ij}^2 \right\}$$

$$- \widehat{Var}(\hat{\tau}) = \sum_{i=1}^I \sum_{j=1}^J \widehat{Var}(\hat{\tau}_{ij})$$

#### [가중치 산정]

- 본 조사의 가중치는 사후층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모집단 크기인  $N_{ij}$ 개와 표본 조사된 사업체수인  $n_{ij}$ 를 비교하여 표본 조사된 사업체 1개는 모집단의  $\frac{N_{ij}}{n_{ij}}$ 를 대표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함.

$$W_{ijk} = \frac{N_{ij}}{n_{ij}}, \quad (i=\text{디자인산업 특수분류}, j=\text{종사자, 규모층})$$

#### ④ 주요항목 공표범위

- 조사 결과는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대분류와 규모별로 구분해 공표하고, 공표 시에는 주요변수 (디자인 활용 여부, 디자인 투자금액 등)에 대한 표본 오차를 제시함.

## » 디자인 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표본 크기

대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b>총계</b>	<b>3,034</b>	<b>1,953</b>	<b>1,513</b>	<b>822</b>	<b>616</b>	<b>2,062</b>	<b>10,000</b>
제품 디자인	649	387	350	205	150	429	2,170
시각 디자인	312	176	151	80	64	81	864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144	104	77	48	35	33	441
공간 디자인	643	473	325	161	125	569	2,296
패션/텍스타일 디자인	279	145	104	55	44	19	646
서비스/경험 디자인	301	242	183	98	77	324	1,225
산업공예 디자인	282	159	126	62	44	20	693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424	267	197	113	77	587	1,665

## » 디자인 활용업체의 대분류업종/규모별 표본 크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34	1,953	1,513	822	616	2,062	10,000
1	1-1	1-1-1	의료기기 디자인	26	14	11	7	5	2	65
1	1-1	1-1-2	컴퓨터 및 모니터 디자인	7	5	5	2	2	-	21
1	1-1	1-1-3	컴퓨터주변기기 디자인	8	6	6	2	2	1	25
1	1-1	1-1-4	유무선통신기기 및 통신장비 디자인	20	14	13	8	6	16	77
1	1-1	1-1-5	영상기기 디자인	10	6	6	4	3	5	34
1	1-1	1-1-6	음향기기 디자인	10	7	7	3	3	10	40
1	1-1	1-1-7	방송용 장비/기기 디자인	12	8	7	4	3	5	39
1	1-1	1-1-8	생활가전 및 주방가전 디자인	28	19	17	9	6	21	100
1	1-1	1-1-9	사무기기 디자인	8	6	5	3	2	2	26
1	1-1	1-1-10	조명기기 디자인	20	11	10	5	2	-	48
1	1-1	1-1-11	전기장비 및 특수용도조명 등 디자인	42	25	22	12	9	30	140
1	1-2	1-2-1	공구 디자인	19	11	10	4	4	6	54
1	1-2	1-2-2	악기 디자인	16	5	3	3	1	-	28
1	1-2	1-2-3	측정, 시험,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디자인	28	18	14	7	5	4	76
1	1-2	1-2-4	반도체 및 전자부품제조 관련 디자인	34	22	20	13	11	92	192
1	1-2	1-2-5	로봇 디자인	8	7	5	3	2	-	25
1	1-2	1-2-6	시계 디자인	26	5	4	-	-	-	35
1	1-3	1-3-1	안경 및 광학기기 디자인	12	6	6	5	3	3	35
1	1-3	1-3-2	완구 디자인	9	4	3	3	4	-	23
1	1-3	1-3-3	스포츠/레저용품 디자인	9	5	4	5	2	-	25
1	1-3	1-3-4	사무/화화용품 디자인	7	3	3	2	2	-	17
1	1-3	1-3-5	위생용품 디자인	7	4	3	2	5	1	22
1	1-3	1-3-6	용기(用器) 디자인	5	3	4	2	3	-	17
1	1-3	1-3-7	생활용품 디자인	22	13	11	5	2	-	53
1	1-3	1-3-8	종이 및 판지제품 디자인	30	19	16	8	4	8	85
1	1-3	1-3-9	화학제품, 고무, 플라스틱제품 디자인	50	33	32	17	12	53	197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34	1,953	1,513	822	616	2,062	10,000
1	1-4	1-4-1	자동차 디자인	34	23	27	19	13	78	194
1	1-4	1-4-2	요트/선박 디자인	19	13	14	13	11	12	82
1	1-4	1-4-3	기차 디자인	-	3	3	2	2	1	11
1	1-4	1-4-4	항공/우주선 디자인	17	3	1	2	-	2	25
1	1-4	1-4-5	바이크 디자인	6	3	2	2	1	-	14
1	1-4	1-4-6	기타운송기기 디자인	14	12	11	5	3	3	48
1	1-5	1-5-1	리빙가구 디자인	12	6	5	4	2	-	29
1	1-5	1-5-2	주방가구 디자인	20	9	8	2	2	1	42
1	1-5	1-5-3	의료가구 디자인	5	2	3	1	-	-	11
1	1-5	1-5-4	기타 가구 디자인	34	19	14	6	4	2	79
1	1-6	1-6-1	제조업회사본부 디자인	15	15	15	11	9	71	136
2	2-1	2-1-1	일반서적편집 디자인	29	17	13	5	4	9	77
2	2-1	2-1-2	신문/잡지편집 디자인	18	11	9	6	5	11	60
2	2-1	2-1-3	기타 인쇄물편집 디자인	20	9	6	2	2	-	39
2	2-2	2-2-1	축·수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30	21	19	10	7	9	96
2	2-2	2-2-2	농산물가공식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26	15	12	6	3	1	63
2	2-2	2-2-3	낙농품 및 빙과류패키지그래픽 디자인	5	3	5	4	4	5	26
2	2-2	2-2-4	떡, 빵, 과자, 면류패키지그래픽 디자인	24	13	12	7	5	17	78
2	2-2	2-2-5	기타 식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28	16	14	9	6	6	79
2	2-2	2-2-6	음료패키지그래픽 디자인	8	5	6	4	4	3	30
2	2-2	2-2-7	의약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11	7	8	7	7	13	53
2	2-3	2-3-1	화학제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17	10	10	6	4	6	53
2	2-3	2-3-2	미디어상품패키지그래픽 디자인	6	4	5	4	2	1	22
2	2-4	2-4-1	신문·잡지 및 기타인쇄물광고 디자인	16	9	4	1	-	-	30
2	2-4	2-4-2	옥외인쇄물광고 디자인	22	8	6	2	-	-	38
2	2-5	2-5-1	일러스트레이션	3	3	3	2	2	-	13
2	2-5	2-5-2	아이덴티티 디자인	16	8	6	2	2	-	34
2	2-5	2-5-3	캐릭터 디자인	18	9	5	2	5	-	39
2	2-5	2-5-4	타이포그래피	9	5	3	1	2	-	20
2	2-5	2-5-5	사진 디자인	6	3	5	-	-	-	14
3	3-1	3-1-1	광고영화 및 비디오물영상 디자인	13	8	4	2	2	-	29
3	3-1	3-1-2	일반영화 및 비디오물영상 디자인	19	12	11	8	4	1	55
3	3-1	3-1-3	방송프로그램영상 디자인	11	7	6	3	2	1	30
3	3-1	3-1-4	애니메이션 디자인	7	7	5	3	2	-	24
3	3-1	3-1-5	공간영상 디자인	9	5	3	3	1	-	21
3	3-2	3-2-1	웹사이트 디자인	23	17	11	6	4	3	64
3	3-2	3-2-2	온라인광고 디자인	22	16	11	6	4	5	64
3	3-3	3-3-1	온라인/모바일게임 디자인	14	12	10	6	5	16	63
3	3-3	3-3-2	기타 게임 디자인	6	5	4	3	5	-	23
3	3-5	3-5-1	디지털DB소스 디자인	11	8	6	4	3	4	3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34	1,953	1,513	822	616	2,062	10,000
3	3-5	3-5-2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 디자인	9	7	6	4	3	3	32
4	4-1	4-1-1	인테리어 디자인	55	36	19	10	10	49	179
4	4-1	4-1-2	건축 디자인	40	26	19	10	8	34	137
4	4-1	4-1-3	실내조경 디자인	5	3	4		1	-	13
4	4-2	4-2-1	인테리어코디네이션	7	4	4	5	3	-	23
4	4-2	4-2-2	실내조명 디자인	49	38	24	11	8	20	150
4	4-3	4-3-1	전시 디자인	17	11	7	3	2	4	44
4	4-3	4-3-2	무대 디자인	17	13	12	7	3	4	56
4	4-4	4-4-1	목재자재 디자인	15	8	7	3	2	-	35
4	4-4	4-4-2	플라스틱자재 디자인	22	14	11	5	3	3	58
4	4-4	4-4-3	금속자재 디자인	34	20	16	6	4	2	82
4	4-4	4-4-4	기타자재 디자인	35	23	15	6	4	9	92
4	4-5	4-5-1	환경 디자인	12	7	5	2	2	-	28
4	4-5	4-5-2	경관 디자인	10	7	4	2	2	1	26
4	4-5	4-5-3	예술장식품 디자인	11	8	4	2	3	-	28
4	4-6	4-6-1	조경 디자인	28	21	11	5	3	1	69
4	4-6	4-6-2	놀이터/공원 디자인	5	3	2	1	-	-	11
4	4-7	4-7-1	주거용 건축물 리모델링 디자인	32	26	18	10	7	41	134
4	4-7	4-7-2	상업 및 기타 건축물리모델링 디자인	29	29	20	11	7	15	111
4	4-8	4-8-1	건축물축조 디자인	45	35	20	11	10	97	218
4	4-8	4-8-2	건축물설비 디자인	48	39	24	11	10	56	188
4	4-8	4-8-3	건축물유지관리서비스 디자인	32	25	24	15	14	145	255
4	4-9	4-9-1	도로 및 교량 디자인	34	25	19	9	6	23	116
4	4-9	4-9-2	토목환경 디자인	47	41	27	13	11	65	204
4	4-9	4-9-3	토목지질환경 디자인	14	11	9	3	2	-	39
5	5-1	5-1-1	남성복 디자인	10	6	5	3	3	2	29
5	5-1	5-1-2	여성복 디자인	25	10	8	3	3	8	57
5	5-1	5-1-3	유아동복 디자인	8	5	4	4	3	-	24
5	5-1	5-1-4	모피 디자인	7	3	2	3	1	-	16
5	5-1	5-1-5	전통복식 디자인	6	2	2	-	-	-	10
5	5-2	5-2-1	스포츠웨어 디자인	33	18	10	5	2	1	69
5	5-2	5-2-2	근무복, 캐주얼웨어 디자인	21	9	6	3	4	1	44
5	5-2	5-2-3	테크니컬웨어, 아우터웨어 디자인	11	4	2	1	-	-	18
5	5-2	5-2-4	이너웨어 디자인	15	9	5	2	2	4	37
5	5-3	5-3-1	인테리어텍스타일 디자인	19	9	7	3	2	1	41
5	5-3	5-3-2	직물 디자인	7	5	4	4	-	-	20
5	5-3	5-3-3	편물 디자인	22	11	7	2	3	-	45
5	5-3	5-3-4	프린팅 디자인	16	11	12	8	4	-	51
5	5-3	5-3-5	기타 페브릭 디자인	12	9	7	3	2	-	33
5	5-4	5-4-1	패션악세서리 디자인	17	9	5	3	4	2	40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소분류명	종사자 규모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계
총계				3,034	1,953	1,513	822	616	2,062	10,000
5	5-4	5-4-2	슈즈 디자인	14	10	7	4	2	-	37
5	5-4	5-4-3	가방 디자인	18	8	5	2	5	-	38
5	5-4	5-4-4	기타 잡화 디자인	18	7	6	2	4	-	37
6	6-1	6-1-1	보건의료서비스 디자인	50	44	42	22	14	39	211
6	6-1	6-1-2	여가/레저서비스 디자인	26	19	16	9	7	7	84
6	6-1	6-1-3	교육서비스 디자인	9	6	4	3	5	3	30
6	6-1	6-1-4	커뮤니티서비스 디자인	13	10	9	4	3	1	40
6	6-1	6-1-5	공공행정서비스 디자인	115	90	51	24	19	178	477
6	6-2	6-2-1	휴먼인터랙션 디자인	17	14	12	7	6	34	90
6	6-2	6-2-2	시스템/응용소프트웨어 디자인	37	30	24	13	10	31	145
6	6-2	6-2-3	디지털간행물 디자인	12	8	6	4	3	9	42
6	6-2	6-2-4	사용자인터페이스(UI) 디자인	7	6	5	3	3	1	25
6	6-2	6-2-5	기타 인터랙티브미디어 디자인	15	15	14	9	7	21	81
6	6-3	6-3-1	서비스/경영 디자인 컨설팅	-	-	-	-	-	-	-
7	7-1	7-1-1	금속단조디자인	11	8	7	3	3	3	35
7	7-1	7-1-2	금속압형디자인	27	14	13	7	4	1	66
7	7-1	7-1-3	금속주조디자인	10	9	9	5	3	1	37
7	7-1	7-1-4	비철금속주조디자인	11	7	6	3	5		32
7	7-1	7-1-5	커머셜주얼리디자인	8	4	2	1	1		16
7	7-1	7-1-6	귀금속디자인	12	6	4	2	3	2	29
7	7-1	7-1-7	금속표면장식디자인	60	36	26	10	6	7	145
7	7-2	7-2-1	도자디자인	8	3	3	3	3	-	20
7	7-2	7-2-2	건축도자디자인	5	2	3	2	-	-	12
7	7-3	7-3-1	자수디자인	11	5	2	2	-	-	20
7	7-3	7-3-2	매듭디자인	10	6	5	4	1	-	26
7	7-3	7-3-3	염색디자인	6	5	5	2	2	-	20
7	7-3	7-3-4	직조디자인	21	14	11	4	3	-	53
7	7-4	7-4-1	대목디자인	8	5	4	2	2	-	21
7	7-4	7-4-2	소목디자인	11	5	3	1	1	-	21
7	7-5	7-5-1	나전·칠공예디자인	9	6	6	4	3	6	34
7	7-5	7-5-2	유리공예디자인	21	5	4	1	1	-	32
7	7-5	7-5-3	가죽공예디자인	9	5	4	2	2	-	22
7	7-5	7-5-4	지물공예디자인	9	8	6	2	1	-	26
7	7-5	7-5-5	석공예디자인	15	6	3	2	-	-	26
8	8-1	8-1-1	디자인목업및모형제작	38	22	18	8	5	-	91
8	8-1	8-1-2	컴퓨터응용모델링(CAD/CAM)	7	2	1	1	1	-	12
8	8-2	8-2-1	디자인기획	26	18	12	6	5	5	72
8	8-2	8-2-2	디자인연구및출판	34	25	20	11	8	14	112
8	8-3	8-3-1	법률서비스	29	19	12	5	3	8	76
8	8-3	8-3-2	행정서비스	7	6	6	3	3	7	32
8	8-3	8-3-3	교육서비스	83	50	45	37	26	427	668
8	8-3	8-3-4	디자인마케팅및유통	132	85	58	27	16	97	415
8	8-3	8-3-5	디자인관련기관	58	31	18	10	6	4	127
8	8-3	8-3-6	기타산업회사본부	10	9	7	5	4	25	60

## » 디자인 활용업체의 실태조사 표본크기

대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계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b>총계</b>	<b>322</b>	<b>230</b>	<b>209</b>	<b>121</b>	<b>91</b>	<b>172</b>	<b>1,145</b>
제품디자인	46	44	41	26	24	48	229
시각디자인	45	27	33	14	6	12	137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31	11	17	7	6	13	85
공간디자인	89	48	26	15	9	22	209
패션/텍스타일디자인	26	22	16	10	5	7	86
서비스/경험디자인	34	20	27	17	18	41	157
산업공예디자인	13	27	26	13	7	6	92
디자인 인프라(디자인기반기술)	38	31	23	19	16	23	150

## 2) 전문디자인업체 조사

### (1) 모집단 분석

- 2016년 전국사업체조사 DB를 이용하여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별/규모별 사업체수를 파악함.

전체 전문디자인업체 사업체 수는 5,502개 업체로 나타남. 전문디자인업체의 경우 규모가 작은 사업체가 대다수로 4인 이하의 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기준으로 1-7-1 제품디자인은 1,300개, 2-5-6 시각디자인은 2,065개, 4-10-1 인테리어디자인은 1,276개, 5-5-1 패션/텍스타일디자인은 861개 업체로 나타남. 종사자수별로는 4인 이하가 4,23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5-9인 847개, 10-19인 308개, 20-49인 100개, 50인 이상 17개(100인 이상 5개)로 나타남.

## » 전문디자인업체 모집단 분석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계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b>총계</b>		<b>4,230</b>	<b>847</b>	<b>308</b>	<b>100</b>	<b>17</b>	<b>5,502</b>
<b>1-7-1</b>	제품디자인	948	224	101	26	1	1,300
<b>2-5-6</b>	시각디자인	1,577	325	120	35	8	2,065
<b>4-10-1</b>	인테리어디자인	1,006	183	58	23	6	1,276
<b>5-5-1</b>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99	115	29	16	2	861

## (2) 표본설계

### ① 표본크기

-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음.

$$n = \frac{N (z s)^2}{N d^2 + (z s)^2}$$

- 여기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1.96$ 이다). 본 조사의 전체 목표표본 크기는 모집단 크기 및 비용을 고려하여 약 600개(모집단 크기 대비 약 13.1%)로 결정함. 이 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3.75\%P$ (단,  $p=0.5$ 로 가정함)임.  
본 조사는 업종 및 종사자수를 고려한 층화추출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실제 표본오차가 이보다 조금 더 작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표본오차가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됨.

### ② 표본추출방법 및 단계

#### [층화]

-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업종과 종사자수를 층화변수로 고려함.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업종: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소분류 4개
  - 종사자규모 :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 [표본 추출 방법]

- 업종별 종사자규모별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할 경우 상당수의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할당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따라서 제곱근비례배분으로 표본크기를 할당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하였으며, 업종별 모집단 크기가 50개 이하 또는 각 층별 조사 모집단 크기가 5개 이하인 경우 또는 종사자수가 50인 이상인 업체는 전수조사를 목표로 조사함.  
이러한 원칙 하에서 실제 조사된 표본크기가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음.

## » 전문디자인업체의 업종/규모별 할당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총계		313	139	83	48	17	600
1-7-1	제품디자인	75	36	24	12	1	148
2-5-6	시각디자인	97	44	27	14	8	190
4-10-1	인테리어디자인	77	33	19	12	6	147
5-5-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64	26	13	10	2	115

### ③ 모수 추정

- 업종별, 종사자수별 추출률(inclusion probability)을 고려하여 전문디자인업체의 모수에 대한 추정치와 표준오차를 계산함.

- $y_{ijk}$  : 관찰값(각 문항에 대한 응답)

- $i$  : 업종의 번호( $i = 1, 2, \dots, I$ ). 단,  $I = 4$ .

- $j$  : 규모의 번호( $j = 1, 2, \dots, J$ ). 단,  $J = 5$ .

- $k$  : 업종/규모 내의 표본 전문디자인업체의 번호( $k = 1, 2, \dots, n_{ij}$ )  
즉,  $y_{ijk}$ 는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k$ 번째 표본 전문디자인업체에 대한 관찰값임.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에 대한 표본크기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에 대한 모집단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 전체 표본크기

- $N = \sum_{i=1}^I \sum_{j=1}^J N_{ij}$  : 전체 모집단 크기

- $\bar{y}_{ij} = \sum_{k=1}^{n_{ij}} y_{ijk} / n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평균

- $\hat{\tau}_{ij} = N_{ij} \bar{y}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 합

- $s_{ij}^2 = \sum_{k=1}^{n_{ij}} (y_{ijk} - \bar{y}_{ij})^2 / (n_{ij} - 1)$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분산

- $\hat{p}_{ij}$  :  $i$ 번째 업종,  $j$ 번째 규모의 표본비율

● 모비율 합  $\tau$ 의 추정량 및 분산

$$\begin{aligned} - \hat{\tau} &= \sum_{i=1}^I \sum_{j=1}^J N_{ij} \bar{y}_{ij} \\ - \widehat{Var}(\hat{\tau}) &= \sum_{i=1}^I \sum_{j=1}^J N_{ij}^2 \left( \frac{N_{ij} - n_{ij}}{N_{ij}} \right) \frac{s_{ij}^2}{n_{ij}} \end{aligned}$$

● 모평균  $\mu$ 의 추정량 및 분산

$$\begin{aligned} - \hat{\mu} &= \sum_{i=1}^I \sum_{j=1}^J \frac{N_{ij}}{N} \bar{y}_{ij} \\ - \widehat{Var}(\hat{\mu}) &= \sum_{i=1}^I \sum_{j=1}^J \left( \frac{N_{ij}}{N} \right)^2 \left( \frac{N_{ij} - n_{ij}}{N_{ij}} \right) \frac{s_{ij}^2}{n_{ij}} \end{aligned}$$

● 모비율  $p$ 의 추정량 및 분산

$$\begin{aligned} - \hat{p} &= \sum_{i=1}^I \sum_{j=1}^J \frac{N_{ij}}{N} \bar{y}_{ij} \\ - \widehat{Var}(\hat{p}) &= \sum_{i=1}^I \sum_{j=1}^J \left( \frac{N_{ij}}{N} \right)^2 \left( \frac{N_{ij} - n_{ij}}{N_{ij}} \right) \frac{\hat{p}_{ij}(1 - \hat{p}_{ij})}{n_{ij} - 1} \end{aligned}$$

④ 주요항목 공표범위

- 조사 결과의 공표는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대분류, 업체 규모별로 공표하고 공표 시에는 주요변수 (매출액, 디자이너 수)에 대한 표본 오차를 제시함.

» 전문디자인업체 실태조사 표본크기

디자인 특수분류	업종	종사자 규모					
		4인 이하	5-9인	10-19인	20-49인	50인 이상	계
총계		333	163	98	37	7	638
1-7-1	제품디자인	78	52	37	12	-	179
2-5-6	시각디자인	97	51	34	12	5	199
4-10-1	인테리어디자인	83	36	17	4	2	142
5-5-1	패션/텍스타일디자인	75	24	10	9	-	118

### 3) 중앙부처 및 지자체

#### (1) 중앙부처

» 총 39개 기관 중 32개 기관 조사<sup>2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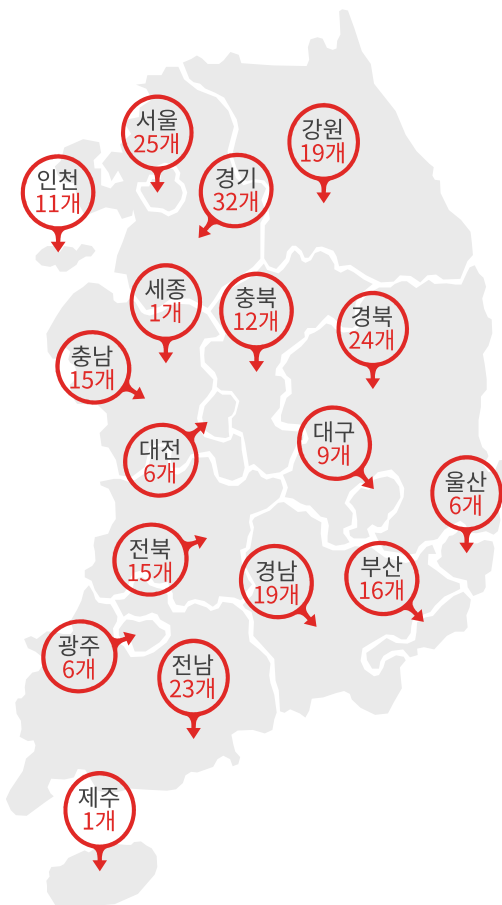
구분	중앙부처
<b>18부 (13부 완료)</b>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b>4처 (4처 완료)</b>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b>17청 (15청 완료)</b>	경찰청, 관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2) 지방자치단체

»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40개 조사<sup>28)</sup>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조사완료 (2017년) ]

조사완료 수 / 전체 지자체 수





시/도		시군구(행정구/자치구)			계
		시	군	구	
서울	1/1			24/25	25/26
부산	1/1		1/1	14/15	16/17
대구	1/1		1/1	7/7	9/9
인천	1/1		2/2	8/8	11/11
광주	1/1			5/5	6/6
대전	1/1			5/5	6/6
울산	1/1		1/1	4/4	6/6
경기	1/1	28/28	3/3		32/32
강원	1/1	7/7	11/11		19/19
충북	1/1	3/3	8/8		12/12
충남	1/1	8/8	6/7		15/16
세종	1/1				1/1
전북	1/1	6/6	8/8		15/15
전남	1/1	5/5	17/17		23/23
경북	1/1	10/10	13/13		24/24
경남	1/1	8/8	9/9		19/19
제주	1/1				1/1
<b>계</b>	<b>17/17</b>	<b>75/75</b>	<b>81/82</b>	<b>67/69</b>	<b>240/243</b>

27) 검찰청, 국세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미응답

28) 서울 구로구, 부산 서구, 충남 서천군 미응답

인천디자인지원센터 응답이 반영되어 총 분석에는 지방자치단체 241개(시도단위에 포함)로 분석됨.

## 2. 조사표

 승인번호 제 115026 호	<b>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b> <b>(디자인활용업체)</b>	 산업통상자원부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 KOREA INSTITUTE OF DESIGN PROMOTION
---	---	--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기업의 디자인관련 현황을 조사하여 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디자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귀사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으므로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b>주관 기관</b>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기획실 조아라☎ 031-780-2047)	<b>조사 기관</b>	(주)케이스탯리서치 양대영☎ 02-6188-6017)
------------------	--------------------------------------	------------------	----------------------------------

### ■ 사업체 기본 현황

★ 이후 모든 문항은 기업 기준이 아닌 **사업체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ID	※ 면접원 기입			List No	※ 면접원 기입		
1. List 명시(할당)	지역	※ 면접원 기입	업종	※ 면접원 기입	상용근로자수	※ 면접원 기입	
2. 조사결과	지역	※ 면접원 기입	업종	※ 면접원 기입	상용근로자수	※ 면접원 기입	
3. 사업체명							
4. 사업자등록번호			—				
5. 상세업종	※ 리스트의 업종과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세업종을 구체적으로 작성						
6. 기업규모분류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	③ 중기업	④ 소기업			
7. 조직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비법인 단체 ※ 회사이외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체, 재단법인, 사단법인, 특수법인(법무.회계법인, 공사, 공단 등) ※ 비법인 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모임, 종교단체, 문화단체, 후원회 등						
8. 재무제표 작성여부	① 작성    ② 미작성		9. 상장 여부		① 상장	② 비상장	
			10. 외감기업 여부		① 외감기업	② 비외감기업	
11. 최종 상품의 유형	① 최종소비재	② 자본재(기계류 등)	③ 중간재(부품, 소재)	④ 서비스			

### ■ 응답자 현황

1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
2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 SC1. 귀사의 디자인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아니오
1) 2017년 12월 기준으로 귀사에는 디자인 부서가 있었습니까?	①	②
2) 2017년 12월 기준으로 귀사에는 디자이너가 직원으로 종사하고 있었습니까? ※ 디자이너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①	②
3) 2016년, 2017년 동안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제공하는 서비스의 디자인 개발을 위해 전문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②

## SC2. [SC1에서 모두 없다고 하는 경우]

1) 귀사는 2016~2017년 동안 신제품을 출시했거나 기존 상품의 디자인을 변경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 [신제품 출시 및 디자인 변경 경험이 있는 경우]

신제품 디자인 혹은 디자인 변경은 어떤 방법(자체, 외주 등)으로 하십니까?

## [디자인 활용 현황]

### 문1) [SC1 디자인 부서가 있는 경우]

귀사의 디자인부서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기업 디자인센터, 디자인연구소 등 독립된 디자인 부서(팀)가 있다
- ② R&D 연구소 등 R&D 관련 부서 내에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 ③ 상품기획, 마케팅 등 R&D 이외의 부서에서 디자인 부서(팀)를 운영하고 있다
- ④ 기타( )

### 문2) 2017년 기준, 귀사에서 디자인 개발을 할 때

**자체 디자인 개발 비중**(사내 인력 활용)과

**외주 디자인 개발 비중**(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프리랜서를 활용)을

작성해주세요. 디자인 개발 건 수와 개발 비용 각각의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자체 디자인 개발	%	%
외주 디자인 개발	%	%
합계	100%	100%

### 문2-1) [외주 디자인 개발이 있는 경우]

외주 대상별 비중은 어떠합니까?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그룹 내 디자인 전문 계열사	%	%
외부 전문 디자인업체	%	%
프리랜서	%	%
합계	100%	100%

### 문2-2) 국내, 해외 의뢰 비중은 어떠합니까? 각각의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해 주세요.

구분	디자인 개발 건 수 기준	디자인 개발 비용 기준
국내 의뢰	%	%
해외 의뢰	%	%
합계	100%	100%

문3) 귀사의 디자인 활용 분야 비중을 작성해 주세요. 활용 비중의 합은 100%입니다.

분야	범위	활용 비중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휴먼인터랙션디자인, 사용성평가	%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
⑨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
⑩ 기타디자인( )		%

문4) 질문에 따라 가장 알맞은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질 문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공감(Empathy) 고객 공감도 및 고객 니즈가 의사 결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 평가</b>					
고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참고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객의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최근 산업과 시장 트렌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객 대상 연구결과를 전사에 자주 공유한다.	①	②	③	④	⑤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과정 중 의문을 제기한다.	①	②	③	④	⑤
<b>능력(Mastery) 디자인 프로세스와 실행 능력의 우수성 평가</b>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전 단계에서 디자인 디테일에 세심하게 주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을 위한 프로토타입을 자주 제작하고 시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여 디자인 품질을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품질로 디자인되기 전에는 제품을 출시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양한 대안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b>문화(Culture) 회사 문화가 디자인을 얼마나 지원하고 장려하는지 평가</b>					
회사의 물리적인 주위 환경은 창의적인 사고를 장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디자이너들은 디자인팀/본부로 격리되어 운영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디자이너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디자이너들은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원을 제공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디자이너가 아닌 경우에도 디자인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교육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든 조직 내에서 디자인에 대한 의미와 개념이 잘 확립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b>성과(Performance) 디자인이 주는 경제적 성과와 고객들의 브랜드 인식 수준 평가</b>					
경쟁 업체들보다 선도적인 입지 확보를 위해 디자인을 활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성과와 깊은 연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고객들은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타인에게 추천한다.	①	②	③	④	⑤
마케팅 및 브랜드 이미지를 통해 약속한 바를 정확하게 지켜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고객들은 당사 브랜드를 혁신적이라고 인식한다.	①	②	③	④	⑤
<b>영향(Impact) 제품과 서비스가 가지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수준을 평가</b>					
소외계층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제품 제작 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업무를 진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당사의 제품과 서비스는 고객의 삶에 가치를 더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 사회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 [디자인 투자 실적]

문5) 귀사의 2017년 사업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2017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②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총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제비용으로 기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문6) 귀사의 2017년 디자인 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십조	조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디자이너 인건비	고용 디자이너 인건비								
② 디자인업체 용역비	전문디자인업체 용역비								
③ 그 외 디자인 용역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된 인건비/목업 제작비/인쇄비 등								
④ 디자인 기계/장치 및 소프트웨어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고가 기기, 장치, 컴퓨터시스템 및 응용소프트웨어 구매/관리 비용								
⑤ 디자인 연구개발용 토지/건물	구매 디자인 연구 개발용 토지, 건물비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⑥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디자인/디자이너 교육비								
⑦ 디자인 지식재산권 구입·관리비	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등) 구입 및 관리 등								
⑧ 디자인 관련 기타 경상비	디자인 연구에 소요되는 재료비, 유인물비, 비품구입비, 출장비 등 기타 경비								
디자인 투자금액 합계(①+...+⑧)									

문7) 귀사의 향후 디자인투자 금액 및 디자이너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① 디자인투자 금액 전망	2017년의 ( )% 수준		2017년의 ( )% 수준	
② 디자이너 고용 전망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 )명 2017년의 ( )% 수준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 )명 2017년의 ( )% 수준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 )명 채용 전망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 )명 채용 전망

문8) 귀사의 제품(서비스)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7개 요소의 비중을 작성해 주세요.

	브랜드	성능	마케팅 (홍보/광고)	유통	디자인	고객서비스	기업 아이덴티티	합계
요소별 비중	%	%	%	%	%	%	%	100%

문9) 오른쪽 마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증한 우수 디자인 상품을 나타냅니다.

귀사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① 본 적도 없고 의미도 알고 있다      ② 본 적은 있지만 의미는 모른다  
③ 전혀 모르고 있다 → 문 10으로



문9-1) [문9, 본 적이 있다(①, ②)라고 응답한 사업체]

GD마크를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신문광고      ② 웹사이트      ③ 인쇄홍보물      ④ SNS      ⑤ 지인소개      ⑥ 기타( )

문9-2) [문9, 본 적이 있다(①, ②)라고 응답한 사업체]

귀사에서 GD 마크 획득이 다음의 각 **경영활동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함	매우 기여함
매출증가	①	②	③	④	⑤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	①	②	③	④	⑤
품질홍보비용 절감	①	②	③	④	⑤
유통매장 입점	①	②	③	④	⑤
조달품목 등록	①	②	③	④	⑤

문10) 2017년 귀사의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등의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있다	없다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국내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해외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국내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해외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국내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해외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마크 획득	국내- GD마크 등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해외	① <input type="checkbox"/> 건	②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위상 및 기여도]

문11) 다음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프로세스에서

귀사의 디자이너 또는 용역 의뢰한 전문디자인업체가 **개입하는 단계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2페이지의 SC1 디자이너 고용 업체만] 디자이너 개입	[2페이지의 SC1 디자인 외주 업체만] 전문디자인업체 개입
비즈니스 전략 수립	①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시장 조사	②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상품 기획	③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연구 개발(디자인 개발 포함)	④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생산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	⑤ <input type="checkbox"/>	⑤ <input type="checkbox"/>
판매 및 유통	⑥ <input type="checkbox"/>	⑥ <input type="checkbox"/>
광고 및 마케팅	⑦ <input type="checkbox"/>	⑦ <input type="checkbox"/>

문12) 디자인 업무 및 활동에 대한 귀사의 수준을 평가해 주세요.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디자인 비전 및 전략수립(개발 계획)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전문 인력 채용 및 경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아웃소싱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전담 조직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성과	①	②	③	④	⑤
디자인 자산 관리	①	②	③	④	⑤

문13) 귀사의 디자인 투자 및 활용이 다음 각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다소 기여 함	상당히 기여 함
매출 증대	①	②	③	④	⑤
고용 증대	①	②	③	④	⑤
주가 등 기업 가치 상승	①	②	③	④	⑤
고객 만족도 향상	①	②	③	④	⑤
제품·브랜드 충성도 상승	①	②	③	④	⑤
기업 이미지 향상	①	②	③	④	⑤
기술-디자인 간 융합 생성	①	②	③	④	⑤
기업 내 생산성 향상	①	②	③	④	⑤

문14) 귀사에서 **디자인 활용 시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전문인력 및 전문회사 역량 미흡                      ② 디자인활용 시 비용부담  
③ 디자인 활용에 대한 방법 등 정보/이해 부족        ④ 실력있는 전문회사의 선정 방법  
⑤ 기타( )

## [디자인 인력]

문15) 귀사에서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제품디자인                      ② 시각디자인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④ 공간디자인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⑥ 서비스디자인  
⑦ 경험디자인                      ⑧ 산업공예디자인                ⑨ 디자인 인프라  
⑩ 타분야 융합디자인            ⑪ 디자인 인증·평가              ⑫기타( )

문16) [디자인 부서 직원 수 및 디자이너 수는 해당 업체만 기입]

2017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직원 수			디자인 부서 직원 수 (지원인력 포함)			디자이너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① 상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①+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상용근로자 : 기간 제한 없이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여금과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외 1년 이상 고용을 계약한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디자이너: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더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 ☞ 문17~문32는 [SC1 디자이너 고용 업체만 응답]

문17) 2017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자인 분야별에서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디자인 분야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	서비스 디자인	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인프라	기타디자인	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직급별	사장/부사장급	상무/이사급	부장급	차/과장급	대리급	사원급					
	명	명	명	명	명	명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 문16의 디자이너 계와 동일한지 확인
	명	명	명	명	명						
학력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명	명	명	명	명						

문18) 올해 귀사가 **구인한 디자이너**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19) 2017년 한 해 동안 귀사에 **신규 채용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경력**( )명, **신입**(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0) 2017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21) 디자인 인력 채용 시 주로 어떤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 ②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
| ③ 학교 취업상담실      | ④ 인력채용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       |
| ⑤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 ⑥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
| ⑦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 ⑧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
| ⑨ 기타( )         |                            |

문22) 귀사는 디자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③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 문 23로

문22-1) [문22, 채용에 어려움(①, ②)을 겪은 사업체]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②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③ 3D직종 등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④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⑥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⑦ 통근불편과 문화시설 부족 등 사업장 환경 때문  
 ⑧ 기타( )

문23) 2017년 기준 귀사의 신입 직원 및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까?

2017년 채용 직원이 없으면 최근 채용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전체 신입 직원 평균	만원	신입 디자이너 평균	만원
-------------	----	------------	----

## [디자인 교육]

문24) 최근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문24-1) [문24, 디자인 인력에 불만족(①, ②)하는 사업체]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②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능력이 낮아서  
 ③ 필요한 (전공)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④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⑤ 기타 ( )

문25) 디자인 업무에서 디자이너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창의 역량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③ 디자인링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⑤ 기타 역량 ( )

문26) 2017년 한 해 동안 귀사에서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중 주로 어느 층에 속합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차/과장급    ④ 부장급    ⑤ 상무/이사급    ⑥ 사장/부사장급

문27) 2017년 귀사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 ⑧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  
 ⑨ 기타( )    ⑩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8) 귀사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 ⑧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  
 ⑨ 기타( )    ⑩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9) 귀사 디자이너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스킬.툴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기타 교육
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② 디자인 표현력 ③ 디자인 리서치 ④ CMF 관련 ⑤ UI/UX 디자인 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⑦ 제품 촬영 기법 ⑧ 3D 프린팅 모델링 ⑨ 브랜드 개발 ⑩ 기타( )	⑪ 창의력 ⑫ 커뮤니케이션 역량 ⑬ 기획력(사업 기획/전략 수립 등) ⑭ 비즈니스 역량(마케팅, 영업 등) ⑮ 프리젠테이션 역량 ⑯ 트렌드 활용 능력 ⑰ 외국어 등 해외비즈니스 역량 ⑱ 보고서 작성 능력 ⑲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⑳ 기타( )	㉠ 타분야 융합 교육(인문학, 언어, 여행 등) ㉡ 신기술 이해(AI, 증강현실 등) ㉢ 통계 교육 ㉣ 국내외 시장 정보 ㉤ 기타 ( )

문30)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사항**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교육예산 부족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④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⑥ 재교육 정보 부족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⑨ 기타 ( )

문31)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32)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② 디자인 관련 이론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④ 컴퓨터 활용 스킬  
 ⑤ 외국어(어학) 능력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⑦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⑧ 기타 ( )



1순위:( ) ⇒ 2순위:( )



**[신산업 관련]**

문37) 귀사에서는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② 아니오 ⇒ **설문종료**

문37-1) [문37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수행하신 비즈니스의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는 아래 중 어디에 속합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전기·자율차      ② IoT 가전                  ③ 로봇                  ④ 바이오헬스  
⑤ 항공·드론      ⑥ 프리미엄 소비재      ⑦ AR·VR              ⑧ 스마트·친환경선박  
⑨ 에너지신산업    ⑩ 첨단신소재            ⑪ 차세대 디스플레이    ⑫ 차세대 반도체  
⑬ 기타( )

문37-2) [문37,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 당시 어떠한 형태로 디자이너를 활용하였습니까?

- ① 전문디자인업체와 협업
- ② 회사 내 디자이너 대상으로 해당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전문교육 후 활용
- ③ 전공·경험 등 관련 역량이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활용

문37-3) [문37,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을 위한 디자이너 인력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필요인원	현원	2018년 채용예정
명	명	명

문38) [문37, 신기술 및 신산업 비즈니스 수행 경험 업체]

## 신기술 및 신산업 분야 비즈니스 수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역량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공학·신기술	커뮤니케이션/비즈니스
① UX/UI	⑦ 인체공학	⑫ 스토리텔링/프리젠테이션
② 고급 CMF	⑧ 디지털 기술 지식(AR/VR/IoT)	⑬ 다문화 이해·해석
③ 프로토타이핑 모델 제작	⑨ 3D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운용	⑭ 디지털 마케팅
④ 디자인-공학 융합	⑩ 신 제조 지식	⑮ 비즈니스 모델 개발
⑤ 비주얼 트렌드 분석	⑪ 기타( )	⑯ 기타( )
⑥ 기타( )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주력 디자인 분야 및 인력]

문1) 귀사의 주력 디자인 분야 비중을 작성해 주십시오. 비중의 합은 100%입니다.

분야	범위	주력 비중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익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휴먼인터랙션디자인, 사용성평가	%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
⑨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
⑩ 기타디자인( )		%

문2) 2017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총 직원 수			디자인 부서 직원 수 (지원인력 포함)			디자이너 수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① 상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② 임시 및 일용근로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합계(①+②)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상용근로자 : 기간 제한 없이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상여금과 각종 수혜를 받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외 1년 이상 고용을 계약한 자

※ 임시 및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로 사업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자

※ 디자이너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3) 2017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디자인 분야별에서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디자인 분야별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미디어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	서비스 디자인	경험디자인	산업공예	디자인 인프라	기타디자인	계
직급별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 문2의 디자이너 계와 동일한지 확인
연령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학력별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졸	박사졸						
	명	명	명	명	명						

문4) 올해 귀사가 구인한 디자이너 수는 몇 명입니까?

(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5) 귀사에서 가장 필요한 디자이너의 전문 분야는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제품디자인                      ② 시각디자인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④ 공간디자인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⑥ 서비스디자인  
 ⑦ 경험디자인                      ⑧ 산업공예디자인                      ⑨ 디자인 인프라  
 ⑩ 타분야융합 디자인                      ⑪ 기타( )

문6) 2017년 한 해 동안 귀사에 신규 채용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경력( )명, 신입(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7) 2017년 한 해 동안 퇴직한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 )명

※ 상용근로자 기준으로 응답

문8) 디자인 인력 채용 시 주로 어떤 경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공공기관 취업 알선센터  | ② 언론매체 및 온라인(취업사이트)을 통한 구인 |
| ③ 학교 취업상담실      | ④ 인력채용정보회사(헤드헌팅사 포함)       |
| ⑤ 정부 지자체의 채용박람회 | ⑥ 학연·지연 등 연고 채용            |
| ⑦ 동종업계 인력 스카우트  | ⑧ 지인의 소개 또는 추천             |
| ⑨ 기타( )         |                            |

문9) 귀사는 디자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경력직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② 신입 디자이너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③ 어려움을 겪은 적 없다 ⇒ 문10으로

문9-1) 디자인 인력 채용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적극적인 구인활동을 못하였기 때문      ② 다른 사업체와의 격심한 인력유치 경쟁 때문  
 ③ 3D직종 등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기 때문  
 ④ 사업체에서 제시하는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  
 ⑤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학력·자격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⑥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기 때문  
 ⑦ 통근불편과 문화시설 부족 등 사업장 환경 때문  
 ⑧ 기타( )

문10) 2017년 기준 귀사의 디자이너의 평균 연봉은 얼마입니까?

구분	2017년 기준 평균 연봉	구분	2017년 기준 평균 연봉
① 인턴	만원	② 신입 디자이너	만원
③ 3년차 디자이너	만원	④ 5년차 디자이너	만원
⑤ 10년차 디자이너	만원		

## [디자인 사업 실적]

문11) 귀사의 2017년 사업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분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① 매출액	2017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한 수익총액					
②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총당금전입액 등 인건비성 제비용으로 기타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수수료도 포함					
③ 연구개발비	연구비, 개발비, 경상개발비의 합으로 구성됨					
④ 영업이익	매출액 -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문12) 귀사에서 디자인 사업 이외 겸업하고 있는 다른 영역의 사업이 있습니까?

- ① 겸업하는 사업 있다(사업 내용: )  
 ② 겸업하는 사업 없다

문13) 귀사의 2017년 매출 구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영역별 매출액 비중과 용역 건수를 작성해 주세요.

구분	매출액 비중	용역 건 수
국내 고객	디자인 컨설팅 %	건
	디자인 개발 %	건
	기타( ) %	건
해외 고객	디자인 컨설팅 %	건
	디자인 개발 %	건
	기타( ) %	건
자체 상품 개발/판매	%	건
전 체	100%	건



문19-1) [문19, 본 적이 있다(①, ②)라고 응답한 사업체]

GD마크를 접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① 신문광고    ② 웹사이트    ③ 인쇄홍보물    ④ SNS    ⑤ 지인소개    ⑥ 기타(                      )

문19-2) [문19, 본 적이 있다(①, ②)라고 응답한 사업체]

귀사에서 GD 마크 획득이 다음의 각 **경영활동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기여하지 않음	별로 기여하지 않음	보통	조금 기여함	매우 기여함
매출증가	①	②	③	④	⑤
브랜드(제품/기업이미지) 강화	①	②	③	④	⑤
해외시장 진출	①	②	③	④	⑤
품질홍보비용 절감	①	②	③	④	⑤
유통매장 입점	①	②	③	④	⑤
조달품목 등록	①	②	③	④	⑤

문20) 2017년 귀사의 디자인 수상 및 출원, 등록 등의 경력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있다	없다
디자인 관련 수상 경력	국내	① _____ 건	② _____ 건
	해외	① _____ 건	② _____ 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국내	① _____ 건	② _____ 건
	해외	① _____ 건	② _____ 건
특허/디자인/상표/실용신안 등록	국내	① _____ 건	② _____ 건
	해외	① _____ 건	② _____ 건
디자인 마크 획득	국내- GD마크 등	① _____ 건	② _____ 건
	해외	① _____ 건	② _____ 건

## [디자인 해외 교류]

문21) 귀사는 현재 **해외 비즈니스**(문21-1 보기 확인)를 하고 있거나, 향후 해외진출 계획이 있습니까?

- ① 현재 해외 비즈니스 진행 중 ⇒ **문21-1로**    ② 향후 계획 있음 ⇒ **문21-4로**    ③ 계획 없음 ⇒ **문22으로**

문21-1) 귀사의 **해외 비즈니스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 ① 해외에 법인 설립·운영                      ② 해외에 연락사무소(법인 미등록) 운영  
③ 파트너쉽 등 해외 업체와 협업            ④ 해외 현지의 전문가(비즈니스개발, 디자이너 등) 활용  
⑤ 해외 대학과의 산-학 프로젝트 수행      ⑥ 국내에서 추진(필요시 현지 출장 등)

문21-2) 귀사의 **해외 비즈니스 주력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컨설팅서비스                      ② 디자인상품 개발 용역  
③ 컨설팅서비스 및 디자인상품 개발 병행    ④ 기타 (                      )

문21-3) 귀사가 **진출해 있는 해외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주시고, 구체적인 국가(지역)를 작성해 주세요.

- ① 중국 (지역:                      )                      ② 아시아 (국가:                      )  
③ 유럽 (국가:                      )                      ④ 미주 (국가:                      )  
⑤ 기타 (국가:                      )

문21-4) 귀사가 **향후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모두 체크해주시고, 구체적인 국가(지역)를 작성해 주세요.

- ① 중국 (지역:                      )                      ② 아시아 (국가:                      )  
③ 유럽 (국가:                      )                      ④ 미주 (국가:                      )  
⑤ 기타 (국가:                      )

## [디자인 교육]

문22) 최근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대체로 불만족	보통	대체로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 [문22, 불만족(③, ②)하는 사업체]

문22-1) 귀사가 고용한 디자인 인력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실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② 새로운 지식·기술 습득 능력이 낮아서  
 ③ 필요한 (전공) 분야의 전문 인력이 아니어서      ④ 인성, 근무 자세와 태도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⑤ 기타 ( )

문23) 귀사에 디자인 분야 이외 필요한 인력의 전공 분야는 무엇입니까?

- ① 공학(엔지니어링 전반)      ② 상경계열(경영학/경제학/회계학/통계학 등)  
 ③ 사회과학(심리학/사회학 등)      ④ 인문학(역사/철학 등)  
 ⑤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학 등)      ⑥ 법학  
 ⑦ 통합전공(인문·상경·공학 융합 등)      ⑧ 기타( )

문24) 디자인 업무에서 디자이너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① 창의 역량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③ 디자인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⑤ 기타 ( )

문25) 2017년 한 해 동안 귀사에서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중 주로 어느 층에 속합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차/과장급      ④ 부장급      ⑤ 상무/이사급      ⑥ 사장/부사장급

문26) 2017년에 귀사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      ⑧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  
 ⑧ 기타(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7) 귀사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      ⑧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  
 ⑧ 기타(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28) 귀사 디자이너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교육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디자인 스킬 톨 교육	역량 향상 교육	기타 교육
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구현력 ② 디자인 표현력 ③ 디자인 리서치 ④ CMF 관련 ⑤ UI/UX 디자인 ⑥ 서비스디자인 방법론 및 실습 ⑦ 제품 촬영 기법 ⑧ 3D 프린팅 모델링 ⑨ 브랜드 개발 ⑩ 기타( )	⑪ 창의력 ⑫ 커뮤니케이션 역량 ⑬ 기획력(사업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⑭ 비즈니스 역량(마케팅, 영업 등) ⑮ 프레젠테이션 역량 ⑯ 트렌드 활용 능력 ⑰ 외국어 등 해외비즈니스 역량 ⑱ 보고서 작성 능력 ⑲ 팀워크, 협동심, 리더십 ⑳ 기타( )	㉑ 타분야 융합 교육(인문학, 엔지니어링 등) ㉒ 신기술 이해(AI, 증강현실 등) ㉓ 통계 교육 ㉔ 국내외 시장 정보 ㉕ 기타 ( )

문29)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교육예산 부족         |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
|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 ④ 경영진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
|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 ⑥ 재교육 정보 부족           |
|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
| ⑨ 기타 ( )          |                       |

문30)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음	대체로 낮음	보통	대체로 높음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31)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 ② 디자인 관련 이론      |
|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 ④ 컴퓨터 활용 스킬      |
| ⑤ 외국어(어학) 능력    |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
| ⑦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 ⑧ 기타 ( )         |

문32) 디자이너 채용 시 가장 선호하는 교육(학위) 수준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                                |                           |                           |
|------------------------------------|--------------------------------|---------------------------|---------------------------|
| ① 고등학교 졸업자(디자인 특성고등학교 등)           |                                |                           |                           |
| ② 디자인 전공<br>- 전문학사(2~3년제)          | ③ 디자인 전공<br>- 학사(4년제)          | ④ 디자인 전공<br>- 석사          | ⑤ 디자인 전공<br>- 박사          |
| ⑥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br>- 전문학사(2~3년제) | ⑦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br>- 학사(4년제) | ⑧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br>- 석사 | ⑨ 디자인-공학 등 융합 전공자<br>- 박사 |
| ⑩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br>- 전문학사(2~3년제) | ⑪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br>- 학사(4년제) | ⑫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br>- 석사 | ⑬ 디자인이 아닌 타분야 전공자<br>- 박사 |

## [정부 정책 및 지원]

문33) 디자인산업이 성장·발전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기업의 디자인 인식 부족    | ② 디자인 업체의 영세성     |
| ③ 전문디자인업체 취업 기피    | ④ 기술정보 및 시장정보 부족  |
| ⑤ 국가 지원 정책 및 제도 미흡 | ⑥ 인건비 및 임금 체계의 미흡 |
| ⑦ 기타 ( )           |                   |

문34) 디자인산업이 타산업에 비해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인접기술 분야와의 융합 | ② 전문 인력 양성 |
| ③ 비즈니스 모델      | ④ 관련 정부 지원 |
| ⑤ 기타( )        |            |











## 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중앙부처 및 지자체)



면접원이 기입하는 칸입니다	ID						List No					
----------------------	----	--	--	--	--	--	---------	--	--	--	--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0조의 2에 근거하여  
산업디자인진흥종합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디자인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효용성을 측정하여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계획 및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 입니다.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 신상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자인진흥원

수행 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기획실 조아라☎ 031-780-2047)	조사 기관	㈜케이스탯리서치 양대영☎ 02-6188-6017)
----------	--------------------------------------	----------	--------------------------------

### ■ 기관 개요

면접원 작성	지자체	① 광역시/도 ② 시 ③ 군 ④ 구			정부부처	①부 ②처 ③청	
	기관명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       )       -		
	응답자 부서(팀)			응답자 직책			
전공여부				① 디자인 전공    ② 디자인 외 전공			

문1) 현재 귀 기관에는 별도의 디자인실(팀,계)이나 국, 전담과 등 디자인 관련 전담부서 및 팀이 있거나 혹은 디자이너가 있습니까?

- ①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다 → 문1-1)로  
 ②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다 → 문1-3)으로  
 ③ 디자인 전담부서 및 디자이너가 없다 → 문1-5)로

※ 디자이너 : 디자이너로 고용된 자 중 디자인 관련학과 전공 또는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디자인 관련학과 또는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라도 디자인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문1-1) 디자인 전담부서의 소속과 이름을 작성해 주세요.

여러 부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모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No	국/실/본부	관	과	팀
1				
2				
3				
4				
5				

문1-2) 디자인 전담부서의 2017년 예산집행금액을 작성해 주십시오.

No	디자인 전담부서 명	디자인 용역비						디자인 전담부서 총 인건비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목업 제작비, 인쇄비 등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천 억	백 억	십 억	억	천 만	백 만
1																			
2																			
3																			
4																			
5																			
합계																			

문1-3) 디자인 전담부서의 해당 직원은 모두 몇 명이며, 그 중 디자이너는 몇 명입니까?

디자인 전담부서는 없고 디자이너만 있는 경우 디자이너 수만 작성해 주세요.

No	디자인 전담부서 명	디자인 전담부서 총 직원 수			디자이너 수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1							
2							
3							
4							
5							
합계							

문1-4) 귀 기관의 디자이너 수를 활동 **디자인 분야별로** 작성해 주세요.

만약 한 디자이너가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라면 주요 분야 하나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분야	범위	디자이너 수
① 제품디자인	전기 전자 제품디자인, 다목적 기계 및 공구디자인, 생활/환경용품디자인, 운송기기디자인, 가구디자인, 제조업 회사본부 디자인, 기타 제품디자인	명
② 시각디자인	편집디자인, 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비식·의약품 패키지디자인, 광고디자인(인쇄매체), 기타 시각디자인	명
③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영상디자인, 웹디자인, 게임디자인, 기타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명
④ 공간디자인	건축디자인, 인테리어장식디자인, 전시 및 무대디자인, 인테리어 자재디자인, 엑스테리어디자인, 조경 및 레저공간디자인, 리모델링디자인, 건설환경디자인, 토목환경디자인, 기타인테리어디자인	명
⑤ 패션/텍스타일디자인	패션디자인, 기능성패션디자인, 텍스타일디자인, 잡화디자인, 기타패션텍스타일디자인	명
⑥ 서비스디자인	보건의료서비스디자인, 여가/레저서비스디자인, 교육서비스디자인, 커뮤니티서비스디자인, 공공행정서비스디자인	명
⑦ 경험디자인	사용자인터페이스(UI)디자인, 사용자경험(UX)디자인, 휴먼인터랙션디자인, 사용성평가	명
⑧ 산업공예디자인	금속공예, 도자공예, 섬유공예, 목공예, 기타공예	명
⑨ 디자인 인프라	디자인 모형, 디자인 연구개발, 기타디자인서비스	명
⑩ 기타디자인( )		명
합 계 (문1-3의 디자이너 수와 동일여부 확인)		명

문1-5) 귀 기관의 적정 디자인 담당 인력은 몇 명입니까? ( )명

문1-6)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문1의②,③)만 해당]**

귀 기관에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다면 디자인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곳을 기술해 주세요.

국/실/본부	관	과	팀

문1-7) **[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는 기관(문1의②,③)만 해당]** 귀 기관의 2017년 예산집행금액을 작성해 주십시오.

디자인 용역비						[문1 ②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디자이너 총 인건비						디자인 관련 프리랜서 등 고용되지 않은 인력에 지급된 인건비, 목업 제작비, 인쇄비 등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천억	백억	십억	억	천만	백만

문1-8) 귀 기관의 향후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및 디자이너 고용 전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7년과 같으면 100%, 2017년의 절반 수준이면 50%, 2배 증가면 200%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2018년 전망		2019년 전망	
① 디자인 관련 예산집행금액	2017년의 ( )% 수준		2017년의 ( )% 수준	
② 디자이너 고용 전망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 )명 2017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있는 경우	( )명 2017년의( )% 수준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 )명 채용 전망	디자이너가 없는 경우	( )명 채용 전망

문2) 귀 기관에서는 기관 특성(아이덴티티)을 고려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또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ex.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① 있다      ② 없다

문3) 디자인 관련 예산 집행 시,

기관에서 직접 용역을 발주하는 비율과 기관의 산하기관을 통하는 비율, 기타 비율을 응답해 주세요.

기관 직접 용역 발주	산하기관을 통해	기 타( )	합계
%	%	%	100%

문4) 귀 기관에서 디자인이 포함된 사업을 발주할 경우 설계·시공 등과 별도로

**디자인사업 부문만 분리하여** 발주하는 비율과 **디자인 사업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비율을 작성해 주십시오.

분리 발주	포함 발주	합계
%	%	100%

문5) 디자인 연계 사업 중 가장 효과 있었던 분야 및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번호로 표기해 주세요.)

범주 보기			세부 내용	가장 효과 있는 분야	우선 추진분야
정책 형성	①	문제정의를 위한 현장조사 이해관계자파악	정책 현황과 문제점 파악, 현장 조사를 통한 핵심 수요자 선정 및 핵심 이슈 파악, 국내외 참고사례 벤치마킹, 이해관계자 여론수렴		
정책 수립	②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수립, 해결책 구체화	정책 추진 목적 및 목표 설정, 추진 내용 및 방법 수립, 사전타당성 분석, 관계부처 협의, 갈등관리, 정책영향평가 등		
정책 집행 및 정책 홍보	③	적용 및 홍보	추진상황 모니터링, 자원 확보 및 투입, 관계기관 협조,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극복 대책 마련, 여건변화 대책마련, 평가결과 분석 및 활용		
	공간	④ 도시 기반시설	공원, 운동장, 광장, 놀이터, 집회시설, 보도, 자투리 공원, 주차장, 터널, 도로, 철로, 교량, 육교, 고가도로, 하천, 하수처리장, 산업공단, 변전소, 전소 등		
		⑤ 건축 및 실내 환경	마을회관,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동사무소, 군사시설, 교도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정부 행정부처 건물, 외국공관 건축물, 시민회관, 문화재, 체육관, 경기장, 공연장, 국공립 복지시설, 국공립 의료시설, 보육원, 기립관, 박물관, 미술관, 휴게소,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도로 휴게소,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유아원, 교육원, 훈련원, 연구소, 도서관, 연수원 등		
	시설물	⑥ 보행 및 운송시설물	보행신호등, 횡단, 방음벽, 볼라드, 가드레일, 가로표식,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육교, 정류장, 자전거 주차대, 보행 유도등, 신호등, 교통차단물, 속도 억제물, 주차시설, 주차요금징수기, 공공기관 소유차량 등		
		⑦ 편의시설물	벤치, 의자, 쉼터, 옥외용 테이블, 휴지통, 음수대, 재떨이, 화장실, 세면장, 매점, 무인 키오스크, 자동판매기, 신문가판대 등		
		⑧ 관리시설물	맨홀, 전신주, 가로등, 신호개폐기, 전력구, 분전반, 환기구, 우체통, 소화전, 방재시설, 범죄예방장치, 신원확인장치 등		
		⑨ 정보시설물	공중전화, 풍향계, 시계, 온도도계, 정보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시(도)계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교통정보판 등		
		⑩ 행정시설물	제복, 가구, 문구, 표찰, 무인 민원처리기 등		
	이미지	⑪ 정보매체	이정표, 교통표지판, 지역/관광 안내도, 버스노선도, 지하철노선도, 방향유도사인, 규제사인, 자동차 번호판, 각종 픽토그램, 광고판, 현수막, 포스터, 게시판, 간판, 배너, 기, 홍보영상 등		
		⑫ 상징매체	국가 및 행정부처,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상징시스템(상징사인, 증명서, 공문서, 출판물 표지, 웹페이지 등), 화폐, 주민등록증, 여권, 교통카드, 채권, 기념주화, 우표 등		
		⑬ 환경연출	벽화, 수퍼그래픽, 미디어 아트, 오감연출매체(sound scape, light scape), 미술장식품 등		
		⑭ 도시마스터플랜/가이드라인	녹지 벨트 확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도시별 이미지 구축을 위한 디자인 개발 등		

문6) 다음의 정책 분야에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할 때 가장 효과 있는 분야 및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우선순위를 번호로 표기해 주세요.)

정책 분야	가장 효과 있는 분야	우선 추진분야
① 공공질서 및 안전		
② 과학기술		
③ 교육		
④ 국방		
⑤ 농림해양수산		
⑥ 문화체육관광		
⑦ 보건		
⑧ 사회복지		
⑨ 산업·중소기업		
⑩ 수송 및 교통		
⑪ 일반공공행정		
⑫ 지역개발		
⑬ 통신		
⑭ 통일·외교		
⑮ 환경보호		

문7) 귀 기관은 현재 **디자인을 공공정책의 어느 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정책형성                      ② 정책수립                      ③ 정책집행  
④ 정책평가                      ⑤ 정책홍보

문8) 귀 기관의 디자인 담당자를 **신규로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 없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문9~문14는 문1의 ①, ②(디자이너를 보유한 기관)만 응답**

문9) 귀 기관의 디자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디자인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대체로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 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10) 귀 기관은 **2017년 한 해 동안** 기관 디자인 담당자들에게 **디자인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연간 총: \_\_\_\_회, 연간 총: \_\_\_\_시간)

문11) 2017년 한 해 동안 **디자인 재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다음 중 주로 어느 층에 속합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9급                      ② 6~8급                      ③ 5급                      ④ 4급                      ⑤ 1~3급

문12) 2017년에 귀 기관에서 실시한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 ⑧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  
⑧ 기타(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13) 귀 기관에서 선호하는 **디자이너 재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사내 자체 교육(내부 강사)                      ② 사내 특강(외부 강사)                      ③ 외부 위탁교육(유료)  
④ 해외연수(학위과정 제외)                      ⑤ (국내외) 학위과정                      ⑥ 학회 세미나 또는 전시회 참관  
⑦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온라인) ⑧ 정부/공공기관 지원 무료 교육 활용(오프라인)  
⑧ 기타( )                      ⑨ 재교육 실시하지 않음

문13-1) 귀 기관에서 실시했던 **디자인 교육 분야**는 무엇입니까?

( )

문14) 재직 디자이너 **재교육 시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교육예산 부족                      ② 예측할 수 없는 업무 상황  
③ 시간 및 대체인력 부족                      ④ 기관장 및 관련 부서의 인식 부족  
⑤ 양질의 재교육 프로그램 부족                      ⑥ 재교육 정보 부족  
⑦ 재교육 전문기관 부족                      ⑧ 재교육 후 이직 등 투자 대비 효과  
⑨ 기타 ( )

문15) 디자인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입니까?

- ① 창의 역량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시장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각과 직관력)  
② 비즈니스 역량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구체화하여 시장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논리력과 시장 지향적 역량)  
③ 디자인링 역량 (창출된 아이디어를 디자인 결과물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감각과 스킬)  
④ 융합 역량 (타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소통, 협업,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획이나 개선점, 해결방안 도출을 주도하는 역량)  
⑤ 기타 역량 ( )



문16) [디자인 전담부서가 있는 기관(문1의④)만 해당]

귀 기관의 디자인 부서에 필요한 미충원 전공 인력은 어떤 분야입니까?

- |                       |                           |
|-----------------------|---------------------------|
| ① 공학(엔지니어링 전반)        | ② 상경계열(경영학/경제학/회계학/통계학 등) |
| ③ 사회과학(심리학/사회학 등)     | ④ 인문학(역사/철학 등)            |
| ⑤ 자연과학(물리/화학/생물학 등)   | ⑥ 법학                      |
| ⑦ 통합전공(인문·상경·공학 융합 등) | ⑧ 기타( )                   |

문17)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이 실제 디자인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합니까?

기여도가 매우 낮음	기여도가 대체로 낮음	보통	기여도가 대체로 높음	기여도가 매우 높음
①	②	③	④	⑤

문18) 대학 디자인 전공 교육에서 시급히 보강되어야 할 교육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시각화 및 표현 능력   | ② 디자인 관련 이론      |
| ③ 기획 및 마케팅 능력   | ④ 컴퓨터 활용 스킬      |
| ⑤ 외국어(어학) 능력    | ⑥ 커뮤니케이션 및 발표 능력 |
| ⑦ 디자인-타분야 융합 역량 | ⑧ 기타 ( )         |

문19) 귀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란

한 개인이 산업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입니다.

-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문19-1로  
⇒ 조사 완료

문19-1) 귀 기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어떤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는 업무를 활용도가 높은 순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경력개발경로 모형 설계  | ② 직무기술서 작성 |
| ③ 채용·배치·승진체크리스트 | ④ 자가진단     |
| ⑤ 교육훈련          | ⑥ 자격검정     |
| ⑦ 기타 ( )        | ⑧ 활용하지 않음  |

문19-2) 귀 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업무에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② 필요성을 느끼나 기관에 적합하지 않아서  
③ 필요성을 느끼나 활용 방법을 몰라서  
④ 기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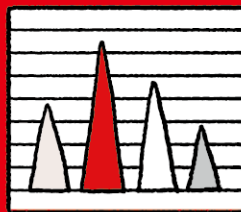
♣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2018 산업디자인통계조사

2018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

연구진	송현민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경영본부	본부장
	허 석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경영본부	전략기획실장
	조아라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경영본부	전략기획실 주임연구원
	이양숙	한국디자인진흥원	위촉연구원	
	문은정	한국디자인진흥원	위촉연구원	
발행처	한국디자인진흥원	전략경영본부	전략기획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한국디자인진흥원			
전 화	031-780-2115			
웹사이트	한국디자인진흥원	<a href="http://www.kidp.or.kr">www.kidp.or.kr</a>		
	디자인DB	<a href="http://www.designdb.com">www.designdb.com</a>		



# 2018 산업디자인 통계조사

2018 KOREA DESIGN STATISTICAL DATA